


향토문화자료 18

내고장 龍仁

金石文總覽

龍仁文化院
鄉土文化研究所

 용인시립도서관



EM64365

이

백

향토문화자료 18

내고장 龍仁
金石文總覽

龍仁文化院
郷土文化研究所

이

백

발 간 사

생거진천 사거용인 이란 옛말이 있듯이 우리 용인 지방은 지리적으로 분지를 형성하고 있어 예로부터 명당이 많기로 손꼽혀 왔습니다.

조선시대 6백여년의 풍운과 함께 고려시대로부터 한 세대를 경장하던 명신 유현등의 분묘와 거기 새겨진 당대 석학들이 남긴 주옥같은 문장은 사실의 기록일 뿐 아니라 한국학을 연구하는 귀중한 사료들로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금석문들이 아직까지 조사 정리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풍마우세로 마멸되어 판독이 어려운 싯점에 이르렀고 이러한 유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에 새겨진 글씨를 탁본으로 옮겨서 원형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번역하여 한국학과 향토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공여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책을 간행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책이 간행되기까지는 4년여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본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이웅준 전임 소장과의 현 이인영 소장의 주도하에 본 사업을 착수하여 111건에 이르는 비석의 탁본, 문안의 이기와 번역에 이르기 까지 금석문 자료의 조사와 정리를 위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예강환 용인 시장님과 이정문 용인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본 자료의 간행을 위해 지원해 주신 경기문화재단에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00년 1월 31일

용인문화원장 이 현 규

축 간 사

예로부터 용인은 산자수명하고,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해온 살기좋은 고장이었으며, 최근에 이르러 뛰어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망, 산학연구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가장 각광받는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새 천년을 맞아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몽승첩의 처인성지와 정몽주 묘 등 수많은 문화재는 후세의 자랑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고려·조선을 거치는 동안 명현 석학의 금석문이 우리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어 일세를 풍미했던 한시대의 사실을 알려주고 역사의 교훈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석문은 한시대의 어떠한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은 사료로서, 서체는 금석학에서, 그리고 귀부와 이수는 미술사분야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고장의 역사를 재 조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산야에 묻혀 세월과 풍설에 마모, 훼손되어 가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금석문을 정리·보존하여 향토사연구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금석문총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는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지속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 총람이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조사·탁본·번역에 애써주신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이인영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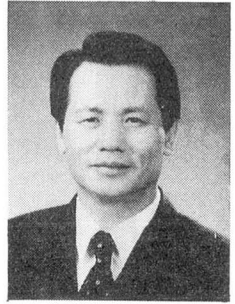
2000년 1월 31일

용 인 시 장 예 강 환

축 간 사

먼저 향토문화자료 「내고장 용인 금석문총람」이 발간 되기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 진천, 죽어 용인”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유래 해온 바 있듯이 좋은 음택이 많았던 우리고장에는 여러 가지 묘비를 비롯하여 각종 비문들이 산재해 왔습니다.



역사성과 문화성을 갖춘 이러한 비문들이 오래 보존 되어야겠지만 안타깝게도 유구한 세월이 흐르다보면 훼손을 면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어도 그나마 남아있는 형태를 온전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료집 발간이 유일한 방법이라 믿습니다.

더욱이나 관내의 모든 비문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총람집으로 엮어졌음은 향토사에 관심을 둔 분들뿐만 아니라 전시민에게 용인의 문화와 역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길을 밝혀 준 쾌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본 「내고장 용인 금석문 총람」은 35만 시민들에게 자부와 긍지를 심어주고 애향심을 높여주는 훌륭한 자료로 활용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보다 심도있는 향토사의 재조명이 활발히 이루어져 용인의 역사와 문화가 널리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월 31일

용인시의회 의장 이 정 문

이

백

용인시 금석문 총람

비 명	지은이	소 재 지	
공서린 신도비	공순택	남사면 완장리	1
곽원진 신도비	곽 찬	백암면 백봉리	8
김세필 신도비	송시열	수지읍 죽전리	13
김 저 묘비	이노영	수지읍 죽전리	21
김 저 묘표	김종수	수지읍 죽전리	25
남 식 묘표	남구만	남사면 창리	31
남일성 묘갈	남구만	남사면 창리	36
남 은 묘표	남구만	남사면 창리	42
민승호 묘갈	김영주	구성면 상하리 민재궁	44
민씨 천표	이 재	이동천리	52
박씨 묘지	이 재	이동천리	57
박원형 신도비	이승소	백암면 고안리	60
박 은 묘표	이병모	양지면 식금리	66
안응창 묘지	이봉징	삼가동	72
양구주 묘표	김영환	양지면 대대리	78
여씨 묘표	오명준	모현면 능원리	84
오달제 신도비	김조순	모현면 오산리	94
오달제 부인 묘지	오경원	모현면 오산리	104
오달천 묘표	오도일	모현면 오산리	108
오명항 묘갈	이종성	모현면 오산리	112
오옥정 묘지	오명신	원삼면 죽능리	120
오윤경 묘갈	김상현	모현면 오산리	124
오윤경 묘지	남구만	모현면 능원리	138
오윤충 묘지	이유원	원삼면 죽능리	154
유복립 묘갈	유 휴	양지면 송문리	158

비 명	지은이	소 재 지	
유형원 묘표	홍계희	백암면 석천리	162
윤 염 묘표	윤행임	구성면 청덕리	170
윤중덕 묘표	윤신각	원삼면 두창리	175
윤행엄 묘갈	윤행임	구성면 청덕리	176
이경장 묘표	송기수	모현면 능원리	180
이경증 신도비	권상하	기흥읍 영덕리 덕곡	182
이 계 신도비	신 흥	모현면 능원리	203
이귀령 묘표	이병대	이동면 서리	216
이 기 묘갈	홍성민	모현면 능원리	218
이단상 묘지	김수항	모현면 능원리	222
이 루 묘갈	이이장	기흥읍 지곡리	233
이만성 신도비	이 재	이동면 천리	236
이만징 묘지	이 재	이동면 묵리	247
이만창 묘지	이 재	이동면 천리	250
이문주 묘갈	김상정	이동면 묵리	255
이 발 묘표	이도복	모현면 오산리	265
이봉구 묘갈	이병목	양지면 양지리	268
이봉조 묘표	이정심	양지면 양지리	271
이 빈 묘표	이학우	모현면 능원리	275
이상성 묘갈	이정인	이동면 천리	277
이석지 묘표	송내희	양지면 주북리	281
이석형 묘표	이희조	모현면 능원리	285
이석형 신도비	신익성	모현면 능원리	290
이수민 묘갈	이 재	이동면 묵리	306
이수장 묘표	이 황	모현면 능원리	312
이 속 묘표	이 재	이동면 천리	315
이순장 묘표	이정구	모현면 능원리	324
이시정 묘지명	송시열	모현면 능원리	327
이시직 묘갈	김상헌	모현면 능원리	333

비 명	지은이	소 재 지	
이식 묘지	이성진	구성면 청덕리	343
이씨 묘표		남사면 창리	347
이에견 묘갈	이이장	기흥읍 지곡리	349
이 완 묘지	이한일	구성면 청덕리	357
이 완 묘표	이헌진	수지읍 고기리	359
이용규 묘표	이조연	양지면 주북리	363
이원발 신도비	이병관	이동면 서리 불당골	366
이유겸 묘표	이 재	이동면 천리	374
이유겸 신도비	송시열	이동면 천리	379
이 익 묘표	이 재	이동면 천리	385
이자견 묘갈	조 경	수지읍 성북리	391
이 자 묘갈	이해찬	기흥읍 지곡리	399
이 재 묘갈	오희상	이동면 천리	404
이주국 신도비	송환기	원삼면 운촌리	417
이중인 묘표	이세희	기흥읍 영덕리	437
이 증 묘갈	남 곤	역북동	440
이천기 묘지	이 재	양지면 추계리	445
이태용 묘비	이병욱	용인시 남동	452
이현보 묘갈	이행원	양지면 추계리	455
이호정 묘비	윤희구	이동면 천리	458
이 훈 묘표	이희조	모현면 능원리	461
이 휘 묘지	이 재	이동면 천리	462
이희담 묘지	이성진	구성면 청덕리	466
임 정 신도비	김용준	이동면 묘봉리	471
정규징 묘갈	이 재	모현면 능원리	480
정덕징 신도비	이 재	모현면 능원리	484
정도징 묘갈	이 재	모현면 능원리	492
정몽주 묘지명	이 재	모현면 능원리	495

비 명	지은이	소 재 지	
정몽주 신도비	송시열	모현면 능원리	502
정 보 묘표	이민보	모현면 능원리	511
정 상 묘갈	정일하	모현면 능원리	514
정옥형 신도비	홍 섬	양지면 양지리	518
정윤복 신도비	정경세	포곡면 전대리	527
정응두 신도비	남구만	양지면 양지리	535
정 준 묘표	이 재	모현면 능원리	541
정호선 신도비	이 준	포곡면 전대리	544
조광조 묘표	이산해	수지읍 상현리	562
조광조 신도비	노수신	수지읍 상현리	563
조 변 신도비	채제공	포곡면 영문리	579
조 사 묘갈	조익원	모현면 능원리	585
조 씨 묘표	이 재	구성면 상하리	589
조 씨 묘표	이 기	모현면 능원리	594
조종정 묘표	윤현주	이동면 서리	596
조종희 묘표	조경진	원삼면 학일리 고치동	597
채제공 뇌문비	정조대왕	역북동	605
최내길 묘지명	정두량	기흥읍 공세리	609
최사옹 묘갈	송하영	기흥읍 공세리	612
최사위 묘갈	최속찬	기흥읍 공세리	616
최유경 묘지명	변계량	기흥읍 공세리	623
한명윤 신도비	심주택	구성면 보정리	634
한의중 신도비	한규철	구성면 상하리	649
한현모 묘갈	남유용	남사면 창리	651
한후유 묘표	한용구	남사면 창리	666
허 업 신도비	노수신	원삼면 맹리	671
현오국사탑비	이지명	수지읍 신봉리	685
홍계희 묘갈	홍계능	모현면 일산리	692
황씨 묘지	이 재	이동면 천리	699



포은 정몽주선생 묘



포은 정몽주선생 신도비각



포은 정몽주선생 신도비(비각건립전 모양)



포은 정몽주선생 묘표



구성부원군 이 중 인 묘



이 석 지 묘 비



남 은 묘 비



현 오 국 사 탐 비



현 오 국 사 탐 비 비 각



김 세 필 신 도 비



박 원 형 신 도 비



박 은 묘갈



오 달 제 신도비



오명항 묘 및 비갈



오윤겸묘



오윤겸묘갈



유형원 묘



유형원 묘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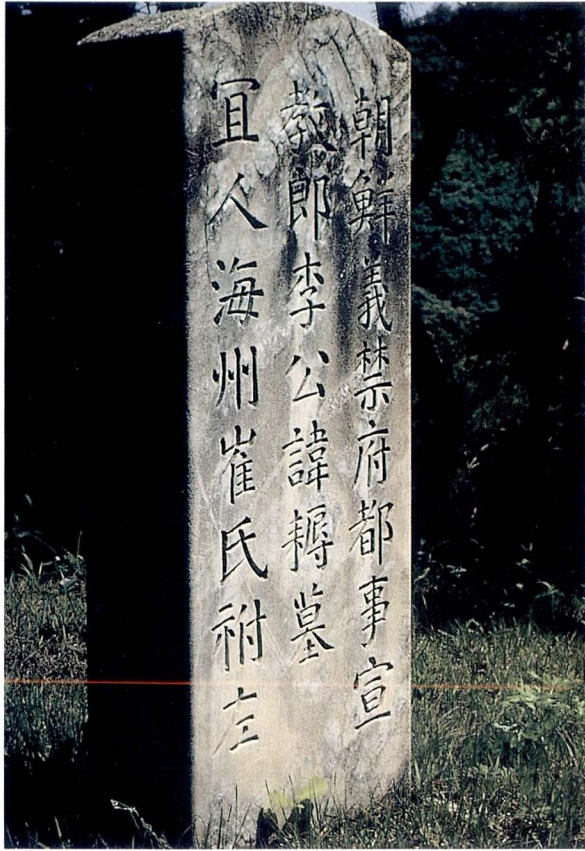
이거령 묘표



이 단 상 신도비



이 석 형 신도비



이 루 묘갈



이 시 직 묘갈



이 에 견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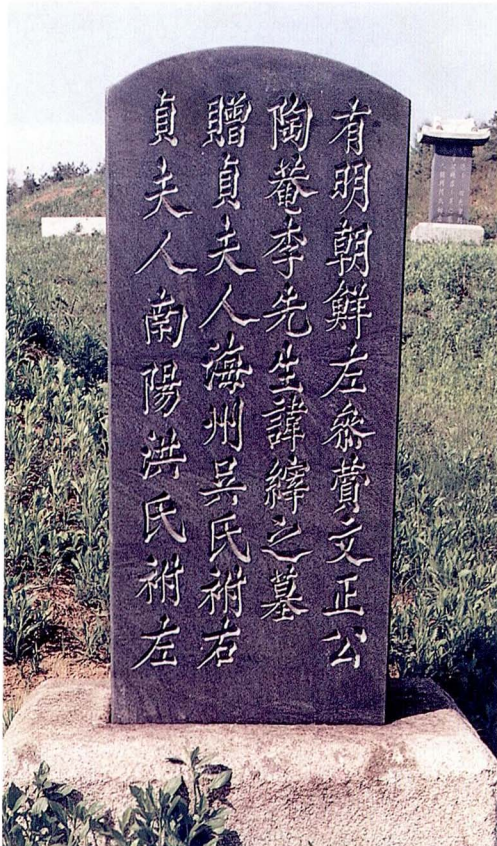
이 에 견 묘표



이 속 묘갈



이 재 묘



이 재 묘갈



이 완 장군 묘표



이 유 경 신도비



정 도 징 묘갈



정옥형 · 정응두 신도비



이 주 국 신 도 비



조 광 조 신도비



조 광 조 묘표



조 중 회 묘 및 묘갈



풍창부부인 조씨 묘비



채제공 뇌운비



최 유 경 신도비



허엽 신도비

이

백

공서린(孔瑞麟) 神道碑

仲尼後六十二世有
君子者顯於箕邦曰
休岩先生諱瑞麟字
希聖孔氏之系見於
太史公世家降而在
漢爲

僖安國褒與融唐有
穎達宋有道輔元明
之際微焉非無人也
其賢不足世其家也
至諱紹衍聖公浣之
諸子

仕元爲貴臣見元政
亂東使於高麗留不
歸恭愍王封之昌原
譜始此孫俯取正考
父鼎銘以自名其清
直聞於時

入本朝 太宗以提
學徵不起是號漁村
七傳而至公公與漁
村皆賢者也周內史
過有言曰物莫能兩
大所以中

중니(孔子)후 62세(世)로 군자가 있어 기방에서 현달하였으니 이분이 휴암거사 휘(諱) 서린으로 자(字)는 희성이다. 공씨(孔氏)의 세계(世界)는 『태사공세가』에서 강세(降世)함을 보건대 한(漢)나라 때에는

희안공이 국가에서 포상을 받아 현출하였고, 당나라 때에는 영달함이, 송나라 때에는 도보함이 있다가 원나라와 명나라 때에는 미미하여 뛰어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현량함이 가문에 비하여 전해 내려움이 부족하였다. 휘 소연에 이르러서는 성공 완의 제자(諸子)로

원나라에서 벼슬하여 귀한 신하가 되었으나 원나라에서 정치적인 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동쪽으로 고려에 사신으로 와서 머무르며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공민왕은 창원으로써 봉하고 비로서 관직을 삼게 하였으니 그 손자가 부(俯)인데, 아버지의 정명(鼎銘)을 정고하여 스스로 이름을 삼았으며 이때 그 청직(淸直)함으로 명성을 들었다.

본조에 들어와서는 태종이 제학으로 조정에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그 호를 어촌이라고 하였다. 7세를 전하여 공에 이르렀는데, 공(公)은 어촌과 더불어 모두 어진 사람들이었다. 사화가 일어나 주내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르기를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편이 모두 클 수 없는 까닭이니

國之孔氏衰而汨于東者若是著乎自縣監贈兵曹判書諱義達兵曹參判諱悌老溯至于諱淑禮曹判書

公以上三世也妣竹山朴氏郡守元仁女也公以成化癸卯生於水原之文公山下稟性正直好讀書及長學於

寒暄先生之門與靜菴先生爲麗澤友中宗丁卯舉進士旋擢庭試亞元己巳以郎官入對清撤法筵女樂未幾

除司諫院正言極言時政得失又請罷忌辰齋及內需司行弘文館修撰戊寅陞吏曹參議遷大司諫疏論三公

才器其略曰鄭光弼有宏厚夷曠之度申用漑英豪超邁長於辦事而發言率意不深於謀猷安塘操心處事

중국에서 공씨가 쇠퇴하고 동쪽으로 들어와 이와같이 뛰어났구나“라고 하였다. 이에 현감을 지내고 병조판서에 증직된 휘(諱) 회달, 병조참판을 지낸 휘(諱) 제노(悌老), 거슬러 올라가면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낸 휘(諱) 숙(淑)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공(公)은 윗 대(代) 3세(世)이다. 비는 죽산박씨로 군수(郡守) 원인(元仁)의 따님이다. 공(公)은 성화(成化) 계묘년(1483년, 성종 14)에 수원의 문공산(文公山)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품성(稟性)이 정직(正直)하고 독서(讀書)를 좋아하였다. 성장하면서 부터는

한훤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靜菴先生과는 여택의 친구가 되었다. 중종(中宗) 정묘년(1507년, 중종 2)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연이어 정시에서 아원으로 급제하였다. 기사년(중종 4) 낭관으로서 입대하여 법연(法筵)에서 여악(女樂)을 철폐하도록 청하였으며 얼마후에는

사간원정원을 제수하여 시정의 득실을 극언하였고 또 기신제와 내수사의 혁파를 청하기도 하였다. 행 홍문관수찬으로 있다가 무인년(1518년, 중종 13)에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승진하였다. 대사헌으로 옮겨서는 삼공의

재기를 논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대략을 말하면 “정광필은 핑후하고 이광은 도량이 있고, 신용개는 영호하고 초매하여 변사(辦事)에는 길지만 발언이나 술의함과 모유(謀猷)함에는 깊지 못하며, 안당(安塘)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 조심합니다.

克愼克審但無師友
之力不能虛受國論
又曰善類登崇俊父
布列見善必褒嫉惡
如仇而患得失之輩
見屈散地

指斥清沔更相標榜
自生疑訝云初袞貞
輩毀靜菴諸賢飛語
日騰鄭文翼申文景
安貞愨並居台輔務
主鎮

安公奮然曰不塞其
源其流不止遂抗章
辨之群小側目時李
公世仁亦敢言不諱
人爲之語曰老而愚
者李世仁

少而愚者孔瑞麟盖
譏其不能脂韋汨稽
與世浮沉故謂之愚
孰知其愚爲不可及
也己卯爲左承旨就
直十月

既望之夜袞貞等潛
從神武門入誣告靜
菴諸賢喉院不知也
公蒼黃詣閣下袞貞

극신과 극변은 단지 스승이나 친구의 도움이 없으면 국론을 허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선류를 등용하여 승존하고 준예를 포열(布列)시키며 선한 것을 보면 반드시 포상하고 질오(姪惡)함은 원수와 같이 여기실 것이며, 득실지배가 산지를 견굴(見屈)함을 근심하여

청류를 지적하고 다시 서로 자생(自生)하였음을 표방(標榜)하는 것이 의아(疑訝)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처음에 곤·정 등의 무리가 정암 등 제현을 험담하여 비어가 날마다 등비하자 문익공 정공(鄭光弼)·문경공 신공(申用漑)·정민공(貞愨公) 안공(安塘) 등은 함께 태보(台輔)에 있으면서 이를 진정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안공이 분연(奮然)히 말하기를 “그 근원을 막지 못하면 그 흐름 또한 그치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마침내 장표로 항거하며 이를 변론하니 군소들은 측목하였다. 이때 이공 세인 또한 감히 말을 함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말을 꺼리지 않고 이르기까지 “늙었으나 어리석은 자는 이세인이요,

젊으나 어리석은 자는 공서린(孔瑞麟)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그 살과 가죽 세상과 함께 부침(浮沈)하는 까닭에 이를 일러 어리석어도 누가 그 어리석음을 알고 가히 미치지 않게 하겠는가! 기묘년(己卯年:1519년, 중종 14) 좌승지(左承旨)가 되어 숙직하고 있던중 10월

기망일 밤에 곤·정 등의 무리가 몰래 신무문(神武門)을 통해 들어가 정암(靜菴:趙光祖) 등 제현(諸賢)을 무고(誣告)하였으나 후원(喉院:承政院)은 알지 못하였다. 이에 공(公)은 창황(蒼黃)

張燭坐公直前詰其狀哀孰

視不語俄而命下公及諸承旨柳仁淑等皆下獄遂奪致靜菴冲齋諸賢卽夜將殺之賴元輔文翼公入對涕泣

苦諫諸賢並減死杖流竟賜死公坐發者久癸巳鉤黨稍解修撰具壽聃李俊慶等爲公言上欲用之值

金安老用事復黜安老死乃敍戊戌除京畿監司大司憲明年除黃海監司明年還又明年卒實辛丑元日也

葬于龍仁完庄洞枕坎原墓前舊有剝落短碣特書平生清苦四字卽公遺命所以明其志也配坡平尹氏府使承世女

히 합하(閣下)에게 나아가 곤·정(袞·貞) 등이 연루되었다고 알리고 바로 앞에서 그 상황을 힐난(詰難)하였으나 곤(袞) 등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말하지 않았다.

갑자기 왕명(王命)이 공(公)과 여러 승지(承旨), 유인숙(柳仁淑) 등에게 미쳐 모두 하옥(下獄)되었다. 마침내 정암(靜菴: 趙光祖), 충재(冲齋: 權撥) 등 제현(諸賢)들을 장차 밤에 죽이고자 하여 원보(元輔) 문익공(文翼公: 鄭光弼)을 믿고 입대(入對)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제현(諸賢)들을 고간(苦諫: 고충을 다하여 간절히諫함)하여 모두 감사(減死)하여 장류(杖流)한다고 하였으나 마침내 사사(賜死)하였고 공(公)은 폐출(廢黜)당한지 오래였다. 계사년(癸巳年: 1553년, 중종 28) 구(鉤)의 당(黨)이 점차 쪼개지려함에 수찬(修撰) 구수담(具壽聃)과 이준경(李俊慶) 등이 공언(公言)하여 왕께서 이를 쓰고자 하였으나

김안노(金安老)가 죽자 이내 서용(敍用)되었다. 무술년(중종 33) 경기감사(京畿監司)와 대사헌(大司憲)을 제수하였고 이듬해에는 황해감사(黃海監司)를 배수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다시 내직(內職)으로 돌아왔다가 명년(明年)에 돌아가시니 실로 신축년(중종 36) 원일(元日: 정월 초하루)이다.

용인(龍仁) 완장동 칩가의 언덕에 장례하였는데,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박락(剝落)된 단갈에 “평생을 청렴하면서도 부지런하였다. [平生清苦]”는 녀자(字)가 특별하게 씌여 있었으니 이것은 공(公)의 유명(遺命)으로 그 뜻을 밝힌 것이었다. 배는 파평윤씨로 부사 승세(承世)의 따님이자

大司憲侃孫生二子
謙參奉諶監察其後
久不振幾不知世有
昌原譜 英宗丙寅
上念公名節特

贈吏曹判書兼兩館
大提學至 先朝封
顯隆於水原路出九
井村西及公舊基也
上每輦過感公爲名
臣而

其姓有自卽其地勅
闕里祠以祀夫子乃
諡公曰文獻錄公後
以宗孫胤道及允東
爲參奉胤恒尋登文
科

皆公以下幾世也今
距先生三百年矣其
嘉言善行殆湮沒無
傳如己卯錄所記特
大略耳權忠定撥金
思齋正國己卯遺

直於公爲後死忠定
師友錄曰公募言端
重剛直敢言不屑屑
於小節思齋輓公詩

대사헌 간(侃)의 손녀이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겸(謙)은 참봉(參奉)이고 심(諶)은 감찰이다. 그 후손들이 오래도록 현달하지 못하여 창원보(昌原譜)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영조(英祖) 병인년(1746년, 영조 22) 왕께서 공(公)의 명절(名節)과 예와 節操)을 생각하시어 특별히

이조판서 겸(謙) 양관대제학을 증직(贈職)하시었다. 선조(先朝: 正朝)에 이르러서는 수원의 요충 구정촌(九井村)에 현릉(顯隆)을 봉(封)하시었으니 이곳이 곧 공(公)의 구기(舊基: 옛 터)였는데, 왕께서 매양 가마로 지날 때마다 공(公)이 명신(名臣)이었음을 감개(感慨)하였고,

그 성(姓)이 그 땅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궐리사(闕里祠)를 창건하고 부자(夫子: 孔子)를 제사케 하였다. 그리고 곧 공(公)을 시호(諡號)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문헌(文獻)에 공(公)의 후손으로서 종손(宗孫) 윤동(允東)은 참봉(參奉)을 지냈고, 윤항(胤恒)은 이를 이어 문과(文科)에 등제(登第)하였으니

모두 공(公)이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까지의 횡수가 3백여년이다. 이에 그 가언과 선행(善行)은 거의 인물(湮沒)되어 전하지 않고 『기묘록』과 같이 기록된 바가 그 대략중 특별한 것이다.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撥)과 사재(思齋) 김정국(金正國)이 기묘년에 남긴 절개는

공에게서 계승되어 절개를 위해 죽었는데, 충정공(權撥)이 사우록에 이르기를 “공(公)은 말수가 적고 단중(端重)하였으며 강직하여 말이 감히 소절(小節)에도 설설(屑屑)하지 않았다”고 하

曰淵源尋泗洛事業
慕虞唐

以是質諸夫子之言
曰夫人不言言必有
中又曰其志嚶嚶
然曰古之人古之人
公其近之歟嗚呼靜
菴先生以

大賢之姿逢千一之
會慨然有志於三古
公於先生學同師仕
同道上下翱翔夾贊
明迂以風裁自持尤
嚴於

陰陽淑慝之際當是
時群彥彙登治道而
垂八九成而傷之者
至焉此志士仁人之
所悌也衰貞敗安老
繼之

爲君子者難乎免矣
惟公以清名峻節忤
小人殊甚然以前後
蒙雨難其受禍反輕
晚以乃享若將有爲
也而天又

였다. 사재(金正國)는 공(公)을 기리는 만시에 이르기를 “연원은 사락(泗洛)의 사업(事業)에서 찾을 수 있고 우당을 사모하여

이로써 바탕을 삼았노라. 제부자의 말에 이르기를 부인(夫人)은 말하지 않으나 그중에도 반드시 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그 지조(志操)가 교묘한 사람을 고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지인에 공(公)이 가깝고도가깝도다. 오호(嗚呼)라! 정암선생(靜菴先生: 趙光祖)께서

대현의 자세로써 천일지회(千一之會)를 만나 개연히 삼고(三古)에 그 뜻을 두었으니 선생에게 공(公)은 학문에 있어서는 동사(同師)요, 관로(官路)에 있어서는 동도(同道)였다. 이에 상하가 고상(翱翔: 발호함)하여 명왕(明迂)을 협찬함에 풍재(風裁: 뛰어난 식견)를 스스로 지켰다.

음양(陰陽)에 있어서는 더욱 엄하였는데, 속특(淑慝: 선행과 악행)의 때였던 당시에 군언(群彦)의 무리들이 치도(治道)를 성취하여 거의 열에 팔·구를 이루었으나 여기에서는 상처를 입었으니 이것은 지사(志士)와 인인(仁人)이 흘리는 눈물이다. 곤·정(衰·貞)이 패하고 안노(安老)가 이를 계승하여

군자(君子)가 된 사람으로서는 난면(難免: 면하기 어려움)하였다. 그러나 오직 공(公)은 청명(淸名)과 준절(峻節)로 소인(小人)을 미워함이 매우 심하였다. 전후로 양난(兩難)을 겪어 그 화(禍)를 입었어도 도리어 가벼이 여겼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를 누림을 마치 유위(有爲)와 같이하여 하늘 또한

嗇之壽豈非命哉昔
仲尼反袂以泣麟傷
其出之不時也若公
之生其以時耶其不
以時耶銘曰

彼君子者其佩纚纚

何斯取斯而友而師

世溷濁矣清而揚之

惟謂其苦我則如飴
惟其好之是以能持
其風之自俟百乎而

吏曹判書孝文公柯
汀趙鎮寬 謹撰

先聖誕降紀元二千
五百二十二年辛亥
三月 日立

十四代孫校官順澤
謹書

十四代孫壹泳謹篆
十四代孫監司繼泳
十三代孫監役錫泰

이를 인색하였으니 나이도 어찌 명(命)을 하했겠는가! 옛날 중니가 소매를 덮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린이 상하면 그 나갈 때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공(公)의 삶은 그 때로써 살펴보면 때가 아니었도다! 명(銘)하노니

저 군자(君子) 그 패은(佩恩:입은 은혜를 잊지 아니함) 재재(纚纚:근근히, 조금)하여

무엇을 취하여도 교우(交友)요 사부(師父)였다네

세상이 혼탁(溷濁:어지럽고 흐림)하여도 청명(淸明)으로 떨쳤으니

누가 그 고생이 나에게 미쳤다고 이르겠는가

오직 그 좋아하는 것으로 지탱하였으니

그 풍상(風尙:높은 지조)을 기다림에 백년이 걸렸다네

이조판서(吏曹判書) 효문공(孝文公) 가정(柯汀) 조진관(趙鎮寬)은 삼가 글을 짓고

선성(先聖:孔子) 탄강(誕降) 기원(紀元) 2522년
신해년(辛亥年:1911) 3월 일 세우다.

14대손(孫) 교관(校官) 순택(順澤)은 삼가 글을 쓰고

14대손(孫) 일영(壹泳)은 삼가 전액(篆額)을 하다.

14대손(孫) 감사(監司) 계영

13대손(孫) 감역(監役) 석태(錫泰)

곽원진(郭元振) 神道碑

高麗成均館祭酒進
賢館大提學苞山君
諡文獻石川郭先生
神道碑銘 并書

故麗朝名臣成均館
祭酒進賢館大提學
郭公衣履之藏在陽
智縣今屬龍仁東南
三十里大德山西麓
面申之原望之若堂
若斧

其初禮葬也隧道宜
有刻而尙闕爲或者
當時未遑耶年久而
湮於草萊耶凡裔於
公者皆恨之曰子姓
之蕃庶殆滿萬計莫
非公德蔭攸庇山無
片石何以詔後遂伐
貞珉屬不肖識之

嗚呼慕文賤諛而貴
實欲從實乎則生卒
乏徵踐歷欠攷欲從
諛乎則架虛鑿空不
肖不屑爲之操此筆
誠難矣無已則寧簡
乎

고려 성균관 재주 진현관 대제학 포산군 시 문
헌공 석천 곽선생 신도비명 병서

옛 고려조 명신 성균관 재주(祭酒) 진현관(進賢
館) 대제학 곽공(郭公) 의리지장(衣履之藏)이
양지현(陽智縣: 지금은 용인에 속함) 동남 30리
되는 대덕산(大德山) 서록(西麓) 신향(서남서)의
언덕에 있어 바라보면 당(堂: 원형의 무덤)과도
같고 부(斧: 방형의 무덤)와도 같아 보인다.

당초 예장(禮葬)이 었으니 수도(隧道: 神道)에
의당 비각(碑刻)이 있었을 터인데 지금은 없으
니 혹 당시에 경황이 없었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오래되어 풀속에 묻혀 버렸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공의 자손들은
모두 한스럽게 여겨 이르기를 「자손의 불어
남이 거의 만(滿)으로 헤아릴 수 있음은 공의
덕음(德蔭)의 감쌈이 아닌바가 없는데 묘소에
는 편석(片石) 조차 없으니 어떻게 후손을 훈
계할 것인가」 하였다. 드디어 돌을 다듬고 불
초더러 기록하라 하였다.

오호라 묘문(墓文)이란 유(諛: 거짓을 꾸며서
치겨세움)를 천히 여기고 실(實)을 귀히 여기
는 것인데 실을 따르자니 생졸(生卒)은 징신
(徵信)이 없고 이력(履歷)은 상고할 바가 없으
며 유(諛)를 따르자면 가허(架虛)와 착공(鑿空
: 같은 뜻)을 하여야 하는데 그질은 불초가 하
기 싫은 바이니 붓을 들기가 참으로 난감하다.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다면 차라리 간명(簡明)
하게 하여야 하겠다.

公諱元振號石泉系
出玄風玄風之古號
曰苞山上祖苞山君
諱鏡本中朝人出仕
勝國以所封邑爲貫

自是勳德相承遂爲
東方望族曾祖諱基
正吏部尙書苞山伯
諱靖簡祖諱膺門下
贊成事考密直副使
諱敦孝聘安東金氏
主簿熙之門生公公
之名大而遠謹按麗
史忠烈王朝以總郎
奉使如元 忠宣王
朝爲佐代信

大東韻玉曰集賢提
學輿地勝覽曰成均
館祭酒通憲大夫進
賢館提學東史寶鑑
曰進賢館大提學苞
山君此其從政之大
槩也

名臣錄曰潛究性理
演解六經其學術之
精深可知矣 忠肅
王朝賜諡以文憲命
旌以忠孝其文行之
超邁可知矣

공의 휘(諱)는 원진(元振)이요 호는 석천(石川)
인데 현풍(玄風)에서 계출(系出)하였다.

현풍의 고후(古號)는 포산인데 상조(上祖)인 포
산군(苞山君) 휘 경(鏡)은 본시 중조(중국) 사람
으로 승국(勝國: 고려를 말함)에 나와 벼슬하여
소봉(所封)된 고을로 관향을 삼았다.

이로부터 훈덕(勳德)으로 상승(相承)하여 드디
어 동방(東方)의 망족(望族)이 되었는데 증조
휘 기정(基正)은 이부상서(吏部尙書:苞山伯)으
로 시호(諡號)는 정간(靖簡)이요, 조(祖)의 휘는
응(膺)이니 문하찬성사이며 고(考)는 밀직부사
(密直副使) 휘 돈효(敦孝)이니 안동김씨 주부(主
簿) 희(熙)의 가문에 취처하여 공을 낳았는데
공의 이름은 크게 멀리 알려졌다. 고려사를 상
고하여 보건데 충렬왕조(忠烈王朝)에는 총랑(總
郎)으로 사명(使命)을 받들고 원(元)나라에 갔었
고, 충선왕조에는 좌대언(左代言)이 되었다고 하
였다.

대동운옥(大東韻玉)에는 집현제학(集賢提學)이라
하였고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성균관 제주 통
헌대부(通憲大夫) 진현관(進賢館) 제학(提學)이
라 하였으며 동사보감(東史寶鑑)에는 진현관 대
제학 포산군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공의 종정(從
政:이력)의 대략이다.

명신록(名臣錄)에는 성리(性理)를 잠구(潛究)하
고 육경(六經)을 연해(演解)하였다 하였으니, 학
술의 정심(精深)하였음을 가히 알 수 있겠고 충
숙왕조(忠肅王朝)에는 문헌(文憲)이란 시호를
내리고 충효를 정표(旌表)하라 명하였으니 문행
(文行)이 초매(超邁)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金潛谷類苑叢寶曰
郭某喜施與年十六
居太學有一士人貧
甚父祖以上五世未
葬來乞助公與之無
吝不質名氏其器度
之寬洪又如此顧何
敢妄加一字自束溢
美之譏哉

公凡三取咸受郡夫
人封白川趙氏評理
雲卿女墓失護仁同
張氏別將元佑女墓
合祔陽川許氏文華
女墓失護

二男長忠貫太中大
夫尙書左丞娶安東
金氏樂安君之謙女
次忠敬兵部尙書

二女長適密直副使
安東金箴有四子曰
士謙士廉士安士衡
俱躋清顯次適保勝
郎全州崔侗有子曰
正臣中郎將忠貫男
郭推忠翊戴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守司徒都僉議事苞

김잠곡(金潛谷 : 金埴)의 유원총보에 이르기를
「곽모(郭某)는 남에게 시여(施與 : 베푸는 것)
하기를 좋아하여 나이 16세에 태학(太學 : 성균
관)에 있는데 한 선비가 가난이 극심하여 부조
(父祖) 이상의 5세를 장례지내지 못했다고 공
을 찾아와 구조를 요청하니 공이 서슴없이 돈
을 내어주고 성명도 묻지 않았었다」 하였으
니 그 기도(器度)의 넓음도 이와 같았는데 어
찌 감히 망녕되이 한 자라도 더 보태어 일미
(溢美 : 지나치게 미화함) 한다는 비방을 자초
하겠는가?

공은 무릇 삼취(三娶)를하여 모두 군부인(郡夫
人)으로 봉호(封號) 받았는데 배천조씨(白川趙
氏)는 평리(評理) 운경(雲卿)의 따님으로 묘는
실전되었고 인동장씨(仁同張氏)는 별장(別將) 원
우(元佑)의 따님인데 묘는 합부(合祔)하였으며,
양천허씨(陽川許氏)는 문화(文華)의 따님으로 묘
는 실호(失護)하였다.

2남 중 맏이 충관(忠貫)은 태중대부(太中大夫)
상서좌승(尙書左丞)인데 안동김씨 낙안군(樂安
君) 겸(謙)의 따님을 취하였고 다음 충경(忠敬)
은 병부상서(兵部尙書)이다.

2녀 중 맏이는 밀직부사(密直府使) 안동(安東)
김장(金箴)에게 출가하여 4자를 두어 사겸(士
謙), 사렴(士廉), 사안(士安), 사형(士衡)인데 모
두 청현(淸顯)의 지위에 올랐다.

다음은 보승랑(保勝郎) 전주(全州) 최전(崔侗)
에게 출가 하였는데 아들 정신(正臣)은 중랑장
(中郎將)이다. 충관(忠貫)의 아들 부(郭)는 추
충익대공신(推忠翊戴功臣) 삼한삼중대광(三韓
三重大匡)에 사도·도첨의사(司徒·都僉議事)를
수(守)하고 포산군(苞山君)에 봉해졌으며, 시호

山君諡忠簡以忠孝
旌閭娶順興安氏文
順公遷女寔文成公
裕之孫也

舉四男居仁典理判
書游義游禮并典工
判書游信工部典書

以下代不乏賢享院
者十二府使都監司
湖司諫宗院掌令宗
藩執義漢哲佐郎期
壽僉正興懋生員瀚
應教天衢僉樞維藩
參奉嶠士人后泰立
殮者八司直舜成進
士壽岑防禦使嶸郡
守嶮承旨邦郁都事
載祥士人仁孫康華
策勳者十四節度使
自安習讀連城主簿
好禮佐郎仁居府使
邦鍵宣傳官宗文郡
守止善主簿應龍佐
郎峯通德郎次城郡
守罔司直信章知樞
千重通德郎後天敵
愾有主簿鎮邦獻納
聖龜

(諡號)는 충간(忠簡)이요. 정려(旌閭)가 내려 졌는데 순흥 안씨 문순공(文順公) 천(遷)의 따님을 취하였으니 이는 문성공(文成公) 유(裕)의 손녀이다.

4남을 두었는데 거인(居仁)은 전리판서(典理判書)은 유의(游義), 유례(游禮)는 모두 전공판서(典工判書)이며 유신(游信)은 공부전서(工部典書)이다.

이하에도 대(代)마다 어진이(어진이가) 떨어지지 않아 서원(書院)에 제향(躋享)된 분이 열둘이니 부사(府使), 도(都), 감사(監司), 호(湖), 사간, 종원(宗元) 장령 종번(宗藩), 집의 한철(漢哲), 좌랑기수(期壽), 첨정(僉正) 흥무(興懋) 생원 한(瀚) 응교 천구(天衢) 첨추(僉樞) 유번(維藩) 참봉(參奉), 진(嶠), 사인(士人), 후태(后泰)요, 입근자(立殮者, 死節者)가 여덟이니 사직(司直), 순성(舜成) 진사 수잠(壽岑), 방어사 영(嶸), 군수 룬(嶮), 승지 방욱(邦郁), 도사 재상(載祥), 사인(士人) 인손(仁孫), 강화(康華)이며

책운자(策勳者)가 열넷이니 절도사 자안(自安), 습독(習讀), 연성(連城), 주부 호례(好禮), 좌랑인거(仁居), 부사, 방건(邦鍵), 선전관 종문(宗文), 군수 지선(止善) 주부 응룡(應龍), 좌랑 음(峯), 통덕랑 차성(次城), 군수 경(堦), 사직, 신장(信章), 지주(知樞), 천중(千重), 통덕랑 후천(後天)이다. 적개(敵愾: 忠憤)에는 주부 진방(鎮邦), 헌납 성구(聖龜)가 있고

遺逸有參奉世平處
士嶮文學有教理天
豪察訪致堯生員鳳
齡孝行蒙贈旌者多
不勝記

是知培塿不生松栢
汚泥不産珠璧茲蓋
公裕昆之謨有以啓
之也公之不朽自足
并耀三光於揄揚乎
何有略掇其遺芬一
二謹三齋七沐而係
之銘曰

忠爲根孝爲源行特
於百國有乘野有史
名互乎億馬鬣一坏
瑞雲長冪龜頭三尺
藍風不剝行者式而
過曰彼大德山之阡
是大賢人之宅

後孫通訓大夫弘文
館校理知 製誥 璨
謹撰

後孫 泳敏篆

後學通政大夫原任
奎章閣延安 李義
國書

純宗丙寅嘉俳 立

유일(遺逸)에는 참봉 세평(世平), 처사 을(嶮)이 있으며, 문학에는 교리 천호(人豪) 찰방 치요(致堯), 생원 봉령(鳳齡)이 있고 효행으로 증직이나 정려를 받은 사람은 헤일 수 없이 많다.

이로써 배루(培塿: 작은 언덕)에는 송백(松栢)이 자라지 않고 오니에서는 주벽이 나지 않음을 알겠는데 이는 아마도 공이 후곤(後昆: 후손)에게 끼친 유모(遺謨)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니, 공의 불후(不朽)함은 스스로 삼광(三光: 日, 月, 星)과 아울러 빛날만 한데 유양(揄揚: 추켜세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유방(遺芳)의 한 두 가지를 간략하게 간추려 삼가 세 번을 재계(齋戒)하며, 일곱 번을 목욕하고 명(銘)하기를

충(忠)으로 근본을 삼고 효는 본원을 삼는 것이, 백행에 으뜸이 되나니, 나라에는 국승(國乘)이 있고 민간에는 야사(野史)가 있어 이름은 억만 년 이어지리라. 마렵(馬鬣: 무덤)의 한움큼의 흥엔 서운(瑞雲)이 길이 드리우고 구두(龜頭: 비석, 귀수 이부), 삼척은 남풍에도 깎임이 없으리라 행로자(行路者) 머리숙여 지나면서 저 대덕산 언덕은 대현인의 유택이라 말하리라.

후손 통훈대부 홍문관 교리 지제고 찬(璨) 삼가 짓고

후손 영민(永敏) 전액(篆額)하고,

후학 통정대부 원임(原任) 규장각 직각 연안 이의국(李義國) 쓰다.

순종 병인년 세움.

김세필(金世弼) 神道碑

十淸先生朝 京師
還到遼東聞北門禍
作先是陰崖李先生
耔松齋韓先生忠同
南袞赴燕袞病甚危
松齋曰這漢不死必
赤土類矣陰崖目攝
之而至誠救療至是
禍作袞與沈貞之爲
也

先生涕泣曰袞貞果
赤土類孝直何罪孝
直靜菴趙先生字也

奸黨固已啣之既畢
使入侍 筵席 上方
講論語至過勿憚改
先生進曰 殿下亦
有過矣向者趙光祖
等欲效唐虞之治
殿下尊寵信任之於
是新進之士處欲革
舊更新固有過激乃
竄逐殺戮是 殿下
之過大矣

십청 선생이 사은사로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동(遼東)에 이르러 북문의 화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앞서 음애(陰崖) 이자(李耔)
선생과 송재(松齋) 한충(韓忠) 선생이 남곤(南袞)
과 함께 북경에 갔는데 마침 남곤이 병을 앓아
위독하게 되었다. 송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이
죽지 않으면 반드시 사류(土類)를 전멸시킬 것이
다」라고 하자 음애가 눈짓하여 주의시키고 지성
으로 병을 구환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화가 일
어났으니 바로 남곤과 심정(沈貞)의 짓이었다.

선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남곤과 심
정이 과연 사류를 전멸시키는구나 효직(孝直)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하였는데 효직은 정
암 조선생의 자(字)이다.

간당이 본래부터 원망을 품고 있었는데 사신(使
臣)의 일을 끝마치고 나서 경연에 입시 하였을적
에 상께서 바야흐로 논어를 강(講)하다가 “허물
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대목에 이르
렀으므로 선생이 나아가 아뢰기를 『전하께서도
또한 잘못이 있습니다. 지난날 조광조 등이 당우
의 정치를 본받으려 하였을적에 전하께서 그들을
존대하여 사랑하고 신임하였으므로 드디어 신진
의 사류들이 갑자기 구정을 혁신하여 새롭게 고
치려 하였습니다. 진실로 그들에게도 과격하게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하께서 능
히 인재를 취함에 있어 직분에 알맞게 하셨더라
면 반드시 효과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인데 이제와
서 도리어 그들을 모두 찬축(竄逐)하고 살육하셨
으니 이는 전하의 잘못이 크웁니다.

然知其過而速改是
無過矣而不改斯爲
過矣仍反覆陳說言
淚俱下

既退衰時爲左相與
其黨合辭啓曰聞
筵中一宰臣以光祖
被罪爲言請推治

兩司表官洪淑趙邦
彥等請拿鞠遂下廷
尉其責曰辭趙光祖
罪狀朝廷既依律處
斷而某在宰相之列
眩亂是非使論議不
定事將不測

上特原之只杖配于
陰竹縣留春驛當先
生進言時尙公震以
翰林入侍出而歎服
曰今日始聞讜言奸
黨怒竝劾之

壬午先生蒙宥仍居
于忠州知非川上自
號知非翁及後朝廷
攸舒黨人處先生以
樞府入京謝恩卽還
杜門以沒其世

그러나 허물을 알고 속히 고치면 허물이 없는
것이요. 허물을 범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이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인하여 되풀이 진
달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선생이 물러가자 이 때 남곤이 좌상으로 있었는
데 자기의 당여(黨與)와 함께 합사(合辭)하여 아
뢰기를 「듣건데 경연에서 한 재신(宰臣)이 조
광조가 죄받은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하니 청컨
대 추치(推治)하소서」 하였고

양사(兩司)의 장관인 홍숙(洪淑)과 조방언(趙邦
彦) 등도 선생을 잡아다가 국문 하기를 청하였
으므로 드디어 정위(廷慰: 의금부)에 내려졌다.
그 책사(責辭)에 이르기를 「조광조의 죄상에
대하여는 조정에서 이미 율문(律文)에 의하여
처단하였는데도 아무개가 재상의 반열에 있으면
서 시비를 현란시켜 의론(議論)을 안정시키지
못하였다.」 하여 일이 장차 헤아릴 수 없게 되
었는데

상께서 특별히 용서하시고 다만 장형(杖刑)을 가
하고 음죽현 유춘역(留春驛)에 유배하게 하였다.
선생이 진언할 때를 당하여 상공진(尙公震)이
한림(翰林)으로 입시(入侍)하였는데 물러나와 탄
복하여 말하기를 「금일에 이르러 비로소 바른
말을 들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간당들이
노하여 선생도 아울러 탄핵하였다.

임오년(1522)에 선생이 사유(赦宥)를 받았는데
그대로 충주 지비천(知非川) 가에 살면서 스스
로 호를 지비옹(知非翁)이라 하였다. 뒤에 조정
에서 당인(堂人)으로 몰렸던 사람들을 거두어
서용(叙用)할 적에 선생은 추부(樞府·중추부)에
임명되었으나 입경하여 사은(謝恩)한 뒤 곧 돌
아가 두문불출한 채 그 생애를 마쳤다.

先生慶州人諱世弼
字公碩新羅金氏王之後
高麗仁瑄檢校太師自粹文科壯
元官至都觀察使以孝旌閭號桑村寔先生高祖也

曾祖根本朝漢城少尹
贈兵曹判書祖永濡
成廟朝名臣官至知樞諡恭平

公考薰僉正贈判書
妣宋氏郡守鬻之女

成廟臨軒試諸生先生
爲第一時年十八

上愛其年少卽復命題呼韻
先生復操筆立就上益奇之賞
賜甚優

弘治乙卯司馬丙辰登第
由槐院翰林選入玉堂自正字
至修撰以吏曹郎奉使北闕
時李龔巖賢輔爲永與訓道
先生一見識其爲人歸卽甄
拔卒爲名卿

선생은 경주김씨로 휘는 세필(世弼)이고 자(字)는 공석(公碩)인데 신라김씨(新羅金氏) 왕(王)의 후손이다. 고려조에 와서 인관(仁瑄)이란 분이 검교(檢校)로 태사(太師)를 지냈고 자수(自粹)는 문과에 장원하여 벼슬이 도관찰사(都觀察使)에 이르렀고 효(孝)자로서 정려되었는데 호는 상촌(桑村)인데 이분이 선생의 고조이다.

증조 근(根)은 본조(本朝)에서 한성소윤(漢城少尹)을 지냈으며 병조판서에 증직되었고 조(祖) 영유(永濡)는 성종조의 명신으로 지중추부사이며 시호는 공평(恭平)이다.

공의 부친은 훈(薰)이며 첨정(僉正)으로 판서에 증직되었다. 모친은 송씨로 군수 학(鬻)의 따님이다.

성종(成宗)께서 친림 하시어 제생(諸生)에게 시험을 보였는데 선생이 제1로 뽑혔으며 그때 나이 18세였다.

상께서는 그 연소(年少)함을 사랑하시어 곧 다시 시제(詩題)를 내고 운(韻)을 부르니 선생이 다시 붓을 잡고 곧 지어 올리자 상께서 더욱 기특하게 여겨 매우 후한 상을 내렸다.

홍치 을묘년(1495)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병진년(1496)에 대과에 급제하였다. 괴원(槐院)을 거쳐 한림(홍문관)이 되었고 곧 이어 옥당(예문관)에 선임되었는데 정자(正字)로 부터 수찬(修撰)에 이르렀다. 이조(吏曹)의 낭관(郎官)으로 북관에 사명을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때 농암(農巖) 이현보(李賢輔)가 영흥 훈도로 있었다. 선생이 한번 만나보고서는 그의 사람됨을 알고 돌아온 즉시 선발하여 추천하였으므로 마침내 명경(名卿)이 되었다.

燕山甲子擢士禍謫
巨濟丙寅 中廟卽
位以應教召還 上
命擇文士賜暇書堂
時被選者六人先生
爲之首陞典翰

故事當進講時典書
吏籤進當講處進講
官必熟習其句讀文
義然後乃入一日吏
適誤籤他處先生諸
僚入 筵則非所熟
習者而適語艱義與
同僚開卷失色

先生倉卒讀下灑然
解釋畧無碍滯盖先
生博滄經史都無生
面文字故其能副急
迎刃如此同僚莫不
歎服

陞通政爲副提學承
旨者居多丙子爲養
爲廣州牧 上講易
學啓蒙有難解處
上問誰知者有以先
生對卽命駟召入對
暢 上甚嘉歎焉

연산군 갑자년(1504)에 사화에 걸려 거제도로
귀양갔는데 병인년(1506)·중종이 즉위하자 응
교로 소환하였다. 상께서 문사(文士)를 택하여
사가서당(賜暇書堂)하도록 명하였을 때에 피선
된 자가 6~7인이었는데 선생이 제일 첫째로
뽑혔다. 전한(典翰)에 승진되었다.

옛부터 일로서 진강(進講)하러 갈 때에는 책을
맡은 관리가 그날 강할 부분에 표시를 붙혀
미리 내오면 진강관(進講官)이 반드시 그 부분
의 구독(句讀)과 문의(文義)를 충분히 예습한
뒤에 들어가는 법인데 하루는 관리가 다른 부
분에 표지를 잘못 붙혔다. 선생이 동료와 함께
들어가 보니 충분히 예습한 곳도 아니었는데
다가 문장도 어렵고도 심오하여 동료들은 책
을 펴자마자 아연실색하였으나

선생께서는 창졸간에 읽어내려 가면서 시원하
게 뜻을 풀이하여 조금도 막히는 데가 없었다.
이는 선생이 경사(經史)에 밝아서 처음 대면하
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급
한 상황에 부닥쳐서도 술술 풀어나가는 것이
이와 같았던 것인데 동료들은 탄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통정대부에 올라서는 부제학(副提學)과 승지로
있은 적이 많았다. 병자년(1516)에는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하여 광주목사로 나아 갔는데 상
께서 역학계몽(易學啓蒙)을 강하다가 이해하기
가 곤란한 데가 있자 상께서는 알만한 사람이
누구나고 물었다. 어떤 사람이 선생이 잘 안다
고 대답하자 즉시 일소(駟召)하도록 명하였는
데 들어와서는 유창하고 명백하게 대답하자
상께서는 매우 훌륭하게 여기시며 탄복하였다.

嘗命該曹錄聞廉潔
善治人先生與鄭誠
謹等與焉卽進嘉善
階觀察湖南入爲大
司憲吏曹參判己卯
春

上將講性理大全別
擇靜菴金慕齋安國
等十一人先生卽其
一也先生在當時爲
上下所推重如此
先生生歿皆癸巳歲
娶府使李鐸女

長男礪次礪參奉季
礪持平生員楊誼萬
戶崔弼臣生員李贄
三女婿也內外曾玄
孫甚蕃而且多顯者
不能盡記

世以己卯爲我朝文
明之盛當時坐黨籍
者其之才之德不言
可知矣先生學問論
議可爲後世法者必
多而斬伐銷鑠之餘
無有能發揮而傳述
者

일찌기 해조(該曹)에 명하여 청렴하고 정치를
잘 하는 사람을 기록하여 보고 하라고 하였을
때에 선생과 정성근(鄭誠謹)등이 참여되었는데
즉시 품계를 가선대부로 승진시키고 호남(湖
南)의 관찰사에 임명하였다. 들어와서는 대사
헌과 이조참판에 임명되었다. 기묘년(1519) 봄
에

상께서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강하러 활적에 특
별히 정암, 모재(慕齋) 김안국 등 十一인을 가려
뽑았는데 선생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였다. 선
생이 당시에 상하의 추중(推重)을 받은것이 이
와 같았다. 선생의 생물은 모두 계사년(1473년
생 1533년몰)이였고 부사 이탁(李鐸)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장남은 숙(礪)이고 차남에 구(礪)인데 참봉이며,
막내는 저(礪)이며 지평(持平)이다. 생원 양의
(楊誼)와 만호(萬戶) 최필신(崔弼臣)과 생원 이
지(李贄)는 각기 세딸의 남편이다. 내외로 증손
과 현손(玄孫)이 매우 많고 또 현달한 자가 많
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기묘년(1519)을 아조(我朝)의 문명이 극성한 때
로 여기고 있으니 당시에 당적(黨籍)에 연루되
어 좌죄(坐罪)된 사람들의 재주와 덕은 말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선생의 학문과 의론이 후세에
모범이 될 만한 것이 반드시 많이 있었을 것인
데 형을 받고 귀양 다니던 끝이라서 능히 발휘
하여 전술(傳述)한 자가 없었고

又胤子持平公於乙巳士禍被濫刑以沒未能收拾襲藏以遺後昆獨其見於黨籍者只寂寥數語而已可勝歎哉今按家狀則有曰

天資甚高充養有素爲學以格致誠正爲先爲文絕去藻飾華靡之習其居家事親盡其孝事兄盡其恭奉先盡其誠教子第一遵禮法當官處事廉潔正直尤以道德開濟爲士類所敬重噫當時靜菴諸賢其規模氣象自如是矣此足以觀先生大畧矣夫豈多乎

抑其前後受禍松齋最酷陰崖最輕先生處於兩先生之間今先生與陰崖並享於忠州之書院尊慕先生者既不以受禍輕重而有間於陰崖尊慕松齋者亦豈有異於先生哉

또 말아들 지평공(持平公)도 을사 사화 때 음형(濫刑)을 받고 몰하였으므로 수습하여 보관하였다가 후손에게 전하여 주지 못하였다. 다만 당적(黨籍)에 보이는 것은 두어마디 뿐으로 적막하기만 하니 탄식을 견디기 어렵다. 이제 가장(家狀)을 상고하여 보니 거기에 이르기

「타고난 자품이 매우 고상하였고 도덕을 배양함에는 바탕이 있었다. 학문을 함에는 격물(格物), 치지(致知), 정심(正心)을 앞세웠고 글을 지음에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는 습관을 끊어버렸다. 집에 거처하면서 부모를 섬김에는 효도를 다하였고 형을 섬김에는 공경을 다하였고, 선조를 받드는 데는 정성을 다하였으며, 자제를 가르침에는 예법을 준수케 하였고 벼슬에 임하여서는 청렴하고 정직하였으며 더욱이 도덕과 개제(開濟)로 사류(士類)의 공경과 추증을 받았다. 아아! 당시에 정암을 비롯한 제현(諸賢)의 규모와 기상도 절로 이러하였을 것이니 이것으로 족히 선생에 관한 것을 대략 관찰할 수 있거늘 어찌 남긴 글이 많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또한 기묘사화를 전후하여 화를 당한 사람 가운데 송제(松齋)가 가장 참혹하였고 음애(陰崖) 선생이 가장 가벼웠으며 선생은 두 선생의 중간쯤이었다. 이제 선생과 음애를 아울러 충주의 서원에 배향하였는데 선생을 존모(尊慕)하는 사람이 이미 화를 받은것의 경중을 가지고 음애와 차이를 두지 않았으니 송제를 존모하는 자 역시 어찌 선생에게 차이를 두겠는가?

其高下淺深非後學之所敢知而一時諸賢之相與同條共貫則無疑矣然則黨籍序以受禍輕重爲優劣者有未必盡然者矣

慕齋先生金公安國嘗撰先生行狀不幸逸於兵火其後因循無復有收錄發揮者今先生四世孫遇坤宗鉉等來請墓文余辭不獲命而追敘如此云銘曰

中廟改玉衆賢彙征濟濟盈廷其志君民其道商周其學周程誰與同明學同其氣允矣

先生博極羣書無深不鉤無蹟不精經幄計論操戈入室羣彥皆傾雖在外郡上思其學亟招以旌世慕其賢

그분들의 고하천심(高下淺深)에 대하여 후학으로서 감히 논할 바가 아니어니와 당시에 제현들이 서로 같은 이념을 지녔다는 것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당적(黨籍)에 화를 받은 경중에 의하여 우열의 순서를 정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다 그런것만은 아닌듯 하다.

모재(慕齋)선생 김공 안국(安國)이 일찌기 선생의 행장을 찬(撰)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병화에 유실 되었으며 그 뒤에는 그럭저럭 하다가 다시 수록하여 발휘한 자가 없었는데 이제 선생의 4세 손인 우곤(遇坤), 종현(宗鉉) 등이 와서 묘문(墓文)을 청하였다. 내가 사양하였으나 곧이 청하므로 이와 같이 추서(追敘)하였다. 명은 다음과 같다.

중종이 반정(反政)하자 어진 선비들이 무리지어 나와 엄숙하게 조정에 가득하였는데, 그들의 뜻은 임금을 보좌하고 백성을 구제하는데 있었고, 그들의 도(道)는 상(商)·주(周) 같은 나라를 만드는데 있었으며, 그들의 학문은 주염계(周濂溪)와 정자(程子)의 학(學)이었다. 누가 이들과 함께 밝음을 같이하고 그 기운을 같이 하였는가?

선생은 여러 책을 두루 읽어 감히 연구하지 않은것이 없고 뜻을 추구함에 있어 정밀하지 않은것이 없었다. 경악(經幄)에서 토론할 적에는 깊은 학문의 창(戈)을 들고 들어감에 어진 이들이 모두 탄복하였으며, 비록 외군(外郡)에 있을적에라도 상께서 선생의 학문을 생각하시어 급히 불러들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어짐을 경모하였다.

蟻舍其沙虫篆忽成
神武夜開賢俊駢首
鬼泣神驚

洪水漫天包山駕陵
一柱亭亭

日暮天陰鴟鴞滿林
鸞鷲孤鳴

牢挫桁楊對移殘駟
澤畔之醒天綱俄弛
置我朝籍爛然晨星

非我思且斂衽來歸
魚鳥爭迎

我室清幽我稼豐長
我湖空明如

昔宋朝元祐完人有
劉元城竟收初心不
施以沒彼哉衰貞

士林追慕享祀孔式
黍稷非馨有來千秋
疇敢不式先生之塋

宋時烈 撰

여귀(蟻鬼)가 모래를 머금으며 신무문(神武門)이 밤에 열리면서 어진인들이 함께 잡히니 귀신도 눈물을 흘리며 놀랐다.

홍수가 범람하여 하늘까지 닿아 덕을 타고 넘고 산을 뒤덮었는데 기둥하나 우뚝히 버티고 서 있었다.

해는 저물고 흐린 날씨에 숲에는 소리개가 가득한데 봉황새 한마리가 외롭게 울었지만,

끝내 감옥에 갇혀 형벌을 받고 쇠잔한 유춘역에 귀양가고 말았다. 상께서 깨달으시어 곧 사유(赦宥)하는 명을 내리고 선생을 조정에 기용하니 그 명성 별처럼 찬연히 빛났다.

그러나 이는 선생이 생각하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옷깃을 여미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물고기와 새들이 다투어 반갑게 맞이하였다.

선생의 집은 맑고도 그윽하였으며 선생의 농가는 풍성하고 선생의 연못은 거울같이 맑았다.

옛날 송나라의 원우(元祐) 연간에 완인(完人) 유원성(劉元城)처럼 끝내 처음 먹은 마음을 간직한 채 배풀지 못하고 몰(沒)하였으나 저 남곤과 심정같은 사람이야 거론할것도 없다.

사람이 추모하여 제향을 올림이 매우 법도에 맞으며 제물이 향기롭지는 못하지만 천추에 전하여 왔으니 누가 감히 선생의 분묘에 예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송시열 지음

김저(金礎) 墓碑

通訓大夫司憲府持平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賓客五衛都摠府都總管金公墓碑銘并書

公諱礎字學光月城之金繼出新羅以高麗檢校太師諱仁瑄爲始祖有諱自粹號桑村以孝旌閭官都觀察使

我太宗徵以刑曹判書命子弟隨以凶具至廣州秋嶺作絕命詩遂自盡遺命勿刻墓道寔公五世祖也

高祖諱根官平壤少尹贈兵曹判書曾祖諱永濡官大憲進知樞參成廟朝佐理勳諡恭平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증자헌대부(贈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겸(兼)지경연(知經筵) 의금부사(義禁府事)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지춘추관(知春秋館) 성균관사(成均館事)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總管) 김공(金公) 묘비명(墓碑銘) 병서(并書)

공(公)의 휘(諱)는 저(儲)이고 자(字)는 학광(學光)이다. 월성 김씨(金氏)는 신라(新羅)로부터 이어져 내려와 고려시대에 이르러 검교태사(檢校太師)를 지낸 휘(諱) 인관(仁瑄)을 시조(始祖)로 삼는다. 휘(諱) 자수(自粹)에 이르러는 호(號)가 상촌(桑村)인데 효성(孝誠)으로써 정려(旌閭)를 하사받았고 벼슬은 도관찰사에 이르렀다.

우리 태종(太宗)께서 형조판서로서 부르셨으나 자제(子弟)들에게 형구(凶具)를 가지고 따라오도록 명하고는 광주(廣州)의 추령(秋嶺)에 이르러 절명시를 짓고는 마침내 자진하였으며, 유명(遺命)으로 묘도(墓道)에 비석(碑石)을 세우지 말도록 하였으니 이분이 공(公)의 5세조(五世祖)이다.

고조(高祖)는 휘(諱)가 근(根)으로 벼슬은 평양소윤(平壤少尹)에 이르렀고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증직(贈職)받았으며, 증조(曾祖)는 휘(諱)가 영수(永濡)로 벼슬은 대헌(大憲:大司憲)을 거쳐 지추에 올랐고 성묘(成宗)때 좌리공신의 훈호(勳號)를 받았으며 시호(諡號)는 공평(恭平)이다.

祖諱薰僉正 贈工
曹判書考諱世弼號
十清軒知中樞府事
贈吏曹判書諡文簡
爲己卯名賢道德文
章爲世推尊享于八
峰書院

妣固城李氏府使諱
鐸之女以正德己巳
生己亥擢文科薦入
翰林歷弘文館著作
博士吏曹佐郎

當 明宗初爲持平
惡尹元衡依勢張甚
捉其婢禁中置之法
及諸臺會議中學議
罪尹任柳灌柳仁淑
公首先抗議下屈群
少遂沮翌日忠順堂
禍色益急公又與僚
臺七人上疏極諫世
稱公爲八諫臣之首
謫安東

明年丙午移三水丁
未受後命以終壽三
十有九加律收孥籍
產 宣廟朝栗谷李
文成公建請復公官

조(祖)는 휘(諱)가 훈(薰)으로 첨정(僉正)을 지내
고 공조판서에 증직(贈職)되었고 고(考)의 휘는
세필(世弼)로 호(號)는 십청헌(十淸軒)인데 벼슬
은 지중추부사를 지내고 이조판서에 증직(贈職)
되었으며 시호(諡號)는 문간(文簡)이다. 이분은
또 기묘명현으로 도덕(道德)과 문장(文章)으로
세상에서 추존(推尊)되고 있으며 팔봉서원(八峰
西院)에서 향사(享祀)되고 있다.

비는 고성이씨로 부사(府使)를 지낸 휘(諱) 탁
(鐸)의 따님인데, 정덕(正德) 기사년(중종 4)에
공(公)을 낳았다. 기해년(중종 34년) 문과(文科)
에 급제하여 천거(薦舉)로 한림원(翰林院)에 들
어갔다가 홍문관에서 저작(著作)·박사(博士)를
역임하고 이조좌랑으로 옮겼다.

명종(明宗) 초에는 지평(持平)으로 있는데, 악
인(惡人) 윤원형(尹元衡)이 그 세력에 의지하여
과시함이 심하여 그 비(婢)를 잡아 옥에 가두
고 법으로 다스림에 여러 대간(臺諫)들이 중학
(中學)에 모여 회의(會議)하고 윤임(尹任)·유관
(柳灌)·유인숙(柳仁淑)을 죄줄 것을 의논하자
공(公)은 가장 먼저 항의(抗議)하여 굽히지 않음
에 군소배(群小輩)들이 마침내 기가 격였다. 다
음날 충순당(忠順堂)에서 화색(禍色)이 더욱 급
하게 일어나자 공(公)은 또 동료 7인과 더불어
상소(上疏)하여 힘을 다해 간언(諫言)하니 세상
에서는 공(公)을 8간신(八諫臣)의 우두머리라고
칭하고 안동(安東)으로 유배하였다.

이듬해인 병오년(명종 1) 삼수지방으로 이배(移
配)되었고 정미년(명종 2) 후명(後命)을 받아 돌
아가니 나이는 39세 였으며 가율(加律: 형벌을
더함)하여 수노(收孥)하고 적관(籍貫:貫鄉)과
재산을 몰수 하였다. 선조(宣祖)때 이르러 울곡
(栗谷) 문성공(文成公) 이공(李公)이 공(公)의 관작

爵 正宗乙巳因儒
生李宇綱等疏特命
贈吏曹判書諡忠愍
後追享于知川書院

墓在龍仁竹田里文
簡公墓下負良之原

配貞夫人高靈申氏
府使洙之女墓合祔
公無育

始公之南竄而移北
也知不返以詩訣于
仲氏 贈承旨公托
以第二子爲後詩尙
藏于家承旨公依其
言定嗣奉祀時未敢
登聞

後 肅宗朝相公臣
南九萬白以爲年代
雖遠直臣不使無後
上特命爲嗣遂立案
於三世之後盖異恩
也噫公於是乎無憾
矣

(官爵)을 복관(復官)할 것을 청하였고 정종(正宗 : 正祖) 을사년(정조 9) 유생(儒生) 이우경(李宇綱) 등의 상소(上疏)로 인하여 이조판서로 증직하고 충민(忠愍)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릴 것을 특명(特命)하였으며, 후에 지천서원에 향사(享祀)되었다.

묘(墓)는 용인(龍仁) 죽전리(竹田里) 문간공(文簡公 : 金世弼)의 묘소 아래 간좌(艮坐)의 언덕에 있다.

배는 정부인 고령신씨로 부사를 지낸 수(洙)의 딸로 공(公)과 함께 합폄(合窆)되어 있는데, 자식을 기르지 못하였다.

처음에 공(公)은 남쪽지방으로 유배되었다가 북쪽지방으로 이배되면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시(詩)로써 승지(承旨)로 증직된 중씨(仲氏)에게 이별을 고하며 그 둘째 아들로써 후사(後嗣)를 이을 것을 부탁하였는데, 그 시(詩)를 항상 집안에 보관하다가 승지공(承旨公)이 그 말을 따라 후사(後嗣)를 정하고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나 감히 등문(登聞)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대인 숙종(肅宗) 때 상신 남구만(南九萬)이 연대(年代)가 비록 멀지만 직신(直臣 : 강직한 신하)으로 하여금 후사(後嗣)가 없게 하면 앓된다고 상소하여 왕께서 후사(後嗣)를 삼을 것을 특명(特命)하여 마침내 3세(三世) 후에 입안(立案)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특별한 은전(恩典)이었다. 희(噫)라! 공(公)은 이에 섭섭함이 없을 것이로다.

繼子諱重慶以學行
薦授別提不就 贈
戶曹判書生三男長
諱叻文科歷典翰直
提學至同樞參昭武
原從勳 贈禮曹判
書

次諱屹次諱嶷號南
谷栗牛門人以儒賢
薦直授主簿至工曹
佐郎通臺望 贈吏
曹參議孫曾以下繁
不盡載

通訓大夫前行羅州
牧使德水後人李魯
榮謹記

十代孫秀卿敢泣謹
書

계자(繼子)의 휘(諱)는 중경(重慶)인데,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별제(別提)를 제수(除授)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증직(贈職)되었다. 이 분이 3남을 낳았으니 장남의 휘(諱)는 물(叻)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은 전한(典翰)·직제학(直提學)을 거쳐 동추(同樞)에 이르렀고 소무원종공신의 훈호(勳號)를 받았으며 예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차남의 휘(諱)는 흘(屹)이고 3남의 휘(諱)는 억(嶷)인데 호(號)는 남곡(南谷)이며 울곡(栗谷)의 문인(門人)이자 유현(儒賢)으로 천거되어 주부(主簿)를 제수하고 공조좌랑에 이르렀으며 이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손자와 증손(曾孫) 이하는 번거로워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통훈대부 전(前) 행(行) 나주목사 덕수후인(德水後人) 이노영(李魯榮)은 삼가 글을 짓고

10대손 수경(秀卿)은 감히 눈물을 흘리며 삼가 글을 쓴다.

김저(金礎) 墓表

通訓大夫司憲府持平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賓客五衛都總府都總管金公墓表銘并書

國朝士禍談者以己卯乙巳爲稱首至今語及必流涕己卯之獄十清金文簡公旣殆以卒不死其子忠愍公竟死於乙巳豈芭磁朋齡之凶有浮於袞貞歟

抑文簡之直道猶能有悟於消長往來之幾而忠愍之少年英氣以直前不避死爲道理故然歟君子以爲有是父宜有是子其或死或不死則天也云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증자헌대부(贈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겸(兼) 지경연(知經筵) 의금부사(義禁府事)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지춘추관(知春秋館) 성균관사(成均館事)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 김공(金公) 묘표명(墓表銘) 병서(并書)

국조(國朝)의 사화(士禍)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묘사화(己卯士禍)와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으뜸으로 삼아 지금까지도 말이 여기에 미치면 반드시 눈물이 흘러곤 한다. 기묘지옥에 십청(十淸) 문간공(文簡公) 김공(金世弼)은 거의 죽을 위험에 이르렀지만 죽지 않았으나 그 아들 충민공(金礎)은 마침내 을사사화에 돌아갔으니 어찌 사자봉령의 흉악함으로 곤(袞)과 정(貞)에게 부휴(浮休: 生死)가 있다고 할 것인가?

생각건대 문간공(文簡公)의 직도(直道: 正道)는 능히 소장왕래지기(消長往來之幾: 榮枯盛衰를 뜻함)를 깨달을 수 있었고 충민공의 소년으로서의 영기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피하지 않고 도리를 지켰다고 할 수 있으니 군자(君子)가 그 아버지를 보면 마땅히 그 아들을 알 수 있다고 한 말과 혹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름이라 하겠다.

忠愍諱礪字學光金氏之先皆祖新羅王籍慶州者以高麗太師仁瑄爲始祖

五世祖諱自粹號桑村 太宗以刑曹判書徵至廣州秋嶺作節命詞遂自盡高祖諱根平壤少尹 贈兵曹判書

曾祖諱永濡知中樞府事諡恭平祖諱薰尙衣院僉正 贈工曹判書考諱世弼官吏曹參判 贈吏曹判書諡文簡

妣貞夫人固城李氏 府使鐸女公以正德己卯生嘉靖己亥擢光化門別試第二人薦入翰林旋入玉堂爲弘文館著作博士陞吏曹佐郎

仁宗賓天尹元衡倚勢張甚公以司憲府持平得元衡行貨賈權狀卽發府吏捕元衡婢禁中置之法及

충민공의 휘는 저(礪)이고 자는 학광(學光)이다. 김씨의 선조는 모두 신라왕으로부터 나와 경주를 관적으로 하고 있는 시조는 고려시대 태사(太師)를 지낸 인관(仁瑄)으로서 그 시조(始祖)를 삼는다.

5세조의 휘는 자수(自粹)인데, 호는 상촌(桑村)으로 태종께서 형조판서로 불렀으나 광주의 추령에 이르러 절명사를 짓고 마침내 자진하였다. 고조의 휘(諱)는 근(根)으로 평양소윤을 지내고 병조판서에 증직(贈職)되었고

증조의 휘는 영수(永濡)로 지중추부사를 지냈으며 시호는 공평(恭平)이다. 조의 휘는 훈(薰)으로 상의원첨정을 지내고 공조판서에 증직되었고 고의 휘는 세필(世弼)로 벼슬은 이조참판에 이르렀고 이조판서에 증직되었으며 시호(諡號)는 문간(文簡)이다.

비는 정부인 고성이씨로 부사 탁(鐸)의 따님인데 정덕(正德) 기사년(중종 4년)에 공을 낳았다. 공은 가정(嘉靖) 기해년(중종 34년) 광화문(光化門)에서 치뤄진 별시(別試)에서 제 2인으로 급제하여 천거로 한림원에 들어갔다가 얼마후에 옥당(玉堂)에 들어가 홍문관저작·박사(博士)에 이르렀으며 이조좌랑으로 승진하였다.

인종(仁宗)께서 빈천(賓天)하시자 윤원형은 그 세력에 의지하여 과시함이 심하였는데, 공(公)은 사헌부지평으로서 윤원형(尹元衡)이 행화(行貨: 뇌물)하여 권력을 매매함에 즉시 장계를 내어 부사로 하여금 원형의 비(婢)를 체포하게 하여 옥에 가두고 법으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乙巳八月二十一日
元衡倡脅兩司長官
會諸臺諫中學論罪
柳灌柳仁淑尹任謂
有密旨

司憲府大司諫閔齊
仁司諫院大司諫金
光準等喝曰宮闈洶
洶若不自我先發
國家事將不至所屆
矣

公奮然曰魚肉忠良
此其兆矣士流而忍
踵袞貞所爲乎執義
宋公希奎卽曰雖寸
剗我骨以飄之我則
不從於

是司諫朴公光佑掌
令鄭公希登與獻納
白公仁傑正言金公
鸞祥皆右公掌令李
彥忱持平閔起文惟
仰天太息而已公或
坐或起攘袂勃勃遂
以議下一而罷

翌日忠順堂會議事
出矣又與七臺諫上
疏論之遂下獄拷掠

을사년(인종 1년) 8월 21일에 이르러 원형(元衡)이 미쳐 날뛰듯 하며 양사(兩司)의 장관(長官)을 위협함에 여러 대간(臺諫)들이 중학(中學)에 모여 유관(柳灌)·윤임(尹任)을 죄줄 것을 논하고 밀지(密旨)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자

사헌부대사헌 민제인(閔齊仁)과 사간원대사간 김광준(金光準) 등은 큰 소리로 꾸짖기를 “궁위(宮闈: 궁궐)가 흉흉현대 만약 우리가 먼저 의견을 분명하지 않으면 국가의 일이 장차 어느 곳에 이르러지 모른다”고 하였다.

이에 공(公)은 분연히 말하기를 “충량(忠良)한 인재를 어육(魚肉)함이 그 조짐입니다. 사류들이 곤(袞)과 정(貞)의 행하는 바를 인종(忍踵)하겠습니까”라고 하자, 집의(執義) 송공 희규(宋希奎)가 즉시 말하기를 “비록 내 뼈의 한치가 각여 이것이 바람에 날릴지라도 나는 이를 쫓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사간(司諫) 박공 광우(朴光佑)와 장령(掌令) 정희등(鄭希登), 헌납(獻納) 백공 인걸(白仁傑), 정언(正言) 김공 난상(金鸞祥) 등은 모두 공(公)을 도왔고, 장령(掌令) 이언침(李彦忱), 지평(持平) 민기문(閔起文)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큰 한숨을 쉴 뿐이었다. 공(公)은 혹 앉았다가 혹 일어나기도 하면서 소매를 걷어 올리며 잡자기 벌떡 일어서며 의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음에 회의를 과하였다.

다음날 충순당(忠順堂)에서 회의하면서 일이 생기자 공(公)은 또 7대간(七臺諫)들과 더불어 상소하며 이를 논하다가 마침내 하옥되어 고문

竄安東翌年丙午移配三水

路由興仁門外貞夫人抱文簡公已卯獄中血衣自京出迎公持公大慟曰已卯則明主在上汝父得不死今主上幼沖奸臣擅國汝必不還

又翼年丁未竟受後命以禁中捉婢與中學立異爲案遂卒得年甫三十九

臨命沐浴更衣把筆欲作訣書於貞夫人而已曰只增母悲耳遂止望闕四拜跪而仰藥猶未絕金吾吏以繩縊之

葬于龍仁竹田里負良原文簡公墓下也後因金明胤上變鄭彥懋壁書又施收孥籍產之律及

을 당하고 안동(安東)으로 유배되었다. 다음해인 병오년(명종 1년) 삼수(三水)로 이배되었는데,

그 길이 흥인문(興仁門) 밖을 지나게 되자 정부인(貞夫人)께서 껴안으며 문간공(文簡公)이 기묘년(중종 14년) 옥중에서 피물은 옷을 입고 서울을 출발할 때 공(公)을 데리고 출영(出迎)하였는데 공(公)이 매우 슬퍼하였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기묘년은 명주(明主: 中宗)께서 왕위에 있을 때로 너희 아버지께서는 죽음을 면하셨으나 지금의 주상(明宗)은 유충(幼沖)하여 간신(奸臣)들이 나라를 제멋대로 하고 있으니 너는 반드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다음해인 정미년(명종 2년) 드디어 후명(後命: 귀양 보낸 죄인에게 사약을 내림)을 내리고 옥중에 잡아 가두고 있던 비(婢)와 중학(中學)이 이문(異聞: 별다른 소문)을 나타내 입안(立案)하여 마침내 돌아가니 나이 겨우 39세였다.

죽음에 이르러 목욕재계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붓을 움켜 잡으며 정부인에게 결서를 보내고 자 하였으나 단지 참지 못하는 슬픔만을 더할 뿐이었다. 마침내 궁궐을 바라보며 4배(四拜)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약(藥)을 마시니 목숨이 끊어지지 않음이 금오(金吾)의 관리(官吏)가 목매어 죽이는 것과 같았다.

용인(龍仁) 죽전리 간좌(艮坐)의 언덕에 장례하였는데, 문간공의 묘소(墓所) 아래이다. 후에 김명윤(金明胤)이 정언각(鄭彦懋)의 벽서사건(壁書事件)을 번개하여 올리고 또 수노(收孥)하고 적관(籍貫: 貫鄉)과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을 당하였으나

宣祖卽位以栗谷李文成公言 命復官爵今上乙巳以舊甲重廻 命贈公吏曹判書諡忠愍

配淑夫人高靈申氏 府使洙女無育公之自南謫而北也作訣詩寄仲氏承旨公請以其第二子爲後承旨公許之以罪人家也不敢告官成券如法

及 肅宗乙丑相臣有以此事白上者請今禮成券以與之上可之訣詩于筆尙在公家所後子重慶進士思菴朴文忠公淳薦學行授典設司別提不就卒 贈戶曹判書

生三男曰岫文科歷直提學官至同中樞贈禮曹判書曰屹曰嶷栗谷門人號南谷遷授官至工曹正郎贈吏曹參議

선조(宣祖)께서 즉위함에 이르러 울곡(栗谷) 이문성공(李珥)이 공(公)의 관작(官爵)을 복관(復官)할 것을 청하였고 금상(今上: 正祖) 을사년(정조 9년) 구감으로 거듭 청하여 이조판서로 증직하고 충민(忠愍)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릴 것을 명하였다.

배는 숙부인 고령신씨로 부사 수(洙)의 딸인데, 자식을 기르지 못했다. 처음에 공(公)은 남쪽지방으로 유배되었다가 북쪽지방으로 이배되면서 이별의 시(詩)를 지어 중씨(仲氏) 승지공(承旨公)에게 주면서 그 둘째 아들로써 후사를 이을 것을 부탁하였고 승지공은 역시 이를 허락하였으나 죄인(罪人)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감히 관(官)에 고하여 법의로 성권(成券)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대인 숙종 을축년(숙종 11) 상신(南九萬)이 이 일을 왕에게 아뢰고 지금 예(禮)에 따라 성권(成券)할 것을 청하여 왕이 가납(加納)하였는데, 유필(遺筆)로 쓰인 이별의 시(詩)는 항상 공(公)의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후에 아들 중경(重慶)은 진사(進士)로 사암(思菴) 문충공 박순(朴淳)이 학행으로 천거되어 전설사별제를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돌아가서는 호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아들 셋을 두었는데 물(岫)은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직제학을 거쳐 벼슬이 동중추에 이르렀으며 예조판서에 증직되었다. 다음 흘(屹)이고 다음은 역(嶷)인데 울곡의 문인으로 호(號)는 남곡(南谷)이다. 천거로 벼슬에 나아가 공조정랑에 이르렀으며 이조참의에 증직되었다.

初忠原人士擲賢祠
于秣馬里享桑村十
清及公後以十清已
享于八峰書院疊有
禁中撤焉

公孝友端方早受教
於賢父才擢第聞望
大播群小固已深惡
之

公立朝侃侃以激濁
揚清爲已任凶黨嫉
之如仇讐公少不忌
畏卒至踪跡奸竇折
伏凶論以至殺身而
無悔嗚呼公者古所
謂烈士非耶悲夫

己酉季冬金鍾秀
撰

처음에 충원(忠原)의 사림(士林)들이 말마리(秣馬里)에 향현사를 창건하여 상촌(金子粹)선생과 십청헌(金世弼) 선생, 그리고 공(公)을 제향(祭享)하였는데, 후에 십청헌은 팔봉서원에 이향되었다가 여러차례 향사가 금지되기도 하였다가 철회되었다.

공(公)은 효우(孝友)가 단방하고 어려서 어진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아 재주가 있었고 탁재하여 문망(聞望)이 매우 넓었으나 군소배들이 항상 이를 매우 싫어하였다.

이에 공(公)은 입조하여서 간간히 탁류(濁流)와 부딪치며 청렴함을 떨쳤고 관직에 있으면서 흉당들이 이를 시기하기를 구수와 같이 하였으나 공(公)은 조금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에 마침내 그 종적(踪跡)은 살신함으로써 간신들의 흉론을 절복(折伏)시킴에 이르렀으니 후회함은 없을 것이다. 오호라! 공(公) 같은 사람은 옛부터 열사라 하지 비부(悲夫)라 하지는 않는도다.

기유년(己酉年 : 1789년, 정조 13년) 겨울 김종수(金鍾秀)는 글을 짓다.

남식(南炆) 墓表

南氏錫姓自新羅英毅公敏著籍宜寧自高麗密直副使君甫入本朝忠景公在忠簡公智仍祖孫爲相忠簡之曾孫有僉知贈兵曹參判諱致勗生承旨諱彥純生副護軍贈兵曹判書諱柁判書之配星州玄氏將仕郎德亨之女

以萬曆己丑生公諱炆字子彬以門蔭初拜集慶殿參奉內換繕工監例陞司饗院奉事掌樂院直長司僕寺主簿出茂朱縣監罷敍再主僕簿

丁母夫人憂吉拜龍安縣監居三歲罷時當丙丁之後絕意仕途奉判書府君歸于鄉課農致養及遭龔季過而致毀疾幾殆幸穌晚起家拜平康

남씨가 성(姓)으로 비롯된 것은 신라의 영의공(英毅公) 민(敏)으로부터이며 의령(宜寧)을 본적(本籍)으로 드러낸 것은 고려시대 밀직부사를 지낸 군보(君甫)부터이다. 본조(朝鮮)에 들어와서는 충경공(忠景公) 재(在)와 충간공(忠簡公) 지(智)가 연이어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로 재상(宰相)이 되었다. 충간공(南智)의 증손은 첨지(僉知)를 지내고 병조참판에 증직(贈職)된 휘(諱) 치욱(致勗)이고 이분이 승지(承旨) 휘 언순(彦純)을 낳았으며, 언순(彦純)은 부호군을 지내고 병조판서에 증직된 휘 타(柁)를 낳았다. 판서공(判書公)의 부인은 성주현씨로 장사랑을 지낸 덕형(德亨)의 딸이다.

만력(萬曆) 기축년(선조 22, 1589) 공(公)을 낳으니 휘는 식(炆)이고 자(字)는 자빈(子彬)이다. 문음(門蔭)으로 처음에 집현전참봉을 배수하였고, 내직으로 선공감(繕工監)에 근무하였으며 예(例)에 따라 승진하여 사옹원봉사, 장낙원직장, 사복시주부를 지냈다. 외직으로 나아가서는 무주현감을 지내고 해직(解職)당했고 다시 주북부(主僕簿)를 제수하였다.

모부인의 상(喪)을 마치고는 용안현감을 배수하였고 3년을 재직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이때 병정지후(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벼슬에 나아갈 뜻을 버리고 판서부군(南柁)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를 봉양하는데 진력하였다. 아버지의 상을 당해서는 해가 지나도록 애훼(哀毀)함이 심하여 병으로 거의 위독하게

縣監居四歲罷歸京第庚寅七月卒葬于龍仁縣花谷負良之原

公於父母爲一男雖甚憐之訓飭極嚴侍左右非有問不敢先有言每當晨夕之爨手撫竈以度房室之溫涼增減其薪取適惟謹不敢披揭於寢臥之內致少有移動其服勤敬畏類如此

莅茂朱期月而已民追懷之刻石以紀在龍安陪箋入都仁祖特賜對問縣瘼曰縣則殘而戰船之役則重民則少而正軍之額則夥宜速有通變于問爾所務者何事曰臣赴任屬耳時未及措處第自爲意以均民役修軍政爲當務

되었으나 다행히 완쾌되었다. 평강현감을 배수하여 4년을 재임하다가 그만두고 한양의 집으로 돌아와 경인년(인조 27) 7월 돌아가니 용인현 화곡 간좌의 언덕에 장례지냈다.

공(公)은 부모에게 1남(一男)으로 비록 연민(憐憫)의 훈칙이 심하였으나 매우 엄격하였다. 항상 좌우에서 모시면서 물음이 있지 않으면 감히 먼저 말을 하지 않았다. 매양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지음에 있어서는 손수 부엌에 나아가 살폈고 방실(房室)의 따뜻함과 서늘함을 헤아려 땀나무의 더하고 감함을 조정하여 적절함을 취하였으며 오직 삼가하여 감히 침와(寢臥)의 내치에 피계(披揭: 나타냄)하지 않았으니 어려서부터 이동(移動)함이 있으면 복근하고 경외함이 이와 같았다.

무주에서 재임하면서는 만 1년만에 해임하자 백성들은 이를 추회하여 그 공적을 돌에 새겼으며 용안(龍安)에 있을 때는 왕의 전문(箋文)을 배종(陪從)하여 도읍으로 들어오니 인조께서 특별한 선물을 하사하였다. 이에 직접 대질하여 현(縣)의 고질을 물으심에 말하기를 “고을은 쇠잔한데 전선의 역역(役役)은 막중하고 백성은 적은데 정군(正軍)의 액수는 많음으로 마땅히 하루 빨리 변통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그대의 말은 바 소임은 어떤 일인가”하고 물으심에 말하기를 “신(臣)이 부임하여서는 권면함만 있을 뿐입니다. 때에 따라 적절한 곳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 민역을 균등히 하고 군정(軍政)을 정비하는 것을 당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上曰爾言甚當 面
敎承旨南某知治縣
宗要奏對分明極嘉
尙賜表裏一襲自平
康歸則民又家出鐵
鑄碑以頌清德仁政
之實

公白而長身儀觀甚
偉少讀書治詩爲人
所傳誦流輩推之與
人交重氣義好施與
筮仕時季纔三十餘
且已占發解不欲以
朝士著儒巾斷赴舉
曰吾兒必有能成名
者何必自爲也

夫人連山徐氏 贈
參判澍之女生丁亥
歸甲辰卒壬辰葬祔
于公幼有至性九歲
參判公有疾醫云餌
人齒可已夫人卽就
屏處自拔齒以獻血
淋漓衣觀者大驚

旣歸玄夫人性嚴責
厲或峻於常度夫人
所以承意者委曲至
到雖終日達夜必見
顏色和悅然後乃退

왕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면전에서 교서하며 승지 남모(南弼)는 고을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주대(왕에게 上奏하거나 下問에 대답함)가 분명함이 매우 기뻐한다고 하며 표리(表裏) 1습(襲)을 하사하였다. 평강으로 부터 돌아오니 백성들은 또 집집마다 철을 거두어 비(碑)를 주성하고 청덕과 인정의 실상을 칭송하였다.

공은 백발이면서도 몸집이 커서 의관이 심위하였다. 어려서부터 책을 읽으며 시를 익혔는데, 사람들에게 전송되어 동년배들은 이를 추송하였다. 사람들과 더불어 교유함에 있어서는 기의(氣義)를 중하게 여기고 시어를 좋아하였다. 서사(筮仕: 初仕를 뜻함)할 때 나이는 겨우 30여세였는데, 또 발해를 보고 조사를 하고자 하지 아니하여 유건(儒巾)을 쓰고 부거를 중단하고 말하기를 “우리 아이가 반드시 유능하여 이름을 높힐 텐데 어찌 반드시 스스로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부인은 연산서씨로 참판에 추증된 주(澍)의 딸이다. 정해년(선조 20) 태어나 갑진년(선조 37)에 출가하고 임진년(효종 3) 돌아감에 공의 묘에 합장하였다. 어려서부터 지성이 있어 9세 때에는 참판공(徐澍)이 질환이 있어 의원이 사람의 치아를 먹어야 나올 수 있다고 하자, 부인은 곧장 있는 곳을 가려서 막고 스스로 치아를 뽑아 피를 바쳤는데, 피가 줄줄 흘러내려 옷을 가득 적시자 보는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시집와서는 현부인의 성품이 엄책하고 평상시의 태도 역시 여준하자 부인은 승의하는 까닭에 위곡에 이르게 하였는데, 비록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안색(顔色)이 화열(和悅)함을 본 연후에야 이내 돌아갔다.

事君子則雖有微失
必從容規諷期於得
正然後乃已

治家則以勤儉蓄用
祭祀之奉賓客之供
未嘗不如禮處物則
以平恕存心勞已而
逸人厚施而薄望至
於愛惡偏私之累未
嘗一形於言色容止
可則而觀感自多誠
意可掬而誠誨易入
是以子姓服其教宗
族懷其仁婢使化其
恩

男長一星縣令 贈
領議政次二星判書
女適校理吳達濟以
斥和苑瀋陽側生男
閔星議政一男則不
肖九萬判書以三從
子受萬爲後

前以判書貴累 贈
至吏曹判書又以九
萬忝相職加 贈崇
政大夫議政府左贊
成兼義禁府事五衛
都摠府都摠管夫人
贈貞敬

군자를 섬김에 있어서는 비록 조그만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조용히 법도를 깨우쳐 바른 것을 얻기를 기약한 연후에야 이내 그만 두었다.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근검하고 축융하였고 제사를 받들거나 빈객을 모심에도 미상불(未嘗不)한결같이 예로써 하였다. 사물을 대함에 있어서는 평소에 어짐을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었고 사람들에게는 그 베푸는 것이 후하여 애악으로 이를 보는 것이 적었다.

편사의 누(累) 역시 일찍이 언색에 있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용지가 법도에 맞아 관감이 많았으며 성의가 손바닥에 있어 [몸에 배어 있다는 뜻] 교회(誠誨)가 쉽게 받아들여져 자성(자손)들에게는 그 가르침을 복종케 하였고 종족에게는 그 어짐을 품도록 하였으며 비사(婢使)에게는 그 은혜에 감화하도록 하였다.

아들중 장남은 일성으로 현령을 지내고 영의정에 증직되었고 다음은 이성으로 판서를 지냈다. 딸은 교리 오달제에게 출가하였는데, 척화(斥和)를 주장하다가 심양(瀋陽)으로 잡혀갔다. 측실에서는 아들 윤성을 낳았다. 의정공(南一星)의 1남은 불초(不肖) 구만(九萬)이고 판서공(南二星)은 삼종형제(6촌)의 아들 수만(受萬)으로 후사(後嗣)를 이었다.

전에는 판서공이 귀하게 됨으로써 증직이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이르렀으며 또 구만(九萬)이 재상(宰相)의 직(職)에 참가함으로써 승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 겸(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의 증직이 더해졌고 부인은 정경(貞敬)에 추증되었다.

蓋聞聖人論天子至庶人之孝固有等矣然其以立愛致嚴爲生民之本未始有異觀公與夫人所以事親者惻惻乎其愛之誠而形也慄慄乎其嚴之一而不懈也齊體合美以終今聞未艾之報流于後人

不肖如九萬亦叨此崇極之位淵冰之懼恒在辱先矧今於紀德以眎後曷敢不追惟於平日之教不以言而以身者以求必乎毫髮之無差以蕪免乎誣與不仁之罪耶唯是意長而辭短實茂而文陋其敢曰此足徵諸

崇禎後周甲戌辰孫議政府領議政九萬謹表

대개 듣건대 ‘성인(聖人)은 천자(天子)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의 효(孝)는 진실로 차이가 있다고 논하였다’고 했는데, 자애로 어루만져주고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생민(백성)에게 있어 근본으로 처음부터 이관(색다른 경치)이 없는 것이다. 공과 부인은 부모를 섬기는데 있어 측은(惻惻)하였고 그 사랑의 정성과 형상은 울물(慄慄)하였으며 그 엄함에 있어서도 한번도 게으름이 없었다. 체모를 가지런히하여 마침내 아름다움에 이른 것이다. 지금 듣건대 미애지보는 후인들에게까지 전해진다고 한다.

불초 구만(九萬) 또한 숭극지위(崇極之位)에 올라 연빙지구(淵冰之懼: 위험한 것을 비유함)는 항상 조상을 육보이는데 있었다. 하물며 지금 덕을 기록하여 수세에게 보임에 있어 어찌 감히 추고치 않겠는가. 생각컨대 평일의 가르침을 말로써 하지 않고 몸으로써 하신 것은 구함에 있어 반드시 호발의 차이도 없음을 보이신 것으로 무고(誣告)와 불인지죄(不仁之罪)를 면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뜻은 길지만 말은 짧고 실적은 무성하지만 문장이 조악하여 감히 이것을 말함으로만 여러 가지를 징험하는데 족하겠는다.

숭정(崇禎) 후(後) 주갑(周甲) 무진(숙종 14, 1688) 손자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 구만(九萬)은 삼가 표(表)하였다.

남일성(南一星) 墓碣

先公諱一星字德輝
平康縣監 贈左贊
成輝焘之長子先系
具載贊成府君墓表
妣連山徐氏 贈參
判澍之女以萬曆辛
亥生以

未就傳已自力於學
警拔特異未弱冠文
科成發解輒居前列
既而時事囂虞不樂
進取雖間以親命赴
舉非好也既孤而廢
連遭囂五歲而闕以
苦器聞

乙未 朝家授遺才
李公有謙舉以居器
盡禮都堂會勘三公
無推挽者丙申始拜
內侍敎官己亥例陞
掌樂院主簿除鎮川
縣監壬寅盜取 殿
牌引咎歸 朝廷不
加譴卽授常平郎

선공(先公)의 휘(諱)는 일성이고 자는(字)는 덕
휘로 평강현감을 지내고 좌찬성에 증직된 광식
(輝焘)의 장자(長子)이며 선계(先系)에 대한 내
력은 찬성부군의 묘표(墓表)에 잘 갖추어져 있
다. 비는 연산서씨로 참판(參判)에 증직된 수
(澍)의 딸로 만력(萬曆) 신해년(1611)에 공(公)을
낳았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기전인 어릴때부터 이미
자력(自力)으로 학문에 경발함이 특이하였고 약
관이 채 못되어 문과에 급제하여 발해(發解)를
이름에 문득 맨 앞줄에 앉았다. 시사에 참여하
는 것은 좋아하였으나 진취함은 즐겨하지 않았
으며, 비록 과거에 응시하라는 부모의 명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고단
(孤單: 홀몸)이 되어 집안이 기울고 5년동안 연
이은 상(喪)을 당함에 고력(苦力)으로 마쳐 그
기량을 떨쳤다.

을미년(인조 13, 1635) 조정에서 유재(遺才)를
선발함에 이공(李公) 유겸(右謙)이 기량이 있고
예의(禮儀)를 다했음을 이유로 천거하자 도당
(都堂)에서 모여 감검(勘檢)함에 삼공(三公)중
추만(推挽)하는 사람이 없었다. 병신년(효종 7)
비로소 내시교관을 배수하였고 기해년(효종 10)
예(例)로써 장악원주부에 승진하였으며 진천현감
을 제수하였다. 임인년(현종3) 도독이 전패(殿
牌)를 훔쳐간 것으로 인하여 인구되어 유배될
뻔하였으나 조정에서 견고하지 않고 즉시 상평
량을 배수하였다.

癸卯拜通禮院引儀
兼漢城府參軍且仍
前任俄以常平務緊
遞新職出金城縣令
乙巳以病解歸京第
卒葬于龍仁縣花谷
贊成府君墓之左兆
負子之原

嗚呼先公居家則竭誠於敬養盡禮於吉凶翁和湛樂無一不可爲訓於後者然父母其順兄弟式好恒處其常不處其變故未嘗過乎中制有苟難厓岸之行在官則正身率物推情與下以節用裕財以省事安人凡有爲唯欲無媿於心而已

未嘗的然而示德於下皎然而沽能於上故無一時赫赫聲然其默施之效自著於歲計之餘雅性澹泊操持簡儉於物無所好於事無所營歷職

계묘년(1663) 통례원인의를 제수하여 한성부참군을 겸하였고 또 전직을 계속 잉임(仍任)하였으나 갑자기 상평창(常平倉)의 업무가 긴급(緊急)해져 신직(新職)으로 바뀌 금성현령으로 나갔다. 을사년(현종 6, 1665) 병으로 해임되어 돌아와 서울의 집에서 돌아가니 용인현 화곡의 찬성부군의 묘(墓) 왼쪽 자좌의 언덕에 장례하였다.

오호라! 선공(先公)은 집에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데 갈성하였고 길흉에는 예를 다하였으며 화합하여 즐겨 가하지 않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후세에 가훈을 삼게 하였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는 차서가 있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았고 처신이 일정한 것을 좋아하여 항상 처신에 있어 변함이 있으면, 그곳에 있으려 하지 않았던 까닭에 일찍이 과오가 없이 법에 적절하였으며 단지 번거로운 애안지행이 있을 뿐이었다. 관직(官職)에 있을 때는 몸을 바르게 하고 사물에 있어서도 솔직하여 추정하였으며, 아랫사람들에게는 절용을 우선으로 하였으나 재물에 있어서는 너그러웠고 일을 살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하여 대개 일이 있으면 오직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할 뿐이었다.

일찍이 적연(的然)하지는 않고 아랫사람에게 덕을 보이는데는 효연(皎然)하였으나 윗사람에게는 등한시하여 한 때라도 혁혁한 성연(聲然)함이 없어 묵시(默施)의 효험이 해마다의 계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아성(雅性)은 담박(澹泊)하고 조지(操持)하여 재물에 있어서 간검(簡儉)하였고 일에 있어서는 좋아하는 것이나 직접 경

中外亦有年矣田僮
無一畝一指之增之
增器服無一囊一篋
之贏

姿容玉雪須着如畫
動止嫺雅聲氣和樂
見者莫不歆聳爲文
章不事斧藻以辭達
爲主於書見解絕人
雖聲牙僻文一見輒
洞然字畫之細雖所
不屑自合於樂度

其在金城縣齋也值
大夫人忌辰語子姓
曰余幼夫人乎種瓜
於庭每飯摘一而食
之至今未嘗忘其味
之甘也今得祿欲效
反哺之誠何可得也
祭而豐不如養之薄
此之謂也涕泣橫流
悲不能自勝其將祀
事亦止於此矣豈非
忌必哀而終身慕者
耶

영하는 것이 없었다. 관직을 역임하면서도 중외(中外)에 또한 뛰어난 바가 있어 전동(田僮)이 1묘(畝)의 밭도 없으면 일지지증(一指之增)을 해주었고 기복(器服)에도 1낭(囊)이나 1첩(篋)이 없었다.

자용(姿容)은 옥설과 같이 깨끗하였고 수염은 붙어 있는 모습이 그림과 같았으며, 동지(動止)는 한아(嫺雅)하고 성기(聲氣)는 화락(和樂)하여 보는 사람들이 흠송(歆聳)하지 않음이 없었다. 문장(文章)에 있어서는 꾸밈을 좋아하지 않고 말은 책을 위주로하여 그 견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으며 비록 목소리가 아아(牙牙)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문장이라 할지라도 문득 한 번 보면 동연(洞然)하였다. 또 자획(字畫)의 자세함도 비록 불설(不屑)한 바 있었으나 법도에 자합(自合)하였다.

금성현에 있는 집에 있을 때, 대부인(大夫人)의 기신을 맞아 자성(子姓: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릴 때 대부인께서는 정원에 참외를 심어 매일 식사할 때 마다 한 개씩 따서 이를 먹여 주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도 일찍이 그 맛의 답을 잊을 수 없었다. 지금 녹봉을 타서 반포지성을 갈고자 하였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제수(祭需)가 풍성하다고 하여도 이를 봉양할 수 없다는 것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체읍(涕泣) 하였는데, 횡류(橫流)하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다. 매번 제사 때에는 또한 이에 이르렀으니 기일이면 반드시 슬퍼함이 어찌 종신토록 사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夫人安東權氏陽村
近之十代孫文科壯
元江陵府使曄之女
在幼德容已成江陵
公佳之曰女必爲賢
人之輔取以爲肇錫
之義云

諸兄弟讀書也耳熟
而目習之經史傳記
皆通大義乙丑歸于
先公年十六既饋公
姑暨大公姑交賀以
得賢婦先公蚤有聲
場屋指朝夕

闡科丙子後夫人勸
不事舉業自請執布
裳操作之役宗黨稱
女處士時不肖孤始
知讀書受教於夫人
而荒嬉昏鈍若不能
成誦夫人日夜與之
竝讀親執筭課數者
累年或問夫與子孰
重何勸之異也曰人
之爲學本非爲科第
利達而已也使此兒
粗成其業免於牆面
斯可矣吾又何求哉
三女亦奉承教誡習

부인은 안동 권씨로 양촌 근(近)의 10대손이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강릉부사 업(曄)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덕용(德容)이 있었는데, 성장하여서는 강릉공(權曄)이 이를 아름답게 여기며 말하기를 “여자란 반드시 현인지보(賢人之輔)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석지의(肇錫之義)를 취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여러 형제들과 독서하는데 있어서는 눈과 귀로 보고 익혀 경사·전기에 있어 모두대의를 통하였다. 을축년(1625) 선공에게 시집왔으니 이때 나이 16세였는데, 공고(公姑)와 대공고(시조모)를 받들며 있어 현부를 얻었다는 칭송을 들었다. 선공(先公)이 요절하자 곡(哭)하는 소리가 장옥 밖에까지 나왔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러하였다.

과거에 나아감은 병자년(1636) 이후에 하도록 하였는데, 부인은 거업(舉業)을 섬기지 말도록 권하였으며 포상(布裳)을 입고 조각지역을 하기를 자청함에 종당에서 여처사라는 칭송이 있었다. 이때 불초고는 비로소 독서함을 알아 부인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즐거움에 빠졌으나 우둔하여 능히 암송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부인은 밤낮으로 나와 함께 독서하고 산과(筭課: 셈)를 친집(親執)한 것이 여러번이었으며, 혹은 묻기를 “아비와 자식중 누구 더 중요한가, 권면함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고 이에 답하기를 “사람이 학문을 근본으로 삼는 것은 과제의 이달(利達)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어린 아이가 그 업을 이루어 장면(牆面)에서 면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또한 어떻게 구해야 하겠습니까”라고

慣成性歸他族皆爲表式

先公任二縣則助成於內九萬任一州一營則訓及於外咸適其宜用以無後言至若平居談次論人乃曰後將如斯論事亦曰後必如斯已而果然

歲乙卯九萬獲罪去職奉夫人歸結城淑水或乏而夫人安之及九萬竄于海島奉辭于夫人則勉之以義而已無戚色焉庚申九萬承召入朝聞夫人患疾蒼黃而歸上下備忘記使待母疾少間將還京師九萬行負神明遂邁酷罰又蒙特恩有器馳擔夫之錫葬祔于先公

九萬既先怙恃頑不死滅復列于朝竊位台鼎加恩贈先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

하였다. 세 딸 또한 봉승(奉承)하는 것을 교계(敎誡)하고 이를 습관으로 성품을 이루어 다른 족속에게 출가함에 모두 표식(表式)으로 삼았다. 선공(先公)이 두 현(縣)의 책임을 맡아보신 바 가정에서 내조를 이루었고, 구만이 1 주(州)와 1 영(營)의 책임을 맡은 바 훈계하여 외조(外助)함에 모두 그 의용(宜用)에 마땅하여 후에 뒷말이 없게 하였다. 평소에 답차하던 곁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논하게 되면 이내 말하기를 “후에 장차 이와 같은 논사와 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말하기를 “후에 반드시 이와 같은 뿐이겠는가”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하였다. 을묘년(숙종 1, 1675)에 구만(九萬)은 죄를 얻어 관직을 버리고 부인을 모시고 결성의 숙수(淑水)로 귀양살이를 하면서 혹 핍곤(乏困)하기를 하였는데 부인은 이를 편안히 여겼으며 구만(九萬)이 섬지방으로 유배되어 부인에게 봉사(奉辭)하자 의로써 이를 권면할 뿐 척색(戚色)이 없었다. 경신년(숙종 6, 1680) 구만(九萬)은 승소(承召)하여 입조(入朝)하였는데, 부인의 환질(患疾)에 대해 듣고 창황(蒼黃)히 돌아가자 왕께서는 비망기를 내려 어머니의 병환이 낳을 때를 기다려 서울로 돌아오도록 하셨으니 구만(九萬)은 신명에게 저버림을 당하여 드디어 흑별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왕의 특은(特恩)을 입기도 하여 그 기국이 담부지석과 겹치기도 하였다. 선공(先公)과 함께 부장하였다.

구만은 이미 앞서 호시(怙恃: 믿고 의지함)하여 멸몰(滅沒)함이 없이 다시 조정의 반열에 들어 벼슬이 태정(台鼎:三公의 지위)에 이르렀음에 특은(特恩)으로 선공(先公)을 대광보국 승록대부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領經筵) 홍문관(弘文館)

領 經筵弘文館藝
 文館春秋館觀象監
 事夫人 贈貞敬今
 以不肖孤薄德菲才
 而能致此者實是先
 公暨夫人遺教之所
 及敢不益自祇畏思
 所以無忝所生耶

九萬一娣適副提學
 朴世堂兩妹適縣監
 李觀成進士李漢翼
 九萬一男學鳴一女
 適禮賓正趙泰相副
 提學二男持平泰維
 應教泰輔縣監一男
 眞遇三女長適朴弼
 震餘幼進士一男肇
 二女長適尹游次幼
 崇禎後周甲戌辰男
 議政府領議政九萬
 謹表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감상감사(觀象監
 事)에 증직하였고 부인은 정경(貞敬)으로 추증하
 였다. 지금 불초고(不肖孤)는 얕은 덕과 비재(菲
 才: 변변치 못한 재주)능히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실로 선공과 부인의 유교(遺教: 遺訓)의 미
 침이니 감히 스스로 공경하고 삼가는 생각을 하
 지 않아 낳아주신 바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

구만(九萬)의 윗누이는 부제학(副提學) 박세당
 (朴世堂)에게 출가하였고 아래의 누이 둘은 현
 감(縣監) 이관성(李觀成)과 진사(進士) 이한익
 (李漢翼)에게 출가하였으며 구만의 1남은 학명
 (鶴鳴)이고 1녀는 예빈정 조태상(趙泰相)에게
 출가하였다. 부제학(朴世堂)의 2남은 지평(持平)
 태유(泰維)와 응교(應教) 태보(泰輔)이고 현감
 (李觀成)의 1남은 진우(眞遇)이고 3녀중 장녀는
 박필진(朴弼震)에게 출가하였고 나머지는 어리
 며 진사(李漢翼)의 1남은 조(肇)이고 2녀중 장녀
 는 윤유(尹游)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어리다.
 승정 후 주갑(周甲) 무진년(숙종 14, 1688) 아들
 의정부 영의정 구만(九萬)은 삼가 표(表)하다.

남은(南閻) 墓表

公姓南氏諱閻籍宜寧高麗侍中乙蕃之子生于恭愍王甲午歲天性豪邁不拘束好奇計初補社稷壇直時三陟倭寇熾難其守

公自薦知郡事以十餘騎擊走之始知名召援右職威化島之役贊我太祖回軍錄功賜土田屢遷三司右尹軍簿典書開城尹密直副使

壬申開國策勳一等封宜城君判尙書事兼義興三軍府都摠制委遇之隆無出右者

歿于戊寅芳蕃之難葬于龍仁縣處仁花洞負子之原

世宗三年太宗時爲太上王召羣臣下教曰南閻功大太

공(公)의 성은 남씨(南氏)이고 휘(諱)는 은(閻), 관적(貫籍)은 의령(宜寧)이다. 고려(高麗) 시중(侍中) 을번(乙蕃)의 아들로 공민왕(恭愍王) 갑오년(甲午年)에 출생 하였다. 타고난 성품이 호매(豪邁)하였고 기묘한 계책을 좋아하는데에는 속박됨이 없었다. 처음에 사직단직(社稷壇直)에 보임(補任)되었을 때 삼척 지역에 왜구가 창궐하여 지키기가 어려웠을 때

공이 그곳의 지군사(知郡事)가 되기를 자청하여 10여기를 거느리고 달려가 물리쳐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불러 올려져서 우직(右職)으로서 위화도(威化島) 원정(遠征)에 따라 갔다가 우리 태조를 도와 회군(回軍)하여 공신으로 록공(錄功)되었고 토전(土田)을 하사받았으며 여러번 자리를 옮겨 삼사우윤(三司右尹), 군부전서(軍簿典書), 개성윤(開城尹),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지냈다.

임신년(壬申年)에 개국 1등공신(開國一等功臣)으로 책훈(策勳)되어 의성군(宜城君)에 봉(封)해졌고 판상서사(判尙書事) 겸 의흥삼군부도총제(義興三軍府都摠制)가 되었는데 이와같은 융숭한 예우가 일찌기 없었다.

무인년(戊寅年) 방번(芳蕃)의 난 때에 몰(歿)하여 용인현(龍仁縣) 처인(處仁)의 화동(花洞: 꽃골) 부자지원(負子之原)에 장사지냈다.

세종 3년(1421) 태종(太宗)이 태상왕(太上王)이 되었을 때 군신(君臣)에게 하교하여 이르시기를 「남은의 공이 크다. 태조의 영(靈)이 하늘에 계

祖在天之靈豈不欲
配食廟庭後雖有罪
前功不可廢羣臣敬
承教如禮先命祭告
于家諡曰剛武錫以
墓田

夫人工部典書江陵
金寶孫之女封嘉順
宅主葬在公墓下數
步

有四男一女長景壽
無後次景祐判中樞
院事襲封宜寧君
次景福景祉女適蛇
山君李玘

公余十代祖領議政
諱在之弟謹撮家乘
是爲表

傍孫九萬撰

傍孫禮曹判書龍
翼書

신데 어찌 묘정(廟庭)에 배식(配食)하게 하지 않
는가. 비록 후에 죄가 있으나 전공(前功)을 폐하
는 것은 불가하다」 하시어 군신이 하교를 받들
고 먼저 명을 따라 예를 갖추고 제를 지내도록
그 집에 고하였으며 강무라 시호를 내렸으며 묘
전을 내렸다.

부인은 공부전서(工部典書) 강릉(江陵) 김보손
(金寶孫)의 딸인데 가순택주(嘉順宅主)로 봉(封)
해졌고 공의 묘소 수 보(數步) 아래에 장사하였다.

4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경주(景壽)로 후사
가 없으며 차는 경우(景祐)인데 판중추원사(判
中樞院事)로 의령군(宜寧君)에 습봉(襲封)되었
고, 다음은 경북(景福), 경지(景祉)이며 딸은 사
산군(蛇山君) 이 기(李玘)에게 출가하였다.

공은 나의 10대조 영의정(領議政) 휘 재(在)의
아우가 되신다. 삼가 가승에서 발췌하여 이에
표한다.

방손 구만 짓고

방손 예조판서 용익 쓰다.

민승호(閔升鎬) 墓碣

兵曹判書 贈領議
政諡忠正驪興閔公
墓碣銘并書

輔國崇錄大夫前弘
文館大學士兼侍講
院日講官光山金永
壽謹撰

從子崇錄大夫前行
吏曹判書 奎章閣
提學 泳煥 謹書

聖上御極之初 治
化雍熙俊乂在官有
若臣閔忠正諱升鎬
以奕烏世胄服家庭
詩禮砥礪名行苑有
藝林推翹迺登文陛
躡雋塗譽聞闐然日
章 寵遇方隆受托
肺腑贊治有爲期望
遠大

天下不假之以年未
及中身厥施靡究朝
野悵惜去歲遷封衣
履之藏表阡之石尙
闕如公之哲嗣判敦
寧泳翊方奉使在外
送示公言行之狀徵
余以鐫珉之文

병조판서 증 영의정 시(諡) 충정(忠正), 예흥민
공 묘갈명 병서

보국 승록대부 전 홍문관 대학사겸 시강원 일강
관 광산 김영수 삼가 글을 짓고

조카 승록대부 전 행(行) 이조판서 규장각 제학
영환(泳煥) 삼가 글을 쓰다.

성상께서 등극하신 초기에 치화가 응희(雍熙)하
고 준예(俊乂)들이 관직에 있었는데 민충정 휘
(諱) 승호같은 사람은 지모로써 떨침이 있었다.
집안에서는 장남으로 시례(詩禮)를 닦는데 힘써
서 이름과 행실이 드러나 예림(藝林)에서 추후
(推翹)를 받았고 비로소 문과에 급제하여 조정
에 들어가서는 영특한 명성이 암연히 날로 빛났
으며 임금의 두터운 은총이 바야흐로 융숭하여
골육지친과 같이 신임을 받았으며 치국(治國)의
도움에 대한 기대가 원대하였다.

그러나 하늘이 틈을 주지 않아 나이가 아직 중
년에도 미치지 않아 짧은 생을 마치고 돌아가니
조야(朝野)에서는 한스럽고 애석하게 여겼다.

이에 지난 해에 의리지장과 표천지석을 옮김
에 오히려 공의 철리(哲理)를 빠뜨린 바 있어
사자(嗣子), 판돈령 영익(泳翊)이 바야흐로 사
신(使臣)이 되어 외국에 있으면서 공의 언행이
담긴 장문(壯文)을 보내 보이며 나에게 비문을
부탁하였다.

以余世講先誼且公懿德偉行之及見及聞謂莫如余余不可辭

謹按狀公字復卿閔氏貫驪興上祖諱稱道高麗尙衣奉御世繼名德圭組赫燁入我朝有諱審言端宗乙亥以開城副留守棄官歸隱

生諱冲源逸執義三傳而諱齊仁號立巖左贊成四傳而諱光勳江原道觀察使贈領議政

生諱維重號屯村誕我仁顯王后奉驪陽府院君贈領議政諡文貞追贈孝宗廟庭立德建言領袖士林

生諱鎮厚左參贊號趾齋諡忠文從享景宗廟庭名德勳庸爲國盡臣

나는 세계(世系)를 살펴서 그 옳음을 검토하고 또 공의 의덕(懿德)과 뛰어난 행동(偉行)을 보고 들음이 나와 같이 막론(莫論)할 사람이 없어 사양하지 못하였다.

삼가 행장을 살펴보니 공의 자(字)는 복경으로 민씨의 관적(貫籍)은 여흥이다. 먼 조상(上祖)의 휘는 칭도(稱道)로 고려때 상의봉어를 지낸분이다. 세대(世代)를 명덕(明德)으로 계승하고 규장(圭章)이 혁력하여 아조(我朝)에 들어와서 휘(諱) 심언(審言)은 단종 을해년(1455)에 개성부유수로 재임하던 중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이 사람이 휘(諱) 충원(冲源)을 낳았는데 일재(逸才)로 집의를 지냈다. 3대를 내려와 휘(諱) 재인(齊仁)은 호가 입암(立巖)이며 좌찬성을 지냈으며 다시 4대에 이르러서 휘 광훈(光勳)은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고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이 사람이 휘(諱) 유중을 낳으니 호가 둔촌(屯村)으로 우리 인현왕후를 탄생시키시어 여양부원군에 봉(封)해지시고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으며 시호를 문정(文貞)이라 사(賜) 하였으며 효종의 묘정에 추향(追享)되었는데 덕을 세우고 왕에게 아낌함에 사림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이 사람이 휘(諱) 진후(鎭厚)를 낳으니 좌참찬을 역임 했으며 호는 지재(趾齋)이고 시호는 충문(忠文)으로 경종(景宗)의 묘정에 종향 되었었는데 명덕과 훈공이 국가를 위하고 신하된 본분을 다하였다.

忠文公生諱翼洙逸
掌令 贈吏曹判書
諡文忠講道林樊爲
儒之宗世稱夙夜齋
先生

先生生諱百奮大司
成 贈左贊成贊成
公生諱耆顯號二松
吏曹參判 贈領議
政議政公生諱致祿
號棲霞僉正我 明
成聖母正位坤極
贈驪城府院君領議
政諡純簡

初配海寧府夫人海
州吳氏逸參判 贈
吏曹判書文元公熙
常女繼配韓昌府夫
人韓山李氏 贈吏
曹判書圭年女

公本生五世祖諱鎮
永文貞公第三房也
號簡默齋正郎高祖
諱樂洙翊衛 贈吏
曹判書曾祖諱百述
贈左贊成以立巖公
九世孫諱端顯爲嗣
僉中樞 贈領議政

이분이 충문공 휘 익수를 낳으니 일재(逸才)로
장령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증직 되었으며 문충
이란 시호를 받았는데 임번(林樊:사림)을 강론
하여 유종이 되어 세상에서는 숙야재선생이라
칭하였다.

선생이 휘 백분(百奮)을 낳으니 대사성을 지내
고 좌찬성에 증직되었고 찬성공이 휘 기현(箕
顯)을 낳으니 호는 이송(二松)으로 이조참판을
지냈으며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다. 의정공
(議政公)이 휘 치록(致祿)을 낳으니 호가 서하
(棲霞)로 첨정(僉正)을 지냈는데 우리 명성성묘
(명성황후)께서 정위(正位)를 곤극(坤極) 하심에
여성부원군에 봉(封)해지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 되었으며 시호는 순간(純簡)이다.

초배(初配) 해령부부인(海寧府夫人), 해주오씨
(海州吳氏)는 일재(逸才)로 참찬(參贊)을 지내
고 이조판서에 추증된 문원공(文元公) 희상(熙
常)의 딸이고, 계배(繼配) 한창부부인(韓昌府夫
人) 한산이씨는 이조판서에 증직된 규년(圭年)
의 딸이다.

공은 본래 5세조(五世祖) 휘 진영(鎭永)인 문정
공(文貞公)의 셋째 아들 계과로 진영의 호는 간
묵재(簡默齋)이며, 정랑(正郎)을 지냈다.

고조의 휘는 낙수(樂洙)로 익위를 지내고 이조
판서에 증직 되었으며 증조의 휘는 백술(百述)
로 좌찬성에 증직 있었는데 입암공의 9세손 휘
단현(端顯)에게 입양되어 후사를 이었고 첨증추
를 지냈으며 영의정에 증직 되었다.

生諱致久蔭輔國判
敦寧 贈領議政諡
孝獻公生於 純祖
庚寅年閏四月八日
自幼清粹有異質儼
如老成儀及長御家
有度待人以禮重厚
寬仁沉深有量人皆
以宰輔期之

哲宗辛酉 特除 明
陵參奉尋陞六品

當宁甲子登增廣文
科歷成均館典籍司
諫院正言弘文館校
理兵曹正郎司僕寺
正文臣兼宣傳官實
錄廳郎廳副修撰應
教司憲府執義司諫
院獻納南學教授御
營廳從事官 奎章
閣直閣兼校書校理
弘文館典翰通禮院
左通禮丙寅拜承政
院同副承旨轉兵曹
參知禮祖吏曹參議
成均館大司成弘文
館副提學

丁卯 特除戶曹參
判兼同知 經筵義
禁府春秋館成均館

이 사람이 휘 치구(致久)를 낳았으며 음보(蔭補)로 보국·판돈령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 되었으며 효헌(孝獻)이란 시호를 받았다. 공은 순조(純祖) 경인년(1830) 윤 4월 8일 출생하였는데 어려서 부터 청수하고 비범함이 있었으며 점잖음이 노성한 사람과 같았다. 거동은 성장해 감에 따라 왕실(御家)의 법도가 있었고 사람을 대함에는 예로써 하여 중후 관인하였으며 침착하고 사려가 깊었으며 도량이 있어 사람들 모두가 재보(宰輔)로서 기대하였다.

철종 신유년(1861) 특별히 명릉참봉(明陵參奉)에 제수되었고 얼마 후에 6품으로 승진하였다.

고종 갑자년(1864)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典籍), 사간원 정언(正言), 홍문관 교리(校理), 병조정랑(兵曹正郎) 사복시정(寺僕侍正) 문신겸 선전관(文臣兼宣傳官), 실록청(實錄廳), 낭청(郎廳), 부수찬(副修撰), 응교(應教),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 사간원 헌납(獻納), 남학교수(南學教授), 어영청(御營廳) 종사관(從事官), 규장각(奎章閣), 직각(直閣) 겸 교서(校書), 교리(校理), 홍문관(弘文館), 전한(典翰), 통례원 좌통례(左通禮)를 역임하였고, 병인년(1866)에는 승문원 동부승지(同副承旨)를 배수하고 병조참지(兵曹參知)에 전보(轉輔)되었다가 예조참의(禮曹參議), 이조참의(吏曹參議), 성균관 대사성(成均館) 대사성(大司成)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을 지냈다.

정묘년(1867)에 호조참판으로 특제(特除)되어 동지경연(同知經筵)을 겸하였고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成均館事)를 지냈으며 그 사이에 도승지

事間爲都承旨吏工
曹參判政府堂上都
摠府副摠管提舉活
人署司導寺承文院
戊辰拜 奎章閣直
提學壬申 特授知
經筵刑曹判書兼知
春秋都摠府都摠管
以廟薦拜水原府留
守是畿輔重鎮威望
所推一境寧謐未幾
月府大治樹石頌惠

癸酉換兵曹判書中
權責任綦重迥別公
輒以驟躡恒存戎懼
三籲蒙遞是公之立
朝踐履始終而疊除
不錄是年冬丁本生
內憂哀毀踰度克盡
誠禮

甲戌十一月二十八
日內堂忽有火警爲
救慈夫人遂至卒逝
壽四十五

訃 聞 上甚警惜
教曰此重臣重厚之
姿純篤之行其忠勤
何如倚毗何如而年

(都承旨), 공조참판, 정부당상(政府堂上), 도총부
부총관(副總館), 제거(提學) 활인서(活人署) 사도
시(寺導寺), 승문원을 거쳤다.

또 무진년(1868)에 규장각 직제학(直提學)을 배
수(拜受)하였고 임신년(1872)에는 지경연(知經
筵)을 특수(特授)하고 형조판서로서 지춘추(知
春秋) 도총부 도총관(都摠管)을 겸하였다. 조정
의 천거로 수원부 유수(留守)를 배수하였는데
이곳은 기보(畿輔: 서울)의 중진으로서 위엄과
위망(威望)으로 추대된 것이며 유수부 경역을
영밀(寧謐)하게 하니 몇 달 후에 유수부에서 수
석(守石)을 크게 다듬어 그 혜정(惠政)을 송덕(頌德)
하였다.

계유년(1873) 병조판서로 체임되어 중권(中權)의
책임을 지극히 다함에 남달랐다. 공은 번번히
갑작스럽게 순시하여도 항상 병장기가 있음을
근심하여 재삼 당부하고 물러남을 얻었다. 이것
이 공이 조정에 들어와 역임한 관력(官歷)의 시
종이며, 겹쳐서 제수받은 관력은 기록하지 않는
다. 이해 겨울 모친의 상을 당하여 애훼(哀毀)함
이 법도에 지노쳤고 극진히 예를 다하였다.

갑술년(1874) 11월 28일 내당에서 홀연히 불이
나는 변고가 일어나자 자부인(慈夫人)을 구하기
위하여 갑자기 들어갔을 때 돌아가시니 나이 45
세였다.

부음을 듣고 왕께서 매우 놀라고 애석해 하시며
교서하기를 “이 충신은 중후한 자태와 순독한
행실이 있어 그 충근함이 어떠하였고 그 의장이
어떠하였던가? 여러해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비록

來守制雖未能展施
 蘊抱予心眷注將欲
 大用意慮之外逝單
 遽徹警畫之極夫復
 何言哉成服日遣承
 旨致侑凡所隱卒崇
 終禮遇克備 特贈
 上相不待狀 賜諡
 慮國忘家以正服人
 二法諡公忠正

初葬于西部蓮花峯
 繼配金氏墓右復移
 東部安巖洞戊戌閏
 三月十九日移窆于
 龍仁壽洞良坐原

公凡三娶 贈貞敬
 夫人光山金氏蔭都
 正在廷女庚寅四月
 十一日生己未四月
 二十三日卒孝仁貞
 淑有女士行墓驪州
 近東面新垈良坐原

贈貞敬夫人延安金
 氏鼎秀女壬寅六月
 十四日生丁卯二月
 十一日卒莊惠貞順
 閩範咸備貞敬夫人
 德水李氏監役敏星
 女辛亥五月二十一
 日生溫厚和柔內治
 有度

시전(施展)하고 온포(溫抱)함이 능하지 못한 부분
 이 있었으나 나의 마음에는 권주(眷注)로서 장차
 크게 쓰려 하였다. 그러나 뜻밖에 홀로 돌아가니
 당황하여 놀라움을 다시 무슨 말로 해야 할 것인
 가? 성복일에 승지를 보내 힘써 돕고, 무릇 가없
 은 죽음은 예우를 극진히 높혀 특별히 상상(上相)
 으로 추증하니 장문을 기다리지 않고 국가를 염려
 하여 가정을 잊은 것을 “충(忠)”으로 정도로서 사
 람을 감복시킨 것을 “정(正)”으로 하여 이 두 법
 으로 시호를 내린다고 하였음에 시호는 충정공(忠
 正公)이다.

처음에는 서부(西部) 연화봉(蓮花峰)에 장례하였
 는데 계배(繼配) 김씨 묘의 우측이었으나 다시
 동부 안암동(安巖洞)으로 이장 하였다가 무술년
 (1898) 윤 3월 19일 용인 수동(壽洞) 간좌(良坐)
 의 언덕으로 이장하였다.

공은 삼취(三娶)를 하였다. 정경부인(貞敬夫人)
 으로 증직된 광산김씨(光山金氏)는 음직(蔭職)
 으로 도정(都正)을 지낸 재정(在廷)의 딸로 경인
 년(1830) 4월 11일 태어나 기미년(1859) 4월 23
 일 타계하였다. 효인(孝仁)하고 정숙하여 여사풍
 (女史風)이었다. 묘는 여주(驪州) 근동면(近東面)
 신대(新垈) 간좌(良坐)의 언덕에 있다.

중 정경부인 연안이씨(延安李氏)는 정수(鼎秀)의
 딸로 임인년(1842) 6월 14일 출생하여 정묘년
 (1867) 2월 11일 타계하였다. 장혜(壯惠)하고 정
 순(貞順)하여 규범(閩範)을 함께 갖추었다. 정경
 부인 덕수이씨(德水李氏)는 감역(監役) 민성(敏
 星)의 딸로 신해년(1851) 5월 21일 출생하였다.
 온후(溫厚)하고 화유(和柔)하여 집안을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었다.

并無嗣以族弟左贊
成台鎬子泳翊爲后
今文科判敦寧

嗚呼公內行純備事
親如孺子愛及貴克
盡志物之養有安節
則不解帶不翔矧喪
祭則殫竭誠敬

友兄弟自幼切摯嘗
慟悼伯氏之早逝事
邱嫂禮敬益至撫
其子女無間己出皆
己成就與季氏忠肅
公雖異室對床湛翁
未嘗一日相離天倫
之篤性也睦宗邨信
朋友下至僕御靡不
敦厚寬厚裕峻標坦
襟粹然

有冲和之氣對人不
設畦畛見人過失濫
言箴警平居無疾言
遽色可見其濡染所
受者積中而著外也
及戚聯

王室謹慎抑畏夙宵
鞠瘁嘗以裨主德
庇民生爲心密勿謨
猷利澤自有滲漑之
效

모두 자식이 없어 족제(族弟) 좌찬성 태호(台鎬)의 아들 영익(泳翊)으로 후사(後嗣)를 삼았는데 지금은 문과에 급제하여 판돈령(判敦寧)으로 있다.

오호라! 공의 내행(內行)은 준비하였다. 부모를 섬기는데 있어 유자와 같이 사모함이나 존중함에 극진하였고 뜻이나 재물을 펴는데 있어서도 편안함이나 절약함을 생각지 않고 허리띠를 푸를 겨를도 없이 효도를 하였으며 상제에 있어서는 탄갈심력으로 정성을 다하였다.

형제에게도 우애가 있어 어려서 부터 간절한 진언을 자주하였고 일찌기 백씨가 요절한 일에 대해서는 서러워하고 애도함이 심하였으며 형수를 더욱 예경하였다. 또 자녀들을 무육하는데 있어서도 기출과 관계하지 않았으며 모두 성장하여 혼인하자 계씨 충숙공과 더불어 비록 다른 방에서 일지라도 상을 마주하여 편안함을 흡연히 하여 일찌기 하루라도 천륜의 독성에 거리를 두지 아니하였다. 종척 간에도 친목이 두터웠고 봉우 간에도 신의가 있었으며 아래로는 마부에 이르기 까지 돈후, 관유하고 준엄하며 너그럽고 수연하지 않음이 없었다.

온화한 기질이 있어 사람을 대하는데도 법식이나 경계를 두지 않고 혹 다른 사람의 과실을 보더라도 따듯한 말로 경계 하였으며 평소 거처하는데도 질언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또 뇌물같은 더러운 것을 보면 그 받은 것을 문밖에 그냥 쌓아 두었다.

왕실과 인척 관계를 맺어 근신하고 역외하였으며 밤낮으로 체체한 모습을 보이려 하였다. 일찌기 왕의 석을 돕고 민생을 의지함에는 마음을 다하는데 두어 꾀모나 이익과 은택을 생각지 않고 스스로 삼록(滲漑)의 효과가 나오도록 하였다.

聖眷益復隆摯中外
想望其風采今如昨
日事昔永壽撰忝西
清班聯奉餘光而周
旋期公於廊廟事業
之盛豈料今老白首
獨存叙篡公德行之
萬一庸效不朽之圖
者歟歟歔悲夫銘曰
文貞純簡忠盡于國
塗莘名閥重慶毓德

公是繼挺英雋惟特
孝友曰篤溫恭充塞
率禮蹈仁法家儀則
騫翥亨衢寵褒彌極
時值邳隆笙鏞賁飾
戎承濯龍小心翼翼
箕胡遽 聖心傷畫
士民曰咨惜乎施嗇
燾後昌大理必不忒
鬱彼壠阡筮吉瑩域
表厥堂斧貞珉顯刻
公德斯銘百世不惑

大韓光武三年十月
日立

임금의 은혜가 융성하고 지극 해지니 중외(中外)에서 그 풍채를 더욱 그리워 하였다. 지금이 어제 일 같은데 옛날 영수(永壽)는 외람되어 서청을 더럽혀 반열이 여광을 받는데 있고 주전은 낭묘에서 공에게 기대 하였는데 사업의 성함을 어찌 헤아리겠으며 지금 늙어 백수로 홀로 남아 공의 덕행중 만의 하나를 기술함에 어찌 이루어 지지 않음을 힘쓰지 않겠는가?

흐느껴 울며 명(銘) 하노니.

문정공(閔維重), 순간공(閔致祿)은 모두 국가에 충성을 다하여 도모한 명벌(名閥)의 은덕을 입었네.

공은 참으로 빼어남을 본받아 영준함이 남달랐고, 효우에도 돈독하였으며, 온공(溫恭)하였도다. 예와 인을 좇음에는 법가를 따랐고 건저(騫翥: 뛰어오름)의 기로를 잘 택하여 임금의 은혜 더욱 무성 하였네. 질융(邳隆: 태평성대)을 만나 생용(笙鏞)이 크게 울리니 용직(戎職)으로 크나 큰 은총을 이어받아 소심(小心)함이 더욱 익익(翼翼)하였네 그 기세 두려울 것이 없으나 성심(聖心)은 불쌍히 여기고 사민들은 탄식하여 애도함을 아끼지 않았으니 도육(燾育) 후에는 창창하여 이의(理義) 역시 의심할 바 없었다네 농천(龍阡)이 울창해져 길한 무덤 터를 서복하여 그곳에 표석 세워 정민(貞珉)으로 현각하니 이 명(銘)에 새겨진 공의 덕은 백세토록 미혹(迷惑)하지 않으리

대관 광무 3년(1899) 10월 세우다.

민씨(閔氏) 阡表

貞夫人驪興閔氏阡表

정부인(貞夫人) 여흥민씨(驪興閔氏) 천표(阡表)

維龍仁治東寒泉之洞牛峰之李世葬地也我皇考成均進士府君三十一卒而葬四十年有五年夫人驪興閔氏附其左崗則皇曾祖戶曹參議晚悔堂府君皇祖議政府右議政府君以次位焉

생각건대 용인(龍仁)의 치소(治所) 동쪽 한천지동(寒泉之洞: 泉里)은 우봉(牛峰) 이씨(李氏)의 세장지(世葬地)이다. 우리 황고(皇考: 아버지) 성균진사(成均進士) 부군(府君)은 31세에 돌아가서 장례하였고 장례한 지 45년후에 부인 여흥민씨를 그 좌강(左崗: 왼쪽 구릉)에 부장(附葬)하였으니 황증조(皇曾祖)는 호조참판(戶曹參議)을 지낸 만회당(晩悔堂) 부군(府君: 李有謙)이고 황조(皇祖)는 의정부 부군(府君: 李翻)이며, 부군(府君)은 그 차위(次位: 둘째)이다.

小子縉不幸生五歲而孤大夫人以鞠以教俾至于成立見背之後又蒙餘庇以至于今今則老病且死矣府君之亡甲子亦一周矣始敢涕泣而表于阡曰

소자(小子) 재(縉)는 불행이도 5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대부인(大夫人)에 의해 양육되고 교육을 받으며 따랐고 성립(成立: 成人이 됨)에 이르러서도 보살핌을 받았으며 또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남은 비호(庇護)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에 노병(老病)으로 돌아가셨으니 부군(府君)이 돌아가신 갑자(甲子)에서 또한 1주(一周: 60년)가 지나서야 비로소 감히 눈물을 흘리며 묘소(墓所)에 비석(碑石)을 새긴다.

府君諱晚昌字士夏議政府君之寓居扶安也府君生焉以甲子七月十七日卒於廣州官舍亦議政府君留守時也

부군(府君)의 휘(諱)는 만창(晩昌)이고 자(字)는 사하(士夏)이니 의정부군(議政府君)께서 우거(寓居)하시던 부안(扶安)에서 부군(府君)을 낳았으며 갑자년(甲子年: 1684년, 숙종 10년) 7월 17일 광주(廣州)의 관사(官舍)에서 돌아가셨으니 또한 의정부군(議政府君)께서 유수(留守)로 있던 때이다.

其爲進士則在 肅宗元年乙卯縉孤而幼於府君容貌猶未能省記況其他乎縉之稍長也夫人令縉讀歐公瀧崗阡表而聽之至吾不能知汝之必有立然知汝父之必將有後也歎曰

何其言之似我也仍涕泣曰歐翁雖不能博利於物而猶試於一命汝父則不能也然吾於汝父亦有以知其一二

皇舅議政府君居常語及汝父必曰吾孝子皇舅又嘗詔童幼曰折一方長殺一昆蟲非仁也

自幼時未嘗一有是焉者惟我與某兒夫汝父見乳者離絕其子而收剃哺汝惻然終日曰食已子而飢

진사시(進士詩)에 합격한 것은 숙종(肅宗) 원년(元年)인 을묘년(숙종 1년)인데, 재(縉)는 아버지를 여의고 어릴 때여서 부군(府君)의 용모(容貌)를 오히려 기억할 수 없으니 하물며 다른 것에 있어서라! 재(縉)가 점차 성장하면서 부인(夫人)은 재(縉)에게 명하여 구공(歐公)의 「용강천표(瀧崗阡表)」를 읽게 하여 이를 듣고 여기에 있는 “나는 네가 반드시 입신(立身)할지를 알 수 없으나 너희 아버지는 장차 후래(後來: 장래)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한 말을 보며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 이 말이 내 처지와 비슷할 줄이야”라고 하고는 거듭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기를 “구옹(歐翁)은 비록 물론(物論, 世論)에는 널리 이롭지 못하였지만 오직 일명(一命: 목숨)으로 시용(試用)한 것은 너희 아버지였는데 힘에 겨워 이를 수가 없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은 또한 이러한 한 두가지 뿐이다.

황고(皇舅) 의정부군께서도 평상시 생활하시면서 말이 너희 아버지께 미치면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우리 효자(孝子)는 너 뿐이다’라고 하셨다. 황고(皇舅)께서 또한 일찍이 동유(童幼)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한가지의 방장(方長: 자라나는草木)을 꺾거나 한 마리의 곤충(昆蟲)이라도 죽이는 것은 인(仁)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이러한 일이 하나라도 없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람은 오직 나와 모아(某兒) 뿐이로다’라고 하였는데, 대개 너희 아버지를 젓먹이때부터 본 것은 그 자식과 이절(離絶: 絶緣)하여 우는 젓먹이인 아버지를 거두어 들일 때부터로 이를 측은(惻然)히 여겨 종일토록 말

人之子是可忍耶

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먹이니 다른 사람의 자식이 굶주리니 이것을 가히 참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嗚呼瀧表之辭口其居家無所矜飾而所爲如此是真發於中者耶其心厚於仁者耶此正爲汝父說道也絳泣而識之不能忘

오호(嗚呼)라! 용표지사(瀧表之辭)에 이르기를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공식(矜飾: 자랑하고 꾸밈)함이 없는 소위가 이와 같으니 이것은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그 마음이 인자(仁者)보다 후덕(厚德)한 것이다’라고 한 것은 그正道(正道)를 네 아버지를 위한 설명이다”라고 하셨다. 재(絳)는 울면서 이를 기록하며 능히 잊을 수가 없었다.

絳又因仲父冢宰公得聞府君爲人重厚謙恭言論嚴正識度過人觀書十行俱下

재(絳)는 또 중부(仲父) 총재공(冢宰公)에게 부군(府君)의 사람됨이 중후(重厚)하면서도 겸공(謙恭)하고 언론(言論)이 엄정(嚴正)하였고 식도(識度)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으며, 책을 봄에는 십행구하(十行俱下)하였고

博洽群書而於朱子綱目最熟爲文長於駢儷平生少嗜慾惟喜酒襟懷坦蕩與人無畦畛云

군서(群書)를 박흡(博洽)하였고 『주자강목(朱子綱目)』을 가장 많이 읽었으며 문장(文長)은 병려(駢儷)에 익숙하였다. 평생 기호(嗜好)가 적어 오직 술 마시기를 좋아하였고 금회(襟懷: 가슴속, 마음속)가 탄탕(坦蕩: 마음이 넓은 모양)하여 사람들과 접하여서는 휴진(畦畛: 일정한 법칙 또는 범위)함이 없었다고 들었다.

夫人驪陽府院君文貞公諱維重女外祖同春宋先生有詩曰父母教訓早聰明爾性然仍云辛丑書贈恒孫恒夫人諱也

부인(夫人)은 여양부원군 문정공(文貞公) 휘(諱) 유중(維重)의 따님인데, 외조(外祖)는 동춘(同春) 송선생(宋浚吉)이다. 외조(外祖)께서 시(詩)를 지어 이르시기를 “부모의 교훈(教訓) 어려서부터 들어 총명(聰明)하고 성품 또한 그와 같도다”라고 하시며 신축년(현종 2년) 늘 변치 않고 그렇게 하기를 손녀에게 글로써 보냈으나 부인은 항상 이를 숨기고 있었다.

緯聞諸夫人夫人八九歲間文貞公盡室出廣之沙村議政府君送別于漢津文貞公於舟中呼夫人出拜之曰此汝舅也

庚戌文貞公出按箕藩議政府君往而假館俾行親迎之禮夫人肅哲溫惠配君子無違禮

事舅姑盡其誠敬爲人母慈而有法婦道蓋備矣雖不讀書而通曉義理出言皆森然法度兩弟忠文公鎮厚文忠公鎮遠咸服其達識至若

事行之群見於幽誌而其關於小子出處之際世道消長之會爲多

緯再登高科賜暇湖堂爲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自知不才無能其所以致此者惟府君不羸其躬而遺諸後爾

재(緯)가 여러 부인들에게 듣기를 부인은 8-9세 때 문정공(閔維重)께서 모든 집안 식구들을 광주(廣州)의 사촌(沙村)으로 옮겼는데, 이때 의정부군이 한진(漢津)에서 문정공을 송별하였다. 이에 문정공은 배 안에서 부인을 부르며 나가 인사하라고 하시며 이르시기를 “이분이 너의 시아버지이시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경술년(현종 11) 문정공이 외직(外職)으로 나가기번(箕蕃: 平安道)을 안렴(按廉)할 때, 의정부군이 가서 임시로 마련해 놓은 관사(館舍)에서 친영지례를 행하였는데, 부인은 숙철(肅哲)하고 온혜(溫惠)하여 군자(君子)의 배필로서 예법(禮法)에 어긋남이 없었다.

시부모를 섬기는데 있어서 그 성경(誠敬)을 다하였고 사람됨이 모자(母慈: 慈愛)가 있었으며 법도(法度)가 있어 부도(婦道)가 대개 갖추어져 있었다. 비록 글을 읽을 수가 없었으나 의리(義理)를 통효(通曉)하여 말을 함에 있어서 모두 삼연(森然)하고 법도가 있어 두 동생 충문공(忠文公) 진후(鎭厚)와 문충공 진원(鎭遠)이 모두 그 달식(達見)에 복종함이 이와 같았다.

그 사행(事行)의 자세함은 유지(幽誌)에서 자세히 볼 수 있고 소자에게 관련된 출처지체(出處之際: 나가 벼슬하는 일과 물러나 집에 있는 일)는 세도(世道)가 소장(消長)하던 때였기 때문에 매우 많았다.

재(緯)가 다시 고과(高科)로 급제하여 호당(湖堂: 弘文館)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재주가 없고 무능(無能)함을 자지(自知)하여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오직 부군(府君)이 그 몸을 사리지 않고 여러 후손들에게 남기신 까닭이다.

蓋聞府君少與仲氏
言懷府君之言如此
云夫人老年每以過
分爲憂曰當汝穉味
惰學時願汝爲知名
之士而恐亦不能何
意

及此夫人壽七十三
而終戊申九月十九
日也 肅宗己亥以
緯推恩 贈府君吏
曹參判夫人亦受貞
夫人眞誥

緯又嘗職守正卿例
當加 贈而以辭免
不敢請後十五年始
贈資憲大夫吏曹判
書兼知義禁府事五
衛都摠府都摠管實
今 上己未也

緯凡再娶海州吳氏
忠貞公斗寅女南陽
洪氏僉正禹賢女洪
氏舉一男一女男濟
遠文科弘文校理嫡
參奉俞彦欽濟遠男
曰木曰禾其餘男女
皆幼

陶菴 李緯撰

대개 들건대 부군(府君)은 젊어서 중씨(仲氏)와 더불어 가슴속에 이야기하였다고 하는데 부군(府君)의 말은 이와 같았다고 한다. 부인은 노년(老年)에 매양 과분함을 걱정하며 말하기를 “마땅히 네가 어려서부터 매몽(昧蒙)하고 게을렀으니 학문을 할 때는 원컨대 너는 지명지사(知名之士)가 되어야지 또한 능히 다른 뜻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이르러 부인은 나이 73세로 돌아갔으니 무신년 9월 19일이었다. 숙종 기해년(1719년) 재(緯)가 추은(推恩)을 입어 부군(府君)은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贈職)되었고, 부인은 또 정부인(貞夫人)에 봉하라는 고명(誥命)이 있었다.

재(緯)가 또 일찍이 벼슬이 정경(正卿)의 자리에 오르자 예(例)에 따라 당연히 증직(贈職)을 더하였고 벼슬을 물러남에 있어서는 감히 청하지 못하고 있다가 15년 후에 비로소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겸(兼)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증직(贈職)되었으니 실로 금상(今上: 英祖) 기미년(1739년, 영조 15년)이었다.

재(緯)는 해주오씨(海州吳氏) 충정공(忠貞公) 두인(斗寅)의 따님과 또 남양홍씨 첩정(僉正) 우현(禹賢)의 따님을 재취(再娶)하였는데, 홍씨(洪氏)는 1남 1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제원(濟遠)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교리(弘文校理)에 있고 사위는 참봉(參奉) 유언흠(俞言欽)이다. 제원(濟遠)의 아들은 목(木)과 화(禾)이며 그외의 아들과 딸들은 모두 어리다.

도암(陶菴) 이재(李緯)는 글을 짓다.

박씨(朴氏) 墓誌

貞敬夫人慶州朴氏
墓誌

貞敬夫人慶州朴氏
右議政牛峰李公諱
翻之繼妃也議政公
三世曰弘文館副提
學之信 贈議政府
左贊成劾戶曹參議
贈領議政有謙外祖
處士坡平尹公弘裕
夫人之考世英通德
郎祖大頤 世子翊
衛司洗馬曾祖弘美
承政院左承旨妣全
州李氏司藝晚吉之
女

夫人以 崇禎乙巳
七月二十七日生丙
寅歸于議政公議政
公時判兵曹翌年入
相夫人由貞夫人進
封貞敬夫人戊辰議
政公卒後三十歲丁
酉夫人卒卒之日五
月十六葬于龍仁泉
谷議政公墓之右崗

정경부인(貞敬夫人) 경주박씨(慶州朴氏) 묘지
(墓誌)

정경부인(貞敬夫人) 경주박씨(慶州朴氏)는 우의정(右議政) 우봉(牛峰) 이공(李公) 휘(諱) 숙(翹)의 계배(繼妃)이다. 의정공(議政公) 3세(三世)는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을 지낸 지신(之信)과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에 증직(贈職)된 할(劾), 그리고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지내고 영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된 유겸(有謙)이며, 외조(外祖)는 처사(處士)인 파평(坡平) 윤공(尹公) 홍유(弘裕)이다. 부인의 고(考: 아버지)는 세영(世英)으로 통덕랑(通德郎)을 지냈고 조(祖)는 대석(大頤)으로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를 지냈으며, 증조(曾祖)는 홍미(弘美)로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를 지냈다. 비는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사예(司藝) 만길(萬吉)의 딸이다.

부인은 승정(崇禎) 을사년(현종 6) 7월 27일 출생하여 병인년(숙종 12) 의정공(李翹)에게 출가(出嫁)하였는데, 이때 의정공은 판병조(兵曹參判)로 재임하고 있었다. 다음해 의정공이 재상의 반열에 오르자 부인은 정부인으로 있다가 정경부인으로 진봉되었고 무진년(숙종 14년) 의정공이 돌아가신지 34년 후인 정유년(숙종 43년) 부인께서도 돌아가시니 그날은 5월 16일이었다. 용인 천곡 의정공의 묘소(墓所) 오른쪽 구릉에 장례하였다.

議政公元妃羅州朴氏凡三男縉先君贈參判晚昌蚤卒次晚成次晚堅

晚成丙子庭試壯元晚堅己卯及第又三歲縉擢第夫人備有隆養二十餘年卒時晚成吏曹判書晚堅觀察使縉副提學一世榮之

夫人一孀士人吳履周夭死夫人痛甚夫人卒後一歲女又歿嗚呼何其酷也夫人淑哲莊惠治梱井井有法度

始入門議政公指吾母曰吾婦女士君可師之吾母至誠事夫人夫人甚敬重終身不衰得一味輒先及吾母而後食遇諸孫恩愛至見者不知其異於是人益信議政

의정공(議政公)의 원비는 나주박씨로 대개 아들 셋을 두었는데, 재(縉)의 선군(先君)인 참판(參判)으로 증직된 만창(晩昌)은 일찍 죽었고 다음은 만성(晩成)이며 다음은 만견(晩堅)이다.

만성(晩成)은 병자년(숙종 22년) 정시(庭試)에서 장원(壯元)으로 급제하였고 만견(晩堅)은 기묘년(숙종 25년) 과거에서 급제(及第)하였으며 또 3년후 재(縉)가 문과에 급제하였으니 부인께서 융양(隆養)으로 보살펴주신 지 20여년 만이었다. 돌아가실 때 만성(晩成)은 이조판서로 있었고 만견(晩堅)은 관찰사로 있었으며 재(縉)는 부제학(副提學)으로 있었으니 일세(一世)의 영광이라고 하겠다.

부인은 사위 하나를 두었는데 사인(士人) 오이주(吳履周)였으나 요사하였으니 부인의 통한(痛恨)함은 매우 심하였으며 부인이 돌아가신지 1년 후에 그 딸 또한 죽었으니 오호(嗚呼)라! 얼마나 혹독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부인께서는 숙철(淑哲)과 장혜(莊惠)함이 있었고 치곤(治梱)함에는 정정(井井)하여 법도(法度)가 있었다.

처음 출가해 왔을 때 의정공께서는 우리 어머니를 가리키시면서 이르시기를 “우리 부녀와 사군(士君)은 가히 스승으로 여긴다”라고 하였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지성으로 부인을 섬겼고 부인은 매우 경중하여 종신토록 쇠진함이 없어 한가지 맛있는 음식을 얻으면 반드시 먼저 우리 어머니께 드린 후 먹었으며, 제손들을 우대하여서는 도타운 은혜와 애정으로 대하여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다름을 알지 못하도록 더욱 믿음

公之教行于家而夫人之德其享尊榮也固宜

吳孺人二女歸李養重權震應緯一男濟遠

陶菴 李緯撰

이 있었으니 의정공의 집안에서 교행(敎行)과 부인의 덕행(德行)은 그 존영(尊榮)을 누림이 진실로 마땅하다고 하겠다.

유인(孺人) 오씨(吳氏)는 딸 둘을 두었는데 이양중(李養重)과 권진응(權震應)에게 출가하였고 재(緯)는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제원(濟遠)이다.

도암(陶菴) 이재(李緯)는 글을 짓다.

박원형(朴元亨) 神道碑

有明朝鮮國推忠佐翼保社炳幾定難翊載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延城府院君贈諡文憲朴公神道碑銘并書

有明朝鮮名臣領議政延城府院君文憲公當 世宗求賢之日深蒙簡拔致位通顯逮 世祖中興之際極盡啓沃措世太平生也

國倚爲重歿也人皆相弔非身無擇行功可于時者疇克爾也

成和五年己丑正月二十二日卒于家年五十九 睿宗輟朝三日厚賜賻祭三月一日乙酉官庀葬事

유명 조선국 추충좌익 보사병기 정난익대공신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령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연성부 원군 증시 문헌박공 신도비명 병서

조선의 명신으로 영의정을 지내고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에 봉해 졌으며, 문헌(文獻)의 시호를 받으신 공은 세종대왕께서 어진 신하를 구하시던 날 선발되는 깊은 은혜를 입어 벼슬이 현달한데 이르시고 세조대왕이 중흥(中興)할 즈음에 극진히 도와서 태평세대를 이룩하였다.

살아서는 나라가 중하게 여겨 의지하였고, 죽어서는 사람들이 모두 조상(弔喪)하였으니 몸 에 가려낼 행동이 없고 때 맞추어 공을 세우지 아니하였다면 그렇게 까지 되었을까?

성화 5년 기축(조선예종원년 1469) 정월 22일 자택에서 별세 하시니 향년 59세였다. 예종께서 3일간 철조하시고 부의와 재물을 후히 하사 하시었다. 3월 1일 을유에 관(官)의 비용과 비호(庇護)를 받으며 경기도 죽산현 북쪽 6리쯤 되는

窆京畿竹山縣北六十里許飛鳳山寅坐申向之原

翌年庚寅婦人哀毀感疾二月六日遂卒年六十一四月二十五日癸酉合葬公墓

公姓朴諱元亨字之衢遠祖三重大匡諱奇悟新羅宗姓徒居竹山遂爲茂族世連卿相五代祖政丞文匡公諱全之高麗朝文章德行爲世所重

曾祖諱文珣起居郎追贈純誠佐理功臣政堂文學竹山君祖諱永忠我太祖朝爲原從功臣判漢城府事追贈崇祿左贊成考諱翱兵曹參議追贈純成補祚功臣左議政延興君

妣李氏判司僕寺事陽城澣之女追封貞敬大夫人永樂九年幸卯八月己亥生公自幼聰悟能文

비봉산 낙맥 언덕(지금의 백암면 옥산리) 인좌신향으로 장례를 모셨다.

그 이듬해인 경인년 부인이 슬픔 때문에 병이 되시어 2월 6일 별세 하시니 향년은 61세이다. 4월 25일 계유에 공의 묘소에 합장하였다.

공의 성은 박씨요 휘(諱)는 원형(元亨)이며 자(字)는 지구(之衢)이다. 원조(元祖)는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휘는 기오(奇悟)인데 신라 종성(宗姓)으로 죽산에 옮겨와서 살면서 무성한 씨족이 되서 대대로 경상(卿相)이 끊이지 않았다. 5대조는 정승을 지낸 문광공(文匡公)으로 휘는 전지(全之)이니 고려조에서 문장과 덕행으로 세상의 존경을 받았다.

증조의 휘는 문보(文珣)이니 기거랑(起居郎)을 지냈으며,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 정당문학(政堂文學) 죽산군(竹山君)에 추증되었다.

조(祖)의 휘는 영충(永忠)이니 우리 태조조에 원종공신이 되었고 한성부 판윤으로서 후에 승록 좌찬성으로 추증되었다. 고(考)의 휘는 고(翱)이니, 병조참의를 지내시고 순성보조공신(純誠補祚功臣) 좌의정 연흥군(延興君)에 추증되었다.

비(妣)는 양성이씨(陽城李氏)로 판 사복시사(判司僕寺事)를 지낸 이한(李澣)의 따님으로서 정경대부인(貞敬大夫人)으로 추봉 되었으며, 영락 9년(태종11년) 신묘 8월 기해일(己亥日)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 부터 총명하고 영오(英悟)하여 글을 잘 하였다.

世宗朝中司馬試擢制科三人初授禮賓直長累遷司憲監察兵曹佐郎吏曹正郎轉大護軍知司諫院事判司僕寺事知製教入爲承政院右副承旨

乙亥(端宗三年)夏世祖受禪進授都承旨 賜推忠左翼功臣號遷吏曹參判封延城君歷戶吏刑禮曹判書轉議政府贊成陞右議政又進爲左議政

戊子年(世祖十四)九月睿宗嗣位武將謀不軌伏誅時上下遑遑事務叢委公指揮措置動合機宜國家視公爲安危策勳賜保社定難翊戴功臣號拜領議政夫人禹氏封貞敬夫人

考軍器直長諱承瓊丹陽伯忠靖公諱玄寶之孫娶贊成事永嘉(安東舊號)權衷之女永樂八年庚寅八月癸丑生

세종 때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문과에서는 제3인으로 발탁되었다. 처음 예빈시(禮賓寺) 직장(直長)에 제수 되었으며, 여러번 옮겨서 사헌부감찰(監察)과 병조좌랑(兵曹佐郎), 이조좌랑을 거쳤고 대호군(大護軍), 지 사간원사(知司諫院事), 판 사복시사(判司僕寺事), 지제교(知製教)를 역임한 뒤 승정원 우부승지가 되었다.

을해년(단종3년) 여름. 세조가 왕이되자 도승지로 승급됨과 동시에 추 충좌익공신(推忠左翼功臣)의 호를 받았고, 이어서 이조참판에 옮겨지고 연성군(延城君)에 봉해졌으며, 호조, 이조, 형조, 예조 등의 판서를 역임하였고, 의정부 찬성을 거쳐 우의정에 오르고 곧 좌의정으로 승진하였다.

무자년(세조14년 1468) 9월에 예종께서 보위를 잇자 무장(武將)들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복주(伏誅)될 때, 위 아래가 모두 들떠서 정신이 없었는데 사무를 모두 공이 맡아 지휘하고 조치하여 사리에 맞도록 처결 하였으므로 국가가 공을 안위(安危)의 주축으로 삼았다. 논공할 때 보사정난익대공신(保社定難翼戴功臣)의 호를 받고 영의정을 배수하였다. 부인 우씨(禹氏)에게는 정경부인이 봉해졌다.

부인의 아버지는 군기시(軍器寺) 직장(直長) 휘 승경(承瓊)이니 단양백(丹陽伯) 충정공(忠靖公) 휘 현보(玄寶)의 손자가 되고 찬성사(贊成事)를 지낸 안동(安東) 권충(權衷)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영락 8년 경인(태종10, 1410)에 부인을 낳았다.

夫人既笄歸于公宜
家睦族婦道甚修事
公四十餘年傲戒相
成共保功名爲當世
法家云

男二長安命內資副
正先公死次安性中
文科累官至司諫院
司諫生女四長適內
膳主簿崔玉潤次適
通禮院左通禮尹孝
孫次適軍器主簿權
恩榮次適長興庫奉
事趙升廷崔趙亦已
死

孫男女二十餘人公
性嚴毅深重容儀端
雅有文學好匡諫歷
事

四朝(世宗·文宗·
世祖·睿宗) 清直
自守爲相論議務存
大體不敢輕改舊章
剖決如流人服平允

博通古今人就質疑
又善辭命中朝使來
必以爲擯而莫不敬
服一見如舊相與唱

부인이 15세가 되어 공에게 시집을 와서는 집안
을 잘 다스려서 일가간에 화목하였고 부도를 잘
다하여 공을 섬긴지 40여년이 되도록 서로 협조하
여 이루고 함께 공명을 보전 하였으므로 당세에
범가라 이르게 되었다.

두 아들을 두었으니 장남은 안명(安命)으로 내
자시 부정(副正)으로 있다가 공보다 먼저 별세
하였고, 차남은 안성(安性)인데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가지 벼슬을 지낸 뒤 사간원 사간에 이르
렀다. 딸이 넷이니 장녀는 내선시 주부 최옥윤
(崔玉潤)에게 출가 하였고, 차녀는 통례원 좌통
례 윤효손(尹孝孫)에게, 삼녀는 군기시 주부 권
은영(權恩榮)에게, 4녀는 장흥고 봉사인 조승정
(趙升廷)에게 출가하였는데 최옥윤과 조승정은
이미 사망하였다.

손자와 손녀는 20여인이나 된다. 공은 성품이
엄숙하고 굳세며, 침중(沈重)하고 용모와 위풍이
단아 하였다. 문장과 학문이 높았으며 바르게
간(諫)하기를 꺼리까지 아니하였다.

네 임금(세종, 문종, 세조, 예종)을 내리 섬기실
제 맑고 곧음을 스스로 지켰고 정승이 되어 논
의(論議)할 때는 대체(大體)를 세우는데 주력하
며 감히 옛 법을 가볍게 고치는 일이 없었다.
어려운 일을 해결 하기를 물 흐르듯 쉽게 처리
하니 사람들은 그 공평하고 믿음직스러움에 감
복 하였다.

고급의 사실을 널리 통하여 사람들이 의심나
는 일을 물으러 왔고, 또한 말을 잘하여 중국
에서 사신이 오게 되면, 반드시 접빈(接賓)의
사명을 맡았으니 사신들이 경복(敬服)하지 아니

酬名振中原一時縉
神之士見我國奉使
人則必問公寒暄

自承旨至判刑曹司
獄六年多所平反
世祖常稱清謹而不
冠不見則比之汲黯
圜圜久空則擬諸皋
陶又久攝禮曹掌試
得人多建議興學儒
類相賀焉

文宗在東宮夜與諸
弟釣于禁池使召司
僕官聞公以判官入
直遽止之曰我意他
員在耳若人 主上
所敬待不可與共戲
事也

及卽位稱官而不名
公之自小官爲人
主所重如此

銘曰孰濬其源允也
大匡始徒于竹赫葉
流光孰昌于後實惟
延城克樹勳名振厥
家聲大匡始之延城
大之位極台衡功昭

하는 사람이 없어 한번 보고도 구면같이 친해
졌다. 서로 창수(唱酬)한 글 때문에 이름이 중
국에 까지 떨쳐서 한때 고관대작들이 우리나라
에 오는 사신을 만나면 반드시 공의 근황(近況)
을 물었다.

승지(承旨)로 부터 형조판서에 이르러 옥사(獄
事)를 6년이나 맡아서 공평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세조께서 항상 칭백하며 부지런 하다고 칭찬하
시고 의관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대하려고 아니
하였으니 급암(汲黯)에게 비교할만 하다고 하시
고 옥(獄)이 오래 비어 있었으므로 모두 고요
(皋陶)에 견주었다. 또한 오랫동안 예조에서 시
험관을 맡아 인재를 얻었고 많은 건의로 학문을
일으켰으므로 선비들이 서로 치하하였다.

문종이 동궁에 계실 때 밤에 여러 아우들과 함
께 금지(禁池)에서 낚시질을 했는데 사복관을
부른 일이 있었다. 공이 판관으로 입직해 있다
는 말을 듣고 급히 말리기를 「나는 다른 사람
이 있는 줄 알았다」 하시며 「주상(主上)께서는
공경하여 대하는 사람이니 더불어 함께 희롱하
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고 하시었다.

즉위(卽位)한 뒤에도 공에게는 관명(官名)을 사
용하고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었다. 공은 소관
(小官) 때 부터 임금이 소중하게 생각함이 이와
같았다.

명(銘)하여 이르기를 누가 그 근원을 깊게 하였
나. 대광(大匡)이 바로 그분일세 처음 죽산으로
이거 하시어 빛나는 자손이 광채가 흐르듯 하였
네. 누가 그 뒤를 창성하게 하였는가. 실은 연성
군일세. 능히 공훈을 세워서 그 가문의 명성을
떨쳤네. 대광은 시작하고 연성은 키웠으니 벼슬
은 인신의 극품인 태형이요. 공명은 종정에 밝게

鼎彝有德位人無間
言積善于躬慶育于
門根深葉茂鬱蘭蓀
世濟其美祚胤無期
何以傳之刻此銘詞

成和七年辛卯八月
二十日立碑于墓左
未地相距七十四尺
明年壬辰正月十二
日配享 睿宗廟
崇政大夫吏曹判書
兼弘文館提學陽城
君李承召撰

기록되었네. 덕(德)도 있고 지위도 있으니 사람
들은 이간할 말이 없었도다. 몸에 선행을 쌓아
서 경사가 문중에 흘렀네.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듯 난초 향기로 가득차 있도다. 대대로
그 아름다움을 이어가니 자손들의 복이 무궁 하
도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렇게 명사(銘詞)를
새긴다.

성화 7년 신묘(성종 2년) 8월 20일에 비를 묘의
왼쪽 미지(未地)에 세우니 묘와의 거리는 74척
이다. 이듬해 정월 20일에 예종의 묘정에 배향
하였다.

승정대부 이조판서 겸 홍문관 제학 양성군(陽城
君) 이승소(李承召) 짓다.

박은(朴聞) 墓表

孟子曰誦其時讀其書不知其人可乎是以論其世也

余嘗讀翠軒詩常愛其神情灑落氣格縱逸類不爲物縛至其傷時閔俗感憤無聊往往有悲歌豪筑之音意其爲偉倜儻非常之士

而觀其友容齋李公所爲誌文又盛稱其學博行高余於是益知其爲不世人物而獨惜其遭時不祥身不容於昏亂之世橫罹奇禍以死豈不悲哉

始公十八而登第選爲弘文館正字賜暇湖堂至修撰當是時暴君在上凶黨鳴張衆正莫不氣死

公以眇然少年正色玉立以爲禍福天也吾無如彼何而盡忠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를 읊고 그 글을 읽으면서도 그 사람됨을 알지 못하면 옳은 일인가?” 하였으니 이것은 시와 글이 세상을 론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찌기 취헌(翠軒)의 시를 읽어보니 항상 그 정신이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여 격조가 중일하고 그 류(類)가 사물에 속박되지 않았다. 당세의 시대를 숴어하고 세속을 근심하여 분개하기도 하고 또 무료해 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비장한 노래를 부르는데 호방한 음(音)을 거기에 붙히니 그 뜻은 기이하고 고상하여 그가 범상한 선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의 친구 용재 이공이 지은 지문을 살펴보니 그를 일러 학문이 깊고 행동이 고상하였다고 칭송하고 있으니 그가 세속에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겠다.

홀로 때를 잘못 만나 몸이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고 혼미한 난세에서 뜻밖에 화를 당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어찌 안타깝고 슬프지 아니하겠는가?

처음 공은 18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에 선보되어 호당에서 사가독서 하고 수찬에 이르렀다. 이 때를 당하여 폭군이 위에서 군림하고 홍당들이 정전을 총단하니 뜻있는 많은 지사들이 이들에게 화를 입어 죽지 않은 자가 거의 없었다.

공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색한 다음 완전히 서서 화복은 하늘에서 내려 주는 것이다. 내가 저들과 더불어 같지 않을진대 마땅히 모든

所事人臣之義也隨
事盡言不少避

初館僚以西邊築城
不利論首議權奸燕
山怒命按治公適在
外還即抗章極爭日
三四至踰旬不止終
脫諸公於禍又進大
疏暴柳子光成俊李
克均陰耶負國之罪
下獄

獄官承風鍛鍊幾不
測公對以直得罷職
去公既去燕山淫荒
益甚日遂虎豕於國
門外輒胃夜還

公益憂慨與同列聯
筭極諫大觸主怒於

是凶黨之欲逞者又
益亟矣至甲子子光
追發前事起大獄克
均謂首發可誅時有
欲委公而免者

충성을 다하여 왕을 섬기는 것이 신하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고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할 말을 다하고 조금도 회피하지 않았다.

처음에 관료들이 서변축성분리론을 주장하여 권신들을 공박하였는데 이에 연산이 노하여 이들 주장자들을 색출하여 죄로 다스리도록 명하였다. 공은 마침 이번에 외지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사실을 듣고는 왕의 처사를 항의하는 상소를 올려 극렬하게 하기를 하루에 서너 차례나 하였다. 열흘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아 마침내 여러 동료들을 화(禍)에서 석방하여 주었다. 또 긴 상소문을 올려 유자광, 성준, 이극균은 음흉하고 간사한 술책으로 국권을 총단하니 이를 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옥관들은 그들의 압력을 받아 여러차례 가혹한 형벌을 가하여 고문하였지만, 공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바른 말로 이에 응대하니 마침내 파직당하고 말았다. 공이 파직되어 물러나자 연산은 더욱 음탕함과 횡포가 심해져 매일같이 궁궐 밖으로 나가 사냥을 하고는 밤이 늦어서야 돌아오곤 하였다.

이에 공은 더욱 근심하여 같은 반열에 있던 동료들과 함께 연명으로 간곡히 간하는 상소를 올렸는바, 이로써 공은 왕의 노여움을 크게 사게 되었다.

이 때 흉악한 무리들이 더욱 정권을 장악하고자 흥계를 꾸렸는데 갑자년에 이르러 유자광이 지나간 일을 다시 거론하여 대 옥사를 이르켰다. 이극균은 주동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목을 베야 한다고 간하였는데, 이때 죄를 공에게 미루고 화를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

公奮然自當無幾微
色燕山猶不忍加誅
竄東萊縣已而逮繫
京獄竟以六月十五
日被極禍臨死神氣
不變仰天笑者再而
已

時其年厯二十六世
道衰士不講仁義所
明者利害耳一朝臨
死生鮮有不相隨狼
捫而莫知耻如公之
不汙其君不私其身
蹈白刃而無悔使人
知仁義之可慕者可
不謂豪傑之士乎

嗚呼夫以公所有而
得時行志其笙鏞一
世以鳴國家之盛者
豈異哉天既生如此
人而又生子光之徒
任其魚肉而如不知
惜何也

然羣凶之惡雖逞于
一時至今人人欲食
其肉以談公之死者
未有不拊心流涕其
巍名峻節百世誦之
而不衰此固天之意
歟福善而禍淫者果

그러나 공은 태연히 스스로 당하면서 조금도 얼
굴색이 변하지 않았다. 연산도 차마 참하지 못하고
동래현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얼마 안되어서
서울의 감옥으로 압송되었다가 마침내 6월 15일
극형을 당하게 되었다. 죽음에 임해서도 정신과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하늘을 우러러
두어번 웃었을 뿐이다.

이 때 나이 겨우 26세였다. 세도가 쇠하여 선비
들을 인의(仁義)를 가르치지 않고 밝아지는 것
은 이해(利害) 뿐이며 하루 아침에 생사길에 임
해서도 서로 따르지 않는이 적고 이리 승냥이가
되어도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하건만 공이 임금
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자기몸을 사사로히 하지
않아 가혹한 형벌을 받더라도 후회함이 없이 다
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의를 흠모케 하였으니 어
찌 호걸한 선비라 하지 않겠는가?

아! 공의 품은 뜻으로 좋은 때를 만나 뜻대로 행
하여 한 세상에 동량지재가 되어 나라가 무성할
때 보탬이 되었다면 이 어찌 그릇된 것이리요.
하늘은 이미 이같은 사람을 내고, 또 유자광 같
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여 마음대로 살생하고
아까운 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찌된 일
인가?

그러나 흉악한 무리들이 비록 한 때는 뜻대로
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람마다 공의 죽
음을 말하는 자는 가슴에서 울어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으며 그 높은 이름과 좋은
절개는 백세가 지나도록 칭송하여 그치지 아니
하니 이 또한 진실로 하늘의 뜻이던가?

착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화는 주는

在此而不在彼歟余
莫得以詰也

公遺稿一卷崔簡易
權石洲諸公皆推服
甚盛吾祖文簡公亦
以爲天才極高東國
絕調由是公之文章
益大行于世雖然此
豈足以掩其人乎

公諱閻字仲說姓朴
氏世稱挹翠軒先生
高靈人高麗大將軍
諱之順後也曾祖諱
持祖諱秀林皆縣監
考諱聘孫司宰正妣
李氏直長苾之女

正公爲人剛介始公
之將論三凶也以親
在未敢決正公曰與
其竊祿而苟客不如
死諫之爲榮身既許
國不可以親故沮公
遂論之

嗚呼宜其宜其爲公
父也公配申氏左議
政用漑之女有行壯
見公集中公沒三年
丙寅 中廟改玉 贈
都承旨愍其冤也

것이 과연 여기에만 있고 저 세상엔 없는 것인
지 내 물을 길없도다.

공에게 유고 한권이 있는데 최간이와 권석주 같
은 분들이 모두 추송하기를 수 없이 많이 했으
며 나의 조부인 문간공 김창협도 공을 평하여
타고난 재주가 뛰어나 동국에서 제일가는 격조
라고 칭송하였다. 이때문에 공의 문장이 더욱
크게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어찌
그 사람을 다 말하였다고 하겠는가?

공의 휘는 은(閻)이요. 자는 중열, 성은 박씨이
니 세상에서는 읍취헌(挹翠軒)이라 부른다.

고령인으로서 고려조의 대장군이었던 지순(之
順)의 후손이다. 증조부의 휘는 지(持)요 조부는
수림(秀林)이니 모두 현감이었고 부친은 담손으
로 사재정(司宰正)이요 모친 이씨는 직장 이이
(李苾)의 따님이다.

사재정공 담손은 인물이 강직 하였는데 공이 처
음으로 삼흥을 논박하려 할 때 부모가 계시기 때
문에 감히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사재공이 말씀하
시기를 봉록이나 타먹어 가며 구차히 사는 것 보
다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간하여 영예로움을 삼는
것이 가하나 몸을 이미 나라에 바쳤는데 부모 때
문에 생각하는 바에 방해가 되면 아니된다고 하
시니 공이 마침내 논박할 수 있었다.

아! 공의 부친담도다. 공의 부인은 신씨이니 좌
의정 신용개의 따님으로 행장이 공의 문집가운
데 있다. 이에 돌아가신지 3년 뒤인 병인년에
중중이 즉위하시어 도승지를 증직하시니 그의
원통함을 가엽게 여겼음에서이다.

有男四人長寅亮僉
正次公亮參判次宗
亮次夭女長適李元
禎承義副尉次適金
礪參奉孫曰懋郡守
贈判書愈別座恕進
士長房出仲叔兩房
竝無后有庶支

贈孫曰慶業參判
贈右贊成劾仁弘爾
瞻洪汝諄諸凶以直
節名弘業郡守自慈
以往朝家猶累推恤
典衣冠世世不絕

公葬在陽智縣東金
谷村某坐之原公沒
今二百六十餘年而
墓無刻其八世孫縣
監君敬鎮始謀樹石
以記來乞文余不足
以不朽公獨心慕其
義而哀其不幸也敢
以告于來者曰此挹
翠軒之墓慎毋傷墓
前一草云爾

通政大夫成均館祭
酒兼世孫侍講院贊
善 金元行 撰

아들은 넷을 두었는데 장남 인량은 첨정이고 차남은 공량이니 참판이고 삼남은 종량ियो. 막내는 일찍 죽었다. 장녀는 승의부위 이원정에게 출가하였고 차는 참봉 김구에게 출가하였다. 손자는 군수를 지냈으며 판서로 추증된 무(懋)가 있고 별좌인 유, 진사인 서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장자인 인량의 자식들이다. 차남과 삼남에게는 후사가 없고 서손이 있다.

증손은 경업이니 참판으로 우찬성을 추증 받았으며 정인홍 이이첨 홍여순 등의 흉당을 탄핵한 바 절조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다. 홍업은 군수이다. 이 뒤에 조정에서 여러번 출전(恤典)을 내려주어 벼슬 자리가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

공의 묘소는 양지현 동쪽 금곡촌 언덕에 있는데 공이 죽은지 260여년이 지났음에도 비갈이 없었다. 공의 8세손인 현감 경진이 비로소 비를 세워 기록하고자 내게 와서 글을 청하였다.

내 비록 공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할 능력은 없으나 유독 마음 속으로 공의 외로움을 생각하고 그 불행함을 애통히 여기기에 감히 붓을 들어 이곳에 오는 자에게 이곳은 읍취현의 묘소이니 묘 앞의 풀 한포기라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를 뿐이다.

통정대부 성균관 좌주검 세손 시강원 찬선 김원행 글을 짓고

大匡報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原任 奎章閣直提
學 金秉模 書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좌의정겸 령 경연사
감 춘추관사 원임 규장각 직제학 김병모 글을
쓰다.

崇禎紀元後三戊午
十二月 日 立

승정기원후 3무오(1798) 12월 일 세움.

안응창(安應昌) 墓誌

參判李鳳徵撰

竹溪之安至麗始昌
大數氏族指先屈以
世有聞人先生之十
四代祖修文殿太學
士諡文成公倡明道
學餼食夫子廟庭

又十一傳而有諱宗
道位至觀察使號歲
寒齋於先生爲曾祖
考是生世復 贈左
贊成是生夢尹見适
無天揮泣奮擊領兵
赴亂至鞍峴大戰破
之榮振武勳封順陽
君娶郡守李德淳之
女牧隱先生之後

先生生於癸卯九月
壬午萬曆三十一年
也先生幼岐嶷長益
寬厚

又篤志力學出入先
輩長老門其往復文
字見於張旅軒集中
丁母夫人憂居廬一
節多動人者

참판(參判) 이봉징(李鳳徵)은 글을 짓다.

죽계(竹溪)의 안씨(安氏)는 고려(高麗) 때 비로소 창대(昌大)한 여러 씨족중에서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의 문인은 선생의 14대조로써 수문전대학사를 지내고 문성공(文成公)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도학(道學)에 창명(倡明)하여 부자묘정에 철식하였다.

또 11세를 내려와 휘 종도(宗道)는 벼슬이 관찰사에 이르렀고 호가 세한재인데 선생에게는 증조고가 된다. 이분이 휘(諱) 세복(世復)을 낳았는데 좌찬성에 증직을 받았고 이분이 휘 몽윤(夢尹)을 낳았는데 이괄(李适)이 하늘이 없는 것처럼 날뛰자 눈물을 뿌리며 분격(奮擊)하였으니, 병사를 거느리고 부난하매 안현에 이르러 크게 싸워 이를 궤멸시킨 영예를 얻고 그 진무(振武)한 훈(勳)으로 순양군에 봉(封)해졌다. 이 분이 군수 이덕순의 따님을 취(娶)하였으니 목은선생(李穡)의 후손이다.

선생은 계묘년 9월 임오일에 낳았으니 만력(萬曆) 31년(1603년, 선조 36)이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기의(岐嶷)하였고 성장하면서는 더욱 관후(寬厚)하였다.

또 그 뜻을 학문을 힘쓰는데 돈독히 하여 선배나 장노(長老)의 문하에 출입하였는데 그 왕복한 문자가 여헌(旅軒) 장선생(張顯光)의 문집인 『여헌집』 가운데 보인다. 어머니의 상(喪)을 당해서는 거려(居廬)하는 것이 변함이 없이 한결 같아 많은 사람들이 감복(感服)하였다.

時 國家新去亂 東宮與 兩大君交質于瀋保傳之任尤難其人以先生素有重名授之以大君師傅先生拜命即行略無幾微色及還又進傳于麟坪已而陞瓦署別提轉臺監

越明年甲申出爲金化縣主民社之始也峽邑學校頽廢殿享位板多舛誤失次上聞 朝亟釐之褒忠貞急婚喪勤訓誨存耆耆一以變俗興學爲務

戊子鄰郵誣欲陷之仁廟直其冤反罪其人人快之甲戌遭大夫人喪于仁同府庚寅順陽君卒于正寢執前後喪制行尤篤

服闕調通禮院引儀兼漢城參軍移軍資判官拜義城縣令乙

이때 나라에서는 새로이 난(亂)을 겪어 동궁(東宮)과 두 대군(大君)이 심양(瀋陽)으로 교질(交質)되었는데, 나라를 보전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되자 사람들은 본래 선생이 중명(重名)이 있음을 들어 대군(大君)의 사부(師傅)를 배수(拜授)케 하였다. 이에 선생은 명(命)을 받는 즉시 달려감에 미색(微色)이 조금도 없었다. 돌아와서는 인평대군의 사부가 되었고 후에 와서별제로 승진하였으며 대감으로 옮겼다.

이듬해인 갑신년(인조 22) 금화현주가 되어 비로서 백성의 일을 주관하기 시작하였는데, 금화현은 산골짜기에 있는 고을로 학교가 퇴폐하고 전향(殿享)의 위관은 대부분 천오(舛誤)되어 그 서차(序次)를 잃고 있었으며 왕께서 이를 들으시고 조정(朝廷)에서 우선적으로 이정(釐定)하도록 하는 한편, 충정(忠貞)을 포상하고 혼상(婚喪)을 급구(急救)하며 훈회(訓誨)를 부지런히 하고, 기구(耆耆)를 잘 존양(存養)하는데 힘쓰며 풍속(風俗)을 변모시키는데 있어서 오로지 학문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우선을 삼으라고 하셨다. 무자년(인조 26)에는 인근 역참에 있던 무당이 인묘(仁廟)의 묘지기를 모함하여 그 원통함이 오히려 사람 사람 각자에게 돌아가자 이를 꾀결하였다. 갑술년(인조 12) 인동부에서 대부인의 상(喪)을 당했고 경인년(효종 1)에는 순양군께서 정침(正寢)에서 돌아가시매 전후의 상례를 집행(執喪)하는데 상제(喪制)를 더욱 돈독하게 하였다.

상(喪)을 마치고 통례원인이에 선발되어 한성참군을 겸하였고 이어서 군자판관으로 옮겼으며 다시 의성현령을 배수하였으니 을미년(효종 5)

未冬也以器械士馬之精銳特進階通政陪賀箋至燕京

孝廟引入殿內動色待之下大夫而稱卿古亦無聞己亥孝廟喪先生北向痛哭居外齋素如考妣喪七閱月而已後居西樞九典州郡二醴與善皆先生所治而凡所施爲多倣古而行至

己未 上語筵臣曰安某 孝廟潛邸時師傅從燕有勞年又迫八十可無舊臣之思其令官給食物加等異數也

庚申閏八月己丑考終正寢壽七十八十月甲午葬于龍仁治南彌助峴坐子之原先塋側也是歲朝廷以錫胃等有保社功載之鐵卷古事祭天同盟則舊勳嫡長皆加一階先生雖病在亦與焉 恩命未下

겨울이었다. 기계(器械)와 사마(士馬)의 정예(精銳)로 통정계로 특진(特進)하여서는 하전표(賀箋表)를 가지고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효묘께서 전내로 불러들여 곁에서 모시며 대부들의 움직임을 살피게 하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경은 옛부터 또한 소문이 없었다고 하였다. 기해년 효종의 상을 당하자 선생은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하였고 상을 치르는데 엄숙하고 성심을 다하여 고비의 상과 같이 49제를 지낸 후에야 서추에 머물렀다. 전국의 주군과 2곳의 고을이 잘 다스려진 것은 모두 선생이 다스린 바이고 무릇 그 시행함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옛날의 제도를 모방하여 행하였다.

기미년(숙종 5) 왕께서 연신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모(安某)는 효종께서 잠저에 계실 때 사부로서 연경까지 호종한 공이 있다”고 하셨다. 이에 나이 또한 80세에 다다랐지만, 구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히 없어 그 관에서 식물을 내려주고 등급을 올려주라는 명령이 여러차례 있었다.

경신년(숙종 6) 윤(閏) 8월 기축일 정침(正寢)에서 돌아사시니 나이는 78세였다. 10월 갑오일(甲午日) 용인(龍仁)의 치소(治所) 남쪽 미조현(彌助峴) 자좌의 언덕 선영(先塋)의 옆에 장례하였다. 이 해에 조정에서는 석주(錫冑: 金錫冑) 등에게 보사의 공이 있다고 하여 철권(鐵卷: 功臣錄券)에 이를 싣고 옛날 하늘에 제사지내며 함께 맹세하던 것에 따라 구훈이 있는 적장자에게는 모두 1계씩을 가자하였는데, 선생은 비록 병이 있었으나 또한 참여하였는데 은명이 미치지 못하였다. 선생이 이미 서거함에 왕께서는 이

而先生已逝 上悼
之特 贈嘉善大夫
漢城右尹順原君

惟先生色莊而中溫
言簡而行篤正衣冠
端坐記問終日孝悌
姻睦乃其天性順陽
在盡子職無違沒襲
斂葬祭皆手自經紀
無憾

乃已弟參奉公少孤
朝夕與處訓誡備至
凡有施爲務從其言
姊妹貧窶不聯者必
多與之錢財或請至
家或盡年不歸衣櫛
食飲雖小必分至宗
族不分遠近皆推之
以恩雖所不知之人
一切厚遇之

先代邱墓頽圯者封
築之誌銘表陰殘缺
難考者亦鑿刊而新
之嘗收輯世德作爲
家乘追遠錄也考證
源派刊布宗族順興
大譜牒也採記巷謠
以風當世拾遺錄也
拈出二禮翻解而曉

를 애도하시고 특별히 가선대부 한성우윤 순원
군에 증직을 내리셨다.

생간컨데 선생은 안색이 장중한 가운데서도 온
화하였고 말은 간결하면서도 행실은 독실하였
다. 의관을 바르게 하고 단좌하여 종일토록 기
문하였으며, 효제인목 하여 그 천성은 순양하였
음에 자식의 직분(職分)을 다하는데 어김이 없
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심에 습감하고 장제함에는
모두 손수 경기하여 감정이 없게 하였다.

이에 동생 참봉공이 어려서 고아가 되었음에 조
석으로 함께 처소하며 훈계하였는데 마음을 다
하였고 어루만지는데는 그 말을 좇으려는데 힘
썼다. 자매가 빈구(貧窶: 가난함)하여 연이 멀어
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많은 전재(錢財)를 나
누어 주었고 혹 집을 방문하여 해가 다가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의대(衣櫛)와 음식이 비록 적
을 망정 반드시 나누어 주어 종족들이 나뉘어지
지 않아 원근에서 모두 이를 추앙하기를 은덕이
비록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후하
게 대접하였다고 하였다.

선대의 규모가 퇴이한 것은 이를 봉축(封築)하
고 지명과 표음(表陰)이 잔결(殘缺)하여 상고하
기 어려운 것은 또한 참완(鑿刊)하여 새롭게 하
였다. 일찍이 세덕을 수집하여 가승을 엮었으니
이것이 『추원록』 이고, 원파(源派)를 고증하여
종족에게 간행·배포하였으니 『순흥대보첩』 이
며, 향요를 채집하고 기록하여 당세를 풍화(風
化)하였으니 『습유록』 이고, 2 예(禮)를 점출하
여 이를 번해(翻解)하므로써 깨닫기 쉽게 한 것
이 『상제예해』 이니 선생께서 전후로 마음을

喪祭禮解也先生之前後用心見於文辭者如此

先生諱應昌字興叔別自號愚拙齋又號柏巖先生之前配韓山李氏判書慶滉女封夫人先先生十九年卒壽五十九後與先生同岡窆後配星州李氏士人腆女星山府院君稷之後亦封夫人

先生生二男一女琢通德郎女李夢錫郡守前夫人出也璜後夫人出也琢生一男五女男春國生眞女李鳳徵副提學蘇瑄進士李謙徵姜錫三韓宗運佐郎

夢錫生五男一女善英敏英文科都事挺英進士啓英生員德英進士女金構觀察使璜生二男鼎國生員源國

써서 문사(文辭)에 보이는 것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선생(先生)의 휘(諱)는 응창(應昌)이고 자(字)는 흥숙(興叔)이며 스스로 우졸재(愚拙齋)라고 자호(自號)하였고 또 백암(柏巖)이라고도 호(別號)하였다. 선생의 전배(前配)는 한산이씨(韓山李氏)로 판서(判書) 경황(慶滉)의 따님인데 부인(夫人)에 봉(封)해졌다. 선생보다 19년 먼저 돌아가시니 나이 59세였다. 후에 선생과 더불어 같은 봉분에 합폄(合窆)하였다. 후배(後配)는 성주이씨(星州李氏)로 부인(夫人)에 봉(封)해졌다.

선생(先生)은 2남 1녀를 낳았는데 탁(琢)은 통덕랑(通德郎)을 지냈고 딸은 이몽석(李夢錫)에게 출가하였는데 전부인(前夫人)의 소생이며, 군수(郡守) 석(璜)은 후부인(後夫人)의 소생이다. 탁(琢)은 1남 5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생원(生員) 춘국(春國)이고 딸은 부제학(副提學) 이봉징(李鳳徵)·진사(進士) 소훤(蘇瑄)·이겸징(李謙徵)·강석삼(姜錫三)·좌랑(佐郎) 한종운(韓宗運)에게 출가하였다.

몽석(夢錫)은 5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선영(善英)·문과에 급제하여 도사를 지낸 민영(敏英)·진사 정영(挺英)·생원 계영(啓英)·진사 덕영(德英)이고 딸은 관찰사 김구(金構)에게 출가하였다. 석(璜)은 2남을 낳았는데 생원 정국(鼎國)과 원국(源國)이다.

春國生二男煜燮鳳
 徵生三男泌進士澹
 進士沐謙徵生一男
 泳鎭錫三宗運皆無
 育善英生二男四女
 敏英生一男一女德
 英生二男三女男希
 魯女黃啓河餘皆幼
 內外曾玄四十餘人
 先生小子璵以不佞
 習如先生平生托以
 幽堂之記噫不佞拜
 先生床下殆近數十
 年雖無有得於先生
 之萬一亦可模捉先
 生儀形省記言行安
 敢以不文辭遂敍次
 如右

춘국(春國)은 2남을 낳았는데 옥(煜)과 혁(燮)이
 며 봉징(鳳徵)은 2남을 낳았는데 진사 필(泌)·
 진사 담(澹)· 휴(沐)이고, 겸징(謙徵)은 1남을 낳
 았는데 영선이다. 석삼과 종운은 모두 아이를
 낳았으나 기르지 못했다. 선영은 2남 4녀를 낳
 았고 민영은 1남 1녀를 낳았으며 덕영은 2남 3
 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희노이고 딸은 황계하에
 게 출가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내외의
 증손과 현손은 40여인에 이른다.

선생(先生)의 소자(小子) 석(璵)이 불영(不佞:
 李鳳徵)에게 선생의 평생을 익숙히 알고 있는
 까닭에 유당지기(墓誌銘)를 부탁함이 희라! 불
 영(不佞)은 선생을 책상 아래에서 모시기를 거
 의 수십년에 가까워 비록 선생의 만분의 일을
 얻음이 없지 않아 또한 선생의 의형(儀形)을 모
 착(模捉)하였으나 언행을 간략히 기록함에 어찌
 감히 문사로서 하지 않겠는가! 이에 서술한 것
 이 오른쪽과 같다.

양구주(梁九疇) 墓碣

贈左贊成南原君墓
碣銘并序

公之墓于陽智治北
雲多之洞枕癸原者
邈矣尙無顯刻後孫
在元介而徵余語以
不文辭而請益勤謹
按公姓梁氏諱九疇
字天與

南原人也以高麗兵
部郎中諱能讓爲遠
祖八傳至成均祭酒
諱俊寔公曾祖祖版
圖判書諱祐考判衛
尉寺事諱碩隆妣
贈貞夫人閔氏

籍驪興別提諱永宣
其父也公於明朝洪
武丙辰擢文科榮官
至中訓大夫禮賓寺
尹事我 太宗知沃
川郡有惠政種栢郡
之西山

利于民邑之誌輿地
之書可按也後以中
男貴 贈純忠補祚

증좌찬성 남원군 묘갈명 병서(贈左贊成南原君墓碣銘并序)

공의 묘는 양지현 치소 북쪽 운다지동 계좌(癸坐)의 언덕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나 오히려 현각이 없었다. 이에 후손(後孫) 재원(在元)이 와서 나를 불러 문사(文辭)가 없음을 말하고 비문을 청하기를 더욱 도타우면서도 공손하게 하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공의 성은 양씨이고 휘는 구주(九疇)이며 자(字)는 천여(天與)로

남원인이다. 고려시대에 병부낭중(兵部郎中)을 지낸 휘(諱) 능양(能讓)으로 원조(遠祖)를 삼으며, 8대(代)를 전하여 성균재주(成均祭酒) 휘(諱) 준(俊)에 이르렀으니 이 분이 공(公)의 증조(曾祖)이다. 조(祖)는 판도판서(版圖判書)에 오른 휘(諱) 우(祐)이고, 고는 판위위시사를 지낸 휘(諱) 석용(碩隆)이다. 비는 정부인에 증직(贈職)된 민씨(民氏)인데

본관은 여흥으로 별제를 지낸 휘(諱) 영선(永宣)이 그 아버지이다. 공(公)은 명조(明朝) 홍무(洪武) 병진년(1376年, 高麗 禔王 2)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은 중훈대부 예빈시윤에 올라 우리 태종(太宗)을 섬겼다. 지옥천군사를 지내면서는 어진 정치(惠政)를 베풀었는데, 군(郡)의 서쪽 산에 잣나무를 심어

백성들에게 이득을 준 사실이 읍지류(邑誌類)나 여지류(輿地類)에 쓰여있는 것을 가히 살펴볼 수 있다. 후에 중남(中男: 梁誠之)이 귀하게 됨으로서

功臣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南原君厥有二配從封如

例張氏鐵原府使諱原卿之女有一男別葬橫城所乙山午坐權氏全州府尹諱湛之女有二男一女葬在所乙山艮坐男長敬之三嘉縣監

次誠之吏曹判書爲成廟名臣食采南原贈諡文襄次信之上將軍女適李專命司正孫曰誠曰珪曰瑗縣監 贈參議曰琇郡守

曰瓚同副承旨曰琥縣監 贈左贊成曰璘司正曰琦萬戶後承蕃衍不能盡錄舉其節義勳業循良干城之較著者則有曰治郡守

策靖國原從勳曰淑逸持平外歷四州牧曰淵文左贊成以大司憲一日三啓按巨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 승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 겸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남원군(南原君)에 증직(贈職)되었고 두 부인도 그 예(例)에 따라 종봉(從封)되었다.

장씨(張氏)는 철원부사(鐵原府使) 휘(諱) 원경(原卿)의 따님으로 1남을 두었는데, 별도로 횡성(橫城) 소을산(所乙山) 오좌의 언덕에 장례(葬禮)하였고, 권씨(權氏)는 전주부윤 휘(諱) 담(湛)의 따님으로 2남 1녀를 두었는데, 소을산(所乙山) 간좌의 언덕에 장례하였다. 아들중 장남은 경지(敬之)로 삼가현감을 지냈고

다음은 성지로 이조판서에 올랐는데, 성묘때 이름난 신하가 되어 남원 지역을 식읍으로 하사받았으며 증시는 문양(文襄)이며, 다음은 신지(信之)인데 상장군을 지냈으며 딸은 사정(司正)을 지낸 이부명에게 출가하였다. 손자로서는 성(誠)·규(珪)·현감을 지내고 후에 참의에 증직된 원(瑗)·군수를 지낸 수(琇)

동부승지를 지낸 찬(瓚)·현감을 지내고 좌찬성에 증직된 호(琥)·사정을 지낸 인(璘)·만호를 지낸 기(琦) 등이 있으며, 그 외의 후승(後承)들 역시 번연(蕃衍)하여 모두 기록할 수 없다. 그중 절의나 훈업(勳業)·순량(循良) 간성(干城) 등으로 다른사람과 비교하여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지방을 다스리는데

책정을 지키고 정국(靖國) 원종의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숙(淑)은 은일로 지평에 오르고 외직으로 4주목을 편력하였고, 연(淵)은 문과에 급제하여 좌찬성에 올랐는데 대사헌으로 있을 때는

慝金安老曰允元縣令曰允貞監役 中廟疏覈

南哀被竄洪原卒于謫所曰允義武平安兵使副摠管曰允信泗川縣監被乙巳土禍壬辰父子同殉享全州鶴川祠曰允英水軍節度使

曰允濫吏曹佐郎明廟乙巳被禍曰思俊思瑩兵馬節度使曰誠咸昌縣監壬辰戰亡 贈兵判旌閭曰豈號瞽啞堂丙子斥和事

載果川邑誌曰誌朔寧郡守壬辰與圻伯沈岱同殉 贈吏判諡忠愍公享朔寧表節祠曰護南兵使曰震龍號石湖以洗馬昏朝不仕

學行名世享坡州鄉賢壇曰詡同樞曰應湖禦侮將軍曰應洛進文魁承旨號漫叟

하루에 3차례나 계(啓)를 올려 매우 간사했던 김안노를 안찰하였으며, 윤원(允元)은 현령을 지냈고, 윤정(允貞)은 감역을 지내고 중묘조(中宗)에 상소(上疏)하여

남곤을 탄핵하다가 홍원으로 유배를 당하여 적소에서 돌아갔다. 또 윤의는 무과에 급제하여 평안병사와 부총관을 지냈고, 윤씨(允信)은 사천현감을 지내고 을사사화에 피해를 입었으며 임진년(1592년, 선조 25)에는 부자(父子)가 함께 순절(殉節)하여 전주(全州) 학천사에 제향(祭享)되고 있으며, 윤영(允英)은 수군절도사에 올랐으며,

윤온(允濫)은 이조좌랑을 역임했으나 명묘때 을사사화의 화(禍)를 당하였다. 사준(思俊)과 사형(思瑩)은 병마절 도사를 지냈고, 함(誠)은 함창현감을 지내고 임진왜란중 전쟁에서 돌아가 병조판서에 증직되고 정려(旌閭)가 내려졌으며, 입(聾)은 호(號)가 고아당(瞽啞堂)으로 병자호란때 척화의 일로

『과천읍지』에 “삭녕군수로 임진년(1592년)에 기백 심대(沈岱)와 함께 순국하여 이조판서에 증직되고 충민공이라는 시호를 하사 받았으며, 삭녕의 표절사에 배향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양남(讓南)은 병사를 역임했으며, 진용(震龍)은 호가 석호(石湖)로 세마에 올랐으나 혼조(光海君) 때는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행으로 이름을 세상에 떨치며 파주의 향현단에 향사되었고, 후(詡)는 동추를 지냈으며, 응호(應湖)는 어민장군을 지냈다. 응락(應洛)은 진사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승지에 이르렀으며 호가

文章鳴世曰應涵副
總管 仁廟扈駕南
漢效勞甚多

曰忒屢典郡邑止節
度使以清白聞曰彬
水軍節度使 景廟
壬寅誣獄四朔拷掠
幾絕僅甦曰世絢黃
海兵使曰達揚武功
臣曰垸

水軍節度使著握奇
圖說以韜略聞曰宣
洙官止慶尙左水使
文章治績著于世曰
憲洙刑曹判書禁衛
大將諡忠莊 高宗
朝平丙寅之亂

以儒將稱曰好仁
正廟辛亥以承傳除
孝陵直長止別提曰
柱華亞將知義禁曰
柱台副總管曰柱星
水軍節度使曰柱顯
亞將

左尹曰弼煥全州營
將兼古阜郡守遇害
東匪特 贈軍務協
辦曰性煥主殿院卿
陸軍參將嗚呼其世
既遠文獻多闕然攷
諸譜牒有

만수(漫叟)로 문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응함(應涵)은 부총관으로 인묘(仁祖) 때 왕을 남한산성까지 호가한 효로가 매우 많았다.

식(試)은 여러차례 군읍을 돌며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고 벼슬이 절도사에 이르렀고 청백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빈(彬)은 수군절도사에 오르고 경묘 임인년(경종 2)에 무고로 투옥되어 4삭(朔) 동안 고락을 당해 몇차례나 기절하였다가 겨우 소생(甦生)하기도 하였으며, 세순(世絢)은 황해병사를 지냈고, 규(逵)는 양무공신에 책록되었다. 완(垸)은

수군절도사를 지내고 『악기도설』을 저술하여 도략(韜略)으로 이름을 얻었고 선수(宣洙)는 벼슬이 경상좌수사에 머물렀지만 문장(文章)과 치적(治績)으로 세상에서 명성을 얻었다. 헌수(憲洙)는 형조판서와 금위대장을 지내고 충장(忠莊)이란 시호를 하사받았으며, 고종(高宗) 때는 병인지란(丙寅洋擾)을 평정(平定)하여

유장(儒將)으로서 칭송을 받았다. 호인(好仁)은 정묘(正朝) 신해년(1791년, 정조 15)에 승전(承傳)으로 효릉직장에 제수(除授)되고 별제(別提)에 이르렀으며, 주화(柱華)는 아장(兒將:副將)으로 지의금(知義禁)을 지냈고, 주태(柱台)는 부총관에 올랐으며 주성(柱星)은 수군절도사를 지냈다. 주현(柱顯)은 아장(亞將)으로

좌윤(左尹)을 역임했으며, 필환(弼煥)은 전주영장(全州營將)을 지내며 고부군수를 겸하고 있다가 동비(東匪:東學黨)의 피해를 입고 특별히 군무협판에 증직되었고 성환(性煥)은 주전원경(主殿院卿)과 육군참장(陸軍參將)을 지냈다. 오호(嗚呼)라! 세월이 이미 멀어지고 문헌(文獻) 또한 대부분 없어져 여러 보첩(譜牒)을 상고하여 보니

曰處事簡嚴臨民惠
愛公之規模氣像可
揣而況有子克肖經
邦安民爲一代之柱
石公所以不朽者其
在斯歟系以銘曰

帶方之族胄于神聖

珪組蟬嫣世篤厥慶

循良之積以惠爲政

若霸于穎若僑于鄭

西山翠栢愈老愈勁

白叟黃童到今歌詠

余筆匪諛何俟勤請

一片貞珉亘古輝映

癸酉(四二六六 一
九三三)秋九月哉
生明 安東 金寧漢
謹撰

이르기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간엄(簡嚴) 하였고 백성을 대하여서는 혜애(惠愛)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공(公)의 규모(規模)와 기상(氣像)을 가히 헤아릴 수 있다. 하물며 아들 또한 능히 이를 본받은 바 있어 경방(經邦)과 안민(安民)에 일대(一代)의 주석(柱石)이 되었으니 공(公)의 소행(所行)이 폐하여지지 않은 것이 이와 같고도 이와 같도다! 이를 엮어 명(銘)하노니

대방(帶方)의 족성(族姓: 族望·家系)으로 신성(神聖: 왕을 상징하는 뜻)의 신하되었다네

규장(圭璋: 禮式 때 장식으로 쓰이는 귀한 玉, 고귀한 인품을 비유)은 선언(蟬嫣: 연속한 모양)하여 세독충현(世篤忠賢)이 되었으니 경사(慶事)롭도다.

순량(循良: 법을 지켜 백성을 잘 다스림)의 치적(治績) 인혜(仁愛)로써 정사(政事)를 돌보았으니 영수(潁水)의 우두머리와 같고 정(鄭)에서 교거(僑居: 타향에서 임시로 삶, 寓居)함과 같았도다 서산(西山)에 취락(聚落)을 이룬 잣나무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백수(白叟: 노인)와 황동(黃童: 두서너살의 어린 아이)들은 지금에 이르러 노래를 읊고 있다네

내가 쓰는 빛나는 유묘(諛墓: 墓碑의誌銘을 지어 죽은 사람을 과분하게 칭찬하는 일)는 어찌 삼가 칭하기를 기다리겠는가

한 조각의 정민(貞珉: 貞婦石)의 표석(表石)은 오래되면 될 수록 휘영(輝映)하다네

계유년(癸酉年: 4266, 1933) 가을 9월 생명(生明) 안동(安東) 김영한(金寧漢)은 삼가 글을 짓다.

追記 嗚呼公之賢
配 贈貞敬夫人張
氏墓在江原道橫城
所乙山午坐原而繼
配 贈貞敬夫人權
氏墓俱在所乙山越
岡艮坐原矣往在戊
辰年歲祀以後孫將
欲遷兆于公之墓而
宗議不一累年遷就
今纔合議乃設役而
緬襄于公之墓右則
實丁丑(四三一九)

추기(追記) 오호(嗚呼)라! 공(公)의 현배(賢配)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증직(贈職)된 장씨(張氏)의 묘(墓)는 강원도 횡성(橫城)의 소을산(所乙山) 오좌의 언덕에 있고 계배(繼配)인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증직(贈職)된 권씨(權氏)의 묘(墓)는 소을산(所乙山) 산너머 간좌(艮坐: 북동향)의 언덕에 있었다. 이에 지난 무진년(戊辰年: 1928년) 시제를 지낸 이후 후손들이 장차 공(公)의 묘(墓)로 천장(遷葬)코자 하였으나 종중(宗中)에 서의 의논이 여러해 동안 일치되지 않아 지금에 이르러서야 겨우 천장(遷葬)하기로 합의하여 이내 일을 시작하여 공(公)의 묘(墓) 오른쪽에 면례(緬禮)를 이루었으니 실로 정축년(丁丑年: 4319년, 1987년)이다.

여씨(呂氏) 墓碑

先妣貞夫人 贈貞
敬夫人呂氏本咸陽
在麗有位大將軍諱
林清之後門闈簪組
奕世蟬聯至我 朝
有諱稱知議政事

贈諡靖平公以 太
祖龍潛故人有佐命
功而勞謙辭勳此其
尤顯者也高祖諱順
元 贈領議政僉知
中樞府事曾祖諱裕
吉漢城右尹

贈左贊成祖諱爾徵
吏曹參判兼藝文館
提學 贈領議政祖
妣清州韓氏西平府
院君文翼公諱浚謙
之女本生祖考仁川
府使

贈吏曹參議諱爾亮
卽吏參公之從弟祖
妣清州韓氏及第孝
純之女考諱聖齊領
議政 贈諡靖惠公
號雲浦妣 贈貞

선비(先妣)는 정부인(貞夫人)인데 정경부인으로 추증되었다. 여씨(呂氏)는 본관(本貫)이 함양(咸陽)으로 고려시대에 벼슬이 대장군(大將軍)에 오른 휘(諱) 임청(林淸)의 후손이다. 가문에서의 잠조(簪組)가 혁세(奕世:累世)토록 선련(蟬聯:연속함)되어 아조(朝鮮)에 이르러서는 휘 칭(稱)이 지의정사(知議政事)를 지내고

정평공이란 시호에 추증되었는데, 태조(李成桂)가 용잠(龍潛)할 때의 고인(故人:친구)으로 좌명(佐命)의 공이 있었고 노겸(勞謙)하였음에도 그 공로를 사양하였으니 이것은 더욱 현저(顯著)한 것이었다. 고조(高祖)의 휘는 순원(順元)으로 영의정 첨지중추부사에 증직되었고 증조의 휘는 유길(裕吉)로 한성우윤을 지내고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조(祖)의 휘는 이징(爾徵)으로 이조참판 겸(兼)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조비(祖妣:할머니)는 청주한씨로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문익공(文翼公) 휘 준겸(浚謙)의 딸인데, 본래 낳은 조고(祖考:할아버지)는 인천부사(仁川府使)를 지내고

이조참의에 추증된 휘 이량(爾亮)이니 즉 이참공(吏參公:呂爾徵)의 종제(從弟:사촌동생)이며 조비(祖妣) 청주한씨는 급제(及第) 효순(孝純)의 딸이다. 고의 휘는 성제(聖齊)로 영의정을 지내고 정혜공(靖惠公)이라는 시호(諡號)를 추증받았는데, 호(號)는 운보(雲浦)이며 비는

敬夫人衿川姜氏高麗侍中諱邯贊之後右議政月塘公諱碩期之孫縣監諱文星之女領議政象村申公諱欽之外孫以

甲申十一月十六日降生于漢陽第生而端莊穎發不類凡兒及長事父母盡孝友兄弟篤至踈於財利愛人喜施幹事之才接下之仁有

大過人者人皆謂女中君子庚子歸于府君癸卯先君遭外艱先妣年纔二十承家道之積敗喪葬祭需無不躬辦親黨咸異之

壬子王考下世先君過毀幾至滅性轉成奇疾先妣至誠救護衣不解帶雖極貧窶每再具冬衣而進凡便身之物救病之需靡不竭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된 금천강씨(衿川姜氏)인데, 고려시대에 시중(侍中)을 지낸 휘 감찬(邯贊)의 후손이자 우의정을 지낸 월당공(月塘公) 휘 석기(碩期)의 손녀이며 현감을 지낸 휘 문성의 딸이자 영의정을 지낸 상촌(象村) 신공(申公) 휘 흠(欽)의 외손이다.

부인은 갑신년(인조 22, 1644) 11월 16일 한양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단장(端莊)하고 영발(穎發)하여 보통 아이와는 달랐으며 성장하면서는 부모를 섬기는데 효성을 다하고 형제에게는 우애가 돈독하였다. 재리(財利)에는 소원하여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였고 간사(幹事)의 재주가 있었으며 아랫 사람을 대하는데는 인자(仁慈)함이 있어

사람들에게 크게 베풀어 사람들은 모두 아녀자 중에서도 군자라고 일컬었다. 경자년(현종 1, 1660)에 부군(府君: 吳遂良)에게 시집와서 계묘년(1663) 선군(先君)이 부친상을 당하자 선비(先妣)은 이때 나이 겨우 20임에도 불구하고 가도(家道)의 적덕(積德)을 계승하여 상장(喪葬)의 제수(祭需)를 몸소 힘써 갖추지 않음이 없었음에 친당(宗族)들은 모두 이를 칭송하였다.

임자년(1672) 왕고(吳道隆)가 돌아가심에 선군(先君)이 애혜함이 지나쳐 거의 멸성(滅性)할 지경까지 이르렀고 기질(奇疾)에 걸리자 선비(先妣)는 지성(至誠)으로 구호(救護)하였는데, 옷에서 허리띠를 풀지 않고 비록 매우 빈구(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매년마다 다시 겨울옷을 마련하고 무릇 몸에 편리한 물품들을 바쳤으며 병(病)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힘을 다해 구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力以奉積二十餘年
行之如一日壬申先
君棄諸孤勉抑至情
殯斂之具皆自手辦
祭奠務盡精潔奉先
祀益謹當夏生雉極
難致

而必求質乃已哀哀
笱痛到老采篤紉綃
締絡亦終身不近此
其大行大節也自于
歸之初事舅姑誠敬
備至脂灑甘蠶必手
具而躬薦

議政公多退居鄉庄
輒具小饌以送公每
日飢餓中能爲此耶
後每當考妣諱辰力
具祭需以送歲以爲
常此具孝於親也

王父贈參判公早下
世膝下有少女及兩
雉子撫愛如己出辦
裝婚嫁不失其時皆
至成立季叔父喪出
湖西寡姒獨居鄉廬
先妣

이에 봉적하기 20여년 동안의 행동은 하루도
다름이 없었다. 임신년(1692) 선군(先君)이 여
러 아이들을 버리자 [돌아가자] 지정(至情)을
힘써 억누르고 빈림(葬禮)에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손수 갖추고 제전(祭奠)도 힘써 정결(精
潔)함을 다하였다. 선사(先祀)를 받들에는 더욱
삼가하여 여름에 생치(生雉)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를 구하여 제사(祭祀)하였는
데, 애애(哀哀)하고 통곡(痛哭)함을 늙어서까지
그치지 않고 돈독히 하였으며 주초희락(紉綃締
絡) 또한 종신토록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이것
은 대행이요, 대절이었다. 시집와서 처음부터 구
고(舅姑)를 섬기는데 성경(誠敬)을 다하였고 지
수(脂灑)나 감취(甘蠶)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반
드시 손수 준비하여 올렸다.

의정공(議政公)은 대부분 향장(鄉庄)에 물러나
거처하고 있었음에 번번히 소찬(小饌)을 마련
하여 보냄에 공은 매번 말씀하시기를 “끓는 것
은 이것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다”라고 하였
다. 그후 매번 고비(考妣)의 휘신(諱辰: 忌日)을
당해서도 힘써 제수를 마련하여 보내어 해마다
이로써 상례를 삼았으니 이것이 부모에 대한
효성이었다.

왕부(王父) 증참판공이 일찍 세상을 버렸는데,
슬하에 어린 여자 아이와 2명의 어린 남자아이
가 있었음에 무애(撫愛)함이 자신이 낳은 자식
과 같이 하였고 장송(裝送)을 갖추어 혼인을 시
키는데도 그 때를 잃지 않고 모두 성사시켰으며
막내 숙부의 상(喪)이 호서(湖西)에서 있어 과부
가 된 손윗 동서가 혼자서 향리를 지키며 여묘
하자 선비(先妣)가

愍其無依使季子出
繼激致京第同鼎以
居眷恤庶弟必咸親
愛益篤必欲其入仕
成人躬駕于從祖兵
判公家占得初仕終
至典邑

事姊氏眷少姑老益
至解衣相贈甘旨必
兮此其于兄弟也戊
申先君登庭試第議
政公方按湖南節例
送應榜諸需頗夥然

旋以試題曾出旬製
罷其榜議政公素清
簡悉推其前送需婦
人恒性臨財必固惜
而亟還之無難色世
咸語曰推之之父既
難還之

之女尤難矣甲戌外
家喪闋兮送貂帽價
頗不貲襄與姪兒光
周妻衣函之屬亦不
受焉此其恬於財用
也接人務極溫醇

그 의탁할 곳이 없음을 가엾게 여겨 막내 아들로 하여금 출계(出繼)케하고 서울의 집으로 맞아들여 함께 살았다. 서제(庶弟)를 권휼(眷恤)함에 반드시 친애를 더욱 돈독히 하였고 벼슬을 하고자 하는 성인이 있으면 직접 종조(從祖)인 병판공(兵判公)의 집으로 찾아가서 초사(初仕)를 점득(占得)하여 마침내 전읍(典邑)에 이르게 하였으며,

자씨(姊氏: 손윗 동서)를 섬기는데 있어서도 소고(少姑)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함을 늙어서까지 더욱 돈독히 하였고 서로 거리낌없이 지내며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음에 이것은 형제에 대한 우애(友愛)였다. 무신년(1668) 선군(先君)이 정시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이때 의정공은 바야흐로 호남을 안절(按節)하고 있었음에 예(例)에 따라 방(榜)을 붙이고 여러 물품을 보냄음이 자못 많았으나 시제(試題)가 10일 일찍 나왔다고 하여 그 방(榜)을 파(罷)하자 의정공(議政公)은 평소와 같이 청간(淸簡)하게 하고 그 전에 보내왔던 물품들은 모두를 양여하였고, 부인(婦人) 역시 품성이 재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낌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돌려주는데 어려운 기색이 전혀 없었으니

모두들 말하기를 “이를 양여하는 지아비도 어렵지만, 이를 돌려주는 아녀자는 더욱 어려운 것이라”라고 하였다. 갑술년(1694)에는 외가에서 상(喪)을 마치고 초모(貂帽)를 보내움에 가격이 자못 비쌌지만, 질아 광주(光周)의 처에게 양여하고 의함지속(衣函之屬)들은 또한 모두 받지 않았으니 이것은 재용(財用)에 있어서 염담(恬澹)한 것이었다. 사람이 접함에 있어서는 매우 온순(溫醇)하여 촌구(村嫗)나

雖村嫗寒女輒賜坐
與語傾情以待人皆
親附如就芝蘭見窮
乏則必務贈遺疎族
窮隣有急來訴輒皆
滿望而歸晚來箱籠
頗不貧而

散施不吝家無餘財
或有急乞者而適見
乏則亦索於諸子而
曲副焉以是一家四
里皆視若庫儲絡續
來乞焉此其汎愛施
與也

見識才具自幼出衆
九歲能裁縫成衣大
夫人甚奇愛之綜理
幹辦無異男子家既
傍落且乏僮指而兼
治內外不失士夫家
楷範

晝夜賃縫手不釋針
上下衣食諸兒供給
皆從指端出來此其
幹家之才也仁慈惻
怛有不忍人之心
贈參判公嘗治一頑
奴其

한녀(寒女)라 할지라도 번번히 자리를 내주고 함
께 이야기 하며 정(情)을 기우려 사람을 대함에
모두 친부(親附)하는 것이 마치 지란(芝蘭)을 취
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 궁핍함을 보면 반드시 힘
써 소족(疎族)에게도 증유(贈遺)함을 다하였고 이
웃에서 급한 일이 있으면 내소(來訴)함에 번번히
모두들 그 기대가 가득하여 저녁 늦게 돌아오곤
하였다. 상농(창고)은 자못 빈곤하지 않았지만

널리 시혜(施惠)하는데 아낌이 없어 집안에 남
아 있는 재물이 거의 없었으며, 혹 급하게 빌리
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궁핍함을 보
고 또한 여러 아들에게 도울 방도를 찾으라고
하였으니 곡부(曲副: 정성을 다해 도움)한 것이
었다. 이에 일가(一家)와 사리(사방의 이웃)들이
모두 고저(庫儲)를 자기집의 것인 양 하여 낙속
(絡續)함이 계속 이어져 구걸하였으니 이것은 그
범애(汎愛)한 시여(施與)였다.

견식과 재주를 갖추어 어려서부터 출중(出衆)하였
는데, 9세때 이미 재봉(裁縫)에 능하여 옷을 만들
줄 알았으니 대부인(大夫人)께서 이를 매우 기애
(奇愛)하였다. 총리(綜理)하는데는 일을 맡아 처리
함이 남자와 다름이 없이 함에 집안에서는 이를
따름을 마땅하게 여겼다. 또 궁핍한 아이를 보고
는 겸용(도량이 넓음)하고 내외를 다스리는데는
사대부 집안의 해범(본보기)을 잃음이 없었다.

밤낮으로 바느질하는 품일을 손수함에 하루도
바늘을 손에서 떼지 않고 상하의 의식과 여러
아이들의 공급을 모두 이것을 좇아 출발하였으
니 이것은 집안일을 처리하는 재주였다. 인자하
고 측달(몹시 슬퍼함)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품
고 걸으로 드러내지 않았는데, 일찍이 증참판공
께서 한 욕심이 많은 노비를 다스림에

嚴急先妣數衽苦諫
丐其死命御婢僕恩
威兩至軫飢寒甘苦
與同雖當板蕩之際
或屢日闕食女奴至
戴薪於江郊而無一
逃

散之志者蓋仰體至
慈之德此其御下之
仁也先妣稟性剛嚴
肅毅有不可犯之威
儀制行正直敦確有
不可奪之志操平居
淨掃

一室絕無塵埃端坐
勤業不喜浮雜口不
出戲言足不履堂下
坐臥有定處動止有
定時未嘗移易有若
定制自少務紡績八
耄之

年下輟其功諸子諫
其或勞輒曰非耽女
紅無此則難以消遣
就寢之前不曾休憩
素性不樂奢華夏月

매우 엄하고 급하게 하자 선비는 여러차례 잠자
리에서 그 사명(목숨)만은 살려줄 것을 간곡히
간청하여 노복(婢僕)은 그 은위(恩威)로 온전할
수 있었으니 그 근심함이 이처럼 지극하였다.
그 기한과 감고는 함께 하였고 비록 판탕(板蕩)
의 때를 당하여 혹 수일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
여 여자 노비가 강교(江郊)에서 땀나물을 머리
에 이고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도산(逃散)의
뜻이 무일(無一)하였음에

대개 양체(仰體) 지자(지극한 자애)의 덕(德)에
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아랫사람을 추스리는 인
자(仁慈)함이였다. 선비(先妣)의 품성은 강엄(剛
嚴)하고 숙의(肅毅)하여 가히 위의를(威儀)를 범함
이 없었으며 제행(制行)은 정직(正直)하고 돈확
(敦確)하여 가히 지조(志操)를 빼앗을 수 없었
다. 평소에 집안에 거처함에 있어서도 깨끗이
청소를 하여

진애(塵埃)가 절무(絶無)하였으며, 단좌하여 그
업(業)에만 부지런히 하여 부잡(浮雜)함을 좋
아하지 않아 입에서는 한마디의 희언(戲言)도
나오지 않았다. 발은 당하(堂下)를 내디디지
않고 좌와(坐臥)에는 정처(定處)가 있었으며
움직임과 머무름에도 정시(定時)가 있어 일찍
이 쉽게 이동하지 않아 마치 정제(定制)가 있
는 듯 하였다. 어려서부터 방적에 힘써 80세에
이르러서도

그 공력(功力)을 그치지 않음에 여러 아들들이
혹 그 노고를 간곡히 아뢰면 번번히 말씀하시
기를 “여홍(女紅)이란 즐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없으면 소견(消遣)할 바가 어려워진다”라고 하
였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늦게까지 휴식을
취하였다. 평소의 성품은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着木錦裙庶弟止之
曰

盛暑何爲着此夷然
答之不以爲恥暮年
子弟或進美衣裳衾
褥輒却而不御終未
敢以厚物爲獻訓諸
子主嚴而教誨益勤
雖壯大

有過失小則却食大
則嚴杖不饒三子連
捷文科手撫三桂袍
笏盈床皆其三遷之
力也凡舉五子三女
男長命峻判書第二
子

明傑四歲而逝次命
恒監司次明新校理
次明集女長適縣監
黃泰河次適李槓次
適縣監沈湊命峻娶
參奉全州崔尙一女
有一男

一女男彦胄生員女
適李宗周側室有二
男四女男彦翼彦昌
女適許勉餘皆幼命
恒娶參奉海州崔起
昌女有一女適韓德
吉

즐거하지 않아 여름철에는 목면(무명)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여러 동생들이 이를 만류하면
말씀하시기를

“아주 더운 여름철에 어찌 이것을 입지 않을 것
인가”라고 하고는 이연(夷然)하게 이에 대답하
고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모년에 자제
(子弟)들이 혹 좋은 의상과 이불·요 등을 바치
자 수차례나 이를 물리치고는 끝까지 받아들이
지 않았고 감히 후물(厚物)으로써 헌납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 아들들에게 매우 엄하게 훈계하고
교회(教誨)함을 더욱 부지런히 하였다. 이에 비
록 장대(壯大)한 사람들이

과실(過失)이 있으면, 작은 즉 음식을 물리고 큰
즉 엄하게 회초리로 다스려 용서함이 없었다.
아들 중 3명이 계속해서 문과에 급제해서는 손
수 3첩의 계적(桂籍)과 포홀(袍笏:朝服)을 어루
만지며 잔치를 벌였는데, 이것은 모두 삼천지력
(三遷之力)에 힘입은 것이다. 대개 5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낳아 길렀는데, 아들중 장남은 명준
(命峻)으로 판서(判書)이고 둘째 아들은

명걸로 4살 때 죽었으며, 다음은 명항(命恒)으로
감사이고 다음은 명신(明新)으로 교리(校理)이며
다음은 명집(明集)이다. 딸중 장녀는 현감 황태
하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이함(李槓)에게 출가
하였으며 다음은 현감 심변(沈彦奕)에게 출가하
였다. 명준(命峻)은 참봉 전주최씨 상일(尙一)의
딸을 취하여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언주(彦胄)로 생원이고 딸은 이종주(李
宗周)에게 출가하였으며 측실에서 2남 4녀를 두
었으니 아들은 언익(彦翼), 언창(彦昌)이요, 딸은
허면(許勉)에게 출가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
다. 명항(命恒)은 참봉(參奉) 해주최씨(海州崔氏)
기창(起昌)의 딸을 취하여 1녀를 낳으니 한덕길
(韓德吉)에게 출가하였고

命新娶大司憲清州
韓世良女有三男四
女男長彦佐次彦耆
女長適李挺喆餘皆
幼明集娶縣監南陽
洪禹儻女有五男三
女男長

彦弼娶大司諫南原
梁聖揆女次彦博次
彦說餘皆幼黃泰河
有二男二女男長櫻
娶安東金養謙女次
槲女長適閔顯洙次
適鄭錫永

李槓有二男一女男
長世說娶弼善坡平
尹樟女次世尹女適
尹東孟沈湊有一子
一女皆幼彦胄娶郡
守全義李宇春女有

三男二女男長泰讓
次泰崇餘皆幼彦翼
有一子三女彦昌有
一女閔顯洙有一女
鄭錫永有一子尹東
孟有一子內外孫曾
五十餘人

명신(命新)은 대사헌(大司憲) 청주한씨 세량(世良)의 딸을 취하여 3남 4녀를 낳았으니 아들중 장남은 언좌(彦佐)이고 다음은 언구(彦耆)이며 딸중 장녀는 이정철(李挺喆)에게 출가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명집(明集)은 현감 남양홍씨 우이(禹儻)의 딸을 취하여 5남 3녀를 낳으니 아들중 장남은 언필(彦弼)인데,

대사간(大司諫) 남원양씨 성규(聖揆)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고 다음은 언박(彦博)과 언열(彦說)이며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황태하(黃泰河)는 2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중 장남은 직(櫻)으로 안동김씨 양겸(養謙)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고 다음은 옥(槲)이며 장녀는 민현수(閔顯洙)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정석영(鄭錫永)에게 출가하였다.

이함(李槓)은 2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중 장남은 세열(世說)로 필선(弼善) 파평윤씨 장(樟)의 딸을 취하였고 다음은 세운(世尹)이며 딸은 운동맹(尹東孟)에게 출가하였다. 심변(沈湊)은 1남 1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언주(彦胄)는 군수(郡守) 전의이씨 우춘(宇春)을 취하여

3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중 장남은 태양(泰讓)이고 다음은 태송(泰崇)이며 나머지는 어리다. 언익(彦翼)은 1남 3녀를 두었고 언창(彦昌)은 1녀를 두었으며 민현수(閔顯洙)도 1녀를 두었고 정석영(鄭錫永)은 1남을, 운동맹(尹東孟)은 1남을 두어 내외손들이 대개 50여인에 이른다.

以庚子十月初八日
屬續于壺洞舊第享年
七十有七祔葬於
先君墓右枕匱之原
嗚呼先妣自壬子憂
患以來紓眉開口之
日甚少

晩年不肖等連占科
第□□□□□於獻
觴降仙樓上江山樓
觀之勝風物粉紅之
盛艷耀一時聽聞亦
榮庶可以少悅慈顏

而猶不釋然貌悴神
戚至老以未止□□
□□由於不肖志養
之未盡而亦先妣別
有隱痛於中而終未
解者也痛矣痛矣

噫先妣淑德懿行不
可勝記而諸子不敏
□□□□□謹敢
披血而記其萬一

男資憲大夫議政府
右參贊兼知春秋館
義禁府事五衛都摠
府都總管明峻泣血
謹記

경자년(1720) 10월 초(初) 8일 호동(壺洞)의 구
제(舊第)에서 속황(屬纊:임종)하니 향년(享年)
77세로 선군(先君)의 묘 오른쪽 침좌(枕座)인
사좌(巳座)의 언덕에 부장하였다. 오호라! 선비
는 임자년(1672)부터 우환(憂患)이 있는 이래
서미(紓眉)하거나 말을 함이 날로 감소하였다.

만년(晩年)에 불초(不肖) 등이 연이어서 과거(科
擧)에 급제하자 --- 5자결 --- 술잔을 마치고
강선루(降仙樓)의 위에서 강산을 바라보는데 루
(樓)에서 보는 승경과 풍물·분홍(粉紅)의 성색
(盛色)은 요요(耀耀)하여 일시(一時)의 청문(聽
聞) 또한 영화롭게 여겨 거의 약간 기뻐하는 빛
이 자안(慈顏)에 비치는 듯 하였으나

오히려 다시 고쳐 잡으니 모습이 몹시憔悴(悴
戚)한 듯 하였다. 나이가 연로함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않음에 --- 4자결 --- 불초(不肖)가 지
양(志養)을 아직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선비께서 특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통
(隱痛)하고 임종할 때까지 이해하지 않았다. 비
통하도다.

회(噫)라! 선비(先妣)의 숙덕(淑德)과 의행(懿行)
가히 모두 기록할 수 없고 여러 자식들 또한 불
민(不敏)하여 --- 6자결 --- 삼가 감히 피눈물
을 닦고 그 만분(萬分)의 하나를 기록하노라.

아들 자헌대부(資憲大夫) 의정부(議政府) 우참찬
(右參贊) 겸(兼) 지춘추관(知春秋館) 의금부사
(義禁府事)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도총관(都總
管) 명준(明峻)은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글을
짓고

男嘉善大夫平安道
觀察使兼兵馬水軍
節度使巡察使管餉
使平壤府尹命恒泣
血謹書

아들 가선대부(嘉善大夫) 평안도관찰사(平安道
觀察使) 겸(兼) 병마수군절도사(兵馬水軍節度使)
순찰사(巡察使) 관향사(館餉使) 평양부윤(平壤府
尹) 명항(命恒)은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글을
쓰다.

오달제(吳達濟) 神道碑

昔魯仲連耻帝秦欲
蹈海而死秦軍爲却
仲連非明春秋者然
片言折新垣之口奪
强秦之氣

天下萬世之人與其
爲高士而慕尙之非
所謂知耻近乎勇者
歟勇者猶然況君子
之成仁乎此文信國
所以獨立於天下萬
世者也

今以魯連之勇合信
國之仁又曷以稱焉
嗚呼我丁丑南漢城
下之耻尙忍言哉

據天險四十餘日
爲將師者黽勉登埤
不敢發一矢相向
爲宰相者縮頸袖手
不能出一策辨賊
佖佖然坐而待斃
可謂國無人焉

然惟是斥和諸君子
不忍背天王而與夷
虜沫血灑涕固請君

옛날 노중연(魯仲連)이 진나라가 황제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바다에 빠져 죽으려하니 진나라 군(軍)이 물러갔다. 중연은 춘추에 밝혀지지 못하였으나 한마디 말로 신원(新垣)의 입을 막았고 강한 진나라의 기운을 꺾었다.

천하 만대의 사람들이 그를 고상한 선비라 하면서도 그를 숭상함이 없으니 이른바 부끄러움을 아는것이 용맹에 가깝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용감한 사람도 하물며 그러하거든 더구나 군자가 인(仁)을 성취함이라! 이것은 문신국(文信國)이 홀로 천하 만세에 설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다.

이제 중연의 용기와 신국(信國)의 인(仁)을 합하였으니 또 어떻게 말하리요.

아아! 내 정축년 남한한성 아래에서의 치욕은 오히려 차마 말할 수 있으랴!

천험기로 버틴지 사십여일 동안에 장수들은 힘써 보루에 올라서서도 감히 서로 맞이하여 한개의 화살도 쏘지 못하고 재상들은 목을 움추리고 수수방관하면서 능히 적을 물리칠 하나의 계책을 내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망하기를 기다리니 정말 나라에 인재가 없다고 하리로다.

그러나 오직 이들 척화파의 여러 군자들이 차마 천왕을 배신하지 못하여 오랑캐와 맞서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군신 상하가 외로운 성과

臣上下與孤城同靡
碎何其烈也

向使其言見用 君
臣上下決一死背城
戰城中軍民將不下
三五萬當時虜亦疲
矣以數萬必死之士
蹴旬月已疲之虜其
勝敗未可知設不勝
而亡其風聲威烈可
以震天下而聳萬世
其視

夫忍痛銜冤苟全而
遺耻者相去果何如
也力屈智窮而不忍
墟其社稷者常情一
時之私痛也

天下無不亡之國
而義不可屈於虜者
君子萬世之大經也

以匹夫之身立萬世
之大經者盖千百年
千萬人而僅一二有
何同時孤城之中以
斥和自首視死如歸
者至於十一人之多
也

더불어 죽기로써 버티야 한다고 크게 칭하니 어찌도 그리 장렬한가?

지난날 그 말을 받아들여 군신 상하가 한번 죽을 각오로 성을 등지고 싸웠다면, 성중의 군민(君民)들도 삼오만이나 되었으며 그때 오랑캐들도 피로 하였는지라 수 만 필사의 군대로서 이미 피로해진 오랑캐와 달포만 더 싸웠더라면 승패를 알 수 없었으며 설사 이기지 못하고 망했다 하더라도 풍성과 위열(威烈)이 천하에 떨쳤을 것이며 만대에 드높았을 것이다.

저 아픔을 참고 원한을 품은 자와 구차하게 보전하여 치욕을 남긴 자 들을 살펴보면 서로의 차이가 과연 어떠한가? 힘이 다하고 지혜가 나하여도 차마 종묘사직을 폐할 수 없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떳떳한 도리이니 한때의 사사로운 아픔이라.

천하에 한번 망하지 않은 나라 없지만 의리로서 오랑캐에게 굴복할 수 없는 것은 군자로서 만세의 큰 본보기이다.

필부로서 만세의 대경(大經)을 세운 사람이 대개 천백년 천만 사람중에 겨우 한 두 사람일 뿐이니 어찌하여 한꺼번에 외로운 성중에서 화친을 반대하고 자수하여 죽임 당하기를 순순히 한자가 십일명이나 되는 많은 수에 이르렀는가?

尙可曰國無人焉乎哉然而主和賣國之徒外籍強虜內脅吾君盡縛忠義之人以先牽羊之禮何哉

氷炭不可以同情薰蕕不可以同器君子小人勢不可兩立也

夫降等耳縱使虜舉三學士之名以索之亦不過迫吾降降卽已矣不降亦已矣

自首者亦多人矣終必以三學士塞於議降之後者庸詎非主和者之志耶

嘻其忍矣故尹吳兩學士相謂曰彼欲借我盡殺一時名流兩學士既求仁而得仁至此寧復怨人而誣人其必有如見肺肝者矣

嗚呼悲夫祖淳嘗見淸人所撰開國方略者其書三學士死節

그런데도 오히려 나라에 인재가 없다고 하라. 그러나 화친을 주장하는 매국의 무리가 밖으로는 강한 오랑캐의 힘을 빌고 안으로는 우리 군왕을 협박하여 충성스럽고 강직한 사람들을 포박하여 앞장서서 양을 끌고가듯 무례함을 저지름은 무슨 까닭인가?

얼음과 숯불은 정을 함께할 수 없고 향기 나는 풀과 악취나는 풀이 한 그릇에 담겨질 수 없듯이 군자와 소인도 한 조정에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비록 오랑캐로 하여금 삼학사(三學士)의 이름을 열거하여 찾더라도 역시 우리를 협박하여 항복하게 하는데 지나지 아니할 뿐이니 항복을 해도 끝나고 항복을 아니 하여도 끝나는 일이다.

자수한 사람도 역시 많거늘 마침내 반드시 삼학사로써 항복하여 화친 하자라는 말을 가로막는 자라고 함이 어찌 저 화친을 주장하는 자들의 말이 아니겠는가?

아 슬프다! 그것이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윤·오 양(兩)학사가 서로 일러 말하되 「저들이 우리를 빌어 한 때의 명류(名流)를 다 죽이려 한다」 하니 두 학사가 이미 인(仁)을 구하여 일을 얻은 자이다. 이에 이르러 어찌 또다시 남을 원망하고 남을 무고하리요. 그들을 반드시 폐간(肺肝)을 보는 듯한 자이다.

아아! 슬프다 조순(祖淳)이 일찌기 청인(淸人)이 찬술한 개국방략이란 책을 보니 그 글에 삼학사의 사절(死節)을 일러 말하니 「명나라의 퇴폐한 군사를 모아 군대를 조직하기를 맹서 하였다」

曰倡儀祖 明敗盟
構兵既又見其文獻
通考者其論朝鮮曰
明之末年未嘗終始
叛明猶爲重禮義之
邦也

噫議者尊攘之謂也
袒者衛助之謂也
其人既殺矣猶不沒
其忠義之實其國既
降矣猶明其不得已
之情虜亦有人心乎

然則彼脅主戕賢之
輩雖徼功於虜與
我之間愈足爲夷虜
之所唾罵而不自覺
不亦哀哉

傳曰豈弟君子神所
勞矣天將以萬世之
大經任之三君子之
身故默誘小人之衷
以阨三君子而成就
之天心不其然乎

嗚呼魯仲連陪臣也
其心不出於尊王跡
雖高辨實涉於縱橫

고 하였고 또 그 문한통고를 보니 거기에 조선을 논하여 이르되 「명나라 말년에 일찌기 처음부터 끝까지 명나라를 배반하지 않으니 오히려 예의를 중하게 여기는 나라이다」 라고 하였다.

슬프다! 의를 논하는 자는 왕도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침을 이르는 것이요, 단자(袒者)는 위조(衛助)를 이룸이다.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도 오히려 그 충의의 실상은 멸하지 아니 하였으며 그 나라는 이미 항복하였건만 오히려 부득이한 실정을 밝히니 오랑캐에게도 정말 사람의 마음이 있단말인가.

그렇지만 저 군왕을 협박하고 어진이를 해친 무리들은 비록 오랑캐에게 공을 세우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에는 잘못 하였으니 족히 오랑캐도 그들에게 침을 뱉고 꾸짖었거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그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전(傳)에 이르기를 「아름답고 공손한 군자는 귀신도 위로한다」 하였으니 하늘이 장차 만대의 대경(大經)으로서 세(三)군자(君子)의 몸에 맡기고자 하였으므로 묵묵히 소인의 마음을 빌어 3군자를 곤약스럽게 하여 인(仁)을 성취케 하였으니 천심이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슬프다! 노중연은 배신(陪臣)이다. 그 마음이 왕을 존중하는데 지나지 않았으니 그 자취는 비록 고상 하였으나 말은 실로 함중 연횡을 일삼던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信國宋臣也其義宜死於虜忠雖大人可以企及惟陪臣爲天子死夷狄得夫子春秋之大旨者天下萬世其吾東之三學士而已矣乎

今 上甲申忠烈吳公之孫慶元謂祖淳曰始先祖之被禍也洪尹兩公皆以衣冠葬獨吾先祖有所佩黃錦囊及遺衣帶陪奴奉而歸公繼配南夫人謂招魂而葬非禮也常佩持其帶囊日夜不暫舍及夫人卒葬于龍仁縣慕賢村坐子之原與前配申夫人成雙墳焉以遺衣帶囊瘞于雙墳間先祖遂無墓矣

慶元懼其世遠而浸泯也欲樹石而標之公文正孫求是文金公伊誰且先祖維蹈義而死實主和者之所甘心也

신국(信國)은 송나라 신하이다. 그 의로움은 마땅히 오랑캐에게 죽어서 충성이 비록 크기는 하지만 대신들도 충분히 바랄 수 있으련만 오직 배신(陪臣)이 천자를 위하여 이적(夷狄)에게 죽임을 당한데 미쳐서는 공부자의 춘추대지(春秋大旨)를 얻은 것이니 천하 만대에 우리 동방에 삼학사가 있을 뿐이다.

금상 갑신년에 총렬 오공(吳公)의 손자 경원(慶元)이 조순(祖淳)에게 일러 말하되 「처음 선조가 화를 당하매 홍·윤 양공은 모두 의대로 장례를 지냈으나 유독 우리 조상은 차고있던 누런 비단 주머니와 남기신 의대가 있어 배노(陪奴)가 받들어 돌아왔으나 공의 계배(繼配) 남부인(南夫人)이 혼을 불러 장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하고 항상 그 대낭(帶囊)을 차고 밤낮 없이 잠시도 버리지 않으나 부인이 죽으매 용인현 모현촌 좌자지원(坐子之原)에 전(前)부인 신씨의 곁에 안장하여 쌍분을 만들고 남긴 의대(衣帶)와 주머니를 쌍분 사이에 묻었으나 선조는 마침내 묘가 없습니다.

경원(慶元)이 세상의 흐름에 잊어버리게 될까 두려워서 비석을 세워 표하려 하오니 공은 문정(文正)의 손자이시라 이 글을 구하매 공이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또 선조가 비록 의롭게 죽었으나 실상 화친을 주장한 사람들은 즐거워 하였을 것입니다.

而世之無恥者或謂
主和未嘗讎視吾先
祖也公不可以不明
祖淳曰然人之死也
體魄下降塚墓之所
由設也魂氣上升焜
蒿之所由感也

若公之死體魄所降
雖不知其處英魂正
氣必不安於腥羶之
域風馬尻輪安知不
隨帶囊而東歸乎

然雖囊之瘞雖非公
體魄所藏明靈之所
憑依子孫之感焜蒿
不專在於是歟烏可
以不碑謹述公成仁
之大節盥沐而書之
又撮公平生而系之
詩詩曰

首陽之吾族簪紳華
胄遙遙繼振振
慶積善累厥感帝帝
降我公筏迷津

萬歷己酉夏之季其
日初八其時辰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도 더러는 주화(主和)자 들을 일러 일찌기 우리 선조를 원수같이 보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공이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하겠나이까?」라고 하거늘 조순(祖淳)이 이르기를 「그렇소이다. 사람이 죽으면 체(體)와 백(魄)이 하강하기 때문에 무덤을 만들고 혼(魂)과 기(氣)는 상승하기 때문에 향을 피워 감음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거늘 공과 같은 이가 죽음에 체백이 하강하여 비록 처할 곳을 모른다하여도 영특한 혼의 정기는 반드시 성단(腥羶)의 영역에 불안 하리라 풍마구륜(風馬尻輪)이 어찌 대낭(帶囊)을 따라 동방으로 돌아오지 않으리요.

그렇다면 대낭을 문음이 비록 체백이 거처하고 명영(明靈)이 의지할 바 아니라 하더라도 자손이 감동에 의하여 향기로움이 여기에 전재(專在)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어찌 감히 비명을 쓰지 않으리요」 이에 삼가 공의 성인(成仁)의 대절(大節)을 지어 세수하고 목욕한 연후에 쓰고 또 공의 평생 업적을 모아 이에 시를 지어 표하노라. 시(詩)에 이르기를

수양(首陽)의 오공은 훌륭한 집안. 족속으로 꽃다운 자손 멀리 계속하여 이름을 떨친다.

많고 많은 경사와 착한 덕이 옥황상제를 감동 시킨다. 옥황상제께서 우리 공(公)을 이 세상에 보내셨네.

때는 만력 기유년 여름 초파일 진시였어라.

達濟其諱季輝字伯
父楸灘晚雲親

母崔夫人洗馬女女
儀無愆終自娠

蘭薰醴源性并習孝
友從功富不貧

十四撰進討虜疏遼
潘皆沒歲在辛

乙丑委禽娶于申再
翌司馬登成均

林溪晦谷皆同榜至
今追思亦彬彬

貳一苴杖考憂宅貳
五癸西腹悲呻

戊春射策魁別試

其文爭誦傳世珍

初拜典籍秋榮觀續
絃南楣迨明春

歷郎禮兵人雷肆薇
垣栢府遷官頻

丙子由副陞修撰八
條懇懇時政陳

달제는 그의 휘이고 계휘는 그의 자(字)이다. 백부는 추탄(楸灘)이고 만운(晚雲)은 부친이다.

어머님 최씨는 세마(洗馬)의 딸이신데 여자의 행실에 허물됨이 없으시고 태아적 부터 교육이 충실하였다.

난초같이 향기롭고 단숨의 근원같은 그 성품과 습성은 어릴적 부터 효성스럽고 우애가 부(富)하여 빈(貧)함이 없었다.

14세에 발탁되어 오랑캐를 토벌할 소를 올렸으며 끝내는 후년에 요동과 심양에서 세상을 바치시었다.

을축년(乙丑年)에 신씨에게 장가를 들으셨고 다음 해에 사마시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임계(林溪)와 회곡(晦谷)은 모두 같은 해에 급제하였다. 지금 추모하여 생각해 보아도 또한 빛나는 일이다.

이십일세에 아버님의 상을 당하시었고 이십오세 계유년에 속병이 생기셨다.

술(戊)년 봄에 사책(射策)과 별시(別試)에도 장원이 되시었다.

그 글을 다투어 외위 세상에 보배처럼 전해온다.

처음에 전적(典籍)에 봉해 졌다가 가을에 영화로움을 입으시었다. 아내를 잃고 다음 해 봄 남씨택에서 다시 아내를 맞이하였다.

예조와 병조의 낭관을 역임하였고 뇌사(雷肆)에 들어갔다. 미원(薇垣) 백부(栢府)로 자주 관직을 옮겼다.

병자년(丙子年)에는 수찬(修撰)에 올라 여덟가지 초목으로 된 시정책(時政策)을 간곡히 아뢰었다.

是年夏五斥虜和凜
如胡生誅檜倫

이해 여름에 다섯 번 씩이나 오랑캐와 화친 하
자는 의론을 물리쳤고 늑늑한 모습 오랑캐도 두
려워 하였다.

聲名赫赫動朝野自
此無奈忤儉人

그 이름 밝고 밝게 조야에 떨쳤고 이로부터
오협(忤儉)한 사람들도 그에게는 어찌지 못하
였다.

冬十二月日甲申牧
馬東嘶漲腥塵

겨울 십이월 갑신일에 말을 몰아 동으로 향하여
오랑캐가 티끌을 이르켰다.

公時徒步上南漢兄
弟相携扈去邠

공은 이때에 걸어서 왕을 따라 남한산성에 형제
가 서로 손을 이끌고 호종하였다.

去聯忠貞拜短筓雄
辭直氣兩嶙峋

충정(忠貞)에 연합하여 짧은 차문(筓文)을 올렸
으며 웅대한 말과 곧은 기운이 깊고 깊도다.

請斬儉人警大衆聖
志堅守膽與薪

간사한 무리를 참수 할 것을 주청하여 대중을
경도케 하였으나 성지(聖志)가 굳게 움직이지
않아 와신상담하기도 하였다.

督戰御史徒名耳義
惟自靖爲潔身

독전어사(督戰御史)란 헛된 이름 뿐이니 의로움
으로 자정(自靖)하고 몸을 결백하게 하였다.

儉人挾寇誣君父謂
言急索斥和臣

적을 돕는 간사한 무리가 군부(君父)를 어지럽
혀 급히 척화신(斥和臣)을 찾는다 하였다.

惟十一賢爭就死同
心辭不逡巡

오직 십일명의 어진 신하들은 다투어 죽음에 나
아가니 마음과 말을 같이 하여 우물쭈물 후퇴함
이 없었다.

聖主垂淚不忍決延
議紛紜日因循

성주는 눈물을 흘리며 차마 결정을 못하였는데
조정 의론이 분분하여 우물쭈물하였다.

公復慷慨語忠貞子
與吾可塞強隣忠貞
欣然共草奏虜劔雖
利臣不嘖

공은 다시 분개하여 충정(忠貞)에 혼연히 함께
초주(草奏)를 올려 오랑캐의 칼날이 비록 날카
로우나 신은 두렵지 않습니다.

群奸迫脅計愈急悍
校驕兵鬧楓宸

여러 간신들이 협박하니 계책이 더욱 급하였고
사나운 교리와 교만한 군대가 군중을 흔들었다.

萬人哭送西門道哭
聲鳴鳴于蒼旻

蒼旻懜懜白日若春
風南冠隨北輪

路上三裁寄兄札慰
母與妻詩淒新

胡兒嘖舌誇忠純獻
以肴羞敬如賓

潘關深黑呀虎窟猘
揄虤肉血染脣

公抗其辭罵羯狗虜
敢殺公不敢嘖

首夏戊子是何日公
乘浩氣奄歸眞

北方不可以止些晝
犬羊夜鬼燐

化爲蝴蝶托君夢平
生神契如飲醇

古來人生孰無死孟
云取義孔成仁

天常人紀永不墜民
免禽豚繫公神

公神在天如日月光
華先被左海垠

만인이 서문(西門) 길에서 울며 전송하니 곡성이 진동하여 하늘에 닿았네.

푸르던 하늘도 몽롱해지고 햇별도 무색하였다. 봄 바람 속에 남관(南官)이 북륜(北輪)을 따라 갔다.

떠나는 길에서 세번씩이나 형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머니와 아내를 위로하니 그 시가 처량하였네

오랑캐가 입을 모아 충순(忠純)을 칭송하며 술과 안주를 드리고 손님같이 공경하였다.

심양은 깊고 깊어 마치 호랑이 굴속 같았으며 사냥개가 고기를 다투어 입술에 피를 묻히는 듯 하였다네.

공은 옳바른 말로 항거하여 오랑캐를 꾸짖으니 오랑캐는 감히 공을 죽이기는 하여도 공을 꾸짖지는 못하였네.

초여름 무자일은 이 어떤날이고 공이 호기(浩氣)를 타고 문득 신선세계로 돌아간 날이라네

북방은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낮에는 개와 양을 보고 밤에는 귀신의 불을 보았네.

혼이 화하여 호접(蝴蝶)이 되어 국왕의 꿈에 나타나니 평생에 신과 같음이 순주를 마신듯 하였네

옛부터 죽지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고 맹자는 의를 취하였고 공자는 인을 이룩하였네

천상(天常)과 인기(人紀)가 길이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백성들과 금돈(禽豚)을 면하게 된 것은 모두가 공의 신비로움 때문일세

공의 신이 하늘에 있어 일월과 같아 광화가 먼저 해동에 비치도다

烈聖含痛憫不弔褒
獎節義垂 恩綸

贈之上相諡忠烈侑
祠錄後勳臣民

龍阡雙墳屹相竝兩
配後先生卽玄窀

遺衣帶囊其間瘞行
人指點涕沾巾

嗟爾賢嗣恩不匱白
首乞文謀貞珉

余搦彤毫屢扼肘二
百年事如隔晨

嗚呼天壤復地搨公
名公靈乃可湮

金祖淳 撰

李相璜 書

金思穆 篆

열성(烈聖)이 통한을 품고 민망스러워 조문도 못하시고 절의(節義)를 초상하고 은륜(恩綸)을 내리셨다.

상상(上相)에 추증하고 시호를 충렬(忠烈)이라 하였으며 사당지어 제사하고 후손에게 녹을 주어 백성에게 격려하였네.

두 부인 앞서거니 뒤서거니 현둔(玄窀)에 나아갔다.

남기신 의대와 주머니를 그 사이에 묻었으니 행인이 손으로 가르치고 눈물흘려 수건을 적시도다.

어진 후손에 추모를 못하여 백수로 글을 빌어 정민(貞珉)을 꺾하도다.

내 변변치 못한 글로 비문을 지으니 이백여년 일들이 마치 하루 저녁과도 같도다.

슬프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공의 이름과 영혼이 가히 떨어지겠는가?

김조순 짓고

이상항 쓰고

김사목 전액하다.

오달제부인(吳達濟夫人) 墓誌

贈大匡輔國崇錄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行通訓大夫弘文館副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註官諡忠烈吳公之前夫人高靈申氏繼夫人宜寧南氏墓誌

龍仁邑治西南迤十里慕賢村有若堂而封者二其左忠烈公前夫人高靈申氏之藏其右繼夫人宜寧南氏之藏

嗚呼忠烈公旣殉節從者以遺衣及曾受賜黃錦囊自北持還人欲以象而葬之南夫人以非禮而斥之四十年佩持不離身及卒或慮其瀆遂以埋於兩墓之間此非葬也然納誌兩夫人之塋具載忠烈公之事以示子孫傳百世烏可已也

증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領) 경연, 홍문관, 예문관, 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 기주관 시 충렬 오공 전(前) 부인 고령신씨 계부인 의령남씨 묘지

용인 읍치 서남쪽 10여리 지경, 모현촌에 두 봉분이 있으니 그 왼쪽은 충렬공의 전 부인 고령신씨가 묻힌 곳이며 그 우측은 계부인(繼夫人) 의령남씨가 묻힌 곳이다.

아아! 충렬공은 이미 절의를 지켜 순절 하시고 종자(從者)가, 남기신 의복과 일찌기 하사받은 누런 비단주머니를 북으로 부터 가지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상(象)으로 장사 지내려 하였으나 남부인(南夫人)이 예가 아니라 하므로 40년간 버리지 않고 죽을 때 까지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을 양 묘 지간에 도랑을 따라 묻으나, 이 또한 장사하는 예가 아니어서 이에 지(誌)를 양(兩) 부인 묘에 들이는 것이다. 충렬공의 일을 갖추어 실는것은 백세후에 전하여 보도록 함이라.

府君諱達濟字季輝號秋潭海州大姓吳氏顯自高麗檢校軍器監諱仁裕自是圭組相承九世而至司議諱福貞於府君爲高祖也曾祖諱景顯祖諱希仁考贈吏曹參判晚雲諱允諧妣水原崔氏參奉亨祿之女府君以己酉六月丁巳辰時生于漢陽甫十四歲聞虜吞遼著擬討虜疏已見激烈剛大之意甲戌魁文科歷典籍禮兵曹郎司書正言持平副修撰至副校理當仁廟丙子上疏斥和議

十二月清虜大舉入寇扈駕南城丁丑正月被執四月十九日與洪學士翼漢尹學士集成仁於瀋陽西門外我東所稱三學士也

嗚呼自有城下之恥使一隅青丘得免於禽獸左衽之歸而永

부군(府君) 휘는 달제(達濟)요 자는 계휘(季輝)이고 호는 추담(秋潭)이며 해주대성(海州大姓)이다. 오씨는 고려 검교(檢校) 군기감감(軍器監監) 휘 인유(仁裕)로 부터 현달하여 그로부터 9세(世)에 이르기까지 규조(圭組)를 이어 왔다.

사의(詞議) 휘(諱) 복정(福貞)은 부군의 고조이고 증조는 휘 경호(景顯)이며 조(祖)의 휘는 희인(希仁)이고 고(考)는 증 이조참판 만운(晩雲) 휘 윤해(允諧)이다.

비(妣)는 수원최씨로 참봉 형록(亨祿)의 딸이다. 부군은 기유년(1609) 6월 정사(丁巳) 일 진시(辰時) 한양보(漢陽甫)에서 출생하였는데 14세 때에 금(金) 나라 오랑캐가 요(遼)를 삼켰다는 말을 듣고 오랑캐를 토벌 하자는 상소문을 지었는데 그 뜻이 강대하고 격렬하였다. 갑술(1634)년 문과에 장원한 뒤 전적(典籍)을 거쳐 예조 병조의 낭관(郎官), 사서(司書), 정언, 지평, 부수찬, 부교리에 이르렀고 인조조 병자호란을 당하여는 화의(和議)를 물리치자는 상소문을 올렸다.

12월에 청(淸)의 오랑캐가 대거 침구하자 어가를 호종(扈從)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가 정축년 정월(1637) 잡혀서 4월 19일 홍학사 익한(翼漢), 윤학사 집(集)과 더불어 심양 서문 밖에서 순절(成仁) 하였으니 우리 나라에서는 이들을 칭하여 삼학사(三學士)라 한다.

아아! 성 아래 치욕이 있는것으로 부터 청구(靑丘)의 한 모퉁이로 하여금 금수를 면케하고 좌임(左衽)으로 돌아가 천하 만세자가 말씀을 영유

有辭於天下萬世者
獨賴三先生秉義之
力也嗚呼天地不毀
日月不晦府君之六
名不泯復何事於記
述哉且考國史府君
寬厚端方平居恂恂
似不能言及論國事
辭氣激仰無所回避
平生言行無一不本
於孝悌云

列聖代有褒典 贈
至領議政諡忠烈旌
闔建祠膾亨焉前夫
人都承旨得淵之女
生丁未卒癸酉柔順
慈惠謹默敏悟

繼夫人贈贊成焘之
女生丙辰端潔靜動
合儀則歸府君之翌
年遭丁丑之變日夜
號痛腐心累吞毒藥
賴傍人救止及辛亥
系子卒絕粒繼逝

南夫人所取以嗣卽
府君之從弟達識之
子道玄參奉又無育
以郡守遂一繼爲孫

케 함은 모두 세 선생의 의로운 바에 힘입은 것이다. 아아! 하늘과 땅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해와 달이 어둡지 않을진대 부군등 6명의 이름은 다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니 무엇을 다시 기술할 것인가? 또 국사를 살펴보면 부군은 관후(寬厚) 단방(端方) 하여서 평소에 거(居)할 때에도 모양이 진실하여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았으나 국사에 이르러서는 어느 곳이건 회피하지 않고 격양하여 말하였으며 평생 동안 효제(孝悌)와 본(本)이 아닌 언행은 하나도 없었다.

열성조가 대대로 포전(褒典)을 내려서 증직은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고 충렬(忠烈)의 시호(諡號)를 내리고 충신(忠臣)으로 정려 되었으며 사당을 세워 향축을 살랐다. 전부인은 도승지(都承旨) 득연(得淵)의 딸이며 정묘생(1607)인데 계유(1633)년에 졸하였다. 성품이 유순(柔順) 자혜(慈惠)로웠고 근묵(謹默) 하였으나 깨달음은 민첩하였다.

계부인(繼夫人)은 증(贈) 찬성(贊成) 식(焘)의 딸로서 병진년(1616)에 출생 하였는데 단결(端潔) 하면서도 정(靜)과 동(動)의 행의가 합치 하였는데 부군에게 시집을 온지 익년에 정축지변을 당하니 하루 밤 낮을 통곡하며 마음을 상하다가 여러번 독약을 삼켰으나 방인들이 구하고 그치게 하였으나 마침내 곡기를 끊기를 계속 하다가 신해년에 졸하였다.

남부인은 부군의 종제(從弟) 달식(達識)의 아들로 후사를 하였다. 손(孫) 명서(命瑞)는 대사간(大司諫)이고 명흠(命欽)은 현감이며 명적(命迪)은 진사요 언유(彦儒)는 판서 언부(彦傅)는 현감

大司諫命瑞縣監命
欽進士命迪判書彦
儒府事彦傳縣監彦
翼彦國牧使在文縣
監在鎮在寅郡守在
斗進士慶元慶秀慶
寬慶曾慶仁卽雲仍
也

崇禎紀元後三甲寅
秋六代孫慶元謹述

이고 재문(在文)은 목사, 재진(在鎭), 재인(在寅)
은 현감이며 재두(在斗)는 군수, 사경(士慶)은
진사 원경(元慶), 수경(秀慶) 관경(寬慶), 증경
(曾慶) 등 어짚인즉 인하여 구름 같다.

송전원년 후 3갑인(1794) 가을 6대손 경원 삼가
쓰다.

오달천(吳達天) 墓表

府君諱達天字伯源
系出海州有仁裕在
高麗軍器監卽鼻祖
也

高祖諱玉貞司贍寺
主簿贈吏曹判書曾
祖諱景閔司憲府監
察贈左贊成祖諱希
文繕工監監役贈領
議政

考諱允謙 仁祖朝
爲領相諡忠貞娶慶
州李氏 高麗益齋
齊賢之後僉正應華
之女以萬曆戊戌五
月生府君于漢陽崇
教坊第

幼穎異及長不肯低
首博士家業屑屑爲
詞章亦頗涉書史通
大義

庚申丁外艱壬戌服
除甲子始以蔭除四
山監役其年以 春
宮冊禮差備陞副率
俄衛率乙丑宰果川
縣戊辰遞俄拜刑曹

선부군(先府君)의 휘는 달천(達川)자는 백원(伯源)이니 계출(系出)은 해주이다. 휘 인유(仁裕)는 고려때에 군기감(軍器監)이 었으니 곧 비조(鼻祖)이다.

고조의 휘는 옥정(玉貞)이니 사섬시(司贍寺) 주부(主簿)로서 증 이조판서이며 증조의 휘는 경민(景閔)이니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로서 증 좌차성(左贊成)이요. 조부의 휘는 희문(希文)이니 선공감역(繕工監役)으로서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고(考)의 휘는 윤겸(尹謙)이니 인조조(仁祖朝)에서 영상(領相)이 되었고 시호(諡號)는 충정(忠貞)이며 배 경주이씨는 고려 때 익재(益齋) 재현(齊賢)의 자손이며 첨정(僉正) 응화(應華)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만력 무술(1598) 5월에 한양 숭교방(崇教坊) 집에서 부군(府君)을 낳았다.

부군께서는 어려서 부터 총명하였고 자라자 즐겨 남에게 머리를 수구리지 않고 부지런히 사장(詞章)에 힘썼으며 또한 서사(書史)를 익혀 대의(大義)에 통달 하였다.

경신(1620)에 부친 상사를 당하고 임술(1622)에 복(服)이 끝나자 갑자(1624)에 비로소 음사(蔭仕)로 사산감역(四山監役)에 임명되었다가 그 해에 춘궁책례(春宮冊禮)의 차비(差備)로 부술(副率)에 승진 하였다가 이옥고 위술이 되었고 과천현읍재를 거쳐 무진년에 체직되었다가 형조

佐郎數月出拜恩津
無何陞守金浦郡按
使及繡衣以治最啓
于朝故也

瓜熟而遞兩邑民皆
堅石寓去後思乙亥
冬拜工曹正郎以親
癢不仕丙子正月遭
內艱戊寅服除翌年
儀賓府都事俄陞宗
親府典籤俄拜咸興
通判甲申瓜遞

其年拜軍器寺僉正
乙酉守沔川郡丁亥
冬病遞戊子正月初
一日卒于新昌寓舍
壽五十一 贈承政
院左承旨葬于龍仁
慕賢村已坐向之岡
府君嚴而惠簡而敦
莅邑以冰檠自礪以
恤親黨則有恩義不
但饋遺豐厚莊田所
收悉付之弟妹家

遞還朝晡屢空晏如
也及丁內艱俾庶母
主烝嘗家事皆稟

좌랑에 임명되고 두어 달 후세 은진(恩津)에 임
명 되었다가 얼마 앓되어 김포군수로 승진 되었
으니 안찰사(按察使)와 어사가 치적(治積)이 가
장 좋다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과만이 되어 체직 되었는데 두 고을 백성들이
모두 비석을 세워 그 은혜를 생각 하였다. 을해
(1635) 겨울에 공조정랑(工曹正郎)에 임명 되었
는데 자친의 병으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병자
(1636) 정월에 복(服)이 끝나서 이듬해에 의빈부
도사(都事)에 임명되었다가 이윽고 종친부 전참
에 승진 되었고 이내 함흥통판(咸興通判)에 임
명 되었다가 갑신(1644)에 만기가 되어 체직 되
었다.

그해 군기시 첨정(僉正)에 임명되고 을유(1645)
에 면천군수로 나아갔다. 정해(1647) 겨울에 병
으로 체직 되었고 무자(1648) 정월 초 1일에 신
창(新昌) 우사(寓舍)에서 졸하니 수 51세였다.
승정원 좌승지(左承旨)에 증직되고 용인 모현촌
사좌(已坐) 해향(亥向)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부군께서는 엄정하면서 은혜가 있고 간결하면서
돈독했으며 고을을 다스리는데 빙벽(氷檠:가난
하다는 것을 이름)으로 스스로 몸을 닦았고 친당
(親黨)을 돌보는데 은의(恩義)가 있어서 비단 물
건을 주는데 풍후(豐厚)할 뿐 아니라 장전(면세
전)에서 수확되는 것을 모두 아우와 누이의 집
으로 보냈다.

벼슬이 바뀌어 돌아오자 조석 끼니가 여러번 떨
어져도 태연 하였다. 모친의 상사를 당하자 서모
(庶母)로 하여금 제삿일을 주장하게 하고 집안

而後行以盡三年無
改之道蓋其卓絕之
行天賦然也仕既局
蔭天又嗇壽不克展
其所蘊隱德幽光人
解克知之

初娶綾城具氏吏曹
正郎壽福之後戶曹
正郎坤源之女工女
紅壺則甚備繼娶漢
陽趙氏儀賓府都事
幹之女聰明有女士
風葬皆與府君同原
一男司憲府監察道
宗二男道隆一女文
科承旨黃玠二女韓
聖弼前妣出也

三男文科吏曹參議
道一三女縣監朴長
建四女義禁府都事
尙弼周後妣出也

道宗有二女長適文
科正郎鄭徵次適成
麟童道隆有三男一
女長遂良次遂顯次
遂光女適姜鼎相遂
顯爲道宗後

일은 모두 품한 뒤에 행하여 이로써 3년을 부
모의 뜻을 그치지 않는 도리를 다했으니 대개
그 뚜렷하게 남과 다른 행동은 타고난 성품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벼슬은 이미 음사(蔭仕)
에 국한 되었고 하늘이 또 수(壽)에 인색하여
능히 품고 있던 바를 펴지 못하여 숨은 덕과
깊은 빛을 사람이 알아 주는 이가 드물었다.

초취는 능성구씨로 이조정랑 수복(壽福)의 자손
이요, 호조정랑 곤원(坤源)의 따님인데 여공(女
工)과 교훈이 몹시 갖추어졌다. 계취(繼娶)는 한
양조씨 의빈부 도사 간(幹)의 따님인데 총명하
여 여사(女士)의 풍도가 있었다. 장사 지낸곳은
모두 부군과 같은 언덕이다.

1남은 사헌부 감찰 도종(道宗)이요 2남은 도룡
(道隆)이다. 1녀는 문과승지(文科承旨) 황윤(黃
玠), 2녀는 한성필(韓聖弼)에게 출가 하였으며
전비(前妣)의 소생이다.

3남은 문과에 올라 이조참의에 오른 도일이다.
삼녀는 현감 박장건에게 4녀는 의금부도사 상필
주에게 출가하였는데 후비의 소생이다.

도종(道宗)은 딸 둘이 있는데 문과에 급제하여
정랑이 된 정징(鄭徵) 다음은 성인동(成麟童)
에게 출가 하였다. 도룡은 3남 1녀를 두었는데
남 말이는 수량(遂良)이요, 다음은 수현(遂顯),
다음은 수광(遂光)이며 딸은 강정상(姜鼎相)에
게 출가하였다. 수현은 도종에게 입후(入後)하
였다.

道一有三男皆幼
黃玠有一男一女男
夏英女適義禁府都
事趙龜祥韓聖弼無
子女有繼後子配愈
朴長建有二男二女
男長欽次鎬次維次
幼女適李澳

遂良有四男三女男
長命峻進士次命恒
女長適黃泰河餘皆
幼內外孫曾男女并
三十餘人

男通政夫人前吏曹
參議知製教道一泣
血謹記

도일(道一)은 3남이 있는데 모두 어리다. 황윤은 1남 1녀가 있는데 남은 하영(夏英)이요. 딸은 의금부 도사 조귀상(趙龜祥)에게 출가 하였다. 한성필은 자녀가 없고 계후자(繼後子) 배유(配愈)가 있다.

박장건(朴長建)은 2남2녀가 있는데 남 맏이는 흠(欽)이요. 다음은 호(鎬), 다음은 유(維)이며 다음은 어리다. 딸은 이오(李澳)에게 출가 하였다.

수량(遂良)은 4남3녀가 있는데 장남은 명준(命峻)이니 진사요. 다음은 명항(命恒)이다. 맏딸은 황태하(黃泰河)에게 출가하고 나머지는 어리다. 내외손은 남녀가 모두 30여인이다.

아들 통정대부(通政大夫) 전 이조참의지제교(前吏曹參議知製教) 도일(道一)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삼가 쓰다.

오명항(吳命恒) 墓碣

天之生英人傑士豈
偶然哉平陂往復氣
數推盪艱難之會天
且不能違焉則又必
生弼是難之人宗國
是賴若故相國

首陽吳公庶幾其人
歟公諱命恒字士常
有文武才畧少負公
輔之望 當宁戊申
以兵曹判書四路都
巡撫使平大難策上
勳

爲中興元臣如古方
叔召虎焉先是南人
錮廢者數族矢志怨
國陰結一鏡餘黨圖
爲不軌是年春夜襲
清州賊殺帥臣

連陷數郡約日犯闕
京城戒嚴中外洶洶
公自請往討之 上
手尙方劔賜之命率
京營兵二千人出征
戰于安城

하늘이 영인, 걸사(傑士)를 낳는 것이 어찌 우연(偶然)이라 하겠는가. 태평과 혼란이 반복되는 기수(운수) 가운데 추탕(법도가 문란한 모양), 간난의 때에 이르러 하늘은 또 능히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또 반드시 [영인(英人)과 걸사(傑士)를] 낳아 이 어려움을 평정하고 종묘와 국가는 여기에 의지하니 돌아가신 상국(相國)

수양(首陽) 오공같은 사람은 거의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다. 공의 휘(諱)는 명항(命恒)이고 자(字)는 사상(士常)으로 문무 모두에 재력이 있어 어려서부터 공보(公輔)의 바람을 받았다. 당저(英祖) 무신년(1728) 병조판서 사로도순무사로서 큰 날리를 평정하고 그 공(功)을 상으로 책훈(策勳)하여

중흥의 원신이 되었으니 옛날 방숙(方叔)이 호랑이를 부른 고사와 비교할 수 있다. 이때 먼저 남인중 폐고(錮廢)된 사람이 수백여명에서 그 뜻을 잃고 나라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일경(金一鏡)의 나머지 무리들이 비밀리에 걸사(結社)하여 불궤(不軌)를 도모하였다. 이에 그해 봄 밤에 청주를 몰래 습격하여 적은 수신(帥臣)을 죽이고

연이어 여러 수군을 함락시키고 약속한 날에 범 궤코자 하니 경성은 계엄(戒嚴)이 내리고 중외는 흉흉하였다. 공은 가서 이를 토벌할 것을 자청하자 왕께서는 손수 상방검(尙方劔)을 하사하시면서 경영병(京營兵) 2천여인을 거느리고 가서 출정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안성(安城)에서 전투하여

斬反將宗元又戰於竹山擒賊魁麟佐於是湖嶺悉平兵以三月戊辰出四月己亥入凡三十二日所過民皆謳歌耕耘如未亂時

及歸整旅無一人不還者上受馘於南城樓親自迎勞之賜輸忠竭誠決幾效力揚武功臣號封海恩府院君

特除左贊成兼摠戎使六月進拜右議政群小忌之有誣軋語公即迸過仍感疾猝瓠九月九日卒于東湖僑舍上震悼

率百官舉哀於禁川橋御製文祭之其辭甚悲群臣見者莫不流涕禮葬于龍仁慕賢村之先塋諡曰忠孝哀榮之典備矣首陽之吳以高麗軍器監正仁裕爲鼻祖有諱允謙領議政長陵名臣寔爲高祖曾祖諱達天典籤祖諱道隆考諱遂良

반장 종원(李宗元)을 참살하고 또 죽산에서 전투하여 적의 우두머리 인좌를 사로잡아 이에 호령(湖嶺)은 모두 편안하여졌다. 출정(出征)은 3월 무진일에 시작하여 4월 기해일에 돌아왔으나 모두 23일 동안이었는데, 통과한 곳의 백성들은 모두 구가(謳歌)하고 경운(耕耘)함이 난리 때가 아닌 것과 같이 하였다.

돌아오에 있어서도 정려(整旅)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왕께서 술을 내려 남성루(南城樓)에서 친히 이를 맞으며 위로하였다. 이에 수충갈성 결기효력 양무공신의 호(號)를 내리고 해은부원군에 봉(封)하고

좌찬성에 특제함과 아울러 총융사를 겸임케 하였다. 6월 우의정에 진배(進拜)되었으나 군소(群小)들이 이를 꺼리고 알어(비방하는 말)로 무고함이 있어 공은 곧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런데다가 병에 걸려 갑작스럽게 그해 9월 9일 동호교사에서 돌아갔다. 왕께서 진도(震悼)하시고

백관을 거느리고 금천교에 이르러 거애(舉哀)하시며 손수 제문을 지어 내리시니 그 구절 구절이 매우 슬퍼 이를 보는 여러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예법(禮法)에 따라 용인의 모현촌 선영에 장례하였다. 시호는 충효(忠孝)로 애영지전(哀榮之典)을 갖추었다.

수양(首陽: 海州) 오씨(吳氏)는 고려시대에 군기감정을 지낸 인유(仁裕)를 비조로 한다. 휘(諱) 윤겸(允謙)은 영의정을 지낸 장릉(인조)의 명신으로 이분이 고조가 된다. 증조는 휘가 달천(達天)으로 전침(典籤)을 지냈고 조는 휘가 도융(道隆)이며 고는 휘가 수량(遂良)으로

三世皆有地典妣咸陽呂氏 贈貞敬夫人領議政聖齊女也顯宗癸丑四月十四日生公甲申魁泮製賜第歷事

三朝內則春坊三司銓郎政府舍人諸曹參議大司成外則龍岡安岳廣州北評事嶺南關西伯兼帶如經筵成均守禦使

皆所踐官而由衣紉再遷爲戶曹判書蓋上知公可大任以不次也公既長於政事尤善理財莅事綜務皆爲經遠慮

南西兩營藏儲金穀以巨萬計度支之政至今稱神明乙巳閔鎮遠進褒劄語逼山陵時公家食在鄉從縣道上疏曰

自古翻獄者何限忍以先王疾有無欺蔽等語請告宗廟頒示中外者有之乎丙午徵夏指斥先王大不敬公輿疾入城

3세 모두 이전(地典)이 있었다. 비는 함양여씨로 정경부인에 추증되었으며 영의정 성제(聖齊)의 딸이다. 현종 계축년(1673) 4월 14일 공을 낳았다. 갑신년(숙종 30, 1704) 반계(成均館試)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여 거처를 하사받았으며

세 임금을 섬기면서 내직으로는 춘방(禮曹), 삼사, 전랑(銓郎), 정부사인, 제조참의, 대사성을 거쳤고 외직으로는 용안(龍岡), 안악(安岳), 광주(廣州)의 지방관과 북평사(北評事), 영남(嶺南)과 관서백을 역임하였으며 경연(經筵), 성균(成均), 수어사(守禦使)

등을 겸대하였는데, 역임한 관직은 모두 비의를 입었다. 다시 옮겨 호조판서가 되었는데, 대개 왕께서 공이 대임을 맡을 만한 인물임을 살피신 것으로 불차한 것이었다. 공은 정사(政事)를 잘 처리하였고 더욱이 이재를 잘 살폈으며 일에 임해서는 사무를 한데 모아 정리하는데 있어 원려(遠慮)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남서 양영에 저축되어 있던 금곡을 거만(巨萬)으로 운영한 탁지지정(度支之政)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신명(神明)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을사년(1725)에 민진원이 포상을 추천하는 차어가 산릉(山陵)에 다다랐는데, 이때 공은 고향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에 현도(縣道)를 좇아 [縣을 통해서]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자고(自占)로 판결을 뒤집는 것을 어찌 한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선왕의 질환이 있고 없음을 사폐(欺蔽: 속여 숨김)한다는 등의 말을 종묘에 알리고 중외에 반포하자고 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병오년(1726) 징하(徵夏)가 선왕(先王)에게 크게 불경하여 지척되었음에 공은 병을 무릅쓰고 도성(都城)에 들어와

倡罷散縉紳請正罪
又遏而陳疏曰先儒
不云乎子之証父者
先有証父之罪不必
問其所証之事臣之
訐君者先有訐

君之罪不復問其所
訐之事仲由一布衣
惡聲不及其師今悖
說四起直犯先朝
是祿之千鍾不如一
束修此皆臣之罪

公疏每上時輩輒交
章請竄上皆不從
丁未改紀首拜吏曹
判書特遣備局郎
催召公入對秦曰倫
常是非關係至重

明定處分然後蕩平
之政始可議矣又論
辛丑諸臣事斥臺官
言議苟且者未幾擢
拜判義禁尋移司馬
其明年拜都巡撫之
命

미친 듯이 진신(高官)들을 파산(罷散)하여 죄
를 밝히기를 청하였고 또 저지 당하자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선유(孔子)도 말하지 않았습니
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정(証)한 바의 일에 대해
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신하가 군왕(君
王)에게 알(訐: 윗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냄)하는
것은 먼저 군왕을 알(訐)한 죄가 있는 것이니
반드시 다시 그 알한 바의 일을 묻지 않는 것
입니다. 충유(仲由)는 일개의 포의에 불과한데
도 악성(惡聲)이 그 스승에게 미치지 않았는데,
지금 패설(悖說)이 사방에서 바로 선조(先朝)까
지 범하였으니 이것은 녹(祿)의 천종(千鍾)이
하나의 몸뚱는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신(臣: 吳命恒)의 죄입니다”라고
하였다.

공(公)이 매번 상소를 올림에 시배(時輩)들은
번번히 서로 글을 올려 귀양보내기를 청하였
으니 왕은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정미년
(1727) 기강이 고쳐지자 가장 먼저 이조판서에
배수하고 특별히 비국량을 보내어 관직에 나
올 것을 재촉함에 공은 입대하여 상주하기를
“윤상(倫常)이란 어느 것과도 관계없이 지중한
것입니다.

처분(處分)이 명정(明定)한 연후에야 탕평(蕩平)
의 정치를 비로소 의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
고 하였다. 또 신축년(1721)에 여러 신하들의 일
로 대관을 물리치고 언의(言議)를 구차한 것을
논하였다. 얼마 후에 판의금에 탁배(擢拜)되었다
가 다시 사마로 옮겼다. 이듬해에는 도순무의
명(命)을 배수하였다.

公早孤事呂夫人孝
志物之養備至居憂
年已五十號慕如嬰
兒廬墓下朝夕拜哭
大雨雪亦不廢啜粥
終三年

君子以爲加於人一
等及公卒 筵臣白
之 命旌其閭他日
上輦過語近臣曰在
家爲孝子在國爲忠
臣賢哉公風骨魁偉

鬢髯郁然臨事不動
屹然如防峙岳立平
居慕大節不以曲謹
細行爲名然於倫綱
義理之係確然守正
雖賁育莫之奪也

以此尤爲黨人所媚
疾當禍亂之定也人
皆見公破賊易而不
知其平靖肅廓之所
以難也夫以凶徒醜
釀之深羌胡接於

輦轂赤字化爲龍蛇
使其呼吸躑躅則廟
社之安其可你乎公

공(公)은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여부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효성을 다하여 갖은 물건으로 봉양하였다. 상(喪)을 당해서는 나이가 이미 50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사모하여 호곡함이 어린 아이와 같았고 여묘함에 있어서도 아침·저녁으로 배곡(拜哭)하였는데, 큰 비나 눈이 오더라도 또한 그만두지 아니하였으며 죽만 마시며 3년상을 마쳤으니 군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비할 바 없이 으뜸이었다. 공이 돌아감에 미쳐 경연에서 여러 신하들이 이를 알리자 정려(旌閭)의 명이 있었으며 이후 어느날 왕의 가마가 그곳을 지나게 되자 근신들에게 말하기를 “집안에 있어서는 효자요, 국가에 있어서는 충신이니 어질도다”라고 하였다. 공(公)의 풍골(風骨)은 괴위(魁偉)하고

빈염(鬢髯: 머리털과 구렛나루)은 옥연하였다. 일에 임해서는 우왕좌왕 하지 않고 출연하여 마치 높은 산이 우뚝 서있는 것과 같았다. 평소에 거처하면서도 큰 절개를 사모하여 곡종(曲從)하지 않았으며 세행(細行)에도 삼가 명예를 드높혔다. 이에 윤강과 의리에 관계되는 것은 확연히 수정하여 비록 분육(賁育)이라 할지라도 이를 빼앗을 수 없었다.

이로써 더욱 당인들에게 모질을 당함에 화란(禍亂)에 있어서는 이를 바로 잡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공(公)을 보고는 적(賊)을 물리치는데는 쉽게 하여 알지 못하도록 하니 그 평정(平靖), 숙곽(엄숙함)한 행동은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무릇 흉도(凶徒)들이 온양(醜釀: 모함함)하는 것이 심하였으니

아! 어찌 연곡(輦轂: 천자가 타는 수레)의 적자(赤字)가 용사(영웅)가 되어 짧은 순간에 차질한다고 하더라도 묘사(廟社)의 안녕이 이와 같을 수

迺將百年恬嬉之士
提數千不服習之卒
所向摧破

如霆之沴瞬目而大
定又何其神也方兇
賊之始發先議除公
其見憚如此當此之
時公之一身惟知
國與主耳而壬人

讒夫其言罔極必欲
加公以汚讎是則引
淮南之訟而收司長
孺指苑北之役而督
過西平天下寧有是
哉彼徒知公之可誣

而不知所與報仇者
乃麟亮夢顯欲陷害
忠勳而卒自比於逆
亂嗚呼豈不畫歟上
方倚公爲重卒贊中
興之業而公

則一斥江湖齎恨而
歿矣悲夫宗城先君
子一見公許以國器
忘年爲交公嘗曰某
於公釋弟也但姓不
同耳不肖仍得以

있겠는가! 이에 공이 백년을 돕는다고 할지라도
염희(恬嬉)의 사류(士類)들이 수천이어서 불복
(不服)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 되어 마침내는
소향(향하여 가는 곳)이 깨져

마치 천둥, 번개가 밀려오는 듯하였다[沴]. 그러
나 눈 깜짝할 사이에 크게 바르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어찌 신(神)의 도움이 아니라고 할 수 있
으랴. 바야흐로 흉적들이 처음 일어날 때 먼저
공(公)을 제거하자는 의론이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거리낌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 공은 홀로
오직 국왕을 생각할 뿐이어서 임인(壬人: 아첨
잘하는 사람)이

혈뜰음에 무릇 그 말이 망극하여 반드시 오멸
(汚讎)으로써 공을 포함시키려 하였으니, 이는 회
남지송(淮南之訟)을 끌어들여 사장(司長)을 모아
젓먹이에게 원북지역(苑北之役)을 가르키는 것
으로 서평(韓浚謙)을 독과하였으니 어찌 천하
(天下)가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저 무리들이
공을 무고하는 것이 가함을 알았지만

보복할 바를 알지 못하여 원수인 인량(麟亮), 몽
현(夢顯)은 충훈(忠勳)을 함해(陷害)코자 하여
마침내 이로부터 난(亂)이 일어났으니 오호(嗚
呼)라! 그 다하지 못함이로다. 왕께서는 바야흐
로 공(公)을 의지함이 위중하여 마침내 중흥의
업을 도왔으나 공(公)은

즉 한번 배척되어 강호에서 지냄을 한(恨)하다가
죽었다. 슬프도다! 무릇 종성(李宗城)은 선군자를
한번 뵈어 공(公)에게 국기(國器)로써 기대되어
망년(忘年)에 공(公)과 더불어 서로 교류하게 되
었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모(某:李宗城)는 공(公
: 나 즉 吳命恒)에게 어린 동생으로 단지 성(姓)이
같지 않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불초(不肖)가

粗職公平生公之出師也余日侍 上問因得少間見公於禁衛營中公方治軍事且發而神須揚揚如平替顧語余曰

今行若有 教書君其爲我代撰余敬應曰諾今迺滋筆而書公之墓石不知涕之流落也公配海州崔氏參奉起昌之女以

辛亥七月二十一日生己巳歸于公慈良恭儉甚宜婦道後公十九年丁卯五月二十四日卒葬于龍仁縣內舊鄉校洞乾

坐之原拒公墓十里有一女適通德郎韓德吉取弟副提學命新子彦耆爲嗣娶府使海平尹氏沆之女

[追錄]孫男泰詹縣監泰賢校理泰尙早歿泰元出繼公從子彦高後泰詹一男學秀泰尙二女長崔弘憲次沈魯詹泰元三男

거듭 공의 평생을 대강 알고 있는 것은 공의 출사에 대한 것이다. 내가 어느날 왕을 모시고 있다가 물음을 들었는데, 잠시후 금위영 안에서 공을 뵈게 되었다. 이때 공은 바야흐로 군사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신(神)의 모습처럼 양양(揚揚)하였으며, 평소의 모습으로 나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오늘의 행차는 교서(敎書)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대는 나를 위하여 대신 글을 지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내가 경응(敬應)하여 말하기를 ”알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지금 이붓으로 공의 묘석(墓石)을 쓰니 눈물의 유락함을 알지 못하겠도다. 공(公)의 부인은 해주최씨로 참봉 기창(起昌)의 딸이다.

신해년(현종 12) 7월 21일 태어나 기사년(숙종 15, 1689) 공에게 시집왔는데, 자양(慈良)하고 공검(恭儉)함이 매우 부녀자의 도리에 마땅하였다. 공보다 19년 후인 정묘년(1747) 5월 24일 돌아감에 용인현 안의 구향교동 건좌

의 언덕에 장례하니 공의 묘(墓)와 10리 정도 떨어져 있다. 1녀가 있었는데, 통덕랑 한덕길(韓德吉)에게 출가하였으며, 동생 부제학 명신(命新)의 아들 언구(彦耆)를 취하여 후사를 삼았는데, 부사 해평윤씨 항(沆)의 딸을 취하였다.

[추록(追錄)] 손자로 태침은 현감이고 태현은 교리이며 태상은 일찍 죽었고 태원은 공의 종자 언설에게 출계하여 후사를 이었다. 태침의 1남은 학수이고 태상은 2녀를 두었는데, 장녀는 최홍헌에게 출가하였고 2녀는 심노침에게 출가하였다. 태원은 3남을 두었는데,

長衡秀次華秀次幼
外孫男韓謩縣令謨
縣監崑謩二男長
復衍教官次得衍進
士一女尹翻東暮二
男長光衍次祥衍

崑無子取得衍爲後
簪一男壽衍二女長
鄭遠容次俞舜柱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
春秋館觀象監事世
子師李宗城撰

嘉善大夫工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五
衛都摠府副摠管曹
允亨書

崇禎紀元後三癸丑
月 日立

장남은 형수이고 차남은 화수이며 다음은 어리
다. 외손자로 한예는 현령이고 모(모)는 현감이며
은(崑)과 원이 있다. 예(謩)의 2남중 장남 복연
(復衍)은 교관이고 다음은 득연으로 진사(進士)
이며 1녀는 윤숙동(尹翻東)에게 출가하였다. 모
(暮)의 2남중 장남은 광연(光衍)이고 다음은 상
연(祥衍)이며

은(崑)은 아들이 없어 득연을 취하여 후사를 삼
았으며 원의 1남은 수연이며 2녀중 장녀는 정원
용에게 출가하였으며 차녀는 유순주에게 출가하
였다.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
(議政府) 영의정(領議政) 겸(兼) 영경연(領經筵)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관상감사(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이종성(李宗
城)은 글을 짓고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참판(工曹參判) 겸(兼)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五衛
都摠府) 부총관(副摠管) 조운형(曹允亨)은 글을
쓰다.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3계축(三癸丑: 정조
17, 1793) 월 일 세우다.

오옥정(吳玉貞) 墓誌

有明朝鮮國 贈資
憲大夫吏曹判書兼
知義禁府事行中直
大夫石城縣監吳公
墓誌

配 贈貞夫人延安
金氏祔葬

先祖考諱玉貞字貞
之系出海州始祖諱
仁裕高麗檢校軍器
監諱周裔內庫副使
諱民政秘書監禮檢
校尙書左僕射行太
子詹事諱昇典客令
諱孝冲豐儲倉丞諱
士兼書雲副正

曾祖諱希保左領護
軍祖諱重老進士考
諱繼善北平館提檢
妣全州李氏宗室楊
津正諱信之女配延
安金氏參議 贈領
議政顏樂堂諱訢之
女

有五子二女長景顏
縣監次景醇縣監次
景參次諱景閔監察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증(贈) 자헌대부(自憲大
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겸(兼) 지의금부사(知義
禁府事) 행(行) 중직대부(中直大夫) 석성현감(石
城縣監) 오공(吳公) 묘지(墓誌)

배(配) 증(贈) 정부인(貞夫人) 연안김씨(延安金
氏) 부장(祔葬)

선조고는 휘(諱)는 옥정(玉貞)이요 자(字)는 정
지(貞之)로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시조(始祖)의
휘(諱)는 인유(仁裕)로 고려시대에 검교군기감을
지냈고 휘(諱) 주예(周裔)는 내고부사를 지냈으
며, 휘(諱) 민정(民政)은 비서감 예검교상서 좌
복야(左僕射) 행(行) 태자첨사(太子詹事)를 지냈
다. 또 휘(諱) 승(昇)은 전객령(典客令)을 지냈으
며 휘(諱) 효충(孝冲)은 풍저창승(豐儲倉丞)을,
휘(諱) 사렴(士廉)은 서운부정을 지냈다.

증조(曾祖)의 휘(諱)는 희보(希保)로 좌령호군을
지냈고 조(祖)의 휘(諱)는 중노(重老)로 진사(進
士)이며, 고(考)의 휘(諱)는 계선(繼善)으로 북평
관제감을 지냈다. 비(妣)는 전주이씨로 종실(宗
室) 양진정(楊津正) 휘(諱) 신(信)의 따님이고
배(配)는 연안김씨로 참의를 지내고 영의정에
증직된 안낙당(顔樂堂) 휘(諱) 혼(訢)의 따님이
다.

5남 2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경안(景顔)으로 현감
을 지냈으며, 다음은 경순(景醇)으로 역시 현감
을 역임하였고, 다음은 경삼(景參), 다음은 감찰

贈左贊成次景曾女
適左贊成大提學申
光漢次適司評李仁
壽

積德餘慶裕及後裔
二百餘年本支子孫
殆近千人而不能悉
記敢錄官爵最顯及
贈職最高位景閔子
諱希文 贈領議政
希文子諱允謙領議
政以儒林領袖爲
仁祖朝中興元輔號
楸灘次允諧文科都
正次允誠縣監次允
誠縣監

尹謙子諱達天典籤
贈吏曹判書允諧子
達升承旨次達濟弘
文校理丁丑爲 皇
明殉節虜庭忠義聞
於天下達天子道宗
監察次諱道隆 贈
左贊成次道一兵曹
判書大提學號西坡
道宗繼子遂顯郡守
道隆子諱遂良卽我
先君 贈領議政海

로 좌찬성에 증직된 경민, 다음은 경증이며 딸
들중 장녀는 좌찬성 대제학을 지낸 신광한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사평(司評) 이인수에게 출가
하였다.

덕을 쌓음과 여경(餘慶), 그리고 유관(裕寬)이
후손들에게 미쳐 2백여년이 지난 지금 본파와
지파의 자손들이 거의 천여명에 이르러 이들을
모두 기록할 수 없다. 관작으로 최고 현달한 사
람은 증직으로 최고위에 이른 경민의 아들 휘
(諱) 희문(希文)으로 영의정에 추증(追贈)되었으
며, 희문의 아들 윤겸(允謙)은 영의정을 지내고
유림의 영수(領袖)로써 인조(仁祖) 때 중흥(中
興)의 원보(元輔)가 되었는데, 호(號)가 추탄(楸
灘)이다. 다음은 윤해로 문과에 급제하여 도정
을 지냈고 다음은 윤함으로 현감을 지냈으며,
다음은 윤성으로 역시 현감을 지냈다.

윤겸의 아들 휘(諱) 달천은 전첨(典籤)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증직되었으며, 윤해의 아들 달승은
승지를 역임하였고 다음 달제(達濟)는 홍문관교
리로 정축년에 황명(皇明)을 위해 노정(淸나라
朝廷의 卑稱)에서 순절하여 그 충의를 천하에
떨쳤다. 달천의 아들 도종(道宗)은 감찰을 지
냈으며, 다음은 휘(諱) 도용(道隆)으로 좌찬성에
증직되었고 다음은 도일로 병조판서 대제학을
지냈는데, 호가 서파이다.

도종(道宗)의 계자(繼子)인 수현(遂顯)은 군수를
지냈고 도용(道隆)의 아들인 휘(諱) 수양(遂良)
이 즉 우리의 선군(先君)로 영의정에 추증되고

興府院君遂良子命峻魁科左參贊次命恒右議政海恩府院君以元師討賊策元勳

景醇子世儉後孫居文義者百餘人允誠後孫居海州竹山者近百人而官最顯者節度使道弘享年最高者僉知遂成壽九十允誠後孫居廣州新昌者四五十人景醇出繼子世恭後孫居竹山者亦數三十人

噫惟我楸灘先祖之徑術德業曾大父校理公之節義大父西坡公之文章我仲氏海恩相公之勳業皆我先祖考貽後之餘床天之厚善人不於其身則於其身後者此其驗也墓在廣州土塘戌坐原子景閱兄弟墓在前孫希文墓在後

해흥부원군에 추봉되었다. 수양(遂良)의 아들 명준(命峻)은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좌참찬에 이르렀고 다음은 명항(命恒)으로 우의정에 이르고 해은부원군에 봉해졌는데, 적을 토벌하는데 원수(元帥)로서 참가하여 원훈(元勳)에 책록(策錄)되었다.

경순(景醇)의 아들은 세검(世儉)으로 그 후손들 중 문의(文義)에 거주하는 사람이 백여인이고, 윤함(尹誠)의 후손으로 해주와 죽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백여인에 가까운데, 관직으로 최고 현달한 사람은 절도사 도홍(道弘)이며 향년으로 가장 많은 사람은 첨지(僉知) 수성(遂成)이니 나이가 90세이다. 윤성(允誠)의 후손으로 광주와 신창에 거주하는 사람은 4·50인에 가깝다. 경순(景醇)에게 입적(入籍)한 계자(繼子) 세공(世恭)의 후손중 죽산에 거주하는 사람도 또한 30여인에 이른다.

희(噫)라! 생각건대 우리 추탄선조(吳允謙)의 경술(徑術)과 덕업(德業), 증대부(贈大父) 교리공(校理公)의 절의, 대부(大父) 서파공(吳道一)의 문장(文章), 우리 중씨(仲氏) 해은상공(吳命恒)의 훈업(勳業) 등은 모두 우리 선조고(吳玉貞)에게 이후지여(貽後之餘: 父祖가 자손을 위하여 남긴 교훈, 貽訓)과 휴천지후(庥天之厚: 하늘의 두터운 隱德)로 선인(善人)에게 그 몸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후손에게 나타나 증험(證驗)을 보이는 것이다. 묘는 광주(廣州) 토당(土塘) 술좌의 언덕에 있는데, 아들 경민(景閔) 형제의 묘(墓)가 앞에 있고 손자 희문(希文)의 묘(墓)가 뒤에 있다.

崇禎紀元後一百九年丙辰七代孫通政大夫前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命新敬誌

승정(崇禎) 기원후(紀元後) 109년 병진년(丙辰年) 7대손 통정대부(通政大夫) 전(前)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지제교(知製教) 겸(兼)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 명신(命新)은 삼가 기록하다.

오윤겸(吳允謙) 墓碣

朝鮮國大臣輔國崇
錄大夫議政府領議
政兼領經筵弘文館
藝文館春秋館觀象
監事 世子師 贈諡
忠貞 秋灘 吳公墓
碣銘 并書

崇禎丙子孟春領議
政吳公卒於位法得
樹石神道而顧言曰
吾遭遇 聖明不得
挽回世道於國無功
於身無德死葬勿立
碑凡請諡求挽借人
揄揚之事竝已之

諸孤不敢違既而謀
於所親咸曰然雖然
禮稱先人有善而不
傳不仁也盍圖於先
友之質而不華者略
其細志其大於短碣
乎書之也遂來請於
余辭不獲

謹按公諱允謙字汝
益別號秋灘其先海
州人有諱人裕仕高
麗爲軍器監十二傳

조선국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령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 감사 세자사
증시 충정 추탄 오공묘갈명 병서

충정 병자(1636) 맹춘(孟春)에 영의정 오공(吳公)이 벼슬(位)에서 졸(卒)하였다. 법식을 따르자면 마땅히 신도(神道)에 비(碑)를 세워야 하겠지만 유언하여 말하기를 「내가 밝은 임금을 만났으나 세도(世道)를 만회시키지 못하였고 나라에는 공(功)이 없고 몸에는 덕(德)이 없으니 죽어서 장사지낸 뒤에 비석을 해 세우지 말것이며 시호(諡號)를 청하고 만장(挽章)을 구하여 남의 찬양을 구하는 일을 모두 하지 말라」 고 하였다.

여러 아들들이 감히 이를 어기지 못했는데 친지들과 의론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그렇기는 하나 선인(先人)이 착한 일이 있는데도 이것을 후세에 전하지 않으면 이는 불인(不仁)이니, 어찌 선인의 벗 중에 질박하고 화려하지 아니한 자에게 도모하여 그 미세(微細)한 것은 략(略)하고 그 큰 것만을 추려서 단갈에 기록하지 않을 것인가」 하였다. 이에 따라 글을 쓰게 되자 나에게 와서 청하니 사양할 수가 없다.

삼가 상고 하건데 공의 휘(諱)는 윤겸(允謙)이고 자(字)는 여익(汝益)이며, 별호(別號)는 추탄(秋灘)이니 그 선조는 해주인(海州人)이다. 휘(諱) 인유(仁裕)가 있어 고려에서 벼슬을 하였으니

而爲公之高祖世有衣冠至公始大顯遂贈皇考繕工監役諱希文議政府領議政祖考司憲府監察諱景閔左贊成曾祖考司瞻寺主簿諱玉貞吏曹判書

議政公業文不遂家行純篤鄉里推爲誠長者

娶延安李氏文康公石亨之後郡守廷秀之女最名有婦德嘉靖己未十月生公在娠有異夢生而端穎異凡兒八歲大夫人病思異味不得公偏求以進家人悉驚以爲誠感

旣冠學于成牛溪先生先生重其操履待之有加公不以科舉爲意爲親屈意就之壬午中司馬居洋宮尤爲士友所慕授英陵參奉棄官又授奉先殿參奉

군기감(軍器監)이었고 12대에 내려와서 공의 고조(高祖)에 이르러 대대로 벼슬하였고 공에 이르러 대현(大顯)하기 시작하여 공의 부친 선공감역(繕工監役) 휘 희문(希文)에게는 영의정(領議政)으로, 조부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휘 경민(景閔)에게는 좌찬성(左贊成), 증조고 사섬시 주부(司贍寺主簿) 휘 옥정(玉貞)에게는 이조판서(吏曹判書)가 증직되었다.

의정공(議政公: 희문)은 글을 공부하여 과거에 오르지는 못하였으나 집에서는 행실이 순수하고 돈독하여 향리에서는 장자로 추대하였다.

연안이씨 문강공 석형(石亨)의 후손인 군수 정수(廷秀)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부덕(婦德)이 있기로 이름이 있었다. 가정 기미(1559)년 10월에 공이 출생 하였는데 임신중(태몽)에 이상한 꿈이 있었고 나면서 부터 단정하고 총명하여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8세때에 대부인(모친)이 병이 있어 색다른 음식을 생각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공이 두루 구하여 드리니 집안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정성이 감동시킨 것 이라고 하였다.

관례(冠禮)를 행한 뒤에는 성우계(成于溪: 渾) 선생에게서 공부를 하였는데 선생은 그 지조와 행실을 소중히 여겨 남달리 대하였다. 공은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으나 부모를 위하여 뜻을 굽혀 공부를 하였고 임오년(1582)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반궁(泮宮: 太學)에 있었는데 이로부터 사우(士友)들로 부터 사모하는 바가 되었다. 영릉참봉에 제수 되었으나 벼슬을 버리고 돌아오니 다시 봉선전(奉先殿) 참봉을 제수 하였다.

壬辰之亂鄭相國澈體察兩湖署爲從事甚重之相府幕僚之用蔭官自公始癸巳授典設別提不仕授侍直副率轉衛率大臣薦才堪守令除平康縣監

鄭公速爲方伯以公事忤意及相見喜曰眞金玉佳士也自是每與論學致敬重焉

丁酉登文科別試在縣五年境內大治亡何棄歸徵拜侍講院文學移弘文館副修撰又移司書爲修撰爲吏曹佐郎知製教副校理

牛溪被奸黨誣詆公以門人自劾辭侍從適爲直講特授鏡城判官公不以遷客自居悉心營職治理爲一道最甲辰遭大夫人憂與諸弟廬于墓下哀毀踰制及侍議政公必修溫顏不敢以戚

임진왜란에는 정상국 철(鄭澈)이 양호(兩湖) 체찰사(體察使)가 되자 공을 종사(從事)로 발탁하여 심히 중하게 여겼는데 상부(相府)의 막료(幕僚)에 음관(蔭官)을 이용한 것은 공에서 비롯되었다.

계사(1593)에 전설(典設), 별제(別提)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다시 시직(侍直), 부술(副率)로 옮겨졌는데 대신이 수령을 감당 할만한 인재라 추천하여 평강현감(平康縣監)에 제수되었다.

이때 정공 구(鄭逯)가 방백으로 있었다. 공사(公事)로 하여 뜻을 거슬렀는데 서로 만나보자 기뻐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금옥같이 아름다운 선비로다」라고 말하고 이로부터 매양 더불어 학문을 론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기에 이르렀다.

정유년(1597)에 별시문과에 올랐고 그 현에 재임하고 있었던 5년 동안에 경내(境內)가 크게 다스려졌다. 얼마 안되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자 다시 시강원(侍講院) 문학(文學)에 제수되었다가 홍문관 부수찬으로 옮겨졌고 다시 사서(司書), 수찬(修撰), 이조좌랑(吏曹佐郎), 지제조(知製教) 부교리(副校理)가 되었다.

우계(牛溪) 선생이 간당의 무함을 받자 공은 그 문인으로서 자핵(自劾)하여 시종(侍從)을 사퇴하고 직강(直講)이 되었더니 경성판관(鏡城判官)에 특별히 제수 되었다. 갑진년(1604)에 대부인의 상을 당하여 여러 아우들과 함께 묘사에서 여막을 짓고서 그 슬퍼함이 도에 지나쳤다. 그러나 의정공(議政公:부친)을 대할 때에는 필히 온화한 낯빛으로 감히 슬퍼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進服除典籍司藝用
薦爲安州牧使公所
在有異政褒錫相繼
不可勝記去後民輒
鑄銅爲碑期於無泐

戊申親年七十遶歸
以御史巡按北道還
爲司導正移左通禮
會有南顧憂 特拜
東萊府使樊祛信孚
民夷皆悅陳疏歸養
爲戶曹參議移同副
承旨

師誣未雪疏辭不許
序陞右副 特拜忠
清道觀察使大臣以
爲宜置左右仍陞左
副

鄭仁弘恃恩恣睢上
劄侮毀晦齋退陶兩
賢公與同僚極陳尊
賢斥邪之意忤 旨
出爲江原道觀察使
秩滿還爲僉樞

복을 마치자 전적 사예에 제수되었으며 안주목 사에 천거 되었는데 공이 임지에 있을 때에는 선정을 베풀었으며 반드시 포상이 뒤를 이어 이루어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공이 떠나 온 뒤에는 백성들이 문득 동으로 비석을 주조하여 그 업적을 길이 후세에 전할 것을 기약하였다.

무신(1608)에 부친의 연세가 70이 되었으므로 벼슬을 내놓고 돌아왔다가 어사가 되어 북도(北道)를 순찰하고 돌아와서 사도정(司導正)이 되었다가 좌통례(左通禮)로 옮겼다. 이때 마침 남쪽의 변방에 근심이 있다하여 동래부사로 특배(特拜)되었는데 폐단을 없애고 민음을 보여서 백성과 오랑캐가 모두 기뻐하였다. 소를 올려 사직하고 돌아와서 호조참의가 되었다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옮겼다.

이때 스승의 무함을 받은것이 아직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올려 벼슬을 사양하고자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고 서열에 의하여 우부승지로 승차 하였다가 특별히 충청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대신(大臣)이 말하기를 「마땅히 임금의 좌우에 두어야 한다」고 하여 이내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승차 하였다.

이때 정인홍(鄭仁弘)이 임금의 은총을 믿고 방자하게 굴어 차(劄)를 올려 회재(晦齋)와 퇴도(退陶) 양 현(賢)을 모욕(侮毀)하자 공이 동료들과 더불어 어진이를 높히고 간사한 자를 배척하자는 뜻을 극진(極陳)하자 임금의 비위를 거슬러서 강원도 관찰사로 나아 갔다가 임기가 차자 돌아와서 첨추(僉樞)가 되었다.

在任剔民瘼釐貢案
修魯山墓定其祭式
獎振儒風黜貪墨吏
人情翕然

癸丑朴應犀誣告獄
起一時名流多被逮
皆公平生所賢重杜
門削迹不與人事爲
養求爲廣州牧使

明年議政公損館廬
墓如前喪服除分承
旨丁巳差回答使使
日本自關伯以下聞
公名無不敬待歸本
國俘擄百餘人及還
所遺國贖盡却之

後倭使來問貴國如
吳公比幾人答未易
數倭使笑曰貴國雖
盛人才定不過一人

李爾瞻廢 母后廷
議之公辭甚嚴正賚
百僚伏閣亦不赴
臺諫請遠竄待命于
郊者二年

재임(在任)하는 동안에는 백성을 괴롭히는 폐단을 없애고 공안(貢案)을 바로 세우며 노산군(魯山君)의 묘를 정비하고 거기에 제사 지내는 규식(規式)을 정했으며 유풍(儒風)을 진작 시키고 탐욕스럽고 간사한 아전을 내 쫓으니 사람들이 모두 흡족해 하였다.

계축년(1613) 박응서(朴應犀)의 무고로 옥사가 일어나서 일시 명류(名流)들이 모두 체포되니 모두가 공이 평생 어질게 생각하고 중히 여기던 사람들이었다. 이때 공은 두문불출하여 자취를 감추고 인사(人事)에 관여하지 않았다가 부친의 봉양을 위하여 광주목사가 되었다.

이듬해에 의정공이 졸(卒)하자 전과 같이 여묘(廬墓)하였고 상을 마친 후 분승지(分承旨)로 제배되었다. 정사(1617)년에 회답사(回答使)로 차출되어 일본 사신으로 갔는데 관백(關伯) 이하가 공의 이름을 듣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백여명의 포로를 데리고 왔고 일본에서 준 예물은 모두 받지않고 물리쳤다.

그후 왜의 사신이 와서 묻기를 「귀국에 오품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므로 「그 수를 세기가 쉽지 않다」 고 하였더니 왜사가 웃으며 말하기를 「귀국에 인재가 성(盛)하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에 불과할 것이다」 고 하였다.

이이첨(李爾瞻)이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하여 조정에서 이를 의론 하였는데 공의 말이 몹시 엄정하였으며 백료(百僚)를 위협하여 복합(伏閣: 대궐문앞에 나가 엎드려 상소하는 것)할 때에도 역시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간(臺諫)들이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하여 교외(郊外)에서 대명(待命)한지가 2년이 되었다.

壬戌 光宗皇帝卽位超二階越海進賀時海路多梗人皆畏避公無少動及在海上海上遇颶風舟幾覆衆無人色公危坐泚筆記詩晏然如常度

公於圃隱先生彌甥也使日本朝金陵適與之同歲月而其忠信自仗夷險不貳又無不同人益奇之

公既還 國家反正登庸舊臣遂拜公大司憲改紀之初務用重典公持論和平人多悅服兼帶 經筵春秋同知事 元子輔養官

時議處廢世子臺諫請斷大義公獨自劾前所陳幾誤 聖德適爲右參贊兼知義禁府事

上臨筵問色鬪得三戒孰難公對色最難上曰予則以戒得爲難公復對不必蠱心妖物夫婦之間或不

입술(1622)년 중국 광종황제(光宗皇帝)가 즉위하자 그 계급을 올려 주어서 바다를 건너서 진하(進賀)할 때 바닷길이 험하여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 하면서 피하려고 하였으나 공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바다 위에서 태풍을 만나 배가 뒤집히려 하자 사람들이 모두 안색이 변하였으나 공은 단정히 앉아 붓을 잡고 시를 써 태연함이 평상시와 같았다.

공이 포은 선생의 미생(彌甥: 제매(娣妹)의 원손(遠孫)으로서 일본의 사신으로 가고 중국에 입조 한것이 공교롭게도 같은 해 같은 달이었으며 그 충신(忠信)하여 위험에 대한 경우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것이 또한 같지 않은것이 없으니 사람들이 더욱 기이하게 여겼다.

공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국가에서 반정이 일어나 옛 신하를 등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은 대사헌(大司憲)에 제배 되었다. 정권이 바뀌어 새정치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중전(무거운 법정)을 쓰는데 공은 화평을 지론으로 내세우니 많은 사람이 열복(悅服)하였다. 경연 춘추동지사 원자(元子) 보양관(輔養官)을 겸하였다.

이 때에 폐세자의 처분하는 일을 의론하여 대간(臺諫)이 대의(大義)를 결단 하기를 청하였으나 공은 홀로 전에 아뢴 바가 거의 성덕(聖德)을 그릇칠 번 한 것을 자핵(自劾)하여 우참찬(右參贊) 겸 지의금부사로 자리를 옮겼다.

임금이 경연에 임하여 「색(色) 투(鬪) 득(得) 3계(三戒)에서 무엇이 가장 어려우냐」고 묻자 공은 「색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득(得)을 경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공이 다시 대답하기를

能相接以禮是亦不善於戒色也 上改容曰卿言然矣

公自 先朝出入經幄每當進講之際輒先事規諷 上虛心傾聽拜吏曹判書辭不許公秉心公正知其人不稱職雖親不用苟賢也踈遠不遺鞠獄勞加一皆

李适叛扈 駕公州進崇政 上欲錄勳公啓止之宮殿燬於兵 移御光海時所創別宮制度奢麗公因進見陳鑑戒之意病解銓長知敦寧兼世子右賓客刑曹判書

世子加元服進崇錄禮曹判書未久復長東銓公益加振滌選用知名士 恩澤除官者稀得進擬有嚴

「반드시 요물에 고희되지 않더라도 부부지간에도 혹 예로써 접하지 못하는 것도 이 역시 색을 경계하는 일에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얼굴 빛을 고치고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공은 선왕조(先王朝)때 부터 경연에 출입하여 진강(進講)할 때에는 언제나 법도를 지키는 일로 풍간(諷諫)했는데 임금은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경청하였다. 이조판서에 임명되자 이를 사퇴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공은 마음가짐이 공정해서 그 사람이 직책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비록 친하더라도 쓰지 않았고 진실로 어진 사람이면 아무리 소원(疏遠)하더라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 무렵 국옥(鞠獄)의 노고로 인하여 한계급이 가자(加資)되었다.

이괄(李适)이 반란(叛亂)을 이르키자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여 공주(公州)로 갔는데 이때 승정대부(崇政大夫)로 위계(位階)를 올리고 임금께서 녹훈(錄勳)하려 하자 공은 계(啓)를 올려 그치게 하였다. 궁전이 병화로 불탔기 때문에 광해군 때에 별궁으로 지은 별궁(別宮)으로 이어(移御) 하였는데 제도가 사치스럽고 화려 하였다. 이에 공이 나아가 알현하고 진감(陳鑑) 경계할 뜻을 아뢰었다. 병으로 전장(銓長: 이조판서)의 직책을 면하고 지(知) 돈령(敦寧) 겸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 형조판서에 임명 되었다.

세자가 원복(元服)을 입게 되자 승록대부(崇錄大夫)의 위계에 올라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되었고 미구(未久)에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다. 공은 더욱더 진작하여 지명(知名)의 인사를 골라서 쓰니 은택으로 임관된 자는 추천해서 진용되는 자가 드물었다. 이에 엄한 전지가 있어 공은

旨公不安免拜知樞
兼悉如故俄拜右議
政懇辭 御批欲濟
時艱捨卿伊誰公以
爲

上富於春秋向意經
學庶幾有奮然進益
之望黽勉出謝

丁卯寇深陪 慈殿
中宮先入江都虜要
盟請去 中朝正朔
公極陳不可

及盟虜固請 上親
莅公涕泣極諫只令
諸大臣同盟逮奏聞
多沒其實公言 天
朝有父子之義言不
可不實

後果有蜚語而得免
投杼者公之力也
還都陞左議政兼
世子傳 朝廷增修
江都行殿公請撤廢
闕殿材以省民力

許迺等謀逆伏誅命
錄諸推官功公力辭
只拜鞍馬之 賜陞
領議政 上入左相

불안하여 이 자리를 사면하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에 임명 되었고 겸직은 모두 전대로 하였다. 이윽고 우의정에 제수되자 간곡히 사양 하였으나 임금께서 비답을 내리기를 「어려운 시기를 견지려면 경을 버리고 누가 하겠는가?」 하였다.

상께서 춘추가 젊으시고 경학에 뜻을 두어 분연히 진보할 가망이 있다하여 스스로 권면하여 나아가 사은(謝恩)하였다.

정묘(1627)에 오랑캐가 깊히 쳐들어오자 자전(慈殿)과 중궁(中宮)을 모시고 먼저 강화에 들어갔을 때 오랑캐가 맹약(盟約)을 요구하면서 명나라의 정삭(正朔: 중국의 연호)을 버리기를 청하자 공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극진히 간했다.

마침내 맹약을 맺기에 이르러 오랑캐는 임금께서 친히 참석하기를 굳이 청하자 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극간하여 제 대신들로 하여금 동맹에 참여케 하였다. 중국에 주문(奏聞) 하기에 이르러 그 사실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는데 공이 말하기를 「천조(天朝)와는 부자의 의리가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하였다.

그후에 과연 유언비어가 있어도 의심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공의 힘이였다. 환도(還都)하자 좌의정 겸 세자부(世子傳)에 올랐다. 조정에서 강화도의 행궁을 증수(增修)하는데 공은 폐궐(廢闕)을 철거하여 전재(殿材)와 민력을 살펴 주기를 청하였다.

허유(許迺)등이 역모를 꾀하였다가 복주(伏誅)되자 모든 추관(推官)들의 공을 기록하라고 명하였으나 공은 힘껏 사양하고 다만 안마(鞍馬)만을 하사 받았다. 영의정에 승차 되었는데 상께서

金瑬言竄羅萬甲逮
問金堉公力救得減
律

上筭勸 上聖王之
學專功於大學反覆
致詳 上手札褒答
又勸 世子讀書以
玩索體驗爲要克己
謹獨爲務尤致意於
爲善不誠好名無實
蓋欲隨症下藥不爲
空談 世子亦嘉納

穆陵改葬虞祭百官
將以吉服行事公據
禮請用素服從之時
議 章陵追崇典禮
公力言其不可與議
禮諸臣不合 上屢
下嚴旨公確然不變
具見國史公以言不
行辭遶爲領敦寧府
事

先年請暇飾墓多事
未行至是遂行臨

行以朱子甲寅奏筭
李文純敦聖學筭子
傳寫投進末復拳拳

좌상 김류(金瑬)의 말을 받아들여 나만갑(羅萬甲)을 귀양 보내고 김육(金堉)을 체문(逮問)하자 공이 힘써 구하여 벌을 감하게 하였다.

차(筭)를 올려 임금에게 성왕의 학문을 권했는데 대학(大學)을 공부하는 일에 전심할 것을 뇌풀이 하여 아뢰었다. 이에 임금을 수찰(手札)을 내려 포답(褒答)하였고 또한 세자에게 권하기를 독서는 깊은 연구와 체험이 중요하고 극기(克己)와 근독을 힘써야 하며 착한일 하는데 뜻을 다하고 성실함이 없이 이름만 좋아하고 실(實)이 없는 것을 경계 하였으며 대개 증세에 따라 약을 쓰듯이 하였고 빈말(空談)을 하지 말도록 권면 하였는데 세자 역시 가납(嘉納)하였다.

목릉(穆陵)을 고쳐 장사지내고 우제(虞祭)를 지냈는데 백관(百官)이 길복(吉服)으로 행사하려 하자 공은 예에 의거하여 소복(素服) 입기를 청하니 이를 따랐다. 이때에 장릉(章陵)을 추송(追崇)하는 전례(典禮)를 의론 하였는데 공은 그 불가함을 힘써 말하여 예를 의론한 여러 신하들과 의견이 맞지 않았다. 상께서는 누차 엄한 전지를 내렸으나 공은 확연히 갖춘 의견이 변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든 국사에서 볼 수 있다. 공의 말은 행하여 지지 않았다. 벼슬을 사직하고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가 되었다.

먼저 해에 휴가를 청하여 선영을 수축하려 하였으나 일이 많아 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임하여 드디어 행하였다.

떠날 때에 주자의 갑인주차(甲寅奏筭) 및 이문순공(퇴계)의 돈성학(敦聖學) 차자(筭子)를 베껴서 올리고 그 말미에 다시 「정성껏 하여 사무를

勿以聰察事務爲能
勿以維持一世爲足
褒答

旣行連䟽乞解 不
許遣近臣敦諭夏震
仁政殿及 仁穆王
后疾篤不得已入京
山陵畢往浴椒井仍
歸丙舍秋復拜左議
政敦諭益懇公力疾
入謝或疑進退數數
公曰 上遇災思治
此正乘機開導之時
他不可顧也

元宗之祔廟也公實
領都監之事人問其
故公爲追崇非古則
當初力爭大臣之責
也 朝廷定禮則承
命供職臣子之義也
所見盖如此云

亡何雷雨 穆惠兩
陵崩毀誤傳震擊公
承 命往審還啓雨
也非震也於是言者
咎公諱災公引入不
出

上以羅萬甲倡言下
教罪萬甲公上劄救
解且以言路爲戒萬

종찰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말고 한 세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히 여기지 마옵소서」 하였다니 포답(褒劄)을 내렸다.

이미 묘하로 내려가자 계속하여 소(疏)를 올려 사면을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고 근신을 보내어 간곡하게 유시하였다. 여름에 인정전에 벼락이 떨어졌고 또 인목 왕후의 병세가 위독하자 부득이 입경하여 산릉의 역사가 끝나자 초정에 가서 목욕하였으며 이내 묘하로 돌아왔다. 가을에 다시 좌의정에 배하자 돈독한 유시로 간절함이 더하여 지자 공은 병을 이끌고 들어가 사은하자 어떤 사람이 진퇴가 잦은 것을 의심하자 공이 말하기를 「상께서 재앙을 만나서 나라 다스릴 것을 생각하고 계시니 이는 정히 기회를 타서 開導할 때이니 만 일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원종(元宗)의 부묘(祔墓)에 있어서는 공이 실은 도감의 일을 맡았는데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묻자 공이 말하기를 「추송(追崇)은 옛 법이 아니니 당초에는 힘써 다투는 것이 대신의 직책이며 조정에서 예식을 정했으니 명령을 공경하여 직책을 받드는 것이 신하된 자의 도리이며 소견이 이와 같다」 고 하였다.

얼마 않되어 뇌우(雷雨)로 목능과 혜능 양(兩)묘가 무너졌는데 벼락을 쳤다고 잘못 전하여 졌다. 공은 명을 받고 가서 살펴보고 「비때문이지 벼락 때문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말하는 자들이 공이 재앙을 숨긴다고 허물하자 공은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이때 나만갑(羅萬甲)이 앞장서서 떠들었다 하여 하교하여 만갑에게 죄를 내리자 공은 차(劄)를 올려 그를 구원하고 또 언로를 열어 줄

甲得免重譴 上講
大學詩傳公於筵中
陳講學資益之要其
言甚切又因下教言
人君和平中正以消
朋黨不可先有係着

又言陵寢宜遵祖宗
儉制大君家舍太侈
請裁減 上嘉納仍
命所司施行

訛言陵變不息請再
審不許公出居江上
辭職 下教深斥訛
言之人辭旨太峻公
復上劄陳戒 上覺
悟曰卿言是也予遇
矣

儒生蔡振後等上疏
侮慢栗谷牛溪二先
生公復爲申卞乞退
章三十上 不許敦
諭入城

自此尤無意世事不
與人接深坐一室案
上只留近思錄等書
仁烈王后喪爲摠護

것을 아뢰어 만갑이 중한 죄를 면하게 되었다. 임금께서 대학과 시전을 진강하자 공은 경연에서 강학(講學)이 자익(資益)의 요체임을 아뢰어 그 말이 몹시 간절하였다. 또 하교로 인하여 말하기를 「인군(仁君)은 화평(和平)과 중정(中正)으로 봉당의 대립을 해소 시켜야 하며 먼저 봉당에 집착이 있어서는 않됩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능침은 의당 조종의 검소한 제도에 따라야 하고 대군(大君)의 집은 너무 사치스러우니 청컨대 이를 줄이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가납(嘉納)하고 즉시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능침의 변고에 대한 와언(訛言)이 그치지 않음으로 재심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공은 강상에 나아가 거(居)하면서 사직 하자 임금은 전지를 내려 와언하는 자를 몹시 배척 하였는데 말씀의 뜻이 크게 준엄하였다. 공이 다시 차(劄)를 올려 경계하시기를 진언하니 임금은 이를 깨달아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과인이 지나쳤다」 고 하였다.

유생 채진후(蔡辰後)등이 상소하여 울곡과 우계 두 선생을 모만(侮慢)하자 공은 다시 신변(申卞)하고 물러갈 것을 빌기를 30번이나 하였으나 상께서는 허락지 않고 돈독한 유시를 내려 입성(入城)토록 하였다.

이때로 부터 더욱 세상일에 뜻이 없어 사람과 접하지 않고 한 방안에 깊이 앉아서 책상위에 근사록(近思錄)등의 책을 놓고 머물러 있었다.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상(喪)에 총호사(摠護使)가 되어 피로가 심하여 몹시 초췌하자 혹 병으로

使勞悴已甚或勸辭
疾公曰 君母未葬
豈可言病

初禮曹以自 上服
制 不杖期爲定公
引古禮追正其失疾
漸欲近臣輩降御醫
留視 內賜藥物相
屬於道

遺命治喪悉用儉素
子弟進藥搖手却之
正席東首屏婦人戒
內外勿哭靜而俟之
至正月十九日告終
于京城之東第春秋
七十有八

訃聞 上輟朝三日
弔祭如禮 王世子
致禭葬事官庀哀榮
之禮盡矣用

是年 四月窆于龍
仁縣慕賢里巳坐亥
向之原與婦人墓

東原異穴夫人系出
慶州高麗李益齋齊
賢之後僉正應華之
女有二男二女長達
天郡守次達周衛率

사퇴하기를 권면 받자 공이 말하기를 「국모의 장례를 아직 치루지 못했는데 어찌 병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당초에 예조에서 임금의 복제를 부杖기(不杖期)로 정하였는데 공이 고례를 인용하여 그 잘못을 바로 하였다. 병이 점점 깊어지자 근신들이 내려오고 어의를 보내어 머물러 살피게 하면서 하사하는 약물이 길을 이었다.

유명으로 치상은 검소하게 하라하고 자제들이 약을 올리자 손을 흔들어 물리치고 자리를 바로 하고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부인들을 물리친 다음 내외를 경계하여 곡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조용히 운명을 기다렸다. 정월 19일에 이르러 서울 동쪽 자택에서 졸하니 춘추 78세였다.

이의 부음을 들은 임금께서는 3일간 조회를 물리고 조문과 사제(賜祭)하는 것을 예법대로 행하게 하였다. 왕세자가 수의를 보내고 장사는 나라에서 마련 하였으니 애영(哀榮)의 예를 다하였다고 하겠다.

이해 4월 용인현 모현리 사좌해향(巳坐亥向)에 장사 지내니 부인의 묘와는 동원(同原)이나 혈(穴)을 달리하였다.

부인은 경주이씨이니 고려 이익재(李益齋) 재현(齋賢)의 후손 첨정(僉正) 응화(應華)의 따님이시다. 2남2녀를 두었는데 장자는 달천(達天)으로 군수요. 차남 달주(達周)는 위솔(衛率)이다.

長女婿鄭斗望次女婿觀察使具鳳瑞側室(繼配系出德水右相文憲公苻之曾孫資憲監司洸之女)三男三女長達朝次達遠天次達士達天三男四女長道宗次道隆次道一長女婿黃玠次女婿韓聖弼餘皆幼達周二男一女長道敏次道翊女適李緞達朝四男四女皆幼

達遠一男道全達士二男二女皆幼內外曾孫男女若干人公天資粹美自然寡過平生不爲新奇高遠之論能守師說飭躬砥行爲世模楷號稱名臣詩云溫溫恭人維德之基其公之謂歟銘曰

若稽古籍觀人有術操履之惇確聲容之和悅本原爲實地事功爲粗跡金石匪固丹青匪色儒門德行後死永式

만 사위는 정두망(鄭斗望)이고 차녀서는 관찰사(觀察使)이고 둘째 사위는 구봉서(具鳳瑞)이다. 측실(側室: 계배(繼配)는 덕수이씨로 우상(右相) 문헌공 행(苻)의 증손이며 자헌대부 감사 광(洸)의 따님)은 3남 3녀를 두었는데 장은 달조(達朝), 차는 달원(達遠), 다음은 달옥(達天), 달사(達士)이다. 달천은 삼남 4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도종(道宗) 차는 도룡(道隆), 다음은 도일(道一)이고 장녀서는 황윤(黃允) 차녀서는 한성필(韓聖弼)이며 나머지는 어리다. 달주는 2남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도민(道敏), 차는 도익(道翊)이며 장녀는 이치(李緞)에게 출가하였다. 달조는 4남4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달원(達遠)은 1남 도전(道全), 달사(達士)는 2남2녀이나 모두 어리다. 내외 증손은 남녀 약간인 이 있다. 공은 타고 난 자품이 수미(粹美)하여서 자연히 허물이 적었다. 평생 신기하거나 고원(高遠)한 의론을 하지 않았고 능히 스승의 말을 지켜서 몸을 신칙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 세상에 모범이 되었다. 사람들이 칭하여 명신이라 하더니 시경(詩經)에 말한바 「온화하고 공손한 사람은 그 덕의 근본이라」 한 것은 공을 두고 한 말인가? 명(銘)에 말하기를

옛 글을 상고하면 사람을 보는 것이 방법이 있네 지조와 행동이 도타운 사람들이 이를 우러렀고 화열(和悅)을 근본으로 하고 실지를 숭상하였네. 공적을 남긴 자취는 금석도 굳은 것이 못되고 단청도 빛이 못되는데 유문의 덕행은 죽은 후에 길이 법도가 되리라.

金尙憲 撰
宋浚吉 書

김상헌 짓고
송준길 쓰다.

오윤겸(吳允謙) 墓誌

領議政忠貞吳公墓
誌銘屏書

영의정 충청오공 묘지명 병서

藥泉南九萬撰

약천 남구만 글

粵我 仁祖大王中
興之際寔在余所聞
與所見之世歷數其
時廊廟諸公立節昏
朝則尹海昌建功邦
家則金昇平儒雅望
則申象村文章才華
則李月沙至若

우리 인조대왕(仁祖大王)께서 중흥하셨을 때는 실로 내가 듣고 볼 수 있었던 세상이다. 그때의 조정 제공(諸公)의 인물을 논한다면 혼조(昏朝)에서 절의(節義)를 지킨 분으로는 윤해창(尹海昌)이 있고 나라에 공을 세운 분으로는 김승평(金昇平)이 있으며 단아하고 덕망이 높은 이로는 신상촌(申象村)이 있었고 문장재화(文章才華)로는 이월사(李月沙)가 있었다.

我楸灘先生吳公不
可以一事名不可以
一能稱故歸之以德
行之目其蘊於內者
溫乎若良玉藹乎若
春煦

우리 추탄선생 오공에 이르러서는 한가지 일만을 가지고 이름할 수 없으며 또한 한 가지 능한 것만을 가지고 일컬을 수 없다. 공은 덕행이 뛰어났다. 마음 속에 높은 수양을 쌓아서 다사롭기가 마치 맑은 옥과 같고 화기(和氣)는 봄볕과도 같았다.

其符於外者步武周
旋之可則辭令聲氣
之可樂自然爲中外
所悅服而顯昂類非
一時諸公所可比云
公生平以謙卑自牧
故其終也命後人勿
請諡勿樹碑此自公

처세에 있어서는 언론이 명쾌하고 기색이 유화하여 접촉하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주었으니 나라 안 사람만이 아니라 나라 밖의 사람들까지도 기뻐서 따랐으며 우러러 존경 하였으니 어찌 다른 인물에 비할바이라.

공은 평생에 몸가짐을 겸허하게 하였으니 그 임종에 있어서도 후인에게 청시(請諡)나 비석 세우는 일을 못하게 하였다. 이같은 유언은 공

言之則是也自後死者言之終有不可闕者是以清陰金文正公既有銘在石矣同春堂宋文政公亦請于朝不待家狀而賜諡忠貞矣

公之孫道一又以爲誌幽之文不可獨已乃屬筆於余辭不敢不獲今道一遽歿矣公之玄孫命峻命恒又繼請不已余之不敏於辭久矣重有感於存亡之際也

噫余何知唯竊取兩文正公所慕望稱道之意識公之始終焉公諱允謙字汝益降以嘉靖己未自在髫齡有老成之名先輩大人見者莫不以他日名世醇儒期之

既冠有志於爲己之學游於牛溪成先生之門時及門之英才衆矣先生最重公言行端重稱之曰亂邦可居

으로서는 당연하다 하겠으나 뒤의 사람으로서는 그대로 들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음(淸陰) 김문정공(金文正公)이 비명(碑銘)을 썼으며 동춘당(同春堂) 송문정공(宋文正公)이 또한 조정에 청하여 가장(家將)을 기다리지 않고 충정(忠貞)이란 시호를 내렸던 것이다.

공의 손자 도일(道一)이 또한 지식의 글만은 그 만들 수 없다하여 나에게 지어 주기를 부탁하였다. 내가 감히 허락치 못했었는데 이제 도일이 죽고 공의 현손인 명준(命峻)·명항(命恒)이 또 다시 청하여 마지 않았다. 내가 말에 민첩하지 못한 지도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도일이 생전에 청했던 바이다.

아아! 내가 무엇을 알리오. 두 문정공이 흠모하고 칭송 하였던 뜻을 빌어서 공의 일생 사업을 기록하는 바이다. 공의 휘(諱)는 윤겸(允謙), 자(字)는 여익(汝益)이니 가정(嘉靖) 기미년(1559)에 나셨다. 더벅머리 때 부터 노성(老成)하다는 평판이 있었으며 그를 본 선배대인(先輩大人) 모두가 다음 날 세상에서 이름 높은 선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었다.

관례(冠禮)를 마친 뒤에는 몸을 닦는 학문에 뜻을 두어 우계(牛溪) 성선생(成先生)의 문하에 들어갔다. 이때 선생의 문하에는 영재(英才)가 많이 모여 있었으나 선생께서는 공의 언행이 가장 단정하고 무게 있음을 사랑하여 말하기를 「어지러운 나라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以此凡孝弟忠信之本仁愛公平之道王霸義利之辨得與聞而常致意焉

壬午登上庠授 英陵參奉遞授 奉先殿參奉任辰之難鄭相公澈體察兩湖辟爲從事俄授典設別檢遞授侍直副率衛率用大臣薦出平康縣監丁酉登文科監司署兼從事遞授文學副修撰吏曹佐郎選知製 教陞副校理

時成先生爲黨人所誣公以門人自劾遞授直講出鏡城判官遞授典籍用薦出安州牧使以親老遞歸受巡按北道之命還授司導正移左通禮以南憂特拜東萊府使疏乞歸養入戶曹參議移同副承旨又以師誣辭不許序陞右副特除忠淸道

무릇 효, 제, 충, 신(孝悌忠臣)의 근본과 인애(仁愛) 공평(公平)의 도리와 왕패의리(王霸義利)의 분별을 들어 마음속에 깊이 간직 하였다.

임오년(1582)에 사마시에 뽑혀 태학(太學)에 올랐으며 영릉참봉(英陵參奉)에 임명되었다가 봉선전참봉으로 옮겼다. 임진왜란(1592)때에 정상공(鄭相公) 철(徹)이 양호(兩湖)의 체찰사(體察使)가 되었을 때 공을 발탁 하여 종사(從事)로 하였다. 얼마 안되어 전설별검(典設別檢)에 임명되었으며 시직, 부술, 위술등을 역임하였다. 대신(大臣)의 추천을 받아 평강현감으로 외보(外補)되었다. 정유년(1597)에 문과에 올라 감사서(監司署)의 종사(從事)를 겸임 하였다. 내직으로 불리워져 시강원 문학(文學), 홍문관 부수찬, 이조좌랑, 지제교 등을 거쳐서 부교리에 올랐다.

이때 우계선생이 당인(黨人)들의 무함(誣陷)을 받았는데 공은 문인(門人)으로서 자핵(自劾)하여 직강(直講)으로 옮겨지고 경성판관으로 나아갔다가 전적(典籍)에 옮겨지고 천망(薦望)에 올라 안주목사로 나아갔다. 아버지가 늙었으므로 내직으로 갈려 돌아갔으며 왕명을 받아 북도(北道)를 순안(巡按)하였고, 돌아와서 사도정에 임명되었다가 좌통례로 옮겼으며, 남쪽의 근심으로 하여 특별히 동래부사에 임명되었다가 소(疏)를 올려 귀양(歸養)을 빌어 호조참의에 임명되었고 동부승지로 옮겼다. 그러나 스승의 무고가 아직도 신설(伸雪)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를 들어서 사직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계제

觀察使大臣請留陞
左副

鄭仁弘毀詆晦退兩
先生極陳其誣賢醜
正之罪忤旨遞差宣
惠廳副提調出江原
道觀察使還僉樞爲
養出廣州牧使遞授
分承旨差日本回答
使復命陞嘉善階

廢 母后議發公嚴
辭獻議不赴庭請
臺諫請遠竄待命二
年未決時 神光二
帝繼陞 章宗卽位
當送進賀使光海命
臺諫停啓超二資借
議政銜以送

汎海舟幾覆船人皆
束手公取筆題詩於
船牕晏然如常度定
力之可見於臨危者
如此

還未入京 仁祖改
玉收用舊德拜大司
憲兼同知經筵春秋
元子輔養官遞拜右

대로 우부승지에 올랐다가 충청도관찰사에 특제
되었으나 대신이 임금의 좌우에 머물러 두기를
청하였으므로 좌부승지에 올랐다.

정인홍(鄭仁弘)이 회재(晦齋), 퇴계(退溪) 두분
선생을 비방 하였으므로 공이 그 어진이를 무
함하고 바른 사람을 해치는 죄를 극론(極論)
하였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러 선혜청 부제조
로 벼슬이 갈려 강원도 관찰사로 나아갔다가
돌아와서 첨지중추가 되었으며 아버지의 공양
을 위하여 광주목사로 나갔다. 분승지(分承旨)
에 임명 되었다가 일본회답사로 갔다가 돌아
와 복면 했으며 가선대부의 위계로 올랐다.

폐모론이 일어나자 공은 엄한 말로 헌의(獻議)
를 사양하고 정청(廷請)하는 마당에도 나아가
지 않았다. 대간(臺諫)에서 멀리 귀양보내기를
청하여 2년동안 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도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신종(神宗), 광종
(光宗) 두 황제가 뒤를 이어서 빈천(賓天)하고
장종(章宗)이 즉위 하였다. 진하사를 보내게
되었는데 광해군은 대간에 명하여 정계(停啓)
하게 한 뒤 두 계급을 올리고 의정(議政)의 차
함(借躑)을 주어서 공을 명나라로 보냈다.

바다 위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 배가 거의 뒤집
히게 되고 뱃사람들도 속수 무책이 되었다. 그
러나 공은 배 위에서 붓을 잡아 시(詩)를 쓰면
서 침착 하기가 평상시와 다름 없었다. 그 위험
한 때를 당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명나라에서 돌아왔으나 한성에 들어오지 못하였
는데 인조대왕이 반정하는 의거가 있었다. 옛 신
하를 거두어 쓰기에 앞서 공은 대사헌(大司憲)
겸 동지경연춘추관사 원자(元子) 보양관(輔養官)

參贊知義禁府事拜
吏曹判書以鞫獄勞
加正憲賊适稱兵扈
駕公州還進崇政病
解銓任拜知敦寧府
事兼 世子右賓客

拜刑曹判書 世子
加元服進崇錄拜禮
曹判書再掌銓遞拜
知樞俄登右議政丁
卯虜變陪兩殿入江
都還陞左議政兼
世子傅陞領議政時
章陵追崇議發

公以議不合遞拜領
敦寧府事乞暇省墓
仍乞解職不許以
仁穆后疾大漸還朝
山陵事畢乞浴椒井
更乞骸不許復拜左
議政力辭不得請不
得已入謝會

穆惠兩陵因雷雨崩
阨或傳震變公承命
往審還啓雨也非震
也言者或咎以諱災

에 임명되었다가 우참찬(右參贊)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로 옮겼다가 이조판서에 임명 되었으며 국옥(鞫獄)의 노고로 정헌대부로 가자(加資)되었는데 역적 이괄이 병란을 이르켰으므로 어가를 호종하여 공주로 갔다가 돌아 왔으며 승정대부의 위계로 올려졌으나 전장(銓長)의 직에서 물러나 지돈령부사 겸 세자 우빈객에 임명 되었다.

형조판서에 제배 되고 세자가 원복(元服)을 더 하게 되니 승록대부로 위계가 올려지고 예조판서에 임명되어 다시 전장(銓長)을 맡았으며, 지중추부사로 벼슬이 옮겨 졌다가 곧 우의정에 올랐다. 정묘호란(丁卯胡亂)에 양전(兩殿)을 배종(陪從)하여 강화도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우의정 겸 세자부(世子傅)에 올랐다. 영의정(領議政)에 임명 되었을 때 장릉(章陵)을 추숭(追崇)하는 의론이 일어났다.

공은 의론이 뜻에 맞지 않는다 하여 영돈령부사로 옮겨졌다. 휴가를 얻어서 성묘하였으며 이어서 사직을 빌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인목대비의 환후가 위중해서 조정으로 돌아갔다. 산능의 역사를 끝마치고 초정(椒井)에 목욕 하기를 빌었으며 또 다시 사직을 빌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좌의정에 임명됨에 이를 극력 사퇴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할 수 없이 들어가 사은 하였다.

이때 목릉과 혜능 두 능침이 비로 인하여 붕괴 되었는데, 벼락이 떨어진 변고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공이 왕명을 받들어 가서 봉심(奉審)하고 돌아와 복명 하기를 「벼락이 아니라 비의 소치」 라고 하였다. 언론을 맡은 자가 이는 천재(天災)를 기휘(忌諱)하는 것이라고 공을 탄핵 하였다.

上以無謂罪言者公
出江上上筮救言者
自乞解職章三十上
不許不得已入城

遭仁烈王后喪受摠
護之命勞悴疾疴丙
子正月十九日考終
于第訃聞 上震悼
輟朝三日中使護喪
弔祭庇葬如禮 王
世子時居倚廬不得
臨弔而賜所嘗服衣
三襲以祿之異數也
公系海州高麗軍器
監諱仁裕之後十二
世有石城縣監 贈
吏曹判書諱玉貞是
生司憲監察贈左贊
成諱景閔是生繕工
監役 贈領議政希
文是公三世

妣延安李氏文康公
石亨之後文川郡守
廷秀之女配慶州李
氏高麗益齋齊賢之
後僉正應華之女有
二男二女男長達天
典籤次達周縣令女
長適鄭斗望次適觀
察使具鳳瑞

상께서 낭설을 퍼뜨린다 하여 말한 자를 죄 주
었으나 공은 강상(江上)으로 나가서 차(筮)를 올
려 말한 자를 친구(伸救)하고 자신도 사직을 빌
어서 사장(辭章)이 무려 서른번이나 올라갔다.
그러나 상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으므로 할수 없
이 조정(入城)에 들어갔다.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상을 당하였을 때 총호사
(摠護使)의 명을 받았다. 과로하여 몸이 지치고
병이 더하여 저서 병자년 정월 19일 자택에서
운명하였다. 부음을 들으시고 임금께서는 3일간
조회를 물렸으며 중사(中使)가 나와 호상(護喪)
하고 조제(吊祭)하며 장송(葬送)하는 절차에 예
(禮)를 갖추었다. 왕세자는 이때까지도 여막(廬
幕)에 있어서 몸소 조문하지 못하고 수의 세벌
을 내렸으니 실로 극진한 예우이다.

공은 해주오씨(海州吳氏)로서 고려때 군기감(軍
器監)을 지낸 휘 인유(仁裕)의 十二대 후손에 석
성현감(石城縣監)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된
휘 옥정(玉貞)이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증좌찬
성(贈左贊成) 휘 경민(景閔)을 낳았으며 이분이
다시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 휘 희문(希文)을 낳
았으니 이분이 바로 공의 삼대 조상이다.

비(妣)는 연안이씨(延安李氏)이니 문강공(文康
公) 석형(石亨)의 후손이며 문천군수(文川郡守)
정수(廷秀)의 따님이다. 배(配)는 경주이씨이니
고려때 익재(益齊) 이재현(李齊賢)의 후손이며,
첨정(僉正) 응화(應華)의 따님이다. 두 아들과
두 딸을 두었으니 장남 달천(達天)은 전참(典籤)
을 지냈으며 차남 달주(達周)는 현령을 지냈다.
만딸은 정두망(鄭斗望)에게 출가 하였고 차녀는
관찰사 구봉서에게 출가하였다.

繼配三男達朝達遠
達士達天有三男長
道宗監察次道隆次
道一兵曹判書大提
學

道宗無子道隆有三
男遂良遂顯遂光
遂顯後道宗道一四
男遂元生員遂郁遂
燁遂采進士

遂良有四男命峻參
議命恒校理命新命
集其餘不悉記

公生稟既異操履有
素蚤承師訓學有淵
源踐歷中外專對南
北

晚歲遭遇位極元輔
其言行事業昭在人
耳目者多矣今舉其
槩出宰四邑皆有異
績御史道臣文章褒
啓寵錫頻繁

或於一莅而再三及
及解歸皆有去思碑
或鑄銅鐵爲之以期

측실(側室)은 [덕수이씨로 우의정 문헌공(文獻公) 행(荇)의 증손이며 감사(監司) 광(洸)의 따님이다.] 세 아들이 있으니 달조(達朝) 달원(達遠) 달사(達士)이다. 달천(達天)이 세 아들이 있으니 장남은 도종(道宗)으로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차남은 도룡(道隆) 그 다음은 도일(道一)인데 병조판서, 대제학을 지냈다.

도종은 자식을 두지 못하였고 도룡은 삼남을 두었는데 수량(遂良), 수현(遂顯), 수광(遂光)이다. 수현은 도종에게로 입후(入後)하였다. 도일은 4남을 두었으니 수원(遂元)은 생원(生員)이며, 수욱(遂郁) 수엽(遂燁) 수채(遂采)는 진사이다.

수량(遂良)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명준(命峻)은 참의(參議), 명항(命恒)은 교리(校理)를 지냈는데 그 다음은 명신(命新), 명집(命集)이다. 그 나머지 서손들은 다 기록하지 않는다.

공은 천품이 뛰어나고 마음 가짐과 행실이 돈독하였다. 일찍이 스승의 교훈을 받아서 배움의 연원이 있으며 중외(중국과 일본)를 유력(遊歷)하고 남북의 수령을 역임 하였다.

만년에 임금의 지우(知愚)를 받아 벼슬이 인신(人臣)의 극진한 데에 이르고 그 언행과 사업이 사람의 이목에 남는것이 많았다. 이제 그 대강을 살펴본다. 네 고을의 원이 되어서는 모두 뛰어난 치적이 있었으니 어사(御史)와 도신(道臣)이 다투어 포장하는 글을 올렸으며 은상(恩賞)이 빈번 하였다.

어떤 고을에서는 한번의 임기를 마치고서도 다시 있게 되었으며, 벼슬이 갈려서 돌아온 뒤에는 모두 거사비(去思碑)가 있었다. 심지어는 동철

不泐其在平康鄭寒岡述爲方伯以簿書事將加責罰及見公慙然心服曰金玉君子也我若不見其幾乎失矣與之論學益加敬禮

李相國恒福建議將送北路巡按御史本道士人以公鏡城之績疏陳于朝稱其公平廉直故舉公差遣行到鏡城老幼戀德出迓于境爲之流涕

其在安州適值宣廟奉諱遼東差官以致祭出來一路守宰皆脫衰待之公獨曰差官異詔使衰不可脫差官發怒徑去

後朝廷行文列邑使以安州爲式脫衰者皆慙差官之歸亦摧謝而去其在東萊蠲道內倭供一半而用度有餘商賈納稅盡

(銅鐵)로 만들어서 영원토록 전할 것을 기약하기도 하였다. 평강현에 있을 때 정한강(鄭寒岡) 구(述)가 방백으로 있으면서 부서(簿書)의 일로 공에게 책벌을 가하려고 하였으나 공을 만나 보고 나서는 혼연히 심복(心服)하여 말하기를 「금옥(金玉)같은 군자로다. 내 그 사람을 만나 보지 않았던들 하마터면 실수할 뻔하였다.」 하고 공과 더불어 학문을 토론해 보고는 더욱 공경하여 마지 않았다.

이상국(李相國) 항복(恒福)이 건의하여 북로순안어사(北路巡按御史)를 보내게 되었는데 본도(함경도)의 사인(士人)이 공의 경성(鏡城)에서의 치적을 들어 소(疏)를 올려서 그 공평하고 엄직(廉直)함을 칭송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순안어사로 하여 북도로 보내게 되었다. 경성에 이르니 노유(老幼)가 모두 덕을 사모하여 지경까지 나와 영접하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안주에 있을 때에는 선조께서 빈천(賓天) 하시어 요동차관(遼東差官)이 치제하러 나왔다. 일로(一路)의 수령들이 모두 최복(衰服)을 벗고 접대하였으나 공(公)만이 홀로 말하기를 「차관(差官)은 조사(詔使)와 다르니 최복(상복)을 벗을 수 없다」 고 하였다. 차관이 노기를 띄고 지나갔다.

뒤에 조정에서 열읍에 글을 보내어 안주(安州)를 본받게 하니 최복을 벗은 자들이 모두 부끄럽게 여겼다. 차관도 또한 돌아갈 때 사과하고 돌아갔다. 동래(東萊)에 있을 때에는 도내(道內)의 왜공미(倭供米) 절반을 덜어서 재용(財用)이 여유있게 되고 상고(商賈)의 납세는 모두 변장(邊將)에게 주어서 수군(水軍)

付邊將使整治舟師
不但一府被惠維嶺
以南莫不稱賴

其奉使日本執政爲
之跣足解劍此其極
敬之禮也且許刷還
被虜者百五十餘人
及歸悉棄關白以下
所贈貨於對馬島

翌年島主送東萊
光海命取來充官闕
役費公戒譯官使告
以使臣直受慎勿舉
國家其後倭差到釜
館問宣慰使曰貴國
朝廷如吳某者幾人
答以多不可悉數
倭差笑曰欺我哉貴
國人才雖盛定不過
一人

及廢 母議發公不
赴都堂乃命在家收
議公議曰今日處變
能盡其道然後可以
有辭於天下無愧於
後世題求古聖賢能
盡處變之道者爲法
使聖孝益大聖德益

(水軍)을 강화케 하여 동래 한 고을이 혜택을
입었을 뿐 아니라 조령(鳥嶺) 이남이 칭송하며
의지 하였다.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는 그 나라의 집정이
맨발로 검을 품고서 접대 하였으니 이것은 공
경을 극진히 하는 예이다.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일백오십여인을 돌려보내 주었다. 그
리고 돌아오기에 앞서 관백(關伯)이하의 사람
들이 예물로 준 재화(財貨)를 모두 대마도에
버렸다.

이듬해 도주(島主)가 동래로 보내 왔으며, 광
해군은 이것을 가져다가 궁궐을 조영(造營)하
는 비용에 충당케 하였다. 공은 재화를 받으려
가는 역관을 신축해서 사신(使臣: 공을 지칭
함)이 직접 받아가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알리
고 나라에서 쓴다는 말을 못하게 하였다. 그후
왜사가 부산에 도착해서 선위사(宣慰使)에게
문기를 「귀국 조정에 오모(吳某)와 같은 이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였다. 이루 다 헤일
수 없이 많다고 하였더니 왜사가 웃으면서 말
하기를 「그것은 나를 속이는 말일 것이다. 귀
국에 인재가 비록 많다지만 한 사람에 불과할
것이다」 고 하였다.

폐모론이 일어나자 공은 도당(都堂)에 나아가지
않았다. 집에서 수의(收議)케 하니 공이 의론하
기를 「오늘의 처변(處變)은 능히 그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뒤에야 천하에 대해서 할말이 있고
후세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옛 성인이 능
히 처변을 다할 수 있었던 도리를 구하시어 거
룩하신 혼성을 더욱 지극하게 하시고 성덕(聖
德)을 더욱 밝히시옵소서」 하였다. 백관(百官)이
정청(庭請)하기에 이르러서도 또 가서 참례하지

明及百官庭請又不
往參臺諫請遠竄適
戚聯之人竝在論啓
中故以徐當發落爲
批

辛酉有南顧憂命擇
文武可任將帥者備
局啓曰吳某守邊及
奉使俱爲倭人所敬
服今若收用賢於數
萬甲兵 光海嫌其
立異收議寢不用

及進賀 中朝當其
時使行多溺古人視
爲必死之地數三改
易終歸於公到北京
華人見公儀表問舌
官此是爾國當路宰
相耶答曰然曰非也
必是起廢田野之人
蓋華人亦知我國政
亂故也

癸亥之初首長憲府
刑人罪人輕重得所
人服其平允入經筵
與諸公合辭陳白
成先生誣枉命復官

않았다. 대간(臺諫)에서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
하였다. 때마침 국척(國戚) 중에서 함께 논계(論
啓) 속에 들어 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결정짓겠노라는 비답이 내려왔다.

신유년에 남쪽으로 돌아볼 열려가 있어 문무겸
전해서 일을 맡을 만한 장수 재목을 천거 하였
는데 비국(備局)에서 계하기를 「오모(吳某)는
변방을 지킨 경험이 있고 또 왜에 사신가서 왜
인이 공경하여 따르는 바 되었습니다. 이제 만
일 거두어 쓰신다면 수만의 갑병(甲兵)을 얻은
것 보다도 득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광해(光海)
는 폐모론 수의(收議)에 이의(異議)하였음을 불
쾌히 여겨서 버려두고 쓰지 않았다.

중국에 진하(進賀)하는 사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당시 사행(使行)은 바닷길로 가게 됨으로써 배가
침몰하여 익사하는 사고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사
람들은 이것을 사지로 보았다. 여러번 인선(人選)
이 변경되던 끝에 공에게로 돌아갔다. 공이 북경
에 이르렀는데 중국 사람이 공의 의표(儀表)를
보고 역관에게 물기를 「이 사람이 너의 나라의
당로재상(當路宰相)인가?」 하였다. 다시 말하기
를 「그렇다」 고 하였더니 「아니다. 필시 초야
(草野)의 폐인(廢人)을 기용한 것이리라」 하였다.
중국 사람들도 우리 나라의 어지러운 정치를 알
고 있었던 것이다.

계해년의 처음에 헌부(憲府)의 수장이 되어 사
람들을 죄주고 형벌하는 일의 경중이 모두 마땅
함을 얻으니 사람들이 그 공평함에 복종 하였
다. 공이 경연에 들어가 채공(諸公)과 합사(合
辭)하여 진달하기를 「성(成) 선생이 무함을 받
은 것은 억울한 일이오니 관작을 회복 하여 주옵

李相國元翼自外人朝首舉公及申象村欽請任以國事且擬卜相廢人程之自園籬跳出朝議咸請繼以大義公獨自劾曰昨日之啓幾誤聖德

自公州扈還 上命錄從臣勳公力諫止之其在銓曹議于僚案曰庶官之稱職守宰之得人專在於選擇初仕使各薦知名之士錄成一冊 臨政備擬而承傳恩澤之人類不得與仕路澄清時論翕然終以不用承傳承嚴批遞職

丁卯和虜 上欲親莅盟公進前涕泣極諫而止及將奏聞天朝文多非實狀公曰今日緩禍雖不得已數奏之信不可有隱改撰以送後聞 中朝果有蜚語而不得行者實自我先奏以實之力也

소서」하였다. 이상국(李相國) 원익(元翼)이 밖으로 부터 입조(入朝)하여 맨 먼저 신상촌(申象村) 흠(欽)을 천거하여 국사를 맡기고 또 복상(卜相)하기를 청하였다. 폐인 질(稭)이 위리(圍籬)를 벗어나 도망쳐 나오니 조정의 의론이 모두 대의(大義)로 처단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공이 홀로 자핵(自劾)하여 말하기를 「어제의 계(啓)가 하마터면 성덕(聖德)을 그르칠번 하였습니다」 하였다.

공주 호종으로 부터 돌아오자 임금께서 호종한 신하들의 훈공을 녹(錄)하게 하였으나 공이 극력 간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전조(銓曹)에 있을 때에는 동료들과 의론하기를 「벼슬아치가 직책을 다할 수 있고 수령이 그 사람을 얻음이 모두 초사(初仕)를 선택함에 있다」 하고 각기 지명인사(知名人士)를 천거하여 책자를 만들었다. 전선(銓選)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참고로 하였기 때문에 임금의 은택을 입으려는 자가 모두 탈락하니 벼슬길이 비로소 맑아지고 공론이 기뻐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임금의 뜻을 받들지 않았다 하여 엄한 비답을 받고 벼슬이 갈렸다.

정묘년에 오랑캐와의 화약(和約)에 임금께서 친히 맹약하는 자리에 나아가려 하시니 체읍(涕泣)하여 극간함에 그만두셨다. 이 일을 천조(天朝)에 주문(奏聞)함에 있어 내용이 실상(實狀)에 벗어나는 것이 많았다. 공이 말하기를 「오늘의 화친은 재앙을 늦추기 위하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천자에게 아뢰는 말은 숨길 수 없다고」 하여 고쳐 차어서 보냈다. 뒤에 들은 말이지만 중국에 참말로 유언비어가 있었지만 그것이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은 실로 우리가 사실대로 알린 때문이다.

戊辰治逆後 上欲錄推官勳公又極諫止之左相金瑬言羅萬甲金堉等有專擅黨比之狀 上有遠竄拿鞫之命公筭陳筵奏極諫從輕庚午椴島劉興治殺摠兵陳繼盛 朝廷欲舉兵討之帥旣出公筭陳其非宜又入對極言得止

公自正位端揆以後庶幾以平日所講確於師友而有得者致格 君濟時之效屢獻章筭未嘗不以聖王事業期望以大學格致勸勉反覆詳悉縷縷不已 上亦未嘗不手札褒答又作書進 世子以讀書窮理爲要以克己慎獨爲務尤以不誠無實昵比燕私爲戒

世子亦以書紳自勉爲答蓋公之忠愛誠懇本欲察病加藥不爲空談而朝論不咸世事難平實多有非公所望者及

무진년에 역옥(逆獄)을 다스린 후 임금께서 추관(推官)의 훈공을 록(錄)하려 하였으나 공이 또 극간(極諫)하여 그만 두었다. 좌의정 김류(金瑬)가 나만갑(羅萬甲) 김육(金堉)등이 무리를 지어 언론을 흐린다고 아뢰었다. 임금께서 멀리 귀양 보내고 또 잡아서 국문 하라는 명이 있었다. 공이 차(筭)를 올리고 또 경연에서 아되는 등 극간하여 벌이 경한데에 그쳤다. 경오년에 가도(椴島)에서 유흥치(劉興治)가 총병진계성(陳繼盛)을 죽였다. 조정에서 이를 치려 군대를 출동시키게 되었으나 공이 차를 올려서 그 옳지 않음을 논하고 또 입대(入對)하여 극언(極言)해서 마침내 중지 되었다.

공이 정승의 지위에 오른 뒤로부터 평일에 강론한 바와 사우(師友)에게서 얻은 바를 가지고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건지는 일에 힘을 다했으니 여러번 소를 올려서 진술한 것이 일찌기 성왕(聖王)의 사업을 기대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대학(大學)의 격에 이르는 공부를 가지고 반복 권면하여 마지 않았다. 임금께서도 또한 수찰(手札)로 이에 답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세자(世子)에게도 글을 올려서 독서(讀書), 궁리(窮理)를 요체(要諦)로 삼고 극기(克己), 신독(慎獨)에 힘쓸것을 권하였으며, 불성실(不誠實)과 부인(否認)으로 부터 친압하는 일과 안일과 사정(私情)에 흐르는 일을 경계하였다.

세자도 또한 대(帶)에 기록하여 스스로 힘쓸것으로 답하였다. 공의 충애(忠愛)와 지극한 정성은 본디 병 증세를 살펴서 약을 쓰려는 것과 같았으며 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으나 조정의 의론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세상 일이란 뜻과 같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공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많았다.

章陵追崇議發公力
言其不可前後所陳
不啻累千餘言以此
屢承嚴批終以言不
行免相職至設 祔
廟都監公實領其事
或問前既立異於議
禮後乃不辭於都監
者

何居曰力爭於議發
之初者大臣之責也
供職於禮定之後者
臣子之義也儒生蔡
振後等上疏侮慢栗
谷牛溪兩先生上亦
有未安之教

公上劄極陳二先生
學問之醇正誣謗之
根委以申辨焉至於
穆惠二陵審後浮言
噂沓久而不巳公議
皆知其無據 上教
亦極其開釋而公自
以老病不堪供職無
意於世事深居一室
不與外人相接

장릉(章陵) 추숭(追崇)의 의론이 일어나니 공은
그 옳지 않음을 주장하여 전·후하여 전달한 바
가 누천언에 그치지 않았다. 이것으로 하여 여
러차례 엄한 비답을 받았으며 마침내 말이 행하
여 지지 않음으로써 정승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부묘도감(祔廟都監)을 설치하기에 이르러 공이
도감의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물기를 「전에 추숭하는 예를 논
하는 마당에서는 이의를 제기 하였는데 이제
와서 도감의 직책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공이 답하기를 「의론이
일어난 처음에는 힘써 다투는 것이 대신의 직
책이며, 예가 정하여진 뒤에 일을 보는 것은
신자(臣子)의 의리이다」 라고 하였다. 유생 채
진후(蔡振後)등이 소를 올려 울곡(栗谷), 우계
(牛溪) 두 선생을 비방 하였으며 임금께서 또
한 미안한 전교가 있었다.

공이 차(劄)를 올려서 두 분 선생의 학문이 순
정(醇正)함을 말하고 채진후 등의 비방이 무함
인 것을 극론하여 변명하였다. 목릉(穆陵)과 혜
능(惠陵)의 두 능침을 봉심(奉審)한 뒤 뜬 말이
항간에 떠돌아서 그칠줄 몰랐다. 공론이 모두
근거 없음을 알고 상께서도 그 말을 물리치셨으
나 공은 스스로 늙고 병들어서 직책을 다할 수
없는데다 세상일에 뜻이 없어서 방속에 들어앉
아 외인과 접촉하지 않았다.

尹議政昉以卜相來
議答曰老生年衰才
朽使國事至此以年
力方強之人新卜可
矣尹相再三問其人
竟不應

屬續前數日囑諸子
曰治喪從儉勿以文
繡飾輿輓章非古
倩人詩句揄揚才德
立於柩前豈不可愧
乎初終奠而不祭禮
也盛設蜜果油餌屢
日不撤塵埃暗沒切
勿效也

且請人撰行狀終難
免浮實之言以此請
得美諡不亦愧乎
神道立碑亦非余意
遭逢 聖明不得挽
回世道於國無功
於身無德只以一片
石書官及姓名足矣
疾甚勸進藥物則輒
揮手止之曰吾年位
已極此正冥然歸盡
之時可復求延乎
疾革命正席東首屏

윤의정(尹議政) 방(昉)이 복상(卜相)하는 일로
찾아와서 의론하였으나 대답하기를 「나는 나이
늙고 재주 없어서 나라일을 이지경으로 만들었
다. 연부역강(年富力強)한 사람을 가려서 뽑는것
이 좋겠다」고 하였다. 윤의정이 재삼 그와 같
은 사람을 물었으나 끝내 대답이 없었다.

세상을 떠나지 몇일 전 여러 아들에게 유언
하기를 「치상(治喪)은 검소하게 하여 상여를
장식하는 등 호화스럽게 하지 말라. 만장(輓
章)은 옛 법도가 아니다. 남의 이목을 현란케
하는 시구(詩句)나 재덕(才德)을 찬양하는 말
로 영구 앞에 늘어 세우는 것이 어찌 부끄럽
지 않으랴. 초종(初終)에는 전(奠)을 드릴뿐 제
사 지내지 않는것이 예법이다. 밀과나 기름으
로 만든 음식을 성대하게 차려놓고 여러날이
되도록 물리지 아니하여 먼지가 앉고 빛이 변
하는 등의 일은 하지 말라.

또한 남에게 행장을 지어 달라고 청하면 과장하
는 말을 면키 어렵다. 그것을 가지고 조정에 청
하여 시호(諡號)를 받는것이 또한 부끄럽지 않
으랴. 신도비(神道碑)를 세우는 것도 나의 뜻이
아니다. 밝은 임금을 만났으면서도 세상을 바로
잡지 못하여 나라에 공(功)이 없고 몸에는 덕이
없다. 오직 한 조각 돌위에 벼슬과 성명을 기록
하면 족하다」고 하였다.

병이 위독하여 지자 약물을 권하면 문득 손을
저어서 말리며 말하기를 「내 나이나 벼슬이 이
미 극진한 데에 이르렀다. 이제야 말로 돌아갈
때다. 어찌 또 삶을 연장하기를 바라겠는가」
하였다. 임종함에 이르러 자제에게 명하여 머리를

居去婦人氣絕復甦
聞在側號哭之聲
徐言曰當靜而俟之

既卒得小紙於衣帶
中手錄五六款以敦
聖學爲第一蓋公平
日惓惓不已更欲一
陳於前席而未及者
也葬于龍仁縣慕賢
村負口之原夫人先
卒葬與公同原異室
廣州廣津之上有灘
名楸是公杖履遺址
公之所取以自號者
公既歿州之章甫疏
請于朝配享于其近
先賢遁村龜巖書院
銘曰

幼學壯行古有其訓
欲施抱負孰無其願
然彼巖穴草澤之遠
迹有所阻勢莫能展
至如我公宜若無難
夙承師資有美在蘊
初際昌辰大著華聞
中經艱險琢磨愈煥
晚歲登庸極于隆顯
輿情傾嚮聖眷勤懇

동쪽으로 두게 한 뒤 부인들은 몰러가게 하였
다.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곁에서 호
곡(號哭)하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말하기를
「고요하게 기다리라」고 하였다.

졸(卒)한 뒤에 의대 속에서 종이 쪽지를 얻었
는데 五, 六개 조항의 손수 쓴 것으로 성학을
돈독히 할것을 첫째 조항으로 삼았으니 아마
도 공이 평소에 임금을 잊지 못하여 다시 한번
탑전(榻前)에 진달하려 하였다가 미치지 못했
던것만 같다. 용인현 모현촌 사방(巳方)을 등진
언덕에 장사 지냈다. 부인은 먼저 졸하였으며
공과 같은 무덤에 방을 달리 하였다. 광주 광
진위에 여울이 있으니 이름을 추(楸)라 하였
다. 일찌기 공이 머물던 옛 터로서 공이 추탄
으로 자호(自號)한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이 몰하니 고을의 유지들이 소를 올려 조정
에 청하여 그 부근에 있는 선현(先賢) 둔촌(遁
村) 선생의 구암서원(龜岩書院)에 배향(配享)
하였다. 명(銘)에 이르기를

『어려서 배우고 자라서 행하는 옛날의 교훈 있
었네 포부를 펴 보는것 누가 원치 않으랴 걸어가
는 앞길에는 가로 막히는 것 많아 뜻펴기 어려웠
네 우리 오공은 처세에 어려움 없었으니 일찌기
스승의 가르침 받아 높은 수양 쌓았네 초년에는
발전일로 걸으면서 착한 이름 알려졌고 중
년에는 간난을 겪으면서 의지 더욱 굳어 졌으
며 만년에는 등용되어 현달을 극하였네 공론
이 따르는 바이며 임금의 권고 또한 극진 하였
네 몸을 나라에 허락해서 임무가 무거웠으니
진선(陳善)의 뜻 간절 했으며 일찌기 강구했던

身許任重志切陳善
會所講究庶悉論建
事不如意昔賢所歎
人我心殊說做時舛
世道日艱未克回挽
退不得請進且黽勉
公欲有爲初豈是限
人被公澤亦何云盡
既遇止斯尤增後恨
公有墜言實自傷閔
獨其素學守而無變
格王正事曾莫有徇
續息將絕誠誨欵欵
理到義明足於後觀
君子有終此其不信
質之百世誰敢有間

바를 숨김없이 건의 하였네 일이 여의치 못함
은 옛날의 어진이도 탄식했던일 남과 내마음
달리하여 시대만을 탓했네 세도는 날로 어지
러워 만회할 길 없어 물러가려 하였으나 뜻을
얻지 못했으며 나아 가서는 힘을 다했네 공이
보람있는 일 하려 했으니 처음에 어찌 한(限)
이 있었으리요 사람들이 공의 은택 입은 것도
끝없네 밝은 임금 만났으면서도 사업 이에 그
쳤으니 더욱 한을 더해 공이 남긴 말 상심 하는
데서 나왔네 평소에 배운바를 홀로 지켜서 변
함없어 임금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정사 바르
게 하여 사정(私情)이 없었거늘 숨 끊어지려
할 때 지극한 교훈 이치에 맞고 의리에 밝아
뒤의 사람 본 받기에 족하네 군자는 마침이
있어 틀림이 없는 말일세 백대에 물어본들 누
가 감히 등한하라』 라고 하였다.

오윤충(吳允忠) 墓碣

掌樂院正楸隱吳公
墓碣銘

公諱允忠字君信號
楸隱系出海州以高
麗檢校政丞諱仁裕
爲鼻祖六轉而有諱
希保官左領護軍爲
麗季名臣寔公七世
祖也生諱重老始仕
本朝槐山教導生諱
繼宗蔭仕不就無子
取胞兄司果繼善子
福貞爲子官司儀公
之高曾祖

祖諱景愚左承旨無
子以從父兄縣監景
醇子世恭爲子贈刑
曹參判公之禰也妣
贈貞夫人朔寧崔氏
某之女領議政恒後
公以萬曆癸酉生生
有美質篤於孝甫七
歲參判公卽世哀毀
如成人及長廢學業
以蔭塗進光海之丁
巳朔賊仁弘詔造等
執柄主廢母議從兄

장악원정(掌樂院正) 추은(楸隱) 오공(吳公) 묘갈
명(墓碣銘)

공의 휘(諱)는 윤충이고 자는 군신이며 호는 추
은(楸隱)으로 본관은 해주이다. 고려시대 검교정
승을 지낸 휘 인유(仁裕)를 비조로 삼으며 6대
를 내려와 휘(諱) 희보은 벼슬이 좌령호군에 이
르렀는데, 고려 말에 명신이 되었으니 이 분이
공(公)의 7세조이다. 이 분이 휘 중노를 낳으니
비로서 본조에서 벼슬을 하여 괴산교도를 지냈
고, 이 분이 휘 계종을 낳았는데 음보로 벼슬이
내렸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아들이 없어 동모형
사과(司果) 계선의 아들 복정을 취하여 후사를
이었으니 벼슬은 사의에 올랐는데, 이 분들이
공(公)의 고조와 증조이다.

조의 휘(諱)는 경우로 좌승지를 지냈는데, 아들
이 없어 증부형 현감 경순(景醇)의 아들 세공
(世恭)을 취하여 후사를 이었다. 이 분이 형조참
판에 증직되었으니 공의 아버지이다. 비는 정부
인에 증직된 삭녕최씨 모(某)의 따님으로 영의
정을 지낸 항(恒)의 후손이다.

공(公)은 만력(萬曆) 계유년(1573년)에 태어났는
데, 태어나면서부터 미질(美質)이 있었고 호에도
돈독하였다. 7세때 참판공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애훼(哀毀)함이 마치 성인(成人)과 같았고 성장하
면서는 학업을 포기하여 음도(蔭補)로 광해군의
조정(政)에 나아갔으나 정사년 역적 인홍(鄭仁弘)이
어려운 때를 당해 정권을 잡아 폐모론을 주장하

楸灘相公及月谷公
嚴斥仁弘之罪公亦
與其弟參判公棄官
同歸竹山之竹里墳
簾相和文酒自娛跡
不到城闈十年餘

病于時日下所聞有
不韙者雖不索言怒
然不樂義形於色自
稱以處士預置短碣
書之曰處士吳公墓
有以知公之志公既
早孤日怡愉大夫人
側早夜服勤甲子丁
大夫人憂時公年五
十二哀景居憂縵經
須臾不去身三年如
一日毀瘠不自勝竟
以己巳正月二十三
日考終于寢壽董五
十七葬竹山勝竹洞
間谷子坐原

噫公忠貞公之從弟
也忠烈公之叔父也
參判公之長兄也其
孝如徐仲車其介如
梁伯鸞其文如劉原
父而窮以終身不得
展布於世壽又不稱

자 중형 추탄상공(吳允謙) 및 월곡공(吳允誠) 등
이 인홍의 죄를 엄척(嚴斥)할 것을 의논함에 공
또한 그 동생 참판공과 더불어 벼슬을 버리고
함께 죽산의 죽리(竹里)로 돌아와 훈지아주(墳
簾雅奏)하며 서로 글과 술로 상화(相和)하는 것
을 스스로를 즐겨 그 자취가 십여년동안 성인
(城門)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어느날 병으로 아랫 사람이 옳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더라도 그 말에 역연(怒然)하는 것을 찾
을 수 없었고 형색에는 의가 아니면 즐거워하
지 않았다. 처사로써 자칭하며 미리 단갈을 마
련하여 여기에 쓰기를 “처사 오공의 묘”라고
하였으니 대개 공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공(公)은 이미 어려서부터 고아가 되어 날마다
대부인의 앞에 있으면서 이이(怡怡)케 하였고
아침저녁으로 복근(服勤)하였다. 갑자년(인조 2)
대부인의 상을 당하였는데, 이때 공의 나이는
52세로 애경(哀景)하고 거우최경(居憂縵經)함에
수유(須臾:잠시)라도 몸에서 버리지 않기를 3
년을 하루같이 하였다. 이에 훼손(毀瘠)하여 스
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고 기사년(인조 7) 정월
23일 집에서 돌아가시니 나이 겨우 57세로 죽
산(竹山) 승죽동(勝竹洞) 간곡(間谷) 자좌의 언
덕에 장례하였다.

회(噫)라! 공(公)은 충정공(忠貞公)의 종제(從弟)
이고 충열공(忠烈公)의 숙부(叔父)이며 참판공
(參判公)의 장형(長兄)으로 그 효(孝)는 서중거
(徐仲車)와 같고 그 절개는 양백난(梁伯鸞)과 같
으며 그 문장은 유원보(劉原父)와 같았다. 그러
나 종신토록 세상에 전포(展布:여쭙, 진술함)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나이 또한 그 어짐을 따라
주지 못하였으니 천도(天道:천지 자연의 도리)

其仁不能無疑於天道而天道無疑物莫而大也

忠貞公特立於頽波之中使一國知有倫常忠烈公成仁於絕域使天下知有春秋之義參判公以孝行聞于朝賁蒙天褒公亦以忠孝爲世所推士林矜式之搢紳器重之天之與公家不可謂不豐官細年嗇有不足以輕重於公也

配延安金氏僉知晁女無育繼配延安李敏信女舉三男長達尊參判次達俊通德郎次達孝內外孫曾多不能盡錄

公之後孫之秀謁銘於余余公門之外裔也講媻誼於數百載之後固不敢辭況乎公遺行餘烈實應銘法也銘曰

首陽世家惟孝惟忠

에 의심이 없는 것이 불능(不能)하다고 하여도 천도(天道)가 사물을 의심함이 없음이 막대(莫大)하다고 하겠다.

충정공께서는 퇴과지중(쇠퇴하는 추세)에 우뚝하게 서서 일국에 윤상(倫常)이 있음을 알렸고 충열공께서는 절역(絶域)에서 인을 이루어 천하에 춘추의 의리가 있음을 알렸으며, 참판공께서는 효행으로 조정에 이름을 떨쳐 하늘의 포상을 비연(賁然: 빛나는 모양)하였는데, 공 또한 충효로써 세상에 추승을 받아 사림의 공식이 되었고 진신의 기중(器重)함을 얻었다. 이에 하늘의 공의 가문과 더불어 마땅히 관작의 풍성함을 이르는 것이나 몇몇년 동안은 인색하여 공에게만은 그 무게가 부족함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배(配)는 연안김씨 첨지(僉知) 황(晁)의 딸인데 자식을 기르지 못하였다. 계배는 연안이씨 민신(敏信)의 딸로 3남을 두었으니 장남 달존(達尊)은 참판이요 다음은 달준(達俊)으로 통덕랑이며 다음은 달효(達孝)이다. 내외의 증손·손들은 너무 많아 모두 기록할 수 없다.

공(公)의 후손(後孫) 지수(之秀)가 나 [李裕元]에게 명(銘)을 청하였는데, 나 또한 공(公)의 가문(家門)의 외예(外裔)인 인연으로 수백 마디의 말을 쓰는 것이 마땅하므로 굳이 감히 사양치 못하였다. 공(公)이 남기신 행실(行實)과 열적(烈蹟: 뚜렷하게 빛나는 事蹟)은 실로 명법(銘)하기를

수양(首陽: 海州의 별칭)의 세가(世家)는 오직 효(孝)와 충(忠) 뿐이었네

伯兮扶倫千古樹風

有姪尊周日星華東

至行傳世萃于厥躬

大匡輔國崇祿大夫
行判中樞府事李裕
元撰

백부(伯父)는 윤상(倫常)을 부기(扶起:도와 일으킴)하여 바람으로부터 고수(古樹)를 구했고
조카는 주(周)나라를 존송하여 중화(中華)의 일
성(日星)을 동방(東邦)으로 옮겼는데

그 지행(至行:지극히 좋은 행실) 세상에 전하여
공(公)에게 모셨다네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행(行)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유원(李裕元)은 글을
짓다.

유복립(柳復立) 墓碣

贈吏曹參判墨溪柳
公墓碣銘并書

宗人渙氏送其門子弟以言於余曰吾先祖墨溪公碑碣子已銘之謹以豎於高陽之圓塘墓墓是公前夫人李氏之藏也吾諸宗或曰在其時應有以衣冠葬葬則必於圓塘之墓或曰祭已後二十三年乙卯公之從子陶軒公友潛爲文而祭於轟石之上曰體魄何歸衣冠無地以是徵之似又不葬遺衣冠議者不一吾先祖以若危忠大節在朝家則已棹楔之又俎豆之崇獎之典久而愈顯在私門則今既親盡惟歲一香火是已

憑依無所疑信相參此尤吾屬絕悲而甚冤者後夫人之墓在於陽智縣食只谷祭

중(贈) 이조참판(吏曹參判) 목계(墨溪) 유공(柳公) 묘갈명(墓碣銘) 병서(并書)

종인(宗人) 환씨(渙氏)가 그 문중의 자제(子弟)를 보내 나 [柳鼎卷]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선조(先祖) 목계공(墨溪公)의 비갈(碑碣)은 그대가 이미 이를 명(銘)하여 삼가 고양(高陽)의 원당(圓塘)에 있는 묘소에 세웠는데, 이 묘소는 공의 전부인인 이씨의 무덤입니다. 여러 종족들이 혹 말하기를 ‘그때 의관으로써 장례를 하였는데, 장례할 곳은 반드시 원당(圓塘)의 묘역이어야 한다’고 하였고 혹은 이르기를 ‘제사한 후 23년 을묘년(1615) 공의 종자(조카) 도헌공(陶軒公) 우잠(友潛)’이 글을 짓고 축석루(矗石樓) 위에서 제사하며 이르기를 ‘신체와 혼백(魂魄)은 어느 곳에 돌아갈고! 의관(衣冠)이 없는 곳에서 이것으로 이를 징명(徵明)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남기신 의관으로 장례하지 못하니 의론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께서는 이 높은 충정(衷情)과 큰 절개로써 조가(朝廷)에 있던 즉 이미 점설(屑楔)과 조두가 되어 숭장(崇獎)의 법전이 오래 됨에 더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문에 있던 즉 지금 이미 하고 있듯이 정성을 다하여 한결같이 향화(香火)할 뿐입니다.

빙의(憑依: 의지함)하는데 헤아리고 믿을 바 없어 이것으로만 서로 참작함에 우리 족속들은 더욱 슬픔을 참을 수 없고 매우 원통하기까지 합니다. 후부인의 묘는 양지현 식지곡에 있는데,

則必竝享之碑則必兩豎之尙庶幾有契於無於禮之禮歟於是兪曰可今將攻石而鐫其意子盍又爲文以記之

嗚呼是誠情窮而義起者在子孫百世不忘之感此烏可已也公之立殯本末及世德後承已其具於前碑今不當更舉

只今後之人過此地而覽此石者罔不曰此高四尺坐壬之原卽有明朝鮮國忠臣贈吏曹參判柳公諱復立字君瑞後夫人全州李氏之墓

而與圓塘里前夫人之墓誌碣享祀竝依合祔之禮云爾則不亦可乎夫人考諱福胤官縣監是役也余重有所起敬起感於公者

夫君臣之際天經地彝之泯滅他不得者彼平居衣君衣食君食以身許國者

제사할 때는 반드시 함께 흠향하고 비석은 반드시 2매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서기가 예(禮)에 합치함과 합치하지 않는 것이 있음에 이에 모두들 말하기를 '지금 장차 돌을 다듬어 그 뜻을 새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대는 대개 또 문장으로 만들어 이를 기록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오호(嗚呼)라! 이 성정(誠情)을 다하여 의(義)를 일으키는 것은 자손들에게 백세(百世)토록 잊지 못할 감복(感服)을 삼는 것이니 이것은 아! 옳을 뿐이로다. 공(公)의 장례를 지낸 본말과 세덕이 후세에 계승되었음을 이미 전비(前碑)에 갖추어져 있어 지금 다시 거론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단지 오늘 이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이 비석을 보고 깔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의 높이는 4척(尺)이며 자리는 임좌(壬坐: 북서방향)의 언덕인 즉 유명(有明) 조선국(朝鮮國) 충신(忠臣) 증(贈) 이조판서(吏曹判書) 유공(柳公) 휘(諱) 복립(復立) 자(字) 군서(君瑞)와 후부인(後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의 묘(墓)이고

원당리(圓塘里) 전부인(前夫人)의 묘에 있는 지갈(誌碣: 碑碣)에 향사(享祀)하고 함께 합부(合祔)의 예(禮)를 따랐는데 또한 옳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부인(夫人)의 고(考: 아버지)로 관직은 현감(縣監)을 지낸 휘 복胤(福胤)이 이 역사(役事)를 일으켰는데 내가 공(公)에게 공경하고 감복됨이 거듭 일어났다는 것

부군이 조정의 신하로 있을 때 천경(天經)과 지이(地彝)의 민멸(泯滅)로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없다는 것, 평소에 거처함에는 군의(君衣)를 입고 군식(君食)을 먹어 자신의 몸을 나라에 바쳤다는 것

不幸而遇難或羈縶而從之或居守死之乃人臣之常分當之者不可以自賢論之者亦不必以爲難至若草莽之臣踪跡不到於朝著人主不識具何狀者雖見危高舉自保其身人亦孰得以非之乃能義之與比終至殺身而靡悔者

儘卓乎不可尙已若公者始以抄選授宗簿寺主簿不就後竟殉于節在爵祿則辭之在白刃則蹈之比諸許國死事之人爲尤難者非歟遂爲之銘曰

人之處可以無死可以死之地者孰知夫鴻毛有時重而泰山有時輕也歟曷之使聞公之風不敢自許以余哲余明巖巖乎南江之上轟樓之側或電而掣或虹而亘者得非公忠憤鬱結之氣歟鬱鬱乎圓塘

불행히도 난리를 만나 혹 기설(羈縶)하여 이를 쫓았으며 혹은 거수(居守)하다가 죽으니 이내 인신(人臣)의 상분(常分)가 마땅하다는 것, 어짐을 쫓아 이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또한 반드시 난리가 초망(草莽: 풀숲, 민간)에까지 이르게 하여서는 안되고 신하의 종적(踪跡)이 조정에 현저(顯著)하게 드러나지 않아 인주(人主: 국왕)가 알지 못하여 어떤 행장(行狀)에 갖추어져 있는 것, 비록 위험에 처하여 고거(高舉: 세상을 피하여 은거함)하고 그 몸을 스스로 보전하여 사람들이 능히 의(義)를 얻고 얻지 못함을 비교한다고 하여도 끝내는 살신(殺身)에 이르러 후회함이 없었다는 것

탁탁(卓卓: 뛰어난 모양)하다고 하여도 높힘은 공(公)과 같을 수 없다는 것 등을 간략히 선별(選別)하여 기록하고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를 배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다가 후에 중국에는 순절(殉節)하여 작록(爵祿)이 있었는데도 이를 사양하였으며 백린(白刃: 칼집에서 뺀 칼)이 있어 이를 밟고 나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더욱 어렵다는 것은 초략(抄略)하지 않노라. 이에 이를 위하여 명(銘)하노라.

사람이 처함에 있어 죽음으로써 하지 않는 것이 옳으나 사지(死地)를 누가 알겠는가. 무릇 홍모(鴻毛)도 때에 따라 중요하게 여겨지고 태산(泰山)도 때에 따라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로다. 어느 때 공(公)이 풍모(風貌)를 들을 수 있는가. 감히 나의 명철(明哲)로써도 허락치 않는도다. 암암(巖巖: 돌이 중첩하여 험한 모양)한 남강(南江)의 위 축석루(瀝石樓) 옆, 혹 절전(掣電: 번쩍이는 번개, 몹시 짧은 시간)하고 혹 홍단(虹旦)하는 것은 공의 충분(忠憤: 충의로 인하여 일어난

之麓陽山之原或霜
而降或露而濡者得
非公英靈往來之際
歟嗚呼公靈兮如水
於此乎於彼乎請徵
我辭永垂千禩

族後裔通政大夫前
承政院左承旨兼
經筵參贊官春秋館
修撰官鼎卷撰

七代孫通訓大夫前
懷德縣監 燬書

族後裔通訓大夫前
公州判官 仁根篆

乙酉四月 日 六代
孫 渙立

憤)하고 울결(鬱結:가슴이 막혀 답답함)한 기운
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원당(圓塘)의 산기슭
햇볕 잘 드는 언덕에 혹 서리가 내리고 혹 이슬
에 젖는 것은 공(公)의 영령(英靈:영혼)이 왕래
하는 때에 얻어진 것이 아니로다. 오호(嗚呼)라!
공의 영혼은 이곳의 물과 같아서 후손들에게 청
해진 작은 나의 사명(辭銘) 영원히 천년토록 드
리우리.

종족(宗族) 후예(後裔) 통정대부(通政大夫) 전
(前) 승정원좌승지 겸(兼) 경연참찬관(經筵參贊
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 정권(鼎卷)은
글을 짓고

7대손(代孫) 통훈대부(通訓大夫) 전(前) 회덕현
감 휴(燬)는 글을 썼으며

종족(宗族) 후예(後裔) 통훈대부(通訓大夫) 전
(前) 공주판관(公州判官) 인근(仁根)은 전액(篆
額)을 하다.

을유년(乙酉年: 순조 25, 1825) 3월 일 6대손
(代孫) 환(渙)은 세우다.

유형원(柳馨遠) 墓碣

磻溪柳先生卒三十年而所著隨錄出

噫先生王佐才也全體大用盡於是書蓋發源於天德王道不迂而不陋謂之質諸聖人而無媿可也雖不能見施於當時而百世之下必有來取法者

嗚呼偉哉周禮周公晚年之書也先儒稱之以爛用天理盛水不漏若先生之書專以是爲主發凡起例綱目燦然秤量古今若數掌紋

苟非胸次玲瓏心筭縝密掀翻百代之典章陶鑄一王之制作夫豈能若是之爛漫排張無一罅漏哉

반계(磻溪) 유선생이 졸(卒)한지 30년 후에 그의 저술인 수록(隨錄)이 출간되었다.

희라! 선생은 왕좌(王佐)의 재목이었다. 전체 대용(大用)을 이 책에 다 실었으니 이는 천덕(天德)과 왕도(王道)에서 발원(發源)하였으며 우활(迂闊)하지도 누추하지도 아니하여 성인(聖人)에게 묻는다고 하더라도 가위 부끄럼이 없을 것이다. 비록 당시에는 그 견식이 시행 되지는 못하였으나 백세(百世)에 내려 와서는 필시 그 법을 취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아아! 위대할진저! 주례서(周禮書)는 주공(周公)의 만년에 지은 글이다. 선유(先儒)들은 천리(天理)가 난용(爛用)되고 물이 풍성하여도 스며 나오지 않는다고 칭하였다. 선생의 글이 이와 같으니 오로지 이것을 위주로 하여 발범기례(發凡起例) 하였는데 강목의 찬연(燦然)함은 고금(古今)을 놓고 칭량(秤量) 하여도 손바닥 문양(掌紋)을 세는 것과 같다.

진실로 마음에서가 아니고서는 이처럼 영롱(玲瓏)할 수 없으며 마음을 헤아림은 독특하고 밀접하여 우뚝히 번뜩이니 백대(百代)의 전장(典章)이다. 대저 일왕(一王)이 그릇과 주물(鑄物)을 제작함이 어찌 능하리요. 그러나 이와같이 난만(爛漫)하게 배열하여 장황하여도 금이 가고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지를 알겠는가?

先生生於天啓壬戌
卒於崇禎後癸丑實
歷我仁孝顯三朝其
閒名儒碩輔濟濟朝
著以獨未聞旌招之
舉及於磻溪豈先生
潛龍之德確然不拔
惟恐其聞達而然歟

先生固名家所居去
京師五百餘里而以
一布衣終於湖海之
濱在先生豈有輕重
而亦不可使聞於大
道之國也

先生生七歲讀禹貢
至冀州咏歎之不足
至於起舞蓋已見大
意矣自十三四留心
於聖賢之學傳記百
家貫穿無遺著四箴
自警

甲申後無意當世盡
室南歸隱於扶安之
磻溪閒一赴舉中進
士以王父治命也自
是不復就杜門靜坐
專心力學

선생은 천계 임오년(1622)에 나시어 승정 후 계
축년(1673)에 졸하시매 실로 우리 인조(仁祖) 효
종(孝宗) 현종(顯宗)조까지 3조에 걸쳐 역년(歷
年) 하시었다. 그 기간에 명유와 석학으로 보임
된 자들이 조정에 가득 하였지만 이 저서를 위
해 유독 반계를 거명하고 불러서 표징(表旌)하
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선생의 잠용
지덕(潛龍之德)을 확연히 발탁하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오직 듣는 바에 달함이 두려워서 그러하
였다는 것인가?

선생은 명가(名家)서 연유 하였는바 그가 거처
하는 곳은 서울에서 5백여리나 떨어져 있었으며
일개 포의한사로서 호수와 바닷가의 땅에서 생
을 마쳤다. 선생에게 어찌 경중이 있었을 것인
가? 그러나 대도지국(大道之國)에서 듣고 쓰지
않는 것은 역시 불가한 일이다.

선생은 입곱살 때 서경의 우공기주(禹貢冀州)편
을 읽고 읊조리며 찬탄 하기도 부족하여 일어
나서 춤을 추었으니 몸소 대의(大意)를 깨달았
기 때문이다. 13~4세로 부터 성현(聖賢)의 학문
에 마음이 쏠려 백가(百家)의 전기(傳記)를 꿰뚫
어 남음이 없었으며 사잠(四箴)과 자경(自警)을
저술하였다.

갑신(1641)후 당시 세상일에 뜻이 없어 집을 정
리하고 남쪽으로 돌아가 부안의 반계에 은거하
면서 한가롭게 지냈으나 한번 과거에 응시하여
진사가 되었는데 조부의 명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로부터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두문불
출, 고요하게 앉아서 학문에 힘쓰기만을 오로지
하였다.

其於書未嘗死守前人章句必度之於今而質之於古會之於心而參之於事思之又思究極精微苟有所得雖夜必興明獨疾書

每日暮輒喟然曰今日又虛度矣其精篤如此孜孜夙夜眞積力久自無疑至於有疑自有疑至於渙然泳釋理欲之界分事物之本末莫不瞭然於心目不自覺其欣然而樂慨然而歎至於救世惻怛之念得之天性平生精蘊筆之於書於是乎隨錄成矣

其書以井田爲本不畫其形只求其實教士選才命官分職頒祿制兵設郡置縣之法皆自此推去規模廣大節目纖悉嘗曰天下之道本末大小未始相離

옛 사람의 글에 있어서는 문장(文章)과 글귀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금세의 법도와 옛것의 본질과 마음에 합한지 그리고 일상사에 참작할만 한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극히 정미(精微)한 것까지 연구하고 진실로 얻는바가 있다면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불을 밝히고 홀로 저작에 힘썼다.

그러나 매일 저녁이 되면 번번히 한숨을 내쉬면서 말하기를 「오늘도 또한 헛되이 보냈구나」 하였는데 그 세밀하고 독실함이 이와 같음을 알 수 있으니 무슨 일이든 마음을 쏟아 쉴 사이가 없이 주야로 정진 하기를 오래도록 힘쓰니 스스로 의문이 없던 것에 이르러서도 의문이 생기고 의문이 있어도 어름이 풀리듯 환연함에 이르니 이욕(理欲)의 구분과 사물의 본말(本末)에 있어서 마음속으로 부터 자연히 밝혀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 흔연(欣然)히 즐거워 하며 구세지민(救世之民)에 있어서는 개연(慨然)히 탄식하니 이처럼 가엽게 여기어 슬어함(惻坦)은 천성(天性)에서 얻어진 것이며 평생을 정진하여 글을 짓고 저술을 쌓은 것이 바로 이의 수록(隨錄)인 것이다.

그 저서들은 정전(井田)을 근본으로 하였으나 그 형상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로서 선비를 가르치고 인재를 선발하며 관원을 임명하고 직종을 나누며 록봉(祿奉)을 나누어 주고 군사의 제도와 군(郡), 현(縣) 제도의 설치법 등의 모두가 이에서 쫓아나니 그 규모가 광대하고 절목이 세밀한데 까지 두루 미치었다. 일찌기 가로되 「천하지도(天下之道)의 본말(本末)과 대소(大小)가 애초부터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星失其當衡不得爲
衡寸失其當尺不得
爲尺又曰古與今此
天地也此人物也先
王之政無一不可行
者彼謂古今異宜者
妄耳

又曰古人制法以道
揆事故本自簡易易
行後世皆緣私爲法
百般防巧愈益亂矣
又曰治天下不公田
不貢舉苟已

公田一行貧富自定
戶口自明軍伍自整
如此以後教化可行
禮樂可興不然大本
紊矣無復可言

惟其灼見王霸之分
洞察古今之宜故其
言根於天理達於人
事鈔酌損益照耀鋪
舒大而參於宇宙細
而入於毫芒鑿鑿中
窾井井不亂

별이 그 있을 것을 잃는다면 성좌(星坐)에 평형
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며 촌척(寸尺)이 그 있
을 곳에 있지 않는다면 척량(尺量)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또 말하되 「이 천지가 고금
과 다르지 않으며 인물 또한 고금과 다르지 않
은데 옛 임금이 행한 정치가 다를바가 없지만
저들은 의당 고금(古今)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망언일 뿐이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옛 사람들은 도(道)와 사리(事理)
로써 법을 제정한고로 근본이 간이(簡易)하여
행하는 바가 쉬웠으나 후세에 이르러서는 사특
하게 법을 만들어 백반(百般)으로 막혀서 어지
러움만 더할 뿐이다」 하였으며 또 이르되 「천
하를 다스림에 공전(公田)을 시행치 않고 공거
(貢舉)제를 아니하면 구차스러울 뿐이다.

공전(公田)을 행한다면 빈부(貧富)가 스스로 안
정되고 호구(戶口)가 스스로 밝혀지며 군오(軍
伍)가 스스로 정연하여 질 것이니 이와같이 된
연후에는 교화(教化)를 행함이 가능하고 예악
(禮樂)이 가히 흥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근
본이 어지러워질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
다.」 고 하였다.

그의 작견(灼見)은 오직 왕패(王霸)의 분수와 고
금(古今)의 의당성을 통찰한 것이다. 고로 그 말
의 근본은 천리(天理)에 있으며 인사(人事)에 달
관한 것이다. 이는 손익(損益)을 짐작하고 포부
를 펼치고 조요(照耀: 밝게 비침)하여 크게는 우
주(宇宙)에 참여하고 미세한 것으로는 호망(毫
芒)에 들며 빈곳 가운데를 뚫으며 불난(不亂)함
이 샘솟듯 하였다.

又必會其有極於古
昔先王之制此豈後
世牽補架漏功利偏
霸之學所能萬一哉

先生諱馨遠字德夫
文化人高麗大丞車
達之後文簡公諱寬
入本朝相世宗以
清白聞六世而有諱
滄縣令爲先生曾王
父王父諱成民正郎
贈參判考諱欽藝文
檢閱妣麗州李氏右
參贊志完女

先生白而長身眼采
照人背有七黑子如
北斗狀內行甚篤二
歲而孤事母及王父
母極其誠及沒以善
居喪稱聰悟絕人天
文地理卜筮算數一
遇洞然

嘗論本國分野曰
漢水以北當與燕京
同爲尾箕以南當爲
箕斗知者以爲獨得
之見嘗見彗星知辛
亥必大饑節食蓄穀

또 반드시 지난 옛것의 지극함을 모아서 그
선왕의 제도를 다만 후세에 이끌러 가교를 놓
고자 한다면 공리가 새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편벽된 학문이 만에 하나라도 능한바가 있다
고 할 것인가?

선생의 휘(諱)는 형원(馨遠)이고 자(字)는 덕부
(德夫)이며 문화인이다. 고려(高麗) 대승(大丞)
차달(車達)의 후손으로 문간공(文簡公) 휘(諱)
관(寬)은 본조에 들어와서 재상을 지냈으며 세
종 때 청백리(淸山吏) 소리를 들었다. 6세에
이르러 휘 위(渭)는 현령(縣令)으로서 선생의
증조가 되며 조부 휘 성민(成民)은 정랑(正郎)
으로 참판(參判)에 증직 되었고 부친 휘 흠
(欽)은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이다. 모친은
여주이씨로 우참찬(右參贊) 지완(志完)의 따님
이다.

선생은 살결이 희고 키가 컸는데 안광이 사람을
비추었으며 등에는 일곱개의 흑점이 마치 북두
칠성 형상으로 있었다. 집안에 있을 때의 행실
은 심히 독실하였는데 두살 때 부친을 잃었으나
모친과 할아버지 섬기는 일에 온 정성을 기우렸
다. 거상(居喪) 중에는 최선을 다하였는데 깨달
음이 총명하다는 칭송을 들었으며 천문과 지리
복술과 산수(算數)에 절인(絶人) 하였고 한번만
보아도 흰히 꿰뚫었다.

일찌기 본국 분야에 대하여 논하기를 「한수(漢
水) 이북은 연경(燕京)과 더불어 한가지로 별의
꼬리에 해당되고 이남(以南)은 별자리의 머리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지자(知者)는 이를 두고
홀로 깨달아 얻은 식견이라 하였다. 일찌기 혜성
이 나타나는 것을 보자 신해년에는 대 기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식량을 절약하고 곡식을 저축

以調窮乏尤於春秋
復雪之義睠睠焉
顯廟壬寅北人稱永
曆 皇帝亡我國未
知虛實先生歎曰
皇朝存沒豈是細故
而漠然不知耶

丁未夏聞福建人鄭
喜等漂海押赴馳往
見之以華語酬酢知
皇統未絕取見曆日
驗其爲永曆二十一年
不勝悲喜作詩贈之

所居濱大海嘗置船
四五制極便利蓄駿
馬日可行數百里藏
良弓美箭及鳥銃以
教家僮聚水路朝天
記兼記諸站孰險
孰夷歷歷不差

先生之志可見矣隨
錄外所纂殆七十餘
策藏于家

當宁朝左參贊權楠
左議政趙顯命承旨
梁得中後先白上
稱先生學行才識丁

하여 궁핍한 기민을 진휼하였으며 더욱이 춘추의 복설지의(復雪之義)를 되돌아 보고 현종(顯宗) 임인년에 복인(청인)들이 영력황제(永歷皇帝)가 망하였다고 하였으나 아국(我國)에서는 그 허실(虛實)을 알지 못하니 선생이 탄식하여 말하되 「황조의 존몰(存沒)이 어찌 미세한 일 이기에 막연하여 알지 못하는가」

정미년 여름 복건인(중국 복건성) 정희(鄭喜)등이 바다에서 표류해 와서 압송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가서 이들을 만나보고 중국말로 수작(酬酢)을 하여 황통(皇統)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책력으로 따져보았을 때 그 해는 영력 21년(1667)이 되는 해였는데 선생은 비희(悲喜)를 이기지 못하여 이를 시(詩)로 써 주었다.

바닷가의 땅에서 살았는데 일찌기 4, 5척의 배(船)를 극히 편리하게 만들어 두었고 하루에 수백리를 갈 수 있는 준마(駿馬)를 길렀으며 좋은 활(弓)과 화살과 조총(鳥銃)을 비장하여 집안의 애들에게 가르쳤고 조천(朝天: 중국)으로 가는 수로(水路)의 쇠(衰: 편리)한 것을 취하여 기록하고 견하여 모든 역참의 어느곳이 험하고 어느곳이 평이한지를 역역히 기록하였는데 착오가 없었으니

선생의 뜻이 어떠 하였는지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수록(隨錄) 외에도 거의 70책(策)에 이르는 저술이 그의 집에 비장되어 있었다.

당저에 좌참찬(左參贊) 권적(權楫)과 좌의정 조현명(趙顯命) 승지 양득중(梁得中)등이 조희 석상에서 선생의 학행과 재질과 식견을 칭하여 상(上)께 고하자 정묘년(1687) 상(上)명에 따라 계희(啓禧)는 선생전(先生傳)을 지어 바쳤으며 또한

卯 上命啓禧作先生傳以進且 命取隨錄內入啓禧仍請刊行而竟未果

啓禧少嘗讀隨錄玩繹累年愈見先生之苦心邃學高才廣識卓然爲我東間世人物非敢自附於後世之子雲堯夫而若其高山景行之心至今未能已也

癸酉命 贈執義兼進善表章先生德行及尊周之義也先生娶豐山沈氏府使閔女庚申生壽八十九而終 贈淑人

男昞衛率女適鄭光疇朴森白光著宋儒英尹惟一申泰濟鄭申進士孫應麟應龍應鳳應鵬曾孫發今爲同中樞 贈昞承旨應麟參判發弟薰文持平

先生墓在竹山府西北鼎排山坐西淑人附今府使俞彦摯慕

명에 따라 수록을 꺾내로 들여와서 계획은 이에 간행하기를 청하였으나 결과를 끝마치지 못하였다.

계획(啓禧)은 일찌기 어려서 부터 수년간 반계 수록을 익히고 풀어서 선생이 학문 연구에 고심한 흔적과 높은 재질, 넓은 식견 탁연(託然)함은 우리 동방 세간의 인물임을 이해(愈見)하였다. 감히 후세에게 자운(子雲)이나 요부(堯夫)에 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같이 그 산처럼 높은 대도(大道:景行)를 느끼는 것은 이제에 이르러서도 다름이 없을 뿐이다.

계유년(1693)에 집의(執義) 겸 진선(進善)으로 증직 되었는데 선생의 덕행과 미쁨의 뜻이 존중되어 표장(表章)되었다. 선생은 풍산심씨 부사(府使) 벌(謁)의 따님을 아내로 맞았는데 경신생(1620)이며 수 89세로 세상을 마쳐 숙인(淑人)으로 증직 되었다.

아들 하(昞)는 위솔(衛率)이고 딸들은 정광주(鄭光疇) 박삼(朴森) 백광저(白光著) 송유영(宋儒英) 윤유일(尹惟一) 신태제(申泰濟) 진사(進士) 정신(鄭申)에 각각 출가 하였다. 손자는 응린(應麟) 응용(應龍) 응봉(應鳳) 응봉(應鵬)이며 증손 발(發)은 지금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가 되어 하(昞)는 승지(承旨)로 응린은 참판(參判)에 증직 되었고 발의 아우 훈(薰)은 문과에 올라 지평(持平)이다.

선생의 묘는 죽산부 서북 정배산(鼎排山) 지금의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유좌에 있으며 숙인(淑人) 심씨가 부묘(附墓)되어 있다. 지금의 부사(府使) 유언집(俞彦摯)이 선생의 바른 덕을 흠

先生德義甫下車操
文以酌又伐石以表
墓道搢紳諸公有助
之者同樞公謂啓禧
宜有一言顧何敢辭
謹撮傳中所載以應
之誠以託名慈石爲
辛云

崇禎三戊子夏行判
中樞府事致仕奉朝
賀洪啓禧謹識

모하여 거마를 내려 묘를 찾아보고 조문을 짓고 술잔을 기우려 뿌렸고 또한 돌을 가려 묘도(墓道)에 표(墓表)를 세우려 하자 진신(搢紳: 홀을 대대(大帶)에 꽂아세우는 것. 즉 공경(公卿) 대부(大夫)를 뜻함). 제공(諸公)의 조력이 있었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공(公)이 계획(啓禧)에게 이르기를 의당 한 마니 되돌아 보는 말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어찌 사양 하겠는가? 삼가 전하는 바의 요점을 모아 성의에 응하여 이의 돌에 새기에 된 것으로서 다만 행운이다 하겠다.

송정 무자(1828) 여름 행 판중추부사 치사 봉조하 홍계희 근지

윤염(尹琰) 墓表

子而表先墓艱乎爲
言哉言不稱其德不
孝孰京焉夸亦大傷
厥心哉以茲余小子
夙恐懼焉夸將余小
子不孝罔敢或傷厥
心迺泣以書之吾先
君南原府尹氏諱琰
字仲玉幼好學不須
師而解尤工於四書
剖疑倪蘊累紙聯牘
當世長者皆詡之

小以進士領郡縣者
五其民鄣理而輒免
知金山郡稍久修賢
祠而士興焉割官廩
而使遂焉堤防築而
民利焉楮賦蠲而緇
徒以賴焉亟競伐石
以頌之平生不樂仕
故不達自號曰退巖

아들로서 선친의 묘표(墓表)를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말할 수 있으리다. 말이 그 덕성(德性)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없고, 그렇다고 과장하는 것도 그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자(小子)는 밤낮으로 두려워 하였다. 그러나 소자는 불효(不孝) 하지만 감히 행여라도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기에 눈물을 머금고 이 글을 쓴다. 내 선군(先君)은 남원윤씨(南原尹氏)로 이름은 염(琰)이요, 자는 중옥(仲玉)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반드시 스승에게 배우지 아니하고서도 문자를 해득하였다. 더욱이 중용과 대학을 즐겨하여 글의 중요한 대목에 표지를 붙쳐 낭낭한 소리로 만년(晩年)까지 읽었다. 그 의심나는 뜻을 분석하고 쌓인 저서가 여러편에 이르렀으나 당세(當世)의 명사들이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소시적에는 진사(進士)가 되었고 다섯 고을을 역임했었는데 그 때마다 고을 백성들을 잘 다스려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얼마되지 않아 갈리게 되었다. 금산군(金山郡)에서는 조금 오래 있었는데 그동한 향현사(鄉賢祠)를 수리하여 선비의 기풍을 일으켰고, 자신의 봉록을 나누어 아전들을 도와주었다. 제방(堤防)을 쌓아 백성들에게 수리(水利)를 잘 이용하도록 하였고, 종이를 바치는 부세(賦稅)를 줄여 중들도 생활을 유지토록 하였기에 모두들 다투듯이 비석을 다듬어 그 덕을 칭송하였다. 평생에 벼슬살이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크게 들어나지는 못하였는데 스스로 호를 퇴암(退巖)이라 하였다.

性尙嚴而守敬簡交友遊罕言語雖家人不敢于以事內舅鶴塘公歎曰吾秉銓衡二十年獨某關節不及英廟嘗賜對左右曰某文學爲世所推教以卽其表且凝重焉朝廷設忠良科上問三學士之後赴學爲幾人領中樞府事俞拓基對曰尹某若文章屢舉不中士友皆惜之上曰予亦知其人廷中爲之動容

守溫陽時莊獻世子幸溫泉宮室輿梁不煩大農亟加褒美且以桂坊被眷遇甚重故未始不感激以涕也重名義喜施子卹宋族簞人家育之繩履弊喪常交於室在郡縣閭人毋禁焉

성품은 아주 엄격하였으나 늘 간결한 의관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계셨다. 친구와 더불어 즐기기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하시는 말씀도 적은 편이었으므로 비록 집안 사람들일지라도 무슨 일을 청탁하지 못했다. 외숙인 학당공(鶴塘公)이 칭찬하기를 “내가 전형(銓衡)을 맡은지 10년이 지났어도 오직 윤모(尹某)만이 한번도 청탁이 없었다”하였고 영조(英祖)께서 일찌기 사내(賜耐)할 때에 좌우에서 여쭙기를 “모(某)의 문학은 세상에서 추앙하는 바입니다”하니, 즉시 하교하시기를 그 모습을 매우 침착하고 중후한 것은 나 또한 아는 바라 하시고 조정에 충랑과(忠良科)를 설치하라 이르고 상께서 하문하시기를 “삼학사(三學士)의 후손들이 과거를 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고 하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유척기(柳拓基)가 아뢰기를 “윤모(尹某: 윤염을 지칭함)와 같은 문장으로서는 누차 과거에 오를 수 있사오며, 그의 벗들도 그러하나 과거를 보지 않으니 마음 아픈 일입니다”라고 하자 상께서 이르시기를 “나 또한 그것을 알고 있다” 하시니 온 조정의 신하가 더욱 놀랐다.

온양군수(溫陽郡守)가 되었을 때는 장헌세자(莊獻世子)께서 온천에 거동하시게 되었는데 행궁(行宮) 연로(連路)의 도로와 교량을 미리 수선하면서도 농민들을 번거롭게 부역(賦役)시키지 않았으므로 크게 칭찬하시었다. 또 계방(桂坊)에서 은총을 받았던 것이 매우 중했던 까닭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고 절조와 의리를 중히 여겼으며, 일가들 가운데 간구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기를 한 집안 식구처럼 여겼으므로 일가들이 늘 번갈아 가면서 찾아왔다. 고을에 있을 때에는 문지기가 찾아오는 사람을 금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탄복하기도 하였다.

年及衰猶躬祀家廟
俯伏跪拜登降愈勤
哀慕若始器祀已尊
銅杯勺盞藏惟謹此
其大略焉爾小子嘗
在西掖忠定公顧謂
尊先君志度峻整弘
毅古昔罕儔今不可
復見因相與流涕蓋
忠以中表嘗習乎先
君也

是歲小子遷二品階
得推恩封爲嘉善
大夫吏曹參判兼同
知義禁府事五衛
都摠府副摠管龍恩
君昔人所云爲善無
不報其於是乎在歟
雖然天旣予之篤而
反嗇之命不得大展
于世有足以關世運
歟租施之郡縣庇之
宗族者人莫不莊誦
焉

나이가 들어서도 오히려 가묘(家廟)의 제사를
친히 받들고 부복배배하며 제사를 모실 때마다
슬퍼하는 모습이 마치 초상을 당했을 때와 같이
애통하였으며 제사를 마치고는 모든 제기를 잘
살펴 검사하여 친히 거두었으나 오직 삼가하여
그 대략을 말할 뿐이었다. 소아가 나이 어리고
어리석어 그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지금와서는
그때의 제사를 모시던 절차를 환히 보는듯 하
다. 소자가 일찌기 병조에 있을 때 충정공(忠定
公)이 나에게 이르기를 “존선군(尊先君)께서는
도량(度量)과 학식을 지향(志向)하는 일들이 준
정(峻整)하고 투철하며 넓고 바르기 때문에 옛
날에도 겨울만한 사람이 드물었으니 오늘날 다
시 찾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네”하고는 서로
눈물을 흘렸다. 충정공은 내외종간(內外從間)으
로 일찌기 선군에게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이
와같은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니 어찌 충분한 것
일 수 있으랴.

금년에 소자가 이품계(二品階)로 오르게 되자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 용은군에 추은(推恩)됨을 입어 가묘(家
廟)에 고유하였으니, 옛 사람이 이른바 착한 일
을 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고 한 말이 여기에
있는 듯 하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하늘이 재주
를 잘 타고 나게 하시고는 도리어 수명은 아낌
으로 해서 세상에 크게 현달(顯達)하지는 못했
으니 이는 세상 운수에 관계되던 것일까? 그렇
지만 몇 고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시고 집안
일가들을 보호한 것을 남들은 칭찬하지 않는 사
람이 없다.

余小子得之家庭豈止乎此哉至哀無文文固不遑焉且欲文恐傷先人之心寧略而毋備官次氏系既詳幽誌又列焉顧小子緜材寡聞幸得備位于朝褒大之寵遂及先君此可驗天理之無不報也歟

小子不天生十歲而孤其迪行惇德罔克欽承茲於表又罔崇飾小子不孝無所逃焉小子初度先君手書聖訓編之爲策與孤矢同陳小子無知猶能撫其策泊長太夫人告小子如此余小子用此籍手以立朝事君可幸無罪焉

聖上十四年庚戌六月日男通政大夫守廣州尹廣州鎮兵馬節制使兼京畿右防禦使奎章閣檢校直閣知制 教行恁表

소자인 나로서는 가정에서 보고 듣고 한 사실이 어찌 여기에 그칠 뿐이겠는가마는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 앞서 글로 다 자세히 적을 겨를이 없다. 또한 글로 장황하게 적은 것도 선인의 마음을 해롭게 할까 두려워 차라리 줄여서 적는 것이 나을것 같다. 돌이켜 생각하건데 소자는 재주도 모자라고 보고 듣는 것도 적은데 다행히도 조정에 들어가 크나 큰 은총을 받음이 선군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니 하늘의 이치가 덕을 쌓은 사람에게 그 공을 보답치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실지로 경험할 수 있겠다고 하겠다.

소자는 하늘의 죄를 얻어 태어난지 10세만에 고아가 되었다. 그래서 선군의 훌륭한 덕행을 공경스럽게 받들지도 못했고 또 이제 이 묘표(墓表)를 지으면서 높혀 수식하지도 못하니 소자의 불효함은 몸둘 바가 없다. 소자가 첫똥을 맞이 할 때에 선군께서 손수 성현의 가르치심을 적으시고 또 활과 화살을 마련하여 벌려 놓으셨는데 소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으면서도 그책을 어루만지기는 했었다. 조금 커서 태부인(太夫人)께서 소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일러 주셨으므로 소자는 가훈을 믿고 조정반열에 들어가 임금을 섬기는데 이르러 다행히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성상 14년 경술(1790) 6월에 아들 통정대부 수광주부윤 광주진병마절제사 겸 경기우방어사 규장각검교직각 지제교 행임 표하다.

聖上丙辰以先君承
睿旨植三槐于溫宮
豎碑 紀蹟特贈吏
曹判書是歲自加平
安阡移窆龍仁靑灘
向午原 前配貞夫
人慶州金氏附右男
行恁追記

성상 병진년(1796) 선군(先君)에게 왕명을 받들
어 세자로부터 온궁(溫宮)에 기적비를 세우고 3
주의 괴목을 심었으며, 특별히 이조판서로 증직
하시고, 이해에 가평으로부터 용인의 청탄(지금
의 구성면 청덕리) 오원(午原)에 이팝하고 전배
(前配) 정부인(貞夫人) 경주김씨를 부우(府右)하
였다. 행임이 이를 추기하다.

윤중덕(尹仲德) 墓表

公字仲德本海平辛
亥二月初十日生甲
寅十月二十四日卒
十代祖諱碩右議政
五代祖諱延年承旨
曾祖諱弼卿京畿道
都事祖諱紹安參奉
考諱汝虎 勇校尉
娶安山金汚之女生
公

公娶清州韓應祿之
女墓在九峰北麓甲
龍甲坐再娶昌平文
敬秋之女墓在公同
麓西坐三娶清州李
成綠之女

生四男莘元莘聖莘
清莘覺長男生五商
鳴商二男生師商三
男生翊商濟商四男
生致商□商衡商不
肖子莘覺記

공(公)의 자(字)는 중덕(仲德)으로 본관(本貫)은 해평(海平)이다. 신해년(1611) 2월 초(初) 10일 태어나 갑인년(1674) 10월 24일 돌아갔다. 10대 조는 휘 석(碩)으로 우의정을 지냈고 5대 조는 휘 연년(延年)으로 승지(承旨)를 지냈다.

증조(曾祖) 휘 필경(弼卿)은 경기도도사(京畿道都事:京畿道觀察使)를 지냈고 조(祖) 휘 소안(紹安)은 참봉(參奉)을 지냈으며 고 휘 여호(汝虎)는 용교위(勇校尉)를 지냈다. 안산(安山)을 본관(本貫)으로 하는 김오(金汚)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공(公)을 낳았다.

공(公)은 청주(淸州)를 본관으로 하는 한응록(韓應祿)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묘(墓)가 구봉(九峰) 북쪽 기슭 갑룡(甲龍) 갑좌(甲坐)에 있고 창평(昌平)을 본관으로 하는 문경공(文敬公) 추(秋)의 딸을 재취하였는데, 묘가 공의 묘와 같은 기슭의 유좌(酉坐)에 있으며 청주(淸州)를 본관으로 하는 이성록(李成綠)의 딸을 삼취(三娶)하였다.

4남(男)을 낳았는데, 신원(莘元), 신성(莘聖), 신청(莘淸), 신각(莘覺)이다. 장남(長男:莘元)은 오상(五商), 명상(鳴商)을 낳았고 2남(莘聖)은 사상(師商)을 낳았으며 3남(莘淸)은 익상(翊商), 제상(濟商)을 낳았고 4남(莘覺)은 치상(致商), □상(□商), 형상(衡商)을 낳았다. 불초자(不肖子) 신각(莘覺)은 기록하다.

윤행엄(尹行儼) 墓表

嗚呼此吾伯氏守默堂尹公之藏也公以戊申六月庚寅生脩眉廣顙聲若巨鍾卽幼入虛室有鬼嘖屹立不動

受尙書通帝典碁三百之旨讀禹貢三遍輒誦皇考退巖先生名之曰行儼大學士三山李公秉常冠而字之曰敬甫金退漁鎮商李牧谷箕鎮皆許以大器也

甲戌倡多士上書請享二宋於夫子之廟士望蔚狀歸之以廕攝起居注以諸先生充皇壇享官皆峻望也

壬午選進士歷官十數階至三品爲清州牧

今上問庶僚糶糶策公進對八千餘言多碩畫磁規遂錫

오호라. 이는 우리 백씨(伯氏), 수묵당(守默堂) 윤공의 장백지지(藏魄之地)이다. 공은 무신년(1728) 6월 경인일(庚寅日)에 태어났는데 긴 눈썹과 넓은 이마를 가졌으며 목소리는 큰 종(鍾)의 소리와 같았다. 어려서 허실(虛室)에 들어 가서는 귀신이 불렀으나 우뚝히 서서 동요하지 않았다.

상서(尙書)를 수강하고 제전(弟典)을 통달 하였으며 일년 3백여일 동안 서경(書經)의 우공(禹貢)편 3편을 독송(讀誦)하였다. 그러던 중 문득 황고(皇考), 퇴암(退巖) 선생께서 이름 하기를 행엄(行儼)이라고 하였고 대학사(大學士) 삼산(三山) 이공 병상(秉常)은 관례(冠禮)를 마치자 자(字)를 경보(敬甫)라 하였는데, 퇴어(退漁) 김진상(金鎭商)과 목곡(牧谷) 이기진(李箕鎭)은 모두 큰 그릇으로 기대를 하였다.

갑술년(1754)에 창의(倡義)로 많은 선비들이 공부자(孔夫子)의 묘(향교)에 이송(二宋: 송시열과 송준길)을 배향할 것을 청하였는데 선비들의 바람이 위연(蔚然)하여 이를 좇게 되었다. 음직(陰職)으로 기거주(起居注)를 섭위(攝位) 하여서는 제생(諸生)들을 황단(皇壇)의 향관(享官)으로 충당함에 그 뛰어난을 우러러 보았다.

임오년(1762)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관직은 10여곳을 역임하여 3품에 이르러 청주목사에 이르렀다.

이때 금상(今上)께서 서료(庶僚)들에게 조적(糶糶)의 번성함에 대하여 물으시자 공은 8천여 언(言)으로 대답을 올리니 많고 큰 계획들이 법도

馬以褒之性磊落
愴慨坦無畛崖
燕居公朝其言無貳辭

常慕諸葛亮陶潛之
人肅其像而歌其詩
逞逞流涕自惜其不
遇不平樹高節以見
其志也

且以藻鑑自負如有
不可意者雖權位爽
奕唾而不顧視世之
媿媿泮泮傑狀有矯
拂滌蕩之

想爲文章去雕績一
出天機正韻雅族澹
宕醇樸與魏晉諸子
相上下

而若奇扶蒼健則竊
擬於李杜有詩七百
篇皆可以垂程乎來
世也屢莅雄府不以
賄累城西右屋雖頽
毀不葺喜

에 맞지 않음이 없어 마침내 석마(錫馬)를 하사
하시어 이를 포상¹하였다. 성품은 뇌락(磊落)하
고 강개(愴慨)하며 너그러워 모진데가 없이 연
거(燕居)하였다. 또 공이 조정에 있을 때는 그
말함에 있어 두가지 말을 하지 않았다.

항시 제갈량(諸葛亮)과 도연명의 사람됨을 사
모 하였고 그 모습은 정숙하고 그 시를 노래
함은 영영(逞逞)하였으나 눈물을 흘리며 울면
서 스스로 불우하고 불평(不平)함을 애처롭게
여겼으며 나무와 같은 고절(高節)로 그 뜻을
보이려 하였다.

또 조감(藻鑑)으로 자부하여 만일 헤아리지 못
한 것이 있으면 비록 권세가 있는 자리의 사람
일 지라도 얼굴색이 변하여 침을 뱉고는 뒤돌아
보지 않았다. 세상의 임아(임아)나 전년(泮泮)은
뛰어나 재주로 이를 바로 잡고 더러운 것을 씻
어 버렸다.

마음은 문장에 있어서는 미사려구를 꾸미는 것
을 버리는 것으로 주를 삼아 오로지 천기(天機)
를 내었고 고상한 운치를 바로 잡았는데 풍류
가락의 담탕(澹宕)이나 순박함은 위(魏)·진(晉)
시대의 제자백가(諸子百家)들과 더불어 위와 아
래를 살펴 보았다.

그중 만약 괴상 하거나 어슴프레 한 것이 있
으면 홀로 이(李), 두(杜)의 것으로 헤아렸는데
그 시가 약 7백여 편으로 이것은 모두 내세(來
世)에 교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다. 여
러차례 높은 관직에 있었으나 뇌물의 폐단이
없었으며 성(城)의 서쪽 방향에 있던 고옥 역
시비록 퇴훼(頽毀)되었으나 죽선(葺繕)하지 않
았다.

山水鞍馬東游窮濊
貊遺墟因入金剛遵
海溼觀日出自南湖
至嶺表遂西而訪檀
君箕子古蹟泛瀟水
登香山

嘗恨中國爲夷狄若
有起義北征者欲荷
戈前驅而

人或自燕來輒問民
心向背每中夜仰見
天象太息者久之戊
午當繼妣喪皓首哀
經哀動左右竟以翼
年正月癸酉卒人曰
七十二歲

不勝喪者歷千古惟
公一人焉云曾與仲
弟游龍山之挹清樓
相顧甚樂也及仲弟
沒不復上其樓淚痕
常斑衣袖語或及先
君悽愴形諸外撫存
宗族尙醇厚岡間親
疏宗族仰之若泰山
臨逝執余手言母喪
不終君恩不酬吾
不瞑也遂不及家私

산수를 좋아하여 말에 안장을 지우고 동으로 몸소 예맥(濊貊)의 유허(遺墟)를 유람하고 금강산(金剛山)에 들어가 해안을 쫓아 일출(日出)을 보았으며 남쪽의 호남으로 부터 영남에 이르기 까지 드디어는 서쪽으로 단군(檀君)과 기자(箕子)의 고적(古蹟)을 방문하고는 뱃길을 이용하여 묘향산에 올랐다.

일찌기 중국이 해동을 이적(夷狄)으로 삼아 온 것을 한스럽게 여겼고 만일 의를 이르켜 북쪽을 정벌 한다면 무거운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앞장 서리라고 하였다.

혹은 사람이 연경(燕京)으로 부터 와서 문득 민심의 향배를 묻기라도 하면, 매번 한밤중에 우러러 천상(天象)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한숨을 쉬고는 하였다. 무오년(1978) 계비(繼妃)의 상을 당하여 호수(皓首)임에도 불구하고 좌우에서 몹시 슬퍼하여 마침내는 이듬해 정월 계유일에 돌아 가시니 향수 72세였다.

상을 마치지도 못한 사람은 천고 때부터 오직 공 한사람 뿐이었다. 일찌기 중제(中弟)와 더불어 용산(龍山)의 읍청루(挹淸樓)를 유람 하면서 서로 돌아보고는 매우 기뻐 하였으나 동생이 죽자 다시는 그 누정을 오르지 않았으며 누흔(淚痕)을 항시 옷소매에서 볼 수 있었다. 말이 혹 선군(先君)에 미치면 애통해 하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보였고 종족을 무존(撫存)함에도 돈후(돈후)함을 더욱 두텁게 하여 친소(親疎)함이 없이 엮으니 종족들은 태산과 같이 우러러 보았다. 죽음에 임박하여 나에게 손짓으로 부탁하기를 “어머니의 상을 마치지도 못하고, 임금의 은혜도 갚지 못하였으니 나는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말 하였으나 마침내는 가사(家事)를 마치지 못하였다.

嗚呼余之事公父師
如也今也窀穸有事
忍淚書石將以表其
墓自顧冥頑此何人
哉儻因余之言而俾
過者皆式則尙有以
少塞余終天之悲也

墓右祔夫人徐氏徐
氏達成大姓也事舅
姑以孝承夫子以順
容光音徽不出閨闈
之間而世稱女士

余始生受養於夫人
如韓愈之於鄭嫂也
故知夫人甚詳弟前
任吏曹參議行恁述
而書時皇明永曆後
三己未仲秋

오호라. 나는 공을 섬기기를 아버지나 스승과
같이 섬겼는데 이제 둔석(窀穸)하는 일을 하매
흐르는 눈물을 참고 돌에 글을 새겨 장차 그 무
덤에 표석(表石)으로 삼으리라. 스스로 돌아 보
건데, 어떤 사람이 이처럼 명완(冥頑) 하다는 말
인가. 혹시 나의 말에 잘못이 있다면 오히려 모
두 법식에 약간 막힘이 있는 것일 뿐, 나에게
는 종천(終天)의 슬픔이노라.

묘의 오른쪽에는 부인 서씨(徐氏)를 합장하였다.
서씨는 달성의 대성(大姓)이다. 시부모를 섬기
는 데는 효로서 부자(夫子)를 계승하여 용광(容光)
이 순하였고, 아름다운 소리일지라도 규달(閨闈)
밖을 나오지 않아 세상에서는 여사(女史)라 칭
송 하였다.

나는 태어나면서 부터 부인에게 양육됨이 한유
(韓愈)가 정수(鄭嫂)에게 양육됨과 같아서 부인
을 아는것이 매우 상세하다. 동생 전임(前任),
이조참의(吏曹參議) 행임(行恁) 짓고 쓰다. 황명
(皇明) 영역(永曆)후 3기에(1799) 중추

이경장(李敬長) 墓碣

公諱敬長字欽仲系
延城府院君文康公
石亨之孫考諱渾成
均館司藝妣趙氏領
議政英茂之後以成
化壬寅生

公自幼篤學正德
己卯中司馬試嘉
靖甲午擢文科以勳
裔卽授成均館典籍
尋拜刑曹佐郎帶史
職遷禮曹陞戶曹正
郎

以書狀官帶御史啣
赴京還拜江原都事
由承文校勘遷司藝
出平海未瓜病辭以
延曙察訪入爲宗簿
僉正陞成均館司成

出宰青松府又以病
辭還由司成歷尙衣
司饗繕工軍器敦寧
五司正除承文院右
通禮儀轉遂躋堂上
階爲僉知中樞府事

공의 휘는 경장 자는 흠중(欽仲)이며 파계(派系)는 연성부원군 석형의 손이다. 고(考)의 휘는 혼(渾)이니 성균관 사예이며 비(妣)는 조씨로 영의정 영무(英茂)의 후예이다. 성화 임인년(1482)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 부터 학문에 독실하였으며 정덕 기묘년(1519)에 진사에 합격하고 가정 갑오년(1534)에 문과에 발탁 되었는데 훈신(勳臣)의 후예로 즉시 성균관 전적(典籍)을 배(拜)하고 다시 형조좌랑을 배하여 사관의 직무를 겸대(兼帶)하였다가 전직되어 호조좌랑이 되었다가 승차(陞差) 하였다.

또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어사(御史)의 직함을 가지고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강원도사(江原道事)를 배하고 승문원교감(承文院校勘)을 거쳐서 사예(司藝)에 이임(移任) 하였다가 외임으로 평해군수(平海郡守)에 임하였는데 과만이 되지 아니하여 병으로 사퇴하고 연서찰방(延曙察訪)으로 들어와서 종부시(宗簿寺) 검정(檢正)이 되었다가 성균관 사성으로 승차하고

청송부사로 부임 하였으나 역시 병으로 사임하고 돌아와서 성균사성(成均司成)으로 상의(尙衣), 사옹(司饗), 선공(繕工), 군기(軍器), 돈령(敦寧) 5사(五司)의 정(正)이 되고 승문원(承文院) 우통례(右通禮)를 배 하였다가 당상관으로 승차(陞資)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로 오위장(五衛將)을 겸하였더니 신유년(1561) 정침에서

兼五衛將辛酉七月
庚寅考終于正寢
享年八十是歲八月
己酉葬于龍仁縣東
文康公塋側甲坐庚
向之原

公天賦溫雅不喜浮
夸友兄弟撫子孫當
官治民各盡恩義恬
淡自持終始不懈有
壽有位報施不爽人
咸宜之

配順興安氏文成公
之裔有閨範先公沒
葬在司藝公塋右甲
坐庚向之原生男二
女二長巘再娶俱無
後次曰峻皆早逝

有女適縣監鄭純佑
長女婿監役李殷弼
有三男得待約有四
女長適崔光斗次適
李周衡次適金珩季
幼

次女婿別坐尹仁衡
有二女長適進士李
悠次適李世贊側室
五男曰崧崧岑崇崧

宋麒壽撰嘉靖四十
三年八月立

고종(考終)하니 득년은 80이었다. 이해 8월 기유
에 용인현 동쪽 문강공 영측(塋側) 갑좌경향지
원에 장사 하였다.

공은 천부적으로 온화하였고 지나침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형제에 우애하고 자손을 선도하여 관
에 임하고 백성을 다스림에는 은의(恩義)를 다
하였으며 염담(恬淡) 함으로써 처신의 근본으로
하여 시종근면(始終勤勉) 하였다. 또 작위(爵位)
도 있었고 수한(壽限)도 고령이었음에 모든 사
람이 칭송하였다.

배(配)는 순흥안씨이니 문성공의 후예로 규범
(閨範)이 있었더니 공보다 먼저 하세하여 사예
공 묘소 우측 갑좌경향(甲坐庚向) 지원(之原)에
장사하였는데 2남2녀를 낳으니 장남은 현(巘)으
로 재취(再娶)하였으나 후사가 없고 차남은 종
(峻)인데 조졸(早卒)하였다.

딸은 현감 정순우(鄭純佑)에게 출가하고 만사위
는 감역(監役) 정언필(鄭彦弼)로 삼남이 있으니
곧 득(得), 대(待), 작(約)이며 네 딸이 있었으니
장녀는 최광두(崔光斗) 차는 이주형(李周衡) 삼
녀는 김연(金衍)에게 출가 하였는데 계(季)는 어
리며

둘째 사위 별좌(別坐) 윤인형(允仁衡)이 딸 둘을
두었는데 장녀는 진사 이 유(李悠)에게 차녀는
이세빈(李世贊)에게 출가 하였다. 측실에서 얻은
아들 5남은 종(崧), 승(崧), 잠(岑), 중(崇), 룰
(崧)이다.

송기수(宋麒壽) 짓다. 가정 43년(1566) 8월 세운

이경증(李景曾) 神道碑

有明朝鮮國資憲大夫
 吏曹判書兼知
 經筵春秋館事五衛
 都摠府都摠管 世
 子左賓客李公神道
 碑銘 并書

大匡輔國崇錄大夫
 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傳安東 權尚
 夏撰

玄孫婿通政大夫弘
 文館副提學知製教
 兼 經筵參贊官春
 秋館修撰官坡平
 尹養厚書

崇錄大夫行刑曹判
 書兼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知成
 均館事 世孫左副
 賓客致仕奉朝賀宜
 寧 南有容 篆

仁祖盛際朝廷最多
 名公卿眉江李公其
 一也公以清裁雅量
 聲望藹蔚世固以公
 輔期之及其板蕩之

조선국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겸 지경연
 춘추관사 오위도총부 세자좌빈객 이공 신도비명
 병서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령 경연사감(經筵事監) 춘추관사(春秋館事) 세자
 부(世子傅) 안동(安東) 권상하(權尙夏) 짓고

현손서(玄孫婿) 통정대부(通政大夫) 홍문관(弘文
 館) 부제학(副提學) 지제교(知製教) 겸 경연(經
 筵) 참찬관(參贊官)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
 官) 파평(坡平) 윤양후(尹養厚) 쓰고

승록대부(崇錄大夫) 행(行) 형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藝文館) 대제학 지성균관사(知成
 均館事) 세손(世孫) 좌부빈객(左副賓客) 치사(致
 仕) 봉조하(奉朝賀) 의령(宜寧) 남유용(南有容)
 전액(篆額) 하다.

인조(仁祖) 성시(盛時)에 조정에는 이름난 공경
 (公卿)이 가장 많았으니 미강(眉江) 이공(李公)
 이 그 중의 한 분이다. 공은 사리에 밝아 재
 량이 있으시고 아량이 넓으신 분으로서 성망과
 덕망이 무성하여 세상 사람들은 진실로 나라일에

日宜力四方臨機應
變左右俱宜石室金
先生嘗比之於宋之
富鄭

公不幸險塗難盡主
眷不終經濟大手未
究厥施至今士大夫
尙論先朝人物未嘗
不嘖嘖概恨於公也

謹按公諱景曾字汝
省德水人遠祖高麗
中郎將敦守自是代
有大官至樂安伯千
善政堂文學仁範益
大顯又歷四世而有
節度使諱苑是公之
曾祖也祖諱元謹縣
令考諱通郡守贈領
議政

議政公出爲族父贈
參判諱麟祥之後參
判之考曰海豐君諱
菡也妣貞敬夫人文
化柳氏領議政堧之
女

보필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급기야 나라가
어리러워진 때를 당하여 힘을 사방에 펴고 임
기응변으로 잘 처리함으로써 좌우가 모두 잘되
었음에 석실(石室) 김상헌(金尙憲)은 일찍이 그
를 손나라의 부필(富弼) 정국공(鄭國公)에 비유
하였다.

그러나 공은 불행 하게도 험난한 길을 헤쳐 나
가기 어려웠고 주상(主上)은 끝까지 돌아보지
않으셔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해야 할 큰
인재가 시책을 펴는데 숨씨를 다하지 못하였으
니 오늘 날에도 사대부(士大夫)들이 선조(先朝)
의 인물을 혼할 적에 공에 대하여 사람마다 칭
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모두 그 불행을 한탄
하고 있는 것이다.

삼가 살피건대 공의 이름은 경증(景曾)이요 자는
여성(汝省)이며 덕수인(德水人)이다. 시조는 고
려조 중랑장을 지낸 돈수(敦守) 이시니 이로부터
대대로 큰 벼슬을 하신 분으로서 낙안백(樂安伯)
천선(千善: 五世祖), 정당문학 인범(仁範: 6세조)
같은 분은 더욱 뚜렷한 분이시고 다시 4세를 지
나서 절도사 휘(諱) 원(苑)은 바로 공의 증조가
된다. 조의 휘(諱)는 원근(元謹)으로 현령을 역임
했으며 부(父)의 휘(諱) 통(通)은 군수를 지냈고
후세 영의정으로 증직 되었다.

의정공(通)은 족부(族父)에게로 출계(出繼)하여
참판에 증직된 인상(麟羊)의 위를 이었다. 참판
공의 아버지는 해풍군으로 휘(諱)는 함(菡)이시
다. 모친은 정경부인으로 문화유씨인데 영의정
전(堧)의 따님이다.

公以萬曆乙未十一月二十九日降色粹氣和聰明邁等看書能十行俱下學於石洲權公權公亟稱曰宰相器也

十九舉進士時月沙李相公掌試得公試卷而曰此作大有貴相必非久困公車者會廢母之論起走歸鄉里杜門謝世仁祖反政以薦除齋郎不拜

甲子擢謁聖弟一名例拜典籍移正言禮兵二曹郎丙寅又拜正言時值啓運宮虞祭府院君李貴請上主祀公痛卞其謬適爲典籍又歷正言文學爲持平

丁卯建虜入寇上幸江都朝廷憂軍與不給差公督運御史移湖南粟時申文正

공은 만력(萬曆) 기미(1595)년 11월 29일 태어났는데 얼굴 빛이 맑고 기품이 온화하였으며 총명하기가 동류들 보다 뛰어 있었다. 책을 읽을 때에는 한꺼번에 열 줄을 읽었다. 석주(石洲:權鞮)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시었는데 권공(權公)이 자주 칭찬하기를 재상(宰相)이 될 그릇이라고 하였다.

19세 때에 진사에 올랐는데 그때 월사(月沙) 이상공(李相公:廷龜)이 시험을 관장하여 공의 시권(試卷)을 보고 말하기를 “이 글은 크게 귀상(貴相)이 있으니 오래지 않아 반드시 공거(公車:공용수레)가 고단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때마침 폐모론이 일어나자 향리에 돌아와 집에 은거하여 세상과의 인연을 끊었으며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재량(齊良:참봉)에 천거 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갑자년(1624)에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전례 대로 성균관 전적(典籍)을 제배하고 이어 정언으로 옮겼다가 예조, 병조의 낭관이 되었고 병인년(1626)에 다시 정언에 배수 되었는데 그때 마침 계운궁(啓運宮:인조의 어머니 인현왕후의 궁호)의 우제(虞祭)를 당하여 부원군이귀(李貴)가 임금에게 주사(主祀:제주 또는 主喪)가 될 것을 주청하자 공이 그 잘못을 들어 통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적으로 바뀌고 다시 정언을 거쳐 시강원 문학이 되었고 지평이 되었다.

정묘년(1627)에 건로(建虜:후금)가 쳐들어 와서 임금이 강화도로 피하여 옮기시었다. 조정은 군사(軍士)를 동원 하더라도 보급이 미치지 못함을 걱정하여 공을 독운어사(督運御史)로 파견하여 호남의 곡식을 운송케 하였다. 그때 문정공(文貞

公欽分朝在南見公
措劃大加歎賞

自是五六年間除命
頻繁兩司則持平獻
納司諫也春坊則司
書至輔德也王堂則
修撰至應教也

或三四拜或十餘拜
而其在玉堂最多間
爲司成宗簿正而常
帶三字銜又兼都體
察從事官其在修撰
也參判崔鳴吉論追
崇典禮請別立禰廟
公與同僚引經據義
上答嚴斥

中朝人劉興治自胡
中歸殺陳繼盛據椴
島廟堂議興師討之
公筭論其不可蓋以
爲興治此舉天朝若
已知之許令管領島
衆則便是天朝將官
徑先問罪後必有悔
人服其明見

公) 신흘(申欽)이 분조(分朝)로 인하여 남쪽에 있으면서 공이 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보고 크게 탄복하고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

이로부터 5~6년간 빈번하게 직책을 제수 받았으니 양사(兩司:사간원, 사헌부)에서는 지평(持平), 헌납(獻納), 사간(司諫)의 벼슬에 제수 되었고 춘방(春坊:시강원)에서는 사서(司書)를 거쳐 보덕(輔德)에 이르렀고 옥당(玉堂:홍문관)에서는 수찬(修撰)에서 응교(應教)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혹 서너 차례 임명 되거나 10여 차례 임명 되기도 하였는데, 옥당에 임명되기를 가장 많이 하였다. 간혹 사성(司成:성균관)이나 종부정(宗簿正:종친부)에 임명 되기도 하였지만 늘 삼자함(三字銜:세글자로 된 직책)을 띠고 있었다. 또 도체찰사의 종사관도 겸직 하였다. 수찬으로 있을 때 참관 최명길(崔鳴吉)이 추숭(追崇)하는 전례(典禮)를 논하고 별도로 이묘(禰廟:원종의 사당)를 세워 줄 것을 제청하자 공이 동료와 더불어 차자를 올려 경(經)을 인용하고 의(義)에 준거하여 엄중히 배척하였다.

중국 조정의 유흥치(劉興治)가 오랑캐(胡)로부터 돌아와 진계성(陳繼盛)을 죽이고 가도(椴島)에 웅거하자 조정에서는 군사를 일으켜 이를 토벌할 것을 의론 하였는데 공이 차자를 올려 그 불가함을 논하기를 “대체로 흥치의 이번 거사를 중국 조정에서 이미 알고 있어서 명나라가 가도 섬사람들을 그에게 관장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가 곧 명나라의 장관(將官)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레 먼저 유흥치에게 그 죄를 묻는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의 명견(明見)에 탄복 하였다.

校理時與館僚筭陳
八條敬天恤民納諫
用人崇儉敦宗進學
刑內也

請廣光海所居且送
舊宮人以娛餘年請
嫁娶仁城子女俾有
配耦此皆一時所諱
言也

又曰先朝王子有無
家者而 殿下先爲
大君營甲第此不幾
於不以封君之第而
封君之子乎末復以
喜怒之遇公私之辨
惓惓爲戎

上嘉納仍教曰玉堂
恥君不賢憂國將亡
凡寡人闕失生民利
病畢陳無隱予用嘉
歎各賜廐馬以表予
意上章辭 上引魏
鄭公賜金甕事不許

홍문관 교리(校理)에 있을 때 관료(館僚)와 더
붙어 8개 조항의 상소문을 올렸는데 경천(敬
天), 홀민(恤民), 납간(納諫), 용인(用人), 숭검
(崇儉), 둔종(敦宗), 진학(進學), 형내(刑內)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광해군이 살고 있는 거처를 넓
히고 또 옛 궁인(宮人)을 보내서 남은 여생을
즐겁게 하여 즐것과 인성군(仁城君: 선조의 일
곱째 아들) 자녀를 시집보내고 장가 들여서 짝
을 채워 주실 것을 간청 하였으니 이는 모두
가 한 때 말하기를 꺼려하였던 말들이었다.

또 아뢰기를 “선조(先朝)의 왕자 중에도 집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전하께서는 먼저 대군(大
君)을 위하여 크고 넓은 집을 지으시니 이것
이야 말로 <임금의 아우를 봉하지 않고 임금의
아들을 봉하였다>는 고사(故事)에 가깝지 않습
니까”하였고 끝으로 다시 희(喜), 노(怒)를 지
나치게 하므로써 허물이 되지 않도록 하실 것
과 공사의 분별을 분명히 하시도록 정성스럽게
아뢰었다.

상이 가상하다 하시고 이어 교서(敎書)를 내려
이르시되 “옥당(玉堂)이 임금의 어질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라가 장차 망할까 걱정하여
과인의 잘못과 백성을 살리고 나라의 병폐에 이
로운 것들을 숨김없이 모두 진술하였으니, 내가
가상히 여겨 감탄하는 바이다. 각기 구마(廐馬)
를 하사하여 나의 뜻을 표하노라” 하시었다. 이
에 상소문을 올려 사양하니 상께서 위(魏)나라
정공(鄭公)이 황금항아리(金甕)를 내려도 사양치
않았다는 고사를 인용 하시면서 허락치 아니 하
시었다.

公屢擬銓郎未受天
點薦拜檢詳陞舍人
爲養乞郡拜清州牧
使清淨守法一境誦
之 仁烈王后昇遐
以應教兼山陵都監
都廳事竣陞通政爲
僉知

丙子虜難車駕蒼黃
衛士多道亡公以兵
房承旨親自號召扈
入南漢

常在左右周族盡力
至如上下扈駕人姓
名無不心識之

上嘗夜急召問圍城
中人士凡幾何諸將
標下兵守堞者又各
幾何公一一歷舉無
所遺漏

又言某將標下幾人
殺賊幾人被殺亦皆
詳悉 上傾聽焉泊
媾成虜索天朝所賜
金寶公請勿許曰祖

공이 누차 전랑에 의망(擬望) 되었으나 임금의 낙
점(落點)을 받지 못하였고 의정부 검상(檢詳)으로
추천 임명 되었다가 사인(舍人)으로 승차 하였다.
이어 부모님을 봉양 하기 위하여 수령으로 나아갈
것을 주청하여 청주목사(淸州牧使)로 나갔는데 맑
고 깨끗하게 법을 지켜서 고을 일대가 모두 칭송
하였다. 인렬왕후(仁烈王后)가 승하 하시매 홍문
관(弘文館) 응교(應教)로 산릉도감(山陵都監) 도청
사(都廳事)를 겸직하면서 일을 마치게 되니 이로
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고 첨지(僉知)
가 되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거가가 창황(蒼黃)중에 있
었고 위사(衛士: 호위장교)들이 여러 갈래로 도
망치니 공이 병방 승지로서 스스로 나서서 호종
(扈從)할 사람들을 불러모아 남한산성으로 드시
게 하였다.

항상 좌우에 모시고 매사를 주선하는데 힘을
다하였으니 거가(車駕)를 호종해온 상하(上下)
인의 성명까지도 마음속에 새겨 두지 않은 자
가 없었다.

상이 때로는 밤중에라도 급히 불러들여 문기
를 성안에 들어와 있는 인사가 대개 몇명이나
되며, 여러 장수 밑에서 담첩을 시키는 병사가
각기 또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때
마다 일일이 열거하여 말씀드린 것이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또 아뢰기를 어느 장수 휘하의 몇사람이 적 얼
마를 죽였으며, 또 전사자에 대하여도 모두 상
세하게 아뢰니 상이 귀를 기우리고 들으셨다.
강화(講和)가 이루어져서 오랑캐(청나라)가 명나
라 조정에서 내려준 금보(金寶: 금으로 된 인장)
를 찾게 되자 공이 허락치 말도록 아뢰기를 “조

宗三百年傳來之寶
輸與虜人將何以有
辭於天下後世耶

上還都進嘉善陞都
承旨俄拜兵曹參判
兼管備局有司又兼
軍功廳堂上查入城
將士功罪已而拜大
司諫時僞勅初頒僮
接難其人 上意屬
公遂遣之虜使恐喝
萬端溪壑難允公一
切峻拒雖極煎迫不
少攝焉其可許者快
從之無難色虜亦敬
憚不敢以無禮加之

戊寅領南狀報倭僞
聲言女眞寇深朝鮮
勢窮我以睦隣之義
欲悉賊助擊於是朝
野震盪

上召諸宰曰北事未
定南憂又如此計將
安出仍顧謂公曰以

중 3백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천하 수세에 뭐라
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께서 환도하신 뒤에 가선대부의 품계에 오르고 도승지로 승차 하였다. 곧 이어서 병조 참판에 임명 되었고 비국유사(備局有司)와 군공청당상(軍功廳堂上)을 겸관하게 되어 성중(城中)에 들어와 있던 장사(將士)들의 공과를 심사 하였다. 얼마 있다가 대사간에 배수되었는데 그 위칙(僞勅: 청나라를 황제의 존호를 쓰도록 강요하고 군신(君臣)의 관계를 맺여온 후 그들의 문서를 황제의 “칙서”라 하여 보내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처음으로 반포되자 빈접사(賓接使)로 보낼 적임자를 얻기가 어려웠다. 상의 뜻에 따라 마침내 공을 그들에게 파견 하였는데 일체를 준엄하게 거절하였고 아무리 극도로 절박한 협박이라도 조금치도 겁내지 않으시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가히 허락할만 한 것이라면 어려운 빛이 없이 쾌히 승락 하였으므로 그들도 역시 공경하고 두렵게 여겨 감히 무례한 짓을 덧붙이지 못하였다.

무인년(1638)에 영남에서 장계가 올라왔는데 왜의 추장이 공공연히 떠들어 말하기를 “여진족(청을 세운 만주족)의 침구가 막심하여 조선의 형편이 궁하니 우리가 인목지의(隣睦之義)로 조선을 도와서 물자를 대고 그들을 격퇴코자 한다”고 하였으므로 우리 조야(朝野)가 몹시 혼들리고 들끓고 있었다.

상께서 여러 재신(宰臣)을 불러 이르시되 “북쪽의 일이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는데 남쪽의 걱정이 이와 같으니 나라를 안정케 할 대책을 세우라”

卿爲嶺南伯宜相機
應變無俾生衅及陞
辭上問曰卿度南事
何如公對曰島夷多
狡是不過誇詡計不
足深慮也遂直至釜
山招館倭責之曰交
隣之道誠信而已我
無請援而謂欲助兵
其意安在其以是歸
語關伯館倭語窮而
去南警遂熄

翌年遶拜同知敦寧
上引見詢叩民瘼公
條列以陳且薦篤孝
士數人尋爲都承旨
又以遠接使往來龍
灣

虜使到弘齋院脅我
以難從曰不如是不
入王都公招胡譯語
之曰似此非禮爾不
當言於我我不敢聞
于朝雖重被兵禍不
可從也凝然不撓虜
使遂入

하시었다. 부임차 하직 인사를 올릴때 상께서
묻되 “경은 남쪽일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묻자 공이 대답하기를 섬나라 오랑캐(島夷)는
본시 교활하기 이룰데 없어 이번일도 큰소리치
고 허풍을 떠는데서 나온 술수에 지나지 않으니
심려할 것이 못됩니다”라고 아뢰었다. 즉시 부
산에 이르러 관왜(館倭)를 불러 책망하여 꾸짖
되 “교린지도(交隣之道)는 오직 성실과 신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원조를 청한 일도
없는데 우리는 병력으로 돕겠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어디 있는가? 이뜻을 돌아가 관백(關伯)에
게 말하라”하니 왜관의 왜인들이 말이 궁하여
물러가게 되어서 남쪽의 경계도 마침내 가라앉
게 되었다.

다음 해에 동지돈령(同知敦寧)에 체배되어서 상
이 인견하는 자리에서 백성들이 병들고 고생하
는 실상을 자상히 물으시니 공이 조목으로 열
거하여 아뢰고 또 독실한 효자 몇사람을 천거
하였다. 얼마 있다가 도승지(都承旨)로 임명되
고 다시 원접사가 되어 용만(龍灣)으로 왕래케
되었다.

청나라 사신이 홍제원에 이르러 그들의 요구를
따르기가 어렵다고 하자 협박하여 말하기를 “이
러이러 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도에 들
어갈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니 공이 오랑
캐의 역관을 불러 이르되 “너희들이 이와같이
예가 아닌 것으로 부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한다
면 나도 감히 조정에 아뢰 수가 없다. 우리가
비록 병화(兵禍)를 거둬들지라도 따를 수가 없
다” 하고 의연하게 꺾이지 않으니 그들도 할 수
없이 입경하게 되었다.

上特賜廐馬以勞之
復拜都承旨歷兵曹
參判大司諫漢城左
尹庚辰歲饑以賑恤
堂上濟活飢民無筭
特拜兵曹判書且兼
槐院惠局

明年由知樞拜禮曹
判書兼摠管經筵春
秋賓客壬午宣川府
使李娃持本國機密
潛告於虜龍胡率三
將到鳳城急招大臣
備局宰臣

元公斗杓當行 上
曰非李某莫可其代
斗杓行且諭公曰國
有大事卿獨賢勞予
甚念之對曰恩深義
重湯火所不辭 上
爲之動容

遂倍日兼行至虜營
虜盛兵威引諸宰于
庭以娃言詰之列書
所對送于瀋陽仍拘
囚三月

상께서 특별히 구마(廐馬)를 하나 하시어 그 노
고를 위로 하시었다. 도승지에 다시 임명되었고
병조참판과 대사간을 거쳐 한성부 좌윤(左尹)이
되었다. 경진년(庚辰年:1640)에 흉년이 들자 진
홀당상(賑恤堂上)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
였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특별히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임명되어 괴원(槐院: 승문원)
과 혜국(惠局)의 일을 겸임하였다.

다음 해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거쳐서 예
조판서에 임명되었는데 총관(摠管)과 경연(經筵)
춘추관(春秋館) 빈객(賓客)을 겸하였다. 임오년
(1624)에 선천부사 이계(李娃)가 우리나라 기밀을
가지고 청나라에 고하니 용호(龍胡: 용골대)가 세
장수를 거느리고 봉성(鳳城: 의주)에 도착하여 대
신과 비국재신(備局宰臣)을 급히 불러들였다.

이때 원두표(元斗杓)공이 당연히 가야할 일이였
으나 상께서 이르시기를 이모(李某)가 아니면
그를 대신할 수가 없다” 하시고 떠나기에 앞서
또 공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경이 홀로 특별히
수고가 많으니 내가 이를 심히 염려하는 바이
다”라고 하시니 대답하여 아뢰기를 “임금의 은
혜가 깊고 의(義)는 막중하여 뜨거운 불이나 끓
는 물이라도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마침내 하루 길을 배나 빨리가서 청나라 병영에
이르렀다. 청(淸)이 서병(盛兵)으로 위엄을 갖추
고 여러 제신(諸臣)을 뜰로 인도하여 이계(李娃)
가 밀고한 내용으로 힐책하며 대질(對質)한 것
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양으로 보내더니 놀러
서 3개월 동안이나 가두었다.

已而虜以五千金爲
注使在囚諸宰署於
券公掉臂却之同坐
宰臣慮桃禍目攝之
公曰吾曹死王事職
耳此路一開國何以
支虜大怒咆喝終不
屈無何遣歸

關西至今傳亂初三
快事金文正公赴瀋
時折罵鄭虜不啻如
僕隸閔公聖徽杖殺
鄭虜所愛小譚及公
此事云

既復命拜吏曹判書
公上疏辭答曰卿之
才器允合此任盡心
量衡勿使君子在野

公首以同春尤菴二
宋先生薦擬臺憲久
之遙拜禮判又爲遠
接使赴龍灣竣還以

이윽고 청이 5천금(五千金)을 불히도록 문권(文卷)을 만들어서 간혀있는 여러 재신에게 서명을 가용하는 것을 공이 팔을 뿌리치고 이를 물리치니 한 자리에 있던 재신들이 그들의 화(禍)를 돌굴가 걱정이 되어 눈을 부릅뜨며 눈짓을 하였다. 그러나 공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죽더라도 이것은 임금을 섬기는 직분일 뿐이다. 이러한 길을 한번 열어주면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지탱 하겠는가?” 하였다. 그들이 대노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협박했지만 끝내 굴하지 아니하였더니 얼마 있다가 돌려 보내 주었다.

지금 관서지방(마천령 서쪽, 곧 평안남북도 지방)에 정축난(병자호란 다음해)초에 세가지 쾌(快)한 사건으로 전해오는 것이 있으니 그 하나는 김문정공(金文正公: 석실 김상헌)이 심양에 붙잡혀 갔을 때 정노(鄭虜: 鄭命壽)를 종이나 다름없이 크게 꾸짖어서 기를 꺾어 놓은 일이고 두번째는 민성휘(閔聖徽) 공이 정로(鄭虜)가 아끼던 어린 통역을 장살(杖殺)한 것을 말하며 셋째는 공의 이번 처사를 말함이었다.

돌아와 복명을 하고나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배(拜)하였으나 공이 상소를 올려 사양하자 임금께서 비답(批答)하시기를 “경의 재우와 기량이 직임(職任)을 맡기에 합당하니 진심으로 잘 생각해서 군자가 야(野)에 묻혀 있지 않도록 하라” 하시었다.

공이 부임하고 나서 첫번째로 동춘(同春: 宋浚吉)과 우암(尤菴: 宋時烈) 두 송선생을 대헌(臺憲: 사간원, 사헌부)에 천거하였다. 오래 있다가 예조판서로 바뀌었고 또 다시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용만(龍灣: 의주)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돌

病乞解 上勉諭遣
內醫看病

甲申兩銓缺長官台
席又虛公一日三擬
而爲吏判 上謂大
臣曰李某德望宜任
經綸而若置相職將
不免瀋行聞其老母
莫保朝夕予不忍母
子相離已而乞暇省
墓命給馬

一日公登筵席副提
學俞伯曾面斥公壬
午銓時驟擬一蔭職
謂之受賂

上以問公公略卞其
誣而不與之較退而
移疾

伯曾又劄論公爲縱
恣仍斥兩司之不舉
劾兩司之避皆曰李
某此事所未曾聞又
曰誠爲不近只諭公

아와서는 병으로 해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상께서 치료에 힘쓰도록 유의하시고 내의(內醫)
를 파견하여 간병토록 하시었다.

갑신년(1644)에 양전(兩銓: 이조와 병조)의 관장
이 비었고 또 의정(議政)의 자리도 비었는데 공
이 하루 세번의 의망(擬望: 후보자)에 올라서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임명되었다. 상께서 대신
에게 말씀하시되 이 아무개(경증을 지칭함)는
그 덕망이 경륜(經綸: 재상) 자리를 맡기는 것
이 마땅한 것이나, 만약 재상자리에 앉힌다면
앞으로 심양길을 면하기 어려운데 듣기에 그의
노모(老母)가 조석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하니
모자가 서로 이별하는 것은 내가 차마 참기가
어려운 일이다” 하시었다. 얼마 있다가 성묘를
하기 위하여 휴가를 청하였더니 말을 내주라고
명하시었다.

하루는 공이 등청하여 경연 자리에 참석하였는
데, 부제학(副提學) 유백증(俞伯曾)이 공의 면전
에서 공이 임오년(인조 20년 1642)에 이조판서
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음직(蔭職)에 있었던 사
람을 갑자기 추천하여 소위 뇌물을 받았다는 것
으로 공박하였다.

상께서 공에게 경위를 물으시매, 공은 무고(誣
告)임을 간략하게 밝히고는 상대를 하지 아니하
고 물러나와 병을 핑계하여 사직 하였다.

유백증은 공이 방자하다고 또다시 차자를 올려
논척(論斥)하였고 나아가서는 양사(兩司: 사헌
부, 사간원)가 모두 그것을 들어 탄핵하지 않았
음을 공박하자 양사(兩司)가 함께 인피(引避:
탄핵하는 것을 피하고 공동책임을 지는 것)하면
서 말하기를 “이 아무개의 이번 일은 일찌기 듣

偃然呈辭而請適上
曰呈辭何罪勿適

俄以大臣言命罷推
以觀緘辭洪茂績爲
憲長右伯曾又舉公
差除數人爲言請削
黜削卜而其所指者
皆諸名公所尉薦也
洪相國瑞鳳疏陳其
薦引事而引咎

上答臺啓曰勿爲已
甚之論且以左相筭
觀之可知風聞之不
實也承旨申敏一疏
言茂績徑請加律使
不得緘答是操切也
徐左相景雨對 上
之問亦白公冤狀後
因茂績引避玉堂以
失實論適

同朝如李相國景奭
尹尙書順之洪都尉
桂元諸公皆以爲出
於修郤之著之文字

지도 못한 일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이 일은 진실로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라고 하
였고 다만 공이 서슴없이 사직서를 올린것에 대
해서만 논하고 체직(適職)을 요청하며, 상계서
말하기를 “사직서를 올린것이 무슨 죄인가? 체
직하지 말라”고 하시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대신의 말을 들어 파직을
명하고 그의 함사(緘辭: 직무상의 과실)를 본 후
에 추고(推考)하라고 하시었다. 홍무적(洪茂績)
이 대사헌 자리에 오르자 유백증의 편이 되어
다시 거론하기를 공이 두어 사람을 벼슬에 임명
한 것을 문제 삼아 삭출(削黜) 삭복(削卜)하라고
주청하니, 그 지목하는 사람들이 모두 명공(名
公)들이 추천한 사람들이었다. 상국(相國) 홍서
봉(洪瑞鳳)이 그 추천한 일로 인하여 소(疏)를
올려 경위를 밝히고 인책하였다.

상계서 대개(臺啓)에 답하여 이르되, “너무 심한
논죄는 하지 말라” 하시고 또 “좌상(左相)의 차
자를 보니 가히 풍문에 지나지 않는 부실한 것
이라는 것을 알겠다”고 하시었다. 승지(承旨) 신
민일(申敏一)이 상소한 말 가운데에도 홍무적
(洪茂績)이 “앞질러 형벌을 더하기를 청하여 그
로 하여금 함답(緘答)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람을 꼼짝 못하게 억누르는 처사”라고 하였
다. 좌상(左相) 서경우(徐景雨)도 역시 상(上)의
물음에 대하여 공의 억울한 실상을 사뢰였으며
나중에는 홍무적으로 인하여 인피(引避)하였고
옥당(玉堂)도 실상에서 벗어난 논의를 했다하여
체직되었다.

당시 영상(領相), 상국(相國), 이경석(李景奭), 상
서(尙書) 윤순지(尹順之), 부마도위(洪柱元: 선조
의 사위) 같은 분들도 모두가 없는 허물을 꾸며
만든 유언비어(修郤至著之文字)라 하였다. 후에

後公之胤嵇入翰苑
窺石室之藏其所記
載一如三公之言公
議於是乎可見彼一
時之誣奚啻窃脂之
於穀也

乙酉 上以監役趙
珉老不任事特推公
誤舉及照勸命除贖
決杖諫官曰某重臣
名入金甌不可辱上
怒命除杖遠竄憲府
又爭之竟付處海州
踰月蒙宥西叙

丙戌秋以知樞掌試
時兩所試題俱觸時
諱 上命削黜兩所
主試官卽公及澤堂
李公植也公屏跡江
郊絕口時事丁亥大
夫人下世公執喪盡
禮病至篤子弟請從
薑桂而亦不許以

공의 아들 혜(嵇)가 한원(翰苑: 예문관)에 들어
갔을 때 석실(石室: 김상헌)의 장서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삼공
(三公)의 말과 한결 같았던 것이었다. 그런 공의
(公議)가 이때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저지른 한
때의 모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 어찌
공새가 곡식에 해를 끼치는 것 뿐이겠는가?

을유년(1645)에 상감께서 감역(監役)으로 있는 조
민(趙珉)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특별히 잘
못 천거한 공에 대하여 죄목을 대조하여 속(贖)
바침 없이 장형(杖刑)을 집행하도록 명을 내렸다.
이에 간관(諫官)이 아뢰기를 “아무개 중신(이경
중)은 그 이름이 금구(金甌: 재상의 반열에 있다
는 뜻)에 실린 분이니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상이 노하여 장(杖)은 면하고 먼곳으
로 부처(付處)토록 명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
서 또 다시쟁론하여 마침내 해주로 부처(付處)
되었는데 달을 넘겨서 죄가 풀리고 서반직(중추
원)에 임용되었다.

병술년(인조 24) 가을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
事)로서 과시(科擧)를 관장하였는데 그때에 두
곳의 시제(試題)가 모두 당시 숨기던 일에 저
촉되었으므로 상이 양소의 주시관(主試官)을
삭출(削黜)하라 명하였으니 주시관은 바로 공
과 택당(澤堂: 李植) 공이었다. 공은 강교(江
郊)로 몸을 감추고 자취를 들어내지 아니하였
으며 시사(時事)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였다.
정해년(인조 25)에 대부인(大夫人)이 돌아가셨으
므로 공은 상을 치르는데 예를 극진히 하였고,
병이 들어 위중해지시매 자제들이 강계(薑桂:
탕약)를 드시도록 간청하였으나 이 또한 허락치
않았다.

崇禎戊子五月十七日終 孝廟登極筵臣請復官爵 上驚曰尚在罪籍乎亟允之

公天姿秀曠器度深遠身不設暴漫之容口不出鄙俚之談風流篤厚和氣盟然人一見知其爲長德偉人

平生體國夷險不渝竭其誠力死生以之尤長於聽政雖衆務雲委而游刃恢恢至臨大事斷大疑則沛然若決江河無甚經意而終必鑿鑿中窾直所謂著蔡之明見盤錯之利器也

性不喜交遊公退則常在大夫人側察其溫清視其飲啖時作老菜之戲以博歡笑時大夫人年近百歲

승정 무자년(1648) 5월 17일 마침내 생을 마치시었다. 효종께서 등극하자(1650) 경연에 참여한 대신들이 관작(官爵)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아뢰었더니 상이 놀라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직도 죄적(罪籍)에 남아 있느냐” 하시고 즉시 윤허하시었다.

공은 천성과 자질이 뛰어나고 넓으시며 재기(才氣)와 도량이 깊고 원대하였으며 몸가짐은 거칠고 거만스런 모습을 띠지 아니하였고 입으로 비속하고 상스러운 말을 담지 않았으며, 풍류가 독실하고 두터우며 화기가 넘쳐 흘러서 일견 그 사람됨이 덕망이 높은 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생을 두고 나라가 순탄할 때나 험란한 때에 몸소 부딪쳐서 그 정성을 다함에 변함이 없었고 사력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았다. 정무를 보는데 있어서는 더욱 뛰어나서 많은 업무가 구름 같이 쌓이더라도 칼을 휘두르듯이 막힘없이 처결 하였다. 대사에 임하여 크게 의심나는 것도 결단을 내릴적에는 마치 강하의 물고를 트는것처럼 시원스러워서 크게 마음쓰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마침내는 반드시 중심을 꿰뚫었으니 이른바 시채(著蔡)로 점괘를 집어내는 명견(明見)과 예리하게 가르는 반착(盤錯)의 이기(利器)와도 같았다.

성정(性情)은 친구와 사귀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공무(公務)에서 물러 나오면 항상 대부인(大夫人)을 곁에 모시면서 조석으로 그 잠자리를 살피고 음식과 가래(飲啖)를 눈여겨 보았다. 때로는 노래지희(老來之戲)를 만들어 여럿이 웃음으로 즐겁게 해 드렸으니 그때에 대분인의 연세가 백세에 가까웠다.

兄弟并列華要子孫
蕃昌簪組盈門每遇
佳辰令節杯觴競進
歌頌迭作福慶之盛
世皆歆艷

家政一委之闔內不
問有無周恤親戚先
從孤窮者如或率養
而衣食之待人以誠
無間親踈晚喜讀戴
記朱文等書嘗曰吾
早年登科奔忙職務
未暇從事於斯到老
只益戲悔

詩與筆亦皆精絕而
爲大者所掩不著鳴
呼以公之忠信明達
兼之以幹局置之於
春秋之世當不失爲
賢大夫而位不滿德
齋志泉下惜也士之
不遇者已矣若公荷
聖祖特達之知而猶
且如此莫是時運所
關歟

형제가 나란히 빛나는 요직에 있었으며 자손이 번창하여 높은 벼슬아치가 문전에 가득 하였고, 경사스런 잔칫날이나 좋은 명절을 만나면 술잔을 다투어 올리고 노래와 송축을 번갈아 올리니 복과 경사가 넘쳐흐름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 하였다.

집을 다스리는 일은 일체 안사람에게 맡겨두고 그 있고 없고를 묻지 않았으며 두루 도와 주었으니 친척을 먼저하고 의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도 이에 따랐는데 때로는 데려다가 키우면서 먹이고 입혀 주었다. 이와같이 사람을 대접하는 데에는 정성으로 하여 친소(親疏)를 가리지 않았다 만년에는 대기(戴記)와 주자의 글을 즐겨 읽었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일찍 젊은 나이에 과거에 올라 직무에 분망하다 보니 일에 쫓기여 틈을 내지 못한 채 이에 이르러 이미 늙어서 오직 참회가 더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시(詩)와 글씨가 다같이 정미하고 뛰어났으나 큰것에 가린바가 되어 그것이 밖으로 잘 들어나지 못하였다. 오호라! 공은 충성과 신의(信義)를 갖추고 총명하여 사리에 통달하면서 재주와 도량을 겸하였으니 춘추(春秋)와 같은 세상에서도 마땅히 어진 대부(賢大夫)의 위치를 잃지 않았을 터인데 위(位)는 덕(德)에 차지 못하여 뜻을 안은 채 생을 마쳤으니 아깝도다! 선비가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하도다. 공 같은 경우는 성상(聖上)의 특별한 지우(知遇)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또한 이와 같았으니, 이것 또한 시운(時運)의 소관이 아니겠는가!

公嘗曰范忠宣之遭
貶怡然呂參政之不
問毀者吾其庶幾觀
於此亦可以知公矣

夫人 先祖大王之
孫順和君珪之女知
經史通大義奉君子
無違志教諸子御家
衆皆有法度

順和祀絕夫人上言
于 孝廟以海安君
億爲後盡歸其田民
一無所取此視薛侍
中之所行又有難焉
聞者歎服

公始葬廣州後與夫
人合窆于龍仁德洞
其原向離舉三男穉
正郎稹縣令嵇大司
諫二女適參議洪柱
國府院君閔維重

正郎男喜重喜東婿
安相泰縣令男喜裁
喜開婿金震圭進士
大諫南喜濡喜聘判

공은 일찍이 말하기를 “범충선(范忠宣)이 좌천
을 당하고 이연(怡然)하였고 여참정(呂參政)은
자기를 헐뜯는 자를 불문에 붙였다 하더니 나
도 그와같은 것을 바라는 바이다”라고 하였으
니 이를 두고 볼 때 역시 공의 인품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부인은 선조대왕의 손녀이고 순화군(順和君)
보(珪)의 따님이신데, 경전(經典)과 사서(史書)
를 익히 알고 그 대의(大義)에 통달하였으며
남편(君子)를 반드시 데에 있어 뜻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며 여러 아들을 가르치고 식솔들
을 거느리는 데 있어서도 모두가 다 법도가
있었다.

순화군의 후사가 끊기때 부인이 효종에게 아
뢰어 해안군(海安君) 억(億)으로 뒤를 잇게 하
였는데, 이 때 그 전택(田宅)과 백성을 모두
돌려주고 어느 하나라도 취한 바가 없었다. 이
로써 볼 때 일찍이 설시중(薛侍中)의 소행과
같은 것이 또 있기가 어렵다 하겠으니 듣는
자가 모두 탄복하였다.

공은 처음에 광주(廣州: 지금의 성남시 고등
동)에 장사를 모시었으나 후에 부인과 함께 용
인 덕동(기흥읍 영덕리 덕골)에 합장하였는데
그 언덕은 남향이다. 아들 셋을 두었는데 치
(穉)는 정랑(正郎)이며 진(稹)은 현령이고 혜
(嵇)는 대사간(大司諫)이다. 두 딸은 참의(參
議) 홍주국(洪柱國)과 부원군(府院君) 민유중
(閔維重)에게 시집 보냈다.

정랑의 아들은 희중(喜重), 희동(喜東)이고 사위는
안상태(安相泰)이며 현령의 아들은 희재(喜裁), 희
개(喜開)이고 사위는 진사 김진규(金鎭圭)이다. 대
사간의 아들은 희유(喜濡)이고 판관(判官)인 희담
(喜聘), 희남(喜楠), 좌랑인 희함(喜涵), 희렴(喜濂)

官喜楠喜涵佐郎喜
 濂婿趙泰一應教趙
 斗彬縣監參議男萬
 選牧使萬迪持平婿
 李涑郡守沈冲金濡
 進士趙正萬府使鄭
 壽崐都事沈鳳輝監
 役內外曾玄摠若干
 余生晚未及一瞻公
 顏色然猥從先輩長
 者窃聽其風猷志節
 矣後從大諫公游又
 與牧使公有莫逆契
 益聞其所不聞矣今
 牧使公以諸從之意
 乞銘謹撫其家乘叙
 次如右系之以銘曰

邦運中興俊彥彙征

翼翼眉翁大振厥聲

正色明庭平步雲衢

諤諤昌言寵錫天駒

圍城效勞益著忠節

釋難排患動中機括

이 있고 사위로 응교(應敎) 조태일(趙泰一)과 현감 조두빈(趙斗彬)이 있다. 참의공(洪柱國)의 아들은 목사인 만선(萬選), 지평(持平)인 만적(萬迪)을 두었고 사위로는 도사(都事), 정수곤(鄭壽崐), 감역 심봉휘(沈鳳輝) 등 내외증손 현손이 모두 약간 명이다.

내가 늦게 태어나서 공을 한번도 뵈는 일 없으나 외람되이 선배, 어른으로 부터 그 풍도와 지모, 그리고 지조와 절개에 대해서 은연중 들은바가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대사간 공을 따라 교류하고 또 목사공(미강의 외손자)과 막역한 사이의 계(契)로 인하여 내가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되어서 더욱 유익하였다. 이제 목사공이 여러 친족들의 뜻을 모아 명(銘)을 써줄 것을 요청하매 삼가 그 가승(家乘)을 주어 모아 위와같이 지었으며 다음과 같이 명(銘)으로 이어 놓는다.

나라 운세가 중흥을 맞아 준수한 선비가 무리지어 나오니

바르고 엄한 미강옹(眉江翁) 그 성망을 크게 떨치시었다.

엄정한 낮빛으로 조정을 밝히고 보통 거름으로 높은 벼슬 오르셨네

두려움 떨치고 도리에 맞는 말 올리니 천구(天駒)를 하사받은 영예를 안으셨고

포위된 산성에 공로가 나타나 더욱더 충절함이 드러 나셨다.

난국과 외환을 물리쳐 활동할 때에는 기회를 적중 시켰도다.

北庭所守賁育莫奪

북쪽 의주 뜰에서 절의를 지킨것은 분육(賁育 :
맹분과 하육) 같은 용사라도 빼앗기 어려웠네

上用嘉乃一埤遺我

나랏님 가상히 여겨 중용을 하시고 더욱 많은
정사(政事)를 맡기셨도다.

緩急皆須內外俱可

완급을 가린 처사는 모두 바랐던 바라 안팎이
모두 옳았다 하였네.

朝暮爰立方勤注意

아침 저녁 벼슬자리 바뀌었는데 흐트러짐 없이
부지런히 근무했으나

事乃大謬謂車載鬼

차호라 일이 크게 잘못 너그러져서 수레에 마귀
가 실렸네.

直筆在史公議已申

곧은 붓대 역사에 바로잡아 공론은 그 억울함을
이미 폄도다.

皇天不憫朝野悽呻

황천도 홀륭한 사람 남겨두지 않았으니 조야가
슬피하고 한탄을 하네.

胡不大受奪之斯疾

어찌서 크게 쓰여지지 못하였는데 이리도 빨리
빼앗아 갔는가?

德岵峨峨閱此英哲

덕곤 멧뿌리는 그 덕이 높아서 영철 한신 분 여
기에 장례를 모시었다.

我鑄貞珉百世不沐

내 빗돌에 글을 새기니 세세토록 그 침이 없어라.

崇禎紀元後三甲午

숭정기원후 삼갑오(영조 50, 1744) 월 일 세우다.

月 日 立

추록(追錄)

喜重一女適朴泰翰
喜重未及立後而肅
宗己卯筵臣以府君
名卿不可無宗祀陳
白以喜東主祀

희중(喜重)은 딸 하나를 두어 박태한(朴泰翰)에
게 출가 시켰을 뿐 후사(後嗣)를 세우지 못하였
는데 숙종 기묘년(1699)에 연신(筵臣)이 부군(이
경중)은 명경(名卿)이신데 종사(宗祀)기 없다는
것은 불가하오니 아우인 희동(喜東)으로 주사
(主祀)를 삼도록 아뢰었다.

喜東又無嗣取再從子現爲後一女適申咏現三男安鎮寧鎮寓鎮安鎮二男濡瀟寧鎮一男浩卽正郎派也

喜栽無嗣取再從子擇爲後擇三男德鎮聖鎮萬鎮德鎮一男洙洙一男行彬聖鎮三男濟濤溥濟一男覺彬濤一男道彬萬鎮二男源澆進士澆一男爲彬

喜開三男埴城坳埴取城子良鎮爲後良鎮二男沃濂城二男良鎮出後埴宜鎮宜鎮二男澹泌坳之男宗鎮寅鎮宥鎮宓鎮弘鎮宜鎮卽縣令派也

喜濡無嗣取仲弟子垵爲後垵佐郎二男憲鎮前牧使成鎮出後仲父埴

희동이 또한 무사(無嗣)하여 재종의 아들 현(現)을 들여 뒤를 잇게 하였고, 딸은 신영(申咏)에게로 여의었다. 현(現)은 3남을 두었으니 안진(安鎮), 영진(寧鎮), 우진(寓鎮)이며 안진은 2남이 있어 유(濡)와 숙(瀟)이 그들이고 영진은 아들 호(浩)를 두었으니 곧 정랑파(正郎派)이다.

희재(喜栽: 들재 집)도 후사가 없어 재종의 아들 택(擇)을 들였고, 택은 3남을 두었는데 덕진(德鎮), 성진(聖鎮), 만진(萬鎮)이 그들이다. 덕진은 1남 수(洙)를 수는 행빈(行彬)을 두었으며 성진은 삼남을 두었는데 제(濟), 도(濤), 박(溥)이고, 제는 아들 각빈(覺彬)을 도는 아들 도빈(道彬)을 두었으며 만진은 2남을 두었는데 원(源)과 진사 량(澆)이며 량은 위빈(爲彬)을 두었다.

희개(喜開)는 3남을 두었는데 벽(埴), 척(土城) 각(坳)으로 벽은 척의 아들 양진(良鎮)을 후사로 들였으며 양진은 두 아들 옥(沃)과 염(濂)을 두었고 척도 두 아들을 두었는데 출계하여 벽(埴)의 뒤를 이은 양진과 의진(宜鎮)으로 의진의 두 아들은 담(澹)과 심(沁)이다. 각(坳)은 6남을 두었으니 종진(宗鎮), 인진(寅鎮), 유진(宥鎮), 복진(宓鎮), 홍진(弘鎮), 선진(宣鎮)으로 이들이 즉 현령파(縣令派)이다.

희유(喜濡)는 후사가 없어 조카 완(垵)으로 후사를 들였는데 좌랑(左郎) 완은 2남을 두었으니 목사를 지낸 헌진(憲鎮)과 성진(成鎮)인데 성진은 숙부 식(埴)에게 출계 하였다.

喜聘官止牧使三男
三女男垸出後伯父
埴牧使綉前府使女
適承旨宋教明參判
趙載洪鄭志淑埴無
嗣取成鎮爲後成鎮
前府使

綉三男宰鎮窠鎮容
鎮喜楠一南峽通政
牧使峽四男守鎮前
郡守定鎮前縣監寬
鎮郡守宅鎮出後從
父塢守鎮無嗣取寬
鎮子汲爲後定鎮一
男幼寬鎮二男澈汲
出後伯父守鎮

喜涵官止郡守贈參
判二男四女男址塢
參判女適朴芝秀徐
用修羅蘋尹在莘址
一男窠鎮縣監窠鎮
二男沖瀟今主簿沖
三男度彬衡彬餘幼
塢無嗣取宅鎮爲後
宅鎮今監事二男灑
灑卽大諫派也

희담(喜聘)은 관(官)이 목사(牧使)에 그쳤고 3남 3녀를 두었으니 맏아들 완은 백부에게 계출하였고 목사로 있는 식과 부사를 지낸 수(士秀)가 그들이며 딸은 승지 송교명(宋教明)과 참판 조재홍(趙載洪) 그리고 정지숙(鄭志淑)에게 여의었다. 식은 무사(無嗣)하여 성진을 취하여 후사로 삼았는데 성진은 부사(府使)를 지냈다.

수(綉)는 3남을 두었으니 재진(宰鎮), 채진(窠鎮), 용진(容鎮)이다. 희남(喜楠)은 외아들 협(峽)을 두었는데 통정대부(通政大夫)로 목사(牧使)이며, 협은 4남을 두었으니 전 군수(前郡守) 수진(守鎮) 전 현감 정진(定鎮) 군수 관진(寬鎮) 종숙부 우(塢)에게 출계한 택진(宅鎮)인데 수진은 무후하여 관진의 아들 급(汲)을 후사로 삼았고 정진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어리며 관진은 2남을 두었는데 철(澈)과 백부 수진에게 출계한 급(汲)이다.

희함(喜涵)은 관위가 군수에 이르고 참판에 증직되었으며 2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지(址)와 참판 우(塢)이며 딸은 박지수(朴芝秀) 서용수(徐用修) 나빈(羅蘋), 윤재신(尹在莘)에게 각각 여의었다. 지(址)의 아들은 현감 취진(窠鎮)이고 취진은 아들로 충(沖)과 지금 주부(主簿)로 있는 근(瀟)을 두었으며 충은 3남을 두었으니 도빈(度彬), 형빈(衡彬)이고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우(塢)는 후사가 없어 택진을 취하여 후사를 이었는데 택진은 지금 감사이고 두 아들을 두었는데 호(灑)와 영(潑)이니 즉 이들이 대간파(大諫派)이다.

曾玄孫以下謹慈追
錄而幼而未名女與
外孫多不能盡記不
肖玄孫憲鎮追識

증손, 현손 이하를 삼가 이에 추가로 기록하였으나 아직 어려서 이름이 없다거나 여자와 그에 따른 외손들이 많아서 일일이 기록하지 못한다. 불초 현손 헌진(憲鎮) 추기(追記)함.

이계(李啓) 神道碑

左贊成月沙李公持先大夫狀謂欽曰先妣之棄世也不肖孤僅十一歲後十二年中文科先府君卒五年不肖孤陞拜承旨參判贈先府君吏曹參判先妣 贈貞夫人又二年陞判書加贈先府君吏曹判書又五年錄扈聖從勳加贈先府君左贊成先妣貞敬夫人

已又先府君錄宣武從勳加贈領議政後不肖孤陞崇政崇錄輔國崇錄而先府君先妣之贈無以加矣嗚呼先府君之在世也不肖孤祇有一女矣今子若孫滿前官纔郎署今列上大夫矣含飴列鼎皆未逮焉以先府君先妣之厚仁積德不克享年與位又不及見子若孫之顯榮天地報施

좌찬성 월사(月沙) 이공이 그의 선대부(先大夫) 행장을 가지고 흙(欽)에게 말하기를 선비(先妣)가 기세(棄世) 하실 때에 불초 고(孤)가 겨우 11세이고 그후 12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또 6년에 문과에 합격하고 선부군(先府君) 돌아가신지 5년에 불초고(不肖孤)가 승지, 참판을 배(拜)하여 선부군에게 이조참판을 선비(先妣)에게는 정부인(貞夫人)이 추증(追贈)되고 또 2년에 판서가 됨에 선부군에게는 이조판서를 가증(加贈)하고 또 5년에 호성종훈(扈聖從勳)에 록훈되므로 선부군은 좌찬성이 가증(加贈)되었고 선비는 정경부인이 가증되었었다.

또 선부군에게 선무종훈(宣武從勳)에 록훈이 되어 영의정에 가증되므로 뒤에 불초고가 승정, 승록 보국 승록에 승진 되었으나 선부군과 선비의 증직은 더할것이 없게 되었다.

슬프다 선부군이 재세시에 불초고가 다만 딸 하나가 있었더니 지금 자약손(子若孫)이 그 앞에 가득하고, 벼슬은 겨우 랑서(郎署)였는데 지금은 상대부(上大夫)의 별에 있고 자손의 시환(侍歡)과 대부의 영화로움을 보시지 못하니 선부군, 선비의 인자하신 적덕으로 년수와 지위를 누리지 못하시고 또 아들과 손자의 영현함을 보시지 못하니 하늘에 보시(報施)함이 어찌 그리도 반대되는가.

何舛也惟是夙夜競
競者託立言君子焉
不朽圖而迄未諧者
非緩也

不肖孤曾聞先君之
言曰我祖曾祖文康
公文章德業冠絕古
今而墓道闕顯刻汝
其勉之言猶在耳肆
於今年夏先樹石於
文康公墓庶幾不墜
先訓

繼而詮次先府君先
妣砥行壽後如此不
肖孤之薄技賤能遭
祭顯隆保全名節不
忝所生有自則不肖
孤足以籍手見先府
君於地中矣

庚申春不肖孤以陳
奏使如京師有雅於
汪公輝汪公筆法名
天下欲倩書墓道之
石而時執事之文未
及請也汪公但書前
面大字贈曰此標延
陵季子之意也

云今謹治石而俟願
執事之一言也欽聞
命而曰欽之外高祖

오직 생각하는 것은 입언군자(立言君子)에게 부
탁하여 길이 전하는 것을 도모하려 하나 감히
지연함이 아니라.

일찌기 불초가 선군께 들으니 우리 증조 문강공
의 성덕대업(盛德大業)이 고금에 탁월하시나 묘
도에 현각(顯刻)이 없으니 너는 이 일에 힘쓰라
하셨는데 그 말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므로
금년 여름에 먼저 문강공(文康公) 앞에 비석을
세우니 거의 선훈(先訓)을 저버리지 않았음이다.

이어서 선부군과 선비의 지극한 덕이 후손에게
미치고 불초고의 부기천능(薄技賤能)으로 응성
하게 나타난 시기를 만나서 명절(名節)을 보전
하고 소생이 모독되지 않게 되었음에는 근원이
있는 것인즉 불초고가 죽히 이것으로 선부군을
귀하에 뵈울 수 있을 것이다.

경신년 봄에 불초가 진극사로 명경(明京)에 갔
을 때 왕공(汪公) 혼(渾)으로 우의(友誼)가 있었
고 왕공의 필법이 천하에 유명하므로 묘도의 글
씨를 받으려 하였으나 그때는 집사(執事)의 문
장(文章)을 받지 못하므로 왕공이 다만 전면 대
자(大字)를 써서 주어 일러 이것은 연릉계자(延
陵季子)의 의의(意義)라고 칭하였다.

이제 삼가 돌을 깎아서 기다리니 집사에 일언
(一言)을 원한다 하니 흙(欽)이 명을 듣고 왈,
흙의 외조는 부사 송공 여해(汝諧)의 아들이니

曰府使宋公汝諧卽
文康公之女婿外王
父參判公與議政公
爲再從兄弟

而契好之篤在尋常
修睦之外間相過則
輒亶亶忘倦移晷不
能去時欽年幼不省
事尙能從門屏間縱
觀議政公符采談論
意氣溢發有非倫類
所攀及者至今記之
矣況與贊成公少而
同術長而同陞有莫
逆者欽不爲公先君
子文惡乎文烏可以
不媯於辭辭敬以贊
成公所爲狀叙之曰
公諱啓字景瞻初名
岫避啓宣廟潛邸舊
諱改之世傳唐中郎
將李茂從蘇定邦平
百濟留仕新羅賜籍
延安後分爲三宗公
之世其一云至麗而
有諱賢呂判小府監
公遠祖也

이제 삼가 돌을 깎아서 기다리니 집사에 일언
(一言)을 원한다 하니 흠(欽)이 명을 듣고 왈,
즉 문강공의 여서(女婿)이고 외왕부(外王夫) 참
판공이 의정공(議政公)으로 재종형제가 되니

계호(契好)에 돈목함이 심상한 존척과 다르고
혹 서로 대하면 문득 침침히 담소하여 날이 다
하도록 능히 떠나지 못하니 때에 흠이 어려서
일을 알지 못하나 오히려 문병 사이로 의정공의
담론이 숭고하고 의기가 탁월하여 평등한 사람
으로 미치지 못할 것을 본 것이 기금도 기억하
며 다시 찬성공으로 젊어서 학업을 같이하고 자
라서 함께 벼슬하여 막역한 친교가 있으니 흠이
공의 선군자에 글을 쓰지 아니하고 다시 누구의
글을 쓰리요. 문사(文辭)에 익숙치는 못하나 감
히 사양하지 못하고 찬성공이 찬술한 행장으로
서술하여 이에 적는다.

공의 휘는 계(啓)요 자는 경첨(景瞻)이니 초휘
(初諱)는 곤(岫)이라고 하였으나 선묘(宣廟: 선
조)가 잠저에 있을 때의 이름자와 같았으므로
기휘하여 고쳤다. 세상에 전하기를 당나라 중랑
장(中郎將) 이 무(李茂)가 소정방(蘇定邦)을 따
라와서 백제를 평정하고 신라에 머물러 벼슬하
면서 적(籍: 관향)을 연안에 두었다. 그후 세 종
파로 분파되었는데 공의 세계는 그중의 일파인
데 고려조에 판소부감(判少府監)감 휘 현려(賢
呂)는 공의 원조(遠祖)이다.

會祖曰石亨是爲文康公魁生員進士及第三試佐成廟致太平有樛軒集行世

祖曰渾司憲府掌令贈吏曹參判考曰順長補蔭職不仕以大耋受嘉善秩贈領議政妣曰邊氏長淵大姓進士希哲女侍中處厚之後 嘉靖戊子生公公生而英秀未學語先知文字稍長試公事都中人士莫敢望焉

己酉年鄭湖陰士龍主貢舉見公作稱賞曰文章乎也乃擢爲諸詩之冠華聞日播奇高峰大升與公同榜有重名同年生皆拜之公不肯曰榜下之拜壯元古也吾當從衆奇明彥雖望士豈可受同年拜高峰聞而喜之卽來見公握手交驪定之而去

증조는 석형(石亨)이니 이가 곧 문강공(文康公)이신데 생원 진사 급제 3장(三場)에 다 장원(壯元)하고 성종을 보좌하여 태평을 이루었다. 그의 문집(樛軒集)이 세상에 전한다.

조(祖)의 휘는 혼(渾)으로 사헌부 장령(掌令)으로 이조판서로 증직되었고 고(考)의 휘는 순장(順長)인데 음직(蔭職)을 내렸으나 불사(不仕)하고 대질(大耋: 노인직 고령자에게 내리는 벼슬)로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위계에 이르렀다가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비(妣)는 변씨로 장연대성(長淵大性), 희철(希哲)의 따님으로 시중(侍中)을 지낸 처후(處厚)의 후손이다. 공은 가정(嘉靖), 무자(戊子: 1528)에 태어나셨는데 공은 나면서부터 영이(英異)하여 말을 배우기 전에 먼저 문자를 해득하였고 장성하여서는 모든 과거에 입시(入試)함에 도중(都中)의 인사가 감히 겨루지(爭頭) 못하였다.

기유(1549)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이 공거(貢舉)를 주관하였는데 그는 공(公)의 문장을 보고 칭상하여 이르되 문장의 수법(手法)이다라고 말하고 제시(諸試)에 수두(首頭)로 선발하니 영화로운 소문이 날로 전파되고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이 공과 동방(同榜)이 있는데 명성이 중하여 동년생(同年生)이 모두 공에게 절을 하자 공이 불열(不悅)하여 말하기를 방하생(榜下生)이 장원(壯元)에게 절하는 것은 고례(古例)이니 나도 마땅히 여러 사람을 좇을 것이다. 명언(明彦)이 비록 명망 있는 선비라하기로 어찌 동년(同年)의 절을 받으리요 하니 고봉이 듣고 기뻐하여 곧 와서 공을 보고 손을 잡아 기쁨을 나눈 뒤 교분(交分)을 정하고 돌아갔다.

公在布衣所與遊皆一時名勝金公繼輝金公弘度金公虬最相善三公居臺閣專事激濁爲奸倖所蟄尹元衡乘時起獄金公虬下理受拷公日詣獄手傳藥治具疏令子弟叫闥白冤狀金公得免死士論韙之

宣廟初卽位公率泮中多士抗疏請褒贈己卯諸賢宣廟許之事在己卯錄中

公屢舉不成名年踰五十猶無仕宦意庚辰春爲同年會公以長第在上座吏曹參判鄭公芝衍亦與焉諸同年以公獨儒冠浮觥而屬鄭公鄭公曰此友朝夕大科朝野所想望不然豈不欲爲賢才賁銓筆乎居數日薦拜瓦署別坐移拜義禁府都事

공이 포의(布衣)로 있으면서 그가 교우하는 사람이 일세의 명류(名流)로서 김계휘(金繼輝) 김홍도(金弘度) 김규(金虬)를 가장 좋아하더니 이들이 대각(大閣)에 처하여서는 오로지 그런것을 배척하고 청류(清流)를 아끼다가 간신에게 모함을 받았고 또 이듬에 윤원형(尹元衡)이 옥사를 이르켜 김규가 하옥되 고문을 당하니 공은 날마다 옥에나가서 몸소 약을 바르고 치료하는 제구(諸具)를 주고 자제(子弟)로 하여금 합문(閣門)을 두드려 원상(冤狀)을 진달하여 김공이 죽음을 면하게 되니 사론(士論)이 장하게 여겼다.

선조가 처음 즉위 하심에 공이 반중(泮中)의 많은 선비를 거느리고 상소하여 기묘제현(己卯諸賢) 들에게 포증(褒贈)하기를 청하니 선조가 허락하였으며, 이 일이 기묘록 등에 기록되어 있다.

공이 여러번 과거에 이루지 못함에 50이 넘었으나 사환(仕宦)에 유의(留意)하지 않더니 경진년 봄에 동년회(同年會)가 개최됨에 공이 장제(長第)로서 상좌에 있고 이조참판 정지연(鄭芝衍)이 역시 참여하였는데 모든 동년(同年)은 공이 홀로 유관(儒冠)이므로 잔을 띄워서 공에게 드리자 공이 말하기를 차우(此友)가 불원간 대과(大科)에 발탁될 것을 조야가 다 서로 바라는 바요. 그렇지 않다면 어찌 현재(賢材)를 위하여 전조(銓曹)에 천(薦)하지 아니하리오 하고 수일 후에 천거하여 와서별제(瓦署別提)가 되었다가 의금부 도사(都事)에 옮겼다.

癸未北胡尼湯介叛
兵使李公濟臣遭誣
被逮金吾郎當去公
與李公素契許見時
議政李公甚峻將置
不測慨然曰李公倔
強恐憂憤成疾非吾
莫能寬其意請自往
沿途同寢食殫誠救
護及謫江界又如之

乙酉遷司導寺直長
丙戌遷漢城府兼參
軍旋拜義興縣監以
方伯婚媾換拜長城
縣爲治先教化首行
養老宴民之窮不克
婚葬者官爲之資

設學堂於霞谷以縣
中逸士鄭雲龍爲學
長建鄉賢祠祀高麗
節孝徐稜跨水構閣
爲學徒藏修之所暇
日命駕論講經籍課
試文藝記徐公行蹟
示民興感民有兄弟
訟田者呼使前諭以
天倫民垂淚而退讓
其田於兄

계미년(1583)에 북쪽(胡)에서 니탕개(尼湯介)가 반(叛)하였고 병사(兵使) 이제신(李濟臣)이 모함을 당하여 체포코자 함에 금오랑(의금부)이 가게 되었는데 공이 이공(제신)과 근본 계호(契好)가 있었으나 때에 의론(議論)이 몹시 준엄하여 장차 불측지경(不測之境)에 이르렀을 때에 공이 개연히 말하기를 「이공은 근본이 강직하니 우분(憂憤)하여 병이 날 것이니 내가 아니면 그 마음을 관위(寬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에 가기를 자청하였는데 연로(沿路)에서 침식(寢食)을 같이 하고 정성을 다하여 구호하였으며 강개(江界)로 귀양갈 때에도 또 같이 하였다.

을유(1585)에 사도시직장(司導寺直長)으로 옮겼으나 병술(1586)에 한성부겸 참군(漢城府兼參軍)으로 옮기고 다음에 의흥현감을 제수 받았는데 방백(方伯)과의 상피(婚媾關係)로 장성현령과 서로 자리를 바꾸었는데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교화로써 힘쓰면서 먼저 양노연(養老宴)을 행하는 한편 백성중에 궁핍하여 혼례와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비(官費)로 이루게 하였다.

또 학당(學堂)을 설립하여 현(縣) 중에서 일사(逸士) 정운용으로 하여금 학장을 맡겼고 향현사(鄉賢祠)를 세워 고려때의 절효인(節孝人) 서릉(徐稜)을 제향케 하였으며 물가에 집을 세워서 학도들이 수련할 수 있는 장소로 정향 후 한가한 날에는 그 곳에 임하여 경부(經傅)를 강론하고 문예를 과시(課試)하면서 서공의 행적을 기록하여 백성들이 흥감(興感)하게 하였고 백성중에 형제가 서로 전지(田地)를 가지고 쟁송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들을 불러서 천륜(天倫)으로 혼유하니 백성들이 눈물을 머금고 물러가서 그 전지를 형에게 사양 하였다.

鄭賊汝立居全州遙執朝權聲生勢張人莫敢何貽書於公要得祭需公笑曰吾與此人無一日之雅豈可致書求索此人使氣如是必不善終遂謝病不答仍語鄭雲龍雲龍亦絕之己丑汝立謀逆伏法

宣廟聞汝立家文書得雲龍絕交書下教獎特拜王子師傅雲龍曰此皆明府先見善誨之恩云

辛卯瓜滿還朝見國事日非歎曰邊圉恬嬉朝論乖張必有危亡之禍結數椽於先壠下爲終老計壬辰夏倭寇卒至宣廟狩公盡室徒步向行在所秋拜司禦癸巳除三登縣令治軍調餉咸得其宜撫摩瘡痍一境晏然冬患中風卒于縣年六十六

반적 정여립(鄭汝立)이 전주에 거하고 멀리 공권(朝權)을 장악하고 성세를 부려 권력이 방장(方張)하게 되니 사람들이 감히 항거하지 못하였는데 여립이 공에게 글을 보내어 제수(祭需)를 청하자 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단 하루의 교분도 없는데 어찌 글을 가지고 탐색하는가. 이 사람이 패기를 가지고 이와같이 행하니 반드시 종말이 선하지 못하리라」 하고 병이 있어 답서를 보내지 못하고 이 일을 정운룡에게 말하자 운룡역시 그와 절교 하였더니 기축(1589)년에 여립이 모반 하다가 복주(服誅) 되었다.

선조가 여립의 집 문서에서 운용이 절교한다는 글이 있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하교(下敎)하여 가장(嘉獎)하시고 특별히 왕세자부(王世子傳)에 배(拜)하시니 운용이 말하기를 이는 다 명부(明府)께서 선견지명으로 지도하신 은혜라고 하였다.

신묘년 임기가 차매 조정에 돌아와서 국사(國事)가 날 때마다 일이 기우러 짐을 보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변방은 방비가 없고 조정 중론은 하나가 되지 못하니 반드시 위망(危亡)하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수 간의 집을 선릉(先壠: 선산이 있는 언덕) 아래에 세워서 여생을 보내기를 생각하더니 임진년(1592) 여름 왜구가 창졸에 침범하여 선조께서 서로(西路)로 피난 하심에 공이 가족을 이끌고 도보로 행재소에 이르렀는데 가을에 사예(司藝)를 배(拜)하고 계사(1593)에는 삼등현령(三登縣令)에 임하여 군사를 다스리고 군사를 다스리고 양곡을 조발함에 모두 적당히 하고 백성들의 상처를 무마(撫摩)하여 일경(一境)이 안연(安然) 하였더니 겨울에 졸연히 중풍환우로 현아(縣衙)에서 수를 마치시니 향수 66이다.

邑人悲呼如喪考妣
甲午春贊成公奉櫬
東歸縣吏發民四十
夫爲輿徒時當搶攘
人皆謂輿人必道亡
贊成公哭而籲衆約
給脚價衆泣曰我公
之澤不可忘何忍捨
喪主而亡又何忍受
直爲自齋糒糧輿至
墓山無一人亡爲贊
成公伐木葺孝廬而
返三月葬于龍仁文
秀山已坐之原

先是夫人卒卜兆於
文康公墓右虛其右
穴其后相者言穴宜
上公許之遵遺命爲
上下墳同原而異室

公天姿豪爽志氣磊
落重然諾有大節不
事細行孝出天夫人
早世大府君年踰九
十公色養無方佳辰
令日花酒宴娛至作
斑衣之戲及喪廬墓
執制一倣家禮

읍인(邑人)이 비호(悲呼)하여 부모상을 당한 것과 같이 하였다. 갑오년(1594) 봄에 찬성공(贊成公)이 영구를 되시고 돌아오는데 현리(縣吏)가 민부(民夫) 40명을 발하여 운구하게 하니 때에 난리를 당하여 사람들이 말하기를 「운구하는 인부가 반드시 길에서 도망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찬성공이 울면서 여러 사람에게 효유하고 임금(賃金) 주기를 약속하니 민부들이 울며 말하기를 「우리 선공(先公)의 은덕을 가히 잊지 못할 것인데 어찌 차마 상주를 버리고 도망하며, 또 어찌 임금(雇賃)을 받으리요」 하고 각자가 양식을 준비하여 상여가 묘산에 이르도록 한 사람도 도망하지 않고 벌목하여 여막을 지어주고 돌아 갔으며 3월에 용인 문수산 사좌원(巳坐原)에 장사 하였다.

이보다 앞서 부인이 졸하며 문강공 묘 우측에 장사하고 그 우측을 점쳐 두었더니 그 후 지사(地師)가 말하기를 혈(穴)을 마땅히 올린 것이라 함에 공이 허락하고 유명(遺命)을 따라서 상하분(上下墳)으로 하니 동원이영(同原異塋)이다.

공은 자품이 호방하고 지기가 신중하며 일을 당하여 허락하기를 중히하고 대절(大節)이 있어 미세한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효우가 극진하였다. 부인이 일찍 하세하고 대부군(大府君)이 구순 노령이므로 공이 색양(色養)을 구비하여 매양 가진(佳辰)을 당하면 술과 꽃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반의(班衣)의 유희(遊戲)로 효성을 다하더니 상을 당함에 여묘에서 집상하니 다 가례(家禮)에 합하였다.

有姊早寡有兄無子
公曰骨肉三人豈可
異居築室於一牆之
內晨昏省問絕甘分
少藜美縑袍未嘗獨
享同居四十餘年家
庭無間言人比之張
公藝鄉里舉公行誼
公讓于伯曰兄之德
也我則恭爲弟職而
己伯公因里選仕至
監察而終其病也躬
嘗湯藥其喪也自初
終至葬備物致度無
少缺

尤修敦睦中表親黨
悉歸依焉嘗謂平生
無不可對人言者外
雖寬厚中伉直不能
藏人之過與人交不
飭貌軟語酒賦歌呼
談說忼慨精采風流
動人者名公巨卿折
輩行爲交玉溪盧公
圭菴德恩宋公兄弟
見公必討論傾倒忘
其年

與位觀書十行俱下
一覽終身不忘爲文
主左氏班氏詩主昌
黎雄健不事繩削蒼
然有古色

매씨가 있어 일찌기 혼자되었고, 형이 있었으나
아들이 없었는데 공이 말하기를 「골육 세 사람
이 어찌 각각 살리요.」 하고 같은 담 안에 집을
세우고 조석으로 살피며 맛있는 음식과 작은 물
품일지라도 반드시 나누게 하고 진미(珍味)와
따뜻한 옷을 홀로 가지지 아니하므로 동거 40여
년에도 가정에 간언(間言)이 없으며 사람들이
장예(張藝)에 비하고 향리에서 공의 행의(行誼)
를 천거하니 공은 백씨(伯氏)에게 사양하여 왈
「형의 덕이니 나는 다만 아우된 직분을 다할
분이라」 하였기로 백씨가 리선(里選)으로 인하
여 벼슬이 감찰에 이르렀으며 그가 병들 때에는
몸소 약탕제를 보살피고 그가 졸했을 때에는 초
종(初終)으로 부터 장사에 이르도록 의물(儀物)
을 준비하여 결례가 없도록 하였다.

또한 더욱 돈목(敦睦)하기를 힘써서 내외 친족
이 모두 다 돌아와 의지하였다. 일찌기 말하되
「평생에 가히 사람을 대하여 말하지 못할 일이
없다」 고 하였다.

외양은 비록 관후하나 중심이 강직하여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교우함에 수
식과 감언을 쓰지 아니하였고 술을 대하여 담소
하고 노래하되 언론이 강개하여 정신과 풍류가
과인(過人)한 고로 명공거경(名公巨卿)이 모두
연치와 지위를 구애하지 않고 교우하므로 옥계
(玉溪) 노공 규암(圭菴), 덕은(德隱), 송공 형제
가 공을 보면 반드시 토론으로 종일하였다.

서적을 읽으며 열줄을 한번에 보되 종신토록 잊
지를 않았으며 학문은 좌씨(左氏)와 반씨(班氏)
를 주로하고 시는 창예(昌黎)의 웅건을 주로하
여 세밀히 윤색하지 아니하므로 창연히 고생을
들어내었다.

自弱冠發策決科中漢城試諸科通二十一榜魁者二第二第三者五餘亦高選科製一出無論中不中膾炙人口泊贊成公發勒場屋公曰吾結髮受書高視詞壇今落拓一官命也汝才必能光大先烈吾家舊物當傳汝卽拋科業大肆力於墳典於百家言無所不窺當時文衡諸公遇大製述咸來就正所

著詩文累百篇喪祭禮要綱目輯釋文溪彪談等書藏于家失于壬辰之亂

公夫人曰光州金氏新羅王子之裔縣監彪之女妣龍仁李氏己卯名賢李弘幹之女生長法門柔嘉淑哲不事書籍而能通大義古今理亂事是非人邪正片言剖析如神明僉知公奇愛之曰吾孫女女也不者當大吾門金公虬

약관으로 부터 책문(策文)으로 과시에 응하여 한성시(漢城試) 제과(諸科) 21방(二十一榜)에 장원이 1회요. 제2 제3이 5회이며 그외에도 역시 높이 선정되었다. 과제(科題)가 한번 나오면 당선 여부를 무론(無論)하고 사람의 입에서 칭송하더니 찬성공이 장옥(場屋)에 출입하므로 부터 말하기를 「내가 결발(結髮)에 글을 배워 사단(詞壇)을 우습게 여겼더니 이제 작은 관원으로 낙척 되었으니 천명이다. 너의 재주가 반드시 선열을 빛내게 할만하니 내 집의 전래함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고 즉시 과업(科業)을 포기하고 크게 경전에 힘써 백가(百家)의 글과 아니 본책이 없으므로 당시 문형제공(文衡諸公)이 어려운 제술(製述)이 있으면 모두가 와서 수정(修整)하였다.

공이 저술한 시 수백편과 상제예요(喪祭禮要) 강목집석(綱目輯釋) 문계막담(文溪彪談)등의 책을 집에 보전하였다가 임진왜란 때 모두 분실되었다.

부인 광주김씨는 신라 왕자의 후손으로 현감 표(彪)의 딸이며 비(妣)는 용인이씨로 기묘명현 첩지 이홍간(李弘幹)의 따님이시니 법문(法門)에서 성장하여 아름다운 부덕이 있고 서적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나 능히 대의(大義)에 통달하므로 고금의 치란(治亂)과 일의 시비와 사람의 사정(邪正)을 한마디 말로 분석하기를 신명과 같이 하니 첩지공이 기애(奇愛)하여 말하기를 「우리 손녀가 여자라. 만일 남자라면 반드시 내 집을 빛내리라」 하고 김규(金虬)는 부인의 계부(季父)라 일을 당하면 반드시 부인과 상의 하더니 하루

乃夫人季父也遇事必咨於夫人一日金公被酒待客客謔笑鉤語金公不之覺縱談無忌

夫人時未筭在壁後聞之客去謂金公曰叔必爲其客所構無何禍作竝以其時語爲謗誹 朝政之目

及歸公事舅姑誠敬俱至脂滷蘋繁手具躬進篝燈達曙紡績不去手公好客客至置酒咄嗟之辨皆有異味

公喜施與甌粟篋衣不問有無先意恪承絕不爲窮窶之色室如懸磬而人不知貧

市易之際稍過其直卽還與之不喜巫卜浮屠之說屏去浮華奢泰之習閨門之內肅如也

生於嘉靖庚寅卒於萬曆甲戌年四十五舉三女一男女長崔永津以勳裔爲老職

는 김공이 술에 취하고 객을 접대함에 객이 아당하는 말로 공을 낙으려 하되 공이 이를 알지 못하고 기탄없이 담소하니였다.

부인이 이때 출가하기 전이었는데 벽뒤에서 듣고 객이 돌아갔을 때 김공에게 말하기를 「숙부가 반드시 그 손에 모함 당하리라」 하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화가 일어남에 그때에 말한 것으로 조정을 비방한 죄목에 걸리게 되었다.

공에게 출가한 후 구고(舅姑)를 지성으로 봉양하여 맛있는 음식을 몸소 준비하여 내어가게 하고 등불로 날이 밝도록 방적하는 일에서 떼지 아니하였다. 공이 손님을 좋아하여 손이 오면 반드시 술을 접대하되 창졸간 준비하여도 다 진미가 있었다.

공의 천성이 사람에게 주기를 좋아함으로 독속의 쌀과 상자의 옷이 있고없고를 가리지 아니하고 매양 선의순승(先意承順)하여 궁핍한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집이 지극히 가난하나 사람이 알지 못하였다.

시장에서 물건을 교역하다가 그 가격이 과하면 즉시 도로 반환하고 무당과 불교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부화(浮華)오 사치하는 풍습을 멀리 하므로 rbans이 항상 숙연하였다.

가정 경인(1530)에 출생하여 만력 갑술(1577)에 졸하니 향년 45세이다. 3남1녀를 낳으시니 큰 딸은 최영진(崔永鎭)에게 출가하여 훈신의 후예로서 노인직 가선(嘉善)이 되고 월천군(月川君)

嘉善襲封月川君次
李德容次朴珽皆早
卒

月川無嗣養李德容
之女嫁其族姪應斗
而子之德容有二女
長李廷哲次爲崔應
斗璉生二男長大健
次大華

贊成公娶判書權克
智女生二男二女女
長洪震司藝次鄭玄
源男長明漢吏曹參
議次昭漢弘文校理
崔應斗四男曰慶濂
慶洛慶洙慶海李廷
哲生二男曰杜濟郭
濟二女幼洪震生五
男三女男長桂元尙
貞明公主封永安尉
一男幼

天之隲佑善人不在
其身在其後公具慈
美德不得展其抱負
迺竟食報於贊成公
贊成公以學問文章
遭逢 宣廟早蜚英
荷不世之遇歷判六
部再柄文衡至 我
聖明撥亂反正擢置

에 습봉(襲封)되었고 차는 이덕용(李德容), 차는
박건(朴健)에게 출가하였으나 모두 조졸하였다.

월천(月川)은 자식이 없어 이덕용의 딸을 수양
(收養)하여 그 즉실 응두(應斗)에게 출가하여 양
자하고 덕용은 딸 둘을 두었는데 맏딸은 이정철
(李廷哲)에게, 차녀는 최응두(崔應斗)에게 출가
하고 진(璉)은 아들 둘을 낳으니 장남은 대근
(大根), 차는 대화(大華)이다.

찬성공은 판서 권극지(權克智)의 딸을 취하여 2
남2녀를 낳으니 장녀는 홍영(洪筵)에게 출가하
니 사예(司藝)요 차는 정현원(鄭玄源)에게 출가
하고 장남은 명한(明漢)이니 이조참의요. 차는
소한(昭漢)이니 홍문관 교리이다. 최응두의 4남
은 경렴(慶濂), 경락(慶洛), 경수(慶洙), 경해(慶
海)요. 이정철(李廷哲)은 아들 둘이 있으니 두제
(杜濟)와 곽제(郭濟)이고 딸 둘은 어리다. 홍영
(洪筵)은 5남3녀를 낳으니 장남 규원(桂元)은 정
명공주(貞明公主)를 취하여 영안위(永安慰)에 봉
하여 졌고 1남이 있으나 어리다.

하늘이 선인(善人)을 도와주는 것이 그 자신에
주지 아니하면 그 후손에게 있다하니 공에게 이
와 같은 미덕이 있다 하나 그의 포부를 펴지 못
하고 마침내 찬성공에게 그 도움을 내려서 찬성
공이 학문 문장으로 선조조를 당하여 조년(早
年)에 문과에 발탁되어 불세의 지우(知遇)를 받
아 육조(六曹)에서 모두 판서를 지내고 두번 문
형에 임하였으며 우리 성명(聖明)이 어지로운
것을 바로 잡고 반정하심에 요상(要相)으로 발탁

貳公方勵翌中興精神治理而爰及子姓
 英髦袞袞玉樹交芳袍笏盈床嚮用五福
 盖未艾也於是乎愈信天道之有定銘曰
 或自致之或樹而滋天之界之曷異其施
 公樹之厚而後之阜公神之靈寧與魄朽
 銘而無媿我詩孔揚有來識之德人之藏
 象村申欽撰

되어 증홍에 상익(翔翼)이 되고 지치(至治)에 찬양하며 자성(子姓)이 다 영민하여 옥수(玉樹)가 번영하고 잠신이 앞에 가득하여 앞으로 오늘 오복이 한이 없으니 이에 더욱 천도(天道)에 정함이 유(有)한 줄 할리라.

명에 이르기를

혹은 자신으로 이름을 날리고 혹은 씨를 뿌려 자라게 하니 하늘에 주는것이 어찌 그 주는것과 다르뇨 공이 후하게 심었기로 그가 성하도다 공 거룩한 영혼이여 어찌 체백과 같이 없어지리요. 묘를 명(銘)하여 부끄럼이 없으니 내 글이 크게 날리리라. 오는 사람이 알것이니 유덕한 사람의 묘소이다.

상촌 신희 짓다.

이귀령(李貴齡) 墓表

公諱貴齡字修之號桂隱延安李氏麗朝有諱襲洪太子詹事五傳至諱元發典工判書 贈左議政卽公考也妣松壤郡夫人成川金氏中郎將南寶女

公以高麗 忠肅王丙戌生 太祖潛邸時有盧綰之舊 太宗朝錄佐命功臣 世宗朝拜佐議政致仕奉朝賀己未六月六日卒享年九十四 命禮葬賜諡康胡墓在議政公塋西亥坐公之偉烈盛望光榮一世而退居龍仁下東村內谷居處服食一如寒士

嘗種雙槐于洞前至今猶存居人受惜謂之相公槐焉配 贈貞敬夫人南陽洪氏

공의 휘(諱)는 귀령(貴齡), 자(字)는 수지(修之), 호는 계은(桂隱)이다. 연안 이씨는 고려조에서 태자(太子) 첨사(諫事)를 지낸 휘(諱) 습홍(襲洪)의 때로부터 5세(五世)에 이르러 전공판서(典工判書)로서 좌의정(左議政)에 증직된 원발(元發)은 공의 고(考)가 된다. 비는 송양군부인(松壤郡夫人) 성천김씨로 중랑장 남보(南寶)의 따님이다.

공은 고려 충숙왕(忠肅王), 병술생(1346: 충숙왕 병자년의 착오인 것 같다.) 조선 이태조의 잠저시에 로관(盧綰)의 오랜 친분이 있었으며 태조(太宗祖)에는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록훈되었으며, 세종조(世宗祖)에서는 좌의정(左議政)을 배수(拜受)하였고 봉조하(奉朝賀)로 치사(致仕)되었다. 기미년(세종 6년) 6월 6일 졸(卒)하니 향년이 94세였다.

조정에서는 명하여 예장(禮葬)을 지냈으며 시호(諡號)를 강호(康胡)라 사(賜)하시었다. 묘는 좌의정공 선영 해좌(서쪽)에 있다. 공의 위열(偉烈)과 성망(盛望)이 일세(一世)에 영화로웠으나 낙향하여 용인의 하동촌(下東村) 내곡(內谷)에 거처하면서, 의복과 먹는 것이 가난한 선비와 한가지였다.

(공께서) 일찌기 마을 앞에 두주의 괴목(느티나무)를 심으니 지금에 있는 바와 같으며,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두고 옛부터 상공괴(相公槐: 정승 느티나무)라 칭하여 왔다. 배위(配位)는 정경부인 남양홍씨로 판중추(判中樞), 언수

判中樞彦修女無育
繼配昌寧成氏摠府
尙書準得女辛卯生
忌九月二十一日

(彦修)의 따님이나 자식을 두지 못하였고, 계배(繼配) 창녕성씨(昌寧成氏)는 총부상서(摠府尙書) 준득(準得)의 따님으로 신묘생이며 기일은 9월 21일 이다.

男長策判禮賓寺事
次敦少尹女適全州
崔宣奉常尹次適漢
陽趙賚知敦寧餘不
錄舊碣字剗辛酉十
月十日改豎

장남 책(策)은 판예빈사사(判禮賓寺事) 차남 돈(敦)은 소윤(小尹)이다. 장녀는 봉상윤(奉常尹) 전주(全州) 최선(봉상윤) 常尹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지돈령(知敦寧) 한양(漢陽) 조뢰(趙賚)에게 출가하였다.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예전의 비석이 퇴락하여 신유년 10월 19일 다시 세웠다.

十七世嗣孫炳大謹
識

17세 사손 병대(炳大) 삼가 짓고

十九世傍孫 通政
大夫原任 奎章閣
直閣 義國謹書

19세 방손 통정대부 원임(原任) 규장각(奎章閣) 직각(直閣), 의국(義國)이 삼가 쓰다.

이기(李巖) 墓碣

聖民幼時遊路側見
吾隣有丈淡然其容
者乃靜軒公

問諸老此與世抹殺
縱詩酒自娛云云公
之子廷顯今袖一狀
來曰父早從趙靜菴
游又爲奸黨忤仍絕
交遊

惟李晦齋每屈于第
語移日所言皆聽儒
者事在家與親戚作
諧笑

俸祿纔入門輒散之
無留不營于家恐父
蹟泯石之墓乃請銘
聖民心偉之聞子言
果然

公姓李諱巖字士高
癸酉中司馬己卯捷
文科權知承文院副
正字拜承政院註書
時士林獄公與柳仁
淑叩閣曰

성민(聖民)이 유년 시절에 길가에서 유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이웃에 한 장자가 있어 그 용모가 담연(淡然)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가 곧 정헌공(靜軒公)이었다.

제(諸) 노인에게 물으니 이사람이 세상일을 말살하고 등져서 시를 읊고 술마시는 것으로 스스로를 달랜다고 하더니 공의 아들 정현(廷顯)이 이제 한권의 행장(行狀)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선군(先君)이 일찌기 조정암을 쫓아 학문을 하다가 간당이 미워하는 사람이 됨으로 교우하기를 끊고

오직 이회재(李晦齋)가 매양 집에 왕림하여 날이 다하도록 말하는 것이 다 선비의 일이요. 집에 거한 때에는 친척들과 해소(諧笑)로 종일하였고

받는 봉록은 겨우 문에 들어오면 문득 헤쳐서 남는 것이 없었으며 집을 위하여 경영하는 일이 없었는지라 그 유적이 모두 없어질까 두려워 묘전에 비를 세우려 하기로 이에 명(銘)을 청한다 하기로 성민이 마음속에 장하다고 여겼더니 그 아들의 말을 들어본 즉 과연 그러하다.

공의 성은 이씨로 휘는 기(巖)요. 자는 사고(士高)이니 계유(1513)년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기묘년(1519)에 문과에 발탁되어 권지승문원 부정자(權之承文院副正字)와 승정원 주서(註書)를 배(拜)하시었다. 때에 사림의 대옥사(기묘사화)가 일어남에 공이 유인숙(柳仁淑)과 더불어 합문(閣門)을 두두려 말하기를

與彼同事臣亦宜獄
上曰退仍病免歷檢
閱待教奉教于藝文
遷弘文正字又病免
還奉教陞監察

官書狀如京徙佐郎
兵曹都事忠淸郎于
兵由宗親府典籤掌
令于憲府由成均司
藝弼善輔德于侍講
改司諫院司諫自庚
寅一離淸班遂不顯
仍踐司成成均僉正
軍器牧于淸海廣三
州正于軍資禮賓

乙巳獄淸流公爲問
事郎還家咄咄至廢
食是年冬仁廟葬陞
折衝大護軍

明年拜僉知中樞朝
京嘉靖丁未八月牧
楊州未赴而卒年五
十五

夫人李氏有婦德竝
公一月逝年五十三
閏九月同葬龍仁灑
布里先塋側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하였으니 신도 마땅히
옥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더니 상께서 말하
기를 물러가라 하시니 이후에 병이 들었다 하여
사면(辭免)하였다가 예문관 검열, 대교(待教), 봉
교(奉教)를 거쳐서 홍문관 정자(正字)에 옮겼다
가 또 병으로 사면하고 봉교에 돌아 왔다가 감
찰로 승차고

서장관으로 북경에 갔다가 병조좌랑 충청도사를
역임하고 종친부 권참과 사헌부 장경을 거쳐서
성균관 사예가 되고 시강원에 필선과 보덕을 역
임한 후 사간원 사간이 되었더니 경인(1530) 이
후로 청반을 떠나 현직(顯職)에 거하지 아니하
고 이에 성균관 사성(司成) 균기시 검정(僉正)을
거쳐서 철극 해극 광주 목사가 되고 군자감과
예빈시정이 되었다.

을사년(1545)에 청류(淸流)가 다 옥사에 걸렸고
공이 문사랑(問事郎)이 됨에, 집에 돌아와서 탄
식하여 식음을 폐하기에 이르렀는데 이해 겨울
에 인조(仁朝)가 승하하시니 절충대호군(折衝大
護軍)에 승자(陞資)되고

명년에 첨지중추부사를 배하여 북경에 갔다가
가정 정미(1547) 8월 양주 목사에 배하였는데
부임하기 전에 졸(卒)하니 향년이 55세였다.

부인 이씨는 부덕이 있었는데 공과 같은 달에
서거하니 향년이 53세였으며 윤 9월에 용인 쇠
포리 선영 옆에 합장 하였다.

公延安之李有諱石
亨錄佐理功爵府院
君生成均司藝贈通
政大夫平海郡守渾
守生大護軍壽長娶
安東權氏義禁經歷
寬之女是爲考妣

夫人全義之李忠翊
府都事震孝女生男
廷秀郡守廷華忠義
衛廷顯郡守女適趙
世球次適縣監尹自
耘

廷秀男曰贊實贊賢
縣令也女長適司果
鄭舜咨次吳希文次
李彦佐次參奉任勉
廷華男曰寶賡資貴
貴生員也女長侍直
元虎武次監察俞大
俶次蘇千善延顯男
曰賓簀賚賚賓生員
也女長適生員申純
一次金夢蘭趙男曰
璨縣監也次瑀次璜
次權俱中生員也女
長適生員李應立次
李運尹男曰祥祐祥
官別坐女長適平城
守次元璵次內禁衛
李應時昌厥後益信
公有德銘曰

공은 연안인이니 석형은 좌리공신에 책훈되어
부원군에 봉해졌고 성균관 사예 증 통정대부 평
해군수 혼을 낳았으며 군수(혼)은 대호군(大護
軍) 수장(壽長)을 낳았으며 그가 의금부 경력
안동권문 관(寬)의 딸을 취하였으니 곧 공의 비
(妣)이다.

부인 전의이씨는 충익부 도사(都事) 진효(震孝)
의 딸로서 3남2녀를 낳으니 정수(廷秀)는 군수
요. 정화(廷華)는 충의위(忠義衛)이며, 정현(廷
顯)은 군수이다. 딸은 조세구(趙世球), 현감 윤
자운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정수에게 아들이 있으니 빈(賓), 실(實), 집(贊),
현(賢)인데 빈은 현령이며 딸은 사과 정순자(鄭
舜咨), 오희문(吳希文), 이언좌(李彦佐), 참봉 임
면(任勉)에게 모각각 출가하였다.

정화(廷華)의 아들은 보(寶) 갱(賡) 자(資) 귀
(貴)이니 귀는 생원이다. 딸은 시직(侍直) 원호
무(元虎武), 현감 유대숙(俞大俶), 소천선(蘇千
善)에게 출가하였고 정현(廷顯)의 아들은 빈(賓)
책(贊) 신(賚) 천(箴)인데 빈은 생원이며 딸은
생원 신순일(申純一), 김몽란(金夢蘭)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조(趙)의 아들 찬(璨)은 현감이며 차
는 우(瑀) 다음은 황(璜)이고 그다음은 관(璜)이
니 다 생원에 합격하였고 딸은 생원 이응립(李
應立), 이운(李運)에게 출가하고, 윤(尹)의 남은
상우(祥祐), 상관(祥官)이요. 별좌의 딸은 평성수
(平城守) 원항(元瑱), 내금위 이응시(李應時)에게
각각 출가하니 그 수손의 창성함으로 더욱 공의
유덕함을 알리로다. 명에 이르기를

由己者己 守之身
不己者彼排 以人
己不求人物上 平
常信樂 其樂而終
號靜也眞
洪聖民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이니 내품으로 지키고
내가 하지 못 할 일은 다른 사람이니 그 사람에
게 맡기라. 내가 남에게 구할 것이 없으니 사물
에 있어서 항상 넉넉하다. 그 락을 즐거워 하며
마치니 호를 정현이라 함에 참 뜻이 있도다.
홍성민 짓다.

이단상(李端相) 墓誌

蓋余自幼能亡而悲
余之無友也非亡友
也而友而無知我者
也嗚呼奚獨幼能知
我我亦自謂知幼能
而今無矣安能使余
無悲也

幼能生而名重一世
世之知幼能者始則
推其詞華既而嘉其
忠謇又既而高其恬
退終之又尙其進修
之篤而然其立心用
力有大而遠者則所
謂知幼能者未必盡
知之也

幼能姓李諱端相其
號靜觀幼能其字也
左議政文忠公諱廷
龜吏曹判書大提學
諱明漢其王考考也
公生于文獻之家幼
警穎絕倫作詩語輒
驚人鑿賞家稱爲絕
代聲稍長藻思俊逸
時號能操觚者莫敢
捋焉

대개 유능이 서거하므로 내가 친구가 없는 것을
싫어하니 친구가 없는것이 아니라 친구로써 나
를 아는 사람이 없음이라. 어찌 홀로 유능이 나
를 알뿐이리요. 나도 유능을 아는것으로 자처하
니 어찌 내가 싫으지 아니하리요.

유능이 나면서 부터 명망이 일세에 중하여 세상
에서 유능을 아는자가 처음에는 그 사화(詞華)
를 추중(推重)하고 다음은 충성과 믿음(忠信)을
가상(嘉尙)하고 그 후에는 염퇴(恬退)함을 높이
여기고 그 종말에는 그 진수(進修)하는 독학(篤
學)을 숭배하나 그에 입심용역(立心用力)이 고
원(高遠)한 것은 유능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
라도 반드시 다 알지 못할 것이다.

유능의 성은 이씨요 휘는 단상(壇相)이며 호는
정관(靜觀)이니 유능은 그 자(字)이다.

좌의정 문충공 휘 정구(廷龜)와 이조판서 대제
학 휘 명한(明漢)은 그의 왕고(王考), 선고(先考)
이라 공이 문헌세가(文獻世家)에 태어나서 어려
서 부터 총명함이 절륜(絶倫)하여 시를 지으며
말이 문득 사람을 놀라게 하니 시를 감상하는
사람이 모두 절대함을 칭도(稱道)하였다. 조금
성장함에 조사(藻思)하는 것이 준일하여 때에
능(能)하다는 사람도 감히 겨루지 못하였다.

二十一魁進士所製
膾炙人口踰年而闡
大科前後歷敷皆古
所稱蘭臺金華水天
道山瀛洲之地國家
所設以待文學之士
者公所人無異辭討
論纂述彬彬乎

其文世且以爲步武
盟壇矣然公立朝當
官務以弭違繩愆爲
任其爲翰林也 孝
廟將閱武會慈聖臨
浴宮苑其地正眺郊
場衆議譁然而難於
言

公出爲論之逆上指
在玉堂筭論君德無
實尤拳拳於待賢之
道入對又極言待大
臣不敬因訟金弘郁
冤師語甚鯁切左右
皆縮頸

後又疏申其說竝及
拷掠諫長之失在臺
閣值上爲東朝營殿
閣又還自謁陵路上
觀馳射輒皆規諫

21세때 진사사에서 장원하였는데 글이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고 유년(踰年)에는 대과(大科)에
발탁 되어서는 전후에 천력(踐歷)한 자리가 다
예로부터 간대(蘭臺), 금화(金華), 수천(水天), 도
산(道山), 영주(瀛州)로 국가에서 설치하여 문학
지사를 기다리는 자리는 공이 모두 역임하였으
나 사람들에게 이론(理論)이 없고 토론과 찬술
(纂述)의 문채(文采)가 빈빈(彬彬)하여

세상에서 또 맹단(盟壇)에 계승한다 하였으나
공이 입조 당관(當官)에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그 허물을 간정(諫爭) 함으로 자임(自壬)하
여 그 한림(翰林)이 되었을 때에 효종(孝宗)이
장차 무사를 검열하고자 하니 마침 자성(慈聖)
이 궁원에서 목욕하시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교장(教場)을 내려다 보게 됨으로 중의(衆議)가
화연(譁然)하나 말하기를 어려워하니

공이 자리에 나아가서 논란(論難)하여 상지(上
指)에 불복(不服)하고 옥당(玉堂)에 재직하여서
는 임금의 덕이 무실(無實)함을 논란하고 더욱
현신(賢臣)을 예대(禮待) 하는데 권권(眷眷)하며,
또 대신을 대우하는데 불경한 일을 극언하며 인
하여 김홍욱(金弘郁)의 일사(冤死)함을 송변(訟
辨)함에 말이 너무 강직하여 좌우가 모두 송구
하였다.

그후에 다시 상호로 그 말을 진달하고 곁하여
간장(諫長)을 고문한 실체를 의론(議論)하였다.
대각(臺閣)에 재임시(在任)시에는 상이 동조(東
朝)를 위하여 전각(殿閣)의 신축을 생각하고 또
능침(陵寢)에 행행(幸行) 하였다가 돌아오는 길
에 사격하는 것을 관람코자 하심에 공이 다 규간

不以震撼少撓遇事
刺舉無所避貴近憚
之

有鄭介清者逆豎汝
立黨也湖南人猥祀
之書院同春宋公白
上禁毀之凶人善道
投疏諸張指介清爲
正學公辨斥甚哲上
於親弟喪旣再臨又
將越禮親奠公爭之
力上怒甚譴罷

其侍講讀不專章句
解詁據經論事剴意
繇是得三昧稱

嘗以御史察湖南賑
政發倉理獄皆從便
宜又請移船粟之輸
京者以哺之及歸侍
前席歷陳捐瘠狀淚
隨言下 上亦爲之
泣蠲放悉如公言南
民頌其惠于石蓋公
隨地彈誠一皆精白
懇到以此士論咸重
之及 孝廟賓天公

(規諫)하여 천위(天威)에 진노 하심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일을 당하면 충심으로 봉행하여 모피
(謀避)하지 아니하니 귀근(貴近)한 사람이 다 외
탄(畏憚)하였다.

정개청(鄭介淸)이라 하는 자가 있었더니 역적
여립(汝立)의 무리라. 호남 사람들이 외람(猥濫)
되어 서원에 제사함으로 동춘(同春) 송공(준길)
이 상주하여 금하고 훼손하니 흉인(凶人) 선도
(善道)가 상소하여 변명하고 개청(介淸)을 가르
켜 정학(正學)이라 칭함에 공이 변척(辨斥) 하
기를 극진히 하고 상이 친제(親弟)의 상을 당하여
이미 두번 친립 하시고 또 장차 예를 넘어서 친
전(親奠)코자 하시니 공이 힘써 간쟁(諫爭)하
므로, 상이 노하여 파직되었다.

시강(侍講)하는 자리에 처하여서는 장구(章句)의
해역(解譯)을 일삼지 아니하고 경의(經義)를 인
수(引授)하여 일을 의론하매 사의(辭意)가 간지
(懇至)하므로 사람들이 삼매진경(三昧眞經)이라
칭하였다.

조년(早年)에 어사로 임명되어 호남의 진정(賑
政)을 사찰(査察)함에 창곡(倉穀)을 주급(周給)
하고 옥송(獄訟)을 다스려서 그 편의함을 다하
고 좁쌀 실은 배를 서울로 수송하는 것을 옮기
도록 청하여 진홀하고 복명하는 자리에서 민생
(民生)들의 간고(艱苦)함을 상주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상이 역시 읍하(泣下)하시고 세납의 감
면과 양식을 조달하는 일들은 공의 말에 따라
시행케 하심으로 호남 백성이 그 은혜를 등에
새겨 송덕하였으니 대개 공은 그 직위에 따라서
정성을 다하고 일일이 수응(酬應)하기를 정밀
청백하게 하므로 사림이 더욱 중하게 여기더니
효종이 승하 하심에 공이 세사(世事)가 일변(日變)

見時事日變遂息意
世路闔門謝病有除
命輒辭再丐外補皆
未久召入入又逡巡
辭避

公嘗自骨公格則大
臣請破除以用之其
以事自免則諸名公
又合辭薦公學識可
用上命特叙公益蹙
然不安卽出郊屏居
楊州之東岡有終焉
之計筵臣推轂益力

上亦意傾嚮之徵召
頻繁而公猶堅臥不
起譚者謂錢淡成四
十勇退不爲早也

公旣卽閒卽有志爲
己之學日取性理諸
書手錄口諷矻矻以
爲樂逮歸東岡用力
尤專從遊者日衆相
與講說琢磨一室蕭
然唯以圖書自衛早
夜讀而思家貧疏糲
或不給而處之晏如
不以菽豢易其味也

함을 보고 세로(世路)에 의사(意思)를 버리고 문
을 닫아 병을 칭탁하면서 제명(除名)이 있으면
문득 사양하였으나 두번 외임을 구하여 부임하
니 미구에 소환되어 들어오면 또 뒤로 문칫문칫
물러나 사피(辭避)하였다.

공이 일찌기 공인의 자격으로 사퇴하면 대신
이 공인(公格)의 격을 떠나서 쓰기를 주청하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면(免)하면 모든
명공(名公)이 말을 합하여 공의 학식(學識)을
가용(可用)함을 천보(薦保)코자 하여 임금의
특지(特旨)로 서용(叙用)함을 명하니 공은 더
욱 축연 불안하여 즉시 교외에 나가 양주(楊
州) 동쪽 언덕(東岡)에 거하여 노년을 마칠 의
향(意向)이었지만 연신(筵臣)이 더욱 추천하
기를 힘써하였고

임금의 뜻이 또한 공에게 기우러 짐으로 소명
(召命)이 빈번하되 공이 오직 응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전담성(錢淡成)의 40용퇴가 조년(早年)
사퇴가 아니라고 하였다.

공이 이미 한가한 몸이 됨에 위기(爲己)하는 학
문에 유의하여 날마다 성리학 제서를 탐독하여
손으로 기록하고 입으로 외워서 자자히 낙으로
알더니 이에 동강(東岡)으로 돌아감에 용력이
더하고 종유(從遊)하는 사람이 날로 더하여 서
로 강론 탁마(琢磨)하여 숙연하나 오직 도서로
자위(自衛)하여 주야로 숙독(熟讀)하며 집이 가
난하여 소식(蔬食)도 부족하나 처지에 안연(安
然)하여 고량진미(膏粱珍味)로 그 취미를 바꾸
지 아니하더니

及其靜養既久聲實
竝暢則一世翕然以
學問推公論士之宜
在上左右者指無先
公屈望其一出不翹
若儀鳳儀鴻也

己酉尤齋宋公在朝
奏 上曰今欲圖治
不可使李某在野宜
加擢用以長師儒
上遂陞秩而召之辭
不就己而

車駕幸湯泉公自以
世臣分義不可不一
伸力疾祇送將即歸
會除玉堂長又因同
春宋公言命別侍胄
筵屢辭始免而公已
病不任歸矣

上聞之賜藥餌公草
疏陳謝有曰今者貞
陵祔廟實千古盛舉
可見聖學迥出百王
願招延賢德益究大
業以光前烈且引南
軒遺表中語陳戒切
至蓋神德王后即太

그 정양(靜養)이 이미 오래되고 성실(聲實)이 함
께 들어남에 일세흡연(一世翕然)히 학문으로 추
숭(推崇)하여 선비된 자로서 임금의 좌우에 처
할 자로서는 공보다 앞선 사람이 없다하니 그가
한번 나오기를 봉황과 기린(麒麟)과 같이 바라
였다.

기유년 우재(尤齋) 송선생이 조정에 있을때에
임금께 상주하여 말하기를 「이제 나라를 다스
리려 하면 이모(李某)를 재야(在野)에 있게 함이
불가하니 마땅히 탁용(擢用)하여 사유(師儒)의
장(長)에 임용해야 할 것」이라 하였기로 왕이
인(因)하여 그 자급(資級)을 올려서 부름에도 이
를 사양하고 나가지 아니하였다.

때에 거가(車駕)가 온천에 행행(幸行)할 때 공
이 스스로 세신(世臣)이 나뉘야 할 의리로 한
번 나가서 기송(祇送)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병
을 무릅쓰고 기송(祇送)한 후 장차 돌아가고자
함에 옥당(玉堂)의 장관(長官)을 제수하고, 또
동춘당(송준길)의 말로 인하여 특별히 주연(胄
筵: 胄筵)에 참여하라 하였으나 여러번 사양하
여 비로서 사면(辭免)하였으나 병이 더하여 돌
아갔다.

상(上)이 들으시고 약물을 사급(賜給)하자 상소
진사(陳謝)하여 말하기를 「금자(今者)의 정릉
부기(貞陵祔基)는 실로 성거(盛舉)라·가히 성학
(聖學)이 천고에 형월(迥越) 하심을 알 것이다.
원컨데 현덕(賢德)을 초정(招廷)하여 더욱 대업
을 연구하사 전렬(前烈: 선왕조)를 빛나도록 하
소서」 하고 또 남헌(南軒) 유표중(遺表中)에서
말을 인용하여 진계(陳戒)함이 간월하니, 대개
신덕왕후(神德王后)는 즉 태조의 계비로 태종조

祖繼妃而爲太宗朝
諸臣所貶降至是
上用尤齋言追復舊
儀故公疏及之

病革口號短律以見
志又以僑寓非正終
之所促還舊第家人
諫止不聽還纔踰日
而沒觀化之際能得
從容如此其學力益
可驗也

蓋公於 孝廟末年
常處經幄與同春尤
齋二先生出入周旋
最久浸灌啓發有由
來矣然公默契心得
不資師承其學以徑
約爲戒

欲先博而後反之凡
經傳奧義與夫性命
事物之理靡不探頤
研窮務盡貫徹乃已
然必以主靜居敬爲
歸趣平居雖不拘拘
矜持考其日用信動
鮮有不出於正者少
喜詩酒能痛刮舊習
絕不作閒吟詠非

(太宗朝) 제신(諸臣)에 의하여 폄강(貶降: 관직을 깎아 낮춤) 되었다가 지금 상(上)이 우재(尤齋)의 말을 써서 구의(舊儀)를 회복한 고로 공이 상소하여 말함이라.

병이 점점 증함에 단율(短律)을 외워서 그 뜻을 보이고 또 우거(遇居)한 자리가 정종(正終)할 자리가 아니라 하여 재촉하여 경제(京弟)로 돌아오니 가인(家人)이 간하여 말리되, 불허하고 돌아온지 수일 후에 졸(卒)하니 임종하는 자리에 능히 종용(從容)하기를 여차(如此)함은 가히 그 학력을 알 것이다.

대개 공이 효종 말년에 항상 경악(經幄)에 처하여 동춘(同春), 우재(尤齋) 두 선생으로 출입 주선이 가장 오래됨으로 심잠계발(沈潛啓發)함이 유래(由來)가 있음이라. 그러나 공이 묵계심득(默契心得)하여 스승에 승통(承統)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학문이 경약(經約)하므로 경계를 삼아서

먼저 널리 알고 후에 자반(自反) 하므로 모든 경전오의(經傳奧儀)와 성명 사물(性命事物)의 이치를 다 탐색 연구하여 관철하기에 힘쓰고 그러나 반드시 주경거공(主敬居恭)으로 주장(主張)하여 귀추를 일삼고 평거(平居)에 비록 구차이 궁지(矜持)하지 아니하나 그 일용 언동이 다 정당하게 하고 소시에 시주(詩酒)를 좋아하더니 능히 구습을 통절히 하여 한만(閒漫)한 음영(吟咏)을 하지 아니하고

酬酌人亦不輒飲其
勇於遷改多類此見
解超詣嘗論大學物
格之義其說有前人
所未究尤齋極稱其
是於書酷好心經受
用最多

又留心禮學考訂精
博嘗疏論祧廟改修
有違禮意後詢儒賢
卒以公言爲正尤喜
讀易旁及邵子經世
書多所自悟公之於
學日進而不已蓋將
以盡吾性分以究古
聖賢富有之業非如
拘儒曲士安於小成
者比則非深知

公者曷足以知之公
爲人貌癯而禮弱又
善病如不勝衣然神
精奕奕射人與之語
纒纒若貫珠叩其底
則湛然冰玉無一點
塵穢平生無匡異矯
激之行然其檢制甚
嚴視貨利若浼雖困
約無所變慎於女色
不以暗昧而弛

사람과 수작하지 아니하면 역시 술을 가까이 하
지 아니하니 그 옳기고 고치는데 용감함이 여차
하였다. 견해(見解)하는 식견이 초이(超異)하여
일찌기 대학물격지의(大學物格之義)를 론의함에
그 말이 전인(前人)이 연구하지 못한 일이 있어
서 우재가 극진히 그 이른것을 칭도(稱道)하고
그 서적에는 심경을 심히 좋아하여 수용함이 가
장 다대(多大)하고

또 예학에 유심(留心)하여 고증하기를 정밀히
하고 일찌기 조묘개수(祧廟改修)에 대하여 예의
와 상위됨을 소론(疏論)함으로 뒤에 유현에게
물어서 종내 공의 말이 정당하다고 하였고 더욱
주역(周易)을 기뻐하여 그에 방지(傍枝)로 소자
경세서(邵子經世書)에서도 자득(自得)한 일이 다
유(多有)하며 공의 문학은 날마다 나가서 그치
지 아니하므로 장차 나의 천성을 다하여 옛 성
현의 부유한 업을 연구함ियो. 구유곡토(拘儒曲
士)의 소성(小成)에 안심함이 아니니 공을 감히
아는자가 아니면 어찌 족히 알리요.

공은 외모가 수척하고 몸이 약하며 또 병이 많
아 의복을 감당하지 못하나 정신이 혁혁하여 사
람에게 비치고 서로 말하면 음성이 관옥같이 명
랑하며 그 심리를 보면 감연빙옥(湛然冰玉)으로
일점의 터럭이 없고 평생에 과격함이 없으나 그
검래(檢來)함이 심히 엄하여 재리(貨利) 보기를
몸이 더러워질까 함으로 비록 곤박(困迫)하나
변함이 없고 더욱 여색을 경계하여 암매(暗昧)
한 자리에서도 해이하지 아니하며

戒蚤喪怙恃事伯兄
如父其病也嘗糞泣
禱友群從穆宗黨訓
子姪各盡其道而尤
善事庶母與人交有
信義隨事責善見有
不正者貽書以絕之
事君忠而盡禮

考廟之喪久處外室
其郊居近寧陵日夕
瞻望悲慕每奉朝旨
或聞有行幸必下庭
致敬將命者雖賤隸
必禮之以賓焉一念
憂國不以進退致異
常以世道汚隆賢邪
用舍爲其忻戚

甲辰拜憲職上疏累
千言大要請上立志
勤學以繼先王之志
至其一段則痛陳儒
賢難進之由罄竭底
蘊皆人所忌諱者其
所指斥又皆公舊要
而終不忍以親友故
而有隱於君父因此
詆怨群起公則確然
無所悔旣久而人愈
思公言而信公心事
云

일찌기 부모 상을 당하여 백형(伯兄) 섬김을 부
모같이 하고 그 병환에 지성으로 읍도(泣禱)하
며 군중(群從)에 우애(友愛)하고 종당에 화목하
며 자질(子姪)을 교훈함에 각각 그 도를 다하고
더욱 서모(庶母)에게 선사(善事)하며 교육함에
신의를 존중하여 수사책선(隨事責善)하며 부정
한 일을 보면 글을 보내서 절교하고 사군에 충
성진례(忠誠盡禮)하였다.

효종이 승하 하매 오래 외실(外室)에 거처하고
그 교외에 처하여서는 영능(寧陵)이 가까움으로
일석(日夕) 침망비모(瞻望悲慕)하며 매양 조지
(朝旨)를 봉승(奉承)함과 행행(幸行)의 일을 들
으면 반드시 하정치경(下庭致敬)하고 명(命)을
가지고 온 자는 비록 천인이라도 반드시 예대하
고 일념우국하여 진퇴로 다름이 없고 세도오류
(世道汚隆)과 현사용사(賢邪用舍)로 그와 기뻐하
고 슬퍼하는 것을 극관하며

갑진(1644)에 헌직(憲職)을 배함에 상소 누천언
(上疏屢千言)에 대요(大要)는 상에 입지근학(立
志勤學)으로 새 선왕의 업을 계승하기를 청하고
그 일단은 감히 유현(儒賢)이 난진(難進)하는 이
유를 진달하여 그 충심을 다하였고, 기휘(忌諱)
하는 일과 지척(指斥)한 사람이 모두 공의 구일
(舊日) 친우이나 차마 친우의 연고로 군부(君父)
에게 은휘(隱諱)하지 못하니 이로 인하여 지원
(詆怨)이 봉기하다. 공은 확연히 후회하지 아니
하고 이미 오래됨에 사람이 더욱 공의 말을 생
각하고 공의 심사를 신뢰하였다.

嘗有商舶漂到其人衣冠皆華制且言正統一脈未絕朝議畏虜噴抑解于北京公移書諸宰極言其不可又作詩以傷之其眷眷宗周又如此

最公資性之美有大過人者故能蟬蛻榮塗一變至道卓然有所樹立向所稱一藝一節烏足爲公道哉公始仕承文院爲正字於藝文館自檢閱至奉教於侍講院自說書歷司書兼文學至輔德於兩司爲司諫院獻納司諫司憲府執義於吏曹爲佐郎正郎於議政府爲舍人於承政院自注書爲承旨於兵曹爲正郎參知於弘文館自修撰歷校理應教典翰至副提學常帶知製教

又嘗賜暇讀書湖堂於外爲清風仁川府使兩司玉堂最屢踐

한때에 상선(商般)이 표도(漂到)함에 그 사람의 의관이 모두 화제(華制)이고 또 말하되 정통일맥(正統一脈)이 아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니 조정의 의론이 오랑캐의 분노를 당할까 두려워 장차 북경에 압송하고자 하니 공이 즉시 제(諸) 재상에게 글을 보내서 그 불가함을 극언하고 또 시를 지어 슬퍼하니 그 종주(宗主)의 권권(眷眷)함이 이와 같았다.

공의 자성(資性)과 미덕(美德)이 오직 사람에게 더한고로 능히 영도(榮塗)를 던지고 한번 변하여 도에 이르며 탁연히 수립(樹立)함이 있으니 향일(向日)에 말한바 일예(一藝) 일절(一節)이 어찌 족히 공을 위하여 칭도(稱道)하리오.

공이 처음 사로(仕路)에 나아감에 승문원에서는 정자(正字)가 되었고 예문관에서는 검열로 부터 봉교(奉敎)에 이르고 시강원(侍講院)에서는 설서(說書), 사서(司書) 겸 문학(文學)을 거쳐서 보덕(輔德)에 이르고 양사(兩司)에서는 사간원(司諫院), 헌납(獻納), 사간(司諫), 사헌부(司憲府)에서는 집의(執義), 이조에서는 좌랑과 정랑이 되고 의정부에서는 사인(舍人)이 되고 승정원에서는 주서(注書)로부터 승지가 되고 병조에서는 정랑과 참지(參知)가 되고 홍문관에서는 수찬(修撰)으로 부터 교리, 응교, 전한(典翰)을 역임하여 부제학에 이르고 항상 지제교를 겸임하였다.

또 일찌기 호당(湖堂)에 사하(賜暇)되어 독서하였으며 외임으로는 청풍(淸風), 인천(仁川) 부사가 되었고 양사(兩舍), 옥당(玉堂)에 가장 오래

典翰承旨參知副提學俱不拜通籍踰二十年家食殆半之

公嘗得一勝區於東岡之左洞名曰靈芝穿沼築室扁以靜觀將藏修畢命於斯而天遽奪之矣使公而年其所就詎可量也吁其可惜也已所著大學集覽四禮備要聖賢通紀等書皆未及更正有文稿若干卷

公卒于己酉九月距其生 崇禎戊辰得年四十二葬在加平朝宗縣西向之原從族位也

李氏本出中華唐中郎將茂從蘇定邦東來仍仕新羅賜籍延安子孫遂爲延安人我朝文康公石亨以文章名世四世而至文忠公以文章德業有大名於世 中朝人亦稱其號曰月沙判書公號白州繼主

處(處)하고, 전한 승지, 참지, 부제학(副提學)은 다 취임하지 아니함으로 통적(通籍) 20여년에 집에 거한날이 태반이었다.

공이 일찌기 승구(勝區)를 동강지좌(東岡之左)에 얻으니 명왈(名曰), 영지동(靈芝洞)이라 지조(池照)를 영축(營築)하여 정관(靜觀)이라 편액을 걸고 장차 장수(藏修)할 자리로 정하였더니 하늘이 속히 돌아가게 하니 공에게 수한(壽限)이 있으면 그의 성취함을 어찌 헤아리리요. 가석(可惜)한 일이라 그의 저술인 대학집람(大學集覽), 사례비요(四禮備要), 성현통기(聖賢通記) 모든 서적이 다 개정(更正)되지 못하고 문고약간권(文庫若干卷)이 있다.

공이 기유(1669)년에 졸하니 그 생년인 승정 무진(1628)으로 부터의 득년(得年)은 42세이다. 가평 조종현(朝宗縣) 향유지원(向西之原)에 장사하니 선조(先兆)에 따름이다.

이씨의 본(本)은 중국에서 나왔으니 당나라 중랑장 이무(李茂)가 소정방을 따라 동으로 와서 신라에 유사(留仕)하여 적(籍)을 연안(延安)이라 사급(賜給)하므로 자손이 연안인이 되고 아조(我朝)에 문강공(文康公) 석형(石亨)이 문장으로 이듬나고 4세를 전하여 문충공(文忠公)에 이르러서는 문장 덕업으로 크게 세상에 드러나 중조인(中朝人)이 역시 그의 호를 칭하여 월사(月沙)라 하였고 판서공(判書公)의 호는 백주(白洲)이니 문맹(文孟)을 계승하여 세상에 명신이 되었다.

文盟爲世名臣母羅
州朴氏錦溪君東亮
之女公配李氏全義
別姓父曰右議政行
遠

生二男五女男喜朝
賀朝女長適李滄次
適進士金昌協卽余
子次適閔鎮厚次適
宋徵五季女未幼

喜朝嘗以公遺誌屬
余而泣曰願得公一
言而文之以爲地下
重噫公之沒朴公和
叔爲之狀而尤齋先
生爲之墓銘公之行
治靡不該矣又奚假
余文以重公然喜朝
之請不于人而于余
者匪以文也以余之
知公深於人也余能
以不文辭不能以不
知公辭遂泣而誌之
係之以銘曰

有山之蜿然有丘之
穹然 有深其泉精
光燭天有來千年人
知爲靜觀公之阡
文谷金壽恒撰

모(母) 나주박씨는 금계군(錦溪君) 동량(東亮)의 딸이요. 배(配) 이씨는 전의별성(全義別姓)이니 부친은 우의정 행원(行遠)이다.

2남5녀를 낳으니 남은 희조(喜朝), 하조(賀朝)요. 큰 딸은 이행(李滄)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진사 김창협에게 출가하니 즉 나의 아들이다. 차는 민진후(閔鎮厚) 송미오(宋徵五)에게 출가하고 계녀(季女)는 아직 어리다.

희조가 일찌기 공의 유지(遺誌)로 나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공의 한 말씀을 얻어서 지하에 중함을 원한다하니 슬프다. 공이 졸함에 박공 화숙(和叔)이 행장(行狀)을 저술하고 우재(尤齋)가 그 묘명(墓銘)을 지으니 그 행적이 소연(昭然)한데 어찌 나의 글을 얻어서 새 공을 중하게 하리요. 그러나 희조가 청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청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하는 것은 글로써 함이 아니다. 내가 공을 아는 것이 타인보다 더 함이라. 내가 능히 원문(原文)으로는 사양하나 능히 공을 알지 못한다. 사양하지 못하고 비로소 울며 지문을 쓰고 명한다.

산이 완연(蜿然)함이 있고 언덕에 궁연함이 있도다. 그 천수가 깊어서 정광이 독천(燭天)되도다. 오는 천년이 되도록 사람이 정관공(靜觀公)의 언덕인줄 알리라.

문곡 김수항 짓다.

이루(李耨)墓碣

公諱耨字季野望韓山墓癸坐循公墓而西十數步有負良之阜

阜之上有雙墓卽大司諫諱禮堅暨貞夫人金氏之藏寔公之考妣也祖僉知中樞院事諱亨增曾祖刑曹判書良度公諱叔畝

金夫人父曰從仕郎寬安內外世德具載大諫公墓碣公登上庠筮仕階宣教郎職義禁府都事

其生卒季家牒失傳然公仲兄參議公生於成化己丑年弟陰崖公生於庚子公之生其在庚寅己亥十年之間歟

陰崖庚寅曆題悼叔氏詩有傷心斗柄春

공(公)의 휘(諱)는 루(耨)이고 자(字)는 계야(季野)이며 한산(韓山)의 망족(望族)이다. 묘(墓)들이 계좌를 따라서 있는데, 공의 묘(墓)는 서쪽으로 십여보 떨어진 간좌의 언덕에 있다.

그 언덕 위에는 2개가 짝지어진 분묘가 있는데, 즉 대사간 휘 예견(禮堅)과 정부인 김씨(金氏)의 장백지지로 이 분들이 공의 고비(考妣)이다. 조(祖)는 첨지(僉知) 중추원사(中樞院事) 휘 형증(亨增)이고 증조(曾祖)는 형조판서(刑曹判書) 양도공(良度公) 휘 숙묘(叔畝)이다.

김부인(禮堅의 妣)의 아버지는 종사랑 관안(寬安)인데, 내외의 세덕(世德)에 대해서는 대간공(禮堅)의 묘갈(墓碣)에 갖추어져 있다. 공(公)은 상상(上庠)에 오르고 서사(筮仕)로 선교랑(宣教郎)이 되었으며 벼슬은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이르렀다.

그 태어남과 돌아가신 연도는 가첩(家牒)이 실전(失傳)되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공의 중형(仲兄) 참의공(參議公)이 성화(成化) 기축년(1469)에 태어났고, 동생 음애공(陰崖公)이 경자년(1480)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은 경인년(1470)과 기해년(1479)의 10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음애공이 경인년(1530)에 숙씨(叔氏)를 애도(哀悼)하는 시(詩)를 지어 상심(傷心)을 표현하

俄遷中月喪之語而
公之忌日乃十一月
十六日公之卒其在
己丑歟

公聘海州崔氏察訪
洪輔女終不育取伯
氏萬戶公介子將仕
郎稔爲後

將仕生義禁府都事
圭都事生僉正仁後
正郎裕後僉正生舍
人海昌正郎生參奉
海安郡守海寬此迺
公後承四世也嗚呼
季代遠矣

公之德性言行漠然
無徵蓋聞公兄弟孝
友篤至嘗約買田先
塋築室其老陰崖悼
公詩楓前同老計者
是也

仲氏季氏之戚人序
在阜之下而楓巖舊
基至今宛然百世千
秋公其樂斯丘歟

며 두병(斗柄: 북두칠성의 자루쪽에 있는 별 3개)이 봄에 갑자기 달 가운데로 옮겨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공의 기일(忌日)은 11월 16일이라고 하였으니 공의 졸년(卒年)은 기축년(1529)이 아닌가 짐작된다.

공(公)은 해주최씨로 찰방(察訪)을 지낸 홍보(洪輔)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죽을 때까지 자식을 기르지 못하여 백씨 만호공(萬戶公) 개(介)의 아들인 장사랑(將仕郎) 염(稔)을 취하여 후사(後嗣)를 삼았다.

장사랑(稔)은 의금부도사 규(圭)를 낳았고 도사(圭)는 첨정(僉正) 인후(仁後)와 정랑(正郎) 유후(裕後)를 낳았으며 첨정(仁後)는 사인(舍人) 해창(海昌)을 낳고 정랑(裕後)는 참봉 해안(海安)과 군수 해관(海寬)을 낳았으니, 이것이 공이 돌아가신 후 이어진 4세(四世)이다. 오호(嗚呼)라! 연대(年代)가 원예(遠裔: 遠孫)이로다.

공의 덕성(德性)과 언행(言行)은 막연(漠然)하여 징험(徵驗)할 수 없으나 대개 공의 형제들에게 들건대 효우(孝友)가 돈독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밭을 사고 선영(先塋)에 집을 지을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것은 나이 들어 음애공(陰崖公)이 슬퍼하며 공의 시(詩)를 읊은 것[楓]과 같이 나이 들어 함께하고자 한 계획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중씨(仲氏)와 계씨(季氏)의 척인(戚人: 친척)들이 차례대로 언덕의 아래에 묻히고 풍암(楓巖)의 구기(舊基)는 지금도 완연(宛然)하여 영원히 길이길이 공은 이 언덕을 즐거워하리라.

七代孫嘉善大夫司
憲府大司憲彝章謹
記

昌寧曹允亨書

皇明崇禎紀元後三
甲申 月立

7대손(七代孫)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대사헌
(司憲府大司憲) 이장(彝章)은 삼가 글을 짓고

창녕(昌寧) 조운형(曹允亨)은 글을 쓰다.

황명(皇明) 승정(崇禎) 기원후(紀元後) 3 갑신
(甲申 : 영조 40, 1764) 월 세우다.

이만성(李晩成) 神道碑

有明朝鮮資憲大夫
吏曹判書兼知義禁
府春秋館事同知
經筵成均館事五衛
都摠管 世第左副
賓客 贈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兼判
義禁府事弘文館大
提學藝文館大提學
世子貳師歸樂堂先
生李公神道碑銘并
書

兄子資憲大夫議政
府左參贊兼 世子
右賓客 緯 撰

朝奉大夫前司憲府
持平 閔遇洙 書

大匡輔國崇祿大夫
行判中樞府事 俞
拓基 篆

肅宗大王寢疾十年
薨 嗣王有疾人心
危懼國勢岌岌時舊
臣殆盡惟我仲父歸
樂堂先生忠勤正直
威望甚盛

조선국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의금부 춘추관
사 동지 경연 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세제
좌 부빈객 중 승정대부 의정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 의금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세자이사 귀락당선생 이공 신도비명 병서

형자(兄子) 자헌대부 의정부 좌참찬 겸 세자 우
빈객 재(緯) 짓고

조봉대부 전 사헌부 지평 민우수 쓰고

대광보국 승록대부 판 충추부사 유척기 전액(篆
額) 하다.

숙종대왕이 병으로 누우신지 10년만에 돌아가시
고 왕위를 이은 경종대왕이 있어 인심이 험악하
고 국세가 위태로웠다. 그때 숙종대왕의 옛 신
하들도 모두 죽었으나 오직 나의 중부(中父) 귀
락당(歸樂堂) 선생이 충근(忠勤), 정직(正直)하여
위망(威望)이 매우 높았었다.

公之存也 天意若將以擬其難而卒不免小人之禍國人哀之

今 上卽位大懲黨禍務主蕩平而在下者不善奉承於是忠逆混而世道喪矣君子謂使公在者必不若是

嗚呼公之生死關國家隆替如此夫公諱晚成字士秋嘗讀朱子歸樂堂記而心好之以名其堂故仍以爲號焉李氏出牛峰公以我祖考議政府右議政諱翻之第二子爲仲父 贈司憲府持平諱翽之後持平公與其配吳氏同時殉節於江都之難并旋門閭公長身美髯神采燁如小卓犖不羈而折節修行好讀書早舉進士性至孝親疾嘗糞禱天友於兄弟

공이 살아 있을 때에 하늘의 뜻도 장차 그로 하여금 난국을 타개 하려고 하였는데, 마침내 소인배들의 화를 면치 못하여 나랏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었다.

금상(今上: 영조대왕)이 즉위하여 크게 당파의 환란을 경계하고 당평책(蕩平策)을 썼으나 아래 사람들이 잘 받아 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충(忠)과 역(逆)이 혼돈하고 세도(世道)가 상하게 되었다. 군자(君子)들이 말하기를 만일 공이 살았더라면 이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아! 공의 생사는 국가의 성쇠와 관계됨이 이와 같았다. 공의 휘는 만성(晩成)이요 자는 사추(士秋)이다. 일찌기 주자학의 귀락당기(歸樂堂記)를 읽고 마음 속으로 좋아하여 서재의 이름으로 삼았기 때문에 호가 되었다.

이씨는 우봉(牛峯)을 관향으로 하였으니 공은 나의 할아버지 의정부 우의정 숙(翽)의 차자(次子)로 그의 중부(仲父)인 증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흠(翕)의 후계자가 되었다.

지평공은 그 배위인 오씨와 함께 병자년 강화도 함락 때 순절하여 모두 정려를 세우도록 하였다. 공은 키가 크고 수염이 아름다우며, 풍신이 밝았고 젊어서 재주가 많아 읽매임이 없었으나 나중에는 절제하여 수행(修行)하고 독서하기를 즐겨 하였다. 일찌기 진사시(進士試)에 입격(入格)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가 병이 들에 변을 맞보아 가며 하늘에 빌었으며,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였다.

己巳以後杜門自廢
以一布衣隱然有門
戶世道之望甲戌更
化除 翼陵參奉不
拜丙子文科壯元授
成均館典籍兵曹佐
郎司憲府持平知製
教

公以其叔父打愚公
酷被宵小誣讎常隱
痛不樂仕進至是首
上書白其冤不報然
自以世臣義不可不
仕仕則不可以不盡
職是以其爲臺諫必
隨事盡言

領議政柳常運與大
提學吳道一主試取
其子鳳輝公上疏言
其狀鳳輝竟削科又
論保嗇 聖躬導迪
東宮之道後宮封爵
猥多田園踰濫之失
持平李大成欲以朋
黨之目眩亂是非

公上疏引朱子之言
曰朋黨之禍止於搢
紳惡朋黨而欲去之

기사환국(己巳換局) 이후에는 문을 닫고 숨어 살면서 하나의 선비로 은연중 문호와 세도(世道)에 여망(餘望)이 있더니, 갑술옥사(甲戌獄事) 이후에는 익능참봉(翼陵參奉)에 제수 되었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병자(1696)년에 문과(文科) 장원하여 성균관 전적(典籍)에 제수되고 이어 병조의 좌랑,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지제교(知製教)가 되었다.

공은 숙부인 타우공(打遇公)이 소인(小人)들의 혹독한 무함(誣陷)에 빠졌기 때문에 항상 가슴 아프게 여겨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먼저 상소하여 그 원통함을 아뢰었지만 효력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신(世臣)의 의리상 벼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벼슬하면 직분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간(大諫)이 되어서는 반드시 일에 따라 말을 다 하였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대제학(大提學) 오도일(吳道一)과 함께 과거의 시험을 주관하여 그 아들 봉휘(鳳輝)를 선발하자 공이 상소하여 그 실상을 말함에 봉휘는 마침내 삭과가 되었다.

성궁(聖躬)을 아끼고 동궁(東宮)을 인도하는 길을 논(論)하고 후궁의 봉작(封爵)에는 전원(田園)을 너무 지나치게 하사하는 폐단을 논하니 지평(持平) 이대성(李大成)이 봉당으로 지적(指摘) 시비를 현란하게 하였다.

공은 상소하여 주자의 “봉당(朋黨)의 화는 진신에게 그치는 것인데 봉당을 싫어하여 버리고자 한다면 지금 대성의 사정(邪正)을 가리지 않고

者其國必亡今大成乃欲不分邪正混而爲一謂可以助平明之治此小人自謀之言非國之福也

除弘文館副敎理連爲修撰敎理應敎吏曹佐郎執義司諫院司諫 世子司書兼文學輔德宗簿寺正 往往迫而後出

甲申擢承政院同副承旨移吏曹參議大司成兵戶曹參議丙戌以刑房承旨參鞫李潛其冬陞嘉善大夫同知義禁府使治林溥獄

尋拜禮戶曹參判漢城府左右尹大司憲兼備局槐院提調嘗大旱公力伸直臣李東彥之冤忤 旨免

己丑領議政崔錫鼎爲禮記類編變亂朱子章句太學諸生將上疏攻之

뒤섞어 하나로 하고자 하니, 평명(平明)한 치세를 돕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소인들이 스스로를 띄우는 것이요. 나라의 흥복은 아닙니다” 하였다.

이어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되고 계속 사간(司諫), 세자사서(世子司書) 겸, 문학(文學) 보덕(輔德), 종부시정(宗簿寺正)이 되었고, 가끔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와 관서로 옮겨다.

갑신년(1704)에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고 이조참의(吏曹參議), 대사성(大司成), 병조, 호조참의에 옮겨다. 병술(1706)에 형방승지(刑房承旨)로서 이잠(李潛)을 국문하는데 참여하였고 그해 겨울에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로 올라가 임부(林簿)의 옥사를 다스렸다.

얼마 있다가 다시 예조·호조참판, 한성부, 좌·우윤(左右尹), 대사헌(大司憲)겸 비국(備局), 승문원(承文院) 제조에 임명되었다. 일찌기 크게 가뭄을 당하여 공은 직신(直臣) 이동언(李東彦)의 원옥(冤獄)을 해명하였지만 왕의 뜻을 거슬러 면직되기도 하였다.

기축년(1709)에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예기류편(禮記類編)>이란 책을 만들어 주자(朱子)의 장구(章句)를 변란(變亂) 시키니 태학(太學)의 제생(諸生)들이 상소하여 그를 공격하였다.

上聞而斥黜之公以大司成上章痛陳錫鼎之罪略曰道莫高於聖賢書莫尊於經傳而敢以一人粗淺之見擅自更改此斯文之大變且士論之重非人主之勢所可與奪而殿下摧折太暴是自戕其元氣也其爲錫鼎地則至矣奈國家何上震怒命盡革其本兼職旋削爵秩

公屏居郊外明年上悔悟遂取類編書焚之還叙公拜吏曹參判會有海寇警以命巡撫湖西察民隱疏冤獄禮賢士詰戎備奏設杭金鎮安興防營修上黨城池

還入吏曹兼同知經筵世子賓客癸巳相臣李滈等請上尊號公引劉敞言曰復加數字不足以盡聖德而前美并棄願上勿受

상께서 들으시고 공을 척출하매, 공은 대사성으로서 상소하여 최석정의 죄를 통렬히 진술하니 대략 이러하였다.

「도(道)는 성현보다 더 높은 차가 없고 책은 경전(經典)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는데 감히 한 사람의 얕은 견해를 가지고 마음대로 바꾸니, 이것은 사문(斯文)의 대변(大變)이다. 또한 사론의 중함은 인주(人主)의 위세로도 주고 뺏는 것이 아닌데 전하께서 사기(士氣)를 꺾음이 너무 지나치니, 이것은 스스로 그 원기(元氣)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석정을 위하는대는 지극하나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상(上)이 진노하여 그의 본직과 겸직을 모두 바꾸도록 하고 곧 이어 벼슬을 삭탈하였다.

공은 물러나와 교외에서 살았다. 명년에 상께서 후회하여 결국 <예기류편>이란 책을 취하여 불사르고, 다시 공을 이조참판에 제수 하시었다.

마침 왜관(倭館)의 경보(警報)가 있어 왕명으로 충청도를 순시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의 숨은 고통을 살피고 원옥을 처리하며, 현사(賢士)를 예우하고 병비(兵備)를 확인하며, 황금(杭岑)의 진보(鎭堡)와 안흥(安興)의 방비를 설치하고 청주의 성지(城池)를 영수(營修)할 것을 아뢰었다.

다시 들어와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세자빈객(世子賓客)이 되었다. 계사(1713)년에 상신(相臣) 이유(李滈)등이 상(上)의 존호(尊號)를 올릴 것을 청하였다. 공은 유창(劉敞)의 말을 인용(引用)하여 “다시 글 몇 글자를 첨가해도 성덕(聖德)의 미칭(美稱)을 다할 수 없는데, 전날에 올린 미칭을 모두 버리니 상께서는 받지 마소서”라고 아뢰었다.

仍不赴廷請復以疏
申前說尋又有 御
容圖寫之役公於講
筵以懋實獻戒時

上疾彌留藥院并直
公爲都承旨憂形於
色語或流涕屢以觀
理忘怒節宣靜攝之
要言于 上上爲之
嘉歎既而用侍藥勞
加嘉義歷刑兵曹參
判副提學同知成均
館事

丙申由京畿監司陞
刑曹判書移吏曹公
爲亞銓者十至是嚴
銓法杜倖門振淹滯
政路肅清翼年從
幸溫泉因湖儒言大
臣白雪打愚公冤
特命賜祭

公以疏陳謝遞拜禮
曹丁本生繼妣憂公
年衰而執禮愈固及
吉除工曹判書改兵
曹申明紀律恢張公
道士皆悅服

이로 인하여 조정에 나아가지 않고 다시 상소하
여 앞의 말을 거듭 청하였다. 얼마 있다가 또
어용(御容)을 그리는 일이 있었는데 공이 강연
(講筵)에서 실지(實地)에 힘쓰고 천계(天戒)를
힘쓸 것을 아뢰었다.

상께서 환후(患候)가 더하여 약원(藥院)에서 숙
직할 때 공은 도승지(都承旨)가 되어 근심하는
얼굴 빛으로 눈물지으며 아뢰기를 여러번 사리
(事理)를 잘 파악하고 화내는 일을 억제하며 고
요하게 몸을 조섭(調攝)하는 요점을 상께 말씀
드리니 상이 가탄(嘉歎)하여 마지 않았다.

얼마 있다가 시약(侍藥)의 노고로 가의대부(嘉
義大夫)에 올랐으며, 형조, 병조참판 부제학 동
지성군관사를 역임하였다.

병신년(1716)에 경기감사에서 형조판서에 오르
고 다시 이조(吏曹)에 옮겼다. 공은 이조참판에
열번이나 취임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더욱 인사
의 법을 엄하게 하여 부정을 막고 적체된 일을
소통시키니 정로(正路)가 깨끗하여졌다. 이듬해
상(上)의 온천 거동을 따라 갔다가 충청도 유신
들이 대신에게 말하여 타우공(打愚公)의 원통한
일을 씻어줄 것을 아뢰니 상이 특명으로 사제
(賜祭)하도록 하였다.

공은 상소하여 사례하고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옮겼다. 본생(本生) 계비(繼妣)의 상을 당하니
공은 나아가 쇠(衰)하였지만 예를 굳게 지키고
길제(吉祭)를 다하여 상복을 벗었다. 공조판서가
되었다가 다시 병조로 옮겨 기율(紀律)을 거듭
밝히고 공도를 어긋나지 않게 하므로 선비들이
모두 열복하였다.

新營號大將私帑而毫髮無所費庫藏充溢庚子 上疾大漸公止宿省中危疑百端蜚語交煽而處之毅然中外咸倚信焉

每哭臨廷中公端坐烈日下不少動山陵畢連判刑曹漢城府莅事勤而守法嚴兼知春秋館事以上未能躬行饋奠每至誠規諫且請頻接臣僚不省

翼年復判兵曹時上久無嗣公嘗主豫建之議及是從諸大臣入對稟 慈旨冊今 上爲世弟於是兇黨益疾之公之禍實本於此李森曾自請於公爲湖西節度而森方爲羣奸囹故公因以出之

是年冬賊臣金一鏡等七人與宦者朴尙儉通計謀上急書朝廷一空公亦被削旋

신영(新營)은 대장들의 사고(私庫)라 하였으나 공이 판서가 되어서는 추호도 허비하지 못하고 창고에는 항상 물품이 넘쳤다. 경자(1720)에 상의 환후가 몹시 더함에 공은 췌내에서 잠을 잤다. 모든일이 위태하고 유언비어가 성행했지만, 공은 의연(毅然)히 처하므로 중외가 모두 의지하였다.

매양 정중(廷中)에서 곡(哭)할 때는 단정하게 뜨거운 햇볕 아래에 앉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산릉(山陵)을 마치고 곧 형조판서, 한성부판윤이 되어서는 성실하게 근무하고 엄하게 법을 지켰으며 겸 지춘추관사(兼·知春秋館事), 외직책으로서는 경종이 몸소 궤전(饋奠)을 행하지 않음을 지성껏 규간(規諫)하고, 또 신료들을 자주 접하도록 아뢰었으나 인사불성(人事不省)이었다.

이듬해에 다시 병조판서가 되었다. 그때 상(上)은 오래도록 후사가 없어 공(公)이 일찌기 세자를 미리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이르러 대신들을 따라 입대하고 대행왕비(大行王妃)의 자지(慈旨)를 받들어 금상(今上) 영조(英祖)를 책봉하여 세제(世第)를 삼으니 흉당(兇堂)들이 더욱 공을 미워함에 화가 여기서 비롯하였다. 이삼(李森)이 일찌기 공에게 호서절도사(湖西節度使)가 되기를 자청했었다. 삼(森)이 이에 여러 간신들의 매개(媒介)가 되어 공이 이때문에 조정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 해 겨울에 적신(賊臣), 김일경(金一境) 등 7인의 환관(宦官), 박상검(朴尙儉)과 통모(通謀)하여 상께 급히 글을 올려 조정을 비도록 만드니 공도 삭탈관직되어 부안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謫扶安公聞 命就
道無幾微色至白馬
江陷冰漸自誦唐子
方詩

其在謫也日讀論語
禍機漸迫而猶不輟
曰朝聞夕死可矣

壬寅夏誣獄大起士
大夫多戮死三大臣
已受後 命公次第
將及而羣兇無以爲
罪乃引出森事構捏
之公遂被逮臨行神
氣自若無一言及後
計家人請面訣不許
及就對一以實兇徒
議讞亦曰無可問於
是鳳輝輩嗾李普昱
請更問

又謂公以四大臣聯
筭爲 宗社大計遂
添一案公由是不能
出獄門竟以疾卒於
八月十五日春秋六
十四今 上元年命
復官賜祭又贈職

공은 이 말을 듣고 길을 떠났지만 조금도 언짢아 하는 기색이 없었다. 백마강(白馬江)에 이르러서는 내려오는 얼음에 시달렸지만 스스로 당(唐)자방(子方)의 시만 외웠다.

적지(謫地)에 있으면서 날마다 논어(論語)를 읽었고 화기가 점점 압박하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말하기를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가하다”고 하였다.

임인년 여름에 무욕이 크게 일어나 사대부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삼대신(三大臣), 김창집(金昌集), 이신명(李頤命), 조태채(趙泰采)가 이미 후명(後命)을 받았다. 공의 차례가 닳아옴에 군흉(群凶)들은 죄를 만들 수 없어 이삼의 일을 인용하여 날조 하였다. 공은 체포되어 길을 떠남에 신기(神氣)가 자약(自若)하였고, 한마디의 말도 뒷날의 일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으며, 집사람들이 한번 만나기를 청하였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흉도(兇徒)들이 의논하여 말하기를 “몰을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유봉휘(柳鳳輝)의 무리들이 이보옥(李普昱)을 사주하여 다시 조사하기를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공은 4대신(四大臣)으로서 연차(聯筭)하여 종사의 대계(大計)를 모획(謀劃)하였다하여 한가지의 죄안(罪案)을 더 첨부하였다.

공은 이 때문에 옥문(獄門)을 나가지 못하고 마침내 병으로 8월 15일에 세상을 마쳤으니 춘추 64세였다. 금상(今上) 영조 원년에 왕명으로 관작(官爵)이 회복되고 사제(賜祭) 증직(贈職)되었다.

又 教曰諸臣中惟
李某尤爲冤酷錄用
其子孫且以森及前
後禍公者并投之邊
公始葬水原戊申遷
于龍仁泉洞之先兆

夫人安東金氏祔領
議政壽興之女男絳
進士壯元仕爲正郎
以孝旌閭 贈執義
女適進士金星澤後
夫人延安金氏奉事
滯女女適柳得養庶
女壻進士尹勸

公忠信敦確中寬外
直雖不切切於問學
之功而平生行事無
不可對人言者與人
無賢愚貴賤一以誠
意待之而

尤篤於故舊不遺疏
逖睦於親戚待以舉
火者十數家平居嚴
恭自持未嘗敲臥取
便至老不衰喜看朱
子書自警編雅意邱
壑嘗築亭於西湖義
有不可輒奉身而退
漁釣以自適

또 전교 하기를 “제신(諸臣) 중에 오직 이만성(李晩成)이 가장 원통하니, 그의 자손들을 등용하도록 하고 또 이삼(李森)을 비롯하여 전·후공(公)이 화를 당하도록 한 사람들을 모두 유배하라” 하시었다. 공은 처음에 수원(水原)에 장사지냈다가 무신년(1728)인 영조 4년에 용인 천동(泉洞)의 선영 곁으로 옮겼다.

부인은 안동 김씨이니 합장 하였고 영의정 수흥(壽興)의 따님이다.

아들은 구(絳)이니 진사시(進士試)에 장원하였고 정랑(正郎)에 증직 하였다. 딸은 진사 김성택(金星澤)에게 출가 하였다. 후부인(後夫人)은 연안 김씨니 봉사(奉事) 정(淵)의 따님이시다. 딸은 유득양(柳得養)에게 출가하고 서녀(庶女)의 사위는 진사 윤심(尹翹)이다.

공은 충성스럽고 믿음직하며, 마음이 굳고 너그러웠으며 외면(外面)이 곧았다.

학문(學文)의 공(功)에는 특이함이 없었지만 평생 동안 한 일은 사람을 대하여 말하지 못할 것이 없었고 사람을 상대함에 현우(賢愚)과 귀천(遺賤)이 없이 모두 성의(誠意)로 다하였다.

더욱 친구에게 도답게 하며, 소원(疏遠)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다. 친척과 화목하여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10여가(十餘家)나 되었다. 일찌기 편한대를 취하여 기대거나 눕지 않았고, 늙도록 게을리 하지 않았다.

주자서(朱子書)의 자경편(自警編) 보기를 좋아하고 본래 산천을 좋아하여 서호(西湖)에 정자를 지어놓고 의리상(義理上) 불가한 일이면 물러나와 낚시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又躬稼力穡以儉勤
爲本其事 君忠愛
懇至見一政之善則
喜而不寐一事之失
則憂歎竟夕謀國務
持重不喜紛更臨事
亢厲不少屈動與廟
堂牴牾每勸

上公好惡絕偏私爲
出治之要且以阿順
苟合爲深恥宮掖近
習痛繩以法無所饒
貸 上亦嚴憚之尤
於陰陽是非之辨界
限甚嚴不爲方便牢
籠之術信己以行不
他顧也

是以蔚然爲一時善
類之宗主而亦以此
不免焉嗚呼痛哉絳
少孤學於公拊育責
厲俾至成立今老病
且死猥以文字紀公
之績懼不足以盡公
之德乃採於士大夫
之誦之銘曰

또 몸소 농사를 지으면서 검소하고 부지런 함으로
기본을 삼고 임금을 섬김에는 충성과 사랑이 지극
하였으며, 한가지 정사(政事)라도 좋은 일이 있으
면 기뻐서 자지 못하고 한가지 일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밤을 새웠다.
나랏일을 피하는데는 진중하게 하는데 힘쓰고
지저분하고 지친 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일에 임
해서는 굳세게 움직여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묘당(廟堂)에서 의견이 맞지않아 다투는 일이
있으면 항상 상에게 좋아하고 싫어하기를 공적
(公的)인 입장에서 하고 편협되고 사사로움을
버리는 것으로 치인(治人)하는 요지(要旨)를 삼
을것을 권하였다.

또 남의 비위나 맞춰 구차히 합하는 것을 부끄
럽게 여겨 궁중의 하예(下隸)나 근습(近習)이라
도 법으로 다스려 용서함이 없음에 상께서도 엄
중하게 여기고 꺼렸다.

음양(陰陽), 시비(是非)의 분변(分辨)에 있어서는
더욱 한계가 엄하여 편한대로 총애나 받는 술책
따위는 하지 않고 자기의 신조대로 행하여 남을
돌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위연(蔚然)히 일시선류(一時善類)들의
종주(宗主)가 되었고, 이 때문에 화를 면치 못하
였다. 아 슬프다. 재(絳)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공에게 배워 커가면서 꾸지람과 격려를 받아 성
립(成立)하기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 외람되게 문자로 공의 공적을 기
록함에 공의 덕을 다 기록하지 못할까 두려워
하며, 사림들의 칭송을 토대로 명(銘)한다.

掎與仲父實惟我師
 忠信正直明白坦夷
 爲臣盡節王國是毗
 蹇蹇匪躬行峻言危
 天運艱難有平則陂
 危疑之際躋豕非羸
 亂況斯迫大夫其離
 公如一柱屹然自持
 豫建之策是爲禍基
 悠悠南征風雪載霏
 六月歛輶復輿又馳
 蕭傳之剛於分匪宜
 北寺之冤今古所悲
 羣小相賀上穹何知
 天地之氣直以大猗
 浩然無愧公則以之
 是命之正其行不疑
 泉谷之原有豐其碑
 最凡攷實小子爲詩
 輿人之誦非爲吾私
 崇禎後再甲申子八
 月 日

아! 나의 중부(仲夫)는 진실로 나의 스승이라. 충신이 있고 정직하며 명백하고 평탄 하였도다. 신하가 되어 절개를 다하니 나라를 도와 일하였네. 애써 일함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준엄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였네. 천운(天運)이 간난(艱難)하여 평탄(平坦)하면 험(險)해지니, 위태로울 때에는 사나운 돼지가 파괴하지 않았도다. 어지러운 세상이 박두함에 대부분은 떠났지만 공은 하나의 기둥이 되어 높이 서 있었도다. 미리 세자를 세운 일이 화근이 되어서 유유히 남으로 귀양가니 충설(風雪)이 어지럽게 날렸도다. 유월(有月)염천(炎天)에 함거(檻車)가 달려오니 숙전(蕭傳)의 강직함은 분수에 양맞던가? 북사(北寺)의 원통함은 고금의 슬픈바라. 군소(群小)들은 하례하나 하늘이 어이 알랴. 천지의 큰 기운은 곧은것이 으뜸이라 호연(浩然)한 기운 떳떳할 뿐인데, 공은 이렇게 살아가니. 천명(天命)의 바른 길이요. 의심없는 행지(行止)로다. 천곡(泉谷) 언덕위에 큰 비를 세웠어라. 사실대로 상고하여 소자(小子)가 지은 시(詩) 여인(輿人)들의 칭송이요. 사사로운 내 말이 아니어라.

승정기원 재갑신(1704) 8월 일.

이만징(李晩徵) 墓誌

別提公李晩徵墓誌

余自幼從別提叔遊
情好甚至若不能頃
刻離者然叔之歿忽
已十有七禩而人事
之變有不可勝言者
矣

我曾王考晩悔府君
有庶子曰進士翬叔
其長子名晩徵可久
字辛酉進士嘗爲鷹
師尋棄去晩得天文
學教授

遷司畜署別提司畜
舊無廡 肅廟輪對
面陳狀特賜城南一
區其能職如此

以 崇禎己亥四月
二十八日生歿於丙
戌九月十九日叔長
身美髯眉目瑩朗慈
良樂易與之處久益
可愛咳唾談笑

別제공(別提公) 이만징(李晩徵) 묘지(墓誌)

나는 어려서부터 별제공(別提公) 숙부(叔父)를
쫓아 놀며 정호(情好: 두터운 정의)가 매우 깊어
경각(頃刻)이라도 능히 떨어질 수 없었는데 숙
부의 몰홀(歿忽: 죽음)이 벌써 17번이나 제사를
지냈으니 사람의 일에 있어서 변화라는 것은 가
히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로다.

우리 증왕고 만회부군은 서자가 있었으니 진사
(進士) 휘(翬)이며 숙부는 그 장자(長子)이다. 이
름은 만징(晩徵)이고 가구(可久)는 그 자(字)이
다. 신유년(숙종 7년) 진사시에 합격하여 일찍이
옹사(鷹師)가 되었으나 다시 이를 버리고 만년
에 천문학교수(天文學教授)가 되었다.

사축서별제(司畜署別提)로 옮겼는데, 사축서(司
畜署)는 옛날부터 공해(公廡)가 없었으나 숙묘
때 윤대(輪對)할 때 상소(上疏)를 올려 특별히
성(城) 남쪽 한 곁에 자리를 얻었으니 그 직임
(職任)을 수행함이 이와 같았다.

송정(崇禎) 기해년(1659년) 4월 28일 출생하여 병
술년 9월 19일 돌아가셨는데, 숙부께서는 큰 키
에 아름다운 구레나루 수염을 지나셨고 미목(眉
目)은 형량(밝음)하고 자양(慈良)하였다. 『주역
(周易)』을 즐겨하여 이와 함께할 만한 곳이
있으면 오래도록 하였고 해타(咳唾)와 담소(談
笑)함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才致溢發少工駢儷
卒無成凡有憂愁無
聯一寓於詩率意口
呼輒有警發語往往
裸體露頂人或駭矚
而

內實謹恭忽又拊掌
高叫異泄其志氣豈
中有不平者存歟聰
明絕人淹穿諸家如
星象堪輿之屬雖不
屑爲而自能透悟

一日從容謂余曰壬
寅之歲子有明夷之
厄不知世道如何我
則不及見矣及余竄
伏窮峽默念前言鑿
鑿符合嗚呼一何神
也

叔再娶青松沈氏某
之女光山金氏沙溪
文元先生之庶孫皆
無育取其仲晚膺子
綽子之綽二男一女
幼

進士公墓在龍仁廉
退洞叔葬其下記叔
又嘗語余曰我死子

재주는 넘칠때로 넘쳐 조금만 드러내도 병려(駢儷)를 이루었고 갑자기 이루지 못하면 우수하곤 하였다. 시(詩)에 있어서는 한마디라도 붙일 연구(聯句)가 없이 뜻을 좇아 입으로 즉시 말하면 사람들은 번번히 놀라며 말을 하였고, 왕왕 몸에 신(神)이 내려 머리 위에 나타나니 사람들은 혹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내실(內實)은 삼가고 공손하였으니 홀연히 또 손바닥을 가볍게 치며 고규(高叫: 큰 소리)가 튀어 나와도 그 지기를 어찌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총명(聰明)하고 절인(絶人)하여 제가(諸家)들과 엄천함이 성상(星象)이 감여(堪輿)에 속하는 것과 같았다. 비록 불설(不屑)이라 하여도 스스로 꿰뚫어 깨달음에 능하였다.

하루는 종용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임인지세(경종 2년)에 그대는 명이의 재앙이 있으니 세도(世道)를 알지 못함이 어찌하여 이와 같으는가. 나는 드러내지 못하겠도다”라고 하였다. 내가 궁협(窮峽)에 찬복(竄伏)하여 예전에 하신 말씀을 묵념(默念)하니 착착(鑿鑿)하게 부합(符合)함에 오호(嗚呼)라! 모두가 어찌 신(神)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숙부는 재취(再娶)하였는데 청송심씨는 모(某)의 따님이고 광산김씨는 사계(沙溪) 문원선생(文元先生: 金長生)의 서손(庶孫)이다. 모두 자식을 기르지 못하여 그 둘째 동생 만옹(晩膺)의 아들 작(綽)으로 후사를 이었다. 작(綽)은 2남 1년을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진사공의 묘소는 용인 염퇴동(廉退洞)에 있는데, 숙부는 그 아래에 장례하였다. 기억하기를 숙부가 또 일찍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

必銘我余視爲戲言
豈亦前知之一端耶
略敘平昔知見以塞
宿言而感念存沒重
爲之涕涕云

陶菴李緯撰

면 네가 반드시 명(銘)을 지어달라”고 하시며
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희언(戲言)을 하였는데,
어찌 또한 전지(前知)의 일단이 아니겠는가! 평
생(平生)을 간략히 서술하여 지견(知見)으로 오
랜 이야기들을 막아버리고 존몰(存沒)을 생각하
니 흐느낌이 계속되어 눈물만 흐르노라.

도암(陶菴) 이재(李緯)는 글을 짓다.

이만창(李晩昌) 墓誌

府君諱晩昌字士夏
我李出牛峰始祖公
靖高麗侍中入國朝
觀察使吉培以循良
聞其孫禮曹判書承
健用直道忤燕山君
禍及身後是生司議
諱諶生副提學諱之
信生 贈左贊成諱
劼

生諱有謙戶曹參議
贈領議政號晩悔
仁祖癸亥起布衣除
縣宰德行經術矜式
士林有五丈夫子第
四諱翻議政府右議
政孝友忠直爲國盡
臣府君其長男也

妣羅州朴氏僉中樞
贈判書諱濠之女觀
察使南郭東說之孫
議政府君少從婦家
寓居湖南之扶安府
以我 孝宗五年甲
午九月己亥生于柳
川村舍

부군(府君)의 휘(諱)는 만창(晩昌)이고 자(字)는 사하(士夏)이다. 우리 이씨는 우봉에서 시작되었으니 시조 공정(公靖)은 고려시대에 시중(侍中)을 지냈다. 국조에 들어와서는 관찰사 길배(吉培)가 순양(清白史)으로써 명성이 있었고 그 손자 예조판서 승건(承健)은 직도(直道)를 주장하다가 거슬림을 당해 연산군 때의 화를 당했다. 이분이 사의(司議) 휘(諱) 심(諶)이 부제학 휘(諱) 지신(之信)을 낳았으며, 지신(之信)이 좌찬성으로 증직된 휘(諱) 할(劼)을 낳았다.

할(劼)은 휘 유겸(有謙)을 낳았으니 호조참판을 지내고 영의정에 증직되었으며 호는 만회(晩悔)이다. 인조 계해년(인조 1년) 포의(布衣)로 천거되어 현재를 제수하였는데, 덕행과 경술(經術), 그리고 공식은 사림들에게 오장부자(五丈夫子)라고 불렸다. 그 제 4남은 휘가 숙(翻)으로 의정부 우의정을 역임하였으며 효우와 충직으로 국가의 진신이 되었는데 부군은 그 장남이다.

비는 나주박씨로 첨중추를 지내고 판서로 증직된 휘(諱)는 호(濠)의 따님이고 관찰사를 역임한 남곽(南郭) 동열(東說)의 손녀이다. 의정부군(李翻)께서는 젊어서부터 처가를 좇아 호남의 부안에서 우거하였는데, 부군(府君)께서는 우리 효종(孝宗) 5년 갑오년 9월 기해일 유천촌사(柳川村舍)에서 태어났다.

學語便識字受學於
晚悔公未十歲盡通
經史晚悔公奇愛之
曰大吾門者必是兒
也及長出遊場屋屢
屈曹偶文名藹蔚

乙卯司馬詩卷居上
頭而凶黨方得志屈
置第二等庚申以後
議政府君兄弟連處
權要門戶隆懨而府
君退然自守不喜交
遊以至韎韐象胥之
徒鮮或識其面者

府君聰明絕人看書
十行俱下最好朱子
綱目舉口成誦人有
叩其事實則輒指之
曰此在某編某板罔

或差失爲文沉鬱紆
餘而長於駢麗操筆
立就所作多膾炙人

말을 배우고 글자를 익히는 것은 만회공(李有謙)에게 수학하여 10세가 되기도 전에 경사(經史)를 거의 통달하여 만회공께서는 이를 매우 기특하고도 어여뻐 여기며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안을 크게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성장하면서는 장옥(科場)을 출유(出遊: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놀)하여 여러차례나 낙방하였으나 문명(文名)을 조우(曹偶: 同輩)함이 애위(謫蔚: 초목이 무성함)하였다.

을묘년(숙종 1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시권(詩卷)이 상위(上位)에 올랐으나 흥당들이 바야흐로 득세하고 있을 때로 그 뜻이 격이어 2등으로 합격하게 되었다. 경신년(숙종 6년) 이후 의정부군 형제는 권요(權要)한 집안과 연거퍼 처대(處待)하게 되어 문호(門戶)가 융혁(隆懨)하게 되었으나 부군(府君)께서는 퇴연(退然)히 스스로의 분수를 지키며 교유함을 즐거히하지 않아 매첩(韎韐: 가죽의 슬갑)이나 상서(譯官)의 무리들이 간혹 이르러도 그 얼굴을 아는 자는 거의 없었다.

부군(府君)은 총명(聰明)함이 절인(絶人)하여 책을 봄에도 십행구하(十行俱下)하였고 『주자강목(朱子綱目)』을 가장 좋아하여 입으로 이것을 암송하면 사람들은 그 사실을 고두(叩頭: 머리를 조아림)하였는데, 문득 이를 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모편(某編)에 있고 모판(某板)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혹 문장에 어긋나거나 틀리는 실수를 하면 침울(沈鬱)하면서도 우여(紆餘)하였고 병려(駢麗)에 능하여 조필(操筆)하여 취정(就正: 詩文에 添削

口素性勤篤終日閉
戶非讀書則寫書未
嘗斯須少怠人謂朝
暮且一第榜出每譁
然稱屈

廣州新置留守議政
府君首膺是命府君
隨往偶感疾卒於府
舍時甲子七月十七
日也年僅三十一無
知不知莫不嗟惜葬
於龍仁寒泉晚悔公
墓之右崗議政府君
陳章乞越疆觀葬
上許之

夫人驪興閔氏後府
君四十五年卒而合
祔別有誌一男緯緯
娶海州吳氏判書忠
貞公斗寅女無育繼
娶南陽洪氏僉正禹
賢女男錫百有雋才
八歲而夭次濟遠文
科弘文館校理女適
參奉俞彥欽濟遠子
曰木曰禾其餘男女
皆幼

을 함)한 작품이 많아 사람들에게 회자인구(膾炙人口) 되었다. 소성(素性)은 근독(勤篤)하여 종일토록 문을 닫고 책을 읽지 않으면 글씨를 썼고 일찍이 사수(斯須)이라도 조그마한 게으름도 없었으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장 처음 붙는 방문(榜文)이라”고 하였고 외출할 때는 매양 화연(譁然: 떠들썩한 모양)하여도 굴신(屈身: 겸사함)하였다.

광주에 유수부가 새로 설치될 때 의정부군은 가장 먼저 그 명에 응하였는데, 부군(府君)은 뒤따라갔다가 우연히 병에 걸려 부사(府舍)에서 돌아가시니 이때는 갑자년(숙종 10년) 7월 17일이었으며 나이 겨우 31세였으니 탄식하고 애석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용인(龍仁) 한천(寒泉) 만회공(晩悔公: 李有謙)의 묘소(墓所) 오른쪽 구릉에 장례하였는데, 의정부군(議政府君)께서 글로써 경계를 넘어 장례할 것을 청함에 왕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부인은 여흥민씨로 부군(府君)보다 45년 늦게 돌아갔으며 함께 부장(祔葬)하였고 별도의 묘지(墓誌)가 있다.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재(緯)이다. 재는 해주오씨로 판서를 지낸 충정공(忠貞公) 두인(斗寅)의 따님과 혼인하였으나 자식을 기르지 못하였다. 계배로 남양홍씨는 첨정을 지낸 우현(禹賢)의 따님과 혼인하여 아들을 두었으니 석백(錫百)으로 영특한 재주가 있었으나 8세 때 요절하였고, 다음은 제원(濟遠)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교리로 있으며 딸은 참봉 유언흙(俞彦欽)에게 출가하였다. 제원(濟遠)의 아들로는 목(木)과 화(禾)가 있고 그 나머지의 남녀는 모두 어리다.

府君天姿仁孝無一毫違拂親意和色婉容左右服勤議政府君語及府君輒曰吾孝子孝子人不間於其言

平生不折一方長殺一昆蟲議政府君喜曰是與吾性合者以是遠近親黨咸愛而親之雖在觀志之時而德意已周洽矣

絳生而無乳得遠方婢飼之令其夫將子以歸府君終夕惻然曰食已子而飢人之子豈仁人所可忍耶

府君於物泊然無所嗜惟喜酒而亦能溫克與人交襟懷坦蕩絕無表襮人謂不失赤子之心而內實沉毅有識度雖身在布素而常以世道生民

부군(府君)은 천자(天姿)가 어질고 효성스러워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부모의 뜻에 어긋나거나 거스름이 없었고 화색(和色)과 완용(婉容)은 좌우에서 모두 복근(服勤)하였다. 의정부군은 말을 하다가 말이 부군(府君)에게 미치면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우리 효자요 효자로다”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말에 한치의 틈도 끼어들 수 없었다.

평생 한가지의 방장(方長)을 꺾거나 한 마리의 곤충이라도 죽이는 것이 없었는데 의정부군께서는 이를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와 더불어 성품(性品)이 같은 것이로다”라고 하여 이로써 원근(遠近)의 친당(친척)들이 모두 어여뻐 여기고 사랑하였고 비록 뜻을 나타낼 때라 하더라도 덕의(德意)가 널리 두루 미쳤다.

재(絳)는 태어나면서부터 젖을 먹지 못하고 먼 곳으로부터 노비들의 젖동냥을 얻어 장차 아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부군(府君)께서는 늦은 저녁까지도 측연(惻然:가엾게 여겨 속을 태우는 모양)해 하며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먹이니 다른 사람의 자식이 굶주리니 어찌 인인(仁人:仁者)으로서 참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부군(府君)은 재물에 있어서는 박연(泊然)하였고 특별히 기호(嗜好)하는 것도 없이 오직 술 마시기만을 좋아하였으며 또한 능히 온극(溫克)하였다. 사람들과 더불어 교유함에는 금회(襟懷:마음속)이 탄탕(坦蕩)하여 표정이 겉으로 들어남이 거의 없어 사람들이 이르기를 “적자지심(赤子之心)을 잃지 않고 내실(內實)이 침의(沉毅)하며 식도(識度)가 있어 비록 몸은 포소(布素:즉

爲心且嚴於淑慝之辨

議政府君倚重之每事與議遇刑獄疑處或令草其判辭晨昏之助蓋多有焉府君之弟判書晚成觀察使晚堅接武榮塗每相語以爲如吾兄才德而不幸短折吾輩乃忝竊至此耶

及綽再擢高科猥主文柄人曰非子之才乃不食之報也 肅廟己亥贈府君吏曹判書今 上己未加贈判書以綽推恩也

綽五歲而府君見背猶能記氣貌溫厚而至如平昔可見之行僅得於家庭遺聞略加採摭以納幽壙昊天罔極

陶菴 李綽撰

벼슬을 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에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세도(世道)로써 생민(生民)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며 또 숙특지변(淑慝之辨: 선행과 악행을 가리는 변론)에 엄정하였다”고 하였다.

의정부군(議政府君)께서는 이를 의중하게 여겨 매양 일이 생기면 더불어 의논하였고 형옥(刑獄)이 있으면 그 처리할 바를 헤아리게 하여 혹 그 판결에 대한 초문(草文)도 작성케 하여 신혼(晨昏: 밤낮)의 도움이 대개 이와 같이 많았다. 부군(府君)의 동생 판서(判書) 만성(晩成)과 관찰사(觀察使) 만견(晩堅)이 무영연(武榮宴)의 장소에서 회합하여 매양 우리 형의 재덕(才德)이면 이 자리도 충분하였을텐데 불행히도 단절(短折)하였으니 우리들이 분수에 넘게 자리를 도적질함이 이와 같다고 서로 말하였다.

재(綽)가 거듭하여 과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여 외람되게 문병(文柄: 文治상의 권력)을 주도하게 됨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사람의 재주가 아니니 갚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숙종 기해년(숙종 45년) 부군(府君)을 이조참판에 증직(贈職)하였고 금상(正祖) 기미년(정조 23년) 판서(判書)를 더하여 증직(贈職)하였으니 재(綽)에 의해서 추은(推恩)된 것이다.

재(綽)는 다섯 살 때 부군(府君)께서 돌아가 능히 기모(마음씨)가 온후(溫厚)함을 기록한 것이 이와 같은데, 평석(평생) 불 만한 품행은 겨우 집안에서 전해내려오는 유문(遺聞)만을 얻고 대략이나마 채척을 더하여 유광(墓壙)에 바치니 호천망극(昊天罔極)하노라!

도암(陶菴) 이재(李綽)는 글을 짓다.

이문주(李文柱) 墓碣

有名朝鮮國司僕寺
僉正 贈兵曹參判
李公墓碣銘并書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兼 經筵參
贊官金相定撰

八代孫學季書篆

謹按公諱文柱字而
實鼻祖襄烈公諱之
蘭其先北元人歸我
太祖佐成王業賜姓
李氏籍青海又以討
平建州功 皇朝封
爲青海伯卒配享
太祖廟庭生諱和英
判刑曹事諡武厚生
諱孝綱進士生諱淳
禧生諱挺傑生諱沃
兵馬節度使 贈兵
曹判書寔於公爲曾
大父

大父諱麟奇號松溪
詞翰氣節爲世所推
卒官同知中樞府事
贈左贊成青陵君清
陰金文正公銘其碣

유명조선국(有名朝鮮國) 사복시첨정(司僕寺僉正)
증병조참판(贈兵曹參判) 이공(李公) 묘갈명(墓碣
銘) 병서(并書)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兼)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김상정(金相定)
은 글을 짓고

팔대손(八代孫) 학년(學季)은 글을 쓰고 전액(篆
額)을 하다.

삼가 살펴보건대 공의 휘는 문주이고 자는 이실
이다. 비조는 양열공 휘 지란으로 그 선세는 북
원인인데, 귀화하여 우리는 태조를 도와 왕업을
이루었음에 이씨라는 성(姓)을 하사하고 청해를
관적으로 하게 하였다. 또 건주를 토평한 공(功)
으로 황조에서 봉하여 청해백을 삼았는데, 돌아
가심에 있어서는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이
사람이 휘 화영을 낳음에 판형조사를 지내고 무
후(武厚)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이 사람이 휘 효
강을 낳으니 진사였고, 이 사람이 휘 순희를 낳
았다. 이 사람이 휘 정걸(挺傑)을 낳았고, 이 사
람이 휘옥(沃)을 낳으니 병마절도사를 지내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는데, 이 사람이 공에게 증
대부(曾祖)가 된다.

대부(祖)의 휘는 인기(麟奇)이고 호는 송계(松
溪)로, 사한(詞翰)으로 있으면서 그 기절(氣節)
이 세상에 추앙받는 바가 되었고 돌아가실 때의
관직은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으며 좌찬성에 추
증되고 청릉군에 봉해졌다. 청음(淸陰) 김문정공

父諱明老少力學攻
文中嬰痼疾癱于家
以公錄靖社從勳馳
贈承政院左承旨

娶清州韓氏參奉誼
之女以萬曆己亥正
月七日生公公自髻
鬣侍松溪公膝下應
對唯謹容儀夙成凡
造松溪公室者咸奇
之十四歲居承旨公
憂奉養松溪公一如
承旨公之爲松溪公
撫而悲之曰吾兒不
苑

光海末公季父青興
君重老與靖社諸
公密謀舉義公時年
二十餘與焉數以事
往來諸公間諸公皆
服其沈密金相國塗
使公往伊川期會青
興君青興君以劔還
報及至跪授相國劔
以柄進止安閒如無
事者洪相國瑞鳳時

(金尙憲)이 그 묘갈에 명(銘)을 하였다. 부의
휘는 명노(明老)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과
거를 준비하던중 고질(痼疾)을 만나 폐인(癱
人)이 되어 집안에 있었는데, 공(公)이 정사공
신에 녹훈(錄勳)됨에 따라 승정원좌승지에 추
증되었다.

청주한씨 참봉 극(誼)의 딸을 취하여 만력 기
해년(1599) 정월 7일 공을 낳았다. 공은 초흔
(髻鬣)할 때부터 송계공(李麟奇)을 모시고 그
슬하에서 응대(應對)하였는데, 오직 삼가하여
용의(容儀)가 숙성(夙成)하여 무릇 이때 송계공
의 집안에서는 모두 이를 기특하게 여겼다. 14
세에 이르러 송지공(李明老)의 상을 당하여 거
상하였고 송계공을 봉양함에는 한결같이 송지
공(承旨公)을 모시듯 하였다. 이에 송계공이 이
를 이루만지면서 슬퍼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
이는 불원(不怨: 태연히 道를 닦음)이다”라고
하였다.

광해군 말에 공의 계부(季父) 청흥군(靑興君) 중
노(重老)와 더불어 정사(靖社)하여 여러 사람들
이 비밀리에 거의를 모의하자 공은 이때 나이
20여세로 여기에 참여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제공들과 일로써 왕래하였는데, 제공들은 모두
그 침밀(沈密)함에 감복하였다. 상국 김류(金瑬)
는 공으로 하여금 이천(伊川)에 가서 청흥군(靑
興君: 李重老)을 기회(期會)하도록 함에 청흥군
이 검(劔)으로써 환보(還報)시키자 돌아옴에 미
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검(劔)을 바쳤다. 이
에 상국은 검(劔)으로써 진지(지휘)하는 근본을
삼아 안한(安閒)함이 마치 아무런 일이 없는 것

在座屬目稱善久之

癸亥三月青興君率伊川兵赴期公又逆之塗事定錄功公曰爲父兄役職耳何言功乎且叔姪參勳籍非所願竟不會丙寅直授內資寺主簿丁卯虜難扈駕江都還遷司憲府監察明年爲砥平縣監以微事罷

辛未遭松溪公喪服闋李完豐曙素材公辟爲軍器署判官鼓鐵海西功省獲多丙子爲盈德縣令冬虜大至上入南漢本道兵使許完勤王署公領將令督諸郡兵追到

公行至聞慶个灘清河縣監宋希進吏代送行迂路失期後公卽招吏責曰吾與汝期某汝不至今又後

과 같이 하였으며 상국(相國) 홍서봉(洪瑞鳳)도 이때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선함을 칭송하기를 오래도록 하였다.

계해년(1623) 3월 청흥군(靑興君)이 이천(伊川)의 병사들을 이끌고 회합에 이르자 공 또한 길에서 이를 맞이하였다. 일이 정하여져 공(功)을 책록함에 공이 말하기를 “부형을 위해 직분을 다했을 뿐이니 어찌 공을 말하겠는가. 또 숙질이 함께 훈적(勳籍)에 참여하는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며 마침내 회합하지 않았다. 병인년(1626) 바로 내자시주부를 제수하였고 정묘년(1627) 오랑캐의 난이 일어나자 왕의 피난길을 강도로 호가(扈駕)하였으며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자 사헌부감찰을 배수하였다. 이듬해 지평현감으로 나갔는데, 작은 일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신미년(1631) 송계공의 상을 당하였고 복을 마치고는 완풍(完豐) 이서(李曙)가 소재로써 공을 천거하여 군기서판관이 되었으며 해서지방을 고철(鼓鐵)하여 공을 얻음이 많았다. 병자년(1636) 영덕현령이 되었는데, 겨울에 오랑캐가 크게 침입하여 오자 왕께서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자 본도병사 허완(許完)이 근왕을 관할하게 됨에 공은 장령(將令)들을 거느리고 여러 고을의 병사들을 독려하여 추도(追到)하였다.

공의 행보가 문경의 개탄(个灘)에 이르자 청하현감 송희진은 아전을 대신 보내 전송하여 우로(迂路)하게 되어 때를 잃자 후에 공은 곧 아전을 불러 책망하며 이르기를 “내가 그대와 더불어 어떤 것을 기약하였으나 그대는 이르지 않았

法當斬立斬清河吏
以徇諸郡兵股栗莫
敢後者觀察使沈演
頓兵聞慶無踰嶺意
公數爲言演不應公
仍慷慨請身至城下
覘虜卽馳去遇騎幾
不免雙嶺之敗演令
再舉列邑不爲動獨
公收兵來會寇退反
以此咎公又清河吏
苑非其罪論罷物情
駭惋

己卯除義禁府都事
壬午除儀賓府都事
明年拜谷城縣監縣
介湖嶺多盜公購捕
有法盜遂迸息戊子
瓜歸爲典牲署主簿
丁內艱去職

孝廟三年公復爲監
察上䟽陳時務 上
引見宣醞尋除鳳山
縣監西路新經大亂
使勅旁午或一歲再

고 지금 또 뒤에 처져 있으니 법으로 당연히 참(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는 청하리(清河吏)를 베어 세워 여러 고을의 병사들에게 위요(圍繞)하니 고을(股栗)하여 감히 뒤에 처지는 사람이 없었다. 관찰사 심연이 문경에서 돈병(頓兵)하여 고개 [문경새재]를 넘을 뜻이 없어 공은 여러차례나 말을 하여 설득하였으나 연(沈演)이 응하지 않으므로 공은 거듭 강개하여 성(城) 아래에 이르러 점적(적의 형세를 엿봄)할 것을 청하였다. 오랑캐가 곧 치유(馳驟)하자 뒤쫓아 가다가 기마(騎馬)를 만나 거의 쌍령에서의 패배를 면하지 못하게 되자 연은 재거(再舉)할 것을 명하였으나 열읍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나 오직 공만은 병사들을 수습하려 래회(來會)하였다. 적이 물러감에 도리어 이것으로써 공을 허물하고 또 청하리(清河吏)의 원한으로 그 죄를 헐뜯고 파직할 것을 논의하니 물정(物情)이 해완(駭惋)하게 여겼다.

기묘년(1639) 의금부도사를 제수하고 임오년(1642) 의빈부도사를 배수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곡성현감에 나아갔다. 곡성현은 호남과 영남 지방의 사이에 끼여있어 도적이 많았는데, 공이 구포(購捕)하는 것이 법도에 맞아 도적이 마침내 병식(迸息)되었다. 무자년(1648)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와 전생서주부가 되었으나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

효묘 3년(1652) 다시 복직하여 감찰이 되었는데, 상소하여 시무(時務)에 대해 아뢰니 왕께서 인견하시고 선온(宣醞)하였다. 얼마후에 봉산현감에 제배되었는데, 서로는 새로이 커다란 난리를 겪은 이후로 사신들이 칙서(勅書)를 가지고 읍이

三至前此爲宰者率科民取盈以自入公至則洗手奉公一勅需恒令支三勅事辦而民不病會爲當路所啣駁免明年拜平昌郡守不悅上官去又拜旌善郡守不赴間一年以軍器寺僉正爲安岳郡守未幾因事遞歸

丙申上萬言疏極言時政得失 上褒以藥石焉公生平惡許積爲人目以孔壬至是有柄用漸故其條用人曰便佞才慧之人雖若可愛輕躁無實終必害國疏出積限之

丁酉拜司僕寺僉正己亥出爲金堤郡守郡有豪猾捕治急繡衣遽以崇飲濫刑聞遂逮吏免家居二年

방오(旁午: 바빔)하여 혹 1년에 2·3차례에 달하였는데, 앞서 이곳에 수령이 된 자들은 백성들에게 조세를 거둬서 한도에 넘겨 취하여 개인적인 수입으로 사용하였으나 공이 이르러서는 봉공(奉公)하는데 세수(洗手)하여 1년에 1회의 칙서(勅書)를 항령(恒令)으로 요구하고 3회의 칙서(勅書)를 그치게 하니 일들이 분별되고 백성들이 근심하지 않았으나 일찍이 [曾] 당로(當路: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게 함험되고 봉박(封駁)된 바 직(職)을 면하였다. 이듬해에 평창군수를 배수하였으나 상관에게 잘못 보여 물러났고 또 정선군수를 배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고 그 사이 1년간 군기시첨정을 역임하였다. 안악군수가 되었으나 얼마 되지않아 시사로 인하여 체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병신년(1656) 만언소가 올려져 극언으로 시정득실을 논하자 왕께서는 약석(藥石)으로써 이를 포상하였다. 공은 평생토록 허적(許積)의 사람됨이 공임(孔壬)한 것으로 인하여 미워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점차 병용(柄用)되게 되는 고로 용인(用人)에 대한 법규를 들어 말하기를 “편녕(便佞)하고 재혜(才慧)한 사람은 비록 사랑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경조(輕躁)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없이 중국에는 반드시 국가에 해로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상소(上疏)가 올려지자 적(積: 許積)은 이를 꺼려하였다.

정유년(1657) 사복시첨정을 배수하고 기해년(1659) 외직으로 나아가 김제군수가 되었는데, 김제군은 호활(豪猾)하여 포치(捕治)에 있어서는 급히 수의(繡衣)하여 남형(濫刑)을 궁음(崇飲)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으며 마침내는 향리를 체좌

卒實壬寅六月十六日也以其年八月葬于龍仁上東村坐乾之原後用第三子推恩例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狀稱公長身白哲美髭鬚少負氣以直道自任與透齋李公厚源滄江趙公涑友善居家篤於人倫日承候大夫人顏色其有所欲必極力營辦蚤孤事青興公盡誠及公死事哀慕終身以所事公者事叔母妹爲蓬州守妻守病狂易妹苑子又傳其病公每見輒下淚

爲政嚴而不苛因俗弛張常令惠在威中所居爲久遠計不求赫赫聲丙丁以後留意軍務臨郡選練不恤人言曰爲國事者

(逮坐)하였다. 관직에서 물러나 집안에서 약 2년을 거쳐하다가 돌아가니 실로 임인년(1662) 6월 16일이다. 그해 8월 용인(龍仁) 상동촌 건좌의 언덕에 장례하였으며 후에 세 번째 아들(翺)의 용사(用事)로 추은(推恩)의 예에 따라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兼) 동지의금부사에 증직되었다.

행장에 따르면, 공은 장신에다가 희고도 아름다운 거수(髭鬚)가 있었으며 어려서부터 부기(負氣)가 있어 직도(直道)로써 자임하였다고 한다. 우재(透齋) 이공(李公) 후원(厚源), 창강(滄江) 조공(趙公) 숙(涑)과 더불어 우선(友善)하였고 집안에 거처함에 있어서는 인륜(人倫)에 돈독히 하였다. 날마다 대부인(大夫人)의 안색(顏色)을 승후(承候)하여 그 하고자 하는 바가 계시면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하여 두루 계획하였으며 어려서고아가 되어 청홍공을 섬기는데 있어 성의를 진력(盡力)하여 청홍공께서 돌아간일에 미쳐서는 애모함을 종신토록 하였고 공(公)을 섬기는 바와 같이 숙모(叔母)를 섬겼다. 누이동생은 봉주수령(蓬州守令)의 부인이 되었는데, 병이 들어 광역(狂易)하여 누이가 자식을 원망하고 또 그 병을 전염시키자 공은 매양 이를 보고 번번히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정무를 함에 있어서는 엄하게 하였으나 까다롭지는 않았고 풍속의 이장(弛張)으로 인하여 향시 어진 명령안에서도 위엄이 있게 하였으며 거처함에 있어서는 구원(久遠)한 계획을 세워 혁혁한 명성을 구하지 아니 하였다. 병정(丙丁) 이후로 군무에 더욱 유의하여 군현의 수령으로 있

安得不任怨爲人骯
髒不求容悅雖數見
困躓終無悔意

累經郡邑家業益訕
而恤人困窮恒如不
及云又稱公嘗自謂
吾平生酒不入唇而
聞藥輒引睡思又曰
吾欲結精舍於涓涓
澗邊壁掛一寶劔一
古琴牕對一床書偃
仰其間而不可得也
其志尙盖如此

配密陽朴氏忠臣府
使榮臣之女生先公
一年卒又先公十六
年葬與公同罔異域
面丙從 贈貞夫人
舉九子四男曰詡以
將才薦爲宣傳官不
仕曰詡曰詡兵使曰
詡僉知五女適監司
黃雋耆縣監沈若溟
都事李鼎基進士趙
奎祥別坐黃信龜側

으면서는 선련(選練)하는데 불홀하였다. 이에 사
람들이 말하기를 “국사를 위하는 사람이 어찌
임무를 돌보지 않고 위인됨을 원망할 것인가.
항장(骯髒)하여 용열(容悅)을 구하지 않아 비록
여러차례 곤지(困躓)를 당하였으나 끝까지 회의
(悔意)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여러차례 군읍을 경력하면서 가업은 더욱 곤궁
하여져서 홀인(恤人)이 곤궁(困窮)함에도 항시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곤 하였으며 또 공은 스스
로 이르기 “내 평생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으
나 소문에 들으니 약으로 간간히 잠자는데 이롭
다고 한다”고 하였고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또
말하기를 “나는 연연(涓涓)한 간변(澗邊)에 정
사를 지어 벽에는 보검(寶劔) 한자루와 오래된
거문고 한 채를 걸어두고 책상을 마주하여 그
사이를 언양(偃仰)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이 대개 이와 같
았다.

배는 밀양박씨로 충신인 부사 영신(榮臣)의 딸
이다. 공보다 1년 먼저 태어나 공보다 16년 먼
져 돌아가 공과 함께 장례하였는데, 같은 구릉
이기는 하지만 장소는 약간 달라 병향 방향이
다. 공의 예에 따라 정부인으로 추증하였다.

아홉의 자식들을 양육하였는데, 아들 넷중 먼
저 후(詡)는 장수(將帥)의 재질로 천거되어 선
전관이 되었으나 벼슬을 하지 않았고 다음은
도(詡)이며 다음은 빈(詡)으로 병사를 지냈고
다음은 핵(詡)으로 첨지를 지냈다. 5녀는 감사
황준구(黃雋耆), 현감 심약명(沈若溟), 도사 이
정기(李鼎基), 진사 조규상(趙奎祥), 별좌 황신구

室男翬女同知李晚雄

孫曰長民曰壽民統制使曰逸民曰韓五玉朴汝敏長房男女曰濟民曰閔挺濂朴守明安處垕鄭纘緒姜爾彬次房男女三房一男曰聖民曰信民曰裕民文判書曰邊就微申錫汝黃履元監役洪禹紀四房男女外孫郡守黃釗參奉沈思澂承旨俞命一任調元妻黃出郡守沈灑文科沈灑縣監沈澳沈涑沈滌韓斗東監司崔重泰縣監鄭洵妻沈出奉事李行述李出趙絢趙綺俱武科趙出崔與三妻小黃出

曾孫長民男構棟權樞縣監壽民男楸濟民男捷楷聖民取捷爲子信民男挺裕民男榕文承旨庶孫舜

(黃信龜)에게 출가하였고 측실에서 낳은 아들로 휘(翬)가 있으며 딸은 동지(同知) 이만웅(李晚雄)에게 출가하였다.

손자로 장민(長民), 통제사(統制使) 수민(壽民), 일민(逸民), 한오옥(韓五玉)·박여민(朴汝敏)은 장방(長房:翹)의 남녀이고 제민(濟民), 민정렴(閔挺濂)·박수명(朴守明)·안처후(安處垕)·정찬서(鄭纘緒)·강이빈(姜爾彬)은 차방(次房:翹)의 남녀이며, 삼방(三房:翹)의 아들은 성민(聖民)이고 신민(信民),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판서(判書)를 지낸 유민(裕民), 변취징(邊就徵)·신석여(申錫汝)·황이원(黃履元)·감역(監役) 홍우기(洪禹紀)는 사방(四房:翹)의 남녀이다. 외손(外孫)으로 군수(郡守) 황교(黃釗), 참봉(參奉) 심사징(沈思澂), 승지(承旨) 유명일(俞命一), 임조원(任調元)의 처는 황씨(黃氏:黃僞耆)의 출생이고 군수(郡守) 심집(沈集), 문과에 급제한 심익(沈翼), 현감(縣監) 심오(沈澳), 심속(沈涑), 심조(沈滌), 한두동(韓斗東)·감사(監司) 최중태(崔重泰)·현감(縣監) 정존(鄭洵)의 처는 심씨(沈氏:沈若溟)의 출생이며, 봉사(奉事) 이행술(李行述)은 이씨(李氏:李鼎基)의 출생이며 최씨(崔氏)와 3명의 부인은 소황(小黃:黃信龜)의 출생이다.

중손(曾孫)으로 장민(長民)의 아들은 구(構), 병(棟), 권(權), 현감(縣監) 추(樞)이고 수민(壽民)의 아들은 즈(楸)이며, 제민(濟民)의 아들은 건(捷)과 해(楷)이고 성민(聖民)은 건(捷)을 취하여 후사(後嗣)를 이었으며 신민(信民)의 아들은 연

民天民禹民李震璧
李泌申穗李廷愼翬
子若壻曰凡民昌民
仁民許鎭李萬泰李
廷栽妻參議元聖俞
妾諸房出李基厚基
德李晚雄二子而沈
澣其壻也公之玄孫
慶遇泰來氏寔爲狀
來問余銘銘曰

噫公奮忠遭時屯囂

眇然白面厠將相間

予曰奔走稱厥任使

勞成不伐退就卑位

及土行枚國耳匪躬

立法陳義有古人風

寧陵御極抗䟽瀝血

奇吾螢爝忘上日月

其論孔壬又何明也

(梃), 유민(裕民)의 아들은 문과에 급제하고 승지(承旨)를 지낸 용(榕)이다. 서손(庶孫)으로 순민(舜民), 천민(天民), 우민(禹民), 이진벽(李震璧)·이필(李泌)·신혜(申穗)·이정신(李廷愼)은 휘(翬)의 아들과 사위이며, 범민(凡民), 창민(昌民), 인민(仁民), 허진(許鎭)·이만태(李萬泰)·이정재(李廷栽)의 처와 참의 원성유(元聖俞)의 첩은 제방(諸房)의 출생이고 이기후(李基厚)·기덕(基德)은 이만웅(李晚雄)의 두 아들이며 심석(沈澣)은 그 사위이다. 공의 현손(玄孫) 경우(慶遇)와 태래(泰來)가 행장(行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명(銘)을 묻기에 명(銘)을 하노라.

희(噫)라! 공의 분충(奮忠)은 어려울 때를 만나 기쁨이 되었고

묘연(眇然:아득한 모양)한 백면(白面)으로 변방의 장상(將相)이 되었도다.

내 말하기를 분주한 것은 임사(任使:책임을 지워 부림)를 칭하는 것

노력으로 이루었으나 불벌(不伐:공적을 자랑하지 않음)하고 물러나서는 비위(卑位)를 취하였네

사행(士行)을 미침은 하나하나 국가의 빛남이 되었고

입법(立法)하는데 의(義)를 아킴은 고인(古人)의 풍모(風貌)가 있었네

영릉(寧陵:孝宗)께서 어극(御極:在位)하심에 항소(抗䟽)가 역혈(瀝血:성의를 표시함)하였고

내 또한 형작(螢爝)을 기이하게 여겨 일월을 잊어

그 공임(孔壬)을 논하기를 어찌 밝힐 것인가.

我最之大庸詔來者

崇禎後四己巳三月
日

우리의 가장 큰 대용(大庸:공적)은 조서(詔書)
를 받드는 것이라네

송정후(崇禎後) 4 기사(己巳:순조 9, 1809) 3월
일

이 발(李潑) 墓表

龍仁郡栗木洞負乾
之原我先祖平簡公
之墓也公諱潑字巨
源星州人鼻祖新羅
宰相諱純由十一傳
而至星山君隴西公
諱長庚始大東方

生梅雲堂文烈公諱
兆年生侍中敬元公
諱□生□立大提學
慕隱公諱仁立公之
高曾祖禰而惠寧翁
主其妣也 洪武己
未生仕 世宗朝登
文科歷選清班出爲
慶尙監司治績甚著
按察州郡過尙州義
城皆有吟詠鄉人至
今傳誦入爲大司憲
未幾卒卽 英陵庚
午也 上聞訃掇朝
贈諡平簡葬以恩禮
賜牌置守塚嗚呼公
文章德行未能盡傳

용인군 울목동(栗木洞) 건좌의 구릉은 우리 선조 평강공(平簡公)의 묘소이다. 공의 휘는 발(潑)이고 자(字)는 거원(巨源)으로 성주인이다. 비조(鼻祖:始祖)는 신라시대에 재상(宰相)을 지낸 휘 순유(純由)이고 11대(代)를 전하여 성산군(星山君) 농서공(隴西公) 휘 장경(長庚)에 이르러 비로소 동방(東方)에서 크게 되었다.

이 분이 매운당 문열공 휘 조년(兆年)을 낳고, 이 사람이 시중(侍中)을 지낸 경원공 휘 □(□)를 낳았으며, ---1자결(字缺) --- 대제학 모은공(慕隱公) 휘 인립(人立)으로 이들이 공의 고조·증조·예(禰:아버지, 원래는 아버지를 모신 사당의 뜻으로 사용함)이며 혜녕옹주(惠寧翁主)가 그 비이다. 홍무 기미년(1379) 태어나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청반에 선발되었고 외직으로 나아가 경상감사가 되었는데, 치적이 매우 뛰어났다. 주군을 안찰하여 상주·의성의 수령을 지냈는데, 모두 향인들에게 음영됨이 있어 지금도 전해져 읊어지고 있으며 내직으로 들어와서는 대사헌이 되었다.

얼마후에 돌아가시니 영릉 경오년(1450)이다. 왕께서 부음을 들으시고는 철조하고 평간(平簡)이라는 시호(諡號)를 추증(追贈)하였으며, 장례(葬禮)를 함에 있어서는 은례(恩禮)로써 하고 사패지를 내려 묘소를 지키도록 하였다. 오호라! 공(公)은 문장(文章)과 덕행을 진력하여 전해지지

後人無從考述可勝
惜哉

配金堤趙氏判書希
輔女葬封雙兆長男
洧監察贈吏參次潤
縣監出爲世父興安
君後女壻申守福正
郎孫男曰澄曰混曰
湊司猛贈左參贊曰
淳別坐贈吏判曾玄
繁不盡錄而其最著
則曾孫自堅自健自
華自商皆位至正卿

玄孫一齋恒桐谷晁
士林俱俎豆焉其餘
簪纓行義著聞者不
可勝計此豈非公積
蔭之餘休耶公墓舊
有表石中圯而不修
後孫東陽箕元與教
成松烈等謀諸族贊
成是役云爾

後 孫 道復 謹撰
十六世孫參奉 教
高 謹書

못해 후인들이 따를 수 없고 상고하여 서술할 수 밖에 없으니 애석하도다.

배는 김제조씨로 판서 희보(希輔)의 딸로 쌍분(雙墳)으로 장례하였다. 장남은 유(洧)로 감찰(監察)을 지내고 이참(吏參)에 증직되었고 다음은 윤(潤)으로 현감을 지냈는데 세부(伯父)는 흥안군(興安君)의 후사가 되었다. 사위는 신수복(申守福)으로 정랑을 지냈다. 손자로는 징(澄), 혼(混), 사맹(司猛)을 지내고 좌참찬에 증직된 주(湊), 별좌를 지내고 이판에 증직된 순(淳)이 있고 증현손은 번성하여 모두 기록할 수 없어 가장 저명(著名)한 사람들만 기록한 즉 증손(曾孫)은 자건(自堅), 자건(自健), 자화(自華), 자상(自商)은 모두 벼슬이 정경(正卿)에 이르렀고

현손(玄孫) 일재(一齋)는 항상 동곡(桐谷) ---1 자결(字缺) --- 사림(士林) --- 조두를 갖추었다. 그 나머지로 잠영(簪纓)하거나 의(義)를 행하여 저문(著聞)한 사람들이 가히 셀 수 없을 정도이니 이것이 어찌 공의 적음(積陰)의 여휴(餘休)가 아니겠는가! 공(公)의 묘(墓)에는 예전에 표석(表石)이 있었으나 중간에 무너져 수리하지 못하였는데, 후손 동양(東陽), 기원(箕元)이 교성(教成), 송열(松烈) 등과 더불어 모의하고 여러 종족들의 찬성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다.

후손(後孫) 도복(道復)은 삼가 글을 짓고 16세손(世孫) 전(前) 참봉(參奉) 교설(教高)은 삼가 글을 썼으며

十八世孫 鳳淳 謹書
朝鮮開國五百二十
二年癸丑 九月 日
立

18세손(世孫) 봉순(鳳淳)은 삼가 글을 쓰다.

조선(朝鮮) 개국(開國) 522년 계축년(癸丑年: 1913)
9월 일 세우다.

이봉구(李鳳九) 墓碑

府君諱鳳九字禹範
我牛峯之李發源于
高麗侍中峇城府院
君諱公靖

入我 朝有諱吉培
黃海道觀察使傳至
吏曹判書文貞公諱
翊世稱農齋先生己
巳之禍卒 于謫忠
節德載在國乘孫諱
綰奉事不仕遯保寧
歷五世有諱鎬貞移
居龍仁贈司憲府監
察是 府君祖考也

妣龍仁李氏諱觀鉉
女府君以 憲宗丁
未十月十五日生少
凝重如成人咸以遠
到期之

高宗己巳擢武科明
年陞折衝將軍新坡
鎮兵馬同僉節制使
鎮北鄙也累躋邊警
先幾綢繆得保晏如

부군(府君)의 휘는 봉구요, 자는 우범(遇範)이다. 우리 우봉이문은 고려시중(高麗侍中) 잠성부군(峇城府君) 휘 공정(公靖)에서 발원(發源)하였다.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 휘 길배(吉培)인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있었고 후대로 내려와 이조판서(吏曹判書) 문정공(文貞公) 휘 익(翊)인 세칭 농재(農齋)선생에 이르렀다. 농재공은 기사사화로 귀양지에서 졸(卒)하니 충절(忠節)과 명덕(名德)이 국승(國乘:國史)에 기록되었다. 손(孫)의 휘는 관(綰)이며 봉사(奉事)를 위하여 불사(不仕)하고 보령(保寧)에 은퇴하였고, 5세를 거쳐 휘 호정(鎬貞)은 용인으로 이거(移居)하여 효(孝)하였다.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에 증직되니 부군(府君)의 조고(祖考)이다.

고(考)의 휘는 태용(泰用)이며 첨지중추부사로서 부군이 곤수(楸帥:水使)를 은수(恩授)하게 되었다. 비(妣)는 용인이씨로 휘 관현(觀鉉)의 딸이다. 부군은 헌종(憲宗) 정미(1847) 10월 15일 출생하였는데 젊어서 부터 침착하고 무게가 있어서 성인(成人)과 같았기로 모두가 멀리서 와서 함께 모였다.

고종(高宗) 기사(1869)년에 무과(武科)에 발탁되어 다음 해에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신과진병마동 첨절제사로 승진되어 북쪽 변방을 진정(鎮定)하였다. 때때로 변경이 경계스러웠으나 주무(綢繆:엮히고 엮힘)를 잘 헤아려 편안함을

土俗不鮮水田府君
設法灌概民至今賴
之官廩歲允圯頹涓
廩新之民不勞有司
上其績

明年除平海郡守會
大水民多漂流府君
躬巡督取極救無算
被損隄坊亦恙復其
舊御使柳公堧 啓
褒之有旨錫馬及遞
郡民敷衣

遮道乃從間路歸民
釀匙鑄碑庸表去思
過十年候問不絕己
卯爲羽林將丁亥爲
丙禁衛將戊子移摠
禦營右部千摠歷防
禦使癸巳拜忠清道
水軍節度使兼保寧
都護府使

保寧桑梓地也奉極
輿而行人榮其衣錦
馬時當艱難東匪群
起聃營縣邑望風奔
潰惟孤壘殘卒危在
朝夕府君決死守

지켰다. 토속(土俗)에 농사를 해득하지 않을 경
우에는 법을 설하여 관개(灌溉)하였는데 백성들
이 이를 관청에 의지하기에 이르렀기로 세월이
오래도록 이퇴연릉(圯頹捐廩) 하였는바, 이는 새
백성이 불로하기 때문이었는데 유사(有司)가 그
공적(功績)을 상신(上申)하였다.

다음해 평해군수(平海郡守)로 부임하였으며 때
마침 홍수(洪水)가 나서 많은 백성이 표류(漂流)
하니 부군은 몸소 순시 감독하여 극력 구호함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파손된 제방(堤防) 역시
빠짐없이 복구 하였다. 어사(御使) 유공석(柳公
석)이 계자를 올려 포상할 것을 아뢰니 어지(御
旨)로 석마(錫馬: 下賜馬)가 내려지니 군민이 옷
을 갈아 길을 덮었다.

후에 길을 물어 찾아 온 백성들이 수저(匙: 성
품을 모으라는 뜻)를 각출하여 주비용표(鑄碑庸
表)하고 갔으며 과거 10년간 사람이 찾아와서
안부를 물음이 끊이지 않았다. 기묘(1879)년에
우림장(羽林將)이 되고 정해(1887)에 내금위장
(內禁衛將)이 되었으며 무자(1888)에 총어영우
부천총력방어사(摠禦營右部千摠歷防禦使)로
옴겼다. 계사(1893)에 충청도 수군절도사겸보령도
호부사(水軍節度使兼保寧都護府使)를 배(拜)하
였다.

보령(保寧)은 상재지(桑梓地: 고향)였다. 판여
(板輿: 詔輿)를 받들어 금의환향하는 이때에 간
난(艱難)을 당하게 되었다. 동학군(東學軍)이 소
관 현읍에 군기(群起)하여 분궤(奔潰)함을 멀리
바라보고 오직 고루잔졸(孤壘殘卒)만으로 위험
이 조석에 이르렀을 때 부군은 사수(死守)를 결
의하고 있었다.

匪衆意突搶掠軍器
而去曰使居有德於
民故不敢加害也府
君却食三日曰未答
上恩識守有缺何以
立於世乎若不刷還
誓不載天設計盡搜
燃後乃起視事因感
病乙未謝歸意以丁
未十月二十二日考
終于京第

嗚呼慟哉權窆于振
威越三年庚戌遷
龍仁水餘面直洞卯
坐之原

不肖子丙默謹識

급기야 동학군이 저돌하여 군기(軍器)를 탈취하
여 떠나면서 부군(府君)은 백성에게 유덕(有德)
한 고로 해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부군은
3일간 음식을 먹지 않고 「상은(上恩)에 보답하
지 못하고 직수(職守)에 결함이 있으니 어찌 세
상에 될 수 있으리요. 만일 불대천 계획을 쇄환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찾아낸 연후에 일어나 일
을 보겠노라」고 하였다. 이에 감병(感病)으로
인하여 관직을 사양하고 돌아가 마침내 정미
(1907) 10월 22일 경제(京第: 서울집)에서 서거
하니

슬프다. 진위(振威)에 권窆(權窆: 임시로 장례함)
하였다가 삼년이 지난 뒤인 경술(1910)년 용인
수여면(水餘面) 직동(곧은 골) 묘좌(卯坐)에 옮
겨 모셨다.

불초자 병묵 삼가 쓰다.

이봉조(李鳳朝) 墓表

先府君諱鳳朝字善鳴姓李系出延安有諱石亨判中樞府院君文康公號樗軒於府君爲七代祖

曾祖諱廷龜左議政諡文忠公號月沙祖諱明漢吏曹判書典文衡諡文靖號白洲考諱萬相進士 贈吏曹參議妣同福吳氏禮曹判書諱竣女贈淑夫人

府君以甲申十月二十五日生己酉進士癸丑除貞陵參奉丙辰陞廣興奉事尙瑞直長又以勞陞司蕃別提禁府都事丁巳拜戶曹佐郎出爲泰仁縣監庚申遞丙寅爲陽城縣監同年遞戊辰拜戶曹正郎陞杆城郡守

己巳時事大變遂投緩不仕甲戌授沃川

선부군(先府君)의 휘는 봉조(鳳朝)요 자는 선명(善鳴)이며 성(姓)은 이씨이니 연안인이라 휘 석형(石亨)이 있으니 판중추부원군(判中樞府院君)으로 시호(諡號)는 문강공(文康公)이며 호는 저헌(樗軒)이니 공의 7대조(七代祖)이다.

증조(曾祖)의 휘는 정구(廷龜)로 좌의정을 지냈고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며 호는 월사(月沙)요. 조(祖)의 휘는 명한(明漢)이니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전문형(典文衡)으로 시호는 문정공(文靖公)이며 호는 백주(白洲)요. 고(考)의 휘는 만상(萬相)이니 진사로 증 이조판서이다. 비(妣)는 동복오씨이니 예조판서 휘 준(浚)의 딸이며, 정부인으로 증직되었다.

부군은 갑신(164) 10월 25일 출생하였고 기유(1669)에 진사로 합격하고 계축(1673)에 정릉참봉(貞陵參奉)을 배하였고 병진(1676)에 광흥봉사(廣興奉事), 상서직장(尙瑞直長)에 승진하고 다시 공로(功勞)로 사축별제(司蓄別提), 금부도사(禁府都事)가 되고 정사(1677)년에 호조좌랑(戶曹佐郎)을 배하였다가 간성군수(杆城郡守)에 승진하였다.

기사년(1689) 시사(時事)가 대변(大變)하므로 즉시 사임 불사(不仕) 하더니 갑술(1694)년에 옥천

郡守乙亥遞己卯授
司憲府監察刑曹正
郎庚辰授翊衛司翊
衛司僕寺主簿辛巳
三月二十五日卒于
館洞正寢葬于龍仁
先隴己丑改窆于陽
智朱西面子坐原

前配豊山洪氏監司
諱柱三女以癸未生
己酉卒後配海州鄭
氏通德郎諱相女以
壬辰生壬午卒墓俱
同府君岡

男正臣文今嘉義女
適正言尹志和前妣
出敬臣繕工奉事聖
臣後妣出

正臣生五男二女長
玄輔承文正字次元
輔次得輔次喆輔兼
說書次吉輔女長適
沈命弼金尙翼進士
尹志和一男敬宗進
士敬臣生五男一女
男長道輔次碩輔後
聖臣次奎輔餘幼

군수(沃川郡守)에 임하여 을해(1695)에 체직하였고 기묘(1699)에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 형조정랑(刑曹正郎)을 배하고 경진(1700)에 익위사(翊衛司) 익위(翊衛) 사복시(司僕寺) 주부(主簿)를 배(拜)하였으며, 신사(1701)년 3월 25일 관동(館洞) 정침(正寢)에서 졸하여 용인 선영 아래에 장사하였다가 기축(1707)에 양지(陽智) 주서면(朱西面) 자좌원(子坐原)에 개궐하였다.

전배(前配) 풍산홍씨는 감사(監司) 휘 주삼(柱三)의 딸인데 임진(1652)에 낳아서 기유(1669)에 졸하였고 후배(後配) 해주정씨는 통덕랑(通德郎) 휘(諱) 상(相)의 딸이니 임진(1652)에 낳아서 병오(1726)에 졸하고, 묘는 다 부군묘와 같은 언덕이다.

남 정신(正臣)은 문과에 오른후, 지금은 가의대부(嘉義大夫)요. 녀는 정언(正言) 윤지화에게 출가하니 전 비(妣) 생이며, 선공봉사(善工奉事) 경신(敬臣)과 성신(聖臣)은 후비(後妣)의 소생이다.

정신이 5남2녀를 두었는데 장남 현보(玄輔)는 승문원 정자이며, 차는 원보(元輔), 차는 득보(得輔)로 참봉이며 차(次)는 철보(喆輔)이니 겸설서(兼說書)요. 차는 길보(吉輔)이다. 딸은 심명필, 진사 김상익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윤지화의 1남은 경종(敬宗)으로 진사(進士)요. 경신(敬臣)이 5남(五男)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도보(道輔)요. 차는 석보(碩輔)이니 성신(聖臣)에서 출계(出系)하고 차는 규보(奎輔)인데 나머지는 다 어리다.

聖辰生二女長適沈
遠次適申暎內外曾
孫各若干人

嗚呼小子不祿生十
歲而先妣見背辛巳
壬午禍變荐酷祿不
逮養穹壤罔極庶幾
其得盡人子之責而
少伸其志者惟不朽

是圖而先府君沒今
二十有四年墓道無
刻每中夜以思怛然
疚心蓋非敢緩有待
焉

己亥小子忝尹南漢
得推恩贈先府君吏
曹參判妣貞夫人癸
卯小子及聖臣俱得
陞進又各推恩加贈
先君至左贊成妣貞
敬夫人可謂榮矣

乃敢略述履歷封贈
而載之石歐陽公瀧
川之表於是卒業而
至願畢矣今而後小
子雖死無憾而庶得
瞑目於地下矣

성신(聖臣)이 딸 들을 낳았는데 심원(沈遠)과 신
간(申暎)에게 출가하여 내외손증(內外孫曾) 약간
인이 있다.

슬프다! 소자가 불록(不祿)하여 10세에 선비가
기세(棄世)하시고 신사, 임오에 화변(禍變)이 중
루(重壘)하여 록으로 봉양하지 못하여 평생 한
에 이르렀으나 다만 자식된 도리로서 책임을 다
하고 정리를 소신(少伸)하는 일은, 오직 묘도(墓
道)에 불후(不朽)함을 다한다는 의지이다.

생각하면 선부군(先府君)이 돌아가신지 24년입
에도 묘도에 현각(顯刻: 비석)이 없음을 매양 밤
낮으로 생각할 때마다 항상 송구하나 감히 이완
(弛緩)함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린 것이다.

기해년(1719)에 소자가 남한(산성)에 부임하면서
추은(推恩)을 받아 선부군은 이조참판으로 선비
는 정부인에 추증되었고 계묘(1723)년에 소자와
성신(聖臣)이 다 승진(陞進)함에 다시 추은(推
恩)으로 선부군에게는 좌찬성(左贊成)이 선비(先
妣)에게는 정경부인으로 가증(加贈)되니, 가히
영화라 한 것이다.

이에 감히 이력(履歷)과 봉증(封贈)을 약간 기록
하여 돌에 새기니 구양공(區陽公) 룡천지표(瀧
川之表)를 겨우 졸업하여 원하는 바에 이르니
이제 소자가 비록 죽으나 여한(餘恨) 없이 지하
에 명목(瞑目)할 것이다.

噫惟我先君至行懿德宜躬享遐祿而乃困滯抹撥卒無以表現於世不肖兄弟奉承先訓既皆名聯仕籍幸免罪過而小兒輩又能稍自成立人有恒言曰天於善人報不于其身焉則必于其後詎不信歟

若其事行顛末非小子所敢私詳於堂叔良菴喜朝公所撰誌文暨東岡趙相國相愚所撰行狀云

崇禎紀元後九十七年甲辰六月日不肖子嘉義大夫江原道觀察使兼巡察使正臣泣血撰並書

슬프다. 우리 선군의 지행의덕(至行懿德)이 당연히 하수(遐壽)와 복록(福祿)이 있어야 할 것이나 곤체말살(困滯抹撥)하여 세상에 표현(表現)되지 못하고 불초 형제가 선훈(先訓)을 이어 다 사적(士籍)에 이름이 있어 다행이 죄과(罪過)를 면하고 소아(小兒)의 무리가 또 능히 스스로 수립하니 사람이 말하되 하늘이 선한 사람의 몸에 보시(報施)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후손에게 준다하니 허언(虛言)이 아니다.

다시 그 사행전말(事行顛末)은 소자가 감히 사사로히 말하지 못하였으나 당숙(堂叔) 간암(艮菴) 희조공(喜朝公)이 찬(撰)한 지문(誌文)과 동강(東岡) 조상국(趙相國) 상우(相遇)가 찬(撰)한 행장(行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승정기원 후 97년 갑진(1724) 6월 일 불초자가의대부 강원도관찰사 겸 순찰사 정신(正臣) 읍혈 찬하고 글을 쓰다.

이 빈(李贊) 墓表

公諱贊字子美延安人曾祖諱壽長大護軍 贈吏曹判書祖諱巉號靜軒以趙靜菴高弟罹己卯黨籍官經南床止牧使

贈贊成考諱廷秀郡守 贈司僕寺正樗軒文康公諱石亨於公爲五世系詳文康公大碑妣淑人全義李氏益陽君懷女公生嘉靖丁酉登癸酉司馬

栗谷李文成筵薦典數邑龍蛇難監長水縣令淳昌兵截熊峙斬倭白馬師

又拒角峙連戰五捷大衄遁會病卒實萬曆二十一年十一月二十三日

公以儒學進若軍旅之事未之學然以忠義糾合隣郡提孤軍

공의 휘는 빈(贊)이고 자(字)는 자미(子美)이니 연안인이다. 증조 휘 수장(壽長)은 대호군(大護軍) 증 이조판서이며 조(祖)의 휘는 기(夔) 호는 정현(靜軒)이니 조정암(趙靜菴)의 고제(高弟)로 기묘당적에 착명(著名) 됨으로 벼슬이 남상(南床)을 거쳐서 목사에 그치고

좌찬성에 증직 되었으며 고(考)의 휘는 정수(廷秀)이니 사복시정(寺僕寺正)에 증직되었는데 저헌 문강공 휘 석형(石亨)은 공에게 5세조(五世祖)가 된다. 상세한 글은 문강공 대비(大碑)에 있다. 비(妣)는 숙인 전의이씨이니 익양군 회(懷)의 딸이다. 공이 가정 정유년(1537)에 출생하였고 계유년(1573)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율곡 이문성공(李文成公)이 경연(經筵)의 자리에서 천거하여 수 처의 군수가 되었는데 임진란을 당하여 장수현감을 맡고 있을 때는 준창(淳昌)으로 부터 오는 능치(熊峙)를 막아 백마장수(왜장)를 참하고

다시 각치(角峙)를 점거하여 연달아 5차례나 승첩하므로 적이 패주하였다. 인하여 병으로 수를 마치니 만력 21년(1593) 11월 23일이었다.

그는 유학(선비)으로 진취하여 군여(軍旅)의 일은 익히지는 않았으나 다만 충의지심으로 인접군(郡)을 규합하여 고군(孤軍)으로 가서 강적에게

遏强寇爲湖南匡防
天嗇其年弗克大有
成績時議嗟悼亂定
葬先隴坐良

以孫監司天基貴
贈承旨配贈淑夫人
全義李氏 贈贊成
彦佑女合祔四男時
尹教官時曾同知出
後叔父贊時孟縣監
時程都事餘不盡錄
十代孫 學遇 撰

맞서 호남의 방위가 되었으니 하늘이 그 년세를
속히하여 성적(成績)을 이루지 못하니 시론이
차석(嗟惜)하였다 난리가 끝난 뒤에 선릉(先隴)
간좌지원(良坐之原)에 장사하고

손 감사(監司) 천기(天基)의 귀함으로 승지(承
旨)에 증직되고, 배는 증 숙부인 전의이씨이니
증 찬성 언우(彦右)의 딸이다. 합부(合祔)하였다.
4남이 있으니 시윤(時尹)은 교관, 시증(時曾)은
동지(同知)로 숙부 집(贊)에게 양자갔고 시맹(時
孟)은 현감이며, 시정(時程)은 도사(都事)요 나
머지는 기록지 않는다.

10代孫 학우(學遇) 찬(撰)하다.

이상성(李相晟) 墓碣

公諱相晟字汝恢我
定宗大王第七男守
道正諱德生其始祖
也四傳而終南正諱
昌壽以道學爲趙靜
菴畏友自是紹述庭
訓有諱大福佐郎
贈參判有學行被薦
諱元俊同中樞 贈
左參贊不仕昏朝諱
徵厚庶尹 贈承旨
以小學律身是爲公
高曾祖也

考諱齊尙僉正 贈
大司憲妣楊州趙氏
郡守 贈領議政諱
禧錫之女以庚午正
月二十三日生公公
性至孝大憲公有疾
多年侍湯由是失學
遂投筆登壬辰庭試
冬爲兼司郎甲午陞
訓練主簿累遷都摠
都事經歷至宣傳官
先進以古例戲辱之
公慨然曰此非士夫
所可爲遂不仕未幾

공(公)의 휘(諱)는 상성이요 자는 여회(汝恢)로
우리 정종대왕의 일곱 번째 아들인 수도정(守道
正) 휘 덕생(德生)이 그 시조이다. 4세(世)를 내
려와 종남정(終南正) 휘 창수(昌壽)는 도학으로
조정암의 외우(畏友)가 되었으며 이로부터 정훈
(庭訓)을 소술(紹述: 先代의 일을 이어받아 밝
힘)하였다. 휘 대복(大福)은 좌랑을 지내고 참판
에 증직되었는데 학행이 있어 천거를 받았으며,
휘 원준(元俊)은 동중추를 지내고 좌참찬에 증
직되었는데 혼조(光海君)에서 벼슬하지 않았다.
휘 징후(徵厚)는 서윤(庶尹)을 지내고 승지에 증
직되었는데 소학으로 올신하였다. 이 사람들이
공의 고조(高祖), 증조(曾祖), 조부(祖父)이다.

고의 휘는 제상(齊尙)으로 첨정을 지내고 대사
헌에 증직되었고 비는 양주조씨로 군수를 지내
고 영의정에 추증된 휘 희석(禧錫)의 딸이다. 경
오년(1690) 정월 23일 공을 낳았는데, 공은 성품
이 지효하여 대헌공(李齊尙)께서 병이 있자 수
년간 시탕하다가 이로 말미암아 학문을 할 시기
를 놓쳐 드디어는 투필(投筆)하고는 임진년
(1712) 정시무과에 급제하여 그해 겨울 겸사랑
(兼司郎)이 되었다. 갑오년(1714) 훈련주부로 승
진하였고 여러차례에 걸쳐 관직을 옮겨다닌 후
도충도사가 되었으며 경력을 지내고 선전관에
이르렀다.

이때 선진들이 고레로써 이를 희롱하고 수치스
럽게 하자 공은 개연히 말하기를 “이것은 사부
(士夫)가 할 바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고는 마

復拔前職內舅忠翼
公強之乃供仕移訓
練僉正副正戊戌丁
大憲公憂服闋出爲
祥原郡守壬寅以訓
練正陞內禁將尋拔
洪州營將時朝象一
變無意仕宦不赴

先是一番人以金姓
宮人事上凶疏公不
書名凶黨大啣之至
甲辰家奴殺人鏡賊
輩乃搆公身有所犯
鍛鍊其獄禍幾不免
英廟卽位察其冤配
積城縣翌年蒙有
還歷金海三和府使
陞全羅右水使以親
年不赴

壬子除寧邊府使以
前獄事爲人所誣
拿罷冬居憂旣吉拜
黃海兵使戊午陞會
寧府使庚申擬遷北
兵使上特命加一
年翌年二月十四日

침내 부임하지 않았다. 얼마되지 않아 다시 전
직으로 발탁되었는데, 내구(內舅:外叔) 충익공
(忠翼公)이 이를 부임하도록 강력하게 권하여
이에 그 뜻에 따라 부임하였다. 이어 훈련첩정
으로 옮겨다가 부정을 지냈으며 무술년(1718)에
는 대헌공의 상을 당하였다. 복을 마치고는 외
직으로 나가 상원군수가 되었고 임인년(1722)
훈련정으로 있으면서 내금장으로 승진하였다.
얼마 후에는 홍주영장으로 발탁되었는데, 이때
조정에서의 조짐이 크게 변하여 사환(仕宦)에
뜻을 버리고 부임하지 않았다.

이보다 먼저 한 번은 사람들이 김씨 성을 가진
궁인의 일을 가지고 흉소(凶疏)를 올리자 공이
이에 서명하지 않음에 흉당들은 이를 함협(원망
함)하였다. 갑진년(1724)에 이르러 가노(家奴)가
일경(金一鏡)의 적배(賊輩)들을 죽이자 이내
공이 그 범행(犯行)에 연루되었다고 단련(鍛鍊)
하여 그 옥화(獄禍)를 얼마동안 면하지 못하였
는데, 영묘께서 즉위하시자 그 억울함을 살펴
적성현으로 이배하였다. 이듬해 몽유(蒙宥)되어
돌아와 김해와 삼화의 부사를 지내고 전라우수
사에 승진되었으나 친년(親年:母親喪)으로 부임
하지 못하였다.

임자년(1732) 영변부사를 제수하였는데, 앞서의
옥사에 관한 일로 사람들에게 무고를 당하여
나포하라는 명에 의해 파직되어 겨울철 내내
근심으로 지내다가 길문(吉問)을 듣고 황해병사
를 배수하였다. 무오년(1738) 회령부사로 승진
하였으며 경신년 돌아가는 시세(時勢)를 헤아려
북병사로 나아갔는데, 왕의 특명으로 1년을 더
재임하였다. 이듬해 2월 24일 관청에서 돌아가니

卒于官葬于龍仁東
幕村良坐之原

嗚呼痛哉公性度沈
靜氣宇英毅長身美
鬚髯風儀動人大憲
公素患風疾承奉甚
難公左右扶護衣服
飲食必先意順適趙
夫人年高在堂每侍
側怡怡或吮乳爲兒
戲以得其歎笑

伯氏內外俱早歿愛
養其二孤女無異己
出事仲氏極其愛敬
服食裘馬供其所嗜
好必稱意而後己宗
黨至今推服家世儒
素雖以武階進居官
廉謹自持未嘗候謁
朝貴輕財好施見人
窮急不惜千金是以
屢典州闈不曾買田
營宅臨歿之日家無
尺寸餘者

용인(龍仁) 동막촌(東幕村) 간좌(良坐)의 언덕에
장례하였다.

오호통재라! 공의 성도(性度)는 침정(沈靜)하고
기우는 영의(英毅)하였으며 큰 몸집에 아름다운
수염(鬚髯)이 있어 그 풍의(風儀)는 다른 사람들
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대헌공(大憲公)께서
평소에 풍질(風疾)로 앓아 누워계시어 그 뜻을
승봉(承奉)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공은 좌우
에서 부호(扶護)하며 의복과 음식은 반드시 먼
저 그 뜻을 물어 적이하게 따랐다. 조부인(趙夫
人)이 나이가 들어 별당(別堂)에 있을 때는 매
번 시측(侍側)함을 이이(怡怡: 기뻐하는 모양)하
였고, 혹 젖을 빨며 아이와 같이 즐거워하여 그
환소(歡笑)함을 얻었다.

백씨 내외가 함께 일찍 죽어 그 낳은 2명의 여
자 아이를 애양(愛養)함에 있어서는 자기가 낳
은 아이들과 다름이 없이 하였고 중씨를 섬김
에 있어서도 그 애경(愛敬)을 다하여 의복이나
음식, 구마(裘馬: 갓옷과 말) 등을 공양(供養)하
였는데, 그 좋아하는 바는 반드시 그 의사를 묻
고 묵묵히 따를 뿐이었으니 종당들은 지금도 이
를 추복(推服)하고 있다. 가세(家世)는 유가(儒
家)에 바탕을 두고 있고 비록 무계(武階)로써
진출하여 관직(官職)에 있었으나 엄근(廉謹)함
을 스스로 지켜 일찍이 조귀(宰相)들을 알후(謁
候: 문안함)가 없었다. 또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여 사람들이 궁
색하거나 급한 일을 보면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
았으며 이로써 여러차례나 주현의 수령을 역임
하면서 일찍이 매전영택(買田營宅)을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러서는 집안에 척촌의 여유 조차가
하나도 없었다.

夫人狼川縣監諱暉
之女姿性柔婉端淑
嘗讀小學一遵其訓
終日整衣未嘗有惰
容喜怒不形惡言不
出妾御甚衆各得歎
心庭無間言與公同
年生後公二十二年
而卒祔左如禮

子女俱未育取族兄
贈參判諱禧奎之子
子之不肖廷仁是也
前牧使側室男廷義
廷範女爲具謙柱妻
知事沈錡妾廷仁男
浚徽廷義男定徽寶
徽守徽廷範男濟徽
具男宗炯女金後侃

嗚呼公實德懿行宜
不止此而未及承顏
無以得其髣髴只憑
宗族之所嘗稱道者
畧敘其槩痛哉不肖
孤廷仁泣血書

崇禎紀元後百七十
五年壬戌四月 日
立

부인은 낭천현감 휘 현(暉)의 딸로 자성이 유완(柔婉)하고 단속하였다. 일찍이 소학을 읽어 그 가르침을 한결같이 따라 종일토록 의복을 가지런히 하여 타용(惰容: 단정치 못한 모습)이 없었고 기쁨과 성냄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았으며 악언을 하지 않아 첩어(妾室)들이 매우 많았으나 각각 환심을 얻었고 가정에는 간언이 없었다. 공과 더불어 같은 해에 태어나 공보다 22년 늦게 돌아가 좌측에 부장하니 예(禮)를 따른 것이었다.

자녀는 모두 기르지 못해 족형(族兄)으로 참판에 증직된 휘 희규(禧奎)의 아들을 취하였으니, 아들은 불초 정인(廷仁)으로 전에 목사를 지냈다. 측실에서 낳은 아들은 정의(廷義)와 정범(廷範)이고 딸은 구겸주(具謙柱)의 처와 지사(知事) 심기(沈錡)의 첩이 되었다. 정인(廷仁)의 아들은 준휘(浚徽)이고 정의(廷義)의 아들은 정휘(定徽)와 보휘(寶徽), 수휘(守徽)이며 정범(廷範)의 아들은 제휘(濟徽)이다. 구씨의 종형(宗炯)이고 딸은 김후간에게 출가하였다.

오호라! 공의 실덕과 덕행은 마땅히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고 승안(承顏)을 하지 못하여 그 방불(髣髴: 보아 잘 알 수 없는 모양)을 얻음에 단지 종족(宗族)들이 일찍이 칭도하는 것에 의지하여 그 대략을 간략히 서술하노라. 통재라!

불초고 정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글을 쓰다.

승정(崇禎) 기원후(紀元後) 175년 임술년(壬戌年: 순조 2, 1802) 4월 일 세우다.

이석지(李釋之) 墓表

龍駒縣東梧里洞坐
辛之原有麗季忠臣
李公之墓今距其歿
爲四百餘年後孫始
謀樹石請余表其陰
余辭以謏淺之識而
言之愈力謹按其實
紀公諱釋之其先永
川人平章事諱克仁
之後

曾祖諱文卿保勝護
軍祖諱松賢版圖判
書考諱洽經德齋生
贈版圖判書

妣永川尹氏檢器監
就之女公與牧隱李
文靖公同中辛巳進
士科又爲稼亭公之
門生及第

官慶尙道按廉使寶
門閣大提學版圖判
書表德與生卒履歷
世遠難悉而惟海東
忠義錄云麗運將訖
公棄官退居于南谷

용인현 동쪽 오리동(梧里洞) 신지원(辛之原: 서쪽)에 려말 충신 이공의 묘소가 있다. 그가 졸(卒)한지 거금(距今) 4백여년인데 후손이 묘비를 세우기 위하여 나에게 음기(陰記)를 청하였으나 나는 아는 것이 천박하여 사양하였으나 끝내 요청하므로 삼가 선생의 실기를 상고해 보니, 공의 휘(諱)는 석지(釋之)요, 그 선대는 영천인(永川人)이며 평장사(平章事) 휘(諱) 문한(文漢)의 후예이다.

증조(曾祖)의 휘는 문경(文卿)으로 보승호군(保勝護軍)을 지냈으며 조(祖)의 휘는 송현(松賢)으로 판도판서(判圖判書)요, 부친의 휘는 흠(洽)으로 경덕제생(經德齋生)인데 판도판서로 증직되었다.

모친은 영천윤씨(永川尹氏)로 검기감(檢器監) 취(就)의 딸이다. 공은 목은(牧隱) 이문정공(李文靖公)과 더불어 신사년 중에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하였고 또 가정공(稼亭公: 이곡)의 문하생으로 급제하였다.

관위(官位)는 경상도 안렴사(按廉使), 보문각 대제학(寶文閣大提學), 판도판서(判圖判書)에 올랐는데 표덕(表德) 생년(生年), 졸년(卒年)과 이력은 세월이 멀어서 알 수가 없으나 오직 해동충의록(海東忠義錄)에 이르기를 고려의 운(運)이 장차 끝나게 되자 공은 관직을 버리고 물러나

牧隱著記曰先生之爲正言也僕忝諫議同言事忤宰相公外遷遺愛存於民心華聞孚於物望

今居南谷無心勢利或往來京都羸童瘦馬堅鞭吟詩白髯紅頰未必讓三峰蓮葉圖斯可以想得氣像韓清城脩成獨谷石璘皆以詩章酬唱足見交際之盛其矢死守貞之蹟載於不朝峴錄者凡七十二人公居其一

風標所揭可與天壤俱弊何待後人之更爲叙述乎 正宗丙午立祠於光州大峙配延安李氏別將壽昌女墓與公合祔

舉五子安愚提學安直直提學 贈兵曹判書安柔正郎安實副正郎玄實副司直

남곡(南谷)에 살았다고 하였고 목은(牧隱)의 기록에는 선생이 정언(正言)이 되었을 때 나도 간의(諫議)로서 복무할 때 언사(言事)가 재상(宰相)을 거슬러서 외직으로 옮겼으며, 남긴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고 빛나는 명성과 물망은 믿을만 하였다.

이제 남곡에 살면서 권세와 이익에 마음이 없었으며, 혹 서울을 왕래하는 도중에 파리한 아이와 여원 말에 채찍을 잡고 시를 읊조리는데 수염이 희고 얼굴이 붉으니 삼봉연엽도(三峰蓮葉圖)에 뒤지지 않으리라 하였으니 그 기상을 알만하다. 청성(淸城) 한수(韓脩)와 독곡(獨谷) 성석린(成石璘) 등이 모두 시문으로 주고 받았으니 교제(交際)의 왕성함을 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조를 지킨 사적이 부조현록(不朝峴錄)에 실려 있는데 무릇 72인이며 공 또한 그 중 한 사람이다.

풍기(風紀)와 표본(標本)을 세운것이 가위 하늘과 땅에 함께 드리워 질 것이니 어찌 후세 사람들의 서술되는 바를 기다릴 것인가. 정종(正宗: 正祖) 병오(1786)년에 광주(光州) 대치(大峙)에 사당을 세웠다. 배위는 연안이씨로 별장(別將) 수창(壽昌)의 딸로서 공의 묘에 합장하였다.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안우(安遇)는 제학(提學)이고 안직(安直)은 직제학(直提學)으로 병조판서에 증직되었고 안유(安柔)는 정랑(正郎)이며 안실(安實)은 부정랑(副正郎)이고 현실(玄實)은 부사직(副司直)이다.

安直二男宗儉直提學宗謙副提學 端廟遜位俱退隱玄實男甫欽登第爲博士與六臣志氣相契同爲殉節 贈諡忠莊命膾越中之壇與其二從配於大峙祠三世五賢並享俎豆尤爲希矣

公之遺文散失無傳只見誠子孫詩一句而史官臺閣連家世戒爾休彎萬石弓卽實語而亦所爲誠者宜矣哀粹

南谷孝友忠莊之零章隻句者卽南谷十七代孫東勗而今來謁文者又東勗之族叔周碩也系之以辭曰

辨得罔僕之義者在昔無幾兮麗社之屋何其自靖之多歟嗚呼此南谷李忠臣之玄廬兮後之知公者其必過此而噓唏歟

안식(安直)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종겸(宗儉)은 직제학(直提學)이고 종겸(宗謙)은 부제학(副提學)인데 단종이 손위(遜位)하자 함께 물러나서 은거하였다. 현실(玄實)의 아들은 보흠(甫欽)인데 과거에 급제하여 박사가 되었고 육신(六臣)과 지기(志氣)가 투합하여 함께 순절(殉節)하였으니 충장(忠莊)으로 증시(贈諡)되었으며 명하여 단묘에 제사드리게 하였고 2종(二從)과 함께 대치사(大峙祠)에 배향하였으니 3세(三世)에서 오현(五賢)을 병향(並享)하고 제사를 받드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다.

공의 유문(遺文)은 산실(散失)되어 전해오는 것이 없으나 자손을 경계하여 남긴 시 한 구절이 있으니 사관(史官)과 대각(臺閣)으로 가세(家世)가 연(連)하였으니, 만석궁을 쓰지말라 너희들에게 경계한다 하였으니 진실로 경계시킨 것이 의당한 것이다.

남곡(南谷)과 효우(孝友)와 충장(忠莊)의 영장(零章)과 집구(集句)를 수집한 것은 남곡의 17대손 동욱(東勗)이며 지금 나에게 찾아와 표문을 청한 사람은 동욱의 족숙(族叔) 주석(周錫)이다. 이에 사(辭) 하노니

망복(罔僕)의 의리를 지키는 자 지난 날에 몇이나 되던가. 고려 사직이 무너지며 어찌 자정(自靖)하는 자가 많았는고. 오호라! 이곳은 남곡 이충신의 묘소이니 후세여 이곳을 지나는 자 공임을 알고 반드시 탄식할 것이다.

崇禎四甲寅仲春資
憲大夫工曹判書兼
知義禁府事成均祭
酒 經筵官恩津宋
來熙 撰

승정기원 후 4갑인(1854) 증춘(仲春). 자헌대부
공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성균제주 경영관 은진
송래희(宋來熙) 찬(撰)하다.

이석형(李石亨) 墓表

公諱石亨字伯玉號
樗軒延安人我李蓋
出自唐中郎將茂云
考諱懷林大護軍
贈左議政妣朴氏以
乙未十月生公

十歲朴夫人卒十四
魁陞補二十六魁進
士生員及第初試翌
年又並魁三場

辛未丁議政公憂庚
寅判中樞府事辛卯
賜純誠佐理號封延
城府院君

丁酉二月初八日卒
四月葬龍仁東文秀
山圃隱先生墓左麓
夫人鄭氏即先生孫
監察保之女先公卒
葬於此至是同塋

噫公當 世宗文治
之世既以八文章見
稱大小科三場皆冠
多士牛耳之執亦獨

공의 이름은 석형(石亨)이고 자는 백옥(伯玉) 호는 저헌(樗軒)이며 연안인(延安人)이니, 우리 이씨는 당나라 중랑장(中郎將) 무(茂)에서 나왔다고 한다. 부친의 이름은 회림(懷林)이니 대호군(大護軍)을 지내고 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모친은 박씨이니 태종15년 을미년 10월에 공을 낳았다.

공이 10세가 되었을 때 박부인이 졸(卒)하였다. 14세 때에 승보시(陞補試)에 장원(壯元)으로 뽑히고, 26세에 진사, 생원, 문과의 초시(初試)에 장원하고 이듬해에도 또 삼장(三場: 생원, 진사, 문과에 세번의 본 시험을 이른다)에 모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문종 원년 신미년에 의정공(議政公)의 상(喪)을 당하였다. 성종 원년 경인년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오르고, 성종 2년 신묘년에 순성좌리공신(純誠佐理功臣)의 호(號)를 받고 연성부원군에 봉하여 졌다.

성종 8년 정유년 2월에 졸하였으니 4월에 용인 동쪽의 문수산 포은(圃隱) 정선생의 무덤 왼쪽 기슭에 장사 지냈다. 부인 정씨(鄭氏)는 선생(포은)의 손자 보(保)의 따님이니, 공보다 먼저 졸하여 이곳에 장사 지냈는데, 이에 이르러 무덤을 같이 하였다.

야! 공은 세종 임금의 문치(文治) 시대에 당하여 이미 8문장(八文章)으로 일컬어지고, 대(大), 소과(小科) 3장에서 모두 많은 선비에 으뜸이었으며, 우이(牛耳: 옛날 제후의 맹약(孟約)에 소

見推其豪健雄偉何
可量哉

歷事 五朝出入內外判京兆七年都體察八道其勤勞固已著矣晚又特兼成均訓誨多士有作成之效至成廟初乃以措世治平爲功臣其勛業可謂盛矣

至於學問公雖未嘗自任然以眞西山大學衍義刪繁就要作爲輯略以補君德治道苟無積學所得烏能如此

觀錄勛教書中精研性理學道本有源一句亦可知矣抑公與成三問朴彭年諸賢既同賜暇讀書且以道義相砥礪情甚親密

귀를 잡았는데, 여기서는 문단(文壇)에서 맹주가 됨을 뜻한다)를 잡음이 또한 홀로 추대 받았으니 그 호건(豪健)하고 웅위(雄偉)함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차례로 다섯 임금을 섬겨서 많은 내외직(內·外職)을 거치고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있음이 일곱해이고, 팔도체찰사(八道體察使)를 지냈으니, 그 나라 일에 근로함이 진실로 이미 현저(顯著)하였다. 늦게 또 특히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를 겸하여 많은 선비를 훈회(訓誨)하여서 인재를 육성한 실교(實敎)가 있었으며 성종 초년에 이르러 세상을 치평(治平)으로 이끈 공적으로 공신(功臣)이 되었으니 그 훈업이 성대하다고 이를 수 있다.

학문에 이르러서는 공이 비록 일찌기 자임(自任)하지 않았으나 진서산(眞西山: 서산은 송나라의 유학자 진덕수(眞德修)의 호)의 대학연의(大學衍義)에 있어 그 번잡한 것은 깎아버리고 요점만을 모아 집략(輯略: 대학연의 집략)으로 만들어서 군덕(君德)과 치도(治道)에 보익(補益)하였으니 진실로 학문을 쌓아 얻은바가 없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으랴!

녹훈(錄勳)하는 교서(敎書)안에 “성리의 학을 정연(精研)하여서 도가 본디 근원이 있다.” 정연성리지학도본유원(精研性理之學道本有源)은 한 귀절만 보아도 또한 알 수 있다.

공이 성삼문, 박팽년 등 여러 어진이로 더불어 함께 사가독서의 은전을 입었으며, 또 도의(道義)로써 탁마(琢磨)하여서 정의(情誼)가 매우 치밀하였다.

當壬申癸酉間公在
草土廬墓中及 光
廟受禪又卽出爲全
羅監司以此丙子之
獄得免連累而公適
巡到益山聞六臣死
遂題一詩懸于壁上
書曰丙子六月二十
七日作日

詩云虞時二女竹秦
日大夫松縱有哀榮
異寧爲冷熱容蓋寄
哀而示志也臺諫啓
請鞫問 上曰詩人
命意不知所在何必
乃爾

後 上益嚮重公禮
遇殊絕雖格於時未
果顯授嘗於 丙殿
宴公 中殿親執御
衣一襲以賜 上命
宮女製三壯元詞歌
以侑酒又謂公曰五
百年必有名世者非
卿而誰且曰卿必命
世才也

임신년과 계유년 사이에는 공이 초토(草土)에
있어 여묘(廬墓)살이를 하였고 세조가 수선(受
禪: 단종으로 부터 선위를 받음)하기에 미쳐서
는 또 즉시 전라감사가 되어 나가서 병자년의
옥사(사육신의 옥사)에 연루됨을 면하게 되었는데,
공이 마침 순행하여 익산에 이르러서 육신
의 죽음을 듣고서 드디어 시(詩) 한 수를 지어
벽위에 걸고 쓰기를 “병자년 6월 27일 지음”이
라고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우(虞)나라 때의 이녀죽이요
진(秦)나라 때의 대부송이로다. 비록 비애와 영
화에 다름이 있으나
어찌 차갑고 뜨겁게 대함이 용납되리
하였으니 슬픈 회포를 불히어 그 뜻을 보인 것
이다. 대간(大諫)이 국문(鞫問)하기를 청하니 임
금이 말하기를 “시인의 명의(命意: 뜻을 나타내
보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니. 어찌 반드시
그렇다 하라” 하였다.

그 후로 임금이 더욱 공을 존중하여 예우가
남달랐으며 비록 때에 구애받아 정승의 지위
를 줌을 얻지 못하였으나 일찌기 내전에서 공
에게 잔치를 내리고 중전(中殿)이 몸소 어의
(御衣) 일습(一襲)을 손에 잡아 내려 주었으며,
임금이 궁녀에게 명하여 삼장원사(三壯元詞)를
지어 노래하여서 술을 권하게 하였다. 또 공에
게 이르기를 “5백년이면 반드시 세상에 이름나
는 어진이가 있다” 하였으니 경이 아니고 누구
이라 하고, 또 이르기를 “경은 반드시 명세(命
世: 한 세상을 바로 잡아 구함)의 인재로다”
하였다.

蓋公之題詩也固不以死生爲意 上既不之罪又從而眷待之以全終始豈不與之臣萬代忠臣之褒同一微意也歟近世沈公光世所著海東樂府有丙子作一篇以公之節義比之徐甄曰前朝掌令亦有此 英廟當年嘉節義此實百世之公論也

公之三魁大名至今婦人孺子皆能傳誦而乃若勳業之隆學問之工節義之卓亦莫非世所尊仰者延安章甫有立祠俎豆之議云

始公未生議政公夢白龍拆大石既生有青胞裏之剖之則肥膚甚黑遍身有毛夫人謂爲不祥欲棄之議政公以爲此寄男也不果棄臀上有黑文大如手隱隱如龜形將有喜事夢臀龜必繞身行動

공이 시를 지움에 있어 진실로 죽고 사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건만, 임금이 죄를 주지 않고 또 따라서 권우(眷遇)하여서 시종을 온전히 하였으니, 어찌 육신(六臣)의 만대에 걸친 충신(忠臣)의 포장(褒獎)으로 더불어 깊은 뜻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세(近世)에 심공(沈公) 광세(光世)가 지은 해동악부(海東樂府)에 병자년 지움(丙子作) 한 편(篇)이 있어서 공의 절의를 서견(徐甄: 고려 말기에 사헌부 장령이 되어 이성계 일파를 탄핵하였으며, 고려가 망하자 절개를 지켜서 세상에 나오지 않았음)에 비겨 말하기를 전조(고려조)의 장령이 또한 영묘(英廟: 세종을 지칭함) 당년의 아름다운 절의가 있다 하였으니 이는 실로 백대의 공론(公論)이다.

공이 세번 장원을 한 큰 명성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여인이나 어린이가 모두 능히 전하여 외우며, 그 높은 훈업(勳業), 심오한 학문, 탁절(卓絶)한 절의를 또한 세상에서 높혀 우러르지 않는 이 없으니, 연안(延安)의 선비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들 의론이 있다고 한다.

공이 아직 나지 아니하여서 의정공(議政公)이 흰 용이 큰 돌을 깨고 나옴을 꿈 꾸었는데, 이미 태어나니 청포(푸른막)가 몸을 쌓았다. 이를 가르고 보니 살이 매우 검고 온 몸에 털이 있으므로 부인이 상서롭지 못하다하여 버리고자 하였으나 의정공이 이를 기남아(奇男兒)로 여겨서 마침내 버리지 않았다. 팔 위에 검은 무늬가 있어 크기가 손 만하며, 은은히 거북 모양 같았으니 장차 기쁜 일이 있으려면 반드시 팔의 거북이 몸을 돌면서 움직임을 꿈꾸었다.

稍長狀貌寄偉識度
恢弘技藝亦絕倫善
書善射且善飲酒人
稱爲無量飲蓋不但
詞學節行實有文武
全才所抱負甚重而
猶未盡展布識者恨
焉

鄭夫人生一男渾文
科掌令後夫人高靈
朴氏 宗廟署丞眞
言女葬在別罔男浩
進士女適府使宋汝
諧內外孫多至累千
人

始公歿有短表只記
姓名卒葬亦且漫漶
不可讀茲謹通議諸
宗改堅佗石仍敢略
書公事蹟本末如右
至其世系履歷之詳
具載於大碑中此不
復贅云

七代孫通訓大夫行
淸風都護府使喜朝
謹撰

차츰 자라나자 상모(狀貌)가 기위(奇偉)하고 견
식과 도량이 넓으며 기예 또한 절륜하여서 글씨
를 잘 쓰고 활 잘 쏘며 술을 잘 마셨으니 사람
들이 무량음(無量飲)이라 일컬었다. 다만 사학
(詞學)이나 절행(節行)만 아니라 실로 문, 무의
전재(全才)가 있어 포부가 매우 컸으나 오히려
이를 모두 펴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식자(識
者)가 모두 한스러워 하였다.

정부인(鄭夫人)이 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혼
(渾)이고 문과에 올라 장령을 지냈다. 후부인 고
령박씨는 종묘서승(宗廟署承)을 지낸 진언(眞言)
의 따님이니, 다른 언덕에 장사 지냈다. 아들 호
(浩)는 진사이고 딸은 부사 송여해(宋汝諧)에게
시집 갔으니, 내·외손이 많아서 여러 천명에
이른다.

처음 공이 몰(歿)하였을 때에 짧은 표석이 있어
다만 성명과 졸(卒)과 장(葬)을 기록하였을 뿐이
며, 또 글씨가 흐려서 읽을 수 없었다. 이제 삼
가 통문(通文)으로 여러 종족과 의론하여 다른
돌을 고쳐 세우기로 하고 이어 감히 공의 사적
(事績)의 본말(本末)을 위와 같이 간략하게 쓴
다. 그 세계와 이력의 상세한 것은 대비(大碑:
신도비) 안에 갖추어 실었으니 여기서 군더더기
말을 하지 않는다.

7대손 통훈대부 행청풍도호부사 희조 삼가 쓰
다.

이석형(李石亨) 神道碑

恭惟我 世宗大王
 遠撫長駕延攬群材
 修起禮樂損益章程
 以開昌明博大之治
 儒學文章之士於斯
 爲盛雲蒸龍躍鱗集
 仰流以左右鴻猷者
 指可多屈

其最著者曰樗軒李
 公諱石亨字伯玉世
 傳延安之李來自唐
 中郎將李茂以副將
 從蘇定邦平百濟留
 仕新羅賜籍于延是
 其鼻祖云

至麗朝有諱賢呂判
 少府監高祖諱孝信
 版圖判書增祖諱匡
 司僕正 贈兵曹判
 書祖諱宗茂工曹典
 書 贈左贊成考諱
 懷林侍衛司大護軍
 贈左議政

妣春川朴氏縣監農
 之女議政天性至孝
 朝夕躬掃家廟喪祭
 一遵禮制 太宗寵
 遇極隆

생각 하옵건데, 우리 세종대왕께서 원방(遠方) 사
 람들을 어루만지시고 국가의 장구한 기업(基業)
 을 경영하사 여러 어진 인재를 초빙하여 의례와
 풍악을 제정하시고 법령을 마련하사 공정하고 밝
 은 정사(政事)를 베푸시니 유학과 문장에 능통한
 선비들이 이에 배출하여 용이 구름에 쌓여 바다
 에 나타남에 온 물고기가 뒤를 따르듯 좌우에서
 보좌하는 어진 인재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중에서 가장 저명한 분은 저현 이공이니 공의
 휘는 석형(石亨)이요 자는 백옥(伯玉)이었다. 세
 상에 전하여 오기를 연안(延安)에서 소자출(所自出)은
 당나라 중랑장 이무(李茂)가 부장(副將)으로서
 소정방을 좇아 백제를 평정하고 신라에 머물러
 벼슬함에 본관을 연안(延安)으로 하사하니 이분
 이 곧 시조가 된 것이다.

여조(麗朝)에 이르러 휘 현려(賢呂)라는 분이 있
 었으니 판소부감(判少府監)을 지냈고 고조의 휘
 는 효신(孝信)이니 판도판서(判圖判書)이며 중조
 의 휘는 광(匡)이니 사복정으로서 병조판서를
 증직 받았고 조의 휘는 종무(宗茂)이니 공조전
 서(工曹典書)로서 좌찬성을 증직 받았으며 고의
 휘는 회림이니 시위사대호군(侍衛司大護軍)으로
 서 좌의정을 증직 받았다.

비(妣)는 춘천박씨이니 현감(縣監) 농(農)의 따
 님이었다. 의정부 공이 천성이 지극한 효성스러
 워 아침저녁으로 가묘를 몸소 정성껏 쓸고 상제
 는 한결같이 예절을 준행하니 태종대왕께옵서
 예우가 더욱 융숭하였다.

晚無子禱三角山生
公於乙未十月前一日議政公直禁省夢
坐大石白龍折石而出覺則舍人報生男
名公以此也

狀奇偉骨格異凡稍
長文思日進十四魁
陞補入學成均聲名
已藉甚二十六並魁
生員進士及第初試
翌年連魁三榜設科
以來未嘗有也

英廟大喜得人直拜
左正言知製 敎命
三館 賜宴闕門外
俄被選 賜暇讀書
于眞寬寺拜集賢殿
副敎理同撰治平要
覽以編修事殷不煩
佗務遂

陞至應敎丁卯重試
對策公又居魁而同
公優等者八人 親
試定魁 御題八駿
圖任製各體

늦게까지 아들이 없음에 삼각산에 기도를 올려
을미년(1415) 10월에 공이 탄생하였다. 공이 탄
생하기 하루 전날 의정공이 금성(禁省: 궁중)에
서 숙직을 할제 꿈에 큰 바위에 앉아 있었다니
흰 용이 바위를 쪼개고 나오는 것을 보고 깨었
는데 집사람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였
으므로 공의 이름을 석형이라 지은것은 이러한
까닭이었다.

공이 어려서 부터 상모(狀貌)가 기이하고 골격
이 비범하더니 차차 장성함에 문장이 날로 늘어
십사세 때에 승보시(陞輔試)에 장원하고 성균관
에 입학하니 명성이 이미 자자 하였다. 26세에
생원 진사에 급제 초시와 아울러 장원을 하고
이듬해에 삼방(三榜)을 연하여 장원하니 과거를
설치한 이래 처음있는 일이었다.

세종대왕께서 인재를 얻었다고 크게 기뻐하면서
즉시 좌정언 지제교를 제수하고 삼관(三館)을
명하여 궐문 밖에서 잔치를 열게 하였다. 얼마
후에 선발되어 휴가를 주어 진관사(眞寬寺)에서
글을 읽게 하였고 곧 집현전 부교리를 배수받아
치평요람을 함께 저술하게하니 편수(編修)하는
일이 호번(浩繁)하여 다른 사무는 참여할 여가
가 없었다.

곧 응교에 승진되었고 청묘년 중시대책(重試對
策)에 공이 또 입격이 되었는데 공과 더불어
우등으로 선발된 여덟 사람을 임금이 친히 시
험하여 장원을 정할제 어제(御題)는 팔준도라
하고 여러가지 체(體)를 임의로 제술하게 하였
다.

公始製箋以天佑作
之君聖人應千齡之
運地用莫如馬神物
效一時之能爲頭聯

成謹甫言今場可畏
莫如李某見而給曰
君欲效老學究對儷
爲工耶且以馬對君
無乃不可公長者信
其言捨而題詩成矚
知之掠其聯爲箋竟
占一頭公曰此膝不
屈於人久矣成曰我
能屈不屈人之膝一
時傳爲勝談

超授直提學辛未議
政卒盧墓三年服闋
拜直提學甲戌陞通
政仍前職乙亥 光
廟卽位拜僉知兼城
均館司成公在集賢
凡十四年始遷他職
丙子出爲全羅監司
瓜滿拜刑曹參議又
出判公州 命陞嘉

공이 처음에 전문(箋文)을 지을제 「하늘이 도
와 임금의 자리에 오르니 성인은 천년의 운회
(運會)에 응하였고 땅에서 이용하는 것은 말(馬)
을 당할 것이 없는데 신비로운 물건은 한 때의
기능을 발휘하였다」는 글로써 머리 연구(聯句)
를 삼았다.

성근보(成謹甫: 성삼문)가 사람에게 말하기를
「금번 과장에서 가장 두려운 자는 이 모」라고
하더니 이 글을 보고 속여 말하기를 「그대가
늙은 학구(學究)의 여문(麗文: 四六問)에 일 삼
는 것을 본받으려 하는가. 또 말(馬)로써 임금의
작을 채우는 것은 불가하지 않은가」하니 공은
장자(長者)인지라, 그 말을 믿어 전문(箋文)을
버리고 시를 쓰게 되었다. 성삼문이 그 기미를
알고 공이 지은 연구를 앗아 전문(箋文)을 지어
마침내 장원을 획득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이
무릎을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꿇어 본 일이 없
었다」하고 성삼문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꿇지 않은 무릎을 나는 능히 꿇린다」하니 한
때의 미담으로 전하였다.

곧 체천하여 직제학을 제수하였고 신미년에 의
정공이 돌아가시거늘 삼년간 시묘(여묘살이)를
하였다. 갑술년에 통정으로 승급되어 전직(前職)
을 인하여 보살피더니 을해년에 세조대왕이 즉
위함에 첨지중추부사를 제수하고 성균관사성을
겸임하니, 공이 집현전에 있는지 무릇 14년만에
비로소 다른 벼슬로 옮기게 되었다.

병자년에 전라감사로 나가 있다가 과만이 되어
형조참의를 제수하였고 또 공주목사에 임명되어
가선에 승급하였는데 정사에 있어 학문을 권장

善治以勸學爲先未及期化大行召拜僉知以修文殿提學朝京還 上曰特召李某者將以大用何寂寥耶 命拜漢城府尹

上將西巡海西缺方伯難其人 特命公往公翌日登途整理延鑿區劃無欠 上大喜褒賞甚渥陞秩嘉靖拜刑曹參判大司憲

先是臺官以言事多獲罪公風裁凜然甚得論事體疏劾一大臣貪蹤辭激切 上嗟歎卽召見降御榻命進勺握公手曰向使任言責者皆如卿予豈不從仍以疏示左右曰

今不得庇護某矣卽允之然公亦不久而辭遞拜京畿觀察使戶曹參判陞資憲判

하므로서 급선무를 삼으니 기년(期年)이 넘지 아니하여 교화(教化)가 크게 행하였다. 다시 내직으로 불러올려 첨지중추부사를 제수하고 수문전제학으로서 경사(중국)에 조회하고 돌아오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를 특히 부른 것은 장차 중임을 맡기려는 것인데 어찌 한산한 자리에 둘 수 있겠느냐」 하시고 한성부윤을 제수하였다.

임금이 장차 서쪽을 순행하실 즈음에 마침 해서 방백이 결원되어 적당한 인물이 없거늘, 특히 공을 임명하여 부임하게 하였다. 공이 다음날 길에 올라 난여(임금의 행차)를 맞을 준비를 하니 모든 조치가 결함이 없거늘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며 표상이 융숭하였으며 계급을 가정(嘉靖)으로 승진시키고 형조참판에 이어 대사헌을 제수하였다.

이에 앞서 대관(臺官)들이 시사를 말하다가 죄에 걸리는 자가 많았는데 공이 풍도가 늙늙하여 일을 논평하며 사체의 적합함을 얻었으며 한 대신의 탐학하고 방자함을 탄핵하는데 언사가 매우 적절하거늘 임금께서 탄복하시고 곧 공을 불러 보실제 용상에서 내려와 어온(御醞)을 하사하시고 공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기를 「전일에 대간으로 있는 자들이 모두 경과 같았다면 내가 어찌 쫓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하시고 인하여 그 상소를 좌우에 보이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무개(某)를 우호할 수 없게 되었다」 하시고 곧 윤허를 내리시었다. 그러나 풍도 또한 오래지 아니하여 대사헌을 사퇴하고 경기관찰사 호조참판을 역임하였으며 계급이 자헌(資

漢城府事兼左賓客
時設號牌五年不就
特舉公摠治悉以委
之俄陞崇政兼八道
都體察使辭朝又加
崇祿公判京兆七年
上常曰卿勿嫌久事
成將以待卿

光廟昇遐以告訃請
承襲如京還加輔國
成廟卽位卽拜判中
樞 命兼知成均館
故事主文者必兼
知館而時主文者久
不釋故特有是除盖
以公文學宿望常欲
以 命公者酬之也

公亦以育才爲己任
與二三儒老輪坐明
倫堂訓誨多士甚有
薰陶之效辛卯錄佐
理功封延城府院君
光廟嘗謂公曰再三
勳盟卿何獨不與然
必爲他日功臣至是
果驗

憲)에 올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使)로 제수하고 좌빈객을 겸하였다. 그때에 호패법을 실시하여 5년이 되도록 성과를 이루지 못하거늘 특별히 공을 기용하여 모든 일을 위임하더니 얼마 후에 승정으로 승급되어 팔도체찰사를 겸하였고 조정을 하직(下直)함에 미처 다시 승록(崇祿)을 가자 하였다. 공이 일찌기 경조(京兆)에 있어 7년을 유일하니 임금의 항상 말씀하시기를 「경이 경조에 오래 있음을 혐의치 말라 경의 간국(幹局)에 맡겨 일의 성과 있기를 기대하노라」 하였다. 세조대왕이 승하함에 미처 고부청시승습사(告訃請諡承襲使)로 경사(京師)에 갔다 돌아오니 보국(輔國)으로 승급하였으며 성묘조(成廟朝)께서 즉위함에 판중추부사를 제수하고 지성균관사를 겸임하게 하였다. 우리나라 전례에 의하면 문형(홍문관·예문관 대제학을 말함)을 맡은 자가 반드시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를 겸하는 것인데 그 때에 문형(文衡)을 맡은 자가 오랫동안 놓지 않음으로 특별히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니 이는 공의 문학과 명망이 초월하므로써 항상 공에게 맡기려는 뜻을 이룩한 것이었다.

공도 또한 인재를 양성하므로써 자기 책임을 삼아 몇 사람의 유학자와 더불어 윤번으로 명륜당에 앉아 여러 선비들을 가르치니 인재를 육성하는 효과가 심히 많았다. 신묘년에 좌리공신에 참여되어 연성부원군을 봉하였는데 세조대왕께서 일찌기 공에게 이르기를 「여러차례 봉훈(封勳)에 경이 홀로 참여되지 않았으나 후일에 반드시 공신이 될 것이라」 하더니 이에 이르러 과연 증험 되었다.

丁酉卒于第春秋六十三 成廟悼甚輟朝減膳祭及葬俱如禮諡曰文康

葬龍仁文秀山圃隱先生墓左麓遺命也與夫人鄭氏同塋公寬平而嚴重端雅而剛正識見超邁論議正大決大事亭疑法片言傳古義毅然不可奪居

恒無疾言遽色未嘗以私干人亦不受人私雖親莫敢以情容近訓子弟常如寒素子渾殿講通經特命除職公固辭曰此兒年少何敢早干恩澤

安平大君負貴而好儒聞公名艷慕之累遣人求一見公終不往亦不受其遺人以爲先見

정유년에 정침(正寢)에서 돌아가니 춘추가 63세였으며 성묘조(成廟朝)께서 부음을 들으시고 심히 슬퍼하여 조회를 거두시고 수라상에 찬을 감하시었으며 치제와 예장에 모두 의례를 갖추었고 시호는 문강(文康)이라 하였다.

용인 문수산(文秀山) 포은선생 묘소의 왼쪽 기슭에 양례(襄禮)를 모시었으니 이는 유명(遺命)에 의한 것이며 부인 정씨로 더불어 합장하였다. 공의 천성이 관후하면서도 엄정하였고 단아하면서도 강경(剛硬) 하였으며 식견이 초월하고 논의가 정대하여 큰 일을 결정하고 의심스러운 법귀를 판단함에 한마디 말로 시비를 결정하여 의연히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평소에 바른 말과 얼굴 빛을 변하는 일이 없었으며 일찌기 사사로운 일로써 다른 사람에게 청탁하는 일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청탁도 또한 받지 아니하니 비록 친절한 사이라도 감히 게을리 대하지 못하였다. 자질(子姪)을 가르침에 항상 검소한 것을 숭상하게 하였으며 아들 혼(渾)이 전강(殿講)에서 명경과(明經科)에 입격하매 특히 벼슬을 제수하였더니 공이 굳이 사양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가 나이 어리거늘 어찌 감히 일찍부터 은총을 입으랴」고 하였다.

안평대군이 호귀(豪貴)로 문사 사귀기를 좋아하더니 공의 명망을 듣고 여러차례 사람을 보내서 한번 보기를 원하였으나 공이 마침내 가지 아니하고 선물 보내는 것도 또한 받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견지명이 있다고 하였다.

光廟踐祚公以先朝
帷幄形跡自孤齟齬
者伺公萬狀公凝然
自持無幾微見於色
辭絕不競馳而求進
又力求外以遠害在
湖南

聞六臣之死題詩於
益山東軒曰虞時二
女竹秦日大夫松縱
是哀榮異寧爲冷熱
容蓋寄哀而示志也

有人惡之於 上且
請按治 上曰此特
詞人詠物何必深求
終不問

後 上益嚮重公禮
遇殊絕雖格於時未
果顯授而陞超日隆
嘗於內殿宴公 中
殿親執御衣一襲以
賜之 命宮女製三
壯元詞歌以侑酒自
是每召飲必歌之嘗

세조대왕이 즉위함에 선조(단종)의 중신(重臣)으로 써 형적(形跡)이 의롭거늘, 공을 헐뜯는 자들이 백방으로 틈을 노렸으나 공이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어색한 기미를 사색(辭色)에 나타내지도 않았으며 권문에 추종하여 좋은 자리를 도모하려 하지 아니하고 한가한 외직을 구하여 해치려는 자들을 멀리 하기에 힘썼다.

호남에 있을 때에 육신(六臣)이 참혹하게 죽은 것을 듣고 익산의 동헌에 시를 써서 이르기를 「순 임금의 창오산(蒼梧山)에 들어감에 아황(娥皇) 여녕(女英)이 피 눈물을 뿌린 소상반죽(瀟湘斑竹)과 진시황이 비를 피하고 이품관작을 봉한 소나무는 슬프고 영화로움이 비록 다르나 어찌 염량세태(炎涼世態: 부귀를 추종하고 빈천을 멸시하는 것)를 따라 권세에 아부하는 일이야 있을손가」 하였다. 이는 숲은 회포로 시에 붙혀 그 뜻을 보인 것이다.

공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 임금에게 이 시를 지적하고 형벌로 다스리기를 청하거늘, 임금이 이르기를 「이 시는 시인으로써 영물(詠物)한대 지나지 않는데 깊이 추궁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마침내 묻지 아니 하였다.

그 후 임금께서 더욱 공을 소중히 여겨 예우가 융숭하였으며 비록 당로자(當路者: 정사를 담당한 자)들과 지취(志趣)가 맞지 아니하여 현혹한 벼슬은 맡기지 않았으나 관질(官秩)이 날로 승진하였다. 일찌기 공을 내전에 불러 잔치를 하사할제 중전께서 어의(御衣) 일습을 친히 내리시고 궁녀에게 명하여 삼장원사(三狀元詞)를 지어 노래하며 술을 권하게 하니 이로부터 궁중으로 부터 어온(御醞)을 내릴 때마다 반드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謂公曰五百年王者
興其間必有名世者
非卿而誰公曰臣不
敢當公筆法妙一時
集賢諸公發願詩亦
以公書爲首

公嘗撰大學衍義輯
略二十一卷隨箋上
進 上嘉獎賜鞍馬
卽命印頒

晚年官閒詩酒自娛
家在泮水西溪壑窈
窕葛巾藜杖嘯詠其
中客至留小飲人望
之如神仙清慎節儉
不治生產業位極人
臣而斗屋蕭然有屢
空之歎構茅亭數椽
於園中名之曰戒溢
平生飭躬訓子弟皆
以是卒日朝野悲號
哭弔賻無不盡公著
述甚多而散失殆盡
成廟朝命裒輯印
頒僅二卷行于世

임금이 일찌기 공에게 이르기를 「오백년 만
에 왕자가 일어나면 반드시 어진 인재가 있다
하는데 경이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신이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
나이까」 하였다. 공의 필법(筆法)이 일세에 관
절(冠絶)하였으니 집현전에 있는 여러 학사들
의 발원시에도 또한 공의 글씨를 으뜸으로 삼
았다.

공이 일찌기 「대학연의증략」 이십일권을 저술
하여 전문(箋文)을 딸려 위에 올리니 임금께서
보시고 칭상(稱賞)이 자자하였으며 안구마(按具
馬) 1필을 하사하시고 곧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
였다.

만년에 이르러 벼슬이 한가하여 시를 읊고 물마
시는 것으로 취미를 삼았으며 가대(家垓)가 반
수(泮水) 서쪽에 있어 계곡이 아담하였는데 갈
포 건과 청려장으로 그 사이에 거닐고 손이 오
면 정담으로 사귀며 술을 나누니 사람들이 보고
신선이라 하였다. 평생에 청렴하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여 치산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벼슬
이 1품에 이르렀으나 수간 두옥(斗屋)에 생계가
청빈하였으며 후원에 조그마한 정자를 세워 계
일(戒溢: 넘치는 것을 경계한다는 뜻)이라 이름
하였으니 평생에 몸소 신칙하여 자손에게 훈계
함이 이와 같았다. 돌아가는 날에는 조야(朝野)
가 모두 슬퍼하여 조객이 열을 지었으며 부의
(賻儀)하는데 성의를 다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공이 저술한 바가 많았으나 거의 유실 되었으며
성묘조(成廟朝)께서 이를 수집하여 인쇄 반포하
라 명하시어 겨우 문집 두권이 세상에 전하였을
뿐이다.

噫文章之選莫盛
世宗朝公每舉獨冠
多士一時群材莫敢
望焉倘非公之望實
洽於朝野烏能若是
其卓卓當乙亥丙子
年間並遊諸人非禍
則顯鍾彝鼎鑊判於
左右而公獨履順居
正危不詭隨負勢者
不能屈工讒者不能
間倘非公之樹立如
是卓卓烏能免於及
哉

公雖未臻大拜位望
固已顯隆矣而人猶
以不盡用爲恨惟其
用之不盡也故其名
愈益重世之望公如
泰山喬嶽至今婦人
孺子皆能誦之不衰
觀於國乘野史可知
已

公之內外諸孫共一
千五百餘人世繼
簪纓蟬聯登筮豈其
不盡用者在是耶

아 문사의 배출함이 세종조 같은 때가 없었는데 과장(科場)이 있을 때마다 공이 홀로 여러 선비를 압도하여 당시 인재들이 감히 겨루어 볼 생각을 못하였으니 공의 문학과 명망이 탁월하지 않았으면 어찌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을해, 병자년, 단종이 손위할 때를 당하여 같이 추종하던 여러 사람들이 혹은 흑화(酷禍)를 입고 혹은 현달하여 부귀공명과 멸족의 참화가 좌단과 우단(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에 달려 있는데 공이 홀로 정도를 밟아 의 아닌데 따르지 않았으나 권력을 권자가 능히 굴복시키지 못하였고 참소를 잘하는 자가 능히 이간하지 못하였으니 만일 공이 수렵한 바가 탁월하지 않았으면 화를 모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공이 비록 3공(정승반열)의 지위에 이르지 못하여으나 현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재주를 다 쓰지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였으니 오직 그 재주를 다 발휘하지 못하므로써 그 이름이 더욱 중하게 되어 세상에서 태산교악(泰山喬嶽)과 같이 우러러 보고 지금에 이르기 까지 부인과 어린 아이들이 칭송하여 마지 아니하니 국승(國乘)과 야사를 보더라도 과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의 내외 제손과 증현손이 모두 1천5백명에 달하고 대대로 벼슬을 이어 연면하여 조반(朝班)에 오르니 공의 재주를 다 쓰지 아니한 음덕이 아닌가 생각한다.

不肖孫廷龜生於公
沒百年之後祇奉遺
訓忝竊名位雖典刑
邈焉未及見道德之
光輝先君子常以太
史公臨絕之語託於
不肖曰我先祖高名
大業赫赫照人耳目
非子若孫所敢私惟
是墓道不朽之業予
旣齋志未遂汝其勉
哉不肖孤夙夜佩服
耿耿三十年所矣敢
以平昔先君所詔者
詮次如右蓋有略而
無溢云銘曰

天眷 聖王蔚啓昌
期惟嶽降靈
乃魁多士乃儀于朝
金門歲星
雲龍風虎千載一時
拔茅彙征 如彼祥
鳳嚙嚙麗霄瑞世文
明
黃麻六經振玉鏗
金萬竅俱瘖
黼黻皇王笙簧禮樂
日虛聖襟

불초 정구(廷龜)가 공이 돌아가신지 백년 후에 태어나서 그 유훈을 받들어 벼슬에 오르게 되었는데 비록 승안(承顔: 얼굴을 뵈는 것)한 일이 없어 도덕의 용광(容光)을 뵈옵지는 못하였으나 선군자께서 항상 태사공이 유언하신 바로써 불초에게 부탁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 선조의 높으신 명망과 큰 사업이 사람들의 이목에 젖어 있어 자손들 만이 간직해 둘 일이 아니므로 묘도에 영구한 기념을 남기려 하였으나 뜻만 두고 이루지 못하였으니 너는 이에 힘쓰라」 하시기에 불초소자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지가 벌써 30년이 되었다. 이에 감히 옛날 선군께서 말씀하신바 간추려 이상과 같이 엮어 놓았는데 생략한 바는 있어도 실지에 넘치는 바는 없을 것이다.

명에 이르기를 「하늘이 성군을 도와 승평(昇平)의 운회(運會)를 열었으니 산천의 정기가 모여 영재를 탄생케 하였도다. 이에 여러 문사의 우두머리가 되며 조정의 의표가 되니 금마분(한나라 미양궁 앞에 동으로 말을 세우고, 그 문을 금마문이라 하였음)에 빛나는 복성(福星)이로다. 구슬이 용을 옹호하고 바람이 비를 따르 듯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천년만에 한번 모여 정인군자(正人君子)들이 떼를지어 조정의 반열에 나아가니 저 상서로운 봉황이 높은 하늘에 짝지어 울듯 밝은 세상에 문명한 기상이로다.

경연에서 육경(시전, 서전, 주역, 예기, 춘추, 악(樂)을 강론하여 금옥(金玉)의 소리 올리니 일만입(口)이 조용하였고, 왕도를 보좌하여 예악을

天地變化公惟自靖
 享以濟艱
 進不離正貞不絕俗
 壁立危班
 雖居散秩恩遇日渥
 士望愈碩
 京兆七年體察八路
 所至手額
 成廟之初擢長成均
 蔚然儒宗
 策名佐治優遊盟府
 位聯上公
 發揮曾書纂成治鑑
 筆下經綸
 名標文苑功著儒林
 澤在斯民
 文秀之山昔賢所宅
 公卜其麓
 芳徽不孤百世如昨
 者必式
 公前配烏川鄭氏圃
 隱文忠公之孫縣監
 保之女後配高靈朴
 氏宗廟署丞眞言之
 女鄭氏生一男曰渾
 文科掌令朴氏生一
 男一女男曰浩進士
 女適府使宋汝諧此
 公之子若女也

제정하니 성군의 포상이 마지않았네. 천지가 번
 복하매 공이 오직 몸을 신칙하여 난관을 건느니
 나아감에 정도에서 떠나지 않고 곧으면서 세속
 을 끊지 아니하여 위태로운 조반(朝班)에서 지
 주(砥柱: 주추돌과 기둥)와 같이 우뚝하게 서 있
 도다. 비록 한산한 벼슬에 있으면서도 은총이
 날로 융숭하니 사림의 명망이 더욱 두터웠으며
 경조(京兆)에 7년을 있었고 팔도를 체찰하는 직
 책에 맡아 가는 곳마다 환성이 가득하였어라.
 성종조 초년에 성균관의 장식(長席)에 임명되니
 울연히 유림의 종장(宗匠)이 되었고 좌리 공신
 을 봉하여 충훈부에 이름이 오르니 지위는 삼공
 을 넘나 들었네. 대학연의를 저술하여 정사의
 자료를 삼으니 불끝에 경륜이 섬부(瞻富)하였고
 문원에 사범이 되어 공을 유림에 나타내니 은혜
 는 백성에 까지 미치었구나. 문수의 명산은 옛
 날 포은선생의 만년유택인데 공이 그 산기슭에
 분묘를 점치니 아름다운 지취가 외롭지 아니하
 여 백세후에 이르기 까지 지나는 자가 반드시
 머리를 숙여 예배하리로다.

공의 전배(前配)는 오천정씨(烏川鄭氏: 연일)이
 니 포은 문충공의 손 현감을 지낸 보(保)의 따
 님이고 후배(後配) 고령박씨는 종묘서승(宗廟署
 丞)을 지낸 진언(眞言)의 따님이시다. 정씨가 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혼(渾)이다. 문과에 급
 제하여 장령(掌令)을 지냈고 박씨는 아들 하나
 와 딸 하나를 낳았다. 아들 호(浩)는 진사이고
 딸은 부사 송여해(宋汝海)에게 출가하였는데 이
 들이 공의 아들과 딸이다.

曰大護軍壽長命長
 福長孝長同知順長
 文科僉知敬長原陽
 君邊士謙公之孫行
 曰承旨巉縣監巉監
 察岫護軍岫縣令密
 兵使邊明胤郡守邊
 季胤司評朴謹等三
 十四公之曾孫行曰
 郡守廷秀廷華廷虎
 縣監麟瑞麟趾麟定
 副司直枝華別坐枝
 薰判書廷龜僉知廷
 顯崔泳津判書邊協
 等八十七公之四代
 孫行

曰縣令贊寶資右贊
 成貴參軍賚察訪賓
 蕘縣監藏教官復興
 汝興中興永興監察
 楫檣梯櫓樞橈楠欄
 檠樺司諫明漢修撰
 昭漢判尹邊應星兵
 使邊應奎掌令邊應
 璧兵使趙誼趙認趙
 諶承旨韓孝仲察訪
 金積教官閔後騫縣
 監崔應斗府使李廷

대호군(大護軍) 수장(壽長), 명장(命長), 복장(福長, 효장(孝長) 동지(同知) 순장(順長) 문과첨지(文科僉知) 경장(敬長), 원양군(原陽君) 변사겸(邊士謙)은 공의 손행(孫行)이다. 승지(承旨) 기(기). 현감(縣監) 의(巉), 감찰(監察) 두(斗) 호군(護軍) 수(岫) 현령(縣令) 계(啓) 병사(兵使) 병명윤(邊明胤) 군수 변계윤(邊季胤) 사평(司評) 박근(朴謹)등 34인은 공의 증손행(曾孫行)이나, 군수 정수(廷秀), 정화(廷華), 정호(廷虎) 현감 인서(麟瑞), 인지(麟趾), 인정(麟定), 부사직(副司直), 지화(枝華), 별좌 지훈(枝薰), 판서 정귀(廷龜), 첨지 정현(廷顯), 최영진(崔泳津), 판서 변협(邊協)등 87인은 공의 4대 손행이다.

현령 빈(贇), 보(寶), 자(資), 우찬성 귀(貴), 참군(參軍), 뇌(賚), 찰방 빈(賓), 분(蕘), 현감 장(藏), 교관(教官) 복흥(復興), 여흥(汝興), 중흥(中興), 영흥(永興), 감찰 즈(楫) 장(檣), 제(梯), 노(櫓), 추(樞), 요(橈), 남(楠), 난(欄), 영(檣), 화(樺), 사간(司諫) 명한(明漢), 수찬(修撰), 소한(昭漢), 판윤(判尹) 변응성(邊應星), 병사 변응규(邊應奎), 장령(掌令) 변응벽(邊應璧), 병사 조의(趙宜), 조인(趙認), 조심(趙諶), 승지 한효중(韓孝仲), 감찰 김적(金積), 교관 민후건(閔後騫), 현감 최응두(崔應斗), 부사 이정철(李廷哲), 주부 박대건(朴大健), 대화(大華), 사예(司藝), 홍영(洪羹), 정현원(鄭玄源), 박지경(朴知警), 이운(李運),

哲主簿朴大健大華
司藝洪震鄭玄源朴
知警李運閔相元許
繼忠鄭象海等二百
餘公之五代孫行

曰教官時尹時曾時
孟時程時說時達時
敏延陽君時伯時聃
牧使時昉時亮時益
時稷時爽時陟時尙
時良時英時俊(譜
作得)時藝時遇時
選時進時迪時健
(譜作遠)時燁時燮
時爚時煥判書吳允
謙正郎吳允諧察訪
吳允誠允誠承旨申
應渠正李舜民洪汝
一邊慶胤翰林金高
金慶餘縣令尹吉元
承旨張自好柳秀春
邊屹崔峻天金俊男
縣監朴峻成弘憲僉
知趙國信國哲國俊
佐郎韓必遠必厚必
久副正邊忠範永安
尉洪柱元許响等二
百四十餘公之六代
孫行

민상원(閔相元), 허계충(許繼忠), 정상해(鄭象海)
등 2백여인은 공의 5대손행이다.

교관 시윤(時尹), 시증(時曾), 시맹(時孟), 시정
(時程), 시열(時說), 시달(時達), 시민(時敏), 연양
군(延陽君) 시백(時白), 시담(時聃), 목사 시방
(時昉), 시량(時亮), 시익(時益), 시직(時稷), 시석
(時奭), 시척(時陟), 시상(時尙), 시량(時良), 시영
(時英), 시준(時俊: 보에는 득으로 되어 있음),
시에(時藝), 시우(時遇), 시선(時選), 시진(時進),
시적(時迪), 시건(時健: 보에는 원으로 되어 있음),
시엽(時燁), 시섭(時燮), 시훈(時燮), 시환(時煥),
판서 오윤겸(吳允謙), 정랑 오윤해(吳允諧), 참방
오윤함(吳允誠), 윤성(允誠) 승지 신응구(申應
渠), 이순민(李舜民), 홍여일(洪汝一), 변경운(邊
慶胤), 한림(翰林), 김설(金高), 김경여(金慶餘),
현령(縣令) 윤길원(尹吉元), 승지 장자호(張自好)
유수춘(柳秀春), 변홀(邊屹), 최준천(崔峻天), 김
준남(金俊男), 현감 박준(朴峻), 성홍헌(成弘憲),
첨지 조국신(趙國信), 국철(國哲), 국준(國俊), 좌
랑 한필원(韓必遠), 필후(必厚), 필구(必久), 부정
(副正), 변충범(邊忠範), 영안위(永安尉), 홍주원
(洪柱元), 허순(許响) 등 240여인은 공의 6대손
행이다.

曰遠基憫博悌悰縣令恪恆憬恂愷惇悅吳達天具鳳瑞等五十公之七代孫行此掌令出也曰郡守宋世忠宋世良尹伯齡公之外孫曰參贊宋麒壽參判宋麟壽贊成丁應斗縣監成悌元等十三公之曾孫行

曰大詞諫宋應漑牧使宋應洞副提學宋應洵應期應光應慶監司尹希吉判書尹自新郡守尹克任都事申承緒校理金瞻俞大修監事丁胤禧參議丁胤佑參判丁胤福尹仁涵等四十一公之四代孫行

曰右議政申欽監司申鑑正宋碩祚孝祚裕祚顯祚邦祚廷祚熙祚甲祚參贊李慶全判決事李愷參判南以信李尙信李惕監司丁好善丁好恭

원기(遠基), 한(憫), 단(搏), 제(悌), 종(悰), 현령각(恪), 항(恆), 경(憬), 순(恂), 등(愷), 돈(惇), 엄(惇), 열(悅), 오달천(吳達天), 구봉서(具鳳瑞) 등 50인은 공의 7대손행이다.

이는 모두 장령(掌令: 이석형의 맏아들 혼(渾)에게서 나온 것이다. 군수 종세충(宗世忠) 송세량(宋世良), 윤백령(尹伯齡)은 공의 외손이다. 참찬 송기수(宋麒壽), 참판 송인수(宋麟壽), 찬성 정응두(丁應斗), 현감 성제원(成悌元) 등 13인은 공의 증손행이다.

대사간 송응개(宋應漑), 목사 송응형(宋應洞), 부제학(副提學) 송응순(宋應順), 응기(應期), 응광(應光), 응경(應慶), 감사 윤희길(尹希吉), 판서 윤자신(尹自新), 군수 윤극임(尹克任), 도사(都事), 신승서(申承緒), 교리(校理) 김침(金瞻), 유대수(俞大修), 감사 정윤희(丁胤禧), 참의(參議), 정윤우(丁胤佑), 참판 정윤복(丁胤福), 윤인함(尹仁涵) 등 41인은 공의 4대손행이다.

우의정(右議政) 신흘(申欽), 감사 신감정(申鑑正), 송석조(宋碩祚), 효조(孝祚), 유조(裕祚), 현조(顯祚), 방조(邦祚), 정조(廷祚), 희조(熙祚), 갑조(甲祚), 참찬(參贊), 이경전(李慶全), 판경사(判決事), 이십(李愷), 참판 남이신(南以信), 이탕(李惕), 감사 정호선(丁好善), 정호공(丁好恭), 정호관(丁好寬), 정호서(丁好恕), 정호덕(丁好德) 등 1백30인은 공의 5대손행이다.

丁好寬丁好恕丁好德等一百三十公之五代孫行

曰參判宋錫慶權盼權昕東陽尉申翊聖申翊亮丁彦珪丁彦璜南斗瞻李晉英等一百五十公之六代孫行此府使出也

曰導壤守公之孫曰洪佑卿李岑等八公之曾孫曰洪儀李天鵬慎泓等八公之四代孫行曰李宗誠李克一金重鎰等十三公之五代孫行曰金克新慎惟一慎惟誠等二十五公之六代孫行此進士出也

派遠而不顯者幼且未冠嫁者不盡錄

四代孫輔國崇祿大夫行議政府左贊成兼禮曹判書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世子貳師李廷龜撰

참판 송석경(宋錫慶), 권방(權昉), 권흔동(權昕東),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신익량(申翊亮), 정언규(丁彦珪), 정언황(丁彦璜), 남두침(南斗瞻), 이진영(李晉英) 등 1백 5십인은 공의 6대 손행이니 이는 부사(공의 사위)에게서 나왔다.

도양수(道壤守)는 공의 손자이고 홍우경(洪佑卿)이 이잠(李岑)등 8인은 공의 증손이고 홍의(洪儀), 이천봉(李天鵬), 신흥(慎泓)등 8인은 공의 4대손행이고, 이종성(李宗誠), 이극일(李克一), 김중일(金重鎰) 등 13인은 공의 5대 손행이고 김극신(金克新), 신유일(慎惟一), 신유성(新惟誠) 등 25인은 공의 6대 손행이니, 이는 진사(進士)에게서 나왔다.

파(派)가 멀고 현달하지 못한자와 나이 어리고 또 장가들거나 시집가지 않는 자는 모두 기록하지 못하였다.

4대손 보국승록대부 행의정부 좌찬성겸 예조판서 판의금부사 지경연 춘추관사 세자이사 이정귀 짓고

六代孫崇德大夫東
陽尉申翊聖書

崇政大夫行兵曹判
書兼同知成均館事
金尙容 篆

6대손 승덕대부 동양위 신익성 쓰고

승정대부 행 병조판서 겸 동지성균관사 김상용
전액하다.

이수민(李壽民) 墓碣

有明朝鮮嘉善大夫
三道統制使李公墓
碣銘并序

嘉善大夫司憲府大
司憲 李 緯撰

通訓大夫行弘文館
應教 金鎮商 書

大匡輔國崇祿大夫
行判中樞府使 閔
鎮遠 篆

歲辛丑凶逆猖獗金
相國昌集李相國頤
命諸公竝罹酷禍統
制使李公壽民素爲
二公所識拔群凶仇
嫉之白地羅織拘繫
且二年欲殺而不能
得旌義在南海中去
京師數千里謫者鮮
得還乃以處公公時
年七十三居一年卒
甲辰十一月十二日
也

申尙書鉉亦年八十
餘同謫以詩哭之曰
先朝宿將初非罪絕

유명조선(有明朝鮮) 가선대부(嘉善大夫) 삼도통
제사(三道統制使) 이공(李公) 묘갈명(墓碣銘) 병
서(并序)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재(李緯)는 글을 짓고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홍문관응교(弘文館應
教) 김진상(金鎮商)은 글을 썼으며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행(行)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민진원(閔鎮遠)은 전액
(篆額)을 하다.

신축년(1721) 흉역들이 창궐(猖獗)함에 상국(相
國) 김창집과 상국 이이명 등 제공(諸公)들은
혹화(酷禍)를 걱정하였다. 통제사 이공 수민(壽
民)은 미리 이공(二公)의 식발(識拔)한 바 되었
다. 이에 군흉에게 구질(仇嫉)되어 아무런 까닭
없이 이직(罹織)하여 구계(拘繫)되었다. 또 2년
후에는 공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능히 얻지 못
하고 정의(旌義)로 유배되었는데, 남해에 있어
경사(京師)와의 거리가 수천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된 사람들은 거반 방환(放還)됨을 얻지 못
하였다. 이에 공 또한 이곳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공의 나이는 73세였다. 1년을 이곳에 머
물다가 돌아가니 갑진년(1724) 11월 12일이었
다.

상서 신임(申鉉) 또한 나이 80으로 함께 유배되
었는데, 시(詩)를 지어 곡읍하며 이르기 “선조
의 숙장(宿將)가 처음 죄가 아닌 것으로 절역(絶

域羈魂竟抱冤聞者
悲之今 上元年乙
巳大雪冤枉流竄者
悉還申公渡海道卒
公則不及知矣四月
還葬于龍仁窟巖
命復爵祭賻如儀

公字一卿其先青海
伯之蘭爲我 太祖
元勳子孫仍著籍青
海傳累世同中樞麟
奇號松溪高簡工詩
筆爲士類所重清陰
先生實銘其墓是生
明老 贈承知承旨
生僉正諱文柱於公
爲祖考考諱詡宣傳
官 贈參判妣金溝
李氏考曰俊生

公以 崇禎辛卯生
丙辰武料爲宣傳官
者三訓練院主簿都
總府都事經歷出守
高原樂安二郡長興
府使辛巳擢羅州討
捕使入爲羽林司僕
將間爲南虞候病免
用厭避律卽其地充

域)에 기혼(羈魄: 여행중의 생각)하였으나 마침내
원통함을 품었다고 하니 듣는 자는 이를 슬퍼하
노라”라고 하였다. 금상(영조) 원년 을사년(1725)
큰 눈으로 원왕(冤枉: 冤罪)으로 유배된 사람들
을 모두 방환시켜 신공(申公: 신임)은 해도를 건
넛으나 마침내 공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4월
용인(龍仁)의 굴암(窟巖)에 환장(還葬)하였으며
관직을 회복하고 부제(賻祭)를 예의(禮儀)에 따라
하도록 하였다.

공(公)의 자는 일경이며 그 선조는 청해백 지란
으로 우리 태조의 원훈(元勳)이었다. 자손들이 거
듭 관적인 청해의 명성을 드높혀 여러 대를 지나
동중추(同中樞) 인기(麟奇)는 호(號)가 송계(松溪)
인데, 고간(高簡)하고 시필(試筆)에 뛰어나 사류
(士類)들이 소중히 여기는 바 되었으며 청음선생
이 그 묘(墓)에 아름다운 명(銘)을 하였다. 이분
이 명노를 낳으니 승지에 증직되었으며, 승지공이
첨정 휘(諱) 문주를 낳으니 공에게는 조고가 된
다. 고의 휘는 후(詡)로 선전관을 지내고 참판에
증직되었고 비 금구이씨의 아버지는 준생(俊生)
이다.

공은 승정 신묘년(1651)에 출생하여 병진년
(1688) 무과에 급제하였는데, 선전관을 역임한
것이 3번이었다. 이후 훈련원주부, 도총부도사,
경력을 지내고 외직으로 나아가 고원·낙안·2
군(郡)의 군수를 거쳐 장흥부사를 지냈다. 신사
년(1701) 나주토포사로 발탁되었다가 내직(內職)
으로 들어와 우림사업장(羽林司業將)이 되었으
며, 그 사이에 남쪽의 우후(虞候)를 지냈는데,
병으로 면하였다. 재임중에는 마음을 다하되
가능한 법률을 피한 즉 그곳에 군사가 가득하여

軍重臣有白其實者
得解

除鐵山府使濟州牧
使濟州未赴遞拜全
羅左道水軍節度使
秩滿還拜宣傳官由
長湍防禦使拜全羅
兵馬節度使陞三道
統制使論者言其太
驟旋仍舊又陞會寧
府使不赴己亥以御
營中軍進階嘉善轉
禁軍別將兼都總府
副總管復拜統制使
公爲治剛明吏憚民
懷所至軍械皆一新
御吏巡撫使屢褒聞
在統營尤得士卒心
臨遞禍焰燔天人人
重足金相國南遷過
營下公出院門候之
令褊裨護行又遍饋
遠近謫者無遺或以
禍福爲言則公笑曰
七十翁復何所求爲
善類獲罪吾所甘心

중신들은 그 사실을 왕에게 아뢰어 해직(解職)을 얻었다.

이후 철산부사와 제주목사를 배수하였으나 제주는 부임하지 않았으며 전라좌도수군절도사로 체배되었다. 임기를 다하고 돌아와 선전관(宣傳官)을 배수하였고 장단방어사를 거쳐 전라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으며 품계가 올라 삼도통제사가 되었는데, 논자(論者)들은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구례(舊例)에 따라 또 회령부사로 승진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기해년(1719)에는 어영중군으로 품계가 가선계(嘉善階)로 올라 금군별장(禁軍別將) 겸 도총부부총관에 전배(轉拜)되었고 다시 통제사(統制使)를 제수받았다.

공은 다스림에 있어 강명하여 관속은 수고롭게 하면서도 백성에게는 편안함을 주었다. 군계에 있어서는 모두 일신하여 어사나 순무사들이 여러차례 포사(褒賜)를 청하기도 하였다. 통영에서 재임하고 있을 때는 더욱 사졸의 마음을 얻어 체직됨에 이르러서는 화의 불꽃이 하늘을 재임하고 있을 때는 더욱 사졸의 마음을 얻어 체직됨에 이르러서는 화의 불꽃이 하늘을 사른다는 평이 있어 사람마다 더욱 중하게 여겼다. 김상국(김창집)이 남천(南遷)하며 영(營)을 지나게 되자 공은 마을까지 나와 이를 문후하였으며 편비(副將)들에게 명하여 호행하도록 하였다. 또 두루 음식을 먹임에 원근의 유배자들중 빠진 사람이 없었다. 혹 화복(禍福)으로 말이 있게 되면 공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이 70 먹은 늙은이가 무엇을 구하겠는가. 선류(善類)를 위하여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나의 감심(甘心)이다”라고 하였다.

既而兇孽謂公曲護逆堂請遠配尋又以軍布三百同領送京中構罪下吏會鞫囚有與賊鏡通者陰受其嗾誣以訓練大將李弘述得統布以助成凶謀公遂移鞫廳初訓局以財力凋弊乞貸來公營其數爲三百之半公又折其半及其請蕩滅也公申狀違覆且錄于營簿至是查實一如公爰辭群凶計敗公以是得不死而猶不免於竄仍憂憤以卒

公姿性和易無傷人害物之心不喜芬華被服如布素親疾用并華嘗冬夜躬汲又爇薪以適寒溫不使童僕代妹子失母育於家及長資其田宅窮族之不能嫁者嫁之其內行之篤如此

흉얼들이 공을 일러 곡호(曲護) 역당(逆黨)이라고 하여 먼 지방으로 유배하기를 청하고, 또 얼마 있다가 군목(軍木) 3백 동령(同領)을 한성으로 보내는데 있어 죄를 끌어당겨 하리(下吏)가 죄인을 국문함에 적과 더불어 통하는 자가 몰래 그 족당을 무고하였으며 훈련대장 이홍술은 통목(統木)을 얻은 것으로 흉모를 조성하였다. 공이 드디어 국청으로 옮겨졌는데, 처음에 훈국에서는 재력으로 그 폐해를 줄이고자 2번씩이나 오기를 빌었으나 공은 관리하는 그 수가 3백의 반이라고 하였으며 공은 또 그 반을 줄여 탕감(蕩滅)하기를 청하였다. 공은 장계(狀啓)를 올려 위복(違覆)하고 또 영부(營簿)에 기록함을 이에 이르러 실사(實查)하여 보니 하나도 틀림이 없어 공은 이것으로 군흉(群凶)의 계획을 패배시켰다. 그러나 공은 이로써 죽음을 면하였으나 오히려 유배됨을 면하지는 못하여 거듭 우분(憂憤)하다가 돌아갔다.

공의 자성은 화이하여 사람이나 동물을 상해코자 하는 마음이 없었으며 분화(芬華)를 좋아하지 않고 옷을 입는데는 흰 베를 좋아하였다. 부모가 병이 있으면 좋다는 것은 모두 사용하였고 일찌기 겨울의 밤에라도 몸소 물을 길어 날랐으며 또 땀나무에 불을 지펴 한기와 온기를 적당히 하였는데, 동복으로 하여금 대신케 하지 않았다. 매자가 일찍이 어머니를 잃어 집에서 길렀는데 성장함에 미쳐서는 그 전택을 밑천으로 삼게 하였고 어려운 족속의 출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출가케 하였으니 그 내행의 독독함이 이와 같았다.

仕宦久在通塞間人
惜其屈公則退然老
而進庸復值陽九卒
與善類同其榮辱至
死而不悔苟非中有
所守惡能若是哉嗚
呼偉哉

夫人順興安氏通德
郎斗極之女明淑有
婦德 肅廟始喪家
無男子能哭泣以時
制服而服之人賢之
後公五年年七十六
卒而合祔一男二女
男檝女壻士人申思
鼎兵使崔命柱檝及
爲申龜夏妻者側出
也檝繼子慶章申壻
繼子暉一女歸士人
洪星漢崔壻一子禴
檝請銘銘曰

在昔堂禍莫甚東京

維時皇甫自謂豪英

而恥不與不欲獨生

벼슬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통색(通塞)이 계속
됨에 사람들은 그 굴곡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
러나 공은 퇴연히 하였으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만일 거듭되는 양구(재화)를 만나게 되면 선류
들과 더불어 그 영욕을 함께 하였으며 막힘에
이르더라도 후회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수악한
자들이 능히 이와같이 할 수 있겠는가! 오호라!
위대하도다.

부인(夫人)은 순흥안씨로 통덕랑(通德郎) 두극
(斗極)의 딸이다. 명숙(明淑)하고 부덕(婦德)이
있어 숙종때에 처음으로 상(喪)을 당하여 집안
에 남자가 없었는데도 능히 곡읍(哭泣)하였고
때에 맞게 제복(制服)을 적절하게 하니 과연
현인(賢人)의 후예답다고 하겠다. 공보다 5살
위로 나이 76세에 돌아가 합장하였다. 1남 2녀
를 두었는데 아들은 즈(檝)이고 사위는 사인
(士人) 신사정(申思鼎)과 병사(兵使) 최명주(崔
命柱)이다. 경(檝)과 신귀하(申龜夏)의 처는 측
출(側出)의 소생이다. 즈(檝)의 계자(繼子)는
경장(慶章)이고 신사정(申思鼎)의 계자(繼子)는
위(暉)이며 1녀는 사인(士人) 홍성한(洪星漢)에
게 출가하였다. 최명주(崔明柱)의 1남은 육(禴)
이다.

즈(檝)이 명(銘)을 청하여 명(銘)하기를

옛날 화(禍)를 당(當)하여 동경(東京)이 막심하
였네

이때 황보씨(皇甫氏)는 스스로 영웅이라 일컬었
네

모욕을 함께 하지도 또 하고자 하지도 않고 독
생(獨生)하였네

公則何辛斯爲光榮

공은 즉 무엇이 행운인가. 이것이 광영(光榮)이라네

我作銘詩以表其瑩

나는 명(銘)하는 시(詩)를 지어 그 무덤에 표식한다네

崇禎紀元之百四年
辛亥四月 日

승정(崇禎) 기원(紀元) 104년 신해년(辛亥年: 영조 7, 1731) 4월 일

이수장(李壽長) 墓表

公諱壽長字耆翁延安人考諱渾司藝祖延城府院君贈諡文康公諱石亨曾祖贈左議政諱懷林司藝娶大提學安克仁後司正諱美之女生公公性仁厚儉素篤志爲學不辛而坎坷居家友愛兄弟教誨子孫鄉黨咸稱焉以勳蔭食錄三品參 靖國原從功臣一等追贈司藝陞通政

夫人權氏安東望族考義禁府經歷諱寬取侍中金取礪後郡守若欽之女生夫人夫人溫柔沈厚事夫子奉祭祀小無愆違長南嶼登文科通政牧使次岨進士次岨忠義衛次嶸進士嶸娶都事李震孝女生三男二女曰廷秀郡守曰廷華曰廷顯

공위 휘는 수장이요 자는 기옹(耆翁)이니 연안인이다. 고(考)의 휘는 혼(渾)이니 사예요 조(祖)는 연성부원군 증시 문강공 휘 석형(石亨)이며 증조는 증 좌의정 회림(懷林)이다. 사예(渾)가 대제학 안극인(安克仁)의 후손 사정(司正) 휘 미(美)의 딸과 결혼하여 공(수장)을 낳으니

공의 천성은 인후검소하고 독지위학(篤志爲學) 하였으나 불행히 칩복(黜伏)되고 거가(居家) 하여서는 형제에 우애하고 자손을 교회(教誨)하므로 향리에서 모두 다 칭송하였다. 훈음(勳蔭)으로 삼품(三品)직위에 식록(食祿)하고 정국원종공신(靖國原從功臣) 1등에 참록(參祿)하여 사예(司藝)에 증직되었고 통정대부로 승자(陞資)되었다.

부인 권씨는 안동의 망족(望族)으로 고(考)는 의금부 경력 관(寬)이니 시중(侍中) 김취려(金取礪)의 후손 군수 약흠(若欽)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낳으니 온유하고 심후(沈厚)하여 부군을 섬기고 제사를 받들어 조금도 위오(違誤)함이 없었다.

창남 기(岐)는 문과에 발탁되어 통정대부로 목사(牧使)이고 차남 항(坑)은 진사요 공(悤)은 충의위(忠義衛)요 의(巖)는 진사이다.

기는 도사(都事) 이진효(李震孝)의 딸을 취하여 3남 2녀를 낳으니 정수(廷秀)는 군수이며 다음은 정화(廷華), 정현(廷顯)이다.

女長適士人趙世球
次適縣監尹自耘
娶宗室青寺守彪女
生一男二女南廷弘
女長適萬戶洪守讓
次適金夢寅

崆娶司成柳義臣女
生一男曰廷虎生員
嶷娶進士金軾女凡
曾孫男女亦三十餘
人

戊戌八月十四日公
卒年七十七葬于龍
仁灑布里良坐坤向
之原癸卯四月初八
日夫人沒年八十祔
葬于公墓嗚呼公業
修於己而未顯于世
夫人盡婦道蓄陰功
助成家慶而且公與
夫人俱享福祿

內外子孫蕃衍振振
又如此是足以爲善
人勸矣而朝種暮獲
者果無所取焉銘曰
灑布之麓山高水潔
幽宅之吉

生而共榮死而同塋
厥神乃寧

장녀는 사인(士人) 조세구(趙世球)에게 차녀는
현감 윤자운(尹自耘)에게 출가하고 항(尙)은 종
실(宗室) 청사수(靑寺守) 표(彪)의 딸을 취하여
1남 2녀를 낳으니 남은 정홍(廷弘)이요. 장녀는
만호(萬戶) 홍수양(洪守讓)에게 차녀는 김몽인
(金夢寅)에게 출가하였다.

공(崆)은 사성 유의신의 딸을 취하여 1남을 낳
으니 정호(廷虎)로 생원이다. 의(嶷)는 진사 김
식(金試)의 딸을 취하였는데 대개 남녀 증손의
수는 30여인에 이른다.

무술년(1538) 8월 14일에 졸(卒)하니 향수 77세
였다. 용인 쇄포리(모현면 능원리) 간좌곤향(艮
坐坤向) 지원에 장사하였는데 계묘(1543) 4월
초8일 부인이 졸하니 향년은 80이며, 공의 묘에
부장(祔葬)하였다. 오호라 공의 문학이 수신(修
身)에 그치고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부인이
부도(婦道)에 극진하여 음공을 쌓아서 가정(家
慶)을 조성하고 또 공과 부인이 다 복록을 향유
하며

내외의 자손이 번연 진진함이 이와 같으니 이것
이 족히 선한 이들의 보시(報施)가 될 것이니,
조득모실(朝得暮失)자가 감히 취할 바가 아님이
라. 명에 이르기를

쇄포지록의 산은 높고 물은 맑아서 유택이 길하
도다.

살아서 그 영화를 같이하고 죽어서 그 유택을
같이하니 그 영혼이 평안하도다.

行峻德厚慶延于後
悠久不朽
退溪 撰

행실이 높고 덕이 후해야 경사가 후손에게 연하
니, 유구하도록 변함이 없도다.
퇴계 이황 지음

이 숙(李 翻) 墓表

李氏在高麗朝侍中
三州伯公靖用武略
顯三州古牛峰伯之
後五百餘年率以行
業家國朝觀察使吉
培判書承健司議諶
副提學之信顯至副
提學公之孫參議諱
有謙績學種德根深
實茂五子皆爲名人
長翹次翹以孝翔儒
術最季翹以文其四
爲我祖考議政府君
府君相我 肅宗有
忠盡大節於是我李
蔚然爲忠孝家

府君諱翹字仲羽妣
坡平尹氏處士弘裕
女 天啓丙寅三月
三日壬辰生生時參
議公有異夢幼嶷然
有器度嘗傷額醫者
刺破血淋漓不目動

丁丑闔家遇難江都
府君陷虜中主嫗善
待之曰貴人也胡兒

이씨(李氏)는 고려시대에 시중(侍中)을 지낸 공정(公靖)께서 무락으로 현달하여 삼주백이 되었다. 삼주는 옛 우봉인데 그 후로 우봉백으로 부터 오백여년동안 행업으로 가정을 거느렸는데, 국조에 들어와서 관찰사 길배(吉培), 판서(判書) 행건(行健), 사의(司議) 심(諶), 부제학(副提學) 지신(之信)이 현달(顯達)하였고 부제학공의 손자 참의 휘 유겸(有謙)은 학문을 쌓고 종덕하여 그 근본을 깊이 하고 열매가 무성하였으니 다섯 아들 모두 명인이 되었다.

장남은 핵(翹)이고 차남은 흙(翹)으로 효성을 다하였고 다음은 상(翔)으로 유술(儒術)이 뛰어났으며 막내 익(翹)은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니 이 네분이 우리의 조상이며 고는 의정부군이다. 부군(府君)은 우리 숙종(肅宗)을 도와 충성을 다하고 대절이 있었다. 이에 우리 이씨는 위연(蔚然)히 충효의 가문이 되었다.

부군의 휘는 숙(翹)이고 자(字)는 중우(仲羽)이며, 비 파평윤씨는 처사 홍유(弘裕)의 딸이다. 천계 병인년(1626) 3월 3일 임진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참의공께서 이상한 꿈을 꾸 바 있었다. 어려서는 억연히 기도(器度)가 있어 일찍이 이마를 다쳐 의원(醫院)이 자락(刺絡)하여 피가 임리(淋漓)하였으나 눈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정축년(1637) 합가(闔家: 온 집안)가 난을 만나 강도로 피난하던중 부군은 오랑캐의 포로가 되었으나 먼저 온 할머니를 잘 모시니 사람들이

問府君名府君曰吾大爺也胡兒從之者常曰大爺大爺默覘遼瀋山川意欲奪胡騎馳還會我使至得自周旋以歸時十二歲矣始參議公臨別語之曰兒豈老死胡貉者比還仲死於孝伯死而生參議公尹夫人無恙

戊子進士乙未文科由侍講院說書入藝苑爲檢閱待敎奉敎陸成均館典籍司憲府監察兵曹郎爲養監通津縣官奴有冒占蟹梁漁民利者府君梏而杖之觸上怒罷職三司交爭旋寢同春先生仍白某望重他日可大用府君竟引去民立石思之

拜司憲府持平疏陳崇儉勤政招賢講學諸事時法禁廢弛府

귀인(貴人)이라고 칭송하였다. 오랑캐 어린 아이가 부군의 이름을 묻자 부군이 말하기를 “나는 대야(大爺)이다”라고 하자 오랑캐 어린 아이가 쫓아다니며 항상 말하기를 “대야(大爺)! 대야!”라고 하였다. 항시 입을 다물고 멀리 산천을 엿보고 마음속으로는 오랑캐의 기마를 빼앗아 치마(馳馬)하여 돌아가고자 하였다. 때마침 우리 사신이 도착함에 주선(周旋)을 얻어 돌아왔으니 이때 나이 12세였다. 처음에 참의공이 헤어짐에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가 어찌 노인과 같이 호맥(오랑캐)에게 죽겠는가”라고 하였다. 돌아오자 이미 중형(仲兄)은 효성을 위해 죽었고 말형 역시 죽었으나 참의공을 살려 윤부인은 아무런 근심이 없었다.

무자년(1648) 진사시에 합격하고 을미년(1655)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으로 시강원설서를 거쳐 예원(藝苑)에 들어가 검열, 대교, 봉교가 되었고 승진하여 성균관전적, 사헌부감찰, 병조랑을 거쳐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통진현감으로 나갔다. 이곳에서 관노가 모점하고 게발(蟹梁)로 고기를 잡아 백성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자 부군은 이를 수갑을 채우고 곤장으로 벌하였는데, 왕이 촉노(觸怒)하여 파직(罷職) 되었다. 이에 삼사(三司)에서 왕의 침실에까지 가서 교쟁(交爭)하였고 동춘선생께서 거듭 아뢰기를 “모(某: 李翻)는 기대가 큼니다. 가히 크게 쓸만합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부군이 인거하자 백성들은 비석을 세워 이를 사송(思誦)하였다.

사헌부지평을 배수하자 승검으로 정사에 근심하고 현재를 불리 학문을 강설할 것과 모든 일은 법을 따르고 폐이(廢弛)함을 금할 것을 상소

君申嚴舊制且焚雞
堂國師諸淫祠都下
肅然尋褫諫院陳筭
惜其去

壬寅爲御史湖南監
賑選玉堂吏曹錄屢
爲修撰校理季判書
公時或對直人榮之
移司諫院正言癸卯
吏曹佐郎丁憂制畢
還舊踐陞正郎轉應
教間爲司藝司成司
僕正輔德丁未爲執
義

虜有噴言相積奉使
歸歸過于上將罰
緩府君奮然曰主辱
臣當死倡兩司論使
臣罪且列查問時大
臣不肯自當之失請
褫罷三公上震怒
並竄于極邊府君得
甲山世稱七諫尋放
還踰歲始敘除文宣
傳副校理輔德

己酉擢廣州府尹旋
移忠清道觀察使時
有經界之政府君克

하였다. 부군은 구제(舊制)를 신엄(申嚴)하였고
또 계당국사(雞堂國師)를 비롯하여 여러 음사
(淫祠)를 불사르니 도하가 모두 숙연하였다. 얼
마 후에는 그 직을 벗으니 간원에서 차자를 아
뢰고 그 체임(遞任)을 애석하게 여겼다.

임인년(1662) 어사가 되어 호남으로 가서 구휼
하는 것을 살폈고 옥당에 들어갔고 이조에서는
여러차례 직책을 맡아 수찬, 교리 등을 역임하
였다. 동생 판서공은 이때 혹은 왕과 직접 면대
하여 상소하였는데, 사람들은 이를 영예(榮譽)로
여겼으며 사간원정언으로 옮겼다. 계묘년(1663)
이조좌랑으로 있던중 모친상을 당하였고 상을
마친 후 돌아와 예전의 직책으로 있다가 정랑으
로 승보하였으며 응교로 전보되었다. 그 사이에
는 사예, 사성, 사복정, 보덕을 거쳤으며 정미년
(1667)에는 집의가 되었다.

이때 오랑캐가 책책(嘖嘖)하는 말이 쌓이고 봉
사가 돌아갔는데, 돌아가면서 왕에게 장차 벌
금을 물릴 것이라 협박하자 부군은 분연(奮然)
히 말하기를 “주상(主上)을 욕보인 신하는 당
연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양사를 불러 사신의
죄를 논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예에 따
라 사문하였는데, 이때 대신들은 자당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삼공을 치죄할 것을 청하였다.
왕께서 진노하여 함께 먼 변방으로 유배를 보
냈는데, 부군은 갑산으로 유배되었다. 이를 세
상에서는 칠간(七諫)이라고 부른다. 얼마 후 방
환되어 해를 넘기고 비로소 문선전부교리에 서
제(敘除)되었으며 보덕을 역임하였다.

기유년(1669) 광주부윤에 탁배되었다가 얼마않
되어 충청도관찰사로 옮겼다. 이때 경계(經界)의
정사(政事)가 있었는데, 부군은 능히 끝까지 잘

善其終務寬徭厚民
上幸溫泉府君引對
達民情理冤獄旌節
行翌年因微眚罷敘
拜承政院承旨戶曹
參議

辛亥按嶺南適大饑
府君亦誠調救忘寢
與食或單騶勞集一
道生靈悉賴以濟及
禡歸老幼填道不能
去至今嶺人幾家家
飯祝云再爲大司諫
糾一二官邪 上責
以伐異且疑其擅弄
朝權府君引禡後
上因他事移怒 命
遠竄尋改削黜

是時楨枬寵幸府君
嘗直書麟坪大君事
于史是以有左腹之
入云府君退居田里
課農種瓜爲樂名其
亭曰逸休蓋取金慕
齋安國兄弟故事也
以嶺營糶政冒文網
編配楊根俄釋

처리하였고 요역(徭役)을 너그럽게 하고 백성을 후권(厚眷)하였다. 왕께서 온천에 행차하시자 부군은 직접 찾아 뵙고 민정을 빠짐없이 보고하였고 원악(冤獄)을 잘 다스리고 절행(節行)을 정표(旌表)하였다. 이듬해(1670) 미생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가 송정원승지로 서배(敘拜)되었고 호조참의를 지냈다.

신해년(1671) 영남을 안찰하였는데, 때마침 큰 흉년이 들어 부군 또한 침식을 잇을 정도로 주구(賑救)하는데 정성을 다하였고 혹 급한 일이 있으면 몸소 수고를 다하여 한 도(一道)의 생령들이 모두 구제하는데 이득을 얻었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에 미쳐 노인이나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길을 막아 갈 수가 없었으며 지금도 영남 사람들은 집집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그 공(功)을 하축(賀祝)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대사간이 되어 한, 둘의 관원들의 사교(邪巧)함을 규찰(糾察)하니 왕께서 책망하며 벌을 내리심이 이례적이었으나 또 조정의 권력을 제멋대로 하거나 희롱할 것을 의심하였다. 부군이 임기를 마친후 왕께서는 다른 일로 인하여 노여움을 옮겨 먼 지방으로 유배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얼마 후에야 이를 삭출로 고쳤다.

이때 정담(楨枬)은 왕의 총애를 입고 있었는데, 부군은 일찍이 역사에 인평대군의 일을 직서(直書)한 것으로써 좌복지입(左腹之入)이 있었다고 한다. 부군은 전리(田里)로 퇴거하여 농사를 일상의 일로 삼고 외를 심으며 지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고 정자의 이름을 일휴라고 하였는데, 대개 모재 김안국 형제의 고사를 따른 것이다. 조적의 정사를 다스리다가 전문강편한 것으로 양근(楊根)으로 유배되었다가 얼마후 석방되기도 하였다.

戊午除仁同府使李元禎以吏書受暇南歸過府府君獨不爲禮元禎恚歸卽自訴於上府君被逮仍列元禎驕恣犯法狀元禎革職府君竟坐奪告身

翌年與仲大憲公季判書公同與尤菴先生黨籍府君竄明川十月大雷上警動賜宥凶黨齊尼不能得庚申拊等謀反誅朝著清明府君道拜全羅道觀察使未至擢江華府留守居數月拜大司憲旋仍任冬擢拜刑曹判書自後歷遍諸曹爲吏書者四兵書者二禮工者一間爲議政府參贊漢城府判尹知中樞敦寧外則廣州留守爲大司憲者九

癸亥以侍藥勞陞正憲府君當宮斤斤守法請託不行在兩銓

무오년(1678) 인동부사를 제수하였는데, 이원정(李元禎)이 서리(書吏)로써 휴가를 받아 남쪽으로 귀향하던중 부를 지나게 되었다. 부군이 유독 혼자만 예(禮)로써 대하지 않자 원정(元禎)은 성을 내며 돌아가는 즉시 왕에게 자소(自訴)하였다. 이에 부군은 예(例)에 따라 피체되었으며 원정(元禎)은 더욱 교자(驕恣)하고 법을 어겼다. 장차 원정(元禎)이 혁직(革職)되자 부군은 마침내 입었던 죄를 벗고 고신을 받았다.

다음해(1679) 중형 대헌공, 동생 판서공과 함께 모여 우암선생의 당적에 참여하였다고하여 부군은 명천(明川)으로 유배되었으나 19월 큰 천둥이 있음에 왕께서 근신하시며 사면을 내리셨으나 흉당들이 이를 정지시켜 편안함을 얻지 못했고 신염(申拊) 등의 모반이 주벌되자 조정에서도 청명(淸明)이 드러나게 되었다. 부군은 이에 전라도관찰사를 배수하고 임지로 가는 도중에 다시 강화부유수로 발탁되었고 수개월을 재임하다가 대사헌을 배수하였으며 짧은 기간을 임임(仍任)하였다. 겨울에 형조판서로 탁배되었고 이후 육조(六曹)에서 편력한 관직이 이조에서 넷이요, 병조에서 둘이며, 예조와 공조에서 하나였으며 그 사이에 의정부참찬, 한성부판윤, 지중추, 돈녕을 역임했고 외직으로는 광주유수를 지냈는데, 대사헌만 아홉번을 경험하였다.

계해년(1683) 시약(侍藥)한 공노로 정헌계(正憲階)로 승진하였는데, 부군은 궁궐에 있으면서 근근(斤斤)히 법을 준수하였고 청탁을 하지 않

恢公道振淹滯逆宗
杭之被 中批也府
君繳爭之在憲司每
隨事匡正嘗於經筵
請選宗英設宗學以
教之時 上久無嗣
府君語及 宗社輒
流涕

丁卯七月晉拜右議
政首陳開言路愼官
方 上幸 寧陵府君
以年饑上筭諫居數
月以疾告府君務抑
躁競尤重變更惓惓
以君德士論爲主雖
不及大有設施論者
謂得大臣體

疾益急醫問交道口
占遺表乞嚴宮禁杜
私逕公視聽進耆舊
戊辰五月二日考終
于城西第七月三日
葬龍仁縣東寒泉坐
丑之原貞敬夫人羅
州朴氏祔

왔고 양전에 있을때는 회회(恢恢)하여 공도(公道)를 떨쳤다. 그러나 엄체(淹滯)하였고 거꾸로 종항(宗杭)의 피해를 입음에 조정의 비답(批答)이 있어 부군이 이를 교쟁(交爭)하는데 얽히기도 하였다. 헌사(憲司)에 있을 때는 매번 일을 처리함에 광정(匡正)하였고 일찍이 경연(經筵)에서는 종영(宗英:宗室)을 선발하고 종학을 설치하여 이를 가르칠 것을 청하였다. 이때 왕께서는 오래도록 후사(後嗣)가 없었는데, 부군의 말이 종사(宗社)에까지 미치자 문득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정묘년(1687) 7월 조정에 나아가 우의정을 배수하였는데, 제일 먼저 언로를 열고 관사에 근신할 것을 상소하였다. 왕이 영릉(寧陵)에 행차하심에 부군은 이 해가 흉년이 들었음을 이유로 상소하여 간(諫)하였는데, 이 기간 수개월동안 병으로 고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군은 힘써 조정을 누르고 군덕(君德)으로써 거듭 변경할 것을 권권(惓惓)하였다. 이에 사론(士論)이 그의론을 주장으로 삼아 비록 크게 시설하는데는 미치지 못하였을 지라도 논자들은 대신의 체모를 얻었다고 일컬었다.

병이 더욱 급해져 의원을 부르고 교도(交道)들에게 알림에 구점(口占)으로 유표(遺表)하여 조정을 높히고 사경(私逕:인척)을 막고 시청(視聽)을 드러내도록 청하고는 기구(耆舊:耆老所)에 들어갔다. 무진년(1688) 5월 2일 성(城)의 서쪽 집에서 돌아가니 7월 3일 용인현 동쪽 한천의 축좌(丑坐)의 언덕에 장례하고 정경부인 나주 박씨를 부장(祔葬)하였다.

夫人考曰僉中樞
贈判書濠祖曰觀察
使東說莊淑貞靜六
親誦其德先府君四
年卒享年五十八長
男晚昌進士蚤世卽
緯先君次晚成判書
次晚堅大司諫女適
判書洪受瀨後夫人
慶州朴氏世英之女
一女士人吳履周

判書男綵正郎以孝
旌 贈大司諫男綬
維洪判書子牧使禹
濟司評禹諧佐郎禹
集緯男濟遠府君事
親有深愛平生未嘗
一違志參議公嘗守
金堤府君時寓隣境
每以魚瓜奉餉公喜
曰官享豈能易此常
以祿養未終爲痛得
一味必臉滋友于兄
弟篤于宗黨以宗家
貧窮助祭且克致其
誠閨門之內和氣藹
然

부인의 아버지는 첨중추를 지내고 판서에 증직된 호(濠)이고 할아버지는 관찰사를 지낸 동열(東說)이다. 장숙(莊淑)하고 정정(貞靜)하여 육친들이 그 덕을 칭소하였는데, 부군보다 4년 먼저 돌아가니 향년 58세였다. 장남 만창(晩昌)은 진사로 조세(蚤世)하였는데, 재(緯)의 선군(先君)이고 다음은 만성(晩成)으로 판서를 지냈으며 다음은 만견(晩堅)으로 대사간을 지냈다. 딸은 판서 홍수헌(洪受瀨)에게 출가하였다. 후부인은 경주 박씨로 세영(世英)의 딸인데 1녀를 낳아 사인(士人) 오이주(吳履周)에게 출가하였다.

판서의 아들 구(綵)는 정랑으로 효성으로써 정려를 받고 대사간에 증직되었고 다음은 수(綬)와 유(維)이다. 홍판서의 아들은 목사(牧使) 우제(禹濟), 사평(司評) 우해(禹諧), 좌랑(佐郎) 우집(禹集)이다. 재(緯)의 아들은 제원(濟遠)이다. 부군은 부모를 모시는데 더욱 심애(深愛)하여 평생토록 일찍이 한번도 그 뜻을 어기지 않았다. 참의공(李有謙)이 일찍이 김제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부군은 이때 인경에 우거하며 매일 물고기와 과일로 봉향(奉餉)하니 공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관직에 있으면서 어찌 능히 이를 쉽게 여기겠는가. 향시 녹양(祿養)함이 끝이 없어 오히려 아픔이 되어 한가지 맛을 얻으면 반드시 뺨에 눈물을 흘렸노라”라고 하였다. 형제에게는 우애가 있고 종당에게는 돈독(敦篤)하여 증가로써 가난하였지만 제사를 도왔고 또 그 정성을 다하여 규문에 화기가 애연하였다.

每戒子曰忠厚謹慎
是我家法位高而
謙愈甚祿豐而侈不
生非仕于朝必耕于
野一毫無求人亦不
喜皎皎名與人慤實
不欺人有至親不相
能者府君涕泣曉諭
感化者數輩

自在小官以愛物存
心雖當死者必求其
可生前後疏冤賑饑
所全活甚衆下至昆
蟲草木之微亦不忍
傷害惟於陰陽淑慝
之分處之甚嚴確然
有賁育

不可奪者愛 君之
念一飯不忘常曰
國恩何可報也縉自
學語便學誦是言寢
疾數月無一語及私
府君歿後一年士禍
作人謂府君半藁之
忠驗若蒼龜壬人又
欲以宗學事構禍賴
上聖明幸不售

매번 자식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충후(忠厚)하고 근신하는 것이 우리 가문의 가법이다. 벼슬이 높아졌다라도 더욱 겸손하고 그 녹이 많다고 하여도 사치하지 말라. 살아서 조정에 나아가 벼슬하지 않으면 반드시 촌야에서 농사를 지을 것이며 일호라도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 또한 교교(皎皎)한 이름도 좋아하지 말고 사람들과는 각실히 지내고 속이지 말라. 사람에게는 지친이 있어 서로 능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부군이 눈물을 흘리며 효유(曉諭)함에 감화하는 사람들이 수십명이었다.

소관에 있을 때부터 좋아하는 물건을 존심하여 비록 죽음을 당하였으나 반드시 살릴 방법을 구하였고 전후로 억울함이나 진기(賑饑)를 상소하여 전활(全活)함이 몹시 많았다. 아래로는 곤충, 초목같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상해됨을 참지 못하였고 오직 음양지술(陰陽之術)으로써 이를 속득(淑慝: 선과 악)하여 처분함이 매우 엄정하니 확연히 분육(賁育)하였다.

가히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애군(愛君)에 대한 생각으로 한끼의 밥을 먹을 때도 잊지 않고 항상 말하기를 “나라의 은혜에 어찌 가히 보답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재(縉)는 학문을 시작할 때부터 이 말을 암송하였는데, 병으로 누워있는 수개월동안 한마디의 말도 사사로움에 미치지 않았는데, 부군이 돌아가신 1년후에 사화(士禍)가 일어나 사람들이 이르기를 “부군의 저승에까지 가서는 충험(忠驗)은 마치 거북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임인년(1722) 또 종학(宗學)의 일로 화(禍)가 일어날뻔 하였으나 왕의 밝은 거동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絳幼蒙膝置蒙駉無
所識至今想像但見
其德容盎然若春陽
今欲追述志事而無
由發揮其萬一只記
純忠質行之塗人耳
目者以揭墓隧後之
君子尙或有攷焉
李絳撰

재(絳)는 어려서부터 슬하에서 총애를 입었으나
어리석음으로 아는 바가 없으나 지금 상상(想
像)으로 단지 그 덕용(德容)을 뵈니 양연(盎然)
함이 마치 봄볕과 같다. 지금 추술(追述)하여 일
을 기록하고자 하나 오히려 그 만분의 일도 발
휘하지 못하고 단지 순충(純忠)하고 질행(質行)
한 것만을 기록하여 사람의 이목을 밝히고 묘에
높히 걸어 후세의 군자(君子)들을 좇게 하려하
니 오히려 혹 상고함이 있을 지어다.
이재 찬하다.

이순장(李順長) 墓表

公諱順長字和甫系
出延安諱石亨廷城
府院君文康公連魁
生進及第文章道德
業名於世考諱渾文
科掌令 贈吏曹判
書娶別座趙繼男女
生公於己亥沈毅有
奇節早涉擢文史不
屑舉子業補蔭職不
仕

以大耋升嘉善居家
敦行孝悌訓子弟有
法階庭盛植花草日
呼隣戚置酒適飲已
巳卒年九十一

前配文化柳氏葬前
岡生一女適司評朴
謹後配長淵邊氏進
士希哲女長男曰崧
以行誼舉於鄉官至
監察無子季曰啓三
登縣令 贈領議政
生三女一男女長適
月川君崔泳津次李

공의 휘는 순장이요 자는 화보(和甫)로 연안인
이다. 조(祖)의 휘는 석형(石亨)이니 연성부원군
문강공으로서 생원, 진사 급제에 연하여 수석으
로 선원(選援)되고 문장덕업(文章德業)이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 고(考)의 휘는 혼(渾)이니 문과
장령으로 이조판서에 증직 되었고 별좌 조계남
(趙繼男) 딸과의 사이에서 공을 낳으니 심의(沈
毅)하여 기절(奇節)이 있었으며 일찌기 문과(文
科)에 섭렵(涉臘) 하였으나 공명(功名)을 이루는
것에 뜻을 두지 않으시고 음직에 천거 하였음에
도 나아가지 않았다.

대질(大耋)로 가선대부에 승질(陞秩) 되었는데
집에 처(處)하여서는 고제(考悌)에 돈독하며 자
제를 법도로 교훈하였다. 또 딸에는 목화를 많
이 재배하였으며 날마다 인척을 모아서 적당히
주석을 설비(設備)하더니 기사년(1569)에 졸하시
니 향수 91세이다.

전배 문화유씨는 전강(前岡)에 장사하고 딸 하
나를 낳으니 사평(司平) 박근(朴謹)에게 출가
하였다. 후배 장연변씨는 진사 희철(希哲)의 따
님으로 아들을 낳으니 장남은 두(斗)이며 행의
(行誼)로 향리에서 천거되어 감찰에 이르렀는
데 자식이 없으며 계(季)는 계(啓)이니 삼등현
령(三登縣令) 증영의정(贈領議政)으로 삼녀 1남
을 낳았으니 장녀는 월천군(月川君) 최영진(崔
泳津)에게 차녀는 이덕용(李德容)에게 다음은
박진(朴璉)에게 각각 출가 하였다. 아들은 정구

德容次朴璉男廷龜
有二男二女曰明漢
吏曹參議曰昭漢弘
文校理皆選湖堂

女長適文科郡守洪
震次鄭玄元洪震有
五男四女長曰柱元
尙貞明公主封永安
尉明漢有四男昭漢
有四男二女

外孫有同知李廷哲
縣監閔後騫崔應斗
朴大健朴大和察訪
金積等三十餘人
公雖隱德不大顯生
既享天爵沒又種福
于子若孫以不肖孫
推恩 贈贊成又以
贈議政公從勳加贈
領議政妣貞敬夫人
噫不肖孫以非才荐
荷榮遇再秉文衡
致位卿相庶幾保全
名節小兒輩亦能稍
自樹立不墜家聲可
謂有後天之報施善
人不于其身于其後
信乎不爽

(廷龜)이니 2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 명한(明漢)은 이조참의요 소한(昭漢)은 홍문관 교리(校理)이다.

장녀는 문과군수 홍영(洪震)에게 차녀는 정현원(鄭玄原)에게 출가하였다. 홍영은 5남 4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주원(柱元)으로 정명공주(貞明公主)를 맞았기로 영안위(永安尉)에 봉(封)해졌고 명한(明漢)은 4남을 낳았으며, 소한(昭漢)이 4남 2녀를 생하였다.

외손(外孫)으로는 동지(同知) 이정철(李廷哲), 현감(縣監) 민후건(閔後騫), 최응두(崔應斗), 박대건(朴大健), 박대화(朴大和), 찰방(察訪), 김적(金積)등 30여인이 있다. 공이 비록 은덕불사(隱德不仕)하여 크게 드러나지는 아니하였으나 생시(生時)에 이미 천작(天爵)을 향유하고 몰후(沒後)에 복을 자식과 손에게 심어줌으로써 불초(不肖) 손(孫)이 추은(推恩)으로 찬성(贊成)에 증직되고 의정공(議政公)의 종훈(從勳)으로 다시 영의정으로 비(妣)는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증직되었다.

슬프다. 불초 손이 비재(非才)하여 영우(榮遇)를 얻어서 두번 문형(文衡)을 잡고 경상(卿相)의 지위에 이르러 거의 명절(名節)을 보전하고 소아(小兒)의 무리가 역시 점점 스스로 수립(樹立)하여 가성(家聲)을 더럽히지 아니하니 가히 그 후(後)가 있다고 하더니 선인(善人)에게 보시(報施)함이 몸에 차지 아니하면 그 후손이 줄어든다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

崇禎元年戊辰孫大
匡輔國崇祿大夫議
政府右議政兼 領
經筵事監春秋館事
廷龜記

송정원년 무진(1628), 대광보국 송정대부 의정
부 우의정 겸 령 경연사감 춘추관사 정구(廷龜)
쓰다.

이시정(李時程) 墓誌

丙子喪亂之後余舟
過西湖岸上有飄然
獨立如遺世者入而
納拜始知其爲都事
李公也

所處翳以蕭葦左右
置小甕短甌以藏米
豆鹽鼓其旅瑣之狀
令人有不堪之心而
公卽悠然若自得者
余固敬之其後去亂
稍久投簪者漸尋仕
路爲仕者漸入場屋
旣以則經營馳驚者
無異平世

公卽棲遲湖海間卒
就龍仁先隴之下以
癸巳閏七月四日終
焉余又知公之所守
大異於人也於後之
數年公胤子承旨公
以余平日有承顏之
舊托以幽堂之銘

余受其狀而讀之又
歎前日淺之爲知公
也謹按公延安大姓
也早孤奉母夫人治

병자상란(丙子喪亂) 후에 내가 배를 타고 서호(西湖)를 지나던 중 언덕위에 표연독립(飄然獨立)하여 세상을 잊은듯한 한 사람이 있음으로 들어가 배견(拜見)하고 비로소 도사(都事) 이공인줄 알게 되었다.

그 거처하는 곳을 소위(蕭葦: 쭉대와 갈대)로 두르고 좌우에 작은 항아리(小甕)과 목짧은 항아리(短甌)를 두어서 쌀과 콩과 장염을 저장하므로 그가 거처하는 형상은 범인(凡人)이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있으나 공은 유연자약(悠然自若)하므로

내가 진심으로 경복 하였더니 그후 난리가 점점 오래됨에 잠홀을 버렸던 자가 점차 재로(在路)를 찾아서 벼슬을 구하는 자가 차차 장옥(場屋)을 출입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경영(經營) 치경(馳驚)하는 자가 평시와 다름이 없으나

공은 홀로 호해간(湖海間)에 유연(留連)하다가 말년에 용인 선농하(先隴下)에 돌아가서 계사(1653) 윤 7월 4일에 몰하니 내가 또 공이 뜻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른 줄 알았다. 그 후 수년에 공의 윤자(胤子: 맏아들) 승지공(承旨公)이 내가 석일(昔日)에 승후(承候)한 구의(舊誼)가 있으므로 유당지명(幽堂之銘)을 부탁하니

내가 그 행장(行狀)을 읽고 다시 전일에 공을 알기가 일천(日淺)하였음을 한탄하는 바이다. 근안공(謹按公)은 연안 대성이니 조고(早孤)하므로 모부인을 시봉(侍奉)하고 과거(科擧)의 업을 경

學子業中進士遊太
學時未幾彝倫敦塞
太學生多凶黨鼓發
廢母之議

公不欲聞卽揖諸生
歸所親勉之曰科場
近獨不可爲親暫留
耶公曰吾有母故不
忍留也遂挈眷集自
京師歸處墓下足跡
終廢朝時未嘗城市

癸亥反正時持大夫
人服秋制除太學推
爲齊任時方治凶黨
之名在儒籍者公以
爲脅從者其罪可略
也遂言於大司成鄭
公曄曰

廢朝十年和氣索然
今代虐以寬與物更
始不亦可乎鄭公服
其言

丁卯避難嶺南與遇
伏鄭公經世所居不
遠遇伏熟聞其言行
及長選部卽除公爲
活人別坐移義禁都
事以事遞

영하여 진사(進士)에 입학되어 태학(太學)에 유
학하더니 미기(未幾)에 이륜(彝倫)이 회색(晦塞)
하고 태학생(太學生)에 흉당(凶黨)이 많이 있어
폐모(廢母)의 의론(議論)을 고취하므로

공이 듣고자 아니하여 즉일 제생(諸生)과 읍별
(揖別)하고 돌아가려 하자 친우가 만류하되 과
장(科場)이 불원(不遠)하니 노친(老親)을 위하여
잠시 유연(留連)함이 가하다고 말하니 공이 말
하기를 내게 노모가 계신고로 차마 머물지 못하
노라 하고 인하여 가권(家眷)을 인솔하여 서울
로 부터 묘 아래로 돌아가서 폐조(廢朝)가 종말
(終末)할 때 까지 족적(足赤)이 성시(城市)에 이
르지 아니하더니

계해(癸亥) 반정(反政: 인조반정)에 대부인(大夫
人) 상을 당하고 상이 다함에 태학(太學)에 추
천되어 재임 하였다. 때에 흉당으로 유적(儒籍)
에 착명(著名)한 자를 치죄하매 공이 이위(以爲)
위협하여 복종한 자는 그 죄를 가히 참작할 것
이라 하여 대사성 정공(鄭公) 엽(曄)에게 진언하
여 말하되

폐조(廢朝) 10년에 화기(和氣)가 소진(掃盡) 되
었으니 이제 학정(虐政)을 관인(寬仁)으로 대치
(代治)함이 가하다고 말함에 정공이 그 말을 복
종하였다

정묘(1637)년에 영남으로 피난하여 우복(遇伏)
정공 경세(經世)의 거처와 멀지 않았는데, 우복
이 그 언행을 익히 들었더니 선부(選部)의 장
(長)이 됨에 공을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로 제
배(除拜)하였고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에 이
임(移下) 되었다가

後爲南別殿監造官
賊臣自點爲提調公
見自點詬罵郎僚知
僕隸卽解朝衣便服
還家自點怒甚搆以
不近語公遂大歸鄉
里

丙子將避兵仲氏病
在床褥公曰其何忍
獨去寧見重獲家人
遂盡其家產業買牛
馬以負仲氏公然後
乃去杖策隨之人服
其篤愛落南十八年
備嘗儉荒而未嘗困
欲變其所守常戒子
曰

吾一生與物無競故
能終夜安寢人有以
廉價買田廬者則又
戒曰此必是訟不得
售者耳其直廉爭者
必多愼勿生意於其
間

且利之一字吾嘗絕
於言議汝曹所知也
又嘗曰科舉者士子
出身之初頭有些不
正則雖得可恥

미사(微事)로 추사(追仕)하고 후에 남별전감조관
(南別殿監造官)이 되었던지 적신 김자점(金自點)
이 제조(提調)가 됨에 공은 자점이 양료(郎僚)를
꾸짖기를 복예(僕隸)와 같이 함을 보고 즉시 관
복을 버리고 편복으로 집으로 돌아오니 자점이
분노하여 불측한 말로 구함(構陷)하려 하니 공
은 결의(決意)하여 향리로 돌아갔다.

병자에 장차 병란을 피하려 하나 중씨(仲氏)가
병상에 있으니 공왈 어찌 차마 홀로 가리요. 차
라리 함께 있어서 병자를 보호 하겠다 하니 가
인(家人)이 그 산업(產業)을 모두 팔아서 우마를
사서 중씨를 호송한 후 공이 이에 장책(杖策)을
버리고 수행하니 사람이 다 그 우애가 지극함을
탄복하였다. 곤박(困迫)한 일을 여러번 당하나
일찌기 급한 일로 인하여 소지(素志)를 변함이
없고 항상 자제에게 경계하되

내가 일생에 물욕(物慾)에 경쟁하지 아니하므로
능히 종야안침(終夜安寢)한다 하고 사람이 염가
로 전려(田廬)를 매도코자 하는 자가 있으면 또
경계하되 이것은 반드시 송쟁(訟爭)이 있어 매
수(買收)키 불가능한 것이니 그 값이 싼 것에는
경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니 그러한 곳에 유의
치 말라.

또 이(利)에 대한 것은 한 글자도 언의(言議)하
지 않는 것은 너희도 알 것이다. 하고 또 말하
되 과거(科擧)란 명칭은 사자출신(士者出身)의
초두(初頭)이니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으면 비록
취득하여도 수치라 하였다.

故公於衆趨之途却位退步義形於言色又謹於奉先當祭雖盛寒必自澡浴故家衆化之亦致其謹潔

金文敬公集自小恬靜自守不與人交大學推舉學行人公違衆以薦其以涼熱爲取捨者甚愧服焉然於文敬公公終若與之無情者

公諱時程字仲和上祖茂以唐中郎將從蘇定邦平百濟留仕新羅賜籍于延安歷高麗簪纓不絕六代祖文康公石亨事我惠莊大王爲名臣曾祖巖登第早有名以

趙靜菴門徒己卯禍作輒挫抑不大顯洪相國聖民實銘其墓祖廷秀蔭仕卒官郡守妣成廟別子益陽君懷之女成廟有賜賚輒辭曰恐累夫

중인(衆人)이 다투어 나가는 길에 공은 퇴보각위(退步却位)하여 의기(義氣)가 언색에 들어나고 또 봉선지절(奉先之節)이 근신(勤愼)하여 제일을 당하면 비록 극한(極寒)이라도 반드시 먼저 목욕하므로 가인(家人)이 다 감화되어 더욱 근결(謹潔)하였다.

김문정공(金文敬公) 집(集)이 어려서 부터 염정(恬靜)하여 사람과 교우함이 없더니 태학(太學)에서 학행인(學行人)을 천거함에 공이 중의를 배척하고 공을 천(薦)하니 염량(炎涼) 취사를 위주로 하는 자가 다 괴복(愧服) 하였다. 그러나 공이 문정공에게 종내 무정한 사람을 대하듯 하였다.

공의 휘는 시정(時程)이요 자는 중화(仲和)이니 상조(上祖) 무(茂)가 당(唐) 중랑(中郎)으로 소정방(蘇定邦)을 따라 백제를 평(平)하고 신라에 유사(留仕)하여 연안(延安)에 사적(賜籍)하고 신라와 고려에서 잠령(簪纓)이 끊이지 않았고 6대조 문강공(文康公) 석형(石亨)이 본조(本朝) 혜장대왕(惠莊大王) 때에 명신(名臣)이 되고 증조 기(嚳)는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이름이 있더니

조정암(趙靜菴: 光祖)의 문도(門徒)로 기묘사화에 좌절되어 대현(大顯)하지 못하므로 홍상국(洪相國) 성민(聖民)이 그 묘문(墓文)을 찬(撰)하고 조(祖) 정수(廷秀)는 음사(蔭仕)로 나아가 관위는 군수로 졸하였다. 비(妣)는 성묘별자(成廟別子) 익양군(益陽君) 회(懷)의 딸이니 성묘(成廟)가 혹 사급(賜給)하시는 물건이 있으면

家上益奇愛之

考贊屢典縣邑栗谷先生嘗薦爲刑曹郎妣全義李氏 贈贊成彦佑之女配李氏遂安人其考亨章仕爲縣監四男長天基卽承旨次益基縣監次世基次昌基一女適鄭時元

其歲九月以公治命窆于先兆文秀山蓋圃隱鄭先生始葬于此文康公夫人實先生之後故李氏因位以族焉

公以名家大族有文有行而能不隨不趨終以自立甘於困窮而不悔視世之附膾嚇腐身榮而名辱者何如也是可銘也銘曰

彼趨我止 彼饕我啗 我守不渝 我潔

즉시 사양하여 말하기를 부가(夫家)에 누가 될까. 한다고 하니 상(上)이 더욱 기애(奇愛) 하였다.

고(考) 빈(贊)이 여러번 현읍을 임명함에 을곡선생이 일찌기 형조랑(刑曹郎)에 천거하고

비 전의이씨는 증 찬성 언우(彦雨)의 딸이요. 배(配)는 수안이씨(遂安李氏)이니 현감 형장(亨章)의 딸이다. 4남이 있는데 장남은 천기(天基)로 즉 승지요. 차는 익기(益基)로 현감이며 차는 세기(世基), 창기(昌基)이며, 1녀는 정시원(鄭時元)에게 출가 하였다.

그 해 9월 공의 유명(遺命)으로 선조(先兆) 문수산에 장사하니 대개 포은 정선생을 차지(此地)에 장사하고 문강공 부인은 이에 선생의 후손인 고로 여기에 입장한 후 자손이 연하여 입장(入葬)하였다.

공이 명가지족(名家之族)으로 유문유행(有文有行)하되 능히 사람에게 추부(趨附)하지 아니하여 자립하고 공궁한 것을 감수(甘受)하여 후회하지 아니하니 세속에 치욕을 감수하며 몸이 영화로운자 어찌 비교하리요. 이것이 가히 명(銘)한 것이다. 이에 명(銘)하기를

타인은 추부(趨附)하되 나는 그치도다.

타인은 영화(榮華)하나 나는 곤궁하도다.

如玉 文秀之山 大
賢所宅 我實宅相
我從其麓 維固維
靈 維千維百

尤 菴 撰

내가 지킨 뜻이 욱되지 아니하니 나의 정결함이
욱같도다. 문수산은 대현(大賢)의 유택이요.

우리 조상은 선생의 택상(宅相)이다.

내가 그 후록에 처함에 오직 편안하고 오직함이
오직 천만년이 되리라.

우암(송시열) 짓다.

이시직(李時稷) 墓碣

有明朝鮮通訓大夫 行司憲府掌令 贈
通政大夫承政院都 承旨兼 經筵參贊
官春秋官修撰官藝 文館直提學尙瑞院
正李公墓碣銘并序
丙子江都之難自分 朝大臣以下殉節寂
所明白表著者厘四 人而其一掌令李公
也事既定 上命有 司旌其門江都之人
又卽其地建祠並祀 前大臣以下數公者
揭之曰忠烈
於是 國家之所以 待忠臣士論之尙節
義扶綱常者庶幾備 矣初邊遽至 上定
幸江都羽報日焉倉 卒出計入南漢城群
臣多不及從公居迴 遠竟夜追赴遇有自
城中來者聞 上移 蹕江都要候

유명조선국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 증통정대
부 승정원 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예문관 직제학 상서원정 이공 묘갈명 병서

병자년(1636: 병자호란) 강도(江都: 강화도)의 난리에 분조(分朝: 조정의 일부) 대신 이하가 순절하였으나 가장 명백하게 들어난 사람은 네 사람인데 그 하나가 장령 이공이다. 난이 끝난 뒤 상께서 유사(有司)에 명하여 정려(旌閭)하라 하였고 강도(江都) 사람들은 그 땅에다가 사당을 세우고 아울러 전 대신 이하 수 공(公)을 제사지냈으니 이를 일러 충렬사(忠烈祠)라 하였다.

이에 국가에서 충신을 대우함이나 사론(士論)이 절의를 숭상하고 강상(綱常)을 부식한 일이 거의 갖추어졌다 하겠다. 처음 변경의 급보가 졸연히 이르렀을 때 상께서 강도로 행행(行幸)할 것을 정했으나 정세는 날로 급하여 창졸간에 계책이 막연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으나 군신들이 모두 따르지 못하였다. 공(公)의 집은 멀고 또 산길을 돌아야 하였기에 밤을 새우면서 먼거리를 달려 왔는데 마침 성중에서 나오는 사람을 만나 상께서 강화로 옮기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中路到露梁又聞
上不果移冒死更進
遇賊反走適見妻子
扶服道上公長子挽
衣泣曰事至此覓歸
南鄉起義拊圖後效
未晚也公弗碩再尋
山城路路

塞不得入彷徨痛哭
遂向水原與一二同
志檄兩湖以鼓義士
乃會趙公翼等合南
陽守尹檠謀聚義師
事未集檠死賊軍潰
衆議所往公曰必欲
以江都爲歸者是吾
死所也既至之

事者俱不事事公歎
曰人謀不臧雖有天
塹將安恃也惟有一
死耳不隨例請廩從
者行傭以給及賊渡
江檢察使慶徵敏求
留守紳爭船遁去吾
家伯袞仙源先生知
事去登譙門自

중간 길목에서 기다리려고 노량진에 이르렀으나
또 상께서 옮기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오다가 적을 만났으
나 피하지 않았는데 마침 길에서 처자를 만났
다. 공의 장자가 옷깃을 잡고 울면서 말하기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잠시 남으로 내려가 의
병을 이르켜 후일을 도모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
니다”라고 하였으나 공은 돌아보지도 않고 다시
산성길을 찾아 나섰으나

길이 막혀 들어갈 수가 없었으므로 방황 통곡
하다가 수원(水原)으로 향하여 동지 몇 사람
과 양호(兩湖)에 격문을 띄워 의사(義士)들을
고취하고 조공(趙公) 익(翼)등을 만나 남양군
수 윤계(尹檠)와 합하여 의병을 모았는데 일
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적을 만나 윤계가 전사
하고 의병은 무너졌다. 남은 무리들이 갈 곳
을 상의할 때 공이 말하기를 “기필코 강도로
돌아가겠다. 이곳이 곧 내가 죽을 땅이다”라고
하였다.

강도에 도착하여 본 즉, 주관자들이 일을 갖추
어 하지 않으니 공이 탄식하기를 “사람이 착실
히 도모하지 않으면 비록 천참(天塹: 천혜의 요
새)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믿을 수 있을 것인
가? 오직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하고 준례대로
공廩(公廩)의 보급을 받지 않고 종자들의 품
팔이로 꾸려갔다. 적이 강을 건느니 검찰사 김
경징(金慶徵), 방어사 이민구(李敏求), 유수 장신
(張紳)은 배를 타고 다투어 도망가니, 나의 가형
(家伯), 선원(仙源) 선생은 일이 틀렸음을 알고
성문에 올라 스스로 불에 타 죽으니

焚賊遂入城公謂太僕主簿宋時榮曰吾輩讀古人書今日到此尚可苟生乎賊環兵四圍聽順者免死人皆超之公笑曰從賊求生獨不心媿乎作書屬兩僕人歸付長子其言後事

甚詳且寄一詞略曰宗社淪亡萬姓魚肉義不苟活甘心自決殺身成仁俯仰無忤辭氣從容若平生宋君先決公抱持大哭自臨爲殯鑿兩坎而虛其一命僕人殯我於是解衣授

館人以此爲斂他日使吾兒得以收葬先是常以弧弱寘哀中用以雉經僕人泣止之公揮去曰今日之死榮也館人感公之義備物斂殯如命是丁丑正月二十五日也春秋六十有六

적이 따라 성으로 들어왔다.

공은 태복시 주부 송시영(宋時榮)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옛 사람의 글을 읽고서 오늘 이 지경에 이르러 어찌 구차히 살기를 바라겠는가?” 하였다. 적은 사방을 에워싸고 귀순하면 살려준다는 소리에 모두들 달려 나갔다. 공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적을 따라 삶을 구하는 것은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가?” 하고 글을 써서 두 종에게 주어 큰 아들에게 돌아가 전하도록 하여 자세히 후사를 부탁하고

또 시 한 수를 남겼으니 「종사는 망하고 만성은 어육을 당하는구나 의란 구차히 살지 않는 것이니 기꺼히 자결하노라 몸을 버려 인을 이루었으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구나」라 하였는데 사기(辭氣)는 조용하여 평소와 다름 없었다. 송시영(宋時榮)이 먼저 자결하니 공이 부등켜 안고 방성대곡하고 손수 염하여 묻고 구덩이 둘을 파서 하나는 비워놓고 종에게 나를 여기에 묻으라 명하고 옷을 벗어

객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염하여 후일 내 아들이 장사를 치를수 있게 하라 하였다. 공은 평소 활을 행리속에 갖고 다녔는데 이것으로 목을 매었다. 종이 울면서 만류하니 공이 가라고 손짓 하면서 하는 말이 “금일 죽음은 영광이니라” 하였다. 객관 주인이 공의 절의에 감동하여 상구를 갖추어 명대로 염빈(斂殯)하니 이 날이 정축년(1637) 정월 25일이었고 춘추 66세였다.

賊退諸孤奉轉歸懷
德權厝至明年戊寅
十月丙辰卜葬文義
縣荊江之東負良之
原公諱時稷字聖俞
自號竹窓延安人唐
高宗時中郎將茂從
蘇定邦平百濟留仕
新羅賜籍延安

子孫蕃衍世襲圭組
入本朝樛軒先生
諱石亨連捷三魁名
振一時官至延城府
院君傳子渾掌令
贈吏曹判書傳子壽
長大護軍贈兵曹
判書傳子嶮楊州牧
使贈左贊成

傳子廷顯通政郡守
出後季夫諱蟻司憲
府監察是公之家世
也考諱賓中司馬薦
爲靑巖道察訪棄官
終于家娶牧使李公
應麒之女隆慶壬申
八月十八日生公自
幼聰敏邁倫

적이 물러가자 아들들이 수레에 모셔 회덕으로
돌아가 임시로 장례를 모셨다가 이듬해 무인년
(1638) 10월 병진(丙辰)에 문의현(文義縣) 형강
(荊江)의 동쪽 간좌원(良坐原)에 장사하였다.

공의 휘(諱)는 시직(時稷), 자(字)는 성유(聖俞),
호는 죽창(竹窓)이니延安인(延安人)이다.

당(唐) 고종(高宗)때에 중랑장(中郎將) 무(茂)
가 소정방(蘇定邦)을 쫓아 백제를 평정하고 신
라에 벼슬하여延安(延安)으로 적(籍)을 하사
받으니

자손이 번연(蕃衍)하여 대대로 벼슬을 이어왔다.
본조에 들어 와서는 저현(樛軒)선생 휘 석형(石
亨)이 연하여 세번을 장원하여 이름이 일시에
떨쳤으며 관위는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에 이
르렀고 그 아들 혼(渾)은 장령(掌令)으로 이조판
서에 증직되었으며, 그의 아들 수장(壽長)은 대
호군(大護軍)으로서 병조판서에 증직 되었으며,
그 아들 기(嶮)는 양주목사(楊州牧使)로 좌찬성
에 증직 되었다.

그의 아들 정현(廷顯)은 통정대부로 군수인데,
계부(季父) 사헌부감찰 휘 의(蟻)에게 출후(出後
: 양자) 하였으니 이것이 공의 가문 세계(世系)
이다. 고(考)의 휘는 빈(賓)이니, 사마(司馬)로,
천거(薦舉)되어 청엄도(靑巖道) 찰방(察訪)을 지
내다가 벼슬을 버리고 집에서 일생을 마쳤다.

목사 이공응기(李公應麒)의 딸을 취하여 융경
임신(1572) 8월 18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 부터 총명함이 남달랐다.

十歲從大父在江東
任所時曹公好益謫
居其地聞其有師道
往從焉一見大奇亟
稱於人曰此後生可
畏也勉以學業後從
沙溪金先生游先生
亦心許之戊戌丁憂
以善表聞丙午

中司馬癸丑丁外憂
不以俗忌廢禮聞者
益稱之光海末見世
道日非不赴公車歸
卧湖西故里結數椽
環以圖書松竹逍遙
自適不與時人交所
還往戚故數三而已
鄉有超羶者爲

權奸游說啖以利願
與同死生公笑謝曰
生可樂而死可厭也
其人慚沮而退後十
年癸亥初薦授司畜
別提李适叛 扈從
公州還轉 宗廟直
長登文科別試尋以
扈從勞叙陞

10세 때에 조부를 따라 강동(江東) 임소(任所)에
갔을 때 그때에 조공 호익(曹公好益)이 그 곳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師道)가 있어
그의 문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조공이 일견하
고 크게 기특히 여겨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후생이 가외(後生可畏: 후생이 가이
두렵지 않은가 라는 뜻)라 하고 학업에 면려토
록 하였다. 후에는 사계(沙溪) 김선생(金長生)에
게 종유(從遊)하였는데 선생 역시 심허(心許)하
였다. 무술년에 상을 당하여 지성을 다하여 사
람들은 이를 듣고 칭찬하였다.

병오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정축년에
외간 상을 당하였는데 속기(俗忌)의 예를 폐함
이 없었으니 듣는 자 마다 칭찬을 더하였다. 광
해군 말에 세도(世道)가 날로 잘못되어 감을 보
고는 과거에 응하지 아니하고 호서의 고향으로
돌아와 몇간 쟁가래를 엮어 도서와 송죽(松竹)
간에서 소요 자적하면서 세상 사람과 더불어 아
니하였으나 서로 왕래한 것은 친척과 옛 친구
몇사람 뿐이었다. 동향에 시세를 타 아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에게 이권으로 유혹하면서 권간을 위하
여 일할 것을 설득하고 또 이를 위하여 사생(死
生)을 같이 할 것을 원하였지만 공이 웃으면서
사양하기를 “사는 것은 즐겁고 죽기는 싫다”하
니 그 사람이 기가 꺾이고 부끄러워 하면서 물
러갔다. 그후 10년이 되던 해인 계해년 초에 사
서와 별제에 천거되었는데 이괄(李适)이 발란을
이르켜 임금을 공주로 호종(扈從)하였다. 돌아와
서는 종묘(宗廟), 직장(直長)에 전직되었고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였는데 얼마 후에 호종
(扈從)한 공로로 6품으로 승차하여

六品授成均典籍改
司憲府監察兵曹佐
郎司諫院正言協諸
僚論小人之投機傾
軋者請焚其疏忤
旨辭遞久之拜工曹
佐郎又還兵曹出監
嶺南試能以公道鎮
浮習丁卯虜警

扈 駕江都拜正言
又與諸僚叫閤力排
和議 不省遞授典
籍 駕還移兵曹正
郎弃官歸鄉尋授礪
山郡守爬剔弊垢抑
黜豪強一境胥悅明
年去官民思碑之後
聞公喪相與

負載會賻百舍之外
明年拜直講陞司藝
復還正言屢遷掌令
弼善歷內資尙衣掌
樂濟用太僕太常諸
司長太常故奸藪公
覈其罪同僚吏合誣
中考績卽棄官銓部
知其枉白之還原

성균관 전적(典籍)에 제수되고 다시 사헌부 감찰, 병조좌랑, 사간원 정언을 거쳤다.

제료(諸僚)들과 의론하여 소인 경알(傾軋)할 기회를 줄 수 있으니 그들이 올린 상소문을 불살라 버리라고 청하였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려 사체(辭遞) 되었다.

오랜 뒤에야 공조좌랑을 배수 하였고 또 병조로 옮겼다가 영남 감사(監事)로 나갔는데 이는 공을 시험하여 능히 도내의 부습(浮習)을 진정시키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정묘 호란에 강도(江都)로 호가(扈駕)하여 정언(正言)을 배수하였고 또 제료(諸僚)들과 더불어 함문 밖에서 호곡하면서 화의(和議)를 배척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적으로 옮겼다. 어가가 환도한 후에 병조정랑으로 옮겼다가 벼슬을 버리고 귀향 하였다. 뒤이어 여산군수로 제수되니 폐단을 척결하고 호족들의 기세를 억누르니 일경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듬해에 직을 떠나니 백성들이 공을 사모하여 비를 세웠으며 뒤에 공의 상사를 듣고는

부의 물을 지고서 백사(百舍: 一舍는 30리) 밖에서 회장하였다. 이듬해에 직장을 배수하였다가 사예(司藝)에 승차하였다가 다시 정언으로 옮겼고 장령 필선을 역임하다가 내자시(內資寺), 상의원(尙衣院), 장악원 제용(濟用) 태복시, 태상시 등의 장을 거쳤다. 태상시는 본래 부정의 소굴이어서 공이 그 죄를 파헤쳤더니 무함을 받아 동료와 이서들까지 고적(考績)에 걸리게 되어 벼슬을 내놓았는데 전조(銓曹)에서 그 억울함을 아뢰어 환원 되었다.

平生自愛其一刺未嘗有要路跡故仕宦常在通塞間公爲人長身白哲美鬚髯冑中坦直去町削畦表裏純一在家能得父母心母夫人善病難養有時失警傍側侍者莫能順適獨

公和色以進則怡然如平常以是離左右務盡承奉嘗避寇入峽手扶板輿歷險千餘里不許人代至它行在古人以爲難者公皆有之矣母夫人歿事母之兄弟如母在有一婢服

勤甚至母夫人常念其勞後當析著在兄弟家以己婢易之惠養終其生姊亡無嗣割產處後事業庶弟之貧困無歸者使不失所人謂孝推姑氏無子欲以後事爲託固辭求其族子

평생에 스스로를 위하여 종이 한장도 요로에 보낸 일이 없었기에 벼슬은 통색간(通塞間: 통했다가 막혔다가 하는 것)에 있었다.

공은 키가 크며 살결이 희었고 수염이 아름다웠고 마음은 탄이하고 곧았으며 간격을 두지 않았고 표리가 순일하였다. 집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잘 맞추었는데 모부인은 병이 많아 봉양하기가 어려웠고 때로는 실신하고 놀라기를 잘하여 시중들이 어려웠지만 유독

공이 화색을 띠고 나가면 즐거워하고 평상같이 되었다. 그리하여 좌우를 물리치고 손수 승봉(承奉)에 힘썼다. 일찌기 난을 피하여 산협으로 들어 가는데 손수 교자를 붙들고 천여리의 험로를 갔으나 딴 사람이 대신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다. 이밖에도 고인들이 어렵다고 한 일들을 공은 모두 하였다.

모부인이 몰(歿)한 뒤에는 어머니의 자매들을 어머니께서 생존해 있을때 처럼 섬겼다. 비복한 사람이

시중을 잘 들어 모부인이 항상 그 노고를 생각하였었는데 그후 제금을 내줄 때, 형제간의 집에 있게 되었다. 공은 자기의 비녀와 바꿔 그 비녀(婢女)의 일생을 잘 거두어 주었다. 매제 하나가 죽고 후사가 없으니 자산을 나누어 주고 뒤를 이어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며, 서제가 가난하여 갈데가 없이 되자 살 수 있도록 도와 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효도를 미루어 그런 것이다” 하였다. 고모가 아들이 없어 후사를 의탁하려 하자 이를 고사하고 그 족자(族子)되는 사람을 구하여

之宜爲後者俾主之而盡還其貲財前後居官不以一絲自洗雅喜山水聞有佳境命儔携侶或獨往不倦遇會心處樂而忘返不好飲酒少輒醉醉輒高歌朗詠音調清越聽者可

悅待人無貴賤一以誠信其遇不善嚴而不惡以是人皆懷之歿後鄉人亦立廣興宋太僕俱俎豆之主上己丑冬 筵臣合辭陳 啓以爲如李某等褒贈之典至今未舉實爲

久典 上命亟施之於是 贈公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 恩及泉壤人心始翕然悅服焉配龍仁李氏婦德母儀皆

후사를 삼아 일을 맡기고는 그 자산을 모조리 돌려 보냈다. 전 후 벼슬길에 있으면서 일호도 자신을 모독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산수를 특히 좋아하여 어디 가경(佳景)이 있다하면 벗을 불러 짝을 하거나 혹 혼자서라도 반드시 가서 마음에 드는 곳을 만나면 즐기고 돌아올 줄을 몰랐다. 술은 즐기지 않아 조금만 마셔도 취하고, 취하면 목청을 돋궈 노래하거나 읊거나 하였는데 음조(音調)가 맑고 뛰어나 듣는이들은 모두 이를 즐겼다.

사람을 대함에는 귀천이 없이 성신(誠信)으로 대하였으며 착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도 엄히 대할 뿐 미워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모두 사모하였고 몰 후에는 향인들이 사당을 지어 광홍 송태복(宋時榮)과 함께 제사지냈다.

주상(主上) 기축년 겨울에 연신(筵臣)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이모(某) 같은 분들의 포증(褒贈)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니한 것은 실로 잘못된 일인줄 압니다” 하니

상께서 빨리 벼풀라고 명하시어 공에게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예문관직제학 상서원정을 증직하시니 은혜가 천양에 미친 것이요 사람들도 비로소 흡연히 열복하였다.

배위 용인이씨는 부덕과 모의(母儀)가 두루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는데

可法式公歿毀戚踰
制戊寅四月初五日
歿得年六十二追封
淑夫人生三丈夫子
曰憬連原道察訪初
娶學生宋銓女再娶
奉事宋甲祚女皆無
子取宗人校理李天
基子德先爲後

曰俺早中司馬有雋
才不幸先公歿娶士
人成夏挺女無後曰
惇娶郡守金瑾女生
一男曰德遠側室有
一男二女德遠娶掌
令池德海女生一男
幼銘曰

士列百行忠與孝臨
公兼有之萬代仰瞻

皎爲日星烈爲秋霜
陵有時谷海有時桑
公名公節蓋壞久長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傳金尙憲撰

공이 몰(歿)하자 웨척(毀戚)이 법도에 지나쳤다. 무인년 4월 초 5일 졸하니 득년이 62세요 숙부인으로 추봉되었다. 장부자(丈夫子) 셋을 두었으니 경(憬)은 연원도 찰방으로서 학생 송진(宋銓)의 딸을 취하였고 재취는 봉사(奉事) 송갑조(宋甲祚)의 딸을 취하였으나 모두 아들이 없어 종인(宗人) 교리 이천기(李天基)의 아들 덕선(德先)으로 뒤를 이었고

엄(俺)은 일찍 사마시에 합격하여 준재가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공보다 먼저 몰하였는데 사인(士人) 성하정(成夏挺)의 딸을 취했으나 무후(無後) 했으며, 후(厚)는 군수 김근(金瑾)의 딸을 취하여 일남을 두었으니 덕원(德遠)이다. 측실(側室)에서도 1남 2녀가 있다. 덕원은 장령(掌令) 지덕해(池德海)의 딸을 아내로 맞아 일남을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명(銘)하기를

선비에게는 백행이 있으나 충과 효가 으뜸인데 공은 이를 겸유하였으니 만대에 우러르게 되었다.

밝기는 해와 별 같고 열(烈)함은 추상 같았다.

능소는 골짜기로 창해가 상전으로 변하였다.

공의 이름과 절개는 오래토록 천지와 함께 하리라.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 령 경연사 감 춘추관사 세자부 김상헌찬.

門人通訓大夫行司
憲府執義 宋浚吉
書 并篆
崇禎癸巳三月 日
立

문인 통훈대부 행사헌부 집의 송준길 글(書)와
전액을 병기함.

송정계사(1653) 3월 일 세우다.

이 식(李 埴) 墓誌

有明朝鮮國通訓大夫晉州牧使李公埴墓誌

淑人豊壤趙氏附左
府君諱埴字器哉系
出德水李氏鼻祖諱
敦守高麗中郎將歷
三世有諱千善樂安
伯生諱仁範藝文館
大提學生諱揚始仕
本朝工曹參議寔府
君十代祖自是代有
顯官曾祖諱景曾吏
曹判書祖諱嵇弱冠
魁進士旋擢文科官
大司諫考諱喜聘光
州牧使妣南陽洪氏
縣監諱受業之女

育二男一女繼妣南
陽洪氏 贈參判諱
鉉之女育一男一女
府君序居二 肅宗
庚辰十二月二十八
日寅時降今 上丁
亥八月十三日卒享

유명(有明) 조선국(朝鮮國) 진주목사(晉州牧使)
식(埴) 묘지(墓誌)

숙인(淑人) 풍양조씨(豊壤趙氏) 부좌(附左)

부군(府君)의 휘(諱)는 식(埴)이고 자(字)는 기
재(器哉)로 그 계출은 덕수이씨이다. 비조의 휘
는 돈수(敦守)로 고려시대에 중랑장을 지냈으며
3세(世)를 지나 휘(諱) 천선(千善)은 낙안백에
봉(封)해졌다. 이분이 휘(諱) 인범(仁範)을 낳으
니 예문관대제학을 역임하였고, 이분이 휘(諱)
양(揚)을 낳으니 비로소 본조에서 벼슬을하여
공조참의에 올랐으니 이분이 부군의 10대조이
다. 이로부터 대대로 현관을 배출하였으니 증조
는 휘(諱) 경증(景曾)으로 이조판서에 올랐고
조(祖)는 휘(諱) 혜(嵇)로 약관의 나이에 진사시
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였고 연이어 문과에 급제
하여 벼슬은 대사간에 이르렀으며, 고는 휘(諱)
희담으로 광주목사를 지냈다. 비(妣)는 남양홍
씨로 현감을 지낸 휘 수업(受業)의 따님으로

2남 1녀를 길렀고 계비(繼妣) 역시 남양홍씨로
참판(參判)에 증직(贈職)된 휘(諱) 현(鉉)의 따
님으로 1남 1녀를 길렀는데 부군(府君)은 둘째
분의 태생이다.

숙종(肅宗) 경진년(1700년) 12월 28일 인시에 태
어나 금상 정해년(1767) 8월 13일 돌아가시니
향년 68세였다. 계축년(1733년) 사마시에 합격하
였고 을묘년(1723년) 목릉참봉(宣祖)을 제수하고

年六十八癸丑中司馬乙卯除 穆陵參奉歷濟用奉事宗簿直長己未陞太僕注簿自是內而戶曹刑曹佐郎工曹正郎禁府北部都事尙衣主簿掌樂尙衣司饗僉正廣興守訓局郎惠廳郎漢城庶尹刑工曹惠廳再除漢城三任

外而衿川江西醴泉一新利川丹陽晉州而衿川不赴醴泉再除一赴丹陽初與醴泉相換旋仍嗚呼府君生纔十日大夫人損世外祖縣監公小室李氏收而養之及長常以襦裸失恃爲至恫事李氏誠愛篤至奉養喪祭終始無憾當其疾革哀動傍人曹隸亦爲之感涕筮仕三十年內外踐歷或多劇地雄邑而以匪義濟私爲戒以違道于譽爲耻不務

제용봉사(濟用奉事), 종부직장(宗簿直長)을 역임하였다. 기미년(1739년) 태복주부로 승진하여 이로부터 내직(內職으로는 호조와 형조의 좌랑, 공조정랑, 금부와 북부(北部)의 도사(都事), 상의주부(主簿), 장낙원과 상의원·사용원의 첨정(僉正), 광흥수(廣興守), 훈국랑(訓局郎), 혜청랑(惠廳郎), 한성서윤 등을 지냈는데, 형조(刑曹)와 공조(工曹)·혜청(惠廳)의 경우는 두차례에 걸쳐 제배(除拜)되었고 한성부의 관직은 세차례에 걸쳐 임용되었다.

외직으로는 금천·강서·예천·일신·이천·단양·진주 등을 역임하였는데, 금천의 경우는 부임하지 않았고, 예천의 경우는 두차례나 제수하였으나 한 차례만 부임하였으며, 단양의 경우는 처음에 부임하였으나 예천과 더불어 서로 바꾸어 연이어 임용되었다. 오호라! 부군은 태어난지 겨우 10일만에 대부인께서 세상을 버리셔서 외조현감공께서 소실 이씨에게 이를 거두어 기르게 하였고, 성장하면서는 항상 강보할 때 의지할 곳을 잃은 것을 매우 통통해 하였다. 이씨를 섬김에는 성애(誠愛)로써 하였고 봉양함에도 돈독히 하였다. 상제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섭섭함이 없도록 하였는데, 질병이 있어 위독해 지면서도 애통해 하니 방인인 조예(曹隸) 또한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벼슬한 지 30여년동안 내외로 천력한 곳은 혹 극지(劇地: 변화한 땅)나 웅읍(雄邑: 큰 고을)이 많았고 의리가 아니 것으로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도리어 어겨 명예를 손상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赫赫之名而常有去
後思一新素稱弊邑
民不能支府君爬櫛
釐革使一府改觀及
歸邑人刻崖頌惠

嗚呼府君器度沈重
見識深確居家則篤
於人倫仕官則謹守
法度暴慢之色不設
於容矯僞之言不廢
於口詩人所謂不伎
不求者庶幾近之此
實諸叔父諸先執之
所稱道者不肖何敢
溢辭以重不耆之罪
也葬于龍仁治東雲
泉里負良之原從先
兆也配淑人豐壤趙
氏大司諫諱景命女
無嗣取伯氏佐郎公
第二子成鎮爲后卽
不肖也生進前府使
娶參判 贈領議政
閔亨洙女生一女適
洪樂述淑人孝友貞
淑

또 이름을 혁혁하게 드러내는 것에 힘쓰지 않고
항상 자신이 임기를 마친 후의 일을 염려하였
다. 이에 일신현은 본래 폐읍으로 소문이 나 있
고 백성들은 능히 지보하지 못했었는데, 부군은
과즐(과고 빗길함)하고 이혁(釐革: 개혁)하여 한
고을을 개관(改觀)하였다. 이에 돌아감에 이르러
읍임들은 바위면에 그 혜덕을 칭송하는 글을 새
기기까지 하였다.

오호라! 부군의 기도는 침중하고 견식은 심확
(深確)하여 집안에 있어서는 인륜에 돈독히 하
였고 관직에 있어서는 삼가 법도를 지켜 포만
(暴慢)한 기색을 얼굴에 보이지 않고 교위한 말
을 입에서 내지 않았다. 이에 시인은 소위 탐내
지 않고 구함이 없는 것은 서기 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여러 숙부
나 여러 선집이 도(道)를 칭하는 것이라고 하겠
다. 불초가 어찌 감히 교만함으로 사양하여 이
루지 못할 죄를 거듭하겠는가! 용인의 치소 동
쪽 운천리 간좌의 언덕에 장례하였으니 선조를
따른 것이다. 배는 숙인 풍양조씨로 대사간 휘
경명(景命)의 따님인데 후사가 없어 백씨 좌랑
공(喜聃)의 둘째 아들 성진(成鎭)으로 후사를 삼
았으니 곧 불초이다.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였고 전에 부사를 지냈는데, 참판을 지내
고 영의정에 증직된 민형수(閔亨洙)의 따님과
혼인하여 딸 하나를 두었으니 홍낙술(洪樂述)에
게 출가하였다. 숙인은 효우하고 정숙하며

奉祭祀以誠承夫子
以順族黨姻戚莫不
稱之勤儉明慧特其
餘事生於 肅宗辛
巳九月二十四日卒
於今 上癸巳六月
二十四日享年七十
三始因山運之有拘
權奉於同岡丑坐之
原翌年甲午三月遷
祔于先府君墓左因
以合奉焉不肖懼百
世之後墓道無徵謹
次世系官職如右用
堅于墓前又寫一通
以爲幽誌嗚呼痛哉

崇禎紀元後三乙未
月 日不肖孤歲
鎮泣血謹誌

제사를 받들에도 정성을 다하였고 부자를 받들
에도 온순하게 하여 족당 인척들이 근검하고 명
혜(明慧)하다고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 나머지의 일들은 더욱 특기할만 하다. 숙종
신사년(1701년) 9월 24일 태어나 급상 계사년
(1773년) 6월 24일 돌아가시니 향년 73세였다.
처음 산운(山役)할 때 권도에 거리낌이 있어 같
은 구릉의 축좌의 언덕에 모셨다가 이듬해인 갑
오년(1774년) 3월 선부군 묘의 왼쪽에 옮겨 부
장하여 함께 모셨다. 불초는 백년 이후 묘도를
징험할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삼가 그 세계와
관직을 오른쪽과 같이 서술하고 묘의 앞에 비석
을 세우는 한편 그 비문의 한통을 다시 써서 유
지로 하노니 오호통재라!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3을미(乙未: 1775년,
英祖 51) 월 일 불초고(不肖孤) 성진(成鎭)은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짓다.

이씨(李氏) 墓表

嗚呼 此南生鶴鳴
妻李氏之藏也

李氏系 璿源 世宗
莊憲大王第十三子
密城君諱琛歷五世
至領議政 贈諡文
貞公諱敬輿第三子
曰敏叙爲後於從父
訓練院都正諱厚輿
今爲兩館大提學

娶左議政原平府院
君元斗杓之女是爲
李氏之夫若母女生
而端詳稍長習女儀
事父母婉而順年十
六歸于南氏既歸益
修慎甚有婦道南氏
公姑稱爲佳婦

卒不育年二十一癸
丑十一月十四日得
疾死以明年正月甲
戌葬于南氏先兆之
側

女有至性而神不福
歸名族而榮不及焉

오호라! 이는 학생(學生) 남학명(南鶴鳴)의 처
완산이씨의 묘소이다.

이씨의 계출(선조)은 선원(전주)이씨이다.

세종(世宗) 장헌대왕(莊憲大王) 열셋째 아들 밀
성군(密城君) 휘(諱) 침(琛)으로 부터 5세에 이
르러 영의정 증시(贈諡) 문정공(文貞公) 휘 경여
(敬輿)의 아들 민서(敏叙)가 훈련원(訓練院) 도
정(都正) 휘 후여(厚輿)의 후사(後嗣)가 되었고,
지금의 양관(홍문관·예문관) 대제학(大提學)이
되었는데

좌의정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表)
의 딸을 취하여 장가를 들었으며, 이와같이 이
들 지아비와 어미가 딸을 낳으니, 바르고 착했
으며 점점 자라면서 여자로서의 행동거지를 익
혔고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순하게 순종하였
는데 나이 16세에 남씨 가문으로 출가하매 이미
부인으로서 수신(修慎)함이 더하여 겹고, 부도
(婦道)를 갖추었다. 이에 공과 시어머니께서는
모두가 한결같이 칭하기를 아름다운 며느리라
하였다.

년 21세에 죽으니, 후사가 없었는데 계축년 11
월 14일 질병을 얻어 세상을 하직하매 이듬 해
갑술년 남씨 선영측면에 장사를 지냈다.

슬프다. 대저 장부에 있어서도 선에 보답되는
바가 때로 득과 실이 있는 것인데(장부에 있어

悲夫雖然爲善之報
在丈夫猶時有得失
而況於汝哉南氏宜
寧大姓而鶴鳴之夫
曰議政府右議政九
萬

女之死蓋距今十有
二年而墓在龍仁縣
東南五十里處仁面
花洞向申之原是爲
表

서도 때를 잘못 만나 죽고 사는 것에 득실이 있
고 하늘의 보답이 이러할 진데) 하물며 너에게
있어서라. 남씨는 의령의 대성(가문)이다. 학명
의 부친은 곧 의정부 우의정(右議政) 남구만(南
九萬)이다.

이씨(학명의 처)가 죽으니 대개 지금으로 부터
12년 전이다.

묘는 용인현 동남쪽 50리 처인면(處仁面) 화동
(花洞:꽃골) 신지원(서쪽)이다. 이에 표(表) 하
노라.

이에건(李禮堅) 墓碣

有明朝鮮國嘉善大
夫司諫院大司諫李
公墓碣銘并序

秉忠奮義決策靖國
功臣大匡輔國崇祿
大夫議政府領議政
兼領 經筵春秋館
觀象監事文城府院
君柳 洵撰

韓山李氏在高麗
稼亭文孝公諱穀牧
隱文靖公諱穡父子
相繼入元朝中制科
文章聞于天下如鄭
圃隱李陶隱權陽村
河浩亭諸公馳騁當
路爲世所服者皆師
事牧隱由是牧隱名
望滿一國

子孫入 我朝相繼
爲宰相達官迄于今
彌衆世號牧隱家門

牧隱仲子諱種學簽
書密直司事生諱叔
畝知敦寧府事諡良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사간원 대사간 이공 묘갈
명 병서

병충분의 결책정국공신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
부 영의정 겸 령 경연춘추관 관상감사 문성부원
군 유 순 찬하다.

한산이씨는 고려 때에 가정(稼亭) 문효공(文孝公) 휘 곡(穀)과 목은(牧隱) 문정공(文靖公) 휘 색(穡)의 부자(父子)가 있었는데 부자가 상계(相繼)하여 원(元)나라에 들어가 제과(制科)에 합격하여 문장으로 천하에 소문이 나니 정포은(鄭圃隱), 이도은(李陶隱), 권양촌(權陽村), 하호정(河浩亭) 등 당로(當路)에 나가 세상에 추앙을 받고 있는 제공(諸公)들이 모두 목은을 사사(師事)하니 이로 말미암아 목은의 명망이 일국에 가득 하였다.

그 자손이 아조(我朝: 조선)에 들어와서도 재상(宰相)도 되고 달관(達官)도 되어 지금까지 계속 되고 무리도 많아지니 세상에서 호하기를 목은가문(牧隱家門)이라 하였다.

목은 중자(仲子) 휘 종학(種學)은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인데 이가 휘 숙묘(叔畝)를 낳으니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이고 시호(諡號)는 양

團敦寧生諱亨增僉
知中樞院事卽公之
皇考也

妣淑夫人平壤趙氏
通禮門引進副使諱
淵□女以正統丙辰
六月癸巳生公

公諱禮堅字不磷生
未踰月夫人亡鞠於
外姑趙氏稍長知力
學有就中天順壬午
生員進士試成化辛
卯登文科□□□□
□□俄拜□□奉教
遷掌隸院司評又遷
禮曹佐郎昭格署令
陞司諫院獻納移成
均館直講轉拜司憲
府持平遷刑曹正郎
乙未歲田園郡守連
值年凶年飢民載道
公盡心賑貸賴以全
活因滿入爲漢城府
庶尹又陞司憲府監
監留貳歲陞拜司憲
府執義 國廟將臣
建州虞公□□抗論
不可忤 旨左遷宗
親府典籤

도(良度)요 이가 휘 형증(亨增)을 낳으니 지중추
원사(知中樞院事)인데 곧 공의 황고(皇考)이다.

비(妣) 숙부인(淑夫人) 평양조씨는 통례문(通禮
門) 인진부사(引進府使) 휘 아 - 1자결 - 의 딸
로서 정통(正統) 병진년(1436) 6월 계사일(癸巳
日)에 공을 낳았다.

공의 휘는 예견(禮堅)이고 자(字)는 불린(不磷)
인데 태어난지 한 달이 못되어 숙부인이 작고
하니 외고(外姑) 조씨에게서 길러졌다. 점점 성
장하면서 힘써 배울줄도 알고 성취도 있어 천순
임오년(1462) 생원과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성화 신묘년(1471) 문과에 올라 - 6자결 - 곧 봉
교(奉敎)에 제배(除拜)되어 장예원(掌禮院) 사평
(司評)에 옮겨지고 또 예조좌랑에 옮겨졌으며
소격서령(昭格署令)을 거쳐 사간원 헌납(獻納)에
오르고 성균관 직강(直講)으로 옮겨졌다가 사헌부
(司憲府) 지평(持平)으로 전배되었으며 형조정랑
(刑曹正郎)으로 옮겨졌다.

을미년(1475)에는 군수가 되었는데 연달아 흉년
을 만나 굶주린 백성들이 길에 가득하였으나 공
이 마음을 다하여 진휼하니 그에 힘입어 온전하
게 살아났다. 임기가 다차서 돌아와 한성부 서
윤(庶尹)이 되었고 또 승차하여 사헌부 장령(掌
令)이 되었다. 신해년(1491)에는 승차하여 사헌
부 집의(執義)에 올랐는데 성묘(成廟)가 건주(建
州)의 오랑캐를 정벌코자 하매 공이 - 2자결 -
그 불가함을 항론 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러
종친부 전첨(宗親府典籤)으로 좌천 되었다.

三陟府邑甍民疲號
難治特命公爲府
使理之修陳救
弊之策蒙 可而
不獨救弊革
政蒞遞授
繕工監正轉奉常寺
正庚申歲陞堂上拜
司諫院大司諫

時燕山政治團圞
公自以爲先朝舊臣
在官當盡職見有
非隨聞盡言授
僉知中樞府事
又出爲安東府使

甲子燕山思威以
追考前臺
諫侍從言論切直
內需
司爲內需
司昵任崇載
高品皆不
極論竄配龍宮移
星州略不以死生動
其心教誨鄉閭小兒
誦讀

삼척부(三陟府)는 고을이 조잔하고 백성을 쪼들려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일컬어져 특별히 공에게 명하여 부사로 삼았는데 하직하던 날 구폐책(救弊策)을 조진(條陳)하였으나 정작 정사(政事)에 다달아서는 폐단을 구하고 정사를 바꿀뿐 만이 아니었다. 임기가 차자 - 4자결 - 선공감정(繕工監正)에 제수됐다가 봉상시정(奉常寺正)으로 옮겼으며 경신년(1500)에는 당상관으로 승차하여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에 올랐다.

이 때 연산은 정치가 점차 황란해 가니 공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선조(先朝)의 구신(舊臣)은 벼슬에 나가서는 직책을 다하여야 하고, 또한 임금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듣는 대로 다 말하는 것이 옳다고 간하다가 - 3자결 -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옮겨지고 또 안동부사가 되어 나갔다.

갑자년(1504)에 연산이 생모의 사당을 세우려고 하면서 위엄을 세워 정신을 놀려야 되겠다고 여기고 전일 대간(臺諫)이나 시종(侍從)으로 언론이 절직(切直)했던 - 7자결 - 내수사(內需司) - 12자결 - 내수사로 삼고 임승재(任崇載) - 2자결 - 품계를 높이려 하자 - 3자결 - 공이 극론하니 용궁(龍宮)으로 부처하였고 다시 성주로 옮겼는데 각지로 떠돌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으나 태연하게 조금도 죽고 사는 것으로 마음을 쓰지 않고, 고을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서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였다.

丙寅秋今 上登賢
位進用宿德即公謫
所授星州牧使公以
體國爲念篤於
民績尤多焉初在謫
也邑人之遇公者德
怨不日而至是一視
之不厚加人服
其弘量拜同知
田糧事庚午十月
感疾十二月二十二
日卒于正寢享年七
十五

公孝友天至事姊如
事母終始無怠謹重
寡言口不言人過
當處事爲守
謙不求異於人其

在諸國俱存醫因
皆有思又不喜醫
產業祿食四十餘
家道蕭然任而談
論經史至老不倦
病革無一言及家事

之曰在踰七十子孫
滿前餘無所限公

병인년(1506) 금상(중종)께서 보위(寶位)에 오르
자 숙덕(宿德)을 진용하여 공을 적소(謫所)에서
바로 그 고을 성주목사로 제수하니 공은 나라의
뜻을 받들기로 작정하고 백성을 구출하기에 진
념하니, 치적이 더욱 많았다. 처음 적소에 있을
때에 고을 사람들이 공을 대함에 호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好惡)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이에
이르러 공은 한가지로 보고 두텁고 박함(厚薄)
이 없이 하였으니 사람들이 그 넓은 도량에 감
복하였다. 〇〇년 동지중추부사를 배수하고 경
오년(1510) 10월 병에 걸려 십이월 이십이일 정
침에서 졸하니 향년이 75세였다.

공은 효우(孝友)가 천성(天性)이어서 누님을 섬
기기를 어머니 섬기 듯 하기를 시종 변함이 없
었고 성품은 중후하여 언소(言笑)가 적었으며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고 일에 당해
서는 겸양을 지켜 남보다 유포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여러 고을을 맡아서는 두루 성적(聲績)이 있었
고 떠난 뒤에는 모두 공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
살림살이에는 뜻이 없어 록(祿) 만으로 40여년
을 살자니 집안이 썰렁 하였으나 평생 후회함이
없었고 학문으로 자임하여 경사(經史)를 담론
(談論)하기를 늙도록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변
이 덮쳤을 때에도 집안 일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 8자결 - 말하기를 “나는 나이 70이 넘고 자손
은 앞에 가득하니 죽어도 여한(餘恨)은 넘을 것
이다”라고 하였다.

從仕郎金寬安之女
生四男二女越明年
辛未正月諸子□□
葬龍仁齋器谷□□
□埤岡之原

金氏繼善山右族從
仕公乃參判吉德之
子早歿夫人方五歲
成服過後食園外王
祖母權氏罔其幼弱
乃以肉罔密置□□
□□夫人問安東權
氏有疾自後并餅餌
不食及服闋猶不近
肉味親見母徐氏強
勸然後稍進其罔謹
夙成如此

權氏乃陽村之女□
□□□□□□□□
□□□夫人諱誠端
正罔以溫純與公爲
夫婦五十餘罔相罔
加賓客□□□□罔
公罔罔五歲甲戌八
月初九日卒享罔七
十三年罔前原

男長曰繼園浦萬戶
次曰耘廣興倉守罔
罔文科次曰繼成均

공은 종사랑(從仕郎) 김관안(金寬安)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 2녀를 낳았는데 이듬해인 신미년
정월에 그 아들이 -2자결- 용인현 기곡 -3자
결- 곤향지원에 장사하였다.

김씨는 본래 선산(善山)의 우족(右族)이다. 종사
랑(從仕郎)은 참판 길덕(吉德)의 아들인데 일찍
졸하여 당시 부인은 방년 5세에 성복하였다. 상
기(喪期)가 지난 뒤에는 외조모 권씨한테서 먹
고 자고 하였는데 권씨가 부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냘픔을 안스럽게 여겨 고기를 가루로 만들어
감추어 두고 -4자결- 권씨가 병들어 누었다고
하니, 그 뒤로는 고기뿐이 아니라 떡까지 먹지
않았으니 그 효근(孝謹)의 숙성함이 이와 같았
다.

권씨는 양촌(陽村)의 딸이요 -12자결-
부인은 관성(款誠) 단정(端正) 한데다가 온순(溫
純)까지 겸하였으니 공과 부부가 된지 50여년
간을 서로 존경하기를 손님과 같이 하였는데
-4자결- 공이 졸(卒)한 5년 뒤인 갑술년 8월
초 9일에 졸하니 향년 73세요. 앞에 말한 언덕
에 장사하였다.

장남 우(耦)는 강포만호(康浦萬戶)요. 다음은 윤
(耘)은 광흥창수(廣興倉守)로 신유년에 문과(文
科)로 장원 하였고, 다음은 누(耨)로 성균진사

進士次曰耜司諫院
司諫甲子文科壯元
女長適參奉權石鈞
次適別坐園圃正內
外孫凡七十人

既葬將碣石園司諫
公狀德來諭曰親舊
田知先人者無踰公
公誦銘洵自不文
無以光人墓□□□
□□□□□□□□□
□□其言之傳於後
世無疑不師受而銘
曰

誠謹因繼和厚外罔
德行純備是曰大
方□曰心之法對越
無強□□□□□□
□□昔在臺官□
蹇蹇惟直 分符外
囿民安更伏 惟公
嚮方去華而闕 罔
自闕外而多嘉績
惟天有道佑賢罰
惡□□□□□□□□
□ 必也餘慶其在
後業 器谷之原公
墳在茲 有松楸
子孫保之

(成均進士) 다음은 자(耜)이니 사간원 사간(司諫)으로 갑자년에 문과에 장원하였다. 장녀는 권석균(權石鈞)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별좌 어숙정(魚叔正)에게 출가하였다. 내외손은 무릇 70인이다.

장례를 마친 후에 묘소에 비를 세우려하여 막내 아들 사간(司諫)이 공의 행장(行狀)을 꾸며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선인의 친구 중에서 선인(先人)을 알기는 공(公)보다 더할 사람이 없으므로 감히 명(銘)을 청합니다 하였는데 나(洵)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글을 못하니 남의 묘소를 빛나게 할 수 없다. - 13자결 - 그러나 그 말이 후세까지 전해질 것은 틀림 없음으로 사양하지 않는다. 명(銘) 하기를”

성근(誠謹)이 안으로 쌓이면 화후(和厚)가 밖으로 넘치는 법, 덕행(德行)이 순비(純備)하였나니 이를 대방(大方)이라 하도다.

오직 하나의 심법(心法)은 수응(酬應)에 무리가 없게 함이다.

- 8자결 -

지난 날 대관(臺官)으로 있을적엔 말마다 강직하여 외직으로 돌리니 백성은 편안하나 아전은 숨을 죽였네. 공의 추향(趨向)은 변화함을 싫어하고 조용함을 좋아하여 외직을 마다 않고 훌륭한 치적을 올렸다네. 하늘에는 천도(天道)있어 착함을 돕고 악함을 벌하나니

- 9자결 -

틀림없이 여경(餘慶)있고 여경은 후업(後業)에 있을터인데 기곡(器谷)의 언덕에 공의 무덤있어 송추(松楸)도 울창하니 자손들을 보존해 주리로다.

公歿後推子 恩贈
崇政大夫議政府左
贊成兼帶如例夫人
贈貞敬夫人

公長子耦生進士和
將仕郎稔中子耘出
繼伯父典翰諱仁堅
後官正參議生進士
稹司成稭次子耨筮
仕禁府都事無子取
稔爲子

季子耨官正參贊生
公女壻權石鈞無
子魚叔正子季璘季
□□□□□□□□□
□和之出也曰進士
在□稭之出而在
爲稹之子曰都事圭
稔之出也曰禧秋之
出也

諸派多斷絕獨圭生
僉正□□□□□□□
□□□後爲子兩人
之後縣齣而代遠不
盡記舊碑舍人金
壽壘也圖於正德丙
子年久石泐不可讀
後二百四十八年今

공은 사후(死後)에 막내 아들의 추은(推恩)으로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에 증직되었고 관례대로
겸대(兼帶) 하였으며 부인도 정경부인으로 증직
되었다.

장남 우(耦)는 진사 화(和)와 장사랑(將仕郎) 임
(稔)을 낳았고, 둘째 아들 윤(耘)은 백부 전한
(典翰) 휘 인견(仁堅)의 뒤를 이었는데 관위는
참의에 그쳤고 진사 진(稹)과 사성(司成) 출(稭)
을 낳았으며, 셋째 아들 누(耨)는 금부도사(禁府
都事)로 서사(筮仕)하였는데 아들이 없어 임(稔)
을 아들로 삼았다.

막내 아들 자(耨)는 벼슬이 참찬에 이르렀는데
아들 추(秋)를 낳았다. 사위 권석균(權石鈞)은
아들이 없고 사위 어숙정(魚叔正)의 아들은 계
린(季璘)과 계□이다. - 9자결 - 화(和)의 소생
이고 진사 지(至) 재(在)는 출(稭)의 소생인데
재는 진(稹)의 아들이 되었다. 도사(都事) 규
(圭)는 임(稔)의 소생이고 희는 추(秋)의 소생이
다.

제파(諸派)는 단절이 많고 유독 규(圭)만이 첨
정(僉正) - 10자결 - 을 낳았는데 두 사람의 뒤
는 면면하고 계(系)와 대(代)도 멀어 다 기록하
지 않는다.

구비(舊碑)는 사인(舍人) 김희수(金希壽)의 글씨
이다. 정덕(병자년(1516)에 세웠는데 해가 오래
되고 돌이 부스러져 읽을 수 없어 248년 후인
금상 계미년(1736) 월 일에 다시 세워 알아 볼

上癸未□月 □日
改豎困解□姑空之
以國博考云八代孫
嘉善大夫司憲府大
司憲國圖謹記昌寧
曹□亨書

수 없는 자(字)는 우선 비어놓아 널리 상고하기를 바란다.

8대손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이장(稜章)은 삼가 짓고 창령(昌寧) 조(曹)□형(亨) 쓰다.

이 완(李莞) 墓表

公諱莞字悅甫德水人高祖琚參議曾祖百祿奉事祖貞 贈議政考義臣 贈參判妣晉州姜氏世溫女

萬歷己卯生二十從叔忠武公舜臣軍中海而戰忠武忽中丸公急受遺囑出立舵樓吞聲揮旗遂大破賊走之

明年登武科直拜都摠都事甲辰監藍浦縣遭昏朝屏居閑用幕府營陞折衝癸亥擢忠清兵使

甲子起兵赴難褒加善冬移義州過瓜特仍之及金人潛師夜入通宵阻戰力盡自投火死之實丁卯正月十四日也

在灣嘗胎書其從兄曰死心已定也不足慮雖事出倉卒素蓄

공의 휘는 완(莞) 자(字)는 열보, 덕수인(德水人)이다. 고조는 거(琚)로 참의를 역임하였고, 증조 백록(百祿)은 봉사(奉事)였으며 조(祖)는 정(貞)인데 의정(議政)에 증직 되었다. 고(考)는 희신(羲臣)으로 참판에 증직되었다. 모친은 진주강씨로서 세온(世溫)의 따님이다.

공은 만력 기묘년(1579)에 출생하고 20세 때 숙부 충무공 순신(舜臣)의 군중(軍中)에 있었는데 해전에서 충무공이 홀연히 총탄을 맞으며 공은 급히 유소를 받들어 뱃머리로 나아가 큰 소리로 기(旗)를 흔들면서 지휘하여 드디어 적을 크게 무찔렀다.

이듬해 무과에 올라 도총부 도사에 직배 되었고 갑진년에는 남포 현감이 되었다.

혼조(昏朝: 광해군)를 만나 한가하게 막부의 진영에 있다가 절충장군에 올랐고 계해년에 충청 병사에 발탁 되었다.

갑자년에는 병사를 이르켜 난에 임하여 가선대부로 포상되었다가 그해 겨울 의주로 옮겼다. 과만이 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임하라는 특지가 있었다. 이때 금나라 군사들이 야밤에 숨어들어와 몸에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스스로 불속으로 몸을 던져 순사하니 정묘년 정월 14일이었다.

일찌기 용만에 있을 때 종형에게 서신을 보내 말하기를 “이에 죽을 것을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는데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라 비록 일이 창

之志可見事聞 贈
兵曹判書 肅宗甲
申 命旌閭 當宁丙
午 命膾食忠武公
祠

噫公之膳畧 圓因露
梁忠節著於龍灣眞
所謂不負天界者而
國家崇報之典亦云
至矣夫人坡平尹氏
庶因僖女 困辛巳卒
庚子一男之衍孫浚
澳濟滿曾玄若干人
今樹表者滿子弘植
也

行副提學李眞望識
崇禎再回丁酉樹表
丁未仆折辛卯至月
改立原識仍從五代
孫前持平漢一謹書

줄간에 일어났다 하여도 평소의 의지를 품은 대
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병조판서로 추증 하였고, 숙종 갑
신년에 정려문을 세우도록 명하시었고 금상 병
자년에 이르러서는 충무공 사당에 모시어 제사
토록 하였다.

아 - 아! 공의 담력은 일찌기 노량에서 보았도다.
공의 충절은 진실하여 널리 중국에 까지도 크게
떨쳤으니 소위 “하늘 아래 그 충절을 짝할 수
없도다”고 한 말이 사실임을 알겠노라. 국가에
서 공을 숭보한 의례도 역시 지극한 것이라 하
겠다. 부인은 파평윤씨로 서윤(庶尹) 희(僖)의
딸이다. 신사년에 출생하여 경자년에 타계하였
다. 1남을 두었으니 이름은 건(衍)이고, 손자는
준(浚), 오(澳), 제(濟), 만(滿)을 두었다. 중 현손
약간인이 모여 이에 묘표를 세우니 만자(滿者)
는 홍식(弘植)이다.

행 부제학 이진망 짓다

송정재회 정유년(1717) 묘표를 세웠으나 정미년
(1727) 비가 부러져서 신묘년에 이르러 다시 세
웠다. 본래 지은 내용을 따라서 5대손 전 지평
한일(漢一)이 삼가 쓰다.

이 완(李 完) 墓誌

有明朝鮮國通訓大夫行工曹佐郎李公墓誌

淑人密陽朴氏附左府君諱完字平甫德水之李始自高麗中郎將諱敦守世有大官歷四世至藝文館大提學諱仁範生諱揚仕本朝工曹參議號春塘其後皆顯官高祖諱通順川郡守贈領議政德豐君曾祖諱景曾吏曹判書祖諱嵇弱冠魁進士旋擢文科官大司諫考諱喜濡通德郎妣達城徐氏諱坦履之女

生考諱喜聃光州牧使妣南陽洪氏縣監諱受業之女先是通德郎公早世無嗣牧使公以先意主祀晚年上言于朝以府

유명(有明) 조선국(朝鮮國)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공조좌랑(工曹佐郎) 이공(李公) 묘지(墓誌)

숙인(淑人) 밀양박씨(密陽朴氏) 부좌(附左)

부군이 휘(諱)는 완(完)이고 자(字)는 평보(平甫)이다. 덕수이씨는 고려시대 중랑장을 지낸 휘(諱) 돈수(敦守)로부터 시작되어 대대로 큰 벼슬을 한 사람을 배출하였다. 4세를 지나 예문관대제학 휘 인범(仁範)에 이르렀는데, 이분이 휘 양(揚)을 낳았으니 본조에서 벼슬하여 공조참의에 이르렀고 호가 춘당(春塘)이었으며, 그후로 모두 현관을 지냈다. 고조의 휘는 통(通)으로 순천군수를 지내고 영의정에 증직되었으며 덕풍군에 봉해졌다. 증조의 휘는 경증(景曾)으로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조(祖)의 휘(諱)는 혜(嵇)로 약관의 나이에 진사사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고 연이어 문과에서도 급제하였으며 벼슬은 대사간에 이르렀다. 고의 휘(諱)는 희유(喜濡)로 통덕랑을 지냈고 비는 달성서씨로 휘탄이(坦履)의 따님이다.

생고(生考: 낳아준 아버지)는 휘(諱) 희담(喜聃)으로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지냈으며 비(妣)는 남양홍씨(南陽洪氏)로 현감(縣監)을 지낸 휘(諱) 수업(受業)의 따님이다. 이에 먼저 통덕랑공(禧濡)께서 일찍 세상을 버려 후사가 없자 목사공께서는 먼저 임시로 제사를 주관케하고 만년에 조정에 상언하여 부군으로서 장방(長房)을 잇게

君繼長房後主大諫
公祀府君以 肅宗
乙亥九月初一日戌
時生辛丑中司馬甲
寅除 光陵參奉以
親嫌換 健元陵序
遷義盈庫奉事 靖
陵直長陞爲司宰監
主簿工曹佐郎聞慶
縣監今 上壬戌五
月二十日卒享年四
十八葬于龍仁縣東
雲泉里負良之原

嗚呼府君自少寡飲
食清羸善病而居牧
使公憂雖祈寒盛暑
不廢晨昏之哭家人
慮其病或勸止則輒
曰禮制有限不得行
三年之喪一縷未絕
何忍廢自盡之道耶
終不聽少中生員試
解不赴會圍曰吾素
不閑此程文廢解已
非願也聞者歎美屢
以詩魁泮庠課製遂
登進士試槎川李公
以能詩名一世每見
府君所作輒稱絕才

하여 뒤에 대간공의 제사를 주관케 하였다. 부군(府君)은 숙종(肅宗) 을해년(肅宗 21) 9월 초 1일 술시에 태어나 신축년(景宗 1)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갑인년(英祖 10) 광릉참봉을 제수하였으나 친협(親嫌)으로 건원릉참봉으로 바뀌었으며 의령고봉사(義盈庫奉事)로 옮겼다가 정릉직장이 되었다. 승진하여서는 사재감주부(司宰監主簿)가 되었고 공조좌랑, 문경현감을 역임하고 금상(今上: 英祖) 임술년(英祖 18) 5월 20일 돌아가시니 향년 48세였다. 용인현의 치소 동쪽 운천리(雲泉里) 간좌의 언덕에 장례하였다.

오호(嗚呼)라! 부군(府君)은 어려서부터 음식을 적게 먹고 청영(淸羸: 깨끗함으로 가득함)으로 병을 잘 다스렸으며 목사공(喜聘)의 상(喪)을 거상함에는 비록 흑한이나 성서에도 불구하고 신혼지곡을 그치지 않아 집안 사람들은 그 병을 염려하였다. 혹 그치기를 권하면 문득 말하기를 “예제(禮制)에도 한이 있으나 삼년지상을 행하지 못하면 한가닥의 실오라기라도 끊어지지 않으니 어찌 자진의 도리를 폐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는 끝내는 듣지 않았다.

젊어서 생원시에 합격하여 그 소식을 알리지 않고 주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르기 “내가 평상시 한가하지 못한 것은 정문을 폐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함에 듣는 사람들이 감탄하며 아름답게 여겼다. 여러차례 걸쳐 시로 반상(成均館)에서 장원하였고 과제로 마침내 진사시에 합격하니 사천(槎川) 이공은 능히 시로써 일세에 이름을 떨칠 것

平日不事產業晚屈
蔭塗及莅嶺邑堇逾
年棄歸曰吾豈以口
腹隨人俯仰哉遂閉
戶讀書以自樂

未幾下世將治殯仲
父泣曰吾兄遽南邑
屬耳無紙可錄喪具
其介潔若是夫卽此
而府君之居官律已
亦可知矣嗚呼府君
性度慈良又剛潔伉
直言不苟同人少許
可而苟其交也以信
義有終始見善必樂
道之見不善若浼焉
士友莫不愛重之及
卒多有加麻而哭者
洪義州啓裕誄文有
曰以弟論兄金玉其
人庶幾識府君典刑
矣配密陽朴氏參判
諱鳳齡之女端仁溫
柔無一點傷人害物
之心

이라 하면서 매양 부군을 보면 지은 시로 문득
절재라고 칭송하곤 하였다. 평소에는 산업에 힘
쓰지 않았고 만년에는 음도로 벼슬에 나가 영음
에 부임하였으나 겨우 1년을 넘기고는 돌아와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구복으로써 사람을 따
라 부앙하겠는가”라고 하고는 드디어 문을 닫고
독서만으로 스스로를 즐기다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장차 빈소(殯
所)를 차리려고 함에 중부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이 급작스럽게 남쪽지방
에서 속이한 것은 종이가 없어서이니 가히 상
구에 그 개결함을 이와 같이 기록하노라”라고
하였으니 부군께서 관직에 있으면서 법을 다
스림 또한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호(嗚
呼)라! 부군(府君)의 성도는 자랑하고도 강결
하며 항직하여 말이 동인(同人: 뜻이 같은 사
람)이라면 소허라도 구차하지 않게 하였다. 진
실로 교유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
의로하여 선한 것을 보면 반드시 도를 즐기는
것과 같이 하였고 선하지 못한 것을 보면 명
예를 더럽히는 것과 같이 여겼다. 이에 사우들
이 애중(愛重)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이 돌아감
에 미처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의를 입었으며
곡(哭)을 하던 사람중 한 사람인 의주의 홍계
유는 뇌문에서 이르기 “동생으로서 형을 논
하는 것은 금옥(金玉)과 같은 것인데 사람들의
서기하는 것은 진실로 부군이 그 전형이라”라
고 하였다. 부인은 밀양박씨로 참판을 지낸 휘
(諱) 봉령(鳳齡)의 따님으로 단인하고 온유하
여 한 점이라도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사물을
해롭게 할 마음이 없었다.

奉祭祀事舅姑必誠
 必敬矯僞之言不出
 於口喜怒之發不形
 於色上自妯娌下至
 婢僕人無間言先祖
 考每稱之以有德與
 府君同年生而生於
 六月十八日後府君
 三十二年癸巳二月
 十三日卒附于左男
 長不肖憲鎮進士前
 牧使次成鎮生進府
 使有一女憲鎮女金
 相猷嗚呼府君之志
 操行誼實爲親戚知
 舊之所共誦而厄于
 一第竟不得展布嗚
 呼慟哉既豎表石又
 恐石久字剝謹移作
 幽堂之誌不肖子憲
 鎮泣血謹誌

제사를 받들고 시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만드
 시 성경으로 하였고 교위하는 말은 입에서 내지
 않았으며, 희노의 표정 역시 얼굴색에 나타내지
 않았다. 위로는 축리부터 아래로는 비복에 이르
 기까지 사람 사이에 간언이 없어 선조고께서는
 매양 덕(德)이 있음을 칭찬하였다. 부군(府君)과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그 일시는 6월 18일이고
 부군 보다 32년 늦은 계사년(英祖 49) 2월 13일
 돌아가시니 묘의 오른쪽에 부장하였다. 아들로
 장남은 불초(不肖) 헌진(憲鎭)으로 진사시에 합
 격하여 전에 목사를 지냈고 다음은 성진(成鎭)
 으로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였으며 부
 사를 지냈으며 딸 하나를 두었다. 헌진(憲鎭)의
 딸은 김상유에게 출가하였다. 오호라! 부군의 지
 조와 행의는 실로 친척이나 지구들에게 모두 칭
 송되어야 마땅하지만, 집안에 액운(厄運)이 있어
 마침내는 전포치 못했으니 오호통재라! 이미 표
 석을 세웠으나 또 비석이 오래되어 글씨가 닳을
 것을 두려워하여 삼가 유당의 지(誌)를 이작(移
 作)하노라.

불초자(不肖子) 헌진(憲鎭)은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짓다.

이용규(李用奎) 墓表

先府君諱用奎字元五延安人也

我李肇自唐中郎將諱茂顯于文康公諱石亨傳世十二考諱昇明由蔭仕出守旌善郡入爲司宰監僉正以清慎自修懷德示展妣淑人咸從魚氏其所生妣曰清州韓氏

以 純廟丁卯九月十六日生公甫十餘歲通經史取著作皆爾我有聲年二十三廢學業曰吾不嫻功令文亦不能與世脂葦無寧優遊於田畝之中以全吾天也

至老益自矜式嘗言士生斯世自髮粉如而或曳裾未門或奔波場屋餘無足觀也扁所居曰誠齋銘其座引司馬溫公說平生所爲未嘗有不可

선부군의 휘는 용규요 자는 원오(元五)이니 연안인이다.

우리 이씨는 당(唐) 중랑장(中郎將) 무(茂)를 시조로 하고 문강공(文康公) 휘 석형(石亨)에게 이르러 크게 드러나고 12세를 전하여 고(考)의 휘는 승명(昇明)이니 음사(蔭仕)로 나가서 정선군수(旌善郡守)를 지내고 내직에 들어와서는 사재감 첨정(司宰監僉正)을 배(拜)하였다. 첨정(僉正)공이 청신(淸慎)으로 자수(自修)하여 덕이 있으나 전포(展布)하지 못하고 비(妣)는 숙인(淑人) 함중어씨요 그 소생 비(妣)는 청주한씨이다.

순조 정묘년(1807) 9월 16일 공을 낳으니 겨우 10여세에 경사(經史)에 통하여 그의 저작이 모두 우아함으로 성망(聲望)이 있었더니 23세에 과거보는 일을 폐하여 말하기를 「공영지문(功令之文)에 능숙하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 더불어 부양(俯仰)하지 못하니 차라리 전구지중(田畝之中)에 우유(優遊)하여 나의 천성을 보존함이 가하다」 하고

노년에 이르러 더욱 스스로 궁식(矜式)하고 일찌기 말하되 선비의 아들이 사세(斯世)에 낳아서 백발이 분연(紛然)하도록 혹 주문(朱門)에 출입함에 혹 과장(科場)에 분주하면 다른것은 족히 칭도(稱道) 할 것이 없다 하고 거실(居室)을 성재(誠齋)라 편액(扁額)하고 그 좌우에는 사마온공(司馬溫公) 말씀에 「평생 소위(所爲)가 사람을 대하여 말하지 못할일이 없다」 고 한 것을

對人言者晚居龍仁
治之北山下

家益貧饘粥尙不能
給而介然自守不肯
汲汲於營貲謀產人
亦不敢以非義相干
若夫孝悌之實溫雅
之質精於中而發於
外其名祥致瑞往往
有鷄拘相乳牟麥九
穗者天公之所孚感
信不可誣矣

今上庚午二月十七
日以疾終于正寢享
年六十四以其年四
月二十三日葬于陽
智縣朱東面乾池山
坐卯原

嗚呼府君素履篤至
守志高尚遯世元悶
考樂令終其視世路
之鍾漏乞衰何顏媚
舌一資半級以爲僥
倖者其大小得失顧
何如也而潦

屈林泉交遊不及乎
薦紳公卿名德莫之
傳後焉命之不齊隱
痛何極

인용하여 좌우명을 새기고, 만년에 용인읍 북산
하에 은거하니

집이 더욱 가난하여 채식도 상계(相繼)하기 극
히 어려웠으나 개연자수(介然自守)하여 재화를
경영(營貲)하고 산업을 도모(謀產)하는데 급급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결코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효제지실
(孝悌之實)과 온아지질(溫雅之質)이 중심에 정
(精)하고 외면에 들어나서 그 상서(祥瑞)를 부
른 연고로 왕왕 개와 닭이 서로 화목하며 모맥
(牟麥)이 일경구수(一莛九穗)되는 일이 있으니
천공(天公)의 부감(孚感)함이 과연 허언이 아니
다.

금상(今上) 경오(1870) 2월 17일에 노환으로 정
침(正寢)에서 고종(考終)하니 향년이 64세라 그
해 4월 23일 양지현 주동면 건지산 좌묘원(坐卯
原)에 장사 하였다.

슬프다. 부군의 소행(素行)이 독실하고 뜻을 지
킴이 고상하여 세상과 무관하나 개연히 뜻을 두
지 아니하고 그 낙을 즐겨 영종(令終)하니 그
세로(世路)에 추종하여 웃는 얼굴과 아침하는
말로 일자(一資) 반급(半級)을 얻는 것을 요행
으로 아는 일에 비하여 그 대소 득실이 어떠하
리요.

다만 임천(林泉)에 칩복(蟄伏)하여 교유(交遊)하
는 것이 진신(簪紳)에 통하지 못하므로 공경의
명덕을 후에 전하지 못하니 명(命)의 궁(窮)함이
다. 은통(隱痛)하기 한이 없다.

配光山金氏故處士
 時鐸女事舅姑盡誠
 孝與妯娌如姊妹以
 至仁之性處至貧之
 家瓶罌既罄契活辛
 楚身裳無完飯盂無
 全嘔腸擢髓補虐袈
 漏 上不闕滫瀡之
 供外不聞咨嘆之聲
 及家道稍饒婚嫁已
 畢又闕其年壽嗚呼
 痛矣之德之行播在
 姻戚族黨之口罔不
 稱閨壺君子不肖孤
 何敢溢美焉

今上甲子十月初六
 日卒十一月二十九
 日葬于龍仁東邊面
 漁汀浦砥石峰丙坐
 原一男一女男祖淵
 女適閔正鎬武科孫
 倬

子 祖淵 撰

배 광상김씨는 고(故) 처사(處士) 시택(時鐸)의 따님으로 시부모를 봉양함에 성효(誠孝)를 다하고 측리(妯娌: 동서지간)에 화합하기를 자매와 같이 간격이 없으며, 어진 천성으로 빈한한 가정에 처하여 집에는 저축이 없고 계활(契活)이 신초(辛楚)하여 의상이 완전한 것이 없고 조식끼니를 잇기 어려우나 진심노력하여 위로 감지(甘旨)의 공봉(供奉)이 무결(無缺)하고 밖으로는 자탄하는 기색이 없더니 그 가도(家道)가 약간 요족(饒足)하고 혼가를 다 마쳤으나 다시 그 수명이 부족하니 오호라 슬프다. 그 지덕지행(至德至行)을 인척 족당이 구전으로 전하여 오기를 규중군자(閨中君子)라 칭송하니 불초고(不肖孤)가 어찌 감히 지나치게 말하리오.

금상(今上) 갑자(1865) 10월 초 6일에 졸하여 11월 29일에 용인 동변면(東邊面) 어정포(漁汀浦) 지석봉(砥石峰) 병좌원(丙坐原)에 장사하였다. 1남 1녀를 두었는데 남은 조연(祖淵)이고, 여는 무과(武科)에 오른 민정호(閔正鎬)에게 출가하였고 손(孫)은 탁(倬)이다.

아들 조연 짓다.

이원발(李元發) 神道碑

奉翊大夫典工判書
贈大匡輔國崇祿大
夫議政府左議政李
公神道碑銘 并序

十八世孫嘉善大夫
經筵侍講官奎章閣
祗候官炳觀謹撰

十九世嗣孫 萬寧
謹書

崇祿大夫判敦寧院
事海平尹用求 篆
嗚呼記曰有善而不
知不明也知而不傳
不仁也先祖志業子
孫之所不可不傳也
竊想麗末之臣或皎
厲而張之或沈冥而
全之以自靖於先王
者惡可量哉

勝國歷史尤失體要
凡孤臣遺老一行獨
操所以扶樹倫常教
詔萬世者十不一二
採焉豈鼎革之際事
有難言以附春秋志
晦之義而然歟

봉익대부 전공판서 증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
부 좌의정 이공 신도비명 병서(奉翊大夫典工判
書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 李公神道碑
銘 并序)

18세손 가선대부(嘉善大夫) 경연시강관(經筵侍
講官) 규장각 지후관(奎章閣祗候官) 병관(炳觀)
삼가 짓고

19세 사손(嗣孫) 만영(萬寧) 삼가 쓰고

승록대부(崇祿大夫) 판둔령원사(判敦寧院事) 해
평(海平) 윤용구(尹用求) 삼가 전역하다.

오호라! 기(記)에 이르기를 “선조의 선행(善行)
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면 이는 불명(不明)
이요. 또한 이를 알고도 (후세에) 전하지 않으면
불인(不仁)이라” 하였으니 선조(祖)의 뜻과 업을
자손된 자로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살
펴 보건데 여말(麗末)의 신하들은 혹 교려(皎厲)
로 과장하기도 하고 혹은 침명(沈冥)하여 보전
도 하면서 선왕(先王: 고려)을 위해서 자정(自
靖)도 하였으니 이러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
아릴 수 있을 것인가.

승국(勝國)의 역사는 더욱 체(體)를 잃어 모든
고신(孤臣), 유로(遺老)들의 한가지 행실과 외로
운 지조(獨操)와 윤상(倫常)을 수립하여 만세에
교훈이 될만한 것은 10의 하나 또는 둘도 채택
되지 않았으니 어쩌면 사직이 바뀔 즈음이라.
말못할 사정이 있어 춘추(春秋) 지회(志晦)의 뜻
을 따르려 하였던 것인가?

噫公之事垂於五百年之後世遠事遽文獻無徵所據者只譜牒非敢曰闡發光徽不汲汲

殫心力而求之則其有不煙雲鎖而泡沫滅者乎用是爲懼今其京鄉諸孫同心相役伐麗牲之石列公事行以圖久遠

日嗣孫萬寧甫請余墓文乃不敢辭而謹叙之曰公諱元發初諱寵號隱峯姓李氏

始祖唐中郎將諱茂從蘇定方平百濟封延安伯因留新羅鎮撫之子孫遂爲延安人其後世次無傳至麗朝太子詹事諱襲洪爲中祖生諱克榮太醫監事生諱景茂版圖尙書生諱承顏初諱顏大護軍生諱靖恭上護軍

희라! 공의 일은 지금껏 5백년이나 되었으니 세대도 멀고 일도 변하였는데 문헌의 징험도 없이 근거로 삼는 것은 다만 보첩(譜牒) 뿐이니 감히 선조의 일을 다 밝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급급하게 심력을 다하여 구하지 아니하면 갈수록 연기와 구름처럼 사라지고 물거품처럼 소멸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를 두려워하여 이제 경향의 제손(諸孫)들이 마음을 한가지로 하여 서로 힘써 여생(麗牲)의 돌을 들어다가 공의 사행을 열거하여 오래 전하기를 도모하는 것이다.

하루는 사손(嗣孫) 만영(萬寧)이 나에게 묘문(墓文)을 청하였는데 내 감히 사양할 수 없어서 삼가 서술하는 것이다.

공의 휘(諱)는 원발(元發)이며 초휘(初諱)는 충(寵)이며 호는 은봉(隱峯)이고 이씨(李氏)이다.

시조(始祖)는 당나라 중랑장(中郎將) 휘(諱) 무(茂)로서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평정할 때 종사하여 연안백(延安伯)으로 봉해졌는데 신라에 머물러 진무(鎭撫)하였고 따라서 자손들이 연안인이 되었으나 그 후에는 세차(世次)가 전해지지 않았다가 고려조에 이르러 태자(太子) 첨사(詹事) 휘(諱) 습홍(襲洪)으로 중시조(中始祖)로 삼으니 (이분이) 휘(諱) 극영(克榮)을 낳았으며 태의감사(太醫監事)요. 이분이 휘(諱) 경무(景茂)를 낳으니 판도상서(版圖尙書)이며 이분이 휘(諱) 승안(承顏)을 낳으니 초 휘는 안으로 대호군(大護軍)이며 이분이 정공(靖恭)을 낳으니 상호군(上護軍)이다.

配南平文氏上將軍
惟瑾女寔公考妣也

公仕恭愍恭讓朝至
典工判書及麗運將
訖時事日非心懷慷
慨無意於世解官歸
鄉潛歛寤歎於風噫
兩泣之中杜門遯跡

所與爲歡有元耘谷
同德並義款門留宿
五六日而去家人不
知其爲誰

命蒼頭載贖物馱送
于靑石洞口有來候
者無留一物并其牛
馬給之此其元進士
天錫辭公歸雉岳之
路也

後觀察公在任東藩
以官廩月送耘谷所
居有親命故耳公與
太祖有布衣之舊屢
徵不起拜右議政矢
心不應後以長子貴
贈左議政忌六月十
日

배위는 남평문씨로 상장군 유근(惟瑾)의 딸이니
이분들이 공(公)의 고(考)와 비(妣)이다.

공은 공민왕과 공양왕 양조(兩朝)에 벼슬하여
전공판서(典工判書)에 이르렀는데 고려의 운세
가 다되어 세상 일이 일로 그릇되어 가니 강개
한 마음을 품고 세상에는 뜻이 없어 벼슬을 버
리고 고향에 돌아가 바람도 숲어하고 비도 우는
가운데 남모르게 한숨과 탄식을 하면서 문을 닫
고 자취를 감추며 지냈다.

함께 더불어 즐긴 사람으로는 원운곡(元耘谷)이
있었는데 덕(德)과 의(義)가 같아서 문을 두드려
5-6일씩 유숙하다가 떠났으나 집안 사람들도 그
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한번은 창두(蒼頭: 종놈)에게 명하여 진물(贖物:
노자)를 두둑하게 실려서 청석동(靑石洞) 입구
로 보내어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도 남김
없이 우마(牛馬)까지 다 주고 오게 하였는데 이
것은 원진사 천석(天錫)이 공과 하직하고 치악
(雉岳)으로 떠나는 길이었다.

후에 관찰공(觀察公)이 관동에 재임할 때에도
관름(官廩)을 다달아 운곡(耘谷)이 있는 곳으
로 보내 주었는데 이는 부친의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은 태조(太祖)와 포의(布衣)의 친
분이 있어 누차 불렀으나 가지 않았고, 우의정
(右議政)을 제배하기 까지 하였으나 마음에
두지 않고 불응 하였다. 후에 장자가 귀히 되
자 좌의정에 증직되었는데 기일은 6월 10일이
다.

初葬高山縣燒酒峙
正統四年己未遷窆
于龍仁九水洞亥坐
之原

配松讓郡夫人成川
金氏忌八月十八日
中郎將南寶女墓同
原

生二男二女長貴齡
仕本朝 太宗朝錄
佐命原從勳 世宗
朝至左議政位德與
弟觀察使公俱有重
望

奉使 中朝帝賜 太
宗九章冕服金印佩
玉經籍及藥品又賜
王妃珠翠七翟冠霞
帔金墜及綵幣自後
歲獻貢幣特減四五
事載明史正統四年
己未六月六日卒享
壽九十四 贈諡康
胡公禮窆于九水洞
乾坐之原

配貞敬夫人南陽洪
氏判中樞彥修女無
育繼配貞敬夫人昌
寧成氏藝文館學士

처음에는 고산현(高山縣), 소주치(燒酒峙)에 장사를 지냈다가 정통4년(1439) 기미에 용인의 구수동(九水洞)으로 이팝하였는데 해좌지원(亥坐之原: 북북서)이다.

배위는 송양군부인(松壤郡夫人) 성천김씨(成川金氏)로 기일은 8월 18일이며, 중랑장(中郎將), 남보(南寶)의 딸인데 묘는 동원(同原)에 있다.

2남 2녀를 낳았으니 장남은 귀령(貴齡)이며 조선조에 벼슬 하였는데 태종(太宗) 때에 좌명원종공신(佐命原從功臣)에 녹훈(錄勳)되었고 세종조(世宗祖)에 좌의정(左議政)에 이르렀는데 관위(官位)와 덕망이 아우인 관찰사공과 어깨를 겨루었고 중망(重望)도 있었다.

중조(中朝: 중국)에 사신으로 들어가니 황제가 태종에게 구장(九章), 면복(冕服), 금인(金印), 패옥(佩玉), 경적(經籍)과 약품을 내리고 또 왕비에게 주취(珠翠), 칠적관(七翟冠), 하피(霞帔), 금추(金墜)와 채패(綵幣)도 내렸으며 그 후로 세헌(歲獻)의 공폐(貢幣: 공물을 진상하는 것)를 네 다섯가지를 특별히 감해 주었는데 이 사실들은 명나라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정통4년(1439) 기미 6월 6일 졸하니 수 94세였는데 강호공(康胡公)으로 시호(諡號)가 내려졌고 구수동의 건좌원에 예장(禮葬)되었다.

배위(配位) 정경부인(貞敬夫人) 남양홍씨(南陽洪氏)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언수(彦修)의 따님으로 후손을 두지 못하였고 계배(繼配) 정경부인 창령성씨(昌寧成氏)는 예문관(藝文館) 학사

配貞敬夫人南陽洪氏判中樞彦修女無育繼配貞敬夫人昌寧成氏藝文館學士準得女生二男長策判禮賓寺事次敦禮賓少尹

次男貴山 太祖潛邸時有盧縮之契連拜全羅慶尙江原三道都觀察使亦經刑戶曹判書墓在九水洞配高靈縣夫人金氏高陽府院君南得女生正統三年戊午二月葬于隱峰公階下亥坐生一男續春川都護府使

太宗以公弟四子根粹擬駙馬以盲人池和行媒公戲談答之因被罪坐謫女壻崔智總郎次壻柳亮左議政

禮賓寺事生一男孝忠大護軍禮賓少尹生二男長光明縣監次永明上將

배위(配位) 정경부인(貞敬夫人) 남양홍씨(南陽洪氏)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언수(彦修)의 따님으로 후손을 두지 못하였고 계배(繼配) 정경부인 창령성씨(昌寧成氏)는 예문관(藝文館) 학사(學士) 준득(準得)의 따님으로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장남은 책(策)으로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요 차남은 돈(敦)으로 예빈(禮賓) 소윤(小尹)이다.

차남 귀산(貴山)은 태조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노관(盧縮)의 교분이 있어서 연달아 전라, 경상, 강원 삼도(三道)의 도관찰사(都觀察使)를 배수(拜授) 하였고, 또한 형조, 호조판서를 역임 하였는데 묘는 구수동(九水洞)에 있다. 배위 고령현부인(高齡縣夫人) 김씨(金氏)는 고양부원군(高陽府院君) 남득(南得)의 따님으로 정통3년(1438) 무오 2월에 은봉공(隱峰公) 묘지 아래 해좌(북북서)에 장례를 모셨다. 아들 하나를 두었으니 속(續)으로 춘천도호부사(春川都護府使)이다.

태종이 공의 넷째 아들 근수(根粹)를 부마(駙馬)로 삼으려고 맹인(盲人) 지화(池和)를 보내어 증매하게 하였더니, 공이 농담으로 대답 하였다가 죄를 입어 귀양을 간 일이 있었다. 사위는 최지(崔智)로 총랑(總郎)이며 차녀 사위는 유량(柳亮)으로 좌의정(左議政)이다.

예빈시사(禮賓寺事)는 1남을 두었는데 효충대호군(孝忠大護軍)이다.

예빈소윤(禮賓小尹)은 2남을 두었으니 장남 광명(光明)은 현감(縣監)이고 차남은 상장(上將)이다.

春川府使生四男長
根剛將仕郎次根健
成均生員以禁錮不
得從仕次根精次根
粹 太宗議婚得罪
以秀才謫昌原後裔
回居或居伊川

大護軍生三男長文
核郡守次文椽次文
檜文贊成

縣監生二男長熙文
縣令次熙武上將生
二男長宗揆文科禮
曹判書次順會無后

將仕郎生一男仁畦
判官生員生三男長
仁文進文兵曹參議
贈禮曹參判延安君
公上疏始解錮次仁
行縣監次仁忠文左
副承旨清白吏根精
生六男仁溫仁良福
重吉重末重秀重

秀才生四南長虎次
貔次奉日次檜餘不
盡錄

춘천부사(春川府使)는 4남을 두었는데 장남 근강(根剛)은 장사랑(將仕郎)이고, 차남 근건(根健)은 성균관 생원(生員)인데 금고(禁錮)로 종사(從仕)하지 못했으며, 다음은 근정(根精)과 근수(根粹)인데 태종과의 혼담때 죄를 얻어 수재(秀才)로 창원(昌原)에 귀양가서 살았기 때문에 자손들이 그곳과 혹은 이천(伊川)에 살았다.

대호군(大護軍)은 3남을 두었으니 장남 문핵(文核)은 군수이고 차남은 문연(文椽)이고 3남은 문희(文檜)인데 문과로 찬성(贊成)이다.

현감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장남은 희문(熙文)으로 현령이고 차남은 희무(熙武)이다. 상장(上將)은 두 아들을 낳았으니 장남은 종규(宗揆)이며 문과에 등제하여 예조판서이고 차남 순회(順會)는 후사를 두지 못했다.

장사랑은 외아들을 두었는데 인규(仁畦)이며 판관(判官)이다. 생원(生員)은 3남을 두었으니 장남은 인문(仁文)이고, 차남은 진문(進文)으로 병조참의로서 예조참판에 연안군(延安君)에 증직되었는데 공이 상소하여 비로소 해금(解禁)되었고, 3남 인행(仁行)은 현감이며 4남 인충(仁忠)은 문과등제로 좌부승지가 되었었는데 청백리에 들었다. 근정(根精)은 6남을 두었으니 인온(仁溫), 인량(仁良), 복중(福重), 길중(吉重), 말중(末重), 수중(秀重)이다.

수재(秀才)는 4남을 두었는데 장남은 호(虎), 차남은 비(貔), 3남은 봉일(奉日), 4남은 회(檜)이다.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않는다.

嗚呼命之不遇者人也時之不幸者天也公以正義大道事恭愍朝才德將大用未果致位列卿當恭讓卽位未幾年遜于荒豈非天哉公遭時板蕩巍然自立忠誠貫金石德行通神明其出處進退磊落光明無一不出於至誠臨大事決大義無一不出於至正

噫公之潛德懿節兼有之用是而不朽也宜矣繼而謹銘曰

顯允我祖河嶽鍾靈李唐華族松麗名卿山河改局天地易位惟時臣職秉節抗義盡忠所事擔心不貳言念公身國耳公耳仕于玄陵歷敷華美願惟時論有大不可周運方盛商鼎遽移命也時也志士傷非聖朝嘉乃禮召頻繁黃閣上相匪心所存

오호라! 사람의 불우한 것은 명(命)을 타고 나는 것이요, 시의가 불행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공의 바른 뜻과 태도가 공민왕조를 섬겨 그 재덕이 장차 크게 쓰듯 하였는데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위계는 경(卿)의 반열에 그쳤다. 공양왕(恭讓王)이 즉위한지 얼마가 되지 아니하여서 황량한 곳으로 물러나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라! 공이 판탕(板蕩)한 때를 만나서도 높다랗게 우뚝 서 충성은 금석(金石)을 꿰뚫었으며 덕행은 신명(神命)과 통하였으니 그 출처(出處)와 진퇴(進退)는 뇌락(磊落) 광명하여 지성(至誠)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큰 일에 다달아 대의(大義)를 결(決)함에는 지정(至正)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었다.

슬프다. 공은 잠덕과 의절(懿節)을 겸하고 있었으니 이것만으로서도 불후(不朽)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삼가 명하기를

홀륭하도다. 우리 조상은 하악(河嶽)의 정기로 태어났도다. 이당(李唐: 이조와 당나라)의 화족이요 송경(고려)의 명경(名卿)이었도다. 산하의 국세(局勢)는 바뀌고, 천지도 위치가 뒤바뀌었으며, 임금을 섬김에는 충성을 다하였고, 마음 가짐에는 두 마음이 없었노라. 공의 일신을 생각해 보면 나라와 공도(公道) 뿐이었으며, 현릉조(玄陵朝: 공민왕조)에 벼슬하여 좋은자리 두루 거쳤도다. 생각해 보면 시론(時論)은 크게 불가(不可)함이 있었으며 주운(周運)이 바야흐로 성했으니 상나라 사직이 옮겨 졌도다. 천명이나 시운이나 지사(志士)는 슬퍼하였는데 성조(聖朝: 조선)에서는 가상히 여겨 예로 부름이 빈번하

千禩非昔警咳如聞
駒城之南九水洞天
歲寒松栢鬱鬱蒼狀
穹石顯刻幾年經營
今乃告成雲仍殫誠
戊寅 八月 日

였으나 황각(黃閣 : 의정부)의 영의정도 마음에 없었도다. 천년이 옛날이 아니구려! 기침소리 들리는듯 하도다. 구성(駒城)의 남쪽 구수동(九水洞)의 동천에 세한(歲寒) 송백(松栢)은 울울창창한데 큰 돌에 뚜렷하게 새기기를 몇년이나 경영하였던고 이제야 마치게 되었나니 자손들이 정성을 다함이로다.

무인 8월 일

이유겸(李有謙) 墓表

嗚呼此吾曾王考戶
曹參議 贈議政府
領議政府君之墓也
府君諱有謙字受益
號晚悔牛峰人

考諱劼 贈左贊成
祖諱之信弘文館副
提學曾祖諱謹掌隸
院司議

而牧隱李先生之後
贈承旨公潞其外祖
也府君七歲而孤十
五始受學十七發解

嘗從風玉趙公守倫
學趙公牛溪門人後
卒業於沙溪金先生
之門又學易於宗室
德信正鸞壽所與遊
皆一時名勝

屬昏朝敦倫與洪茂
績諸公叫闥以明大
義仍自錮于野幾十
年

오호라! 이는 나의 증조고 호조참의 중 의정부 영의정 부군(府君)의 유택이다. 부군의 휘(諱)는 유겸(有謙)이고 자(字)는 수익(受益)이며 호는 만회(晩悔)인데 우봉인(牛峰人)이다.

고(考)의 휘(諱)는 할(劼) 이신데 좌찬성(左贊成)에 증직되시었으며, 조고(祖考)의 휘는 지신(之信)으로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이시었고, 증조부(曾祖父)의 휘는 심(諱)이시니 장례원(掌隸院) 사의(司議)를 지냈다.

그리고 목은(牧隱) 이선생의 후손으로 승지(承旨)에 증직되신 공로(公潞)는 선생의 외조부(外祖父)이시다. 부군께서는 일곱살 때 홀로 되시었고 15세 때 공부를 시작하여 17세 때에 과장에 나아갔다.

일찌기 풍옥(風玉) 조수륜(趙守倫)을 따라 배웠는데 조공(趙公)은 우계(牛溪)의 문인이다. 후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졸업하였고 또한 역학은 종실(宗室) 덕신정(德信正)란수(鸞壽)에게서 배웠는데 더불어 교우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일시 이름 있는 선비들이었다.

혼조(昏朝: 光海)가 역륜(敦倫)하므로 홍무적(洪茂績)등 제공(諸公)과 더불어 쫓겨나가 부르짖어 대의를 밝힌후 이내 스스로 몇십년인가를 초야에 묻혀 있었다.

仁祖反正學學行遺逸之士府君起布衣拜新寧縣監親友或勸以勿就則謝曰隨分祿仕是吾志也況有老母在乎

是後歷翊衛司衛率工刑二曹郎司僕寺判官僉正內乘外則咸興判官淳昌郡守大丘府使由大丘特授通政大夫掌隸院判決事有剛明廉簡之獎

又爲錦城縣監金堤郡守內則工曹戶曹參議老年優游散秩時與名士大夫爲耆社會

癸卯十二月二十日卒壽七十八葬於龍仁縣寒泉之洞夫人坡平尹氏祔夫人處士弘裕女參判仁涵之孫與府君同年年七十先府君卒

舉五男長翹次翹翹翹翹丁丑江都之亂

인조반정(仁祖反正) 한 후 학행이 있으면서도 은둔하고 있는 사람을 천거할 때 부군께서는 포의 한사로 신녕현감(新寧縣監)에 제배되자 친우(親友)들이 혹 권하기를 벼슬길에 나가지 말라 하였으나 선생은 말하기를 분수를 따라 직책을 맡는것은 나의 뜻이라. 하물며 노모께서 계시는 바에 있어서라 하였다.

이 후 익위사(翊衛司), 위솔(衛率), 공조, 형조의 정랑, 사복시(司僕寺) 판관(判官), 첨정(僉正), 내승(內乘)을 역임하였고, 외직(外職)으로는 함흥판관(咸興判官), 순창군수(淳昌郡守), 대구부사(大丘府使)를 지냈으며 대구부사로 부터는 통정대부(通政大夫)로 특수(特授)되었는바 장례원(掌隸院) 판결사(判決事)가 되어서는 강명염간(剛明廉簡)함이 있었으며

또한 금성현감(錦城縣監), 김제군수(金堤郡守)를 지냈다. 내직(內職)으로 들어와서 공조(工曹), 호조(戶曹), 참의(參議)를 지냈는데 년노(年老) 하여서는 편안하고 한가롭게 명사(名士) 대부(大夫)와 더불어 두루 산질(散秩)하였고 기사외(耆社會)를 만들었다.

계묘(1663) 12월 20일 졸(卒)하니 향수 75세였으며, 용인현 한천동(寒泉洞: 지금의 이동면 천리)에 장례 지냈다. 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가 부모(祔墓) 되었는데 부인은 처사 홍유(弘裕)의 따님이며, 참판 인함(仁涵)의 후손이다. 부군(府君)와 같은 나이인데 70세에 부군보다 먼저 졸하였다.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장남은 핵(翹)이며, 차는 흠(翹), 상(翹), 숙(翹), 익(翹)이다. 정축년(1637)

夫人投火翮翮急救
 之賊又亂射之又翼
 蔽之夫人全而翮死
 翮幾殊而甦翮婦金
 氏翮婦吳氏亦同死
 朝廷并旌之曰孝烈
 之門翮後爲敦寧都
 正翮 贈持平翮用
 儒學進大司憲翮右
 議政翮吏曹判書

女適縣監李惇側出
 翮習翮翮及婿尹
 撥皆進士議政公三
 男晚昌進士 贈判
 書晚成判書晚堅觀
 察使而晚堅出爲都
 正公後實尸府君祀

府君聰明俊偉天姿
 卓犖以孤童能自樹
 立篤於爲善勇於趨
 義雖浮沉仕宦不欲
 自異於衆而其學一
 以爲己務實爲主故
 見於身則繩度嚴密
 光輝咥赫望之可知
 爲大人君子驗

강화도가 함락 되었을 때 부인이 불속에 투신하
 자 아들 핵(翮)과 흡(翮)이 급히 구하였으나, 적
 이 또한 화살을 어지럽게 쏘아서 아들이 몸으로
 가려 부인은 온전하였으나 흡은 죽었고 핵은 거
 의 죽었다가 회생하였으나 핵(翮)의 부인 김씨
 와 흡(翮)의 부인 오씨가 역시 함께 죽으니, 조
 정에서는 이들을 함께 표정(表旌)하고 효열문
 (孝烈門)이라 하였다. 핵은 후에 돈령부(敦寧府)
 도정(都正)이 되었고 흡은 지평(持平)으로 증직
 되었으며 상(翮)은 유학으로 대사헌(大司憲)이
 되었고 숙(翮)은 우의정(右議政), 익(翮)은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올랐다.

딸은 현감 이돈(李惇)에게 출가 하였다.
 측실(側室)에게서 휘(翮), 습(翮), 흑(翮)이 태어났
 으며, 사위는 윤발(尹撥)인데 모두 진사(進士)이다.
 의정공(議政公)께서는 삼남(三男)을 두었는데 만
 창(晩昌)은 진사(進士)로서 판서(判書)에 증직
 되었고 만성(晩成)은 판서(判書)이며, 만견(晩堅)
 은 관찰사(觀察使)로써 도정공(都正公)에게 양자
 하여 부군의 향사를 받들었다.

부군께서는 총명(聰明)俊偉(俊偉)하였고 타고난 천품
 이 뛰어나 외롭게 자랐으나 스스로 뜻을 세워
 착함에 독실하였고 의를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
 았으며 비록 벼슬 길에 부침이 있더라도 스스로
 무리 가운데에서 다르고자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는 자신을 위하여 힘쓰는 것을 위
 주로 하였으며, 몸을 돌봄에 있어서는 경계하고
 삼가하며 법도를 엄밀하고 광휘(光輝)로서 빛나
 는 것을 두려워 하니 바라보매 가히 대인(大人) 군자
 임을 알 만 하다.

諸家則忠孝節義炳
煥一世有足以扶世
教而淑人心者而顧
乃謙虛冲挹都不自
有望尊而愈卑齒老
而益恭位不滿德以
垂裕於無窮易曰視
履考祥又曰謙尊而
光府君有焉

嗚呼我李以清門孤
族蔚然爲詩禮之家
是實府君培植之力
而究其所以得此則
惟仁厚忠信爲之基
耳爲府君子孫者或
有反於是者則無得
拜於斯墓之前也

不肖曾孫 緯謹記

府君任咸興時 沙
溪先生嘗有所求府
君不欲康副以詩諷
之曰鷹在青天蜂在
山此雖細事而可以
觀府君制行之大致
也尤菴宋文正公爲
府君大碑而以疎漏
爲恨其與吾祖考議

제가(諸家)에 있어서는 충효(忠孝)와 절의(節義)로서 일세(一世)를 밝혔으며 세교(世教)를 돕고 인심을 맑게함에 족하였으나 돌이켜 보면 이에겐 겸허하고 온화함이 있었고 명망이 높을수록 스스로 몸을 더욱 낮추었으며 연치(年齒)가 높을수록 겸양을 더하였다. 그의 덕성(德性)에서 볼 때 직위는 만족하지 않았으나 그의 너그러움은 넉넉하였다. 주역에 이르기를 「발자취를 보고 상서로움을 살핀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겸양은 존귀 할수록 빛을 발한다」고 하였는데 선부군께서는 이와 같음이 있었다.

오호라. 우리 이문(李門)은 청문고족(淸門孤族)으로서 무성하게 되고 문장과 예의 지가(詩禮之家)가 된 것은 실로 부군께서 힘써 가꾸신 것에 있음이며 이와같은 소이는 오직 인후(仁厚)와 충신(忠臣)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부군의 자손이 된 자로서 혹 이에 배치되는 것이 있다면 부군의 묘 앞에 엎드려 절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불초 종손 재(緯) 삼가 쓰다.

부군께서 함흥 임지에 계실 때, 일찌기 사계(김장생) 선생이 구하는 바가 있었으나 부군께서는 완강하게 따르지 않으시고 시로써 비유하여 말하기를 “매는 청천(靑天)에 있고 벌은 산에 있노라”하였는데 이는 비록 미세한 일이기는 하나 가히 부군의 제행(制行)이 대리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우암 송문정공(시열) 부군의 대비(大碑)를 썼는데 소루(疎漏)한 것이 한(恨)이 된다. 나에게 조부 되시는 의정공(議政公)에게 보낸 글에서 이에 관한 일단(一段)을 들어 말하

政公書舉此一股曰
老先生喜且尙焉對
人稱道不巳尊府君
風義固今世所無而
老先生盛德豈小子
後生之所可窺測哉
此不可使無傳云爾

기를 노(老)선생(사계)께서 기뻐하며 또한 일찌
기 말하기를 사람을 대하여 칭도(稱道)하여 마
지 않으면서 부군의 풍의(風儀)가 존귀함은 진
실로 금세에는 없다고 하였으니 노 선생의 성덕
(盛德)을 어찌 소자 후생(後生)들이 헤아리지 않
을 것인가 하시었다. 이 또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유겸(李有謙) 神道碑

朝鮮通政大夫戶曹
參議 贈嘉善大夫
吏曹參判兼同知義
禁府事五衛都摠府
副摠管李公神道碑
銘

公諱有謙字受益始
公從風玉趙公守倫
學得聞沙溪生生緒
餘又沙溪先生知俗
學外有用心處所與

遊皆一時名流光海
朝風玉公罹禍死親
舊莫敢視公親執絞
衾襲歛如體又與同
志抗疏極論母不可
讐仍自錮于園野囹
圜室德信正鸞壽善
譚易公從而講究盡
知圖書卦書之說

仁祖反正舉遺逸學
行之士公起諸生除
新寧縣監囹圄布恩
吏民大悅適 國家
有師命餉使喜公俱
辦歎曰書生乃能如
此

조선 통정대부 호조참의 증가선대부 이조참판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 이공 신도비명

공의 휘는 유겸 자는 수익이다. 처음에 공은 풍
옥 조수륜을 따라 학문을 익혔으며, 사계 김장
생선생의 서여(緒餘: 본업외에 하는 일: 즉 수업
받았음을 말함)를 듣게 되었다. 또한 사계를 선
생으로 모시면서 속학(俗學)외에 처소에 용심
(마음을 쓰는 것)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

그후 그는 사망으로 유람하면서 학문에 전력하
였다. 광해조(光海朝) 때에 풍옥 조수륜 공이 사
화로 인하여 죽으매 옛 친구들은 감히 거들떠
보지도 못하였으나 공은 친히 상의와 이불등을
가지고 가서 예법대로 염하였고 또 동지등과 함
계 간신배들에게 항거하여 극론을 펴으로써 그
들이 모두 원수가 되었다. 인하여 - 4자결 -
'공이 따라서 강구하여 도서의 부서지설을 완전
히 익힐 수 있었다.

인조가 반정하자 학행이 있는 선비들을 유일(遺逸)
로 등용하니 공 또한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신
념현감에 제수되어 백성을 학대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니 아전과 백성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마침내 국가에 옥사가 벌어져 희(喜) 공으로 하
여금 갖추워 판단케 하니 탄식하여 말하되 서생
들이 이에 능히 이룰 수가 있는가 하였다.

閔公聖徽爲監司李公敬輿主黜陟先後顯其績隨有褒賜丁內喪旣除拜衛率由工曹佐郎爲咸興判官不鄙夷其民勸學明教未幾民間其坐事將罷相瓘諷使者請輸粟以贖之事聞上特命勿罷後使者至素不悅與頑民挾誣之

公對吏卽辨哲蒙宥盖 上雅知公也丙子江都陷先是公結士友爲義旅入見分司責其玩嬉狀

及遇賊闔門殉節公坐待及賊從後射不中盖公七歲壬辰倭變賊將加刃終不能害公豈終始有相之者歟旣公以王室蕩殘不忍去

自丁丑以至乙酉歷刑曹郎淳昌郡四入太僕寺爲判官內乘

民公 성취가 감사가 되고 이공 경 여(輿)가 출척을 주관하게 하였다. 선후 드러난 그 업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였다. 정유년에 내상을 치루었으며, 이미 위술에 제배되었고 공조좌랑에서 함흥판관이 되었는데 그 백성들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학문을 권장하고 교화에 힘쓰니 미기에 백성들의 칭송을 들었다. - 2자결 - 하여금 청하여 유숙으로 ;사도록 하자 이 일이 상에게 알려지자 왕의 특별으로 파하지 말라 하시니 후에 사자 수가 달갑게 여기지 않고 완악한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무고하였다.

공은 관리들을 대할 때 매우 분별을 명석하게 하였고 관용이 있어서 상께서도 공의 모든것을 소상히 알게 되었다. 병자년에 강도(강화도)가 함락되었는데 이에 앞서 공은 선비와 벗들로 결속하여 의를 만들고 분사를 보고 완희(玩嬉)하는 것을 질책하였다.

마침내 적을 만나 문을 닫아 걸고 순절하였다. 공은 앉아서 적이 뒤를 따라 오기를 기다렸다가 활을 쏘았으나 적중 시키지 못하였다. 대개 공이 7세때 임진왜변에 적장 가인(加刃)이 끝내 공을 해치지 못하였으니 어찌 시종이 서로 같을 수가 있었겠는가. 이미 공은 왕실이 탄잔됨을 참을 수 없어 이를 넓히려 하였다.

정축년으로 부터 을유년 까지 형조권랑과 순창군수를 역임하였고 태복시에 들어 와서는 판관이 되었고 내승으로 첨정이 되었다가 대구부사

再爲僉正及大丘府使府號劇邑公處之有方暇日率邑子講家禮心經行鄉飲酒儀設耆老宴直指使上治行爲第一特陞通政階遂入爲判決事其聽訟不饒權貴

又出爲錦城縣監金堤郡守星州牧使皆南方大都會也判書蔡公裕後奉使還爲言金堤治績之善秩滿上故命展限從民望用言者旋寢之而星州則辭不赴

自工曹參議移戶曹數年遞復入務塞侵漏綽有羸羨旣而引年投閑時作者英會悠然有洛社之勝高祖承健判書曾祖諶司議祖之信觀察使考劾贈承旨承旨之十二世祖公靖爲高麗侍中牛峰之李始顯於此公幼孤值師饑

에 이르렀다. 공의 처세가 절도가 있었고 공이 처한 읍치에 있을 때에 한가한 때에는 읍내 자제들을 이끌어 가계심경과 향음주 예를 행하였고 기로연을 베풀었다. 곧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모범됨으로 특별히 통정의 위계(位階)로 승진되었고 드디어 판결사가 됨에 송사를 듣고 처결함에 있어서는 권세나 귀천을 용서하지 않았다.

또 금성현감과 김제군수, 성주목사를 지냈는데 모두 남쪽 지방의 큰 도회(都會)였다.

판서 채유후 봉사(奉使)로서 조정에 돌아와 말하기를 김제에서 선치한 치적을 아뢰니 임기가 만료됨에 상께서 백성이 따르고 바라는 말을 따르는 한 다시 성주목사로 돌아갈 것을 명하였으나 사를 올리고 부임하지 않았다.

공조참의로 부터 호조로 옮겨서 수년만에 다시 체직하여 막히고 침해되고 진흙에 누수되는 바를 막고자 영선원을 두고 업무에 힘썼다.

인하여 나이 많음을 들어 한가한 곳을 찾아 기영회를 만들어 유연히 락사의 승경을 즐겼다.

고조 승건은 판서요. 증조 심은 사의를 지냈고 조(祖) 지신은 관찰사, 고 할은 승지로 증직되었다. 12세 조(祖) 공정(公靖)은 고려때 시중(侍中)을 지냈으며 우봉이씨의 시조가 된다. 이로부터 현달하였고 공은 어려서 외로움과 곤궁함에 처해 있었다.

母夫人李氏韓山大
姓李公潞女携公旅
泊既還京無從請業
遂受史書于吏人常
夙興夜寐非其疾身
未嘗欹側雖眞醇不
事表襮而繩度甚嚴
孝悌之行推及宗黨
樂善好義拔出頽俗

當廢朝時特立獨行
風彩凝然以故雖在
布衣而士友傾嚮焉
及際明時盡誠竭力
以供職事晚年主知
盖降遂有剛明廉簡
之獎斯可謂約而盡
矣嗚呼可以觀君臣
矣

夫人尹氏考弘裕祖
參判仁涵六親稱有
婦德公癸卯十二月
二十日年七十八而
終夫人同年生先生
八年歿而合葬墓在
龍仁縣東冷泉洞

男翮縣監翮翮翮用
薦爲持平翮翮俱文
科翮監事翮參議壻

모부인은 이씨는 한산대성으로 이로(李潞)의 따
님이시다. 공은 일찍 부친을 여위자 어머니에게
이끌리어 이미 서울로 돌아갔으나 배움을 청할
곳이 없었더니 마침내 이인(吏人)으로 부터 사
서를 받아 항상 새벽부터 밤 늦도록 책을 읽으
면서 병이 심하지 않으면 자리에 눕지 않았다.
일찌기 의지가 굳센 측면이 있고 비록 참되고
순수하여 표포를 일삼지 않았지만 그 법도는 매
우 엄숙하고 효행과 우애의 행실이 종당에 알려
졌고 선을 즐겨하고 의리를 존중하매 무너진 풍
속을 바로 잡았다.

폐조 때에는 특별히 서서 독행하였으며 풍채 또
한 응연 하였으므로 비록 포의 한사로 있었으나
사우(士友)들이 그를 따랐다. 밝은 세상을 만나
서 정성을 극진히 하고 전력으로 힘써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 하였으며 만년에 이르러서야 주상
도 그를 알게 되었으니 대개 강명하고 청렴하였
으며 간략함이 가워 극진을 다했다 할 것이니
아아! 군신간의 의리를 이에서 볼 수 있을 것
이다.

부인 윤씨의 부친은 홍유(弘裕)이며 조(祖)는 참
판 인함이다. 육친이 모두 칭하기를 부덕이 있
다고 하였다.

공은 계묘년 12월 20일 수 78세로 세상을 마쳤
으며 부인 또한 동년 생이시다. 선생보다 8년
뒤에 몰하여 합장하니 묘는 용인현 동쪽 지금의
천동이다.

아들 핵(翮)은 현감이고 흠과 상은 지평이고 숙
과 익은 함께 문과에 올라 숙은 감사, 익은 참
의이다. 사위는 이순으로 찰방이다.

察訪李惇也江都之
變夫人自投火受賊
鋒翽翽同赴之翽與
其妻吳氏及翽妻金
氏皆死翽殊僅甦

朝廷並表之曰節孝
門側出翽習翽一女
歸尹撥縣監三女適
韓聖龜崔嵩齊林世
良二女幼

持平三女適宋炳文
申徵華吳遂大三女
幼側出男晚初監司
男晚昌晚成晚堅女
適進士洪受瀟參議
側出男晚達李察訪
生厚著世著監司以
其貴 贈公亞卿

余嘗事沙溪先生先
生函稱公以詔之後
獲拜承公顏公猥以
同門見待仍游公父
子間前後殆四十年
慕義愈深覲德愈稔
今諸子托以墓道之
文義不可辭銘曰

風玉之學出自坡山
公從請問實先其難
後登沙門潭翁統脉

강화도의 변란에서 부인은 적의 칼을 맞아 죽었다. 핵과 흡이 함께 이르렀고 흡과 그의 처 오씨와 핵의 처 김씨 모두가 함께 죽었으나 핵만 간신히 살아 남았다.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표정을 내리고 절효문(節孝門)을 세웠다. 측실에게서 휘와 습과 고를 낳았고 1녀는 윤발에게 출가하였고, 현감(핵)은 3녀를 두었으며 한성구, 최송제, 임세량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딸 둘은 아직 어리다.

지평은 딸 셋이 있었는데 송병문, 신징화, 오수대에게 각각 출가하였고 딸 셋은 아직 어리다. 측실에서 낳은 아들 만초는 감사이고 만창과 만성, 만견이 있고 딸은 진사 홍수현에게 출가하였다.

참의의 측실에서는 아들 만달을 낳았고 사위 찰방 이순은 후저와 세저를 낳았는데 감사이다. 그는 귀하게 됨으로서 아경(亞卿)에 증직되었다.

내가 일찌기 사계선생을 섬길 때에 선생께서 자주 공을 칭찬하시었는데 후에 공의 존안을 우러러 모시게 되었을때 공과 교우하는 동문들이 넘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공의 부자(父子)와 교우한지 전후 40년 넘었지만 더욱 깊이 의리를 흠모하고 해가 갈 수록 끼친 덕이 더욱 넘친다.

이제 여러 자제들이 묘도에 세울 비문을 나에게 부탁하니 사양하지 못하였다. 이에 명하기를

풍주의 학문은 파산으로 부터 나왔다. 공이 그를 따라 학문을 청하니 실로 어려움이 있었다.

후에 사계선생의 문하에 들어서 답옹 전통을 이

如呂藍田東見于洛
蓋公初終寔有淵源
既仕于朝志無飽溫
剛明廉簡上有褒言
一節三朝終不緇磷
由身及家家道莘莘
節孝之門棹楔是宜
不有君子斯焉取斯
其餘存者文行祇飭
惟公之儀庶徵不忒
我作銘詞永世無泐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傳宋時烈撰

正憲大夫議政府左
參贊兼成均館祭酒
世子贊善宋浚吉書

嘉善大夫平安道觀
察事兼水軍節度使
巡察使平壤府尹兩
西管餉使閔維重篆

崇禎紀元之後四十
二年己酉十月日
後十八年丁卯監司
公拜相加贈公議政
府領議政

었으며 여남전의 맥을 이어 동에서 놀았네. 대개 공의 시종의 연원은 이와 같으니 이미 조정에서 벼슬을 하게 되어서는 배부르고 따스한데 뜻을 두지 아니하였다. 강명하고 겸양 간소하여 임금으로 부터 칭찬하는 말씀이 있었고 하나의 절개로 삼조(三朝)를 섬김에 흔들림이 없었노라. 몸으로 부터 연유하여 가도에 이르기까지 신신하였고 절흔지문의 작설지전은 의당하도다. 군자가 있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일이 있었으랴! 그가 남긴 것은 문행과 공경을 갖춘것 뿐이다. 오직 공의 범절은 거의 어긋남이 없으셨으니 내 이에 명을 사(詞)하여 영원히 끊어짐이 없이 하리다.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겸 령경연사
감 춘추관사 세자부 송시열찬

정헌대부 의정부 좌참찬 성균관 계주 세자 찬선
송준길 서

가선대부 평안도 관찰사 겸 수군절도사 순찰사
평양부윤 양서관향사 민유중 전

송정기원부 42년 기유 10월 일 후 18년 정묘 감사공이 상신을 배수하여 공은 의정부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음.

이 익 (李 翊) 墓 碣

嗚呼此我叔祖故吏
曹判書農齋李公諱
翊字季羽之墓也李
出牛峰始祖公靖以
武略顯于麗 本朝
觀察使吉培判書承
健副提學之信以循
良文學著至

晚悔府君諱有謙師
事沙溪先生質行純
德儀式士林卒官戶
曹參議配坡平尹氏
處士弘裕之女舉五
丈夫子公其季 崇
慎己巳生

孝廟壬辰進士丁酉
謁聖及第時伯仲都
正翮 贈持平翮以
節孝褒旌叔兄翊以
遺逸徵

吾王考議政府君爲
翰林公爲說書後又
同入玉堂往往伴直
而晚悔府君猶無恙
一世艷稱之

아아 이는 나의 5대 조부이신 이조판서 농재(農齋) 이공 휘 익(翊) 자(字) 계우(季羽)의 묘소이다. 이씨는 우봉을 관향으로 하는데 휘(諱) 시조 공정(公靖)은 무략(武略)으로 고려조에서 현달하였고, 조선조에서는 관찰사 휘 길배(吉培)와 판서(判書) 휘 승건(承健), 부제학(副提學) 휘 지신(之信)이 법을 잘 지키고 백성을 잘 다스렸으며 문학으로 높았다.

만회부군(晩悔府君) 휘 유겸(有謙) 때에 와서는 사계(沙溪) 선생을 스승으로 섬겼으며 공명정대하고 거짓없는 행동과 천성의 깨끗한 덕이 사림(士林)의 본보기가 되시더니 마침내는 벼슬이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이르렀다. 배위는 과평윤씨로 처사(處士) 홍유(弘裕)의 딸이며,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공이 그 막내로 승정 기사년(1652)에 출생하여

효종 3년(1652)에 진사(進士)가 되고 정유년(1657)에 알성급제(謁聖及第) 하였다. 그때 만형인 핵(翮)은 돈령부 도정에서 지평(持平)으로 추증되었고 중형인 흠(翕)은 절효(節孝)로써 정려(旌閭)되었으며 숙형 상(翊)은 유일(遺逸)로서 나라에 부름을 받았다.

나의 왕고(王考) 의정부군(翮)은 한림(翰林)이었고 공은 설서(說書)였는데 뒤에 옥당(홍문관)에서 함께 벼슬을 하매 가끔 함께 숙직을 하기도 하였으며 만회부군(晩悔府君: 有謙)은 더욱 무양(無恙)하여 세상 사람들이 매우 부러워 하였다.

歷敷清要侍講院說
書司書兼弼善兼輔
德兵曹佐郎正郎吏
曹正郎司憲府持平
執義司諫院正言獻
納司諫弘文館副修
撰副校理校理副應
教應校禮賓司僕寺
正擢通政承政院同
副承旨序陞至左戶
兵工參議爲吏曹者
屢大司諫掌隸院判
決事僉知中樞五衛
將外則爲養監通津
縣臺啓請留

晉州牧使則爲凶黨
所黜既赴而猶律以
厭避卽其地編配

其在三司隨事盡職
嘗上疏陳 上躬闕
遺且斥相臣被酒失
朝儀之狀 上批殿
上一鶚今復見之

孝廟遴擇材臣廉察
諸道公得湖左事未
竣反命于 殯殿後
復爲御史領南關東

공은 청환과 요직을 두부 거치면서 이름을 드날
렸는데 시강원(侍講院) 설서(說書), 사서(司書)
겸 필선(弼善) 겸 보덕(補德) 병조 좌랑 정랑,
이조 정랑, 사헌부 지평(持平), 집의(執義) 사간
원(司諫院) 정언, 헌납(獻納), 사간(司諫), 홍문관
(弘文館) 부 수찬(修撰), 부교리(副校理), 교리
(校理) 부응교(副應校), 응교, 예빈시(禮賓寺), 복
시(僕寺) 정(正)을 지냈고 통정대부로 발탁되어
동부승지에서 승차하여 좌승지(左承旨)에 이르
고 대사간과 장례원(掌隸院) 판결사(判決事), 중
추부첨지사, 오위장정 등을 지냈다.

외직으로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통진현감으
로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임금의 곁에서 멀리
떠나게 함은 옳지 않다”고 대간에서 계를 올려
조정에 머물기를 간청하였으므로 나아가지 못하
였다.

이윽고 진주목사(晉州牧使)가 되었는데 이는 흉
당(凶黨)에게 축출되어 나가게 된 것으로, 이미
진주에 도착 되었음에도 오히려 부임 하기를
꺼려 피하였다는 울로서 바로 그 땅에 유배되
었다.

공이 삼사(三司)에 있을 때 일에 따라 그 직분
을 다하였기로 일찌기 상소를 올려 임금께서 빠
치심을 몸소 말씀을 드려 올렸고 또 재상이 술
에 취하여 조정의 법도를 어긴 정상을 논박하였
다. 이에 임금이 비답하기를 “조정에 한마리의
독수리를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효종이 재주있는 신하를 골라 뽑고자 각 도를
자세히 조사하려 하실 때 공은 충청북도를 맡아
서 나아 갔는데 일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돌아
와서 효종의 빈전(殯殿)에 복명 하였고 뒤에 영
남과 강원도 어사가 되었다.

公中年以遭金益癯
事自引爲口語相質
士夫所恥不安於朝
廷益廉爲公議所棄
上亦右公而猶懷
踧踖出爲原襄監司
滿期而褫

己未與議政府君同
坐尤菴黨籍分竄西
北遇雷變特有翌年
朝著廓清公復爲承
旨

尋擢漢城府右尹參
判諸曹大司憲副提
學出爲慶尙監司纔
數月遭夫人喪特許
褫歸己而擢刑曹判
書移吏曹

時當老少分析之會
務欲激揚群小仄目
尹世喜等以言官構
誣公請罷上震怒
痛斥其言命削仕
版

左相閔公鼎重亦爲
公伸辨而公甚不自
安自後棲遑郊舍屢

공이 중년에 김익렴(金益癯)의 사건을 당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잘못이라 하여 책임을 졌는데 이는 말로써 서로 다투는 것을 선비의 수치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임금 또한 공을 돌보았지만 오히려 조심스런 마음으로 강원감사로 나아 갔다가 임기가 차매 벼슬에서 물러났다.

숙종5년 기미(1679), 의정부군과 함께 우암(송시열)의 당적에 연루되어 서북(평안도 양덕과 함경도 북청)으로 갈라져 귀양을 갔다가 숙종 6년 경신(1680) 뇌변(雷變)이 있자 특별히 너그러움을 입어 다음해에 조정이 크게 잘못을 바로잡아 개편 숙청됨에 따라서 공은 다시 승지로 기용되었으며

발탁되어 한성부윤 참판과 각 조(曹)의 참판, 대사헌, 부제학을 거쳐 경상감사로 나가신지 겨우 두달만에 부인의 상을 당하게 되자 특별으로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윤허받아 물러났다가 다시 형조판서로 발탁되었고 이어 이조판서로 옮겼다.

그때에 노론과 소론이 갈리어 짐에 따라 공은 격양(激揚)하기에 힘쓰니, 여러 소인들을 두려워서 결눈질만 하고 바로 보지 못하였다. 윤세희(尹世喜)등이 언관으로서 공이 죄가 없음에도 죄를 꾸며서 파직토록 청하니 임금께서 크게 노하여 그 말을 준절하게 물리치고 그의 이름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해 버리도록 명하였다.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또한 공을 위하여 죄가 없음을 사실대로 들어서 변명하게 되니 공이 스스로 매우 편치 못해 하였다. 그 후로 시

降別諭敦召不赴除
江華府留守京畿監
司以外職不敢辭

判尹參贊禮兵二書
知中樞復拜吏曹固
辭免己巳以 國葬
都監勞陞正憲出爲
廣州留守兼守禦使
無何時象大變公首
竄長興

時都正公及議政府
君已捐館都憲公罹
酷禍瘐歿公意悒悒
成疾以庚午九月二
十五日卒于鵬舍壽
六十二越四年甲戌
更化復公爵 賜祭
後又追錄庚申鞫獄
勞 贈左贊成

公凡三取羅州朴氏
府使淳女完山李氏
監役宇梁女青松沈
氏府使之淹女皆無
子側室男晚達尸其
祀晚達男綰進士奉
事

골 집으로 내려 갔었는데 임금께서 특별한 유
시로 여러번 돈독한 소명을 내렸지만 나아가
지 않았다가 다시 강화유수와 경기감사를 제
수함에 외직으로 배려됨을 감히 사양치 못하
였다.

판윤, 참찬, 예조와 병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중
추부지사정(中樞府知事正)이 되었는데 다시 예조
판서를 제수하자 굳이 사양하여 이를 면하였다.
숙종 15년 기사(1689)에 국장도감(國葬都監)의
공으로 정헌대부에 올랐고 광주유수 겸 수어사
로 나아 갔으나 얼마 안되어 조정의 정치적 상
황이 크게 바뀌더니 공이 맨 먼저 장흥(長興)으
로 유배되었다.

그때는 도정공(만형 翮)과 의정부군(형:翮)은
이미 작고 하였고 도헌공(出系兄:翮)이 참혹하
게 옥사를 당하매 마음이 답답하고 편치 않더
니 병이되어 숙종 16년 경오(1690) 9월 25일 배
소(전남 장흥)에서 향수 62세를 일기로 졸하였
다. 4년 후 갑술경화(甲戌更化)로 벼슬이 회복
되고 사제(賜祭) 후에 국옥(鞫獄)때의 공로를
추록하여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되었다.

공은 삼취(三娶)를 하였는데 나주박씨는 부사
(府使) 박순(朴淳)의 딸이고 완산이씨(完山李
氏)는 감역(監役) 이우량(李于梁)의 딸이며 청
송심씨는 부사 심지엄(沈之淹)의 딸인데 모두
소생이 없으므로 측실의 아들(晚達)로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만달의 아들 관은 진사로 봉사
하였다.

公初葬水原丁丑移
卜龍仁驥項西坐原
二夫人祔元配別葬
泉谷先兆沈夫人自
公歿誓天絕穀所食
惟冷水三載而卒嘻
其烈矣

嗚呼公以文學才猷
顯於當世而遭時蔑
貞慍于羣小終至竄
逐以歿土類莫不悲
之

然公一身與世道同
其屈伸大賢均其榮
辱公亦何恨乎哉
公容貌疎爽無塵俗
氣遇之者不知爲宰
相

與人言明白懇到
聽可聽爲文操筆立
就辭理條暢一時瀛
館盛才俊而章劄多
出公手筆法亦迥麗
有情致

공은 처음에는 수원에 장사하였다가 정축년 용인의 노루목(驥項: 지금의 천리 노루실) 서쪽에 이장 하였는데 부인 둘이 부장되었고 큰 부인은 샘골의 선영에 묻혔다. 심씨 부인은 공이 돌아가자 하늘에 맹세하여 곡기를 끊고 냉수로 연명 하다가 3년 후에 세상을 뜨니 가히 열려라 하였다.

아아 공께서는 문학에 뛰어난 재주로 그 시대에 지위와 명성을 함께 날렸으나 바른 사람이 도리어 없신여감을 당하는 때를 만나 여러 소인들에게 노여움을 사게 되어 끝내는 유배되어 세상을 마치니 선비로서 슬어하지 않는이가 없었다.

그러나 공의 한 몸은 세상이 지켜야 할 도리에 맞추어 굴신을 하였고, 지덕이 높은 대현과 함께 그 영화와 치욕을 고루 같이 하였으니 공은 무엇을 한하리요. 공의 모습은 소탈하고 컷으며, 진속의 기품이 없었으니 공을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가 재상임을 알지 못하였다.

사람들과 더불어 말할 때에는 명백하며 지극히 간절하고 정성스러웠고 물이 흐르듯 하는 말은 가히 들을만 하였으며 글을 지을 때에는 한번 붓을 들으면 떼지 않고 즉각 썼는데 그 논리가 조목조목 막힘이 없이 환히 통하였다.

한 때 홍문관에서 뛰어나고 재주있는 선비들로 한창일 때에도 소장(疏章)과 차자(劄子)를 짓는 일은 공의 손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필법이 또한 굳세고 아름다우며 운치가 있었다.

緯幼時見公公退輒
讀小學後以御史過
陽德縣老吏猶道公
謫居時事其言亦然
又聞公晚年解官閑
居挾心經往質于尤
翁老而好學如此

噫此豈可與俗人道
哉尚記公燕處每彈
指歎曰人生富貴何
爲自傷其無嗣也及
在謫中緯年十歲以
書問起居手筆作答
勉以門戶之責辭意
激切至今藏佩不敢
忘

今老且死矣深懼公
平生行業湮沒無聞
悉叙履歷且撮其志
事之大者以遺縮之
子濟仁俾刻于阡石
兄孫資憲大夫議政
府左參贊 緯 謹識
嘉善大夫司憲府大
司憲 金尙鎮 書
崇禎後再癸亥 十
月 日 立

재(緯:도암)가 어렸을 때 공을 뵈오니 퇴청하여
서는 언제나 소학은 읽었는데 재가 뒷날 어사가
되어서 양덕현을 지날 때 늙은 아전이 공이 귀
양살이를 할 때의 일을 말하는데 그 말 또한 그
러하였다. 또 듣건데 공이 만년에 벼슬에서 물
러나 한가하게 지내실 때 진덕수(眞德秀)의 주
자학 요서인 심경(心經)을 듣고 송우암(시열)을
찾아가 문의 하였다 하니 노년에도 학문을 좋아
함이 이와 같았다.

슬프다 이런 분을 어찌 속된 사람들과 견주어
말하겠는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공이 한가히
지내실 때 매양 손을 치며 탄식하기를 「인생이
부귀한들 무엇하겠는가?」 하며 후사가 없음을
상심하던 일과 그리고 배소에서 지낼 때에 재
(緯)가 열살로 글로써 안부를 여쭙니 손수 쓰신
답서에 “문호(門戶)의 책무에 힘쓰라”는 사언의
뜻이 하도 간절하기에 지금까지 간직하고 감히
잊지 못한다.

내 늙어서 죽을 것이니 공의 평생하신 업적이
파묻혀 사라져 전해지지 않을까 두려워 이력을
자세히 서술하고 그 품으신 뜻과 이루신 업적의
큰 것을 모아서 관(縮)의 아들 제인(濟仁)에게
남겨주어 묘비에 새기도록 한다.

형손 자헌대부 의정부 좌참찬 재 삼가 짓고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김상진 쓰다.

승정후 재계해(1743) 10월 일 세움

이자견(李白堅) 墓碣

昔延陵季子之葬夫子題之曰嗚呼延陵季子之墓無餘辭矣其後千有餘載學士大夫無不誦法孔子而獨於銘人之墓不法聖筆者奚豈

非文滅質朴溺心之故耶不佞觀故大司徒星山李公遺戒子孫而異之始公以藝學拔萃躡歷華顯非盛玉堂則烏府薇垣

其間論思行業之可稱道者何止一二數況忠犯喬桐主逆鱗受玦南荒人臣大節也事載史氏策抑何私諱焉

顧公則汲汲以身後子孫之或溢辭加其身是慮預作遺書累

옛날 연릉계자(延陵季子: 춘추시대 뫏의 왕자季札)을 말함. 연능은 지명임)의 무덤에 공자께서 쓰기를 「아 이는 연릉 계자의 무덤이나(嗚呼延陵季子之墓)」라고만 하고 딴 말은 없었다. 그 후로 1천여년 사이에 학사나 대부 등이 공자를 본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만 유독 사람의 묘 속에 명(銘)을 함에 있어서 만든 성인의 필치를 본받지 아니한 것은 어떤 일인가?

이는 문채가 질박함을 없애버리고 마음에 침익(沈溺)함이 있는 가답이 아니겠는가? 불령(不佞: 지은 사람의 겸칭)은 고 대사도(大司徒) 성산(星山) 이공(李公)이 자손들에게 유계(遺戒)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처음에 공은 예학으로 발취되어 좋은 자리를 두루 거쳤는데 옥당(玉堂: 홍문관)에 몸담지 아니하면 오부(烏府: 사헌부)나 미원(薇垣: 사간원)이었다.

그동안 논사(論思: 論道思治의 준말)와 행업(行業)에 있어 일컬어질 만한 것이 어지 한 두가지만 들 수 있었겠는가 만든 무엇보다도 충성심에서 교동주(喬桐主: 연산군을 지칭, 교동에 귀양갔기 때문에 붙여짐)의 역린(逆鱗: 용의 턱밑에 있는 비늘, 비위의 뜻)을 범하고 남황(南荒: 남쪽의 변방)으로 귀양간 것은 인신의 대절로 사실이 사책(史策)에 실려 있으니 어떻게 사사로 숨길 수 있는 일이던가?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공은 자기의 사후에 자손들이 혹 지나친 말로 자신에게 가할까 걱정하기에 급급하여 미리 유서 수백마디를 지어서 자손에

百言戒子孫勿用誌
石碑碣於乎若公殆
孔聖所稱加於人一
等者非耶

是奚亶憤世嫉僞立
此過當之說要之一
生謙謙之德恒主於
中所不欲以生死易
其心也故迺於桑榆
末景宣之於筆舌者
篤摯且嚴微公子孫
兢兢如一日雖他人
間公之風者疇不起
敬也哉

公之五世孫水曹員
外郎穀兵手其遺書
來諗不媿曰吾祖之
遺誨筆法赫赫若前
日事孱孫雖不猶人
豈敢以世遠而有所
忽焉

獨吾等之所大懼大
憫者述祖德古人重
之墓之無表古人哀
感不置祖德雖大非
文曷以行遠自參贊
公以下歷四世丘隴

게 경계하기를 지석(誌石)과 비갈(碑碣)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이다. 아! 그러니 공같은 공자가 말
한 남들보다 한층 낡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는 또 어찌 오로지 세상을 못마땅 하게 여기
고 거짓됨이 미워서 이렇듯 지나친 말을 하였
겠는가?

요컨대 일생동안 겸양으로 살아온 덕이 항상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기에 생사가 바뀐다고 그
마음까지 바꾸기가 싫어서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유(桑榆: 日沒) 만경(晚景: 만년의 뜻)
에 필설(筆舌)로 나타낸 바가 간절하고도 엄하
였으니 공의 자손으로 몇대를 하루와 같이 조
심한 분들이 아닌 딴 사람이 듣는다 하더라도
뉘라서 공의 풍도(風度)에 공경심이 일지 않겠
는가?

공의 5세손 수조(水曹: 공조의 별칭) 원외랑(卽
官) 곡(穀)씨가 그 유서를 손에 쥐고 나를 찾아
상의하기를 「우리 선조의 유계(遺戒)의 글씨가
반짝반짝하여 마치 서제의 일 같으니 우리 존손
(孱孫: 못난 자손이란 뜻)이 비록 사람 측에 끼
지는 못하나마 어떻게 대수(代數)가 멀어졌다고
소홀히 할 수 있겠오.

다만 우리들이 크게 두렵게 여기고 크게 민망하
게 여기는 바는 조덕(祖德)을 계수함을 고인은
중히 여겼고 묘소에 표(表)가 없음을 고인은 슬
프게 여기고 그만두지 않았는데 조덕이 비록 크
다 하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멀리 전해지
겠소. 참찬공 이하로 4세가 지나도록 묘소에 돌
하나 세우지 아니한 것은 참찬공의 유교(遺教)

不樹一石者遵參贊公遺教也若過數世子孫浸遠爲所不知何人必矣安能哀感而必尢無表之祖墓哉此吾等之所大憫也願先生之詔之不佞

辭非其人不獲則乃跪而言曰禮有之先祖無媿而稱之是誣也有善而弗知不明也知而不傳不仁也此三者君子以所耻也子之先祖遺戒禁樹碑者慮其誣也其何善如之有此善而不傳禮經之所耻子孫安所逃今子誠法夫子之題延陵季子墓無剩辭則著祖之德遵祖之訓一舉兩全道固有竝行而不倍者矣員外公唯唯而去遂與諸孫謀刻麗牲之石于參贊公墓道錄其子孫云

參贊公諱自堅字子固遠祖純由位於羅

에 따른 것이나 만일 몇대를 더 지나서 자손이 차츰 멀어지면 어떤 사람인지 조차 모를 것은 필연의 세인데 어떻게 슬픈 생각이 들지 않겠으며 기여코 표문없는 조상의 묘소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점이 우리들이 크게 민망해 하는 점이오니 원컨데 선생께서 가르쳐 주시요」라고 하였다.

나는 그럴만한 사람이 못된다고 사양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여 자세를 고치고 말하기를 예(禮: 예기)에 있기를 「선조의 훌륭한 점이 없는데도 칭술(稱述)하는 것은 속임(誣)이 되는 것이고 훌륭한 점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이는 밝지 못함이 되는 것이며, 알고도 전하지 아니하면 이는 어질지 못함이 되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 세가지는 군자가 부끄럽게 여기는 바요. 그대 선조께서 유계로 비를 세우는 것을 금한 것은 그 속임을 염려한 것이니, 그 어떠한 훌륭함이 이보다 더 할 수 있겠소. 이러한 훌륭함이 있는데도 전하지 아니하면 예경(禮經)에 부끄러운 바인데 자손이 어떻게 그 죄를 면하겠소. 지금 그대가 참으로 부자(夫子)께서 연릉계자의 묘에 쓴 바를 본받아 다른 말이 없이 한다면 행하여도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니 원외공(員外公)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여러 자손들과 상의하여 참찬공 묘도(墓道)에麗생석(麗牲石: 신도비의 별칭)을 세워 자손을 기록하기로 하였다 한다.

참찬공(參贊公)의 휘(諱)는 자견(自堅)이고 자(字)는 자고(子固)이다. 원조(遠祖), 순유(純由)는

光顯羅亡廢居星州
仍姓焉十二傳長庚
封隴西郡公儉德著
生五男皆文科第四
子諱兆年十七登科
歷政堂進賢大提學
諡文烈

生諱褒門下侍中諡
敬元生六男五登文
科第四子諱仁立密
直司使生諱潑獻
廟朝大司馬諡平簡
生諱洧殿中生諱湊
贈四宰卽公皇考也

聘牧使權有順女景
泰五年甲戌四月丁
亥生公二十四中生
進兩試三十三登大
科由槐院歷典籍正
言持平改刑曹佐郎
陞漢城庶尹宗親典
籤拜司諫尙衣正執
義選弘文授典翰兼
知製教以直提學陞
副提學諫長出爲江
原道監司

신라에 벼슬하여 현달하였는데 신라가 망하자
성주로 물러나 살면서 그대로 관(貫)을 살았다.
12대를 내려와 장경(長庚)은 농서군공(隴西郡公)
에 봉해졌고 검덕(檢德)으로 드리났으며 5남을
낳아 모두 문과(文科)하였는데 제4자 조년(兆年)
은 나이 17세에 등과하여 정당(政堂)과 진현관
(進賢館)의 대제학을 지내고 시호는 문열(文烈)
이다.

이가 휘 포(褒)를 낳으니 문하시중(門下侍中)으
로 시호는 경원(敬元)이요. 이가 6남을 낳아 다
섯이 문과에 올랐는데 제4자의 휘(諱)는 인립
(仁立)으로 밀직사사(密直司使)요. 이가 휘 발
(潑)을 낳으니 헌묘조(獻廟祖: 태종조)의 대사마
(大司馬: 형조판서)로 시호는 평간(平簡)이다. 이
가 휘 유(洧)를 낳으니 전중(殿中: 종부시의 별
칭)이요. 이가 휘 주(湊)를 낳으니 증 우참찬인
데 공의 황고(皇考)이다.

이가 목사 권유순(權有順)의 따님을 맞아 경태
(景泰) 5년 갑술(1454) 4월 정해일에 공(公)을
낳았다. 공은 24세때 생원 진사 양시(兩試)에 합
격하고 33세에 대과에 올라槐院(槐院: 승문원)
에서 시작하여 전적, 정언, 지평을 거쳐 형조좌
랑으로 옮기고 한성부 서윤(庶尹)에 올라 종친
부 전첨(典籤)을 거쳐 사간에 제배 되었고 상의
원정(尙衣院正)과 집의를 거쳐 홍문관에 선발되
어 전한(典翰)겸 지제교(知製教)에 제수되었으
며, 직제학에서 부제학에 오르고 대사간을 거쳐
강원감사로 나아갔다.

甲子遷謫咸昌明年
丁憂 中廟改玉授
副提學與第參贊自
健簿自英參判自華
奉慈闈極三牲之養
又拜大諫判決入銀
臺爲左副時 上以
大官嘉味頒

政院院僚獨公有八
十老母首行謝恩請
以遺母 上感動特
拜京畿監司一時榮
之歷漢城右尹兼副
摠大憲少司徒己卯
丁大夫人憂公年幾
七十

因毀媒疾殆矣賴
上加賜藥物得甦終
喪由護軍又拜少司
徒 嘉靖癸未公年
滿稀與同姓諸公詣
闕致仕 上不許仍
舊官每遇令節輪設
宴會觴詠酬唱皆倩
公寫重公筆也容齊
李荇作七老契會圖
一篇以美之

갑자년(1504)에는 함창(咸昌)으로 귀양갔고 이듬
해에는 상(喪)을 당하였으며, 중종이 반정하자
부제학에 제수되었는데 아우인 참찬 자건(自健),
주부 자영(自英), 참판 자화(自華)와 함께 어머
니를 모시고 삼생(三牲: 소, 양, 돼지)의 봉양을
다하였다. 다시 대사간에 제수되어 판결사(判決
事)를 거쳐 은대(銀帶: 승정원의 별칭)에 들어가
좌부승지가 되었는데, 이때 임금이 대관(大官:
내자시의 별칭)의 좋은 음식을 정원(政院)에 내
렸다.

정원의 요속(僚屬)에서는 공만이 80세 노모가
있어 맨먼저 사은하고 어머니에게 가져가기를
청하니 임금이 감동하고 특별히 경기감사를 제
수하니 온 세상에서 영광으로 여겼다.

한성부 우윤겸 부총관(副摠管)과 대사헌 호조참
판을 거쳐 기묘년(1519)에는 대부인의 상을 당
하였는데, 그때 공의 나이 70세가 다 되었다.

훼척(毀瘠)으로 병이 생겨 위태로웠으나 임금이
약물을 내려 회생하게 되었고 상을 마치자 호군
(護軍)을 거쳐 다시 호조참판에 제수되었다. 가
정 동성(同姓)의 제공(諸公)들과 궁궐에 나아가
치사(致仕)하니 임금이 윤택치 않고 옛 벼슬에
그대로 있게 하였으며 매양 명절을 당하면 돌아
가면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글을 읊었으
나 모두 공에게 써달라고 청하니 공의 글씨를
중히 여겨서인데 용재(容齊) 이행(李荇)은 「칠
로계회도(七老契會圖) 한편을 지어 찬미하기도
하였다.

是年超階資憲拜戶曹判書甲申改知樞己丑九月考終享年七十六訃聞輟朝命賻加禮萬曆己丑錄光國原從遂 贈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兩館大提學知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夫人龍仁李氏太師李吉卷之後司猛末孫女 成化乙酉生卒于甲申丁卜龍仁西面枝內里於隱洞卯原公卒就其右封馬生三男一女男久府使次友後女金興門久一男希程通仕郎河次洛

溥三男光元生員次光吉生員光禮渾二男一女男光忠次承慶女安民準海二男

이해에 자헌(資憲)의 품계에 뛰어올라 호조판서에 제수되고 갑진년에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옮겼다가 기축년(1592) 9월 고종(考終)하니 향년 76세이다. 부음이 전해지자 임금은 조회를 폐하고 부조(賻助)를 예제보다 더하라 하였으며 만력 기축년(1589)에는 광국원종공신에 책록되어 정헌대부 의정부 좌참찬 겸 양관대제학 지 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증직 되었다.

부인 용인이씨(龍仁李氏)는 태사(太師) 이길권(李吉卷)의 후예인 사맹(司孟), 말손(末孫)의 딸로 성화 을유년(1465)에 출생하여 갑신년(1524)에 돌아가니 용인 서면 지내리(枝內里) 어은동(於隱洞) 묘자원(卯坐原)에 장례하였다가 공이 돌아가자 그 우측에 부장(祔葬)하였다. 3남 1녀를 낳으니, 장남 구(久)는 부사(府事)요 다음은 우(友)와 후(後)이며 딸은 김흥문(金興門)에게 출가하였다. 구의 1남 희정(希程)은 통덕랑이며, 우(友)의 2남 유정(維程)은 별좌요, 다음은 사정(嗣程)이며, 후(後)의 1녀는 강응철(康應哲)이 그 외손이다. 희정의 3남은 부(溥), 혼(渾), 완(浣)이요, 유정의 2남 3녀중 남은 참봉 해(海)와 한(漢)이고 딸은 이응창(李應昌), 김록(金球), 최관(崔瑄)에게 출가하였다. 사정의 2남은 하(河)와 락(洛)이다.

부(溥)의 3남은 생원 광원(光元), 생원 광길(光吉)과 광례(光禮)요, 혼(渾)의 2남 1녀는 남에 광충(光忠)과 승경(承慶)이요, 딸은 안민준(安民準)에게 출가하였으며, 해(海)의 2남 1녀 중 아들

一女男榮發次榮後
女李安謙漢二男一
女男榮震次榮元進
士女沈宗河

河二男二女光都次
光馨女沈景龜郡守
李景閔僉知洛二女
成友亮生員閔友騫
光元二男一女男芳
次蕃女柳懋光吉繼
子芬光忠三女柳恰
安世萬俞欽承慶一
男穀佐郎榮發男鏤
榮震二男幼光馨男
芬爲光吉後餘幼穀
繼子保胤鏤子幼銘
曰

有而不居惟謙之德
終也光明孰嫌先屈
展也李公其深於易
不惟平生退讓自牧
迺於身後恐名洩我
累百遺戒雲仍莫墮
嗟彼夸嫵青黃溝斷
騁辯蜚辭非諛則誕
駒城之縣隱洞之原
有短碣才三尺芳君
子之尊光者存耶

은 영발(榮發), 영후(榮後)이고 딸은 이안겸(李安謙)에게 출가하였으며 한(漢)의 2남 1녀 중 아들은 영진(榮震)과 진사 영원(榮元)이고 딸은 심종하(沈宗河)에게 출가하였다.

하(河)의 2남 2녀인데 아들은 광도(光都)와 광형(光馨)이고, 딸은 군수 심경귀(沈景龜), 첨지 이경민(李景閔)에게 출가하였다. 낙(洛)의 2녀는 생원 성우량(成友亮)과 민우건(閔友騫)에게 출가하였다. 광원(光元)은 2남 1녀인데 큰 아들은 방(芳), 차남은 번(蕃)이고, 딸은 유무(柳懋)에게 출가하였고, 광길(光吉)의 계자(繼子)는 분(芬)이며, 광충(光忠)의 3녀는 유흡(柳恰), 안세만(安世萬), 유흡(俞欽)에게 출가하였고 승경(勝慶)의 1남은 좌랑 곡(穀)이며 영발(榮發)의 아들은 집(鏤)이다. 영진(榮震)의 2남은 어리며, 광형(光馨)의 아들 분(芬)은 광길의 후사를 이었고 나머지는 어리다. 곡(穀)의 계자는 보운(保胤)이고 집(鏤)의 아들은 어리다. 명(銘)하기를

얻고도 차지하지 않는것이 겸양의 미덕인데 끝내는 광명해지는 것일진대 다투어서 미리 굴함을 싫어하라. 진실된 이공(李公)은 역(易)에 밝았던 탓으로 평생을 퇴양(退讓)하며, 스스로를 닦았을 뿐 아니라 죽은 후까지 헛된 이름이 자신을 서럽힐까. 몇백마디 유계(遺戒)남겨 길손들 잘도 지켰는데 아- 저 뽐내는 자들과는 청(靑)과 황(黃) 처럼 판이하나니 말로 뇌까리고 퍼드림은 아침이 아니면 허탄(虛誕)이기 일무로다. 구성 고을 어은동 언덕에 석자짜리 단갈 섰다해서 군자의 광영 된다 할꺼나.

正憲大夫 議政府
左參贊 趙綱 撰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沈之源 書

정헌대부 의정부 좌참찬 조 경(趙綱) 짓고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좌의정겸 영경연사감
춘추관사 심지원(沈之源) 쓰다.

이 자 (李 耜) 墓 碣

嗚呼公之歿今百有餘歲墓無表以其子與孫俱夭而不克也在宣廟朝歲丁亥上特命求族姓中二有子者繼公之孫後以祀公宗族以吾家應季父時尚幼然不敢辭壓

上命也其後蔭仕歷二縣力未暇神道常自感至是具石以立表屬余記之公之德行事業士林宗之太史詳之不必具載于石略叙系出及官序惟

我韓山李氏最名東國大姓者爲世有名賢也自稼亭文孝公諱穀牧隱文靖公諱穡麟齋公諱種學祖子孫繼述文獻序享於韓山書院

公以麟齋四代孫配之麟齋伏節革命是

오호라. 공이 졸(卒)하신지 1백여년이 되도록 묘에 표(表)가 없음은 그 자손이 모두 일찍 세상을 떴기 때문이다.

선조 정해년(1587) 상(上)께서 특별으로 족성(族性: 일가) 중에서 두 아들이 있는자를 구하여 공의 손(孫)을 잇게하고 공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족친들은 우리집 숙부로 하여금 옹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너무 어렸으나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

그후 상명으로 음사(陰仕)로 나가 두 현을 거쳤으나 신도비를 세울만한 여력이 없어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이에 석물을 갖추고 묘표(墓表)를 세움에 나에게 음기를 맡겼다. 공의 덕행과 업적은 사람들이 종장(宗匠)을 삼고 태사(太史)에 상세히 기록되었으니 구태여 돌에 까지 기록할 것이 없고 그 계출(系出)과 관력(官歷)만을 대략 기록하노라.

우리 한산이씨가 동국대성(東國大姓)으로 이름이 높은것은 대대로 명현(名賢)이 있기 때문이다. 가정(稼亭) 문효공(文孝公), 휘 곡(穀), 목은(牧隱) 문정공(文靖公) 휘 색(穡) 인제(麟齋) 휘 종학(鍾學)으로 부터 조·자손(祖·子孫)이 문헌(文獻)을 계술(繼述) 하였으며 한산서원(韓山書院)에 배향되었고 공은 인제의 4대손으로 배향되었다.

인제는 혁명에 절의를 지켰으며, 이 분이 지 돈령부사 양도공(良度公) 휘 무(畝)를 낳았고 양도

生知敦寧府事良度公諱叔畝良度生僉知中樞院事諱亨增皆清白傳家僉知生司諫院大司諫諱禮堅亦廉謹自持教子弟有法度夫人善山金氏從仕郎寬安之女生四子第三金吾郎諱耨卽吾高祖考公其季也

公生於成化庚子諱耨字次野幼不煩提諭長益力學中辛酉司馬遊太學所與皆名公而莫不推其德

甲子擢文科壯元授司憲府監察充千秋書狀官比還拜吏曹佐郎公見燕山政亂不樂仕

大諫公直道以謫自龍宮移星州公便巧聞韶正德丙寅靖國大諫公還朝公又爲陽川士論謂公宜近

公(良度公)은 침지 중추원사 휘 형종을 낳으니 모두 청백(淸白)을 전가 하셨다. 침지는 사간원 대사간(大司諫) 휘 예견(禮堅)을 낳으니, 역시 청렴 근실 하였다. 특별히 자제를 교육함에 있어서 법도가 있었다. 부인 선산김씨는 종사랑(從仕郎) 관안(寬安)의 따님으로 4남을 낳았는데 제 3자(三子) 금오랑(金吾郎) 휘 누(耨)는 곧 나의 고조부이며 공(耨)은 막내이시다.

공은 성화(成化) 경자(1480)년에 출생 하시었고 휘는 자(耨)이며 자(字)는 차야(次野)이다. 어려서 부터 번거로이 하지 않았고 공부에 힘썼으며 장성 하면서 더욱 학문에 힘쓰던 중 신유년(1501)에 사마시에 합격한 후 모두 명망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태학에 종유할 때 공의 덕(德)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갑자(1504)년에 문과에 장원, 발탁되어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을 제수 받았고 천추(千秋) 서장관(書狀官)에 충원 되었다가 돌아와서 이조좌랑(吏曹左郎)에 제수되었으나 공은 연산군의 난정(亂政)을 보고 벼슬에 뜻(樂)을 두지 않았다.

대사간공(大司諫公)이 도(道)를 바로 하려다가 용궁으로 귀양가서 성주(星州)로 옮길 때 공은 소읍 성주로 나갔다가 정덕 병인년(1506)에 정국(靖國)이 되자 대간공(大諫公)이 조정에 돌아오자 공 또한 양천(陽川) 군수가 되었으나 사론

不宜外授弘文館修撰故不赴

庚午冬丁大諫公憂廬墓癸酉陞副敎理應敎司諫甲戌丁大夫人憂丙子拜應敎陞典翰直提學丁丑陞副提學遷承政院右副承旨戊寅辨誣時任重無可使者銓曹請輟侍臣薦公爲副使

上優恩加秩牢讓不許及入京進奏果大稱賞卽奉俞勅回超拜漢城府判尹兼知經筵事賜土田臧獲三月遷刑曹判書兼五衛都摠府都摠管未幾拜議政府右參贊兼知春秋館事

己卯禍公雖與趙靜菴一體以持論和平止坐廢於是退居陰城陰崖之號始此

(士論)이 공은 밖(외직)에 있는 것은 마땅치 않고 가까이(내직)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홍문관 수찬(修撰)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경오년(1510)에 대간공(大諫公)의 상을 당하여 여묘하였고 계유년(1513)에 부부교리로 승차하였고, 응교, 사간원 사간이 되었으며 갑술년에 대부인의 상을 당하였으며, 병자년에 응교를 배수하고 전한으로 승차하였고 직제학(直提學)이 되었다. 정축년(1517)에 부제학으로 승차하였고 승정원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옮겼으며 무인년(1516)에 변무(辨誣)할 때 임무가 무거웠으나 사신이 될 사람이 마땅히 없었을 때 전조(銓曹): 이조)에서 대기하고 있던 신하를 물리기를 청하여 공을 천거하여 부사(副使)를 삼도록 하였다.

상께서는 특별히 직위를 높히려 하자 궂이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국에 들어가 진의(秦意)를 올려 크게 칭찬을 듣고 즉시 칙서를 받들고 돌아와 위계를 뛰어 넘어 한성부 판윤(判尹) 겸 지경연사에 제수되었으며, 전토와 노비를 하사 받았다. 3월에 형조판서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으로 옮겨 얼마 있다가 의정부 우참찬 겸 춘추관사를 제수받았다.

기묘사화 때에 공이 비록 조정암과 더불어 일체(一體)가 되었으나 지론(持論)이 화평하여 지위를 폐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하여 음성으로 퇴거하여 호를 음애(陰崖)라 하고 이때부터 쓰게 되었다.

己丑移卜忠州瀨川
 上游之兔溪盖益自
 晦而愛其山水也與
 灘叟李公延慶居近
 榜舫來往樂以斯道
 故今書院配以灘叟
 公卒於癸巳十二月
 十五日春秋五十四
 葬大諫公墓下其後
 萬曆丁丑副提學柳
 希春 啓以公忠直
 之行泯滅無聞誠可
 痛惜請賜易名以勵
 將來 上允之 贈
 議政府左贊成兼判
 義禁府事 世子貳
 師知 經筵春秋館
 成均館事弘文館大
 提學藝文館大提學
 諡文懿公庚寅錄光
 國從勳

噫小子雖不敢形容
 其氣像十四歲欲上
 萬言書而大諫公戒
 止則可見其慨然斯
 世之志矣當諸賢激
 揚之曰與趙靜菴同
 心調鎖而不果則可
 見其先幾慮患之深

기축년(1529)에 충주의 달천으로 이사하여 달천의 상류 토계에 삼았다. 대개 그 자취를 감추고 산수를 벗하면서 탄수(灘叟) 이공(李公) 정경(廷慶)이 사는 곳이 멀지않아 조각배 편으로 왕래하면서 고금의 사도(斯道)를 낙으로 삼았으며 이탄수를 서원에 배향 하였다.

공은 계사년(1533) 10월 15일 춘추 54세에 졸하여 대사간공 묘 아래에 장사를 지냈다. 그후 만력 정축년(1577)에 부제학 유희춘(柳希春)이 공의 충직지행(忠直之行)이 세상에 잊어져 알 수 없게 되는것이 참으로 애석하니 장래를 장려하여 주기를 청하니 상께서 윤희 하시고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세자이사지 경연춘추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에 추증하고 문의공(文懿公)으로 시호를 내리시고 경인년(1590) 광국원종공신으로 록공하였다.

오호라 소자가 비록 그 기상을 감히 형용하지 못하나 14세에 만언서를 지어 상에게 바치려 하였으나 대간공이 경계하여 그쳤으니 개연한 사세(斯世)의 뜻을 알 것이다. 제현(諸賢)들이 격양(激揚)하는 날을 당하여 조정암과 같은 마음으로 조정하고 진압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은즉 그 기미가 나타나기 전에 환란을 염려하는 지혜가 깊고 수업(授業)하는 자들이 진동(陳東)

矣授業者至廢陳東
紀則痛惜士流之心
切矣

逍遙水石詩酒自適
則處隄不悶之操高
矣其醇正之學經濟
之才屈於讒邪文集
與秘錄以兵火不傳
尤可痛哉

公初聘宜寧南氏無
后再聘仁川蔡氏都
憲壽女生一男三女
男曰諱秋早世有子
諱培亦夭女長適李
孝伯次適朴應星次
適宗室鳳陵副守萬
年

季父諱裕後娶李氏
禮賓寺正士修之女
廣州人生二男二女
長曰海安次曰海寬
皆娶名家始學而未
仕女適徐文博縣曰
龍仁里曰器谷山曰
無鳳從大諫公以下
皆葬

族孫議政府舍人
海昌 撰

의 사적(紀) 위기를 폐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사류(士流)를 아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수석과 소요하고 시주(詩酒)로 자적(自適)하였
을 즉 위태함에 처하여도 초조하지 않았음은
그 지조가 높았음이라. 그 순수하고 바른 학문
과 경제(經濟)의 재질은 참조하는 무리에 의하
여 굴절되고 말았다. 그의 문집과 비록(秘錄)은
병화로 인하여 전하지 못하니 더욱 애통스럽기
만 하다.

공의 초배(初配)는 의령남씨였으나 후사가 없
었고 계배 인천채씨는 도헌(都憲) 수(壽)의 따
님으로 1남 3녀를 두었으니 휘(諱) 추(秋)는 조
졸하였고 그의 아들 휘 배(培)도 역시 일찍 세
상을 떴다.

장녀는 이효백(李孝伯)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박응성(朴應星)에게 다음은 종실(宗室) 봉릉부
수(鳳陵副守) 이만년(李萬年)에게 출가 하였다.

계부(季父) 휘 유후(裕後)는 예빈시정(禮賓寺
正) 사수(士修)의 따님인 광주이씨를 취하여 2
남 2녀를 두었다. 장남은 해안(海安)이며 차남
은 해관(海寬)이니 모두 명가에 장가 들었고
학문은 있었으며 벼슬하지 않았다. 딸은 서문
박(徐文博)에게 출가 하였다.

현은 용인이요 마을은 기곡이요 산은 무봉(無
鳳)이니 대간공 산소 아래에 모두 장례를 모셨
다.

족손 의정부사인 해창 짓다.

이 재 (李 緯) 墓碣

陶菴李先生棄後學
八十有八年墓道尙
闕顯刻曾孫光文光
正以門人朴文獻公
聖源之狀授熙常使
序次先生始終大略
載之貞石

竊念此當日先輩長
德之所慎重未遑者
矧懵識如熙常曷敢
窺測大君子盛德大
業而妄有稱述哉猥
僭是懼既屢辭而卒
不獲則謹按狀曰

先生諱緯字熙卿其
先牛峰人 高麗侍
中公靖之後世厥名
顯曾祖諱有謙起布
衣直拜縣宰卒官戶
曹參議祖諱翻右議
政忠憲公忠蓋正直
爲時名臣考諱晚昌
進士 贈吏曹判書
賢而早世

도암(陶菴) 이선생께서 후학(後學)을 두고 타계
하신지가 팔십팔년이 되었으나 이제까지 묘도
(墓道)에 현각(顯刻:비에 새긴 글)이 비어 있어
중손 광문(光文)과 광정(光正)이 선생의 문인(門
人)인 문헌공(文獻公) 박성원(朴聖源)이 지은 행
장(行狀)을 나(熙常)에게 주고 서차(序次)와 선
생의 시종(始終) 대략(大略)을 쓴 돌(貞石)에
기재코자 하매

절념(竊念:저 홀로 가만히 여러모로 생각함)하
여 보니 이는 당일(當日) 선배(先輩)와 덕이 크
신 어른들(長德)이 신중(慎重)히 하여 서두르지
않은것을 하물며 회상과 같이 흐리멍텅한 식견
으로 어찌 감히 대 군자의 성덕(盛德)과 대업
(大業)을 넘보고 헤아려 망녕되이 저울질하고
글을 지을 수 있겠는가? 외람되며 참람하고 두
려워하여 이미 여러번 사양 하였으나 마침내 허
락되지 않았은 즉 삼가 행장(行狀)을 살펴보니
이러하다.

선생의 휘(諱)는 재(緯)요 자(字)는 희경(熙卿)이
니 그 선대는 우봉인(牛峰人)으로 고려(高麗) 시
중(侍中) 공정(公靖)이며 그후 세간에 그 이름이
들어난 분으로는 증조부 휘 유겸(有謙)이 있으
니 포의(布衣)로 일어나 현재(縣宰:현령이나 현
감, 수령)에 곧바로 임명되어 호조참의(戶曹參
議)에 올랐으며, 조부 휘(諱) 숙(翻)은 우의정(左
議政) 충헌공(忠憲公)으로 충성을 다하였고 정
직한 명신(名臣)이었다. 부친의 휘(諱)는 만창
(晩昌)이며 진사(進士)로서 이조판서(吏曹判書)
에 증직 되었는데 어진이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
났다.

妣閔氏驪陽府院君
維重之女同春宋先
生浚吉外孫襲美內
外壺範純備以 肅
宗庚申九月二十八
日生在身閔夫人夢
月入手中光彩滿室

五歲而孤仲父忠肅
公教課甚勤內則閔
夫人導迪又嚴嘗臨
機以織縷之積累成
疋戒學不可間斷

先生佩服弗失藝業
夙就未弱冠連魁大
小發解壬午擢謁聖
文科補槐院薦入史
局序陞至奉教兼侍
講院說書轉典牲署
主簿兵曹正郎

丁亥中重試自是歷
敷清華春坊則司書
文學弼善輔德臺省
則正言獻納司諫執
義論思則修撰校理
應教問拜掌樂院正
常兼校書館校理四

모친은 민씨(閔氏)로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유중(維重)의 따님이며,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의 외손이 되는데 친가나 외가로 부터 아름다운 법도를 이어받아 순결한 규수의 범절을 모두 갖추었다. 선생은 숙종 경신(1680)년 9월 28일 출생하였는데 태중에 있을 때 민부인은 달(月)이 품안에 들어와 광채가 방안에 가득한 태몽을 꾸었다.

5세때 부친을 잃고 중부이신 충숙공(忠肅公)에게서 교육을 받아 과업에 심히 근면하였고 안으로는 민부인의 엄한 훈도(訓導)를 따랐다. 일찌기 벼틀에 임하여 실을 자아 한 필을 방적하시고 경계 하시기를 배움도 간간히 중단한다면 이를 수 없다고 하시었다.

선생은 이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예업(藝業)의 시기를 잃지 않고 성취하여 약관에 대(大), 소(小) 과시(科試)에 연달아 장원 하였으며, 임오년(1702)에 알성문과에 발탁되어 궐원에 보임됐으며 천거받아 사국(史局:藝文館)에 들어가 차례로 승차하여 봉교(奉教)겸 시장원(侍講院) 설서(說書)에 이르렀다가 전생서 주부(主簿)로 옮긴 후 병조정랑이 되었다가

정해년(1707) 중에 중시(重試)를 거쳐 이로 부터 문장이 조출하고 화려함(清華)에 빛을 받아 춘방(春坊)에서 사서(司書), 문학(文學), 필선(弼善), 보덕(輔德)을 역임 하였고, 대성(臺省)에서는 정언(正言), 헌납(獻納), 사간(司諫), 집의(執義)를, 론사(論思)에서는 수찬(修撰), 교리(校理), 응교(應教)를 지내는 동안 장악원(掌樂院) 정상(正常) 겸 교서관(校書館), 교리(校理), 사학(四學),

學漢學教授爲卽吏
曹秉銓筆 賜暇讀
書湖堂嘗持斧關西
評事關北

壬辰進秩通政爲水
原府使旋棄歸拜刑
戶禮三曹參議成均
館大司成承政院同
副承旨弘文館副提
學承文院副提學己
亥進嘉善刑曹參判
漢城府右尹兼管備
邊司爲均田使於嶺
南陳情懇辭竟被削
黜

庚子 肅宗昇遐 景
宗嗣位叙拜禮曹參
判江華府留守咸鏡
道觀察使俱不赴差
山陵都監提調董治
方中以勞加嘉義連
拜都承旨大司憲吏
曹參判實錄都廳堂
上

壬寅以玉署長坐不
參庭請削黜 英宗
初元首被除 命周

한학교수(漢學教授)로 이조(吏曹)에서 전필(銓筆)을 잡게 되었고 사가독서(賜暇讀書) 하였으며 호당(湖堂)에 들었다가 일찌기 지부(持斧)가 되어 관서(關西)로 나갔다가 관북평사(關北評事)가 되었다.

임진년(1712)에 통정(通政)의 위계로 올라 수원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가 돌아와서 벼슬을 버리고 귀향 하였다가 형(刑), 호(戶), 예(禮), 삼조(三司)의 참의(參議)에 제배 되었다가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 홍문관(弘文館) 부제학, 승문원(承文院) 부제(副提)가 되었다가 들어나서 기해년(1719) 가선대부의 위계에 올라 형조참판, 한성부(漢城府) 우윤(右尹) 겸 비변사(備邊司)를 관할 하였으며 영남(嶺南)의 균전사(均田使)가 되었는데 진정(陳情)으로 간곡히 벼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으나 삭출(削黜) 당하였다.

경자년(1720)에 숙종이 승하 하시고 경종(景宗)이 뒤를 잇자 서용되어 예조참판(禮曹參判),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 함경도 관찰사에 제배 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가 산릉(山陵: 王陵)의 도감(都監) 제조(提調)로 선임되어 다스리고 감독하던 중 이의 노고(勞苦)로 가의대부(嘉義大夫)로 가자(加資)되어 연달아 도승지(都承旨), 대사헌(大司憲), 이조참판(吏曹參判), 실록도청(實錄都廳), 당상(堂上)에 제배 되었다.

임인년(1722) 옥서장(玉署長: 弘文館大提學)으로서 정청(庭請)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서 삭출(削黜)되었다가 영종(英宗) 초에 제일 첫 머리에

流舊踐薦授弘文藝
文兩館大提學知成
均同知經筵事戶工
二曹參判藝文提學
元子輔養官 世子
賓客

己未進資憲判尹工
曹判書議政府左右
參贊此先生之官闕
也先生早歲蜚英而
雅不屑進取其以評
事在北也閔夫人盡
室出花田舊業先生
反面曰胡不待子歸
乎閔夫人笑曰知汝
必無他意

翌年庚申授 皇朝
陳茂烈故事陳疏乞
終養除官輒辭或迫
而後就未嘗久淹而
有當言侃侃乎其言
之也泊辭均田之命
荐承威譴而弓劍遽
邈自以衷情莫暴彌
堅決退之思惟一出
而祇役山陵

피명(被命) 제배(除拜)되었고 주유구천(周流舊踐: 벼슬 자리를 널리 두루 역임함)하였고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양관(兩館)의 대제학(大提學)에 천거되었으며 지(知) 성균(成均) 지경연사(知經筵事), 호(戶) 공(公) 2조(二曹) 참판(參判), 예문관(藝文館) 제학(提學),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 세자(世子) 빈객(賓客)이 되었고

기미년(1739) 자헌대부(資憲大夫)로 판윤(判尹), 공조판서(工曹判書), 의정부 좌·우(左·右) 참찬(參贊)을 지냈으니 이것이 선생의 경력(官閥)이다. 선생은 어려서 부터 영특하고 단아 하였으나 진취(進取)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가 북쪽의 평사(評事)로 있을 때에 민부인(閔夫人)이 집을 정리하고 화전(花田)으로 나아가 구가로 돌아가자 선생이 돌아와 묻기를 「어찌 소자를 기다리지 않고 돌아오셨습니까?」 하자 민부인이 웃으면서 「너에게 필시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익년 경신년(1740)에는 명나라(皇朝) 진무열(陳茂烈)의 고사(故事)를 본 받아 소(疏)를 올려 종신토록 모친을 부양코자 여러번 관직을 사퇴 하였으며, 혹 압력으로 벼슬을 한다 하더라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강직하게 필요한 말을 하였다. 균전(均田)의 명(命)을 사임함에 이르러서는 잇달아 위협적인 질책이 있었으나 궁검이 급히 멀어지매(弓劍遽邈: 숙종임금의 붕어를 지칭함) 스스로 충정(衷情)이 두루 미치지 못하였나 하여 물러날 것을 굳게 결심하였고 오직 한번 나아가 산릉(山陵)의 역사(役事)에 힘썼다.

時 景廟有疾無嗣
大臣金忠獻公昌集
等四人與諸卿宰建
白于 上奉 慈聖旨
策 英廟爲世弟忠
肅公實協贊之

辛丑冬 命世弟代
理凶黨脅持沮撓禍
機日急大臣率百僚
庭請收還先生獨不
參曰吾王苟無疾而
有螽斯之望固無事
乎預建既明知有疾
而參決有命但當奉
承何事強爲爭執儕
友多怵以禍福而不
動也

未幾誣獄起忠肅公
瘐卒先生斂葬以禮
遂入麟蹄峽中益肆
力經傳日有課程

乙巳羣凶屏黜陽復
有兆疏暴忠肅公冤
誣始還花田連降別
諭曰君臣之間豈可
一不相面乃上疏累
千言以雪 君誣討

때에 경종(景宗)께서 질환이 있었으며, 후사(後嗣)가 없었음으로 대신(大臣) 충헌공(忠憲公) 김창집(金昌集) 등 4인이 3공6경(三公六卿)과 더불어 임금께 건의 드리고 자성(慈聖: 대왕대비)의 지책(旨策)을 받들어 영묘(영조)를 세제(世弟)로 세웠으며, 충숙공(忠肅公: 李晩成)도 이일에 적극 협찬하였다.

신축년 겨울 세제(世弟)로 하여금 임금을 대리 하라는 명(命)이 있자 흉당(凶黨)이 위협하고 저지 교란을 획책하여 화(禍)의 기미가 일로 급하게 되자 대신(大臣)이 백료(百僚)를 인솔하고 정청(庭請)을 열고 말하기를 「진실로 나의 임금이 병이 없으면 종사지망(螽斯之望)이 있어 진실로 미리 세울 일이 없겠지만 이미 질병이 있음을 알았고 명에 따라 참결(參決)이 있었으면 다만 받들어 나갈 것이지 무엇 때문에 무리를 지어 쟁론을 일삼는가?」 하니 많은 벗들이 화복(禍福)이 있을까 두려워 하였으나 흔들리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아 무옥(誣獄: 신임사화)이 일어나 충숙공(忠肅公: 晩成)이 예졸(瘐卒)하매 선생이 렴(斂)하여 장사하고 예를 따라 인제(麟蹄)의 산협 가운데 들어가 더욱 힘써 학문을 궁구하는데 매일 과정을 이었다.

을사년 흉당의 무리가 아울러 축출되어 양기가 회복되자 충숙공이 무함으로 억울하게 죽임 당한것을 상소하고 화전(花田)으로 귀환하니 연이어 왕의 특별 유시(諭示)가 내려와 이에 이르기 를 「군신(君臣)간에 어찌 한번 상면(相面)하지 못한단 말인가」 하였으나 이에 누천언(累千言)

國賊爲第一義且條
陳初政闕遺溫批勉
出趨

國練出謝入侍晝講
極論天德王道要皆
責難於上反復剴切
上虛心傾聽以纂修
實錄諄諄勸留申暴
難進之義翌日遂歸
及再典文衡會上號
東廟召旨截嚴而先
生不復起矣

戊申奔問逆亂退寓
驪州丁閔夫人憂反
窆龍仁寒泉之先壟
仍爲畢命之所

服闋大臣儒臣下至
韋布交章請召乙卯
特受輔養官敦迫驟
至人皆勸出而終不
承膺曰 元子年齡
稍長始可論輔導之
職今誕生纔踰百日

무함받은 것을 씻어주고 임금을 속인 국적의 처벌을 제일의(一義)로 할 것을 상소하였으며 또한 조항별로 초정(初政)에 결여된 것을 고하자 부드러운 비답이 내려져 벼슬길에 나오도록 권면하였다.

국련(國練: 국상)이 있자 나아가 고종(告終)하고 입시(入侍) 진강하여 천덕(天德)과 왕도(王道)의 논리를 사퇴면서 모든 책난(責難)의 요체는 모두 성상에게 있음을 아주 알맞고 적절하게 반복하자 상께서 허심(虛心)하게 경청하시고 실록을 닦아 편찬하도록 순순히 권하여 머무르도록 하였으나 나아가기 어려운 뜻(難進之義)을 밝힌 후 다음날 귀향하였는데 다시 문형(文衡: 大提學)을 내리시고 이에서 모두어 동궁(東朝: 東宮)의 호를 올리라는 소지(召旨)가 있었으나 선생은 엄히 끊어버리고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무신년(1728) 역란(이인좌의 난)이 있자 임금에게 달려가 문후를 드리고 퇴거하여 여주에 우거 하였는데 민부인(閔夫人: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용인의 한천(寒泉: 지금의 이동면 천리) 선영으로 이장하고 이에서 일생을 마치는 곳으로 하였다.

상기(喪期)를 마치자 대신으로 부터 아래로 유신(儒臣)에 이르기 까지 위포(韋布: 가죽과 천)의 글을 서로 올려 불러 들이기를 청하자 을묘년(1735) 세자 보양관(輔養官)에 제수한다는 특지가 설새없이 졸지에 이르렀음에 사람들이 모두 나아가기를 권하였으나 종래는 이에 불응하여 말하기를 「원자(元子)의 보령이 조금 많아지면

正擇阿保之時惡可
只因慶賀而進身乎

每歎分義二字壞却
天下名節有所不可
確乎自守雖積忤上
下不恤也

時 上深懲黨伐之
禍而秉國成者以篤
平之說中 上意欲
混忠逆而並進先生
與一二善類嚴卞痛
斥翕然爲清議宗主
世道賴之此先生之
出處也

先生爲人清粹英睿
氣貌明潤如良玉不
由師傅自然近道蚤
謝簪紱慨然有藏修
之志迨定居泉上
知天責有歸以興起
斯文爲己任存誠求
仁乾乾終日廩廩上
達乎至德凝道

보도(輔導)의 직책을 논하는 것이 가하겠지만
이제 탄생하신지 겨우 백일이 넘었음에 바르게
가려 보육할 때이며 다만 경하드릴 일인데 이
로 인하여 어찌 나아가 벼슬을 한다는 말인가」 하고

매번 탄식하면서 명분과 의리 두 글자가 무너져
내린다면 천하에 이름과 절의(名節)를 밝힌다는
것은 불가 하지 않겠는가 하고 비록 두려움이
쌓이고 상하가 돕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지켰다.

당시에 임금께서 당쟁으로 인한 화(禍)를 심히
경계하다 나라를 이루는 것과 아울러 탕평책(蕩
平策)을 내놓으시니 그 중에는 임금의 뜻을 흐
려서 충역(忠逆)이 병진하게 되자 선생께서는
한 두 선류(善類)와 더불어 엄변통척(嚴卞痛斥)
하니 청의(淸義)가 모여 들게 됨에 그 종주(宗
主)가 되었고 세도(世道: 세론)가 그를 따랐으니
이것이 선생의 출처이다.

선생은 사람됨이 청수(淸粹: 영특)하고 슬기로
웠으며 모양이 밝고 윤택하기가 다듬은 옥(玉)
과 같았다. 스승으로 부터 전수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학문에 이르렀고 일찌기 벼슬(簪紱: 고
관의 지위)을 사양하고 개연히 학문 연구에 뜻
을 두어 샘물 가까운 곳(한천)에 거처를 정하
고 천책(天責)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사문을
이르켜 세우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하니 성심
으로 인(仁)을 구하여 종일을 부지런히 하고
느림함은 위로 최상의 덕(至德)에 달하고 도
(道)에 이르렀다.

嘗謂學問必本諸窮理潛心玩索淹貫六籍而聰悟絕倫不費力探眞見獨詣洞性命而窮造化然病世儒之虛矯務歸反躬實踐敬畏罔間於幽顯

義利必察於毫忽而最所服膺乃在小學一書及夫眞積之久博約並臻理事圓融則渣滓淨盡光輝日新望之如一團春和而卽之莊栗簡重觀德者莫不心醉

嘗愛誦李文成公一毫不及聖人吾事未了之語曰栗谷我師也

盖厥明通灑落之韻自有默契焉者其接引後生韶音朗識善開發人隨才高下各

일찌기 말하기를 학문은 반드시 궁리가 근본이 되니 마음을 가라 앉히고 글의 깊은 뜻을 생각하여 찾을 것이라 하였는데 6적(六籍:6경)을 꿰뚫어 총명과 깨달음이 절륜하여 진리를 탐구하는데 힘을 소비하지 않고 보는 바가 진실하고 예지가 독특하여 만물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천부의 성질(性命)에 두루 통하였음은 이의 조화를 궁구한 때문이다. 그러나 세간에 병들어가는 유림들의 본분으로 되돌아 오게 하는데 힘쓰면서 경외(敬畏) 사상을 몸소 실천하여 드러내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 간에 차별이 없이 하였다.

그리고 의(義)와 이(利)는 아무리 작은것 일지라도 반드시 살폈으며 소학 일서(一書)를 가장 그의 마음속에 품어 무릇 참된것을 오래도록 쌓아 올림에 학문을 널리 알고 예절을 존중하게 되었고 아울러 모든 이치와 사리에 거침이 없이 융통하였은 즉 침전된 것을 모두 맑게 정화되고 광휘가 일신되니 바라보면 일단의 춘화지기(春和之氣)와 같고 가까이 하면 단정 공존하고 간중(簡重)하여 그를 면대하여 덕을 보고 심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일찌기 애송하여 말하기를 이 문성공이 털끝 만큼이라도 성인(聖人)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의 일을 마치지 못한다는 말에 왈 울곡은 나의 스승이라 하였다.

대개 그 밝음은 기분이 상쾌하고 시원한 운치(灑落之韻)을 통하고 스스로 말없는 가운데 뜻이 통하는 바 있으니 그를 접한 후생들을 아름다운 음성과 랑식(朗識)으로 이끌어 내고 선량

有進益八方聞風攜衣而至者恒填門溢宇

講授節度壹遵朱門讀書次第周而復始而朝誦小學以涵濡之夕諷詩經以宣暢之

又有都講別講遍及遠近書院皆有講規或躬蒞三席間行鄉飲禮以至鄉塾亦取爲法家絃戶誦幾乎變一世爲鄒魯

床箒沈淹言語艱澁猶手授指劃教誨不輟曰一息未泯此志不容少懈其倡率鼓舞如旅得歸在古亦罕有也其見諸日用則至孝根天痛早失怙事母夫人深愛著乎志養逮居

하게 개발하니 사람들이 따랐으며 재원의 고하에 따라 각기 나아가게 하니 날로 팔방에서 명성을 듣고 옷의 뒷자락을 걷어 올리고(攜衣: 옛날의 경례법) 이르는 자가 항상 문에 줄을 서고 집에 넘쳤다.

강론은 절도있게 주자의 학문을 따라 독서하는 것을 첫째로 하고 다음은 두루 반복하여 익히게 하였으며 아침에는 소학(小學)을 읽어서 젖어들게 하였고 저녁에는 시경(詩經)을 외워서 선창(宣暢: 베풀어서 사무치게 함) 토록 하였다.

또한 도강(都講: 통합 강의)과 별강(別講: 개별 강의)을 두루 펼치니 원근의 서원에서 모두 이의 강규(강의방식)를 따랐으며 삼석(三席: 아침, 점심, 저녁)간에 몸소 임하여 향음례(鄉飲禮)를 행하게 하니 이것이 향숙(향리의 서당)에 까지 이르러 역시 규범으로 취하게 되었고 가가호호에서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조리는 소리(家絃戶誦: 絃誦之聲)가 그치지 않으니 일세(一世)가 변하여 추노지향(鄒魯之鄉)이 되었고

상책(床箒: 서재, 즉 연구)에 깊이 잠기어 언어를 이해하기 곤란하고 힘든 것이 있으면 이에 손수 지적하여 새겨주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시면서 말하기를 「한번이라도 그치는데 빠져들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조그마한 게으름도 용납치 말라는 뜻이며 창술(倡率)하고 고무 시키는 것이 마치 여행자가 자기의 옛 처소를 돌아가는 것과 같이 익숙하게 하였으니 역시 드물게 있는 일이다.

선생의 일상 생활을 본 즉 효심이 사무쳐서 일

憂茹蔬泣血斬斬盡
禮不以衰暮自惰喪
畢猶日上瑩域環繞
哀省而季年不能行
步每肩輿至屋後小
阜望墓俯伏名曰瞻
敬臺

自奉簡素寒不襲喪
饌不重豆所處草堂
窄陋難容而晏如也
先生患風痺多年丙
寅家人爲便醫藥請
還花田乃作書別近
鄉知舊發行至廣州
疾甚卒于樂生村舍
十月二十八日也引
還寒泉舊堂

訃聞 上下哀綸賜
賻有加太學及諸路
祠院皆操文致酌越
三月戊子用治命葬
于判書公墓前丑坐
原加麻者數百人會
葬觀禮者以千數

찌기 부친을 여윈것을 통한히 여기고 모부인
을 의지하고 섬기는데 있어서는 사랑함이 깊
어서 집에 머물러 거하면서 뜻을 받들어 부양
하였다.

모친의 상을 당하여서는 소식을 하였고 피눈물
로 흘려 모든 예절을 다하였으며 나이들어 몸이
쇠약하여졌다 하여 게을리 하지 않고 기를 마쳤
음에도 오히려 매일 일찍 묘역에 이르러 띠를
두르고 슬픔에 젖어 성묘하였으며 노년에는 행
보가 어려워지자 부액을 받아 집 뒤의 조그마한
언덕에 이르러 묘를 바라보고 부복하였으므로
이곳을 일러 침경대(瞻敬臺)라 하였다.

스스로 간소한 생활을 하며 춥더라도 옷을 덧입
지 아니하였고 상중에는 찬을 중복(두가지)되지
않게 하였으며 그가 거처하는 초당이 좁고 누;
추하고 불편하였으나 태연하고 침착하였다.

선생은 다년간 풍비(風痺: 수족의 장애가 있는
질환)에 시달리다가 병인년(1746) 집안 사람들
이 의약을 쓰기에 편리하도록 화전(花田)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자 이에 선생은 전별하는 글을
써서 근동의 옛 친우에게 보냈다. 발생(發行)하
여 광주에 이르자 병이 심하여 락생촌사에서 즐
하시니 10월 28일이었으며, 한천의 옛집으로 운
구하여 되돌아왔다.

부음을 듣고 상께서는 운음을 내리시고 부의를
내리셨고 태학(太學)과 모든 사원에서 조문을
짓고 술잔을 따라 애도 하였다.

3월이 지난 무자일 치명으로 판서공(判書公: 晚
昌)의 묘앞 축좌원(丑坐原)에 장사지내니 상복
을 입은자가 수백인이요 장례에 참석(會葬)하여
예를 갖춘자가 수천이었다.

先生於文章少負華聞而閒居後雖不喜著述藹然仁義之言折之於至理文集五十卷行于世

會粹前言嘉惠來學則有語類抄節近思尋源五先生徽言檢身錄四禮便覽宙衡書社論誦且有門人所紀講說及語錄藏於家

英廟乙未 正考代聽庶務特令不待狀賜諡曰文正 堂宇二年京外章甫請就書社爲院 上許之宣額曰寒泉

先生元配我高祖考忠貞公諱斗寅女不育繼配南陽洪氏僉正禹賢女並祔葬男濟遠大司諫女適參奉俞彦欽大諫五男木禾牧使耒參奉出戶忠肅公祀來教官采蔭參判

선생의 문장은 소시적에는 화려하다는 말을 들었고 헌거(閒居)한 후에는 비록 저술을 즐겨하지 않았지만 인의(仁義)를 이르는 말은 왕성하여 이에 이르름(至理)에 알맞아서 문집 50권이 세상에 전한다.

옛 글(말씀)을 뽑아 모아 후학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는 것으로는 어류초절(語類抄節), 근사심원(近思尋源), 오선생회언(五先生徽言), 검신록(檢身錄), 사례편람(四禮便覽), 주형(出衡), 서사론송(書社論誦)이 있고 또 문인들이 기록한 바의 강설(講說)과 어록(語錄)이 그의 가문에 비장되어 있다.

영묘 을미(1759) 정조께서 대리로 서무를 처리할 때 특령(特令)으로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않고 시호를 내리기를 문정공(文正公)이라 하였다. 순조 2년(1802) 한양과 지방의 유림들이 서사(書社)를 원(院)으로 하여 달라는 청원이 있자 상께서 허락하시고 한천서원(寒泉書院)이라 사액(賜額) 하시었다.

선생의 원배(元配)는 나의 고조고(高祖考) 충정공(忠貞公) 두인(斗寅)의 따님으로 출산치 못하였고 계배(繼配) 남양홍씨는 첨정(僉正) 우현(禹賢)의 따님으로 함께 부장(祔葬)되어 있다.

남 제원(濟遠)은 대사간이며, 딸은 참봉 유언흙(俞彦欽)에게 출가 하였다. 대간(濟遠)은 5남을 두었는데 목(木), 화(禾)는 목사(牧使)요 퇴(耒)는 참봉으로 출호(出戶)하여 충숙공의 향사를 받든다. 래(來)는 교관(敎官)이며 채(采)는 음사로 참판이다.

長房無子取光憲爲
嗣參判二房子光憲
出后系子光正前參
判三房系子光裕生
員以孝 贈持平四
房子光承今府使
五房子光文原任吏
曹判書光正出后側
出光始光世玄孫以
下多不盡書

竊嘗論之儒者事有
三焉進退之正也發
揮之精倡明之弘三
者備然後始可與於
成德之大賢矣

我先生雖卷懷邱壑
惓惓乎宗國之憂仕
止語默係時汗隆而
義理寢晦倫綱不立
則寧沒身自靖而无
悔閩洛既遠微言易
喪理氣心性紛爲聚
訟迺研究本原指示
眞諦折羣滄而開衆
惑矣

장방(長房)은 자식이 없어 광헌(光憲)으로 하여금 사자(嗣者)로 하였는데 참판이다. 이방(二房)의 아들 광헌(光憲)은 출후(出后)하였고 계자(系子) 광정(光正)은 전 참판(參判)이며 삼방(三房) 계자(系子) 광유(光裕)는 생원으로서 효행으로 지평(持平)에 증직되었고 4방(四房) 계자(系子) 광승(光承)은 지금 부사(府使)의 직위에 있고 5방(五房)의 아들 광문(光文)은 원임(原任) 이조판서(吏曹判書)요 광정(光正)은 출후(出后)하였다. 측실에서는 광시(光始)와 광세(光世)를 낳았는데 현손(玄孫)이하는 많아서 다 기재하지 않는다.

감히 논하건데 유자(儒者)가 지켜야 할 세가지 일이 있으니 진퇴는 정확하게 발휘(發揮)는 성실하게 창명(倡明)은 크게 할 것이니 이 세가지의 것을 갖춘 연후에야 가히 성덕대현에 가까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의 선생은 비록 구학(邱壑: 언덕 아래 즉 시골의 뜻)에서 재주를 숨기고 살았으며 나라 일을 근심 하는데에 있어서는 권권(惓惓: 부지런한 모양)하였고 벼슬을 하거나 그치거나 말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시류의 한용(汗隆)에 관계되었지만 의리가 침회(寢晦)되고 윤리와 강상이 서지 못한다면 차라리 몸을 잠기우고 스스로 안돈 할찌라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미 기묘한 말은 멀어지고 이기심성(理氣心性)은 훼손되어 분분하게 서로 시비를 하여 결론이 나지 않으니 본말과 근원을 연구하고 참된 도리를 깨달도록 지시하고 잡된 무리를 끊으며 무리의 의혹됨을 열어 주시었다.

於是尊揭師道廣開
爐講循循誘掖蔚然
斐興模楷盛於當時
功利及於無窮可謂
體用兼該衆善畢具
允矣命世儒宗

然則先生縱不得端
委廟朝克酬致澤之
初心而畢竟所成就
若是卓爾果孰使之
然哉昔張敬夫謂晦
翁夫子閒中究業殆
天意者庶乎其曠世
同符也嗚呼盛哉

崇禎四癸巳二月日
通政大夫吏曹參議
兼經筵官世子侍
講院贊善世孫傳
吳熙常謹撰前面
集韓濩字

이로써 사도를 높혔고 수련하는 길을 넓게 열어
인재의 배출을 순순히 이끌으니 울연히 모범이
되어 당시에 성하였고 공리(功利)는 무궁한데
까지 미치고 가위 체용(體用)을 겸비하고 증선
(衆善)을 모두 갖추니 명세(命世)의 유종(儒宗)
이었다.

비록 선생께서는 부득이 조정에 오래 머물어 보
수에 급급치 않았으며 처음에 택한 마음에 이르
러 필경 성취한 바가 이와 같으니 과연 누가 시
킨것인가?

옛날에 장경부(張敬夫)가 말하기를 회옹(晦翁:
주자)께서 한거한 중에 학문을 연구한 것은 하
늘 시킨것이다 하였으니 세상에 들어남은 이와
같은 것이다. 오호라 장하시도다.

승정4계사(1833) 2월 일 통정대부 이조참의 겸
경연관 세자 시강원 찬선 세손부 오희상 근찬
전면(비양)에 한호 글씨를 집자하다.

이주국(李柱國) 神道碑

崇政大夫行刑曹判
書李公神道碑銘并
書

當寧六年壬寅五月
上命御營大將李公
柱國射于春塘臺甚
稱公瞿鑠以梧栢二
字賜公爲堂扁

八月公以兵曹參判
入直省中 上手書
頗牧二字而題數行
文於其紙尾召公以
授之越五年丙午冬
送臣善復以訓將就
捕事多危疑

是日半夜 上特命
公代爲大將公感泣
出膺以鎮軍情自是
聖眷益隆久爲朝野
所倚重及卒訃聞
上震悼曰此將臣卽
予御極後首先擢授
戎垣之人也

氣像魁梧人品牢確
予嘗所倚仗而眷毗
者今聞長逝之報爲

송정대부 형조판서 이공 신도비명 병서

당저(지금의 왕) 임인 오월에 상께서 어영대장 이주국 공을 명하시어 춘당대(春塘臺)에서 활을 쏘게 하시고 공을 심히 칭찬하시며 오백(梧栢)이란 두 글자를 새겨 내리시니 (주국은) 이를 당편(당호의 편액)으로 하였다.

8월에 공이 병조참판으로서 성중에서 입직하니 상께서 “과목(頗牧)” 두 글자를 손수 쓰시고 그 종이 끝에 두어줄 글을 지시어 공에게 내렸다. 5년이 지난 병오년 겨울에 역신 선복(善復)이 훈련대장으로 포도청에 나가 있었는데 일이 매우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이 날 밤중에 상께서 특별히 공을 명하시어 (선복) 대신 대장을 삼으니 공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출응해서 군정을 진압하니, 이로부터 성상의 사랑이 더욱 높아 오래도록 조야가 의탁하고 중하게 여기는 바가 되었더니 (그가) 죽음에 있어서 부음이 상께 알려지매 너무 슬퍼 하시며 이르시기를 “이 장신(將臣)은 곧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발탁하여 등용한 용원(戎垣)이로다.

기상이 괴오(魁梧)하고 인품이 견실하니 내 일찌기 의지하던 바이거늘 이제 길이 가버렸다는 보고를 당하여 그를 위해 슬픔을 억제할 길 없

之傷盡今焉已矣何以更見嗚呼以將臣而厚被恩寵者從古何限而豈有如公之得此於 聖明者哉猗歟盛矣公字君彥定宗大王第十子德泉君諱厚生寔公十一世祖也

高祖諱尙敬以武都事陪 昭顯世子入瀋陽甚見嘉愛於孝廟逮夫登極優被恩遇官至統制使曾祖諱蕃 贈左承旨祖諱道明贈戶曹參判考諱涵 贈左參贊三世追典皆以公貴

妣 贈貞夫人綾城具氏 贈贊成尙禎女公以 肅廟庚子二月二十二日生于竹山文村庄舍

是夜參贊公夢黑龍蟠于樑上化爲駿馬立于軒中遂命小字曰駿得二歲而孤稍

노라, 이제는 모두 끝냈도다. 어찌 다시 볼 수 있으랴” 하시니, 슬프다. 장신으로서 이처럼 두터운 사랑을 입은 일이 옛부터 없었으니 어찌 공의 성명(聖明)을 얻을 것과 같음이 다시 있으랴! 가득하고 성하도다! 공의 자(字)는 군언(君彦)이니 정종대왕의 열째 아들 덕천군(德泉君) 후생(厚生)은 공의 11대 조(祖)이시다.

고조의 휘는 상경이니 무도사(武都事)로서 소현세자를 모시고 심양에 들어가 효묘(孝廟)로 부터 끔찍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등극함에 미처 은혜를 입어서 벼슬이 통제사에 이르렀으며, 증조의 휘는 번(蕃)이니 승지에 추증되었고, 조부의 휘는 도명이니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3대에 걸쳐 추증된 것은 모두 공이 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능성구씨로 정부인에 추증되었는데 찬성(贊成)으로 추증된 상정의 따님이다. 공이 숙묘 경자 3월 22일, 죽산 문촌장사(지금의 용인시 원삼면 문촌리)에서 출생하였다.

이날 밤 참찬공의 꿈에 흑룡이 대들보 위에 서리고 앉았다가 화하여 준마가 되어 난간 위에서 있었으므로 어렸을 때의 자를 준(駿)이라 하였다.

長事具夫人盡其誠
氣俊邁儼若大人先
輩已期以國器十四
歲丁具夫人憂哀戚
甚有足以感動傍人

公有選駕之氣既冠
從事武業庚申登增
廣科辛酉 除宣傳
官後遷訓練院主簿
都摠府都事經歷乙
丑除訓練判官陞副
正戊辰除咸陽府未
及赴日本通信使從
事官曹命采 啓請
公爲軍官俄而啓下
禁衛營卽廳公曰吾
以一卽官豈可避萬
里之役况浮海壯遊
亦男兒快事也遂入
日本濼齒之徒見公
威儀神彩爭相指點
而讐服己巳拜戶曹
佐郎除蔚珍縣監居
纔半歲政績甚著陞
訓練正辛未陞資爲
滿浦僉使移內禁將
旋拜宣川府使改築

두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점점 자람에 구부인을 모시는 정성이 지극하였다. 기상이 준수하고 고매하였으며, 위엄이 있어 대인, 선배들이 국가에 크게 쓰일 큰 그릇이 될 것임을 기대 하였다. 14세 때에 모친 구부인의 상의 당하여서는 너무나 슬퍼하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공은 높은 기상이 있어 이미 약관에 무업을 일삼았다. 경신년에 증광과에 급제하고 신유년에 선전관에 임명 되었는데, 후에 훈련원 주부로 옮겨졌다가 도총부 도사와 경력을 역임하고 을축년 훈련관관에 임명되었다.

조명채가 계청하여 공을 군관으로 삼았다가 얼마 앓되어 금위영 낭청이 되었다. 공이 이르되 “내 일개의 낭관(良官)으로서 어찌 만리의 역(役)을 피하겠는가?” 하고 마침내 일본에 들어가니 침치의 무리들이 공의 위와 신체를 보고 다투어 서로 지점(指點)하고 열복하였다.

기사년에 호조좌랑에 임명 되었다가 울진현감에 임명된지 겨우 반년만에 정치의 치적이 매우 훌륭하여 훈련원정에 올랐다.

신미년에 자급을 올려 만포첨사가 되었고, 다시 내금장으로 옮겨졌다. 선천부사에 임명 되어서 동림산성을 쌓아 중한 방어의 형세를 갖추었다.

東林山城以重控禦
之勢入爲訓練千摠
甲戌拜忠清水使繕
修戎器飭勵舟師綢
繆之謀甚勤

乙亥陞慶尙右兵使
周歲遞歸旋出爲安
岳郡守未幾因事上
京不復還官丁丑拜
會寧府使呈遞進階
拜喬桐水使回宰臣
外補才赴卽遞除御
營中軍都摠府副摠
管戊寅除禁軍別將
再赴喬桐遭子喪自
官次挈眷下鄉己卯
拜北兵使坐於評事
事罷歸監司

於公略有恚恨之端
乃以裨將濫騎聞于
朝坐謫龍仁庚辰春
宥還竹山楸下扁其
室曰退報日與村翁
野老對棊樽話桑麻
以自娛而已屢除御
營中軍禁軍別將皆
不就

조정에 들어와서는 훈련천총이 되었다. 갑술년
에는 충청도수사가 되어 주무하는데 지략을 매
우 근면하게 하였다.

을해년에 경상, 우병사로 승진 되었다가 그해에
교체되어 다시 안악군수가 되었고, 한해 남짓하
여 일이있어 돌아와서는 다시 벼슬에 나가지 않
았다. 정축년에 회령부사에 임명되어 부임도중
에 교체되어 계급이 올랐고 교동수사(喬洞水使)
에 임명되어서는 재신으로 밖의 인재를 보충하
였다.

교체되어 어영중군(御營中軍), 도총부 부총관(副
摠官)에 임명되고, 무인년에는 금군별장이 되었
다가 다시 교동으로 부임하였는데 임기중에 아
들의 상을 당하매 권속을 이끌고 관직을 떠나
하향하였다. 기묘년에 북병사에 임명되었다가
평사(評事)에 연좌되어 일을 마치자 감사로 돌
아왔다.

공에게 대략 한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는 비
장(裨將)이 기마병을 남발하였다는 보고가 조정
에 올라가서 용인에 위리 안치된 일이다. 경진
년 봄에 죽산에 돌아가 그의 집에 이르러서 조
정에서 물러났음을 알리고 매일 촌 늙은이들과
함께 장기나 두며 술을 마시고 전원에서 이야
기를 나누며 스스로를 즐길 따름이었다.

여러번 어영, 중군, 별장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壬午除禁衛中軍辭免不得遂入京五月以舉士大將奉永祐園廡衛役訖除副摠管十二月拜黃海兵使乙酉除副摠管丙戌除統制使凡其鍊士理材撫民祛瘼之道靡不留神致力尤

以三南船案之弊爲深憂乃狀啓條陳以請變通啓下籌司終不覆己丑拜平安兵使適有南塘築城之議而廷議咸欲土築公獨持石築之論甚堅上怒曰好容貌何固執也命削公職時相之嫉公者乃欲陰中提出統帥時狀聞事而奏之至勘以奪告身

公遂退居氷湖構小亭名以二可盖取滄浪清斯濁斯之義也九月遊金剛十月捲歸竹庄公身雖鞅常職務而心未嘗不在

임오년에 금위중군에 임명되었으나 부득이하여 서울에 들어 갔으며 5월에 거사대장으로서 영우원을 받들다가 역사가 끝남에 부총관에 임명되었으며 12월에 황해병사가 되었다.

을유년에 부총관에 임명되고, 병술년에 통제사에 임명되니 무릇 그 사졸을 훈련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백성을 위로하여 고질을 제거하는 등 일을 하느라 고향에 머물 시간이 없었다.

삼남의 배가 파손됨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곧 장계를 올려 변통할 것을 힘을 다하여 주청하니, 마침내 주사를 돌이키는 것을 마칠 수 있었다.

을축년에 평안병사가 되었는데 마침내 남당(南塘)에 성을 쌓는 논란이 벌어져 조정에서는 모두 흙으로 쌓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유독 공만이 석축의 논란을 펴서 견고하게 반격하므로 상이 노하여 말하시되, “용모는 좋은데 어찌 그리도 고집이 센고” 하시고 명하여 삭탈관직 하니, 때 마침 정승중에 공을 미워하는 자가 몰래 공을 좌천할 것을 제의하였다.

공은 마침내 물러나 빙호(氷湖)에 거하며 조그마한 집을 짓고 이가(二可)라 이름하니 대개 창랑의 청사탁사의 뜻을 취한 것이다.

9월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10월에 죽산장(竹庄: 지금의 문춘리 장사)로 돌아왔다.

공은 몸은 직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나 마음은 항상 고향에 가 있었다.

鄉社間嘗使善畫者
畫出陶靖節歸去來
辭而付着小屏坐臥
常玩公之雅趣槩可
想也

庚寅除坡州防禦使
遞拜副摠管訓練都
正禁軍別將壬辰除
平安兵使居未久以
都監中軍遞來癸巳
迭授左右捕將丙申
拜摠戎使今 上嗣
服之初除訓練都正
因兼 梓宮擧士大
將丁酉復授摠使尋
罷叙拜右捕將

戊戌除平安兵使未
幾罷遞己亥八月
上幸驪州 二陵至
廣津特除公御營大
將公方領摠戎軍留
陳 闕外自陳追到
南漢受符扈從 駕
還兼授左捕將

上命諸將臣耦射於
春塘臺公發矢連五
中 特被嘉賞加階
嘉義九月移拜摠使
庚子二月還授御將
三月除漢城府左尹

일찌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정
절(도연명)의 귀거래사를 그리게 하고 조그마한
병풍을 만들어 누우나 앉으나 항상 완미 하였으
니 대개 공의 취미는 알만하다.

경인년에 파주 방어사에 임명되었다가 교체되어
부총관, 훈련도정, 금군별장이 되고 임진년에 평
안병사에 제수되어 거한지 오래 되지않아 도감
중군으로 옮겼다가 계사년에 총융사가 되었다.
금상 등극초에 훈련도정에 임명되고 연이어 재
궁거사대장(梓宮擧士大將)을 겸하고, 정유년에
다시 총사를 제수 받았으나 조금 뒤에 파직되었
다가 우포장에 임명 되었다.

무술년에는 평안병사에 임명된지 한 해가 못되
어 파면 교체 되었다. 을해년 8월에 상이 여주
의 두 능에 행차함에 광진(廣津)에 이르러 특별
히 공으로 하여금 어영대장에 임명 하였는데 공
이 때마침 총융군을 거느리고 궐문밖에 진영을
설치하고 스스로 남한(南漢)에 병부를 받고 호
종 하였다가 어가가 환궁함에 겸하여 좌포장을
맡았다.

상께서 모든 장신을 명하여 춘당대에서 활쏘기
를 하였는데 공이 과녁을 맞춘 것이 연거퍼 다
섯개였다. 특별히 가상(嘉賞)에 뽑혀 가의대부로
옮겨주고 9월에 다시 총사에 옮겨 임명되었다가
경자 2월에 다시 어영대장에 환직하였고 3월에
한성부 관윤에 임명되어 옥사를 판결함이 매우

剖決嚴明公嘗入侍
上曰京兆事惟卿是
恃辛丑除摠使兼左
捕將 特授左承旨
司饗院副提調復除
左尹同義禁壬寅二
月拜御將三月拜刑
曹參判六月拜禁將
八月拜左承旨

當 親試閣臣時特
差試所承旨實格外
恩數也尋拜兵曹參
判復授左承旨左尹
癸卯試官試射時以
九幟居首進資拜刑
曹判書甲辰除知中
樞知義禁都摠管復
拜御將

乙巳除判尹知訓練
丙午 特拜訓練大
將丁未以病遞連除
都摠管知義禁尋拜
禁將旋移御將己酉
除知中樞復授訓將
顯隆園遷奉時以梁
舟事爲工刑鄭昌順
所誣奏遂被 嚴遣
謫豐川 上旋覺其
誣因到配狀 特賜
宥釋及還朝 命爲
輦士大將

엄격하고 공정 하였다.

공이 입시하니 상께서 이르시기를 “경조(京兆)가 온통 공만을 믿었노라” 하시었다.

신축년에 총융사 겸 좌포장에 임명되고 특별히 좌승지 사용원 부제조에 임명 되었다. 임진년 2월에 어영장을, 3월에 형조참판, 6월에 금위장, 8월에 좌승지를 역임 하였다.

각신의 친시를 당하였으나 승지는 격외의 은혜를 입었다. 얼마후 병조참판에 임명되고 다시 좌승지, 좌윤을 제수 받았다.

계묘년에 관리를 시험하고 활쏘는 일을 시험할 적에 아홉번이나 우승을 하거늘 자급을 높혀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을사년에 판윤, 지훈련(知訓練)을 제수받고 병오년에 특별히 훈련대장에 임명되고 정미년에 병으로 인하여 교체 되었다. 기유년에 중추에 임명되고 다시 훈련대장에 임명 되었다.

현릉을 옮길적에 양주사(梁舟事)로서 공조판서 정창순의 무고를 당하여 끝내 임명을 받고 풍주로 귀양갔는데 상께서 그 무고함을 깨닫고 인하여 편지를 보내어 특별히 죄를 사하여 석방하고 조정에 돌아옴에 곧 명하여 거사대장을 삼았다.

庚戌以優老典陞資
正憲拜御將辛亥除
摠戎使壬子 朝令
有武臣直領出入之
禁公適因人之問以
爲吊喪時當服白直
領而吊罷卽宜還着
天翼如此則禮意與
朝禁似不相悖矣

遂致訛傳諉以天翼
出入爲不可至登於
筵聞乃以不遵 朝
令命竄白翎島行有
日 上下教日聞其
行五日始到三百里
可想其有實病卽其
所到處 命定配所
公至海州

聞 傳教仍編於海
未幾 上特軫其病
情乃 命放宥公還
到江舍杜門訟愆感
祝 聖德每以爲衰
癯之喘無復酬恩之
望惟吾子孫中有能
出身事 主以伸吾
未卒之志則庶矣遂
令曾孫載弘肄習武
技

경술년에 늙은 몸을 대우하여 자급을 올려 정헌(正憲)에 승진하고 어영대장에 임명 되었다가 신해년에 총융사로 임명 되었다. 임자년 조정에서 명하여 무신 직령(直領)의 출입을 금하는 일이 있더니 조상(吊喪)을 당했을 적에 복제 문제를 공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서 마땅히 흰 직령을 입게 하고 조문이 과하면 곧 천력을 입게 한다면 마땅히 조정에서 금하는 것과 같아서 잘못됨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잘못 전달되어 천력으로 출입을 하면 연(筵)에 이를 수 없는지라 이를 두고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백령도에 귀양을 가도록 하였다.

항차하는 날에 그가 행차한지 5일만에 3백리 길에 당도 했다는 말을 듣고 상께서 하교하여 이르시되 그가 병이 날까 염려하였다.

그가 도착하니 상이 정배소(定配所)에 명하여 공을 해주로 가도록 하였다.

해주에 이르러 전교를 전해듣고 인하여 바다를 두루 다니더니 한 해가 못되어 상이 특별히 그의 병을 가련하게 여겨 곧 바로 석방되도록 명하니 공이 강사(江舍)에 돌아와 문을 걸어닫고 허물을 꾸짖으니 모두 성덕을 감축하고 “매양 쇠하고 병들어 급박함으로서 다시는 임금의 은혜를 보답치 못하리니 오직 내 자손 중에 유능한 자 있으면 출세하여 임금을 섬겨 내가 다 하지 못한 뜻을 펴기를 바라노라” 하고 마침내 증손 재홍을 명하여 무예를 익히도록 하였다.

甲寅陞資崇政摠戎使鄭民始以摠廳還穀事執咎於公至有筵達遂被譴削之典公之以骯髒見忤於文纓諸人久矣自是乘時生鬻齷齪不已以至蒙 叙踰年而亦不付軍啣

乙卯 上特命壯勇營付公會孫載弘於額外衛翌日 下教曰聞李某尙不付軍啣卽爲付之而使參誕日候班公自江榭詣 闕參班是日 上特命宣傳官廳薦李載弘遂付宣傳官翌日 特除公訓將又命兼察禁御兩營仍令入侍 開釋不已

又以不當揜撫之意申及於臺疏之批公益復感泣只有鞠躬盡瘁死而後已之心焉丙辰春 園幸時上特念公老憊令他大將代以扈

갑인년에 자급을 올려 승정(崇禎)에 승진되었다. 총융사로 옮겼다. 정민시가 총융청 환곡의 일로 공에게 허물을 씌워 보고하니 마침내 참소를 당하여 관직을 삭탈 당하였다. 공이 굴하지 않고 강직하여 문관 여러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한지 오래였다.

이로부터 틈이 있을 때 마다 참소가 끊이지 않아 물러난지 한 해가 지나도록 군직에 부임하지 않았다.

을묘년에 상이 장용영에 특명을 내려 공의 증손 재홍을 액외(額外)를 호위하도록 하고 다음날 하교하여 이르시되 “들으니 이 아무개가 군직에 부임치 않았다 하니 곧바로 참여케 하라” 하시니 공이 강사(江榭)로 부터 꺾 앞에 나아가 반열에 참여하였다.

이날 상이 선전관청에 특명하여 이재홍을 추천하되 마침내 선전관에 임명하고 또 공에게 명하여 금(禁), 어(御) 양영(兩營)을 겸직토록 하고 이내 입시하도록 하시어 은총이 그치지 않았다.

또 기차(揜撫)의 뜻이 부당하므로서 대간 상소에 대한 비답을 내리니 공이 더욱 다시 감동하여 다만 몸이 부서지고 죽기를 다하여 군영의 일을 보았다.

병진년에 춘원(春園)에 행차 할적에 상이 특별히 공의 늙음을 염려하여 면대하고 아뢰기를 원(園)에 옮겨온 후 신이 한결같이 어가를 따르지 못하여 늘 속 마음에 간절한 정성이 맺혔더니

駕公因 賓對奏曰
遷 圓以後臣一未
隨 駕每切耿耿之
忱今忝在元戎之列
職當扈從雖荷 聖
慈垂念特令勿扈而
顧臣縷殘喘猶堪自
力於散班陪從謹當
追躡清蹕之後上特
許之即授舟師大將
使之先詣江頭公隨
到華城 上深致眷
念頻賜 御饌

當元子誕辰前一日
特差公雲劔公感激
殊遇每欲一罄素蘊
至是因辭疏歷陳軍
制其略曰我國軍制
束伍之規倣用周室
兵農之制分番之法
採取唐家長征之例
而壬辰以後五衛變
而爲諸營則 祖宗
朝隨時沿革之意掎
歟盛矣然京城爲八
路根本而 輦轂之
下見存軍額不滿萬
數故臣常憂軍制之
踈虞每念先正臣李
珣養兵十萬之說未
嘗不三復而永歎

이제 원융의 반열에 있어 직책을 욕되게 하오니
마땅히 호종하여 성자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나
이다” 하였다. 그러나 상은 호종치 말도록 하셨
으나 신하의 노쇄한 몸으로 오히려 스스로 산반
배종(散班陪從)에 힘을 다함을 보시고 특별히
윤허하시고 곧 주사대장을 제수하여 그로 하여
금 먼저 강두(江頭)에 나가도록 하니 공이 화성
에 이르렀다. 상이 공을 심히 생각하여 자주 어
찬을 하사하시었다.

원자(元子)의 탄일을 맞아 하루전에 특별히 공
에게 운검을 주시니 공이 특별한 대우에 감격하
여 매양 한결같이 힘을 다하기를 결심하였다.
이에 이르러 상소를 올려 군제의 개편을 역설하
니 그 대략에 이르되 “우리나라 군제를 살펴보
니 주나라 병농(兵農)의 제도와 분번법(分番法)
을 방용하고 있으니 당나라 장정(長征)의 예를
채택하여 임진 이후에 5위가 변하여 모든 영
(營)이 된 즉 조종조(祖宗朝)에 수시로 연혁하니
성(盛)하고 성하옵니다. 그러나 경성은 팔도의
근본으로서 연곡(輦轂)의 아래 현재 군대의 수
가 만명이 채 되지 못하므로 신이 항상 군제의
소홀함을 염려 하였습니다. 늘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珣)의 양병 10만설을 생각하여 일찌기
세번씩이나 상소한 적이 있으나 비답을 얻지 못
하여 길이 한탄하옵니다.”

今我 聖上深軫宿衛之單弱特設壯勇一營從今以往京師控禦之地增修陰雨之備前聖後聖其揆一也臣固欽仰莊誦之不暇而第伏念禁御兩營鄉軍上番之法一以爲守禦之道一以爲操鍊之方當初設施非不美也而上番之規五年一次及其替番不過二朔則其所操鍊殆同十寒一曝坐作進退

隨人頤使指揮號令仰人口吻下鄉之後依舊花然則安在其教鍊之法意也哉且況往來之際徒費糧資廢農棄業妻兒呼庚上番之弊有如是矣以臣遇見莫若永革鄉軍上番之規收上身布與保米而兩營軍額以各營軍校子枝及五部良民之有根着者各限一千名填充俾作二司十哨之制恒在都下而一年接濟之數

이제 우리 성상께서 숙위(宿衛)의 고단하고 나약함을 깊이 살피시어 특별히 장용(壯勇) 일영(一營)을 더 설치하시니 이로부터 경사(京師)를 방어하는 곳에 음우(陰雨)의 방비를 더하니 전성(前聖)과 후성의 헤아리심은 마찬가지 이옵니다. 엿드려 바라옵건데 금(禁) 어(禦) 양 영(營)에 향군상변의 법으로 하나는 수어(守禦)의 도를 삼으시고 하나는 조련의 방법을 삼으시어 처음 실시함에 아름답지 않음이 없건만 상변의 규칙이 5년에 한번 교체하는 것이어늘 두달도 못되어 교체하면 그 조련하는 자 열번은 춥고 한 번은 더우니 진퇴 양난에 처하게 되옵니다.

사람을 따라 지휘 호령 하도록 하여 하향한 후 옛날의 마땅한 법에 의지하면 어찌 옛날 현인의 법이 있게 되오리까? 또 하물며 왕래할 즈음에 한갓 식량과 경비만 허비하게 되어 농사를 폐하니 처자들의 원성만 사게 되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길이 향교 상변의 법을 고쳐서 상신포(上身布)와 보미(保米)를 거두어 들임만 같지 못하오니 군교 자체와 오부 양민으로서 근착하고 있는 자로서 각각 한 두명씩 충원하여 이사십초(二司十哨)의 제도로 하여금 항상 도하(都下)에 있도록 하고 일년 접제의 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假令元兼料並米爲一萬四百餘石奉足及草價等所用爲二萬三千四百餘兩並計爲七萬五千三百餘兩以其所捧計其所用其所贏餘各爲二萬餘兩兵志曰軍無財士不用命儲財需用實是富強之術以此爲不虞之備諸般雜用則足食足兵莫過於此鄉軍則可無廢農往來之若都民則庶有沾料資生之道豈不兩便也哉宮牆之外設置五營入直將官與軍卒分掌五更替相巡綽而宮牆濶遠間山麓一遭週迴動費一更巡卒過去之後有時間斷誠極踈忽

宮牆間數爲二千六十四間今若於五十間設置一軍鋪以字內營入直軍卒分排守直而每鋪以軍四名分置則鋪爲四十一處軍爲一百六十

가령 원(元)과 료(料)에게 1만 4백여석을 아우르고 봉족(奉足) 및 초가등(草價等)에 쓰는 3만3천4백여냥을 만들어 도합 7만5천3백여냥이니, 그 봉(捧)할 바로서 그 쓸바를 계산해 보면 그 모자라고 남는 것이 각각 2만냥입니다.

군사 전문지에 이르기를 “군대의 재물과 군사가 없으면 명을 따를 수 없다” 하니 재물을 저축하고 수용하는 것이 실로 군대가 부강해지는 술책입니다.

이로써 예비치 못한 환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반 잡비, 즉 양식이 충분하고 군사가 충분함이 이보다 더 나올 수 없습니다. 향군은 가히 농사도 폐하지 아니하고 왕래하는 고통도 없어서 백성들은 거의 치료자생(治料資生)의 도를 다할 수 있으리니 어찌 양쪽이 다 편하지 않겠습니까? 궁장 밖에 5명을 설치하고 입직 장관과 군졸을 5경으로 나누어 담당토록 하여 서로서로 번갈아 순번케 하고 궁장을 소홀하게 하여 그 사이에 잔을 만들고 한번 주해하여 다시 순행하는 군졸이 간 뒤에 때로 간격이 있으면 진실로 지극히 소홀해 집니다.

궁장의 칸 수가 2천6십4칸이나 되니 이제 만일 50칸에 한 군포(軍鋪)를 설치하고 입직 군졸이 수직을 분배하여 매 포소마다 군포 4명으로 나누어 두면 포가 모두 마흔 한 곳이니 군대가 164명입니다.

안으로 2명은 번갈아 해당 포내(鋪內)를 순찰케 하여 5명의 입직 군원 수를 합하면 모두 265명

四名內二名交替行
巡於當舖之內而五
營入直軍元數合爲
二百六十五名軍舖
分直者外各該哨官
領在直所時時摘奸
各營門別巡將卒又
爲糾察勤慢則其在
警巡無間斷之虞有
嚴密之效矣

諸道之設置水陸軍
兵回其緩急各爲其
用南人之慣於船北
軍之閑於騎此其習
熟之然理勢之常平
時團束皆取其長而
水營所管水軍多在
山邑甚至距水營三
四百里之遠者名以
能櫓全昧操舵則臨
急遠徵將何所用

臣以爲水軍之在山
邑者陸軍之在沿海
者並相換定則便宜
之政莫大於是矣
上賜批曰君爲元首
而股肱以喻相腹心
喻將諫官喻耳目承
旨喻喉舌近取諸身
關一則不可惟腹心
最緊且重於五官元

이니 군포를 분치한 외에 각각 해당되는 초소의
관원이 직소에 있어서 시시로 간특한 것을 발각
하고 각 영문에 먼저 순찰한 장졸이 또 근무의
태만을 규찰하면 그 경비가 잠시도 끊이지 않고
군기가 엄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도(諸道)에 설치한 수륙군병도 그 완급을 돌
아보아 각각 그 사용됨에 따라 남쪽 사람들은
배에 익숙케하고 북군은 말타기에 노력하면 이
는 바로 지형에 적절히 훈련하여야 하는 것이
니, 리세는 항상 평소에 단속하여야 모두 그 장
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영소로서 수군을 관장하는 곳이 산읍(山邑)에
많아 심지어 수영과의 거리가 삼·사백리나 되
는 곳이 있으니, 배에 능숙하다 하나 전연 배를
잘 다루지 못한 즉, 급한 때를 당하여 쓸모가
없으니 장차 무엇에 쓰겠습니까?

신이 생각 하건데 수군이 산읍에 있는 것과 육
군이 연해에 있는 것을 서로 바꾸어 정한다면
편리한 것이 이보다 더 큼이 없을 것입니다” 하
니, 상이 비답을 내려 이르시되 “군이 원수(元
首)로서 상(相)으로는 고굉과 같고 간관으로는
이목과 같고 승지로는 후설과 같도다. 가까히
몸에 비하여 본다면 하나라도 빠져서도 앓되지
만 오직 복심은 가장 긴요하고도 중대하니 5위
의 군대의 중요함도 양·영보다 배나되니 요즈음
다시 70여세의 늙은 몸을 돌보지 않고 관직을

戎之緊重尤倍兩營
 近日復界之舉不以
 既耄而難之誠予知
 卿之可仗觀於用卿
 捨卿之異於凡帥慧
 眼達識必有窺其相
 與之際者卿之所陳
 一二條卽予嘗所櫟
 括彌綸以求其易行
 之術以待其可爲之
 期夙宵一念寤寐如
 結

一欲展施而後己若
 使此計成而轉以及
 於大於此者則均役
 之聖志可明初元之
 設言可踐三軍萬民
 舉在帡幪之中而知
 卿所云上番之停番
 軍鋪之碁置等方略
 不期採而採當其時
 與有營於卿大矣環
 視有位語孰到此此
 所以一聞犁然不加
 嘉乃附陳水陸軍換
 定事許令廟堂稟處
 仍命入直把摠賚
 下批旨盖曠典也
 公衰病轉甚而強策
 視務惟恐孤恩負
 國益惕勵不已丁巳
 右相尹公蕃東筵
 白公病沈篤狀上大
 加愍念許解戎柄

주어 등용하나니 실로 어려움이 있으리라. 진
 실로 내가 경을 의존해야 함을 아나니 경을 쓰
 고 버림에 보통 장수와는 달라 반드시 큰 지혜
 가 있도다. 경이 진술한 1, 2군인 즉 내 일찌기
 잘못을 바로 잡고 터진것을 깨매서 쉽게 행할
 수 있는 술책을 구하고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 밤·낮 없이 일념으로 오매불망 하였다.

한번 펴 시행하여 이 계책을 성취하도록 해서
 여기에 큰 비중을 두어 초원의 진실한 말을 밝
 히고 삼군을 조사하여 병악(帡幪)속에 있는 인
 재를 천거하여 경이 이론 상변의 폐난을 제거하
 고 군포의 설치등 방략을 시행 하리다. 공이 늙
 어 병이 심하면서도 강건한 정략을 말하니, 그
 은혜 보답지 못할까 염려하여 두려움 금할길 없
 노라” 하였다.

정사년에 우상 윤기동이 경연에서 공의 병이 매
 우 심중함을 아뢰니 상께서 걱정하여 용병을 풀
 어줄 것을 윤희하였다. 공이 병으로 잠시 한가
 한 틈을 타서 성묘를 하고 돌아오니, 상이 특명
 으로 입시케하고 이에 편한 일을 하게하여 매우
 기뻐하였다.

公乘病少間呈由省
墓及還 上特命入
侍乃以行役安穩深
致喜意縷縷 恩諭
有出尋常

戊午元朝入參候班
重添感冒閱月沈綿
三月二十三日卒於
水橋私第 隱卒之
典備至至有嗣孫待
闋服調用之 命葬
于竹山文村圓峰下
乾坐原

公德性沈毅度量寬
弘做事而不動聲色
接人而不設畦畛甚
不喜人之苟且卑屈
若見其志操勁直者
則中心好之若己有
之其所愛惡不以親
疎而或偏焉常以祿
不及養爲至痛忌辰
哀哭如袒括時雖在
大輦不廢將事粢盛
極豐腆而亦無豐昵
之端奉先凡節盡誠
無憾承奉諸姊而友
愛甚篤軫恤諸族而
敦睦靡極持躬御家
一切以勤儉爲務床
席凡案蕭然如寒士
家

무오년에 후반으로 입참토록 하였는데 감기가 심하여 한달 쯤 지나서 병이 더욱 심하여지더니 3월23일 수교 사제에서 죽으매 은졸의 전이 갖추어지기에 이르니, 사손이 조복을 입고 맞아 들였다.

명에 따라 죽산(지금의 용인 원삼면) 문촌 원봉 아래의 건좌 언덕에 장례를 치루었다.

공의 덕성은 의연하고 깊으며, 도량이 넓고 일을 함에 성색이 동요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접함에 규진을 설비치 않았으며, 매양 남에게 구차하고 비굴하게 하기를 싫어 하였다. 만일 그 지조가 근직한 자를 보면 마음으로 좋아하여 마치 자기 것인냥 즐거워하고, 그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바에 따라 친소를 두지 아니하며, 항상 녹을 가지고 자신을 봉양치 않았으며, 남의 슬픈일을 보면 마치 자기 조부의 일을 당한 듯 애통해 하며 비록 대질에 이르러서도 군무를 폐하지 않았고 선친을 받들어 모심에 극진히 정성을 다하여 유감이 없도록 하고 모든 누이들을 모심에 있어 우애가 화목하였다.

자신을 성찰하고 집안을 다스림에 근검으로서 힘쓰면서 자리와 거처가 매우 빈한 하였다.

敎訓子孫必因其材而利導之曾載毅之甚有文識載弘之克就武業亦其一事也平居喜讀論語篤老而亦不輟誦殆古人半部事陛下之意也與公愛君一念根於天性立朝以來始終言行罔非出於丹衷在

先朝兵使尹九淵犯酒禁被極刑翌日上顧謂諸臣曰禁酒以後有飲酒者乎諸臣錯愕不敢對公對曰臣非不畏法而或有因病竊飲之事矣上良久曰不欺君是眞情是日在班者無不相顧失色

公之秉心無僞於此益可見矣厚謙威勢鳴張門庭鬧熱不趨附者輒被毒螫而公拒其招誘終不投跡國榮

자식을 훈교 함에는 반드시 그 재주에 따라서 인도하니 증손 재의는 문학에 뛰어났고 재홍은 무업에 나가게 하니 그것이 한 예이다.

평소에 논어 읽기를 좋아하여 늙도록 독송을 철폐하지 않았다. 일념으로 인군을 사랑함이 천성에 뿌리하여 조정에선 이대로 언행이 충성스럽지 아니함이 없었다.

지난 조(朝)에 병사 윤구연이 주금을 범한자가 있어 극형에 처하였다. 다음 날 상이 모든 신하를 돌아 보시고 이르시되 “술을 먹지말라 한 후로 술을 먹은 자가 있는가?” 하니 모든 신하들이 놀라 대답하지 못하거늘 공이 대답하여 가로되 “신이 법을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병 때문에 몰래 마신일이 있는듯 하옵니다” 하였다. 상이 조금 후 다시 말하되 “군(君)을 속이지 않은 진실한 사람” 이라고 하시고 이 날로 반열에 들게 하니,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이 서로 돌아보고 실색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공의 마음 가짐이 거질 없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매우 겸손하여 위세 당당하고 문정(文庭)이 번성하여 아부치 않는 사람은 문득 화를 당하였으되, 공은 그런 일에서 벗어나 종래 발을 국영(國營)에 내딛지 않았다.

當路驕恣無比或謂公曰彼見高年卿宰而亦不起動獨於公起而迎接是豈好意公笑曰死生命也亦不隨衆出入於宿衛所善復於公爲內從而公每事不相關甚爲其所忌嫉

公志節之確類如此公在御營時上教曰處官奉公之能否無事時無以區別須於闢端起後始可以知以密探奉命行止事言之各營有甚不甚之殊而聞卿獨不甚規規於是卿可謂得將臣之體矣予誠喜不寐

公之以直道事君竟得受知至此者豈不偉哉公配貞夫人南陽洪氏學生繼相女忍齋暹六代孫也生於戊戌十八歲歸于公婦德甚備未嘗少違夫子意公每自謂夫婦間知己年五十五而歿於壬辰葬祔公墓左

공을 일러 말하되 “저 나이 많은 경재를 보고도 기동치 않는데 유독 공에게 대해서는 일어나 영접하니 이 어찌 좋은 뜻이겠는가?” 하니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명이로다. 대장을 따라 숙위에 출입치 않겠노라” 하였다. 공은 매사에 서로 상관하지 않으니 공을 매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다.

공의 절개와 학식이 이와 같았는데 공이 어영에 있을적에 상이 하교하여 이르시되 “관에 처하여 공의 능함을 누가 따르겠는가? 일이 있을 적에는 구별함이 없지만 시끄러운 일이 일어난 뒤에 그 뿌리를 깊이 살펴서 처리한다” 하였다. 명하여 “행지(行止)의 일을 말하게 하니 각 영에 심하고 심하지 않는 한 다름이 없거늘 그 사이에 경만이 규규(規規)하지 않았다. 이에 경은 가히 장신의 체질이라 할만 하도다. 내 진실로 기뻐서 잠을 이룰수 없노라”

공이 정직한 도로써 임금을 섬겨 마침내 지혜가 이에 이르도록 하는 자이니 어찌 위대하지 않으리요. 공의 부인은 정부인 남양홍씨로 계상의 딸이다.

인제(忍齋) 섬(暹)의 6대 손이니 무술년에 태어나 18세에 공에게 출가하니 부덕이 매우 갖추어져서 조금도 남편의 말에 위배됨이 없었다. 공은 늘 스스로 이르되 “부부지간은 지기(知己)라” 하였는데 임진년에 공의 묘소 왼쪽에 부장하였다.

有一男炫早歿一女適尹範圭炫生應五進士尹媿生二男孝儉訓正悌儉二女長適李馨秀宣傳官次適鄭恒柱

應五生五男長載毅次載弘宣傳官載寬載亨載器一女適尹守任武科載毅生三男一女長鍾英餘幼

嗚呼公以傑特之材獲被兩朝眷遇身任將闡歷別中外時丁昇平縱未有勳烈之樹而一心盡瘁爲國干城使凶逆畏戢者亦不可謂無功業矣若其前後所陳大關戎務者雖不得次第亟施而批教所謂不期採而採者在公爲榮果如何哉公之屢蒙哀褒於聖朝者儘可以銘彝鼎載竹帛而垂耀百代矣今於公墓碑余何敢有贅辭銘曰

1남을 낳으니 현(炫)인데 일찍 죽고 1녀는 윤범규에게 출가하였다. 현은 응오를 낳으니 진사이며, 윤사위는 2남을 낳으니 효검은 훈련정이고 다음은 제복이며 2녀가 있었는데 장녀는 선전관 이형수에게, 둘째는 정항주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응오는 5남을 낳으니 장남은 재의, 둘째는 재홍으로 선전관이며 다음은 재판, 재형, 재기이고 1녀는 무인 윤수임에게 출가 하였다.

재의는 3남 1녀를 낳으니 큰 아들은 종영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슬프다. 공이 걸특한 인재로서 양조에 은혜를 입어 몸은 장수의 책임을 지고 중외를 두루 거치니 때마침 승평하여 비록 공열을 세우고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국가의 간성이 되었으며, 때로 역신에게 모함을 당하였으니, 또한 공이 없다고는 못하리라.

만일 그가 전후 무관을 두루 거친것을 보면 비록 차례하기 힘들도다. 비답 교지에 이른바 “등용을 기약하지 않고 등용함이 공에게 영광이 되도다” 하였으니 과연 그 말이 어떠한고? 공은 여러번 성조의 포상을 받았으니 참으로 정정에 새기고 죽백에 기록하여 백대를 밝혀야 하리로다. 이제 공의 묘비에 이르기를

環東一域公爲干城
 何論勳業幸值昇平
 卓犖之材魁偉其容
 立身 兩朝雄韜孤
 忠暮境戎垣一味龔
 鑠 宸筆親授期以
 頗牧堂扁維何 賜
 以梧栢 聖眷深隆
 腹心之託公於 邦
 家丹衷愈炳鞠躬盡
 瘁乃其所秉志氣骯
 髒詭隨是恥權奸所
 憚忠藎所恃歷別中
 外罔非戎務到底綢
 繆克備陰雨間被譴
 謫旋獲 寬宥感戴
 益深 恩遇益厚何
 以畧酬素蘊庶罄疏
 陳軍制冀蒙 裁定
 十行綸綍極其溫諄
 曰卿所陳犁然一聞
 袞褒丁寧適將有施
 嗟公捐世可奈殄悴
 公有寵章宜鐫彝鼎
 公有徽蹟自載國乘
 一丘堂封有屹貞珉
 我辭非諛用示無垠
 崇政大夫議政府右
 贊成兼 世子二師
 宋煥箕 撰

동쪽 한 녀에 공이 간성의 장수로서 어찌 공훈
 을 논하리오. 다행히도 승평을 만났도다.

탁영한 재주로 그 용모 또한 장하도다. 양조에
 입신하여 지모를 맘껏 펴시니 늙어 죽도록 무신
 으로서 세상을 마치셨다. 칠필을 받으시고 파목
 (頗牧)으로서 서로 기약 하였다.

당편은 어떠한고 오백으로 하사하시었다. 성은
 이 깊고 높아서 복심으로 비유하였다.

공은 나라에 일편단심 충정으로 기하시었다.
 힘을 기우려 그 직책을 다하시고 그 문과 기개
 는 곧고 강하여 남에게 굽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였다. 권간이 꺼리는 사람으로 믿는바에 혼
 신을 다하였다. 중외를 두루 거치며 군사의 업
 무를 아니 맡은게 없으시도다. 이르는 곳마다
 치밀하시어 음우를 주시었다. 간혹 참소를 당하
 였으되 그 때마다 풀려나시었다. 감격하여 더욱
 정성을 다하였고 은혜 또한 더욱 두터웠도다.

무엇으로 같을고. 자기의 힘을 다하였도다. 군제
 의 내강을 진술하여 바로 잡기를 바라시었다.

10여줄 되는 글이 지극히 온순하였다.

경의 진술한 바는 의연히 한결같이 보고되었다.
 슬프도다 공이 세상을 버림이여. 무엇으로 슬픔
 을 억제할고. 공은 끝내 빛나고 빛나시니 마땅
 히 비명에 업적을 새겨야 하리라. 공은 밝은 공
 적이 있으니 스스로 국승에 실어야 하리로다.

한 모퉁이 땅을 봉하고 비석을 우뚝 세웠다. 내
 말은 아첨함이 아니라 그의 업적 무궁히 알려지
 게 함이로다.

승정내부 의정부 우찬성 겸 세자이사 송환기
 짓고

杞溪 俞漢芝 篆
曾孫 載毅 謹書
崇禎紀元後三庚申
月 日 立

기계 유한지 전액하고

증손 재의 쓰다.

승정기원 후 3경신(1800) 월 일 세운

이중인(李中仁) 墓表

高麗駒城府院君李公墓表陰記

我李龍仁大姓也上祖太師諱吉卷佐麗朝策三韓壁上功臣

自是高官顯秩譜牒相望至版圖判書諱光時有五男皆顯其第三韓中仁實我十三代祖也

妣幸州奇氏封德陽府夫人以忠肅乙卯生

公官至駒城府院君娶大提學全信女生三男士穎刑部典書士渭入我朝官開城留後士彝知州事孫男六人觀察使伯持司諫季拱取顯

墓在龍仁縣西慈恩橋抱坤之原舊有顯刻爲人所毀匿歲辛

고려 구성부원군 이공 묘표 음기

우리 이씨는 용인 대성(大姓)이다. 윗 조상 태사(太師)의 휘(諱)는 길권(吉卷)으로 고려조(高麗朝)를 도와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책록(策錄) 되었다.

이로부터 고관으로 현달(顯達)한 인물들이 보첩(譜牒)에 명망을 서로 이었다.

판도판서(版圖判書) 휘 광시(光時)에 이르러 아들 다섯이 있었는데 모두가 현달하였으며 제3자의 휘 중인(中仁)은 곧 나의 13대 조부가 되신다.

비(妣)는 행주기씨(幸州奇氏)이며 덕양부부인(德陽府夫人)에 봉(封)해진 분으로서 충숙왕 을묘년(1315)에 공을 낳으셨다.

공의 관위(官位)는 구성부원군(駒城府院君)에 이르렀으며 대제학(大提學) 전신(全信)의 딸을 취하여 아들 셋을 두었으니 장남 사영(士穎)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관은 개성유후(開城留後)에 이르렀고 삼남 사이(士彝)는 지주사(知州事)를 지냈다. 손자는 6인을 두었는데 관찰사(觀察使) 백지(伯持)와 사간(司諫) 계공(季拱)이 가장 현달 하였다.

묘는 용인현 서쪽 자은교(慈恩橋: 지금의 기흥읍 영덕리) 곤방(坤方) 지원을 끼고 있다.

예전의 현각(顯刻: 비석)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未十二代孫前郡守
舜岳率諸孫告官坐
毀者罪

改修兆域後十四年
乙酉十三代孫世載
按節畿輔亟來奠掃
加封植索墓田之舊
隱者以奉香火既又
慨然曰外銘之迄未
改鑿蓋不瞻也失今
不畧無以示諸後於
是使弟庶尹世恒主
其事事卽辦以是年
月日立之

嗚呼公之世遠矣官
歷履行莫得以稽獨
其後承采遠采大數
簪纓之世者必歸焉
則公之積德遺美於
斯可徵在

顯宗丙午十一代孫
後山按關東節來省
集諸宗序昭穆後十
三代孫世白以右議
政展掃今慈之役又
足以耀耳目而圖永
久何莫非先休是賴
也內外子孫多不能

이 이를 훼손 은익해 버려서 신미년에 12대 손
전 군수 순악(舜岳)이 모든 현손을 거느리고 관
에 고하여 훼손한 사람을 죄로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묘역을 개수(改修)한 뒤 14년 을유에 13대 손
세재(世載)가 경기의 안절사(按節使)로 보임되어
와서 예를 갖추어 봉분을 수축하고 묘전(墓田)
에 숨겨있는 구비(舊碑)를 찾아 내었으며 향화
(香火)를 받들었음이 대강의 내용이다.

또 개탄하여 이르기를 「외측에 명(銘)을 아직
다시 깎아 세우지 못하여 다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도모하지 못한다면 모든 후손들이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에 아우 서윤(庶尹) 세항(世恒)으로 하여금 그
일을 주관케 하니 일이 곧 변통되어 이해 년 월
일에 세웠다.

오호라! 공의 세대는 멀기도 하다. 관력(官歷)과
이행(履行)한 바의 행적을 얻어서 살필 수 없게
되었으나 오직 가승만은 잠령(簪纓: 벼슬이 높
은 사람) 지세의 대략을 두루 거쳐 반드시 돌아
온 것인 즉 공이 쌓은 덕과 유선(遺羨)은 이에
서 징험될 수 있을 것이다.

현종 병오년(1666) 11대 손 후산이 관동(關東)
안무사(按撫使)로 있을 때에 찾아와서 성묘하고
제종서소목(諸宗序昭穆)의 계를 엮었고 그후 13
대 손 세백(世白)이 우의정(右議政)으로 있을 때
전소(展掃)로 지금 이 일을 맡음으로서 또한 족
히 빛을 내었다고 할 것이며, 영구히 할 것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니, 어찌 선휴(先休)에 의지된
바가 이뿐이겠는가?

殫記而今居墓下奉
修掃者即皆九代孫
宣廟朝名將副元帥
鎰之後云

崇禎紀元後再乙酉
月日立

十三代孫 前縣令
世會 敬書

내외의 자손들이 많아서 이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지금 묘 아래에 거하면서 봉제사 하는 자는 9대손인데 선조 때 명장 부원수 일(鎰)의 후손이다.

승정기원 후 재을유(1705) 월 일 세우다.

13대손 전 현령 세회 경서(敬書)

이 증 (李 增) 墓碣

有明朝鮮國明善大夫富安正墓碣銘并序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南哀撰

公諱增字子謙實惟我厚陵三世孫常棣之愛道光揖遜手挈神器以授聖弟盛德撝謙垂裕于後有諱終生嘉德大夫鎮南君寔公祖諱徠正義大夫鳳城君寔公考妣鄭氏集賢殿修撰諱楫之女

公生於景泰癸酉年十五有司按宗籍例授秉直郎爲富安令以次加階至彰善大夫成化辛卯陞秩爲守弘治丙辰以試藝高等再陞爲正正德丙寅聖主膺運論靖國原從功進階明

유명(有明) 조선국(朝鮮國) 명선대부(明善大夫) 부안정(富安正) 묘갈명(墓碣銘) 병서(并序)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좌의정(左議政) 겸(兼) 영경연사(領經筵事)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남곤(南袞)은 글을 짓다.

공(公)의휘(諱)는 증(增)이요 자(字)는 자겸(子謙)이니 실로 생각건대 우리 후릉(定宗) 3세손의 상체지애(常棣之愛)로 도광(道光:도덕의 빛)과 읍손(揖遜)하여 신기(神器:帝位,王位)를 수설(手挈)하였고 성제(聖弟)로써 성덕과 휘겸(撝謙:謙讓)으로 후손에게 유유함을 교훈으로 전하였다. 휘 종생(終生)은 가덕대부(嘉德大夫) 진남군(鎭南君)이니 이 분이 공의 조부이며 휘 리(徠)는 정의대부(正義大夫) 봉성군(鳳城君)으로 이 분이 공의 고이다. 비는 정씨로 집현전수찬 휘 집(楫)의 딸이다.

공(公)은 경태(景泰) 계유년(1453)에 태어나 15세에 이르러 유사에 의해 종적(宗籍)의 예에 따라 병직랑(秉直郎)이 내려지고 부안령(富安令)이 되었다가 이어서 가계되어 장선대부(彰善大夫)에 이르렀다. 성화(成化) 신묘년 벼슬이 올라(수:부안수)가 되었고 홍치(弘治) 병진년(1496) 재예(才藝)를 시험함에 있어 높은 등급을 얻어 다시 품계가 올라 정(正:富安正)이 되었다. 정덕(正德) 병인년(1506) 성주계서 운조(運祚)를 받아 정국원종(靖國原從)의 공(功)을 논정(論定)

善賜堂上品服己巳
二月以疾卒于正寢
年五十七

公天資厚重寡言笑
慈仁愷悌居家以孝
友聞待人接物一以
誠信家不畜戲琬之
具惟好讀書自少至
老未嘗少轍於書無
所不通尤深於經學
聞有善治經者則不
問貴賤徑往叩之辨
難疑滯必融會然後
已見

人有一善一藝者愛
好之不啻若出於己
至對妻子猶矜道不
已其好善出於天性
如此一時宗屬莫不
推敬自爲長者其好
學者則相率而師尊
之搢紳名士從之遊
者亦多及聞訃咸嗟
惜之曰善人亡矣至
有揮涕者以其年四
月卜葬于廣州治西
學堂里之原

함에 벼슬이 올라 명선계(明善階)에 오르고 당
상(堂上)의 품복(品服)이 하사되었다. 기사년
(1509) 2월 병으로 정침에서 돌아가니 나이 57
세였다.

공(公)은 천자가 후중하고 말수나 웃음이 적었
으며 자인하고 개제(愷弟)하였다. 집안에 거처
(居處)함에 있어서는 효우로써 하고 사람을 대
하거나 사물을 접함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성신
으로 하여다는 소리를 들었다. 집에 희완지구
(戲琬之具: 戲弄之具)를 모아 두지 않고 오로지
독서하기만을 좋아하여 어려서부터 연로할때까
지 일찍이 책을 잠시라도 첩서함이 없어 통하
지 않는 바가 거의 없었다. 경학(經學)에는 더
욱 깊어 경(經)을 선치(善治)한 사람이 있다고
들으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곧바로 가서 머리
를 조아리고 이를 질문하여 어려움을 분변(分
辨)하였고 의심나거나 막히는 부분은 반드시
소상하게 이해한 연후에야 사람들을 보았다.

착한 사람이나 재주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애호(愛好)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과 같이 대
하였으며 처자(妻子)를 대함에 이르러도 오직
궁도(矜道)가 있을 뿐이었으니 천성에서 나온
선(善)이 이와 같아 일시라도 종속(宗族)들이
추경(推敬)하지 않음이 없었다. 스스로 장자라
고 여겼는데,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로
따르며 스승으로 존경하였고 진신, 명사(名士)
로 종유하는 사람들 역시 많았다. 이에 돌아갔
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들 탄식하고 슬퍼하
며 말하기를 “착한 사람이 죽었도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해 4월 광주(廣州)의 읍치(邑
治) 서쪽 학당리(學堂里)의 언덕을 점복(占卜)
하여 장례하였다.

公配南氏宜寧望族宗簿寺僉正諱椅之女在家慧悟夙成凡剪製綏結之工不學而能女誠婦訓亦皆請曉既笄擇所宜婦以儷于公事尊章克盡孝敬處妯娌之間無不得其歡心閨庭之內雍雍如也

母成氏被出不以罪夫人恒悲憫焉及既出兮乃上順父志下盡私情迎置一室奉養備至使得忘其窮寡熙怡以終宗黨稱之丙寅視公秩封愼夫人後公九年戊寅九月九日寢疾而殂享年六十七己卯三月附于公墓

生二男長曰益興守孝源先卒次曰鐵山守孝順二女長適儒士金延齡先沒次適司果尹承弘益興娶觀察使閔師騫女生

공의 배 남씨는 의령의 망족으로 종부시첨정 휘(諱) 기(椅)의 딸이다. 집안에 있어서는 혜오(慧悟)하고 숙성(夙成)하였고 무릇 전제수결지공(凡剪製綏結之工)은 배우지 않았으나 부녀자로서의 계훈(誠訓)에 능하였으며 또한 청요(이른 새벽)에서부터 비녀를 꽂음에 [부녀자로서의 일을 처리함에] 마땅한 바가 있었다. 배우자로서 공(公)에게 시집와서 존장을 섬기는데 극진하여 효경을 다하였고 측리(동서지간)에 처하여서도 환심(歡心)을 얻지 못하는 바가 없어 규정지내(閨庭之內: 집안)가 웅웅(雍雍: 부드러움)하였다.

어머니 성씨(成氏)가 죄를 입어 진안에서 쫓겨나자 부인은 항상 이를 슬프고 민망하게 여겼는데, 이미 출가하여서는 위로는 부친의 뜻에 따르고 아래로는 사사로운 정(情)을 다하여 한 집에 모셔 두고 봉양(奉養)하여 그 어려움을 잊게 함에 어머니가 기뻐하였고 마침내 종당에서도 이를 칭찬하였다. 병인년(1506) 공(公)의 질품(秩品)에 따라 신부인(愼夫人)에 봉(封)해졌다. 공보다 9년 늦은 무인년(1518) 9월 9일 침질하다가 돌아가니 향년(享年) 67세였다.

기묘년(1519) 3월 공의 묘(墓)에 부장(附葬)하였다.

2남을 낳았는데 장남은 익흥수(益興守) 효원(孝源)으로 먼저 죽었고 다음은 철산수(鐵山守) 효순(孝順)이다. 2녀중 장녀는 유사(儒士) 김연령(金延齡)에게 출가하였으나 먼저 죽었고 다음은 사과(司果) 윤승홍(尹承弘)에게 출가하였다. 익흥수(益興守: 孝源)는 관찰사 민사건(閔師騫)의

二男達忠顯忠鐵山
娶別提金彦弘女生
一男幼金生一男微
尹生二男釜鉉鐵山
既免喪懼先德埋沒
思欲勤諸石以袞外
氏近屬能詳乃家事
故奉狀請銘久益勤
懇惡敢以不文辭其
銘曰

於赫王孫 行可躬躬

我究其由 好禮河間

有修在身 天福厥家

葆和守眞 德何盹盹

麟仁趾仁 樂善東平

爰有令名 相以賢洲

婉婉鏘翔 孝竭蒸嘗

其慶則篤 興國無疆

峩峩雙封 礪石鑿詞

딸에게 장가들어 2남을 낳으니 달충(達忠)과 현충(顯忠)이며, 철산수(鐵山守: 孝順)는 별제(別提) 김언홍(金彦弘)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낳으니 아직 어리다. 김(金延齡)은 1남을 낳으니 미(微)이고 윤(尹承弘)은 2남을 낳으니 부(釜)와 현(鉉)이다. 철산수(鐵山守: 孝順)가 이미 상을 마친 후 선덕(先德)이 매몰(埋沒)될까 두려워하여 돌을 닦을 생각을 하였는데, 곤(袞)은 외척으로 가까이에 속하여 능히 그 집안 일을 자세히 알고 있고 행장(行狀)을 받들어 명(銘)을 청한지 오래되어 더욱 그 뜻이 간절(懇切)한 지라 어찌 감히 글을 짓지 않으리오. 명(銘)하기를

赫赫(赫赫)한 왕손(王孫)의 후예로 행동 또한 여여(躬躬: 몸소 실천함)하여

내가 그 이유 궁구(窮究)하노니 하간(河間)에서 예의(禮儀)를 좋아함이라

수신(修身)하여 하늘에서 내린 복(福) 그 집안에 가득하고

혼화함을 보전함은 천성(天性) 그대로여서 덕(德)은 어찌나 순수한지

인지지화(麟趾之化)의 어짐은 낙선(樂善)과 동평(東平)이라

이에 영명(令名: 좋은 명성)있어 서로가 물 흐르듯 서로 견주었네

완만(婉婉: 아름답고 온순한 모양)한 모습 높이 높이 상상되어 효성을 다함이 일찍부터 많았고

그 경사(慶事) 또한 돈독하여 흥성한 나라 더욱 무강(無疆)케 하였다네

아아(峩峩)한 한 쌍의 봉우리에 돌을 다듬어 그 사명(詞銘) 새겨

雍雍肅肅 恩歸宗族

웅웅(雍雍: 부드러운 모양)하고 숙숙(肅肅: 깨끗한 모양)케하여 그 은혜 종족(宗族)에게 돌아가게 하리

有子孫賢 瓜瓞綿綿

자손(子孫) 또한 어진 사람 있고 과질 또한 면면하니

鬱鬱高原 名永長存

울울한 고원(高原)에서 그 이름 영원토록 장존(長存)하리라

嘉靖元年 九月 日
立石

가정(嘉靖) 원년(元年: 중종 17, 1522) 9월 일 비(碑)를 세우다.

進士 金魯 書

진사(進士) 김로(金魯)는 글을 쓰다.

辛亥六月二十五日
移葬于鳳城君墓下
子坐原與配南氏合
窆今茲改碣

신해년(辛亥年: 명종 6, 1551) 6월 25일 봉성군(鳳城君)의 묘(墓) 아래 자좌(子坐)의 언덕으로 이장(移葬)하고 배(配) 남씨(南氏)와 더불어 합폄(合窆)하였으며 지금 묘갈(墓碣)을 고쳐 세우다.

嗚呼悲哉

오호비재(嗚呼悲哉)라!

이천기(李天基) 墓誌

公諱天基字載元延安之李自樗軒文康公石亨始大顯其後牧使嶼以儒學名是生廷秀郡守生贊縣監生時程義禁府都事於公爲考其配遂安李氏縣監亨長之女

公美風儀眉目如畫年十二通諸經文藝日進癸酉司馬乙亥上謁聖取士公中丙科始補槐院薦入藝文館檢閱待教奉教兼世子侍講院說書遷成均館典籍禮兵二曹郎司諫院正言司憲府持平時一二鄉宰有奴犯法而匿諸家者公劾正其罪光海訃至禮官請百官會哭公謂光海得罪宗社不可以舊君待之議遂寢乞外得扶安縣監

공의 휘는 천기(天基)요 자는 재원(載元)이다. 연안이씨는 저현(樗軒) 문강공(文康公) 석형(石亨)으로 부터 비로소 들어나고 그 후에 목사 기(巖)가 유학으로 이름을 남겼는데 이가 군수 정수(廷秀)를 낳으니 군수(廷秀)가 현감 빈(贇)을 낳았으며, 현감이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시정(時程)을 낳으니 공의 선고(先考)이다. 그 배위(配位)는 수안이씨로 현감 형장(亨長)의 딸이다.

공은 풍의(風儀)가 수려하고 미목(眉目)이 그림 같으며 12세에는 모든 경서에 통하여 문사(文詞)를 성취하더니 계유(1633)년에 진사(進士)에 합격하고 을해(1635)년에 상께서 성묘(聖廟)에 진알(進謁)하고 과거를 행하매 공은 병과로 발탁되자 즉시 괴원(塊院)에 들어 예문관에 천거된 후 검열, 대교(待教) 봉교(奉教) 겸 세자 시강원 설서(說書)를 역임하였고 성균관 전적(典籍) 예, 병, 공조좌(佐)를 거쳐서 사간원 정언과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니 때에 향리에 거하는 재상(宰相)이 법을 범한 노비를 집에 숨겨둔 사람이 있기로 공이 탄핵하여 그 죄를 다스리고, 광해의 부음이 전하자 예관이 백관(百官)에게 호곡 하기를 청하자 공이 말하기를 광해(光海)가 종사(宗祀)에 득죄한 사람이니 가히 구신(舊君)으로 예대(禮待)하지 못할 것이라 하여 의론이 침식되었다.

의임을 청하여 부안현감(扶安縣監)이 되었다가

入爲弘文館修撰校理間爲獻納禮曹請王世子孫行冊禮上以未冠難之公援據古昔請以空頂黑幘雙童髻受冊己丑仁祖禮陟以五禮儀無大臣禮官入參大斂一款命議啓公引喪大記及疏家所論以奏且曰滕文公爲世子不聽百之言終行古禮今群下所望於嗣聖者豈不及於滕文而反用五禮儀草創未備之制也

公於禮書用力深雖倉卒立草考據精而辭理到輒見施行清陰金文正公論吏判沈諮而嚴鼎耆等文章右諮公上筭痛辨

其時非時二宋先生赴朝方以激揚爲己任同春始論竄自點公亦上筭申請既而同春欲並劾其黨與

돌아와서 홍문관 수찬(修撰) 교리(校理)가 되고 잠간 헌납이 되었더니 예조에서 왕세손(王世孫)을 책봉하는 예(禮)를 청하였으나 상(上)이 관례를 하지 아니하므로 주저하거늘 공이 옛 문헌을 고증하여 공정묵책(空頂黑幘)과 쌍동비(雙童髻)로 책례(冊禮)하기를 청하고 기축(1649)년에 인조(仁祖)가 송하 하심에 오례의(五禮儀)에 대신과 예관(禮官)이 대렴(大斂)에 입참(入參)하는 절목(節目)이 없으므로 의계(議啓)를 명하시니 공이 상대기(喪大記)와 소가(疏家)에 의론한 일을 인거(引據)하여 진달(進達)하고 또 말하기를 슬문공(滕文公)이 세자로서 백관(百官)의 말을 듣지않고 끝내 고례(古禮)를 행하였으니 지금 군하(群下)가 세자에게 바라는 마음이 슬문공보다 못하지 아니한데 도리어 오례의(五禮儀)에 초창미비(草創未備)한 일을 따르고저 하리요. 라고 하였다.

공이 모든 예서(禮書)에 밝아서 비록 창졸의 초고(草考)를 생각하여도 상고하기를 정밀히하고 사리에 합당한 옛것으로 말하여 문득 시행하게 되니 청음(淸陰) 문정공이 해조(該忒) 판서 심소(沈詔)를 론평함에 엄정기(嚴鼎耆)의 무리가 상소하여 소(詔)를 옹호하는지라 공이 소를 올려 그 시비(是非)를 통변(通辯)하였다.

때에 두 송선생이 조정에 들어와서 격양(激揚)하므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여 동춘당(송준길)이 처음 자점(金自點)을 귀양 보내고자 하고 공이 역시 소를 올려 그 일을 신청하였더니 다시 동춘이 그 당여(黨與)도 핵과(劾罷)코자 함에

公以獻納難之以爲
宜徐待 山陵之畢
同春引避斥以觀望
尤菴復提公避辭論
辨甚力公卒被遞罷
蓋公言論務持重而
大義未始不同故尤
菴晚與人論此事曰
此吾輩不相悉之致
云

辛卯除吏曹佐郎移
議政府檢祥舍人受
暇省覲還陳湖西民
瘼 上嘉納歷司諫
副應教執義又求外
得韓山未赴還執義
乙未以實錄都廳勞
陞通政

金公始振以推刷御
史之慶州請別擇本
倅 上問誰可者以
公對遂除慶州府尹
居二年繡衣上治績
特命加資旋寢 錫
馬

還爲判決事承旨戶
曹參議由驪州牧使
拜忠清監司以母老
陳情乞解特受忠州

공은 헌납(獻納)으로서 자저하여, 산릉(山陵)의
필역(畢役)을 기다리자고 하자 동춘이 인피(引
避)함에 공이 관망하기만 한다고 지척(指斥)하
니 우암(尤菴)이 다시 공의 피사(避辭)를 들어서
심하게 논변하므로 마침내 공이 체과(遞罷)되었
으니 대개 공의 언론이 신중할 뿐 대의(大義)는
동일하므로 우암이 후에 사람들과 이 일을 의론
하되 우리 무리가 서로 제세하지 못한 소치라
하였다.

신묘(1651)년에 이조좌랑을 배하였다가 의정부
검상(檢詳) 사인에 옮기고 휴가를 얻어 근친(覲
親)하고 돌아와서 호서의 민폐를 자세히 진달함
에 상이 가납하시고 사간과 부응교 집의를 거쳐
서 다시 외임을 구하여 한산군수가 되었으나 부
임하기 전에 집의(執義)로 돌아오고 을미년
(1655)에 실록도청(實錄都廳)의 공으로 통정(通
政)에 가자(加資) 되었다.

김공 시진(時振)이 추쇄어사(推刷御使)로 경주에
갈 때 본부의 부윤(府尹)을 각별히 택차(擇差)하
기를 청하자 임금께서 누가 가한가라고 묻자 김
공이 공을 천거하여 경주부윤(慶州府尹)을 배
(拜)하고 거관(居官)한지 2년에 어사가 그 치적
을 올리니 특별히 가자 하기를 명하였다가 다시
거두고 석마(錫馬)의 포상을 내렸다.

돌아와서 판결사(判決事) 승지, 호조참의를 역임
하고 여주목사를 거쳐서 충청감사를 배하니, 공
은 모친이 연노하므로 해직시켜 주기를 원하였
을 때 특별히 충주목사를 주어서 그 양친(養親)

以便其養其後又爲
仁川忠州時相積居
其境乞得烟軍築私
堰而堅不許其守法
不撓如此

乙巳丁憂及吉周流
諸曹公不樂在朝爲
就閒得鐵原 以庚
戌七月十一日卒于
府衙壽六十四

公敦厚忠實濟以文
雅望之可知爲長德
人事親至孝家甚貧
每躬自耕漁以供甘
旨居官不以一物
自累而如親所欲則
爲之極力營辦雖大
州務劇而定省侍食
未之或廢衙罷必
公服在傍取當日所
決公事一一奉白曰
可而後充然而喜

大夫人老而失明
食必奉匙衣必挈領
起居坐臥必躬親扶
之至愛懇惻觀者感
動

하는데 편리하게 하고 그 후에 다시 인천부사가 되었다. 공이 충주에 거관(居官)할 때 시상(時相) 허적(許積)이 그 경내에 살면서 군역의 힘을 빌어 사사로히 제방을 쌓으려 하자 공이 강하게 허락치 아니하고 그 법을 지켜 흔들리지 아니함이 대개 이와 같았다.

을사(1665)에 친상을 당하고 3년후에 육조(六曹)에 주유(周流)하였으나 공이 조정에 있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한가한 곳을 택하여 철원부사가 되었다가 경술(1670)년 7월 11일 관아에서 하세하니 향년이 64세였다.

공은 돈후충실(敦厚忠實)한 자품으로 문아자중(文雅自重)하여 바라보아도 가히 장덕군자(長德君子)임을 알만하고 효행이 지극하였는데 집이 가난하므로 매양 몸소 나무하고 낚시질하여 감지로 공양(供養)하고 벼슬에 처하여서는 한가지 물건도 가지지 아니하나 부모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극력을 다하여 변비(辦備)하고 비록 큰 고을에 사무가 번다하나 정성(定省)과 시식(侍食)을 폐하지 않고 공사를 마치면 반드시 공복(公服)으로 시측(侍側)하여 당일에 행한 공사는 일일이 말하여 가하다 하신 후에야 혼연히 기뻐하였다.

대부인이 연노하신 후에 실명 되시니 공이 몸소 끼니때 마다 수저를 올리고 의복 소매를 들어 편하게 하고 앉거나 눕거나 기거할 때는 반드시 부축하여서 지극한 성효가 특별하니 보는 사람 마다 모두가 다 감동하였다.

平生不營產業無家
於都田不增一畝爲
州郡時謂家衆曰汝
曹在家糠粃不厭而
幸籍 國恩安坐飽
飯於分過矣

如是而尙可剝公肥
私乎罷歸之夕家人
稱貸自給然而絕不
爲斬截之行以要名
譽人亦不能盡知也

在講筵善陳說經義
爲文明白簡當一時
絲綸多出其手云蓋
公雅志恬冲不汲汲
營進故中歲以後
躡躑不振卿相皆其
後進公則低徊冗散
而無一毫慍色其累
求外補者不欲以三
公換一日之養耳

世或疑公坐己丑一
事而沉滯此豈知公
者哉後以側出子同
知鶴老推恩 贈吏
曹參判

夫人南陽洪氏牧使
履一之女舉五男二
女有老縣監嵩老德

평생 산업에 유의치 않았으므로 서울에 주택이
없고 일묘(一畝)의 전토를 더하지 아니하며 주
군(州郡)에 거관(居官)할 때 집안 사람들에게 말
하기를 「너희 무리가 집에 있을 때 악식(惡食)
도 풍족하지 못하였는데 다행히 국은을 받아서
편히 앉아서 포식하니 분수에 족한 것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공금을 모아서 사리를 생각하
겠는가」 하므로 관에서 물러가면 집사람이 사
람에게 대차(貸借)하여 경과하되 결단도 참학한
행동을 하여 일을 구하고자 아니하니 사람이 역
시 능히 다 알지 못하더라.

강연(講筵)에 처하면 경의(經義)에 진달(陳達)함
이 능하고 문장은 명백 간담하여 일시 사론(絲
綸)이 공에게서 많이 나왔다. 대개 공의 천성이
염정(恬靜)하여 진취하는데 급급하지 아니하고
중세 이후에 진로가 부진하여 경상(卿相) 중에
그 후진이 많으나 저회용산(低迴冗散)하여도 일
호도 불평한 사색(辭色)이 없고 여러번 외임을
구하는 것은 삼공의 귀(貴)라도 하루의 봉양(奉
養)과 바꾸지 않으려 함이었다.

세상에서 공이 기축일사(己丑一事)에 연좌되어
침체하였다 하나 이 어찌 공을 아는 사람이리
요. 뒤에 측출자(側出子) 학노(鶴老)의 추은(推
恩)으로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부인 남양홍씨는 목사 이일(履一)의 딸로서 5남
2녀를 낳았으니 현감 유노(有老), 송노(嵩老), 현
감 덕노(德老), 경노(景老), 성노(成老)로 송노와

老縣監景老成老嵩
老德老皆出後人士
人宋圭章趙爾鼎

其婿長房男軒佐縣
監 商佐僉知女適
崔晚奭崔惺魚景龍
僉正魚史周二房男
義佐宣佐命佐女適
黃濬三房男元佐蕙
佐女適進士朴忠錫
判書閔鎮厚文佐衡
佐箕佐弘佐忠佐良
佐四房出而五房無
后

曾孫曰鉉祥進士台
祥奎祥應祥夏祥重
祥泰祥縣監麟祥武
科濟祥鼎祥觀祥最
祥進士會祥興祥恒
祥宗祥而鉉祥實尸
公祀趙婿之孫彦臣
參判命臣參議虎臣
兵使餘不盡記

公墓在陽智山幕洞
癸坐之原夫人祔 最
祥從余遊以諸父兄
之命來請銘 銘曰
樗老之後師靜友晦
儒素傳承以及公世

덕노는 다 출후(出后)하고 딸은 사인(士人) 송규
장(宋圭章), 조이정(趙爾鼎)에게 출가하였다.

그 장방(長房)의 남(男)은 현감 현좌(軒佐)요 첨
지(僉知) 상좌(商佐)이며 딸은 최만석(崔晚奭),
최성(崔惺), 첨정(僉正) 어경룡(魚景龍), 어사주
(魚史周)에게 출가하고 2방(二房)에서는 남(男),
희좌(羲佐), 선좌(宣佐), 명좌(命佐)이며 딸은 황
준(黃濬)에게 출가하고, 삼방(三房)에서는 남 원
좌(元佐), 진좌(蕙佐)요, 딸은 진사 박충석(朴忠
錫) 판서 민진후(閔鎮厚)에게 출가하고 문좌(文
佐), 현좌(玄佐), 형좌(衡佐), 기좌(箕佐), 홍좌(弘
佐), 충좌(忠佐), 량좌(良佐)는 사방(四房) 소생
이며, 5방은 무후(無后)하였다.

증손은 진사 현상(鉉祥), 태상(台祥), 규상(奎祥),
응상(應祥), 하상(夏祥), 중상(重祥)이고 태상(泰
祥)은 현감이고 인상(麟祥), 무상(武祥), 제상(濟
祥), 정상(鼎祥), 관상(觀祥), 진사 회상(會祥),
흥상(興祥), 항상(恒祥), 종상(宗祥) 등이며 현상
(鉉祥)이 공의 봉사손(奉祀孫)이며, 조서(趙婿)의
손 참판 언신(彦臣), 참의 명신(命臣), 병사(兵
使) 호신(虎臣)인데 그 외에는 다 기록하지 못
한다.

공의 묘가 양지현 산막동 계좌원(癸坐原)에 있
고 부인으로 합부(合祔)하였는데 최상(最祥)이
나와 교우하고 제(諸) 부형(父兄)의 명으로 와서
명(銘)을 청하였다. 명 왈

저노(樗老)의 후예로 정암을 스승으로 하고 회
재(晦齋)를 봉우(朋友)로 사귀다. 유업(儒業)으로

公貌如玉厥美蘊內
盛之金鬢華衣光佩
而公而卿晉塗誰礙
非我思存曰有親在
反哺斯急夕照難貸
左右以相藹然深愛
榮利之場衆趨我退
低回朱紱白首靡悔
環視其居風雨不蔽
何以遺後清白家計
位不滿德有識攸慨
我闡厥幽昭眎百載

陶菴 李 緯 撰

전승하여 공의 대에 이르렀다. 그 아름다움이 안에 가득함에 공이 이것을佩服(佩服)하였다. 경(卿)의 자리와 공의 귀함이 나가는 길을 누가 의심하랴 내가 생각에 두지 아니함이 아니라 집에 노친이 계시매, 반포(反哺)하는 정성이 시급하고 연노 하심을 돌이킬 수 없는데 좌우로 붙들어 드림은 애연한 깊은 정성이다. 영리의 장소에 다른 사람은 나가려 하나 나는 물러서려 하였고 낮은 자리에 붉은 인장은 백수가 되어도 후회하지 아니하다. 그 거처를 돌아보면 풍우를 가리지 못하니 무엇을 가져서 후손에게 전할꼬. 청백한 가계 뿐이라. 자리가 그 덕에 미치지 못하매 유식자의 한이 되는도다. 내가 그 유당(幽堂)에 써서 백대에 밝게 보이노라.

도암 이재 짓다.

이태용(李泰用) 墓碑

府君諱泰用字大爾
李氏本牛峰人始祖
高麗侍中諱公靖入
我朝觀察使諱吉
培自是世襲名德至
吏曹判書文貞公農
齋先生諱翊於己巳
士禍爲顯肅名臣
府君實尸其祀曾祖
諱光輅祖諱珏以文
學世家考諱鎬貞以
孝贈監察妣全義李
氏諱應會女

府君以純祖甲申十
二月二十二日生壬
午筮仕繕工監役癸
巳以子貴陞通政階
拜僉知中樞府事光
武己亥十二月二十
五日卒葬于龍仁水
餘面玉峴辛座原所
自營也後三十年不
肖始克表阡而音徽
寢邈無彷彿其萬

嗚呼方面高準嶷然
有山岳之象望之者
不覺膝之前面談笑
之間和氣藹然未嘗

부군의 휘는 태용(泰用)이고 자는 대이(大爾)이다. 이씨의 본관은 우봉인데 시조는 고려때 시중(侍中)을 지낸 휘 공정(公靖)이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관찰사 휘 길배(吉培)로부터 대대로 명성과 덕망이 이어져 이조판서 문정공 농재선생 휘 익(翊)은 현종과 숙종조의 명신으로 기사사화로 화를 입었는데, 부군(府君)이 그 제사를 받들었다. 증조의 휘는 광락(光輅)이며, 조의 휘는 각(珏)인데 문학으로써 가문을 이었고 고(考)의 휘는 호정(鎬貞)으로 호행으로써 감찰(監察)에 증직되었다. 모친은 전의이씨로 휘 응회(應會)의 따님이다.

부군은 순조 갑신년(1824) 12월 22일 태어나 임오년에 입사하여 선공감역(繕工監役)을 지내고 계사년에 아들이 귀하게 됨에 통정대부의 위계로 승차하였고 첨지중추부사를 배수하였다. 광무 기해년(1899) 12월 25일 돌아가 용인 수여면 옥현(玉峴) 신좌(辛坐)의 언덕에 장례를 모셨으니 정해놓은 곳이었다. 35년 후에 불초(不肖)가 비로소 비를 세우려 하였으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어 비슷한 바가 만분지 일도 않된다.

오호라! 수용(얼굴)이 방정(方正)하고 고준의연 하니 산악의 형상이니, 이를 바라보는 사람은 인품에 감동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 앞까지 가까이 다가감을 깨닫지 못하였다. 담소하

有疾言遽色此府君之容止也事親極志物之養百里市魚血斑斑衣上素嗜酒而絕之恐其妨於服勤也疾疴斫指既裘上豕鋤草三年如一日昆季四人爲之長而弟疾解衣藎之流涎以沃之此府君之篤孝友也

四子章句以及諸家箋疏無一不融會工於制藝所著述充溢中衍此府君之敏於學也

始文貞之孫奉事諱綰懲士禍遯于保寧五世家中落監察公復遷于龍仁墓舍府君甫五歲矣此長筆路猗茶身致鉅而不失仁聞待以學舉欠者十百家人樂爲之役此府君之勤於成家而仁於博施也

는 사이에 온화한 기운이 풍부하였으며 일찌기 말을 심하게 하거나 갑자기 낮빛을 바꾸는 일이 없었으니 이것이 부군의 용지(容止)이다. 아버지를 섬김에 뜻과 물건을 함께 봉양함이 지극하여 백리나 떨어진 저자에서 물고기를 구해 오다가 피가 흰옷에 얼룩지여 하였고 술을 좋아하였으나 끊었으니 부모를 정성으로 모시는데 방해가 될까해서였고 병환이 날때에는 손가락을 자르는 효성을 보였다. 상을 당하여서는 무덤위의 풀을 호미로 매었는데 3년을 하루같이 하였다. 형제가 4명이었는데 그중 장남이었고, 아우가 병이 났을 때에는 옷을 벗어 덮어주고 상처가 나면 침을 흘려 발라주었으니 이것이 부군의 독실한 효성과 우애였다.

형제 넷이 모두 글을 잘하여서 제가(諸家)의 표전(表箋)과 상소에 이르기까지 하나라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문장과 예술에 뛰어나 저술한 바가 꺾짝에 넘쳤으니 이는 부군의 학문이 민첩함이었다.

처음 문정공의 손자 봉사(奉事) 휘 관(綰)이 사화에 얽혀서 보령으로 은둔한 지가 5대가 되어 집안이 쇠락하여 감찰공(監察公)이 다시 용인의 묘사(墓舍)로 이사하였으니 부군이 겨우 다섯살 되던 때였다. 점점 성장함에 미쳐서는 많은 재산을 이루었음에도 어질다는 말을 잃지 않아 그를 기대여 먹고 사는 사람이 천여사람이었는데도 기꺼이 이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부군께서 집안을 이르기신 바의 근면함이며 널리 베풀어 인(仁)을 펴신 것이다.

值回晝日遠近皆來
賀人以爲積善之報
示憊却醫條然無恒
化意人以爲仙解也
盖氣槩德量有大過
人所以光前而裕後
不亦偉哉

配龍仁李氏諱觀鉉
女一男鳳九忠清道
水軍節度使四女適
主事成樂弼秘書丞
李泝魯教官趙重會
司勇金水琦孫男丙
默秘書丞丙薰副尉
丙熙屬官丙烈參奉
丙燾修史官曾玄不
盡錄

嘉善大夫秘書監
不肖孫 丙默 謹撰
禮式課屬兼典祀補
不肖孫 丙熙 謹書
公之歿後三十年
戊辰閏二月 日 立

회혼례를 맞이하여서는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두 와서 축하하였으니 사람들은 적선(積善)한데 대한 보답이 나타난 것이었다. 병이 들어서는 의원을 물리치고 태연히 돌아가니 사람들은 신선이 되어 올라갔다고 하였다. 공의 기개와 덕량이 남보다 크게 뛰어나서 선조를 빛내주고 후손을 너그럽게 해주었으니 또한 위대하지 아니한가?

부인은 용인이씨이니 휘 관현(觀鉉)의 따님으로 1남을 두었는데 봉구(鳳九)이며 충청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이다. 4녀는 주사 성낙필(成樂弼), 비서승 이기로(李泝魯), 교관 조중회(趙重會), 사용(司勇) 김수기(金水琦)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손자 병묵(丙默)은 비서승이고, 병훈(丙薰)은 부위(副尉)이며 병희(丙熙)는 관속, 병렬(丙烈)은 참봉이고 병도(丙燾)는 수사관(修史官)이다. 증·현손은 다 기록하지 않는다.

가선대부 비서감 불초손 병묵(丙默)은 삼가 글을 짓고
예식과속 겸 전사보 불초손 병희(丙熙)는 삼가 글을 쓰다.

공 몰후 30년 무진(1928) 윤 2월 일 세움.

이현보(李玄輔) 墓碣

先府君諱玄輔字德升戶曹參判贈領議政諱正臣冢子也

妣贈貞敬夫人全州柳氏生以肅廟己未七月二十六日景廟癸卯擢別試隸槐院由春坊歷騎郎畿都薇院栢府英宗庚戌以懿陵封鎮勞陞通政歷承旨戶兵曹參議大司諫定州牧使咸從延安密陽府使江原監司乙丑九月九日棄不肖享年六十七

葬于陽智縣東貢瑞洞定水山左麓坐子之原配贈貞夫人安東金氏監司盛迪女戊午生丁酉歿初葬南陽乙丑遷祔左後配貞夫人延日鄭氏學生纘昌女乙亥生壬戌歿初葬縣西是夏移祔于後

선부군(先府君:부친)의 휘는 현보(玄輔)요. 자(字)는 덕승(德升)이니 호조참판 증 영의정 휘정신(正臣)의 장자(長子)이다.

비(妣)는 증 정경부인 전주유씨이니, 숙종 기미(1679)년 7월 26일 출생하였고 경종(景宗) 계묘(1723)년에 별시문과(別試文科) 탁발(擢拔:급제)槐원(槐院)에 나가 춘방(春坊)을 거쳐서 기랑(騎郎), 기도(畿都), 미원(薇院), 백부(栢府)를 역임하고 영종(英宗) 경술(1730)에 의릉(懿陵) 봉진(封鎮)의 공로로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차되어 승지, 호조와 병조참의, 대사간, 정주목사(定州牧使), 함중, 연안, 밀양부사, 강원감사를 역임하고 을축(1745) 9월 9일에 불초(不肖) 등을 버리시니 향년이 67세이다.

양지현(陽智縣) 동쪽 정수산(定水山) 좌록(左麓) 자좌원(子坐原:서쪽)에 장사(葬事)하고 전배(前配) 증 정부인 안동김씨(安東金氏)는 감사(監司) 성적(盛迪)의 딸이시니, 무오에 생(生)하여 정유에 졸하였고, 처음에 남양(南陽)에 장사하였다가 을축에 선부군 묘에 이부(移祔)하고 후배(後配) 정부인 연일정씨(延日鄭氏)는 학생 찬창(纘昌)의 따님이니 을해에 출생하여 임술에 졸하고 처음에 양지현 서쪽에 장사하였다가 선부군 묘에 이편(移窆)하였다.

一男五女女適鄭亨
觀吳命洙前夫人出
也男行源女適洪宣
輔縣監趙載任朴晋
源進士後夫人出也

庶女金尙德萬戶行
源子晦秀冕秀女韓
用錫金啓河鄭亨觀
系子箕祥內乘吳命
洙子彥思別提女林
濬浩縣監洪宣輔子
性浩趙載任系子興
鎮注書朴晋源無后

嗚呼先府君居家立
朝言行姓貫世德具
載于叔父奉朝賀公
喆輔撰狀及誌棣泉
吳公遂采所爲碣文
小子何敢私贅一言
小子惡積兩子夭歿
懼一朝溘然先府君
墓前遂無片石之表
謹書生卒仕歷內外
子姓如右庶後之人
哀其情而恕其僭也
歟

1남 5녀를 두었는데 녀(女)는 정형관(鄭亨觀), 오명수(吳命洙)에게 출가하니 전부인(前夫人)의 소생이고 남(男) 행원(行源)과 녀(女)는 현감 홍준보(洪濬輔), 박재임(朴載任), 진사 박진원(朴晋源)에게 출가하니 후부인(後夫人)의 소생이다.

서녀(庶女)는 만호(萬戶) 김상덕(金尙德)에게 출가하고 행원(行源)의 아들은 회수(晦秀) 면수(冕秀)이고 딸은 한용석(韓用錫), 김계하(金啓河)에게 출가하였다. 정형관의 계자(系子) 기상(箕常)은 내승(內乘: 관직명)이고 오명수(吳命洙)의 아들 언사(彦思)는 별제(別提)이다. 딸은 현감 임준호(林濬浩)에게 출가하였다. 홍준보(洪濬輔)의 아들은 성호(性浩)이고 조재임(趙載任)의 계자(系子) 흥진(興鎭)은 주서(注書)요, 박진원(朴晋源)은 무후(無后)하다.

오호라! 선부군의 거가(居家) 입조(立朝)와 언행, 성관(姓貫) 세계(世系)가 모두 숙부 봉조하(奉朝賀), 철보(喆輔)에 찬술(撰述)한 행장(行狀)과 묘지(墓誌) 또 체천(棣泉) 오공(吳公) 수채(遂采)가 찬(撰)한 비문에 자세히 기재 되었으니 소자가 어찌 감히 한마디의 말을 더하리요. 그러나 소자가 팔자(惡)가 중하여 두 아들이 요사하니 만일 일조에 합연(溘然: 나 까지 죽으면의 뜻)하면 선부군 묘전(墓前)에 한 조각 돌에 표문(表文)이 없을까 두려워하여 삼가 생졸과 사력(仕歷)과 내외의 자성(子姓)을 기록하니 뒤에 사람이 그 정을 슬퍼하고 그 참람한 것을 용서하기 바라는 바이다.

崇禎紀元後三庚子
月日不肖男通訓大
夫司憲府執義行源
撰

승정기원 후 3경자(1780) 월 일에 불초 남
(男), 통훈대부 사헌부 집의 행원 찬(撰)하다.

이호정(李鎬貞) 墓碑

洪陵乙亥年孝子李
公贈通訓大夫司憲
府監察公隱德好施
鄉里稱長老不廢公
舉屢發解未及省試
而歿士林惜其屈然
意以孝聞

公諱鎬貞字汝固牛
峰李氏以高麗功臣
峯城府院君諱公靖
始祖入我朝有諱
吉培黃海道觀察使
代有聞人有曰有諱
戶曹參議 贈領議
政嘗受學于金沙溪
門丙子胡亂過害于
江華

是生諱翊吏曹判書
文貞公肅廟己巳士
禍卒于謫世稱農齋
先生曾祖杓祖光輅
考珏文學世其家妣
金氏慶州人漢胤女
公生至性愉婉動人
雖屢甚而菽水不之

홍릉(洪陵:고종) 을해년(1875) 호자 이공(李公)이 통훈대부 사헌부감찰에 추증되었다. 공은 숨어서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여 향리에서 장노(長老)라 칭송되었는데, 과거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여러차례 시험에 응했으나 성시(省試)에 미치지 못하고 졸하니 사림(士林)에서 그 급하지 않는 뜻을 애석하게 여겼으며 그 효성이 조정에 알려졌다.

공의 휘는 호정(鎬貞)이며 자는 여고(汝固)이다. 우봉이씨는 고려때 공신 잠성부원군 휘 공정(公靖)을 시조로 하며, 조선에 들어와서는 휘 길배(吉培)가 황해도관찰사를 지냈으며, 대대로 이름난 사람을 배출하였으니 유겸(有謙)은 호조참의를 지내고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일찌기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해(害)를 당하였다.

이분이 휘 익(翊)을 낳으니 이조판서를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숙종때 기사사화(1689)가 일어나자 적소(謫所)에서 졸하였는데, 세상에서는 농재선생(農齋先生)이라고 불리워진다. 선생의 증조는 표(杓)이고, 조(祖)는 광락(光輅)이며 부친은 각(珏)인데 문학(文學)으로 그가문을 세상에 빛냈다. 모친 김씨는 경주인(慶州人)인데 한윤(漢胤)의 따님이다. 공은 태어날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유하고 부드럽

饋皇考患瘡幾殊醫
云狗良獎之可使者
輒手刃剝其皮觀者
起敬用湯煎無從得
炭火斫楫拙懸懸而
藝之而指不覺也

母夫人老待粥蜂集
于桑馴之以繼蜜思
堇味則有雌雉投樊
聞者謂古人良不誣
及大故筮宅乖未決
夢老人告之曰吉既
襄而天旱盡萎日提
甕漑之稍稍出金黃
色至今燦然

李氏中世懲士禍遯
于保寧家益落公始
反龍仁老谷之墓舍
勤儉持既小康則波
及仁者十九所致力
爲先而已其學以朱
子小學書爲準蓋不
爲無所本云

게 섬겨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비록 궁핍함이 심하였으나 부모에게 드리는 음식은 끊이지 않았다. 부친이 중풍이 들어 거의 몸을 못쓰게 되었는데 의원이 “개가 좋다”고 하자 개를 잡아 삶으려 할 때 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나 문득 직접 칼을 잡아 가죽을 벗기니 보는 사람이 모두 공경하였다. 이를 끊이고자 하는데 솥을 구할 수가 없었기에 나무등걸을 쪼개어 탕광을 매달아 불때면서도 손가락이 뜨거운 줄도 몰랐다.

모부인께서 노쇠하여 미음을 드릴 때 꿀벌이 뽕나무에 모여들어서 그것을 길러서 계속 꿀물을 드렸고 꿩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시자 꿩이 울타리로 기어 들어왔으니 듣는 사람들이 옛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짓이 아니라고 들 하였다. 부모의 상에 미쳐서는 묘자리를 점쳐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꿈에 노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길하다”고 하여 즉시 장사를 지냈는데 심한 가뭄이 들어 잔디가 다 시들거늘 날마다 동이로 물을 길어다가 뿌리니 잔디가 점점 자라서 황금빛을 띠니 지금도 찬연하다.

이씨는 중세(中世)에 사화를 당해서 보령으로 피하니 가세가 더욱 낙후되었는데 공이 비로소 용인의 노곡(老谷)에 있는 묘막으로 이사를 하여 근검함을 스스로 지켜서 점차 나아졌으며, 다른 사람에게 까지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 19년간 힘을 쓴 것은 선조를 위하는 것 뿐이요, 그 학문은 주자(朱子)의 소학서(小學書)로써 기준하였으니 대개 근본이 없는 바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公考終于庚午正月
十一日距其生丙寅
春秋六十五葬于老
谷乾坐原

配全義李氏祔焉其
考應會公甚之無內
願憂育丈夫子四人
泰用僉中樞哲用監
役根用進士晋用參
書官

孫男鳳九忠清水軍
節度使泰用出慶九
哲用出鉉九都事錫
九參奉根用出龍九
府事鼎九議官峻九
主事鴻九萬九主事
晋用出曾玄繁衍不
勝錄豕曾孫秘書丞
丙默屬以牲石刻不
護則銘曰本諸身以
安其親以利其後人
嘉善大夫奎章閣典
製官海平尹喜求撰
崇祿大夫前判敦寧
院事海平尹用求書
公之歿後五十九年
戊辰潤二月立

공은 경오년(庚午年:1870) 정월 11일에 돌아가
니, 병인년(丙寅年에:1806)에 출생하여 춘추가
65세이다. 노곡(老谷)의 건좌(乾坐)에 장례를 모
셨다.

배(配)는 전의이씨인데, 그 아버지는 응회(應會)
로 부인을 매우 아꼈다. 네명의 아들을 두었으
니 태용(泰用)은 첨추(僉知中樞府事)이고 철용
(哲用)은 감역(監役)이며, 근용(根用)은 진사이
며, 진용(晋用)은 참서관(參書官)이다.

손자 봉구는 충청도 수군절도사로 태용(泰用)의
소생이고, 경구(慶九)는 철용(哲用)의 소생이며
도사(都事) 현구(鉉九)·참봉(參奉) 석구(錫九)는
근용(根用)의 소생이다. 부사(府事) 용구(龍九)와
의관(議官) 정구(鼎九)·주사(主事) 준구(峻九)·
홍구(鴻九)·주사 만구(萬九)는 진용(晋用)의 소
생이다. 증·현손이 번연하나 다 기록치 않는다.
증손인 비서승(秘書丞) 병묵(丙默)이 묘비(墓碑)
의 글을 부탁하거늘 사양함을 얻지 못하고 명
(銘)하노라. 몸의 근본을 가지고 부모를 편안케
하였고 후세 사람까지도 이롭게 하였도다.

가선대부 규장각전제관(奎章閣典製官) 해평(海
平) 윤희구(尹喜求)는 글을 짓고

승록대부 전 판돈령원사(判敦寧院事)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는 글을 쓰다.

공몰후 59년 무진(戊辰:1928) 윤 2월 세움.

이 혼 (李 渾) 墓表

司憲府掌令 贈吏
曹判書 李公墓表
公諱渾字而灝延安
人考延城府院君文
康公諱石亨妣烏川
鄭氏監察公保之女
圃隱先生曾孫

正統乙丑生乙酉司
馬庚寅登第歷監察
正言司藝癸卯十一
月十六日卒後以曾
孫文忠公貴贈吏曹
判書配竹山安氏司
正美女參判紹之孫
生三男壽長命長福
長女邊士謙李孝敦
後配漢陽趙氏別坐
繼男之女生三男孝
長順長敬長

墓在龍仁文秀山巽
坐原與安氏同塋遺
命也趙氏墓在書齋
洞甲坐原

崇貞紀元後再乙未
月日立

六代孫 喜朝 撰

사헌부장령 증 이조판서 이공묘표

공의 휘는 혼(渾)이요 자는 이호(而灝)이니 연안
인이다. 고(考)는 연성부원군 문강공 휘 석형(石
亨)이요 비(모권)은 오천정씨(烏川鄭氏)이니 감
찰 보(保)의 딸이며 포은선생의 증손이다.

정통 을축(1445)에 출생하였고 을유(1465)에 진
사에 합격하고 경인(1470)에 문과급제 한 후 감
찰, 정언, 사예를 역임하고 계묘(1483) 11월16일
에 졸(卒)하였다. 후에 증손 문충공의 귀함으로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배위는 죽산 안씨 사정
(司正) 미(美)의 따님이며 참판 소(紹)의 손녀이
다.

삼남을 두었으니 수장, 명장, 복장이며 녀는 변
사겸(邊士謙) 이효돈에게 출가하였다. 후배(後
配)는 한양조씨이니 별좌 계남(繼男)의 딸이다.
삼남을 낳으니 효장, 순장, 경장이다.

묘는 용인 문수산 선좌원(選坐原)에 위치하여
안씨와 동영(同塋)이니 유명(遺命)에 인하였기
때문이다. 조씨 묘는 서재동 갑자원(甲子原)에
위치한다.

충정기원후 재을유(1705) 월 일 세우다.

6대손 희조 짓다.

이 휘 (李翬) 墓誌

進士公李翬墓誌

公諱翬字士章我曾
王考參議 贈領議
政諱有謙之側室子
也母黃氏 世宗朝
名將衡之後其父悅
以衛將死丙子難

公 崇禎己卯生於
參議公淳昌任所嫡
母尹夫人愛之甚公
事之盡誠及其喪哀
動傍人尹判樞綱歎
曰吾生九十始見此
人已西中進士自後
不復攻學業

吾祖考議政府君暨
仲季都憲尙書公一
時隆顯公常以盛滿
爲憂無毫髮干求杜
門斂迹靺鞨駟僮之
徒罕識其面居不蔽
風雨疏糲不給而處
之迥然獨曰古人親

진사공(進士公) 이휘(李翬) 묘지(墓誌)

공(公)의 휘(諱)이고 자(字)는 사장(士章)이며 우
리 증왕고(曾王考: 증조부)인 참의(參議)를 지내
고 영의정에 증직된 휘(諱) 유겸(有謙)의 측실에
서 태어난 아들이다. 어머니 황씨(黃氏)는 세종
(世宗) 때 이름난 장수(將帥)로 알려진 형(衡)의
후손이며 그 아버지 열(悅)은 위장(衛將)으로 병
자난 때 죽었다.

공(公)은 송정 기묘년(인조 17년)에 참의공(李有
謙)이 순창(淳昌)에서 재임할 때 그 임소(任所)
에서 태어났다. 적모(큰어머니) 윤부인(尹夫人)
이 매우 사랑하였고 공(公) 역시 부인을 섬기
기를 정성을 다하였으며 상(喪)을 당해서는 애통
(哀慟)해 하였다. 이에 방인(傍人) 윤판추(尹判
樞) 경(綱: 尹綱)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90
여년을 살면서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을 보았다
”라고 하였다. 기유년(1669년)에 진사시(進士
試)에 급제한 이후 거업(學業: 科擧)에 힘쓰지
않았다.

우리 조고(祖考) 의정부군과 중계 도헌상서공
(都憲尙書公)이 한꺼번에 융현(隆顯)한 이후 공
(公)은 항상 성만(盛滿)을 걱정하였고 호발(毫
髮)의 간구(干求: 구함)도 없이 누문불출(杜門
不出)하며 염적(斂跡, 종적을 감춤)하여 매점
(靺鞨: 가죽의 슬갑)이나 장쾌(駟僮: 駟會, 중개
인, 중도위)의 무리들이 그 얼굴을 얹어 드물었
다. 집안에 있으면서는 불폐풍우(不弊風雨)하여
소려(疏食) 조차 넉넉하지 못한 처지라고 할지

極滋味而吾不能可恨也

累擬部獄官太學士南公龍翼辟製述官則曰壬丙之禍南北皆吾讎雖卑微忍以斗祿而忘其先卒不就己巳禍作禁諸子不赴舉聞時事輒悲咤

鬚髮盡白及疾革誦杜甫不及見清時之詩又長慟曰吾非怛化奈老母何取潔衣加身曰臯復禮之大者婦人入訣麾之使出

遂卒癸酉十一月十八日也葬龍仁泉洞母後公十年卒墓于廉退谷戊子公亦移窆其下室咸平李氏

라도 유연(迥然)히 혼자 말씀하시기를 “고인(古人)은 친히 이 맛을 극락(極樂)하였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함이 가히 한(恨)스럽도다”라고 하였다.

여러차례 옥사를 통솔할 인물로 비견되었고 벼슬은 태학사(太學士)에 천거되었으나 남공(南公) 용익(龍翼)이 제술관(製述官)을 불러 말하기를 “임병지화(壬丙之禍: 1682년 숙종 8년과 1686년 숙종 12년)로 南人과 北人은 모두 나의 원수여서 비록 비미(卑微)라 할지라도 두록(斗祿: 얼마 안되는 祿俸)으로 견디었는데 그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망각(忘却)하고는 불취(不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기사년(1689년)의 화(禍)가 일어나 여러 자식들에게 과거(科擧)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세상의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번번이 비타(悲咤: 悲嘆)하였다.

수발(鬚髮)이 거의 백발(白髮)이 되었고 질병에 걸렸음에도 두보(杜甫)의 ‘불급견청시(不及見淸時: 淸時(淸世)를 보지 못하노라)’라는 시(詩)를 변개(變改)하여 암송하였으며, 또 길게 통곡(慟哭)하며 이르기를 “내가 달연(怛然: 놀라는 모양)함을 고치지 않았는데 어찌 노모(老母)에게 있어서라! 어떻게 결의(潔衣)를 내 몸에 입히겠는가. 복례(復禮: 克己復禮)의 대략을 알린다는 것은 부인(婦人)이 들어오고 나아감을 헤아리는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마침내 돌아가니 계유년(1693년) 11월 18일이 었다. 용인(龍仁) 천동(이동면 천리)에 장례(葬禮)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간 십년후에 공(公)이 돌아감에 염퇴곡(廉退谷)에 장례하였다가 무자년(1708년) 공(公) 또한 그 아래로 이편하였고

府使輝陽之女三
男三女男晚徵進士
別提

晚膺司果晚增主簿
女僉使金命錫趙泰
斗柳綱晚膺生綽緝
縑綽後晚徵緝進士
晚增側出綽緝金命
錫六子柳綱三子

公質厚而器偉志確
而才周特爲國制所
縛有蘊莫宣往往忼
慨若不能忘懷者而
於門內循分無違雖
幼少必加禮與人恭
謹以亦足名窩以自
遣

又不自鄙夷遠財利
慎行檢尤嚴於男女
之別見不正若浼嘗
陷淤泥遇潮而出昇
入村家猶危坐不懈
以涉險忘危爲終身

부인 함평이씨를 부장(耐葬)하였다. 부인 함평이씨는 부사(府使) 휘양(輝陽)의 따님으로 3남 3녀를 두었다. 아들 만징(晚徵)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별제(別提)를 지냈고

만옹(晚膺)은 사과(司果)를 지냈으며 만증(晚增)은 주부(主簿)에 올랐다. 딸은 첨사(僉使) 김명석(金命錫), 조태두(趙泰斗) 유경(柳綱)에게 출가하였다. 만옹(晚膺)은 작(綽), 홍(泓과), 온(縑)을 낳았고 작은 만징의 뒤를 이었고, 만징(晚徵)은 홍(緝)을 낳았으며, 진사(進士) 만증(晚增)은 측실(側室)에서 채(綽)와 침(緝)을 낳았다. 김명석(金命錫)은 아들 여섯을 두었고 유경(柳綱)은 아들 셋을 두었다.

공은 그 바탕이 후덕하였고 도량은 장대하였으며 세운 뜻 역시 확고하고 재주 또한 갖추었다. 그러나 특히 나라의 제도에 속박받은 바가 있어 은오(蘊奧)함이 있었으나 이를 펴지 못했다. 왕왕 완개(忼慨: 소중하거나 분개함)할 때는 능히 그 품은 바를 잊지 않았으나 문내에서 그 분수를 좇음에 어긋남이 없었다. 비록 유소(幼少)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禮)로써 대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접할 때에도 공근(恭謹)하였으며 또한 이름난 명문가(名文家)로써 족하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단속하였다.

또 스스로 비루(鄙陋)하지 않아 재리(財利)을 멀리하였고 행검(行檢)을 삼갔으며 남녀지별(男女之別)에 있어서는 더욱 엄하게 하여 바르지 않음을 보아 만약 더럽힘이 있으면 일찍이 어니(淤泥: 흙탕)나 조수에 빠뜨려 버렸다. 촌가를 출입함에 있어서도 항상 위좌(危坐: 正坐)를 풀지 않았고, 험한 곳을 지날 때라도 몸가짐을 바

戒手書孟子一通遺
子孫又作家訓中多
格言此可以觀公大
略矣

嗚呼惜哉余童時荷
公知獎甚深今邱木
已拱而余亦髮皤然
矣愴涕而爲之識以
納諸幽我李世系具
在泉洞大碑云

陶菴李緯撰

로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종신토록 자계(自戒)로 삼았으며 손수 맹자(孟子) 한 편을 써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었다. 또 가훈(家訓)을 지은 것중에 격언(格言)이 많으니 이것으로 가히 공(公)의 대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호(嗚呼)라! 슬프도다! 내가 어렸을 때 공(公)의 장발(獎拔: 권장하고 발탁함)이 매우 깊을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에 이르러 구목(邱木: 墓表)을 공수(拱手)하고 있으니 나 또한 머리털이 파연(皤然: 흰 모양)하였구나. 슬픈 눈물을 흘리며 글을 지어 묘광(墓壙)에 드리노라. 우리 이씨(李氏)의 세계(世系)는 천동(泉洞: 이동면 천리)에 있는 큰 비석(碑石)에 갖추어져 있노라. 도암(陶菴) 이재(李緯)는 글을 짓다.

이희담(李喜聃) 墓誌

有明朝鮮國通訓大夫光州牧使羅州鎮管兵馬僉節制使李公墓誌

淑人南陽洪氏附左
淑人南陽洪氏附右
府君諱喜聃字子壽
系出德水李氏鼻祖
諱敦守高麗中郎將
歷三世有諱千善樂
安伯生諱仁範藝文
館大提學生諱揚始
仕 本朝工曹參議
寔府君九代祖自是
代有顯官曾祖諱通
郡守 贈領議政德
豐君祖諱景曾吏曹
判書考諱嵇弱冠魁
進士

未幾擢文科官大司
諫前妣平山申氏參
判諱翊全之女妣晉
州柳氏靖社勳臣晉
川君諱頌之女西垞
諱根之曾孫也府君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통훈대부(通訓大夫) 광
주목사(光州牧使) 나주진관병마첨절제사(羅州鎮
管兵馬僉節制使) 이공(李公) 묘지(墓誌)

숙인(淑人) 남양홍씨(南陽洪氏) 부좌(附左)

숙인(淑人) 남양홍씨(南陽洪氏) 부우(附右)

부군(府君)의 휘(諱)는 희담(喜聃)이고 자(字)는
자수(子壽)이다. 계출(系出)은 덕수이씨이고 비
조는 휘(諱) 돈수(敦守)로 고려시대에 중랑장
(中郎將)을 지냈다. 3세(世)를 지나 휘(諱) 천선
(千善)은 낙안백(樂安伯)에 봉해졌고 이분이 휘
(諱) 인범(仁範)을 낳으니 예문관대제학을 지냈
다. 이분이 휘(諱) 양(揚)을 낳으니 비로소 본조
에서 벼슬하여 공조참의를 지냈으니 이분이 바
로 부군의 9대조(代祖)이다. 이때부터 대대로
현관을 배출하였으니 증조(曾祖)의 휘(諱)는 통
(通)으로 군수를 지내고 영의정에 증직되었으며
덕풍군에 봉(封)해졌고 조(祖)의 휘(諱)는 경증
(景曾)으로 이조판서를 지냈다. 고의 휘(諱)는
혜(嵇)로 약관(弱冠: 20세)에 진사시(進士試)에
서 장원하였고,

얼마 후에는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은 대
사간(大司諫)에 이르렀다. 전비는 평산신씨로 참
판 휘(諱) 익전(翊全)의 따남이고, 비는 진주유씨
로 정사훈신인 진천군(晉川君) 휘(諱) 구(頌)의
따남이며 서경(西垞) 휘(諱) 근(根)의 증손(曾孫)
이다. 부군(府君)은 현종(顯宗) 무신년(顯宗9)

以 顯宗戊申六月
二十六日戌時降今

上己酉五月二十七
日卒享年六十二辛
巳筮仕內而 明
陵參奉尙衣別提禁
府都事漢城判官尙
衣司宰僉正再除繕
工副正四差宣惠郎
廳翊衛司翊衛外而
咸興判官朔寧永川
安山安岳郡守光州
公州星州牧使

前配南陽洪氏縣監
諱受業之女貞慤端
淑婦道甚備丙午生
辛巳正月初八日卒
育二男一女男長諱
堉進士佐郎卽成鎮
先君子次諱埴進士
牧使女適大司諫宋
教明

繼配南陽洪氏 贈
參判諱鉉之女柔嘉
謹順事君子無違乙

6월 26일 술시(戌時)에 태어나 금상 기유년(英
祖 5) 5월 27일 돌아갔으니 향년 62세였다. 신
사년(肅宗 27)부터 서사(筮仕)하여 내직(內職)
으로

명릉참봉(明陵參奉:明陵은 肅宗을 지칭)과 상
의별제(尙衣別提), 금부도사, 한성판관, 상의사
재(尙衣司宰)·첨정(僉正)을 거치고 선공부정은
두차례 제수하였으며, 선혜낭청과 익위사익위는
네차례나 역임하였다. 외직(外職)으로는 함흥판
관과 삭녕(朔寧)·영천(永川)·안산(安山)·안악
(安岳) 등지의 군수(郡守)와 광주(光州)·공주
(公州)·성주(星州) 등지의 목사(牧使)를 지냈
다.

전배는 남양홍씨로 현감을 지낸 휘(諱) 수업(受
業)의 따님인데 정각(貞慤:마음이 곧고 성실
함)하고 단숙(端淑)하여 부도를 겸비하였다. 병
오년(顯宗 7) 출생하여 신사년(肅宗 27) 정월
초 8일 돌아가셨다. 2남 1녀를 길렀으니 아들로
장남의 휘(諱)는 완(堉)인데 진사시에 합격하고
좌랑을 지냈으니 이분이 곧 성진(成鎭)의 선군
자(先君子:아버지)이다. 다음은 휘(諱)가 식(埴)
으로 진사시에 합격하여 목사(牧使)를 지냈다.
따님은 대사간(大司諫) 송교명(宋教明)에게 출
가하였다.

계배도 남양홍씨로 참관에 증직된 휘(諱) 현(鉉)
의 따님으로 유근(柔謹)하고 가순(嘉順)하여 군자
(君子:李喜聃)을 섬김에 있어 어긋남이 없었다.

丑生丙子四月十八日卒育一男一女男諱綏進士僉正女適參判趙載洪側室女適鄭志淑

長房配參判朴公諱鳳齡女有二子長憲鎮進士牧使次不肖成鎮進士前郡守次房配大司諫趙公諱景命女無嗣取不肖爲后三房初配參奉趙明箕女生二女

再配縣令洪尙彦女生一女三配尹光恒女生三男一女男長宰鎮次宰鎮壻進士元有曾判官吳在文閱升烈大諫男宋翼洙前郡守參判男趙廣鎮應鎮壻徐有後進士韓晚裕尹魯東憲鎮壻金相猷成鎮壻洪樂述宋翼洙男宋俊載偉載壻徐有質其餘內外孫曾玄男女並幼

을축년(肅宗 11) 태어나 병자년(英祖 32) 4월 18일 돌아가셨다. 1남 1녀를 길렀으니 아들의 휘(諱)는 수(綏)로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첨정(僉正)을 지냈고 따님은 참판(參判) 조재홍(趙載洪)에게 출가하였다. 측실에서의 따님은 정지숙(鄭志淑)에게 출가하였다.

장방(長房: 장남 堉)의 부인은 참판 박공(朴公) 휘(諱) 봉령(鳳齡)의 따님으로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장자는 헌진(憲鎭)으로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목사(牧使)를 지냈으며, 다음은 불초인 성진(成鎭)으로 역시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전에 군수를 지냈다. 차방(次房: 埴)의 부인은 대사간(大司諫) 조공(趙公) 휘(諱) 경명(景命)의 따님인데, 후사(後嗣)가 없어 불초를 취하여 뒤를 이었다. 삼방(綏)의 초배는 참봉(參奉) 조명기(趙明箕)의 따님으로 딸 둘을 낳았고,

재배는 현령(縣令) 홍상언(洪尙彦)의 따님으로 딸 하나를 낳았으며, 삼배는 윤광항(尹光恒)의 따님으로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 아들중 장남은 재진(宰鎭)이고 다음은 채진(宰鎭)이고 사위는 진사(進士) 원유증(元有曾)과 판관(判官) 오재문(吳在文), 민승열(閔升烈)이다. 대간(大諫: 宋敎明)의 아들은 송익수(宋翼洙)로 전에 군수(郡守)를 지냈고, 참판의 아들은 조광진(趙廣鎭)과 응진(應鎭)이며, 사위로 진사(進士) 서유후(徐有後), 한만유(韓晚裕), 윤노동(尹魯東) 등이 있다. 헌진(憲鎭)의 사위는 김상유(金相猷)이고 성진(成鎭)의 사위는 홍악술(洪樂述)이며, 송익수(宋翼洙)의 아들은 송준재(宋俊載)이다. 위재(偉載)의 사위는 서유질(徐有質)이며 그 나머지 내외의 증손과 현손의 남녀는 모두 어리다.

府君風儀端重稟性
寬和平居無疾言遽
色接人有誠心雅量
常以早孤爲至恫終
身追慕尤篤於友睦
撫恤孤窮俾有成立

從宦殆三十載按大
州府者三十二考產
業不曾饒服無侈具
案無兼味居處淡泊
怡然自適嘗見黨議
潰裂世道陷溺心竊
憂歎人有談時論者
若無聞而無官則終
日清坐惟以杯酌碁
局消遣其於馳逐交
遊斷如也先是

前妣申夫人育一男
早卒無后府君以先
意主祀晚年上言于
朝以長子繼其后奉
先祀一世賢之初葬

부군의 풍의는 단중하고 품성(稟性)은 관화(寬和: 너그럽고 온화함)하였으며 평거 질언함이나 거색(遽色)함이 없었다. 사람을 접할 때에는 성심(誠心)을 다하고 아량(雅量)이 있었고, 항상 일찍이 고아가 된 것을 대단히 슬퍼하며 종신토록 추모(追慕)하였다. 친구간에는 화목하기를 더욱 돈독하게 하였고 고궁(孤窮: 외롭고 궁핍)들을 무휼(撫恤)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립(成立)케 하였다.

벼슬을 한지 거의 30여년동안 큰 주(州)나 부(府)를 안찰(按擦)한 곳이 32곳인데, 산업을 돌봄에 있어서는 일찍이 요복(饒服: 좋은 옷)을 입지 않았고 구안(具案)함에는 사치하지 않았으며, 겸미(兼味: 두가지 이상의 음식을 맛봄)하지 않았다. 거처함에 있어서는 담박하고도 이연하게 자적하였다. 일찍이 당의(黨議)가 궤열(潰裂)지고 세도(世道)가 함익(陷溺: 함정이나 물에 빠짐)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우탄하였다. 시론(時論)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만약 들어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관에 일이 있지 않으면 종일토록 자리에 앉아 오직 청작(淸酌)으로 술잔을 기울이거나 바둑을 두며 소견(消遣: 율적인 마음을 풀)하였으니 그 교유(交遊)를 치축(馳逐: 달려가서 좇음)함이 한결같이 이와 같았다.

먼저 전비인 신부인이 아들 하나를 길렀으나 일찍 죽어 후사(後嗣)가 없자 부군(府君)은 먼저 제사를 주관케 하고 만년(晩年)에 조정에 상언(上言)하여 장자(長子: 塏)으로 그 후사(後嗣)를 잇게하여 선조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일세

于廣州寺谷後改卜
于龍仁縣東雲泉里
向未之原兩淑人合
奉不肖孫成鎮既堅
墓前之石又恐石久
字剝無所考徵謹移
作幽堂之誌

不肖孫成鎮謹誌

에서 이를 현명하다고 칭송하였다. 처음에는 광주(廣州)의 사곡(寺谷)에 장례하였다가 후에 용인현의 치소 동쪽인 운천리(雲泉里)를 정하여 개장(改葬)하였으니 미좌의 언덕으로 두 부인을 합봉(合奉)하였다. 불초손(不肖孫) 성진(成鎭)은 이미 묘앞에 비석을 세웠으나 또 비석이 오래되어 글씨가 닳으면 가히 고징(考徵)할 수 없을 것을 걱정하여 삼가 유당의 지(誌)를 이작(移作)하노라.

불초손(不肖孫) 성진(成鎭)은 삼가 짓다.

임정 (林整) 神道碑

正憲大夫禮曹判書
西北面都巡問察理
使兵馬都節度使平壤府尹 諡恭惠公
神道碑銘并序

國初有以文武大才
入爲卿宰而贊襄至
治出爲藩閫而選錄
清白者曰恭惠林公
諱整也嗚呼壬丙之
亂古家

文獻蕩佚於燹劫而
公之平生行蹟並其
字行生年而不傳惟
其歷仕錄載於譜牒
故謹撮而述之公在
高麗禍王朝

歷判都評議錄事判
都染署令判密直堂
後判諸衛郎將承奉
郎都官佐郎通直郎
司憲府持平楊廣道
按廉副使

版圖正郎尙州判官
典法正郎吏曹正郎
知嘉州郡事奉順大

정헌대부 예조판서 서북면도순문찰리사 병마절
도사 평양부윤 시 공혜공 신도비명 병서(正憲大
夫禮曹判書西北面都巡問察理使兵馬都節度使平壤
府尹 諡恭惠公神道碑銘并序)

국초에 문무에 대재가 있어 조정에 들어가서는
경재가 되어 찬양(贊襄)케 하거나 지치하게 하
였고 외직(外職)으로 나가서는 번곤(藩閫)이 되
어 청백리에 선록된 사람으로는 공혜공(恭惠公)
임공(林公) 휘(諱) 정(整)이 있다. 오호라! 임진
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고가(古家)의

문헌(文獻)들이 병화(兵火)에 탕일(蕩佚)되어 공
(公)의 평생과 행적(行蹟), 아울러 그 자(字)와
생년(生年) 등이 전하지 않고 오직 그 역임한
사록(仕錄)이 보첩(譜牒)에 실려있다. 이에 삼가
촬요(撮要:요점을 골라 취함)하여 이를 서술하
노니 공(公)은 고려(高麗) 우왕(禡王)때

판도평의녹사(判都評議錄事) · 판도염서령(判都
染署令) · 판밀직당후(判密直堂後) · 판제위낭장
(判諸衛郎將) · 승봉랑도관(承奉郎都官) · 좌랑(佐
郎) · 통직랑(通直郎) ·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 양
광도안렴부사(楊廣道按廉副使)

판도정랑(版圖正郎) · 상주판관(尙州判官) · 전법
정랑(典法正郎) · 이조정랑(吏曹正郎) · 지가주군
사(知嘉州郡事) · 봉순대부(奉順大夫) 의주목사

夫義州牧使兼萬戶
通憲大夫仍義州牧
使等職

入 本朝太祖元年
壬申後二十年間內
而爲嘉善大夫工曹
典書嘉靖大夫中樞
院副使漢城府尹同
知議政府事義興三
軍府左軍摠制承樞
府左軍摠制兼判宗
簿寺事承樞府中軍
摠制參知承樞府事
參知議政府事兼判
禮賓寺事資憲大夫
判恭安府事左軍都
摠制右軍都摠制正
憲大夫刑曹判書外
而爲嘉善大夫

慶尙道都鎮撫使嘉
靖大夫江界都兵馬
使西北面都巡問察
理使慶尙道都觀察
黜陟使豐海道都觀
察黜陟使

忠淸全羅慶尙三道
都體察使兼水軍節
度使東北面都巡問

(義州牧使) 겸(兼) 만호(萬戶) · 통정대부(通憲大
夫)에 이어 의주목사(義州牧使) 등의 직(職)을
역임하였다.

본조(本朝: 朝鮮)에 들어와서는 태조(太祖) 원년
(元年) 임신년(丁申年: 1392년, 태조 1) 이후 20
여년간 내직(內職)으로는 가선대부(嘉善大夫) 공
조판서(工曹典書) · 가정대부(嘉靖大夫) 중추원부
사(中樞院副使) · 한성부윤(漢城府尹) · 동지의정
부사(同知議政府事) ·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 좌
군총제(左軍摠制) · 승추부(承樞府) 좌군총제(左
軍摠制) 겸(兼)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 승추부
(承樞府) 중군총제(中軍摠制) · 참지승추부사(參
知承樞府事)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겸 판예빈시사(判
禮賓寺事) · 자헌대부(資憲大夫) 판공안부사(判恭
安府事) · 좌군도총제(左軍都摠制) · 우군도총제(
右軍都摠制) · 정헌대부(正憲大夫) 형조판서(刑曹
判書) 등을 지냈고 외직(外職)으로는 가선대부
(嘉善大夫)

경상도도진무사(慶尙道都鎮撫使) · 가정대부(嘉
靖大夫) 강계도병마사(江界都兵馬使) · 서북면도
순문찰리사(西北面都巡問察理使) · 경상도도관찰
출척사(慶尙道都觀察黜陟使) · 풍해도관찰출척사
(豊海道都觀察黜陟使)

충청(忠淸) 전라(全羅) 경상(慶尙)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겸(兼)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동북면도순문찰리사(東北面都巡問察理使) · 길주

察理使吉州都按撫
察理使資憲大夫忠
清道

兵馬都節度使全羅
道兵馬都節度使正
憲大夫東北面都巡
問察理使兼兵馬都
節度使永興府尹而
兼內外職或再任或
三四任至於五六任
也其莅西北面豐海
道忠清全羅慶尙三
道也俱有 綸旨
王若曰卿稟氣

森嚴立志剛毅寬而
有制和而不流盖嘗
鎮是封疆之人服其
威感其德無不愛而
畏之又曰惟卿器宇
寬弘識見

明敏文武全才可當
大任作倅兩邑而民
吏畏服佐幕合浦而
士卒歸心摠戎江界
巡問平壤號令嚴肅

도안무찰리사(吉州都按撫察理使)·자헌대부(資
憲大夫) 충청도

병마도절도사(忠淸道兵馬都節度使)·전라도병마
도절도사(全羅道兵馬都節度使)·정헌대부(正憲
大夫) 동북면도순문찰리사(東北面都巡問察理使)
겸 병마도절도사(兵馬都節度使)·영흥부윤(永興
府尹) 등을 역임하였으니

내직과 외직을 겸한 것이 두번 혹은 서너번에서
오육번에 이르고 그 이직(莅職)한 곳은 서북면
(西北面)·풍해도(豐海道)·충청(忠淸) 전라(全
羅) 경상(慶尙) 3도(道) 등이다.

모두 윤지(綸旨: 임금의 말씀)가 있었는데, 왕이
이르기를 “경(卿)의 성품은

삼엄(森嚴)하고 뜻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강의
(剛毅)하였으나 너그러웠고 제령(制令)에 있어서는
화순(和順)하여 내침이 없었으니 대개 일찍
부터 진무(鎭撫)한 것이니 이것은 봉강(封疆: 國
土를 지칭)의 백성들이 그 위령(威令)에 복속하
고 그 덕(德)에 감복(感服)한 것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없어 이를 외경(畏敬)하였다”라고 하
였고, 또 이르기를 “오직 경(卿)의 기우(器宇)는
관홍(寬弘)하고 식견은

명민(明敏)하였으며, 문무(文武)에 모두 재주가
뛰어나 가히 대임(大任)을 맡길만 하다”고 하
였다. 두 읍(邑)의 수령(守令)이 되어서는 백성
과 이속(吏屬)들이 외복(畏服)하였고 합포(合
浦)를 좌막(佐幕: 幕僚)할 때는 사졸(士卒)들이

귀심(歸心)하였으며, 강계를 총융(摠戎)할 때나 평양을 순문(巡問)할 때 호령(號令)함에는 엄숙하였다.

政事宣昭邊鄙無不虞之變黎庶獲安居之樂凡所經歷灼有成效是用嘉績又曰卿處身由儉莅事以勤內蘊匡君

정사(政事)로써 변도(邊鄙:邊城)에서 선소(宣召:임금의 부르심, 宣招)되기도하여 불우(不虞)가 없이 여서(黎庶:백성)들이 안거낙업을 얻었음을 아뢰었다. 무릇 경력한 곳은 작작(灼灼)하여 성효가 있었으니 이것이 그 가적이다.

之志外著治民之才爲監司則民慕其德握樞務則衆稱其義服勞日久譽望益隆豫實嘉之大哉 王言此足以知公之梗槩而其孝於父母友於兄弟御家以禮訓子以義之內行亦可推也

또 왕께서 이르시기를 “경(卿)이 처신(處身)함은 검덕에서 비록하고 이사(莅事)함에는 근간하여 조정안에서는 광군(匡君)함을 온합(蘊含)하였고 외직(外職)으로 나와서는 치민의 재주를 떨쳤도다. 감사가 되어서는 백성들이 그 덕(德)을 사모하였고 추무(樞務)를 담당하여서는 그 의(義)를 떨쳐 복노(服勞)하는 기간이 오래일수록 예망은 더욱 융연(隆然)하여 그 기쁨이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왕의 말씀으로 족히 공(公)의 경개(梗槩)를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또 부모에게는 효(孝)로써 다하고 형제에게는 우애로써 하고 어가함에는 예(禮)로써 하고 자식을 훈계함에는 의(義)로써 하였으니 그 내행 또한 가히 추측할 수 있다.

太宗庚寅以正朝進賀使入朝中原受帝稱嘉賜馬一匹翌年回還拜禮曹判書西北面都巡問察理使兼兵馬都節度使

태종(太宗) 경인년(庚寅年:1410년, 태종 10) 정조진하사(正朝進賀使)로서 입조(入朝)하였는데 중원(中原)에서 황제(皇帝)가 이를 기뻐하여 하사한 말(馬) 한 필을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다시 돌아와 예조판서(禮曹判書)·서북면도순문찰리사(西北面都巡問察理使) 겸(兼) 병마도절

平壤府尹癸巳

도사(兵馬都節度使)·평양부윤(平壤府尹)을 배수(拜授)하였다. 계사년(癸巳年:1413년, 태종 13)

四月二十八日損館于任所訃聞 上震悼輟朝致吊祭如儀仍賜諡曰恭惠成宗朝選清白吏 聖朝前後

4월 28일 임소(任所)에서 돌아가시자 부음(訃音)을 듣고 왕께서 진도(震悼:임금이 신하의 죽음을 탄식함)하시고 철조하며 치제하기를 의례(儀禮)에 맞게 하였으며 거듭 시호를 내리시니 공혜(恭惠)이다. 또 성종(成宗) 때에는 청백리(清白吏)에 녹선(錄選)되었으니 성조(聖朝) 전후의

崇報之典至是而無遺憾矣林氏系出平澤以殷太保諱八及爲始祖羅麗以降簪紳蟬嫣有諱世春世子典客令

숭보지전(崇報之典)이 여기까지 이르렀음에 유감(遺憾)이 없다고 하겠다. 임씨(林氏)는 계출이 평택(平澤)으로 중국 은(殷)나라에서 태보(太保)를 지낸 휘(諱) 팔급(八及)으로서 시조(始祖)를 삼는다.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잠신선언(簪紳蟬嫣)하다가 휘(諱) 세춘(世春)에 이르러 세자전객령(世子典客令)을 지냈다.

是生諱梓禮儀判書寶文閣大提學是生諱台順司僕寺尹寔公三世也妣淑夫人原州元氏版圖侍郎業女

이분이 휘(諱) 재(梓)를 낳으니 예의판서(禮儀判書) 보문각대제학을 지냈고, 이분이 휘(諱) 태순(台順)을 낳으니 사복시윤(司僕寺尹)을 지냈으니 이분들이 공(公)의 3세(世)이다. 비(妣:어머니)는 숙부인(淑夫人) 원주원씨(原州元氏)로 판도시랑(版圖侍郎) 업(業)의 따님으로

舉三男公其長而弟諱現黃海兵使諱寶縣監也配貞夫人清州韓氏禮儀判書光漢女生三男一女男長曰仁山

3남(男)을 낳았는데, 공(公)은 그중 장남이다. 동생 휘(諱) 현(現)은 황해병사(黃海兵使)를 지냈고 휘(諱) 보(寶)는 현감(縣監)을 지냈다. 배는 정부인 청주한씨로 예의판서(禮儀判書) 광한(光漢)의 따님인데 3남 1녀를 낳았으니, 아들중 장남은 인산(仁山)으로

兵曹參判仲曰命山
吏曹判書季曰甲山
左承旨女適李伯寬
孫男得禎兵馬節度
使得老左副承旨自
號瞽瞍居士

累徵不出得長定州
牧使長房出壽昌兵
曹參判壽長谷山府
使壽延甌山縣令仲
房出啓楚山郡守季
房出

曾以下不能悉載而
其最顯者玄孫千孫
同中樞兼副摠管
中廟靖國時以扈駕
勞參原從勳栗谷李
文成公

撰神道碑八代孫慶
業 皇明副摠兵本
朝節度使 贈左贊
成諡忠愍以貞忠大
節名聞華夷享忠州

忠烈祠自餘文學仕
宦忠孝功烈代不乏
聞而且子姓益熾而
昌蔚然爲國中之望

병조참판을 지냈고, 둘째는 명산(命山)으로 이조
판서를 지냈으며, 막내는 갑산(甲山)으로 좌승지
에 이르렀으며, 딸은 이백관(李伯寬)에게 출가하
였다. 손자로 득정(得禎)은 병마절도사를 지냈고
득노(得老)는 좌부승지를 지냈으며 고농거사(瞽
瞍居士)라고 자호(自號)하였는데

여러차례나 조정(朝廷)의 부름을 받았으나 벼슬
에 나가지 않았다. 득장(得長)은 또 정주목사를
지냈다. 장방(長房:仁山)의 소생인 수창(壽昌)은
병조참판에 이르렀고 수장(壽長)은 곡산부사를,
수연(壽延)은 증산현령을 지냈으며, 중방(仲房:
命山)의 소생인 계(啓)는 초산군수를 지냈고 계
방(季房:甲山)의 소생부터

중손(曾孫) 이하는 모두 능히 기록할 수 없다.
그러나 그중 가장 현달(顯達)한 사람은 현손(玄
孫) 이하의 손(孫)중에서 약간 있는데, 동중추
(同中樞) 겸 부총관(副摠管)으로 중묘(中廟:中
宗)의 정국(靖國)에 호가(扈駕)의 노고로 원종훈
(原從勳)에 참여하였으며 울곡(栗谷) 문성(文成)
이공(李公:李珣)이

신도비(神道碑)를 지은 8대손(代孫) 경업(慶業)
이 있다. 그 분은 황명의 부총병으로 본조에서
절도사를 지냈으며 좌찬성에 증직되고 충민(忠
愍)이라는 시호(諡號)가 내려졌는데, 정충대절
(貞忠大節)로써 이름을 화리(華夷) 사이에 떨쳤
으며 충주(忠州)의

충열사(忠烈祠)에 향사(享祠)되고 있다. 그밖에
문학(文學)이나 사환(仕宦), 충효, 공열(功烈)이
대대로 단절되지 않고 명성을 떨쳤으며 또 자
성(子姓)이 더욱 치창(熾昌)하고 울연(蔚然)하여

盖亦公之德蔭緒業
有以啓之也

국중(國中)에서 망족(望族)이 된 것은 대개 또한
공(公)의 덕음(德蔭)과 서업(緒業)으로 말미암은
것이였다.

噫公之合封墓在龍
仁下東村卯峰洞負
卯之原而成廟壬
寅賜牌四山十里周
回癸卯立神道碑于
墓下

회(噫)라! 공(公)의 합장(合葬)한 묘(墓)는 용인
(龍仁)의 하동촌(下東村) 묘봉동(卯峰洞)을 뒤
로 하고 있는 묘좌(卯坐: 동향)의 언덕에 있는
데, 성묘(成廟: 成宗) 임인년(성종 13)에 사방
의 산 10리(里) 주회(周回: 둘레)가 사패지(賜
牌地)로 내려졌고, 계묘년(중종 38)에는 묘(墓)
아래

三十步許壬亂後碑
石埋沒尙未搜尋只
有表石今諸令裔爲
是之慨欲堅大碑川
賁神道老友炳千甫
以一宗之意

30보 정도 떨어진 곳에 신도비(神道碑)가 세워
졌으나 임진왜란 직후 비석(碑石)이 매몰(埋沒)
되어 다시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단지 표석(表
石)만이 있을 뿐이어서 지금 여러 영예(令裔: 令
孫)들이 이를 개탄하여 큰 비석을 세워 신도의
천자(川資: 여행의 비용, 旅費)로 삼고자하여 노
우(老友)가 나타날 것을 기다려 종종(宗中)의 한
결같은 뜻으로

請余以銘余固人微
文拙何足以徵公於
無窮屢辭而不獲命
乃爲之敘次如右系
以銘曰

나에게 명(銘)을 청하였다. 이에 나는 사람이 천
하고 문장 또한 무디어 어찌 공(公)의 무궁한
공업을 징험할 수 있을 것인가하고 두번·세번
수차례에 걸쳐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그 사양함
을 얻지 못하여 이내 서차(敘次)하니 세계(世系)
는 오른쪽과 같노라. 명(銘) 하기를

猗歎恭惠國朝名臣

아! 공혜공(恭惠公: 林整)은 국조(國朝)의 명신
(名臣)으로

敏達之才魁傑之身

충명하고도 달통(達通)한 재주, 괴걸(魁傑)한 몸
매를 겸하였네

堅確其志如金如石

그 뜻은 견확(堅確: 견고하고 확실함)하기가 황
금과 같고 돌과 같았고

清白其操如冰如檠	그 지조 청백(淸白)하기가 어름과 같고도 회양 나무 [檠]와 같았다네
歷事三朝踐敷顯職	세 임금을 섬기기에 현직(顯職: 높은 직책)을 천양(踐敷)하여
內長二曹秋判宗伯	내직(內職)으로는 2조(曹)의 장(長)과 추판(秋判: 병조판서), 그리고 종백(宗伯)이 되었다네
再尹京兆四入鴻樞	2차례의 한성윤(漢城尹)을 역임하고 4차례나 추밀원(樞密院)의 장(長)이 되었으며
三軍摠制六爲節度	삼군(三軍)을 총제(摠制)하고 6차례나 절도사(節度使)를 지냈다네
巡問西北按察四道	서북면(西北面)을 순문(巡問)하고 사도(四道)를 안찰하여
上眷益隆望實俱茂	왕의 총애가 더욱 융성하여 그 우리름은 실로 무성하였네
餘慶流澤貽遺于後	그 여경(餘慶)과 유택(流澤)은 후손에게 이유(貽遺)되었고
後承振振永繩祖武	후승(後承: 後嗣)은 진진(振振)하여 조무(祖武)는 영원히 계승되었으며
厥述孔大家聲不墜	그 업적 매우 커 가정(家聲)은 떨어지지 않았다네
睠彼卯峯衣履之藏	저 묘봉(卯峯)의 의리지장(衣履之藏)을 돌아보니
光氣紛郁山高水決	산고수결(山高水決)하여 광기(光氣)가 더욱 옥열(郁烈)하도다
琢琢豐珉用樹幽堂	풍민(豐珉)한 돌을 잘 다듬어 유당(幽堂: 묘소)에 세우니
我作銘歌昭眎無疆	내가 지은 명가(銘歌) 영원토록 빛나라

光山後人 金容駿 光山(광산) 후인(後人) 김용준(金容駿)은 삼가
謹撰 글을 짓고
集韓濩書 羅禹鏞 한호(韓濩)의 글씨를 모아 쓰고 나우용(羅禹鏞)
謹集字 이 삼가 글자를 집자(集字)하다.
癸亥十月 日堅 계해년(癸亥年:1923년) 10월 일 세우다.

정규징(鄭奎徵) 墓碣

公諱奎徵字文伯少好文丙辰朝廷取萬武遂中一第始由守門將歷司畜別提典獄主簿司憲府監察武臣兼宣傳官訓練院判官僉正中樞府經歷都摠府都事於外爲孟山縣監慶尙右兵營虞候

己巳群凶構禍喜偵人動靜公往問竄逐諸公不少懼一名官在餞席目之曰鄭僉正獨不欲仕耶朴學士泰輔爲國母諫死公初不識其面日候於金吾門外其竄也送至露江又哭其死甚哀見者莫不義之

공(公)이 휘(諱)는 규징(奎徵)이고 자(字)는 문백(文伯)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고 병진년(丙辰年: 1676년, 숙종 2) 조정(朝廷)에서 무예에 뛰어난 사람을 선발할 때 1등으로 합격하여 비로소 수문장(守門將)이 되었다. 이후 사축별제(司畜別提)·전옥주부(典獄主簿)·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으니 무신(武臣)으로서 겸직이었으며, 선전관(宣傳官),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첨정(僉正), 중추부경력(中樞府經歷), 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를 역임하였다. 외직으로 나가서는 맹산현감(孟山縣監), 경상우병영우후(慶尙右兵營虞候)를 지냈다.

기사년(己巳年: 1689년, 숙종 15) 군흉(群凶)들이 사화(士禍)를 일으키고 정탐꾼을 보내 동정을 살피는 한편, 공(公)은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였으며 제공(諸公)들을 찬축(竄逐: 먼 곳으로 귀양 보냄)하는데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없었다. 이때 한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서 전송하는 자리에 함께하며 이를 보고 말하기를 “정첨정(鄭僉正)만이 홀로 벼슬하고자 하지 않는도다”라고 하였다. 학사(學士) 박태보(朴泰輔)가 국모(國母)를 위해 간쟁(諫爭)하다가 죽었는데, 공은 이때 그 얼굴도 알지 못하다가 하루는 금오문(金吾門) 밖에서 그가 쫓겨나 노강(露江)에 이르는 것을 보고, 또 죽음에 이르러서는 애통해함이 심하였으니 보는 사람들이 불의(不義)를 막막해 하였다.

及張氏僭號百官廷賀公至闕下托疾不入 聖母居私第過者往往不下公輒望門而趨公職雖卑微以國事罔極每語泣下如注公蓋圃隱鄭文忠先生十世孫也事親孝母病嘗糴話苦出指血進之居喪致毀奉祭以誠其內行如此喪餘日以家廟在鄉露處哀哭時有寒疾求汗家人固止之不聽疾遂革以甲戌三月十七日卒年五十八葬於龍仁慕賢村先兆乙坐之原

公姿性醇厚當事未嘗輕露聲色燕語絕不論人是非無貴賤待以誠慤鄉隣感服每以未究儒業爲恨勸子弟學文又能被服儉素於財利不苟取

장씨(張氏: 장희빈)이 참호(僭號: 僭稱)함에 이르러 조정의 백관(百官)들의 축하하자 공은 대궐 아래에 이르러 병을 핑계하여 들어가지 않았다. 성모(聖母)께서 사제(私第)에 거처하시게 되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예의를 표하지 않았으나 공은 문득 문을 바라보며 예의를 갖추었으니 공의 직책이 비록 비루하였으나 국사(國事)에는 망극해하여 매양 말을 할 때는 눈물을 흘리기를 물이 흐르듯이 하였다.

공(公)은 대개 포은(圃隱) 정문충공선생(鄭文忠公先生)의 10세손으로 부모를 모시는데 효성을 다하여 어머니가 일찍이 병이 나시자 대변이 달고 쓴 것을 맛보아 가늠하였고, 피를 내어 이를 바치기도 하였다. 상(喪)을 당해서는 애훼(哀毀)하였고 제사를 받들 때는 정성을 다하였으니 집안에서의 일의 이와 같았다. 상(喪)을 마치고는 가묘(家廟)가 향리(鄉里)에 있음에 애곡(哀哭)할 때는 추위가 있을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땀이 날 정도여서 집안 사람들이 그치기를 간청하여도 듣지 않았다. 병에 걸려 갑술년(甲戌年) 3월 17일 갑자기 돌아가니 나이는 58세였고 용인(龍仁) 모현촌(慕賢村)의 선영(先塋) 을좌(乙坐)의 언덕에 장례하였다.

공(公)은 자성(姿性)은 순후(醇厚)하여 일을 당하여도 일찍이 가벼이 여기거나 안색이 변하지 않고 편안하게 말하였으며, 사람의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았다. 귀천(貴賤)을 가려 사람을 대하지 않고 성각(誠慤)으로 대하니 향리(鄉里)에서 감복(感服)하기도 하였다. 매양 유업(儒業)을 하지 않음을 한(恨)으로 여겨 자제(子弟)들에게는 학문하기를 권하였고, 또 옷을 입음에도 검소하였으며 재리(財利)에 있어서는 구차하게 취하지 않았다.

有富人殺公守庄奴請以累百金償之公却其贏利在嶺營時州有四衙各置屠夫擊民家拘殆無遺者公愍然口彼亦有血氣之類耳日殺無罪吾所不忍也子弟爲裝笥要一皮亦不許其外害民之政一切罷之及歸州民送餞者數百人

鄭氏出迎日考諱公翰祖諱佶司果曾祖諱從善縣監固城李楸外祖也公凡再娶水原崔氏天峻之女有一男一女男纘先壻士人李喜龜德水李氏其考萬齡男纘緒側出曰纘興徐宗鎔權諲妻也長房男鐔錠鍵鏹女適李徵鳳韓光輔次房一子鏹鐔男民濟仁濟錠男應濟世濟鍵二男翼濟頤濟纘緒來乞銘銘曰

어떤 부자가 공의 수장노비(守庄奴婢)를 살해하고는 수백의 금(金)으로 대가를 치루려고 하자 공은 그 영리(贏利)를 물리쳤으며, 영영(嶺營)으로 있을 때는 주의 네곳 아문(衙門)에 각각 도부(屠夫:백정)을 두어 민가(民家)의 개를 잡곤 하여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지게 되자 공은 민연(愍然:가엾은 모양)히 말하기를 “저들 또한 혈기(血氣)가 있는 동물인데 날마다 죄없이 죽임을 당하니 나는 참을 수 없다”고 하여 자제(子弟)들에게 옷상자라도 조금의 가죽을 사용한 것은 또한 허락하지 않았고, 그밖의 백성을 해치는 정치는 일체 금하였으니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이를 송전(送餞)하는 백성이 수백명이나 되었다.

정씨(鄭氏)의 본관은 영일(迎日)으로 아버지는 휘(諱)가 공한(公翰)이고, 조(祖)는 휘(諱)가 길(佶)인데 사과(司果)를 지냈으며, 증조(曾祖)는 휘(諱)가 종선(從善)으로 현감(縣監)을 지냈다. 공성이씨(固城李氏) 즈(楸)이 외조(外祖)이다. 공(公)은 재취(再娶)하였는데, 수원최씨(水原崔氏)는 천준(天峻)의 따님으로 일남 일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찬선(纘先)이고 사위는 사인(士人) 이희구(李喜龜)이며, 덕수이씨(德水李氏)는 만령(萬齡)의 따님으로 아들은 찬서(纘緒)이다. 또 측출(側出)은 찬흥(纘興)과 서종육(徐宗鎔)과 권황(權諲)의 부인이다. 장방(長房:纘先)의 아들은 심(鐔)·환(錠)·건(鍵)·수(鏹)이고 딸은 이징봉(李徵鳳)·한광보(韓光輔)에게 출가하였으며, 차방(次房:纘緒)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선(鏹)이다. 심(鐔)의 아들은 민제(民濟)·인제(仁濟)이고, 환(錠)의 아들은 응제(應濟)·세제(世濟)

이며, 건(鍵)의 두 아들은 익제(翼濟)·이제(頤濟)이다. 찬서(續緒)가 와서 명(銘)을 부탁함에 명(銘)을 하노라.

夫士平居讀書談道
義而遇毫髮利害或
一趨而一避孰如公
毅然義形於色雖處
危世居下位而能盡
吾心而無愧是固得
於天而源於孝亦爾
祖遺風之所自胡天
不與以年爲我腹心
干城之寄文秀之山
數尺之石猶足以表
素志

陶菴 李緯 撰

명하기를

무릇 선비란 평상시에는 독서를 즐기며 도의(道義)를 담론(談論)하지만, 조금의 이해(利害)에 있어서는 한편으론 쫓고 한편으론 피한다네

누가 공(公)과 같이 의연(毅然)하게 의형어색(義形於色 : 가슴속에 정의를 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외모에 나타남)하겠는가.

비록 위험한 때를 당했어도 낮은데 거처하여 능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하늘에서 얻은 것이요, 효성(孝誠)에서 원천한 것이니 또한 조상이 남겨준 유풍(遺風)에서 비롯된 것이로다.

어찌 하늘은 수명을 주지 않아 나에게 진심으로 간성(干城)의 부탁을 하였는가.

문수산(文秀山) 수척(數尺)의 비석만이 본래의 뜻을 드러내는데 족할지어다.

도암(陶菴) 이재(李緯)는 글을 짓다.

정덕징(鄭德徵) 神道碑

有明朝鮮國嘉善大夫咸鏡南道兵馬節度使鄭公神道碑銘并書

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世子右賓客李紱撰

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 金鎮商書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使 俞拓基篆

節度使鄭公德徵歸老于龍仁之楓溪余自流寓以來相去不遠雖文武殊塗而公圃隱家賢孫且有儒將風一往候之風骨清爽圖書齊整殊小塵俗氣時黃花盛開公出一盆示之蓋取其晚節也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가선대부(嘉善大夫) 함경남도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 정공(鄭公) 신도비명(神道碑銘) 병서(并書)

자헌대부(資憲大夫)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 겸(兼)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 이재(李紱)는 글을 짓고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진상(金鎮商)은 글을 썼으며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행(行)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유척기(俞拓基)는 전액(篆額)을 하다.

절도사(節度使) 정공(鄭公) 덕징(德徵)이 용인(龍仁)의 풍계(楓溪)로 귀로(歸老)하고 있는데, 나(李紱) 또한 스스로 유우(流寓)한 이래 서로 떨어져 있음이 멀지 않았으며 비록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이 길이 다르다고 하지만 공(公)은 포은(圃隱) 집안의 현손(賢孫)이고 또 유장(儒將)의 기풍(氣風)이 있었다. 이에 한 번 가서 만나 보니 풍채와 골격이 청상(清爽)하고 도서도 가지런히 정리되고 있어 조금의 티끌이나 속기(俗氣)이 없었다. 이때 황화(黃菊)이 만개(滿開)하고 있었는데, 공은 화분 하나를 내어 이를 보여 주었으니 이것은 대개 晩年의 절개의 뜻을 나타낸 것이었다.

公字聖由延日人圃
隱先生其十世祖也
曾祖諱從善縣監
贈執義祖諱侃 贈
承旨考諱周翰營將
勇略出倫夙負干城
之望而性伉直不耦
於世後 贈參判外
祖綾城具旻

公少業文旋投筆中
庚申武科時年二十四 除宣傳官序陞
訓練院主簿轉判官
公不背隨俗見政官
以是見忤出爲西生
鎮僉使己巳 聖后
遜位公大歸田里混
跡漁樵

戊寅出監鎮安縣適
還丁外憂執喪如禮
比服闋仍留養慈氏
躬耕釣以供甘旨盖
公嘗路逢友人之以
圻宰見星者心驚遂
絕離親宦遊之念云
每日必親設枕席之
具母欲梳頭則躬擲

공의 자는 성유(聖由)이고 연일인이니 포은선생은 그 십세조(十世祖)이다. 증조는 휘(諱) 종선(從善)으로 현감을 지내고 집의에 증직되었고 조는 휘 간(侃)으로 승지(承旨)에 증직되었으며 고 휘 주한(周翰)은 영장(營將)을 지냈는데, 용력(勇略)이 출륜(出倫)하여 일찍부터 간성(干城)의 중망(重望)을 받았으나 성품이 항직(伉直)하여 세상에서 불우(不耦)하였으며 후에 참판(參判)에 증직되었다. 외조(外祖)는 능성구씨 민(旻)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문장을 업(業)으로 삼았으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투필(投筆)하고 경신년(1680) 무과(武科)에 합격하였으니 이때 나이 24세였다. 선전관을 제수하고 서차(序次)에 따라 훈련원주부로 승진하였으며 판관(判官)으로 옮겼는데, 공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정관(政官)을 보임에 이로써 거스름을 당해 외직으로 나아가 서생진첨사(西生鎮僉使)가 되었다. 기사년(1689) 성후(聖后)께서 손위하심에 공은 전리(田里)로 대귀(大歸)하여 고기잡이와 나무를 하며 지냈다.

무인년(1698) 진안현감으로 나아갔다가 체환(適還)되어 부친상(父親喪)을 당했는데, 집상(執喪)함이 예법(禮法)에 비교할만 하였다. 상을 마치고는 그대로 머무르며 자씨(慈氏)를 봉양함에 몸소 밭을 갈고 고기를 잡아 감지(甘旨)를 바치곤 하였는데, 대개 공이 일찍이 길에서 친구를 만난 것이 기재(圻宰)로서 별을 본 것이었음에 마음속으로 놀라 마침내 부모 곁을 떠나 환유(宦遊)하겠다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매일 반드시 몸소 침석지구(枕席之

之出入或遇美味必袖而獻之

間有 除命皆辭遞
又不赴人幕辟坐被
編配母卒不復求仕
人問之則曰親不在
矣復誰爲榮是以絕
跡城市殆十數年良
菴李公稱以武弁中
隱逸

惟一赴羅州營將在
官無大小必盡其心
管下守宰或失體例
雖名官不少饒假列
邑皆敬憚之羅素號
劇邑公久爲兼官剖
決如流多有惠政羅
人至今稱頌下衰

嘗在湖幕用監賑勞
陞嘉善辛丑爲同知
中樞府事兼羽林衛
將時柳鳳輝疏出於
國本既定之後館學

其)를 보아 드리고 어머니가 머리를 빗고자 하
시면 몸소 빗질을 하였으며, 출입할 때 혹 맛있
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옷소매에 넣어 가지고
와서 이를 드리기도 하였다.

그간에 관직을 제수하는 명령도 있었으나 모두
사양하거나 부임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군막(軍幕)의 허물에 연루되어 편배(編
配)를 당하기도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도 다시 벼슬을 구하지 않자 사람들이 이를 물
은 즉 말하기를 “부모가 계시지 않은데 다시
누구에게 영화를 드릴 것인가”라고 하며 이로
써 성시(城市)에 발길을 끊은 것이 거의 십수
년이였다. 이에 간암(良菴) 이공(李公:李熙朝)
이 칭송하기를 무변(武弁)중에 은일(隱逸)이라
고 하였다.

오직 한 번 나주영장으로 부임하였는데, 관직에
있으면서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
마음을 다하였으며 관하(管下)의 수재(守宰)들이
혹 체례(體例)를 잃음이 있으면, 비록 명성이 높
은 벼슬아치라고 할지라도 조금도 틈을 주지 않
음에 열읍(列邑)이 모두 이를 경탄하였다. 이에
나주는 본래 일이 많은 고을이라고 불렸으나 공
이 오랫동안 겸관(兼官)이 되어 부결(剖決)함이
마치 물이 흐르 듯하여 많은 혜정(惠政)을 쌓으
니 지금도 나주(羅州) 사람들의 칭송함이 그치
지 않고 있다.

일찍이 호남의 군막에 있으면서는 관아의 물자
를 사용하여 진흩한 공(功)으로 가선계에 올랐
으며 신축년(1721)에는 동지중추부사가 되어 우
림위장을 겸하였다. 이때 유봉휘(柳鳳輝)가 국본
(國本)이 이미 결정된 후에 상소를 올림에 관학

諸生將陳疏請討公
令子孫往參明年
除定州牧使赴官未
數月城池器械噲然
一新俄爲凶徒所劫
適又明年 除驪州
牧使以年限辭遞隸
訓局

時以金姓宮人事疏
啓迭發至甲辰武臣
亦承望時輩旨將聯
名陳疏子續述亦在
軍門公謂義不可同
參凶疏卽以拜墓請
由主將不許遂決意
下鄉續述亦不與焉
凶徒嫉之欲竄逐而
不果

景廟新陟國勢憂虞
公方任軍門涕泣謂
同宗之爲僚者曰君
亦戮力報國無忝我
先祖也仍拔去鞬弓
易之以強曰危疑之
際戎備不可不飭

(館學: 成均館) 제생들이 장차 상소를 올려 이를 내칠 것을 청하려고 하자 공은 자손들에게 명하여 가서 동참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정주목사를 제수하여 부임한지 불과 몇 개월만에 성지(城池: 垓字)와 기계(器械)가 증연(噲然)히 일신(一新)되었으나 갑자기 흉도(凶徒)들에게 탄핵되어 체직하였고 또 다음해에 여주목사를 제수하였다가 임기가 만료됨에 사양하여 체임하고는 훈국에 들어갔다. 이때 김씨(金氏) 성(姓)을 가진 궁인(宮人)의 일로 상소(上疏)와 계문(啓文)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갑신년(1724)에 이르러 무신(武臣)들이 또한 시배(時輩)들의 뜻을 승망(承望)하여 장차 연명(聯名)으로 진소(陳疏)하려고 하였다. 아들 찬술(續述) 역시 군문(軍門)에 있었는데, 공이 의(義)를 이야기하며 흉소(凶疏)에 동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고는 선영(先塋)에 배례(拜禮)할 것을 청하자 주장(主將)이 허락하지 않아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의(決意)하였고 찬술(續述) 또한 참여하지 않자 흉도들은 이를 시기하여 유배를 보내 쫓아버리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경묘계서 새로 등극하시어 국세(國勢)가 우우(憂虞)해짐에 공은 군문(軍門)을 방임(方任)하고 있으면서 체읍(涕泣)하며 동종지위료자(同宗之爲僚者)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 또한 사력을 다해 보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에게 보탬이 없다”라고 하며 이내 장궁(鞬弓)을 발거(拔去)하고 이를 강궁(強弓)으로 바꾸며 말하기를 “위의(危疑)한 때에는 무기를 갖추어 칙칙(勅飭)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乙巳改紀擢拜咸鏡南道節度使公日以修葺武備爲事非雨雪則無日不習射以身先將士又嚴飭烽臺以戒不虞瓜遞差訓局別將又拜副總管道聞時事猝變凶人李森爲主將卽謝病不出會擬試官三違 召坐罷森黨恚甚至請逮問盡奪其告身公又歸鄉里

戊申春亂作蒼黃奔問參原從勦復 除副總管是冬出爲慶尙右道兵馬節度使歎曰吾年踰七旬今不盡職豈復有報國之日斷置私事專意於軍器公廨修繕之役惟日不足別築一庫盛爲儲胥以備緩急又號令嚴肅賞罰分明軍卒立碑思之

을사년(1725) 기강이 고쳐지자 함경남도절도사를 배수하였는데, 공은 매일 무비(武備)를 수습(修葺)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비나 눈이 오지 않으면 하루도 활쏘는 연습을 하지 않는 날이 없었으며 몸소 장사(將士)들에게 먼저 시범을 보였다. 또 봉대(烽臺)를 경계함을 엄칙(嚴飭)으로하여 근심을 없게 하고는 임기가 만료되어 체임하여 훈국별장에 차선되었다. 부총관을 배수하였는데, 길에서 시사가 갑작스럽게 변하여 흉인(凶人) 이삼(李森)이 주장(主將)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시 사양하고 병을 칭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시관(試官)으로 삼고자 회의(會擬)하였으나 세 번씩이나 소명(召命)을 어긴 것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는데, 이삼(李森)의 당여(黨與)들은 성을 냄을 더욱 심하게하여 체포하여 국문(鞠問)하고 그 고신을 진탈(盡奪)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공은 또 향리(鄉里)로 돌아왔다.

무신년(1728) 봄에 난(亂)이 일어나 창황히 분문(奔問)하자 원종훈에 참여하여 다시 부총관을 제수하고, 이때 겨울에 외직으로 나아가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되었는데,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 나이 칠순(七旬)이 지난 지금 이 직책을 다 하지 못한다면, 어찌 다시 국가의 은혜에 보답할 날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는 사사로운 일을 단치(斷置)하고 오로지 군기(軍器)와 공해(公廩)를 수선하는 일에만 뜻을 전념하며 해가 부족함을 염려하였고 창고 하나를 별도로 건립하여 저서(儲胥)를 번성하게 함으로써 완급(緩急)에 대비케 하였다. 또 호령(號令)하는데 있어서는 엄숙하였고 상벌(賞罰)을 분명하게 하니 군졸(軍卒)들이 비(碑)를 세워 이를 사모하였다.

公自是歸臥故里日以琴書自娛穿小塘於門前優游忘世有詠懷一詩曰功名如脫屣歸田世念踈從此無所事臨淵弄遊魚亦可見其暮年風致矣然爲國殉難之志老而不衰取軍裝置傍且立戰馬曰未死之前不幸有急則雖已篤老未能奮身擊賊寸寸奔赴於君所氣盡而死可也

丙辰公年八十陞嘉義己未八月十一日卒于楓溪精舍壽八十三遺命襲用深衣始葬于慕賢村愚山後七年移卜旺龜里卯坐之原皆同縣地也貞夫人全州李氏先公十年歿葬而祔淑德懿行厥有幽誌公端重寡言笑平居夙興正衣冠未嘗頃刻疲臥甚嗜書簡策

공은 이로부터 고향으로 귀와(歸臥)하여 날마다 거문고와 서책으로 스스로를 즐겼고 문 앞에 소당(小塘)을 파서 우유(優游)하며 세상을 잊고 지냈다. 소회(所懷)하는 바를 읊은 한편의 시(詩)가 있는데, 이르기를 “공명(功名)이란 벗어던진 신발과 같아 향리에 돌아오니 세상의 걱정이 트이누나 이를 쫓아 하는 일 없으니 연못에 앉아 노니는 물고기만 희롱하누나”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가히 晩年の 풍치(風致:인품)를 볼만 하였다. 그러나 나라를 위한 순난지지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쇠하지 않아 군장(軍裝)을 옆에 두고 또 전마(戰馬)를 세워 놓고 말하기를 “죽기 전에 불행히도 급한 일이 생긴다면 비록 이미 독로(篤老)하였기에 능히 분신(奮身)하여 적(賊)을 물리칠 수 없지만은 촌촌(寸寸)히 왕에게 달려나아가 힘을 다하고 죽는 것이 옳은 것이리다”라고 하였다.

병진년(1736) 공은 나이 80세로 가의계에 오르고 기미년(1739) 8월 11일 풍계(楓溪)의 정사(精舍)에서 돌아가니 나이 83세였다. 심의(深衣)를 습용(襲用)하라는 유명(遺命)에 따라 처음에는 모현촌(慕賢村) 우산(愚山)에 장례하였다가 7년 후에 왕구리(旺龜里) 묘좌의 언덕에 이장(移葬)하였으니 모두 같은 고을의 땅이었다. 정부인(貞夫人)은 전주이씨로 공보다 10년 먼저 돌아가 장례함에 부장하였다. 숙덕(淑德)하고 의행(懿行)이 있었는데, 이것은 유지(幽誌:墓誌)에 기록되어 있다.

공은 단중(端重)하면서도 말수나 웃음이 적었다. 평상시에는 일찍 일어나 의관(衣冠)을 바로 하였으며 일찍이 잠시라도 피곤으로 인해 눕는 경

常不離手晚年最好
看禮書乃朱子綱目
時或乘輿鼓琴取古
談而已

性至孝語及先父母
則雖八耋之後愴然
興哀淚緣白鬚人不
忍見生日禁子弟不
得設饌尤用力於追
遠之事釐正祭禮之
襲謬者一以先賢定
論爲歸嘗於圃隱墓
傍重新齋室又爲八
世祖雪谷公改豎碑
表以彰節義戒子孫
以學問爲先母爲俗
儒凡厥事行雖古讀
書君子未或過之至
於晚節尤卓然可觀
其謂之圃隱家賢孫
宜哉

續述其長男統禦使
出爲伯父後次續志
二女壻尹燦李益謙
續志男鑄續述繼子
鍵鍵子翼濟聖濟尹
在慶在度在厚李基

우가 없었고 간책(簡策)을 매우 즐겨 읽어 항상
손에서 떠나는 일이 없었는데, 만년에는 『예
서』를 가장 즐겨 보았고 이내 『주자장목』까
지 달통하였다. 때로는 혹 흥에 겨워 거문고를
타며 고담(古談)에 취하기도 하였다.

성품은 지효(至孝)하여 말이 돌아가신 부모에게
까지 미치면 비록 80이 넘은 노인이라 할지라
도 창연(愴然)히 슬퍼하는 기색을 보였는데, 눈
물이 백수(白鬚)에 맺쳐 사람들이 차마 보지 못
하였다. 생일(生日)에는 자제들에게 음식을 차
리지 못하도록 금하였고 추원지사(追遠之事)에
더욱 힘을 다하여 제례(祭禮)의 잘못 전해오는
것들을 바로 잡아 한결같이 선현(先賢)의 정론
(定論)에 맞게 하였다. 이에 일찍이 포은의 묘
소 옆에 새로운 재실(齋室)을 중창(重創)하였고
또 8세조인 설곡공(鄭保)을 위해 비표(碑表)를
개수(改豎)하여 절의(節義)를 드러냈으며 자손
들에게는 학문(學問)을 우선으로 하고 속유가
되지 말 것을 훈계하였다. 무릇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비록 옛날 독서를 한 군자라고 할지
라도 혹 이를 뛰어넘지 못할 바가 있었는데,
만절(晩節: 晩年)에 이르러서는 더욱 탁연하여
가히 볼 만 하였으니, 이를 일러 가히 포은(圃
隱) 집안의 현손(賢孫)이라고 함은 마땅한 일
이로다.

찬술(續述)은 그 장남으로 통어사(統禦使)를 지
냈는데, 출사(出嗣)하여 백부(伯父)의 뒤를 이었
고 다음은 찬지(續志)이며, 2녀의 사위는 윤찬
(尹燦)과 이익겸(李益謙)이다. 찬지(續志)의 아들
은 주(鑄)이고 찬술(續述)의 계자(繼子)는 건(鍵)
이다. 건(鍵)의 아들은 익제(翼濟)와 성제(聖濟)

鼎二壻出也續志以
鄉隣之好來請銘銘
曰

深愛之孝恬退之節
雖在儒行尙少匹敵

矧伊橐鞬不亦奇事
甲冑干櫓忠信仁義

一壑婆婆蕭散圖書
彈琴馴鶴柱杖觀魚

駒城東北梧櫨相望
仕雖殊塗老則同鄉

黃花一盆暮年兩心
圃翁遙遙詩禮可尋

嗟哉後人承受勿替
我銘厥美用眎永世

崇禎紀元後再丁卯
八月 日

이다. 윤재경(尹在慶) 재도(在度) 재후(在厚), 이
기정(李基鼎)은 두 사위의 출생이다. 찬지(續志)
는 향린(鄉隣: 이웃)의 벗으로서 명(銘)을 청하
기에 명(銘)하노라.

심애(深愛)의 효성과 염퇴(恬退)의 절개(節概)는
비록 유자(儒者)의 행실이 있다고 하여도 오히
려 필적(匹敵)할 바 적으리라.

신이탁건(矧伊橐鞬) 또한 기이한 일이 아니어서
갑주(甲冑: 갑옷)와 간노(干櫓: 방패)는 충신(忠
信)과 인의(仁義)의 표상이었네

시골 골짜기의 노인 도서(圖書)로 소산(蕭散: 조
용하고 한가함)하고 거문고를 타고 학을 부리며
막대짚고 물고기 관망(觀望)하였네

구성(駒城)의 동북쪽 오가(梧櫨: 오동나무와 개
오동나무, 즉 남보다 뛰어난 사람을 비유) 상망
(相望)하니 사로(仕路)는 비록 달랐어도 늙어서
는 같은 향리(鄉里)에서 보내네

황화(黃花: 黃菊)의 화분 하나는 모년(暮年: 晚
年)에 두마음이려니 요요(遙遙: 아득한 모양)한
포옹(圃翁: 圃隱)의 시례(詩禮) 가히 다시 찾을
수 있다네

아! 후세의 사람들이여 물려받은 것을 바꾸지
마라 내가 그 아름다움에 명(銘)하여 영세(永世)
토록 보이게 하노라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재정묘(再丁卯: 영조
23, 1747) 8월 일

정도징(鄭道徵) 墓碣

維龍仁治東文秀之
原我烏川鄭氏世葬
之也皇考防禦使府
君年七十七卒而葬

皇妣貞夫人全州李
氏祔其上僅舉六七
畝府君八世祖雪谷
墓其左罔圃隱先祖

墓也府君諱道徵字
聖餘曾祖諱從善抱
川縣監 贈執義祖
諱侃 贈承旨考諱

周翰新昌縣監 贈
參判外祖綾城具公
旻也府君以 孝宗
甲午十一月十二日

生中丙辰武科己巳
見 莊后遜位屏跡
江湖久之由宣傳官
轉都摠府都事訓練

院僉正中樞府都摠
府經歷丁丑出守熙
川郡有志思碑後爲
宣傳官都摠府經歷

용인현 치(治) 동쪽 문수산 둔덕은 우리 오천정
씨 세장지(世葬地)이다. 황고(皇考) 방어사(防禦
使) 부군께서는 77세에 졸하시어 장례를 모셨고

황비(皇妣) 정부인 전주이씨를 합폄(合窆) 하였
다. 그 윗쪽으로 겨우 6·7무보(畝步) 되는 곳에
부군의 8세조 설곡 정보의 묘가 있으며 그 좌측
언덕에 포은 선조묘가 있다.

부군의 휘는 도징(道徵)으로 자는 성여이다. 증
조 휘 종선(從善)은 포천현감으로 집의(執義)에
증직되었고 조(祖) 휘 간(侃)은 증 승지(承旨)요.
고(考)의 휘는 주한(周翰)으로

신창현감을 지냈으며 참판(參判)에 증직되었다.
외조(外祖)는 능성(陵城) 구성(具公) 민(旻)이다.
부군께서는 효종 갑오년(1654) 11월 12일 출생
하시고

병진(1676)에 무과(武科)에 올랐다. 기사년(1689)
장후(莊后)가 손위(遜位)하고 강호(江湖)에서 오
래도록 자취를 가린 때에 연유하여 선전관(宣
傳官)에서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로 옮긴 다
음

훈련원 첨정(訓練院僉正) 증추부와 도총부 경력
을 거치고 정축년(1697) 희천군수(熙川郡守)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송덕비를 세워 주었다. 그후
선전관, 도총부 경력

瑞山郡守忠清兵虞
候甲辰陞大丘營將
乙巳遷禁軍將以闔
帥父年七十進秩嘉

善兼同知中樞府事
尋移順天營將不卦
丙午拜京畿水軍防
禦使及還復爲同知

中樞府使庚戌八月
十八日卒用不肖原
從勳 贈兵曹判書
府君身長氣健有赴
赴儀性淳實無華惡
人修飾能又外知內
確凡於事爲似疎而
不疎似柔而不柔居

官謹嚴清託不行義
所不可則雖上官友
僚不少撓屈少時酒
量甚寬嘗在官過飲

仍以爲戒絕不近口
夫人臨瀛大君諱璆
八代孫考諱厚樾夫
人生於癸巳十月初
一日卒於己酉十月

서산군수, 충청병마절도사가 되었다가 갑진년(1724)에 대구영장(大丘營將)으로 승차 하였고 을사년(1725)에 금군장(禁軍將) 곤수(閔帥)로 옮겼다. 부친께서 70세에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위계에 올라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을 겸하고 있을 때 순천영장(順川營將)으로 옮기도록 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는데 병오년(1726)에 경기 수군방어사에 제배되었다가 돌아와서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경술년(1730) 8월 18일 세상을 마쳤는데, 불초자(不肖子)가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어 병조판서로 증직되었다. 부군은 신장이 기건(氣健)하여 거동에는 씩씩함이 있었으며

성품은 온순하면서도 근실하였고 꾸밈이 없었다. 수식(修飾)하는 사람을 싫어하였다. 또한 외지내확(外知內確)하여 범사(凡事)에 소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고 우유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였다.

벼슬을 지낼 때는 청탁(淸託)을 엄히 막았고 행의(行義)가 바르지 않으면 비록 상관이나 동료라 하더라도 조금도 동요되거나 굴하지 않았다. 소시(少時)에는 주량(酒量)이 심히 컸으나 관직에 있을 때는 과음하는 것을 경계하여

술을 입에 가까히 하지 않았다. 부인은 임영대군(臨瀛大君) 휘 요(璆)의 8대손으로 고(考)의 휘(諱)는 후건(厚樾)이다. 부인은 계사년 10월 초 1일 출생하여 기유년 10월 초 8일 하세하였다. 용모와 성품(姿性)이 장엄정숙(莊嚴貞淑)하며

初八日姿性莊嚴貞淑有梱則焉男纘夏纘冠而夭以府君弟節度使諱德徵長男爲後卽不肖四婿統制使趙倣士人李雲祥朴三益金顯基不肖繼子鍵二婿士人李益和郡守李吉儒外孫趙東復副正東升朴就新金叙欽鍵

三子府使翼濟聖濟碩濟內外曾玄多不盡錄

崇禎後三壬申四月日不肖男嘉善大夫原任三道統制使纘述泣血謹識

유순함이 있었다. 아들 찬하(纘夏)는 겨우 약관에 요절하여

부군의 아들 절도사 휘 덕징(德徵)의 큰 아들로 하여금 후사로 삼으니 곧 불초자이다. 사위가 넷이니 통제사 조경(趙倣) 사인(士人) 이운상(李雲祥) 박삼익(朴三益), 김현기(金顯基)이다.

불초는 계자 건(鍵)과 사위 둘을 두었으니 사인(士人) 이익화, 군수 이길유(李吉儒)이고 외손 조동복(趙東復)과 부정(副正) 동승(東升)과 박취신(朴就新), 김서흠(金叙欽)이다. 건(鍵)은 아들 셋을 두었으니

부사(府使) 익제(翼濟)와 성재(聖濟), 석재(石濟)이다. 내외 증손이 많이 있으나 다 기록하지 않는다.

송정후 3임신(1812) 4월 불초 아들 가선대부 삼도통제사 찬술 읍혈(泣血) 근지함.

정몽주(鄭夢周) 墓誌

圃隱先生既歿二百有餘年尤菴宋文正公時烈爲大碑建于墓前其後垂七十載後學三州李緯又敢爲之誌誌曰

嗚呼天地眷佑我東土久矣蓋自殷師受封以來吾道已東而泊于麗氏八百餘年味華夷之大限醉佛氏之糟粕幾乎夷狄禽獸之歸矣

亂極當治有開斯先於是篤生我先生以啓吾邦文明之運天意豈偶然哉

先生諱夢周鄭出迎日知奏事襲明之後祖諱裕考諱云瓘俱贈顯官以先生貴也

先生以丁丑十二月戊子生于永川愚巷

포은 선생이 돌아가신지 2백여년 위에 우암 송문정공 시열(時烈)이 큰 비(碑)를 만들어 묘소 앞에 세웠으며 70여년을 내려와서 후학 삼주인(三州:우봉)인 이 재(李緯)가 또한 감히 글을 쓰니 기록(誌)은 이와 같다.

오호라! 천지가 우리 동방을 돌봄이 오래거니와 대개 은사(殷師)가 봉하여진 이래로 오도(吾道)가 이미 동방으로 왔으나 고려까지 8백여년 동안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의 문한에 어둡고 불교의 하찮은 데에 취하여 거의 이적과 금수(禽獸)로 돌아갔다.

어지러움이 극진하면 다스려져야 하고 열어줌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내는것이 있음으로 그래서 우리 선생을 독생(篤生)하여 우리나라 문명의 운수를 열었으니 하늘의 뜻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선생의 휘는 몽주(夢周)이고 성은 정(鄭)이며 관향은 영일(迎日)인데 지주사(知奏事) 습명(襲明)의 후손이다.

조(祖)의 휘는 유(裕)이고 고(考)의 휘는 운관(云瓘)이며 모두 현관(顯官)에 추증되었는데 선생이 귀달(貴達)하였기 때문이다.

선생은 정축년(1337) 12월 무자일, 영천(永川) 우항리(遇巷里)에서 태어나시었는데 모친 이씨

里母李氏屢有異夢
及生肩上有黑子七
列如北斗

十九歲丁父憂時喪
紀大壞先生獨自貳
於流俗廬墓以致哀
丁酉中進士第三名
庚子魁三場爲文科
壯元

壬寅藝文檢閱癸卯
郎將兼閤門祗候以
韓邦信從事官征女
眞于和州甲辰戰勝
而還除修撰典農寺
丞乙巳丁母憂居廬
一如前喪事聞旌其
閤

丁未禮曹正郎兼成
均博士兵革之後學
校荒廢至是新創成
均館以牧隱李公穡
兼大司成先生與李
公崇仁金公九容朴
公尙衷同爲館職

學子坌集庠舍不能
容每講先生講說廢
越超出人意諸儒莫
能

가 여러번 기이한 꿈을 꾸고 선생을 낚아서 보
니 어깨에 사마귀 일곱개가 북두칠성 처럼 벌려
있었다.

19세때에 부친 상을 당하였는데, 그때에는 상제
(喪制)가 크게 무너졌으나 선생만은 스스로 유
속(流俗)을 따르지 않고 여묘(廬墓)하여 슬픔을
다하시었다. 정유년(1357)에 진사시(進士試)에
세번째로 합격하고 경자년(1360)에 삼장(三場)에
서 으뜸을 차지하여 문과(文科)에서 장원(壯元)
이 되셨다.

임인년(1362)에 예문검閱(藝文檢閱)이 되고 계묘
년(1363)에 랑장겸 합문기후(郎將兼 閤門祗候)가
되어 한방신(韓邦信)의 종사관으로서 화주(和州)
에서 여진(女眞)을 정벌하고 갑진년에 전승(戰
勝)하고 돌아와 수찬(修撰), 전농시승(典農寺丞)
에 제수되었다. 을사년(1365) 모친의 상을 당하
여서도 여묘하여 한결같이 전의 상(喪)때와 같
이 하였는데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매 그 문려
(門閤)에 정표(旌表)하였다.

정미년(1367)에 예조정랑 겸 성균박사(禮曹正郎
兼成均博士)가 되었는데 전쟁 후여서 학교가
황폐하였으므로 이때에 성균관을 새로 짓고 목
은 이공 색(穡)을 겸 대사성(兼大司成)으로 삼
고 선생과 이공 숭인(李崇仁) 김공구용(金九容),
박공상충(朴尙衷)이 함께 관직(館職)을 맡게 할
것이다.

학도가 몰려들어 상사(庠舍)에 모두 수용할 수
없었고 선생의 강설(講說)이 발월(發越)하여 어
느 사람의 생각보다 뛰어나므로 제유(諸儒)가
따를 수 없었다.

及時經書之來東方者惟朱子集註而後得雲峰胡氏四書通典與先生所論靡不脗合牧隱函稱之曰達可論理橫說豎說無非當理達可先生字也戊申大明開國先生力請歸附

壬子以成均司成爲書狀官入朝還至海中許山遭颶風上价溺歿先生萬死一生割膽而食者十三日帝聞之具舟楫遣還厚加調恤仍詔諭高麗去京師萬餘里宜從古昔三年一聘之禮方物止用土產子弟亦許入學蓋異數而實先生專對之力也

甲寅授慶尙道按廉使乙卯藝文直提學尋拜大司成先是金義擅殺明使

而朝廷不之問自懷疑貳會元使來權臣

그때 동방에 전하여 온 경서(經書)는 주자집주(朱子集註) 뿐이었는데 뒤에 운봉(雲峰) 호씨(胡氏)의 사서통(四書通)을 얻어 보게 되어서는 선생이 강론한 바와 모두가 들어 맞으니 목은이 자주 일컬어 「달가(達可)의 논리는 황설수 설이 이치에 맞지 않는것이 없다」 하였다. 달가는 선생의 자(字)이다. 무신년(1368)에 명나라가 개국하니 선생은 귀부(歸附)하기를 힘써 청하시었고

임자년(1372)에 성균사성(成均司成)으로써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입조(入朝)하고 돌아오다가 바다 가운데의 허산(許山)에 이르러 태풍을 만나 상사(上使)는 물에 빠져죽고 선생은 꼭 죽을 뻔하다 살아서 말다래를 베어 잠수신지 13일 만에 황제가 듣고 배를 갖추어 보내어 데려다가 후하게 돌보고 나서 조유(詔諭)하기를 「고려는 경사(京師)에서 만여리 떨어져 있으니 옛날에 3년에 한번 조빙(朝聘)하던 예(禮)를 따라야 마땅하며 방물(方物)은 토산(土產)만을 쓰다」 하고 자제(子弟)의 입학(入學)도 허가하였으니 대개 특별한 은수(恩數)인데 실로 선생이 전대(專對)한 힘이었다.

갑인년(甲寅年)에 경상도 안렴사(慶尙道按廉使)에 제수되고 을묘년(1375)에 예문직제학(藝文直提學)이 되었다가 곧 대사성(大司成)에 제배(除拜) 되었다. 이보다 앞서 김의(金義)가 마음대로 명나라의 사신(使臣)을 죽였으나

조정에서 문죄하지 않고 스스로 의구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마침 원(元)의 사신이 오매 권신

李仁任等欲復事元
先生慨然與同志抗
章請勿迎北使專意
事大爲仁任等所構
陷先生流彥陽居二
年有還

丁巳倭寇數侵掠濱
海蕭然先遣使講和
而至被拘囚先生遂
應命報聘人皆危之
先生無幾微見色

及至極陳古今交隣
利害酋敬服館待甚
厚比還還其俘禁三
島不復侵掠

己未典工禮儀典法
判書進賢藝文館提
學庚申版圖判書密
直寶文閣提學辛酉
僉書密直司事甲子
政堂文學

時國家多釁 天朝
將加兵於我增定歲
貢以五歲不如約杖
流使臣至是當遣節

(權臣) 이인임(李仁任) 등이 다시 원을 섬기려
하므로 선생이 개연히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상소하여 “북원(北元)의 사신을 맞이하지
말고 뜻을 오로지하여 대국을 섬길것”을 청하였
다가 이인임 등에게 무함을 당하여 선생은 언양
(彦陽)으로 귀양가서 2년을 있다가 사유(赦宥)되
어 돌아 오셨다.

정사년(1377)에 왜구(倭寇)가 자주 침략하여 바
닷가의 지방이 황량하여 짐으로 먼저 사신을 보
내어 화친을 청하게 하였으나 왜에 잡혔는데 선
생이 드디어 명을 받고 보빙(報聘)하게 되니 사
람들이 다 위태롭게 여겼으나 선생은 조금도 동
요하는 빛이 없으셨고

왜국에 가서는 고금에 교린(交隣)하는 이해를
극진히 설명하니 왜추(倭酋)가 경복(敬服)하여
관대(館待)가 매우 후하고 돌아올때에는 잡혔갔
던 사람을 돌려 보내고 삼도(三島)에서 다시 침
략하지 않도록 금하였다.

기미년(1379)에 전공시(典工寺) 예의시(禮儀
寺), 전법시(典法寺)의 판서(判書)가 되고 진현
관(進賢館), 예문관(藝文館)의 제학(提學)이 되
시었다. 경신년(1380)에 판도판서(版圖判書) 밀직
제학(密直提學), 보문각제학(寶文閣提學)이 되
고 신유년(1381)에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
가 되고 갑자년(1384)에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었다.

당시 국가에 말성이 많으므로 중국에서 장차 우
리에게 군사를 보내려 하고 세공(歲貢)을 늘려
정하고는 5년동안 약속대로 하지 않았다 하여
사신을 장류(杖流)한 일이 있으므로 이때에 이

使衆皆憚行規避最後始屬先生先生聞命不宿于家倍道趨節日進表 帝嘉歎優禮以送丙寅復如京師請冠服之制翌年還始議定百官冠服盡革胡制

戊辰三司左使門下贊成事奏革私田以祛民弊己巳藝文館大提學庚午進門下侍中益陽郡忠義伯

王欲迎僧粲英爲師先生於經筵進言儒者之學皆日用平常之事飲食男女人所同也

至理寓焉堯舜之道亦不外此貴在動靜語默之得其正而已彼佛氏之教則不然辭親戚絕男女獨坐巖穴草衣木食以觀空寂滅爲宗是豈平常之道乎

르러 절사(節使)를 보내야 하는데 못 사람이 다 가기를 꺼려서 회피하므로 마지막에야 비로소 선생에게 일을 맡겼다. 선생이 명을 듣고는 집에서 자지않고 길을 곱잡아 가서 절일(節日)에 맞추어 표문을 바치니 황제가 가탄(嘉歎)하여 너그러히 예대(禮待)하여 보냈다. 병인년(1386)에 다시 경사(京師)에 가서 관복(冠服)의 제도를 청하고 이듬해에 돌아와 비로소 백관(百官)의 관복을 의론하여 정한 후 호제(胡制)를 모두 폐지하였다.

무진년(1398)에 삼사좌사(三司左司)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가 되었고 사전(私田)을 폐지할 것을 아뢰어 밀폐를 없이 하였다. 기사년(1389)에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이 되고, 경오년(1390)에 문하시중(門下侍中), 익양군충의백(益陽郡忠義伯)에 올랐다.

임금이 중 찬영(粲英)을 맞아들여 스승을 삼고 자 하매 선생이 경연에서 진언하기를 「유자의 도는 다 일용(日用)하는 평상한 일이며 음식과 남녀 관계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이치가 여기에 있거니와 요순(堯舜)의 도(道)도 이것을 벗어나지 아니하여 동정어묵(動靜語默)이 정상에 맞는 것일 뿐입니다.

저 불가의 가르침은 그렇지 아니하여 친척을 물리치고 남녀를 끊고서 암혈(巖穴)에 홀로앉아 초의목식(草衣木食)하며 관공적멸(觀空寂滅)하는 것을 숭상하니 이것이 어찌 평상한 도(道)이겠습니까?」라고 말 하였다.

時俗尙佛忌日齋僧
時祭只設紙錢先生
請令士庶倣朱子家
禮立廟作主以奉先
祀禮俗復起壬申二
月 大明律來先生
取本朝法令參酌成
新律以進

我 太祖大王功德
日盛天命人心己有
所歸獨先生毅然有
不可奪之節使臺諫
劾去心服鄭道傳等
以殺其勢時朝野恟
懼禍在朝夕有山僧
贈詩曰

江南萬里野花發何
處春風無好山先生
流涕謝之曰嗚呼其
晚也其晚也四月四
日行過大街至善竹
橋爲趙英珪所害先
生亡而麗氏遂亡矣
嗚呼先生之忠可謂
與日月爭光而於先
生特一節爾夫人之
所以爲人者惟理義
爲大華夷之分儒佛

그때의 풍속은 부처를 숭상하여 기일(忌日)에
는 재를 올리고 시제(時祭)에는 지전(紙錢)만을
진설(陳設)하였는데, 선생이 청하여 사서(士庶)
가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본받아 사당을 세우
고 신주를 만들어 선조의 제사를 받들게 하여
예속(禮俗)을 다시 일으키셨다. 임신년(1392) 2
월에 대명율(大明律)이 왔는데 선생이 본조(本
朝)의 법령을 참작하여 신율(新律)을 만들어 바
쳤다.

우리 태조대왕의 공덕이 날로 성하여 천명과 인
심이 이미 돌아갈 데가 있었으나, 선생만은 의
연히 요탈(搖奪)할 수 없는 절의(節義)가 있어
대간(臺諫)을 시켜 심복인 정도전(鄭道傳) 등을
탄핵하여 제거해서 그 세력을 죽였다.

그때 조야가 어수선하여 화(禍)가 조석에 달렸
는데 산승(山僧)이 시를 지어 주기를

강남 땅 만리에는 들꽃이 피거니와 어디 간들
봄바람에 좋은 산이 없으리 「江南萬里野花發
何處春風無好山」라고 하니 선생이 눈물을 흘리
며 「아아 늦었소이다. 늦었소이다」라고 하였
다. 4월 4일 대가(大街)를 지나 선죽교(善竹橋)
에 이르렀을 때에 조영규(趙英珪)에게 살해 되
시니, 선생이 망하고 고려가 드디어 망하였다.

아아 선생의 충성은 일월과 빛을 다룬다고 할만
하나 선생에게 있어서는 한 마디일 뿐이다.

대리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은 이(理)와 의(義)가
큰 것인데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의 분별과 유
(儒)와 불(佛)의 변별(辨別)이 선생에 이르러서

之辨至先生而判焉
至今環東土數千里
能免爲夷狄禽獸者
是誰之賜也

先生之學傳於吉注
書再又三傳而得寒
暄堂金文敬公宏弼
以至於靜庵趙文正
公光祖則其爲東方
理學之祖者豈不信
然

嗚呼盛哉先生初葬
海豐郡後 永樂丙
戌移卜龍仁慕賢村
文秀山坐辰之原夫
人敬順宅主慶州李
氏祔

男女各二人宗誠宗
本女婿成翼之李長
得後孫甚蕃不能盡
記系以銘 銘曰 斯
惟先生之藏 與天
地而久長 盛德大
業昭昧無疆
李緯 並記

분명하였거니와, 이제까지 온 동방의 수천리가
이적, 금수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만들어 준 것인가?

선생의 학문이 길주(吉注) 서재에게 전하여 지
고 또 세번 전하여 한훤당(寒暄堂) 김문정공광
필(金宏弼)을 얻어 정암(靜菴) 조문정공광조(趙
光祖)에 이르렀으니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시
조가 되신다는 것이 어찌 참다운 것이 아니겠
는가?

아아! 성대하시다. 선생은 처음에 해풍군(海豐
郡)에 장사하였다가 그뒤 영락(永樂) 병술년
(1406), 용인(龍仁) 모현촌(慕賢村) 문수산(文秀山)
진좌(辰坐)의 언덕에 옮기고 부인 경순택주(敬
順宅主), 경주이씨가 부장(祔葬)되었다.

아들과 딸이 각각 둘이 있는데 종성(宗誠), 종본
(宗本)이고 사위는 성익지(成翼之)와 이장득(李
長得)이며 후손이 매우 번창하여 모두 적지 못
한다. 이어서 명(銘)하니 명은 이러하다.

여기는 선생께서 묻힌 곳이니 하늘 땅이 더불어
장구하여서 성대한 덕업이 끝없이 밝게 나타나
리라.

이재 아울러 쓰다.

정몽주(鄭夢周) 神道碑

皇明高麗守門下侍
中益陽君忠義伯圃
隱先生神道碑銘并
書

圃隱先生既沒二百
八十有餘年後學恩
津宋時烈爲之說曰
道之在天下者未嘗
亡而惟其託於人者
有絕續故其行於世
者不能無明晦此正
朱夫子所謂是皆天
命之所爲非人智力
之能及者也

嗚呼若先生者豈非
其人歟先生挺豪傑
之才負特立之資當
麗運之將訖其盡瘁
所事臣道畢備者固
已垂諸冊書與古人
並駕麗氏之有先生
豈不幸歟

雖然先生天爲我東
生之也我東僻處夷
服中至周武王時殷
太師來爲君長八教

황명고려문하시중 익양군 충의백 포은선생 신도
비명 병서

포은 선생이 돌아가신지 280여년 후에 후학 은
진인(恩津人) 송시열은 이를 위하여 이렇게 설
(說)한다.

천하에 있는 도(道)는 없어지는 법이 없으나, 그
것이 사람에게 의탁된 것에는 절속이 있으므로,
그것이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것에는 명晦(明晦)
가 있을 수 없으니, 이것이 곧 주부자(朱夫子)가
이른바 “이는 다 천명(天命)이 하는 것이고 사
람의 지력(智力)이 미칠 수 있는것이 아니다”
한 것이다.

아아! 선생같은 분이 어찌 그 사람이 아니었겠
는가? 선생이 호걸(豪傑)한 재주를 빼내고 특립
(特立)한 자질을 지고서 고려의 운수가 끝나 갈
때에 섬기는 바에 노고를 다하여 신하의 도리를
다 갖추신 것은 본디 이미 사책에 전하여져서
옛 사람과 나란히 전하여 지거니와 고려에 선생
이 계셨던 것이 어찌 불행이었겠는가?

그렇기는 하나 선생은, 하늘이 우리 동방에 태
어나게 하시었고 우리 동방은 이복(夷服: 왕기
(王畿)로부터 4~5천리 떨어진 북쪽지방) 가운
데 치우쳐 있었는데, 주(周) 무왕(武王) 때에 이

是施是必宗其祖舜
司徒之敬敷者

然繼作者無有聞焉
歷二千餘年跡熄言
堙將隨世而益下矣
當胡元之世天下腥
膻至於東土則又彝
倫益斁誠亂極思治
之日也先生以妥歡
帖睦爾之五年丁丑
十月戊子生焉歿於
洪武壬申四月初四
日葬於龍仁慕賢村
文秀山辰坐戌向之
原諱夢周字達可

自未生時已有嘉徵
稍長卽慕聖賢之學
父母喪皆廬墓終制
雖其非禮之正然食
稻依錦供佛飯僧之
俗漸變其舊矣衣冠
文物遵用華制以革
鞮屨卉裳之陋則用
夏變夷之漸已見於
此矣

르러 은태사(殷太師)가 와서 임금의 되어 팔교를
배풀었으니, 이는 반드시 그의 조상인 순(舜)의
사도(司徒: 5상을 가르치는 벼슬)가 공경히 배운
것을 존중하며 따른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어서 일어난 이가 없어서 2천여
년 동안 자취가 사라지고 말이 없어져 세대가
지날수록 더욱 낮아 가더니 원(元)나라 때에는
천하가 오랑캐의 풍속에 물들때, 동방의 땅에서
또 윤리가 더욱 쇠퇴하여 참으로 어지러움이 지
극하여 다스려지기를 생각하는 때가 되었는데,
선생이 타환첩목이(妥歡帖睦爾: 원나라 순제(順
帝)의 이름) 5년 정축(축숙왕 복위 6년 서기
1337년) 12월 무자일에 나섰다가 홍무 임신년
(공양왕 4년, 1392) 4월 4일에 돌아가시고 용인
모현촌 문수산 진좌술향(辰坐戌向)의 언덕에 장
사하니 휘(諱)는 몽주(夢周)이고 자(字)는 달가
(達可)이시라.

나시기 전에 이미 아름다운 징조가 있었고 조금
자라서는 곧 성현(聖賢)의 학문을 사모하여, 부
모의 상(喪)에는 다 여묘(廬墓)하여 상제(喪制)
대로 마치시니 예(禮: 친상에는 집에서 3년상을
마치는 것이 正禮이나, 심신을 깨끗이 가져 상
사에 오로지 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여묘하
여 상제(喪制)대로 마치는 것)의 바른것은 아닐
지라도, 벼를 먹고 비단옷을 입고, 부처를 공양
하고 중을 먹이는 풍속이 점점 그 구습을 바꾸
게 되었거니와, 의관문물(衣冠文物)은 중국의 제
도를 따라 쓰고 가죽신과 풀옷의 비루한 풍속을
고쳤으니 중국 제도로 오랑캐의 풍속을 바꾼 조
짐이 이미 여기에서 보였다.

講書談理主於朱子
而橫說豎說無不脗
合則不但古註之支
離紛挐者不能以誤
人而如江西永嘉之
似是而非者亦無所
售焉則有如百川歸
海衆星拱極矣

用家禮立祠堂而祭
祀之禮正拒北虞歸
義主而春秋之法明
蓋其宏綱大用皆可
以質鬼神而無疑俟
百世而不惑矣

是故 本朝諸儒得
有以推本演繹其道
學淵原典章文物沿
泝乎洛建而浸淫乎
殷周者皆祖於先生
則其制治保邦盡忠
成仁者寔先生之餘
事也

本朝自 國初漸加
褒尙至我 中廟朝
靜菴諸賢出而益加
闡明遂以從祀文廟
則崇報之典至矣盡
矣

경서(經書)를 강독하고 이치를 논하는 데에는
주자(朱子)를 주로 하되 횡설수설(橫說豎說)이
나 들어맞으니, 어지러운 고주(古註)가 사람을
그르치지 못할 뿐더러, 옳은 듯 하되 그른 강서
(江西: 강서학파) 같은 것도 행하여지지 않게되
니, 마치 온갖 넷물이 바다로 가고 못 별이 북
극성을 향하듯 하게 되었도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사당을 세워서 제사
의 예가 바로 잡히고 북로(北虜)를 거절하고 의
주(義主)에게 귀부(歸附)하여 춘추(春秋)의 법이
밝아졌으니, 대개 그 굉장한 강령과 성대한 작
용은 다 귀신에게 물어도 의혹이 없고 백세(百
世)를 기다려도 의혹이 없을 것이다.

이러므로 본조(本朝)의 선비들이 근본을 미루어
그 도학(道學)의 연원(淵源)을 연역(演繹)하여
전장문물(典章文物)이 낙건(洛建)에 까지 따라
올라가고 은(殷) 주(周)에 까지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다 선생에게서 시작된 것이니, 나라
를 다스려 보전하고 충성을 다하여 인(仁)을 이
룬것은 선생의 여사(餘事)이다.

본조에서 국초부터 점점 더 포숭(褒崇)하고 중
묘조(中廟朝)에 이르러서는 정암(靜菴)등 제현이
나서 더욱 천명(闡明)하여 드디어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였으니, 숭상하여 보답하는 법이 지
극하고 극진하였다.

然若與薛崔安諸賢
爲同條共貫則尙論
者或不厭也唯禍昌
之際史多闕文故先
生進退之義後人或
有疑焉者然先生義
精仁熟以道周旋君
子之所爲豈衆人之
所知哉

昔有以問於退溪李
先生者先生曰當於
有過中求無過不當
於無過中求有過斯
至論也

嗚呼先生盡心危邦
卒以身殉則其忠盛
矣喪祭之禮能變舊
俗則其孝大矣然自
古篤於忠孝者世不
乏人則先生之忠與
孝猶有其倫矣其斥
胡元歸 皇朝用華
制變胡俗使我東土
爲中國之屬國而蔚
然爲禮義之邦者是
非先生之大功乎

然考之春秋則弦黃
諸國遠隔荆楚慕向
中國以至滅亡而不
悔者有之則先生之
功亦不能以專美矣

그러나 설충(薛聰), 최치원(崔致遠), 안유(安裕)
등 제현과 조관(條貫)을 같이 한 것으로 말하면
상론(尙論)하는 사람이 혹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오직 신우(辛禰) 신창(辛昌) 때의 일은
사책(史冊)에 빠진 글이 많으므로 선생이 진퇴한
의지에 대하여 후세 사람중에 혹 의심하는 자가
있으나 선생은 의(義)가 정(精)하고 인(仁)이 익
숙하여 도(道)로 주선하셨거니와 군자가 한 일
을 어찌 못사람이 알 바이겠는가?

예전에 이것을 퇴계(退溪) 이선생에게 물어 본
자가 있었는데 이선생이 말하기를 “과오가 있는
데서 과오 없는것을 찾아야 하고 과오가 없는
가운데서 과오 있는것을 찾아서는 않된다” 하셨
거니와 이것은 지극한 말이다.

아아! 선생은 위태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다하다
가 마침내 몸을 나라를 위하여 바치셨으니, 그
충성이 성대하고 상제(喪制)의 예에 있어서 옛
풍속을 능히 바꾸셨으니 그 효도가 성대하였다.
그러나 예전부터 충효에 독실한 사람은 세대마
다 없지 않으니, 선생의 충효는 오히려 유(類)가
있거니와, 호원(胡元)을 배척하고 황조(皇朝)에
귀부하여 중국의 제도에 따라 중국에 속한 나라
가 되어 울연(蔚然)히 예의의 나라가 되게 한
것이 선생의 큰 공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춘추를 상고하면 현·황(弦·黃: 주대의
나라이름) 등 여러 나라가 멀리 형초(荊楚: 초나
라)에 떨어져 있으면서 중국을 사모 하다가 멸
망하게 되었어도 후회하지 않은 일이 있으니,
이런 것으로는 선생의 공도 아름다움을 오로지
할 수는 없다.

惟其以儒者之學爲已任而其爲學也必以朱子爲宗使後之學者皆知主敬以立其本窮理以致其知反躬以踐其實此三者爲聖學之體要則其功孰與之侔并哉

且夫自朱子以後中朝道學分裂歧貳陽明白沙之徒以荒唐隱僻之說思有以易天下而洙泗洛閩之宗脉晦塞而不傳此其害甚於洪水猛獸之禍矣獨我東土擇之也精守之也專汔無支分派別之惑此雖後先生而賢者之功而至若尋源溯本則捨先生其誰哉

故前後尙論之士莫不曰先生東方理學之宗斯乃士林之公言也昔文中子曰通於夫子受罔極之恩東土之士於先生亦當如此云

오직 선생이 유자(儒者)의 학문을 자기 임무로 삼고, 학문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주자를 으뜸으로 삼는 것이야 말로 후세의 학자가 다 경(敬)을 주로 하여 그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궁구(窮究)하여 그 아는 것을 지극히 하고, 자신을 돌이켜서 그 실지를 밟아가게 하였는데 이 세가지는 성학(聖學)의 주체가 되는 요령이니 그 공을 누가 짝하겠는가?

또 주자 이후로 중국의 도학이 나뉘고 갈라져서 양명(陽明:江西學派) 백사(白沙:明代陳獻章이 살던 마을 이름, 그 지명에 따라 백사파라 한다)의 무리가 황당하고 알 수 없는 말로 천하를 바꾸려 하며, 낙민(洛閩: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주희등 송조5현을 가리켜 염락관민(濂洛關閩)으로 일컬음)의 종맥(宗脈)이 어두워지고 막혀서 전하여지지 않으니 이는 그 피해가 홍수(洪水) 맹수(猛獸)의 화(禍)보다 심한 것이었는데 우리 동방만은 택하는 것이 정(精)하고 지키는 것이 전일(專一)하여 나뉘고 갈라지는 미혹이 거의 없었으니, 이것이 선생 뒤의 어진이들의 공기이기는 하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선생을 두고 그누가 되겠는가?

그러므로 전후에 상론(尙論)한 선비들이 다 선생을 “동방 이학(理學)의 으뜸이다” 하니 이는 곧 사림의 공론이다.

예전에 문중자(文中子:仲淹)가 말하기를 “통(通)은 부자(夫子)에게서 끝없는 은혜를 받았다” 하였는데 동방의 선비가 선생에게 또한 이러하여야 할 것이다.

嗚呼此實天爲我東
篤生哲人以啓道學
之淵源使絕者續晦
者明嗚呼此豈人智
力之所及也哉

先生迎日人上祖襲
明麗朝以名儒官至
樞密院知奏事曾祖
仁壽祖裕考云瓘俱
贈顯官妣李氏署丞
約之女也先生二子
宗誠宗本

光廟朝有名保者與
六臣友善逮其獄起
保常慷慨往省其庶
妹爲韓明澮之妾者
曰公往曰詣闕鞫獄
也曰公當爲萬世罪
人

明澮聞之卽詣闕
告上親鞫之保曰
常以成三問朴彭年
爲正人君子故實有
是言上命輓之左右
曰是鄭某之孫也
上遽命減死曰忠臣
之後只竄迎日亦可
謂尙其類也

아아! 이는 참으로 하늘이 우리 동방을 위하여
철인(哲人)을 독생(篤生)하여 도학의 연원을 열
어서, 끊어진 것은 이어지고 어두워진 것을 밝
아지게 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지력(智
力)이 미치는 것이겠는가?

선생은 영일인(迎日人)이다. 상조(上祖)는 습
명(襲明)인데 고려때 명유(名儒)로서 벼슬이 추
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에 이르렀고, 증조는
인수(仁壽)이고 조는 유(裕)이며 고는 운관(云
瓘)인데 모두 현관(顯官)에 추증되었고 비(妣)는
이씨로 서승(署丞) 약(約)의 따님이시며, 선생의
두 아들은 종성(宗誠) 종본(宗本)이다.

세조때에 이름을 보(保)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
데 육신(六臣)과 벗하여 친하였다.

옥사가 일어나매 늘 강개(慷慨)하더니 한명회
(韓明會)의 첩이 된 서매(庶妹)를 가서 보고 말
하기를 「공은 어디 갔는가?」 하니 「옥사를 추
국하러 대궐에 갔습니다。」 하매 「공은 만세의
죄인이 될 것이다」 하였다.

한명회가 이를 듣고 곧 대궐에 가서 고하니 임
금이 친국(親鞫)하였는데 정 보가 말하기를
「늘 성삼문 박팽년을 정인군자(正人君子)로 여
겼으므로 참으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환형(輓刑)을 명하였으나, 좌우가 「이는
정모(鄭某)의 손자입니다」 하니 임금이 문득 감
사(減死)를 명하면서 말하기를 「충신의 후손이
니 영일로 귀양을 보내라」 하였으니 그 유(類)
를 숭상한 것이라 하겠다.

世愈遠益不振識者疑焉自近世以來漸至蕃昌其最顯者右議政維城判中樞應聖寅平慰齊賢統制使楹統制使傅賢同知偶其奉先生祀者朝廷例加錄用今尙瑞直長纘光於先生爲十一代孫也古人有言曰開千眼者必有後於此亦可以見先生也 銘曰

堪輿磅薄一理充塞
風氣周旋開有後先
昔者全閩一蠻夷區
泊紫陽生爲魯爲鄒
惟此東方寔惟九夷
父師之後八教漸微
勝國謠俗猶是椎髻
惟我先生崛起其季
豪傑之才純粹之體
不由師承默與道契
修之於已行滿鄉里
行之於國風動遐邇
庠序旣設俎豆莘莘
士誦詩書民趨作新
當時天下陸沉胡虜
維茲用夏周禮在魯

세대가 지나갈수록 더욱 떨치지 못하므로 식자(識者)가 의심하더니, 근세 이래로 점점 번창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달한 사람은 우의정 유성(維城), 판중추 응성(應聖) 인평위(寅平尉) 제현(齊賢), 통제사 역(楹), 통제사 부현(傅賢) 동지(同知) 척(倜)이며 선생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은 조정에서 의례 녹용(錄用)하는데 지금 상서직장(尙瑞直長) 찬광(纘光)은 선생의 11대 손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반드시 뒤가 있다” 하였는데 여기에서 또한 선생을 볼 수 있다.

비에 명(銘)하기를

하늘 땅이 광대하되 일리로 채워있고
풍기가 주선하되 열림에 선후 있다.
예전에는 민땅이 오랑캐의 구역인데
주자가 나게 되선 공맹 학문 되었다.
오직 우리 동방은 구이(九夷)의 지방이다.
기자의 이후로는 팔교 점점 희미하여
고려 때의 풍속은 오히려 추계(椎髻)인데
우리 선생 말기에 우뚝이 빼어나서
호걸의 제주에다 순수한 본성으로
스승에게 안배우고 가만히 도와 맞아
자신에게 이를 닦아 향리에 차게하고
나라에서 실행하여 원근을 풍동했다.
학교를 설립함에 예식이 성하였고
선비가 시서 읽으며 백성 추향 새로웠다.
그때는 온천하가 호로에 빠졌으니
중국 제도를 쓰니 주례가 노에 남고

義主攘夷背陰向明
春秋大義炳如日星
未盡底蘊天柱忽傾
其身既沒其道益壽
若山有岱如北有斗
蓋先生道乃紫陽學
祖述憲章躬行心得
其在丈席攘斥百家
橫說豎說一此無他
第所論說聽者疑惑
及得胡通無不符合
地遠世後若航斷港
因言得意痕血擱棒
爾後諸賢承繼張皇
歷選前後其功莫當
若宋濂翁始建圖書
以授關洛以傳閩甌
比殆天啓統會宗元
凡我後學永溯其源

崇禎紀元後六十九年
宋時烈 撰
金壽增 書
金壽恒 篆

追記

按麗史壬申四月臺
府之請按趙浚鄭道
傳等也先生之弟禮

의주가 이를 치매 음 등지고 명향하니
춘추의 큰 의리가 해, 별처럼 빛났으나
포부를 못다 펴고 나라 문득 기울어
몸은 돌아갔으되 도는 더욱 길이남아
마치 산의 태산이요 북천의 두성이다.
대개 선생의 도는 주자의 학문이라
본 받아 밝히어서 실천하여 심득했고
스승의 지위에선 백가를 물리치어
횡설수설 모두가 여기에 귀일컨만
논설을 듣는자가 의혹도 하였으나
호씨의 사서통을 보매 모두가 맞으니
먼 곳의 후세에서 끊었던것 다시 이어
말에 따라 뜻을 얹어 흔혈처럼 선명했다.
그 뒤로 여러 현자 계승 상황 하였으나
전후 두루 가려도 그 공 당함이 없어
송나라의 염옹이 태극도설 처음세워
관략으로 민구로 전수함과 같았다.
이는 필시 하늘에 근본이 모이게하여
우리 후학이 길이 연원치게 한 것이다.

송정기원후 69년(1697)

송시열 짓고

김수증 쓰고

김수항 전액하다.

추기(追記)

고려사에 살피건데 임신년(공양양 4년 1392) 4
월에 대부(臺府: 사헌부)가 조준(趙浚) 정도전
(鄭道傳) 등을 안죄(按罪)할 것을 청할 때에 선생

曹判書過司宰令躋
實與聞焉及事翻就
鞠吏議當斬賴我
聖祖寬大之德只流
遠地

嗚呼先生所樹立固
已卓卓如彼而斯二
公者亦同心不貳視
死如歸五百年正氣
可謂咸萃一門矣茲
事不載原文故謹摭
記如右俾後人考信
焉仍竊念先生大節
人莫不仰止而惟其
繼開之功則知者或
尠至我尤翁始乃闡
發無餘

然則大碑之成於數
百年後其亦有待歟
斯役也老峰閱相公
鼎重實經紀其緒賴
以克完其尊賢衛道
之誠士林亦不可不
知也

崇禎紀元後己卯
戶曹參議權尙夏記
兵曹參知金鎮圭書

의 아우인 예조판서 과(過)와 사재령(司宰令)도(躋)가 실로 참여하여 들었는데 일이 번복되어 추국(推鞠)을 받으며 법리(法吏)의 의견은 참형에 처하여 마땅하다 하였으나 우리 태조의 관대한 덕에 힘입어 다만 먼 곳으로 귀양갔다.

아아! 선생이 세운 것이 참으로 이미 저렇듯 뛰어났고, 이 두분도 마음을 같이하여 변하지 않고 죽는것을 당연히 갈 곳으로 가는 것처럼 여겼으니, 5백년의 정기가 다 한집에 모였다. 이 일이 원문(原文)에 실리지 않았으므로 삼가 위와같이 적어 넣어서 후세 사람이 증거를 상고하게 한다. 이어서 가만히 생각하건데 선생의 큰 절의(節義)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우려르나 오직 지난 성인의 학문을 잇고 후세 학자의 길을 열어 큰 공을 아는 사람이 적었는데 우리 우암(尤菴)에 이르러서야 남김없이 천명되었다.

그렇다면 대비(大碑:신도비)가 수백년 뒤에 이루어진 것은 또한 기다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다. 이 역사(役事)는 노봉(老峰) 민상공정중(閔相公鼎重)이 실로 그 시작을 맡아 돌보았으므로 힘입어서 완성할 수 있었으니 그 어진이를 존중하고 도를 지키는 정성을 사림이 또한 몰라서는 않된다.

송정기원후 기묘
호조참의 권상하 쓰고
병조참지 김진규 쓰다.

정 보(鄭保) 墓表

圃隱先生有孫曰保
雪谷其號也少中司
馬爲司憲府監察

嘗與六臣友善及六
臣獄起公忼慨不食
其庶妹爲韓明澮之
妾一日醉往見之問
明澮安在曰在闕鞫
囚也

公發怒罵曰爲我語
令公公當爲萬世罪
人明澮以聞上親鞫
之對曰常以成三問
朴彭年等爲正人君
子故實有是言 上
怒甚命輓之顧左右
曰

誰歟曰鄭夢周之孫
也 上遽命止曰忠
臣之後不可殺遂流
于延日而有司舉孥
籍如例後徒丹城以
卒事見國史及丹城
誌

포은선생에게 손자가 있으니 이름하여 (保)이다. 설곡(雪谷)은 그의 호이니 소시(少時)적에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이 되었다.

일찌기 육신(六臣)과 교분이 두터웠는데 마침내 육신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공은 강개(忼慨)하여 음식을 들지 못하였다.

그의 서매(庶妹)가 한명회(韓明澮)의 첩이 되었는데 하루는 술에 취하여 그 집에 가서 누이를 보고 명회가 평안히 있는 지를 묻자 말하기를 대궐에서 죄인들을 국문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공은 노기를 발하여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내 말을 공에게 전하라. 「공은 만세에 죄인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명회로 부터 이의 말을 듣고 임금께서 친국(親鞫)하시자 대답하기를 「평소에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등을 정인군자(正人君子)로 여겨왔으며, 그런고로 이와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자 임금께서는 심히 노(怒)하시어 찢어 죽이라고 명하고 그가 누구냐고 좌우에게 물었다.

어느 사람이 「정몽주의 손(孫)이 올시다」라고 여쭙어 올리매 임금께서는 중지하라고 명하시며 「충신의 후손이니 죽이는 것은 불가하다」 하시고 연일(延日)로 유배시키도록 하였으나 유사(有司)에서 연일은 그의 관적(貫籍)지이니 불가하다고 주달하여 후에 단성(丹城)으로 이배하였다. 거기서 졸하였으니 이의 사실이 국사(國史)와 단성지(丹城誌)에 실려 있다.

肅廟己卯復 莊陵
旌表六臣諸人公亦
贈吏曹參議公葬于
先生墓之右崗夫人
下上而異封舊有表
六代孫總管倜所樹
後六十六年辛亥八
代孫兵使德徵卽其
石而改刻之三州李
緯記其陰且爲之銘
於公亦彌甥也

銘曰 圃隱之孫 六
臣之友我書其石
百世不朽

公考宗誠吏曹參議
妣竹山朴氏其考提
學仲容夫人朴氏籍
密陽兵馬使登之女
男允貞主簿次允和
正字次允寬六女殿
直成孝淵敦寧正李
墀判中樞李石亨判
書李繼孫李瑞廷大
司憲李有仁婿也
孫曾以下多不能盡
記

陶菴 李 緯 撰

숙종 기묘년(1699) 장릉(莊陵)이 복위되고 육신(六臣)이 모두 충신으로 정려되자 공(公) 역시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증직 되었다. 공의 장례는 포은선생 묘의 우측 언덕에 지냈으며 부인의 봉분과는 달리 상하에 있다.

오래된 묘갈이 있었는데 6대손 총관(總管) 주(倜)가 세운 것이며 그로 부터 66년 신해 8대손 병사(兵使) 덕징(德徵)이 그 묘표를 다시 세우고 삼주(三州) 이재(李緯)가 음기(陰記)를 쓰고 명(銘)을 새겼는데 공(이재) 역시 공의 외손이 된다.

명에 이르기를 포은의 후손이고 육신의 벗이로 다. 내가 비에 글을 쓰니 백세토록 전하리라.

공의 부친은 종성(宗誠)으로 이조참의(吏曹參議)이다. 모친은 죽산박씨로 그 고(考)는 제학(提學) 증용(仲容)이다.

부인 박씨의 관향은 밀양(密陽)이며 병마사(兵馬使) 증(登)의 따님이다.

아들 윤정(允貞)은 주부(主簿)이며 차남은 윤화(允和)로 정자(正字)이고 다음은 윤관(允寬)이다. 6녀(六女)를 두었는데 사위 성효연(成孝淵)은 전직(殿直)이고 이 지(李墀)는 돈령정(敦寧正) 이 석형(李石亨)은 판중추(判中樞)요, 이계손(李繼孫), 이서정(李瑞廷)은 판서(判書) 이유인(李有仁)은 대사헌(大司憲)이다. 손, 증손 이하는 많아서 다 기재하지 않는다.

도암 이 재 찬

追記

公大節至今凜然
當其時使公晦默何
傷乎 素位守分直
以天性家法正大峻
烈所就至其此可與
殺身成仁者異觀哉
今上辛亥凡爲莊廟
立謹者壇有陵隲公
則特命脩享圃隱書
院盛典也立墓表之
周甲又追識如此庸
昭我聖上褒闡之休
命云爾十三代孫煥
祖謹書 判敦寧李
敏輔撰

추기

공의 대절은 이제에 이르러 찬연하도다. 상시에
는 공의 사적이 숨겨져 잠잠하였으니 어찌 마
음이 상하지 않았겠는가. 깨끗한 자리에서 분수
를 지키고 천천히 끝으며 법도가 정대하여 그
준엄한 성취가 이에 이르러 빛나니 공을 일러
살신성인을 이룬자라 하지 않겠는가? 금상 신해
년에 이르러 장묘(莊廟: 단중)을 위하여 절개를
지킨 사람들을 위하여 장릉 곁에 단을 모아 제
사지내고 공은 특별히 포은 선생의 향사를 모
신 충렬서원에 배향토록 명하시니 그 은전이
넘치도다. 묘표를 세운지 60여년만에 또 다시
이같은 기록을 추가하여 우리 성상께서 포상하
시고 널리 선양하신 거룩한 뜻을 이에 밝히도다.
13대 손 환조 삼가 쓰고 판돈령 이민보 찬하다.

정 상 (鄭 相) 墓 碣

公諱相字聖佑海州人高麗典客署令諱肅後人本朝有諱易錄開國原從功臣左贊成集賢殿大提學贈領議政諡貞度

是公八世祖也七世祖諱忠敬刑曹參判贈左議政六世祖諱悰寧陽尉尙文宗大王女敬惠公主五世祖諱眉壽策秉忠奮義靖國功右贊成海平府院君諡昭平高祖諱承休忠勳府都事贈左贊成海林君曾祖諱元禧監察贈戶曹參判海寧君祖諱鎔當光海朝廢科節行文章名世號梧亭贈吏曹參判

考諱勝分司承旨贈兵曹判書初娶坡平尹氏再娶廣州安氏無後三娶豊川任氏學生慶衍女

공의 휘는 상(相) 자(字)는 성우(聖右)로서 해주(海州)인이니 고려 전객서령(典客署令) 휘(諱) 숙(肅)의 후손이다. 본조(本朝)에 와서는 휘(諱) 이록(易錄)이 있어 개국원종공신 좌찬성, 집현전 대제학으로 영의정으로 증직되었고 시호는 정도공(貞度)이다.

이분이 공의 8세조요 7세조 휘 충경(忠敬)은 형조참판으로 좌의정으로 증직되었고, 6세조 휘 종(悰)은 영양위(寧陽尉)로 문종대왕(文宗大王)의 딸 경혜공주(敬惠公州)에게 장가들었고 5세조 휘 미수(眉壽)는 병충분의정국공신으로 책봉되고 우찬성 해평부원군으로 봉군(封君)되었으며 시호는 소평(昭平)이다.

고조의 위 승휴(承休)는 충훈부 도사(都事)로 좌찬성에 증직되었고 해림군(海林君) 봉해졌다. 증조 휘 원희(元禧)는 감찰로서 호조참판에 해령군(海寧君)으로 증직되었고 조 휘 용(容)은 광해조를 당하여 과거를 폐하고 절행(節行)과 문장으로 당세에 이름이 있었으며 호를 오정(梧亭)이라 하였는데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고(考)의 휘는 승(勝)인데 분사승지를 지냈으며 병조판서로 증직되었는데 초배(初配)는 파평윤씨이고 재취는 광주안씨이나 모두 자손을 두지 못했고 삼취(三娶)는 풍천임씨인데 학생 경연(慶衍)의 딸이다.

萬歷戊午六月十二日生公年十五丁外憂執喪無異成人昇平府院君金公瑩嘗來訪見公器宇端凝稱曰子之先君見悟兇黨入則分司承旨出則椴島伴使

改玉之後方擬大用天之不憖邦之不幸是有不食子能不墜家聲公既以勳戚華胄又有前輩延譽而視世間名利泊如也歸臥

龍仁先墓下松亭里唯奉先祀盡其誠孝待親戚致其敦睦起居言動皆有軌度庭闈儼如官府可謂蘊玉不沽矣

崇禎辛酉三月八日病卒其五月九日葬于梧亭公墓同岡向午之原媿原州金氏兵使俊龍女舉二男一女繼媿平壤趙氏

만력 무오(1618) 6월 12일 공을 낳았다. 공은 나이 15세에 부친의 상을 당하였으나 상례를 행하는데 성인(成人)과 다름이 없었다.

승평부원군 김류(金瑩)가 집에 왔다가 공의 기골이 넓고 그 행의가 단정한 것을 보고는 칭찬하여 말하기를 “군의 선친께서는 조정에 들어가서는 간신배 들의 눈에 거슬려 승지로 분사(分司)하는데 그쳤고, 나아가서는 가도(椴島)에서 사신을 접대하는데 그쳤다.

개옥지후(改玉之後: 임금이 바뀐 후)에 바야흐로 크게 쓰이려 하였는데 하늘이 이를 허락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불려갔으니 나라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대는 게을리 하지말고 집안의 명예를 높이도록 하라” 하였다.

공은 이미 훈척(勳戚)으로 이름이 나 있었고 또 선대의 가문도 있어 능히 조정에서 능히 이름을 떨칠 수도 있었지만 세상의 명리(名利)를 담담하게 보아 나가지 않았다.

용인 선영의 묘 아래 송정리(松亭里)에 돌아와 오직 제사를 받드는데 성효(誠孝)를 다하였다. 또 친척들을 대하기를 돈목(敦睦)하게 하였고 기거(起居)와 언동(言動)에는 모두 법도가 있었으며 부모가 거처하던 곳을 받들기를 마치 관부(官府)를 보는 바와 같이 하였으니 이른바 <운옥(蘊玉)은 시들지 않는다>는 옛말의 그대로라 하겠다.

승정 신유년(1681) 3월 8일 병으로 졸하니 5월 9일 오정리에 장사 지냈는데 공의 묘는 오향 언덕에 있다.

첫째 부인은 원주김씨로서 병사(兵使) 준룡(俊龍)의 딸인데 2남 1녀를 두었고 계비는 평양조씨로 학생 여호(汝瑚)의 딸로서 3남 3녀를 두었

學生汝瑚女育三男
三女後公二十六年
而歿家事一遵公遺
法撫育前室子如己
出

第一男重熙進士生
二男昌夏有夏第二
二男重胤縣監生四男
三女男參夏觀夏進
士濟夏履夏女適李
箕壽韓師彥李應吉

第三男重震生四女
適參奉李顯箕李道
興參奉朴弼理李光
夏以濟夏爲後第四
男重均生三男二女
男一夏弼夏寅夏女
適李師昌元弘運

第五男重海佐郎生
二女適沈堦南漢寬
以觀夏爲後第一女
適東萊鄭奎齊生二
女適李濟博李世達
第二女適郡守李鳳
朝生二男敬臣縣監
聖臣正言第三女適
臨陽君桓生一男一
女男海豐君燧女適
俞彦鐸

는데 공보다 26년 후에 돌아가셨다. 부인은 집
안을 다스리는데 한결 같이 공이 남기신 법도대
로 하였고 전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기가 낳은
자식과 같이 하였다.

만아들 중희(重熙)는 진사(進士)로 아들 둘을 두
었는데 창하(昌夏)와 유하(有夏)은 제2남 중운
(重胤)은 현감으로 4남 3녀를 두었으니 남은 참
하(參夏) 관하(觀夏)는 진사이고 제하(濟夏) 이
하(履夏)이며 딸은 이기수(李箕壽), 한사언(韓師
彥), 이응길(李應吉)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제3남 중진(重震)은 4녀를 두었는데 참봉 이현
기(李顯箕) 이도흥(李道興), 참봉 박필리(朴弼理)
이광하(李光夏)에게 각각 출가하였으며 제하(濟
夏)로 후사를 삼았다. 제4남 중균(重均)은 3남 2
녀를 낳았는데 일하(一夏), 필하(弼夏), 인하(寅
夏)이며 딸은 이사창(李師昌)과 원홍운(元弘運)
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제5남 중해(重海)는 좌랑(左郎)으로 딸 둘을 두
었는데 심계(沈堦) 남한관(南漢觀)에게 각각 출
가하였고 관하(觀夏)로 후사를 삼았다. 제1녀는
동래 정규재(鄭奎齊)에게 출가하여 딸 둘을 두
었는데 이제단(李濟博)과 이세달(李世達)에게 각
각 출가하였다. 제2녀는 군수 이봉조(李鳳朝)에
게 출가하여 아들 둘을 두었는데 경신(敬臣)은
현감이고 성신(聖臣)은 정언(正言)이며, 제3녀는
임양군(臨陽君) 환(桓)에게 출가하여 1남1녀를
두었는데 남은 해풍군(海豐君) 수(燧)이며 딸은
유언택(俞彦鐸)에게 출가하였다.

第四女適李斗慶生
三男二女男燮燻一
幼女適進士辛最良
縣監朴弼彦內外孫
曾殆八十人女臨陽
夫人經紀立石不肖
孫進士一夏謹識并
書

崇禎紀元後九十九
年丙午九月 日立

제4녀는 이두경(李斗慶)에게 출가하여 3남 2녀를
두었는데 섭(燮)과 흡(燻)이며 하나는 어리다.
딸은 신최량(辛最良)과 현감 박필언(朴弼彦)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내외 손(孫)이 거의 80인이다.
딸 임양부인(女臨陽夫人)이 일찌기 비를 세우고
자 하니 불손 손 진사 일하(一夏)가 삼가 글을
짓고 아울러 썼다.

승정기원 후 99년(1726) 병오 9월 일 세우다.

정옥형(丁玉亨) 神道碑

朝鮮國正憲大夫兵
曹判書兼知 春秋
館事 同知 經筵事
贈諡恭安公神道碑
銘 並序

大匡輔國崇祿大夫
領中樞府事 兼領
經筵事洪暹撰

公諱玉亨字嘉仲系
出羅州遠祖允宗檢
校大將軍曾祖諱衍
隱德不仕

鄉里稱其行義 贈
吏曹參判祖諱子伋
爲邑宰政尙清簡有
去後思卒官昭格署
令贈禮曹判書

考諱壽崗恬靜寡慾
不苟進取嘗爲副提
學值燕山政亂謝病
閒居

後事 中廟歷官至
兵曹參判以耆德見
重於世贈左贊成三
代贈爵皆以公貴也

조선국 정헌대부 병조판서 겸 지춘추관사 동지
경연사 증시 공안공 신도비명 병서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중추부사 영경연사
홍 섬 지음

공의 이름은 옥형이며 자는 가중(嘉仲)이다. 계
출은 나주이며 먼 조상의 이름은 윤종(允宗)으
로 검교대장군을 지냈다. 증조의 이름은 연(衍)
으로 덕을 숨기고 벼슬을 하지 않았다.

향리에서 그 의로움을 칭송하였기로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조부의 명(名)은 자급(子伋)으로 군
수가 되어 정치를 청간하게 하여 이임한 뒤에
고을사람들이 못잊어 하였다. 판은 소격서령(昭
格署令)에 이르렀고 예조판서로 증직되었다.

부(父의) 명(名)은 수강이니 조용하고 욕심이 없
어 구차히 출세를 바라지 않았다. 부제학으로
있을 때 연산군의 어지러운 정치를 만나 병을
칭탁하고 사직한 후 한가히 지냈다.

뒤에 증종을 섬겨 벼슬이 병조참판에 이르렀으며
나이 많고 덕이 높아 세상에서 무거운 축망을 받
았다. 좌찬성으로 증직되었는데 3대가 증직 받은
것은 모두 공이 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妣貞敬夫人金氏持
平彦辛之女也以成
化丙午四月庚辰生
公聽穎絕人學問夙
成一時名士皆慕與
爲交中

正德癸酉科選補承
文院副正字乙亥拜
藝文館檢閱轉承政
院注書丙子陞弘文
館修撰遷兵曹佐郎
戊寅拜司諫院獻納
司憲府持平弘文館
校理

己卯轉兵曹吏曹正
郎辛巳拜議政府檢
詳陞舍人壬午拜掌
令侍講院弼善癸未
拜應教甲申陞司諫
遷執義

乙酉拜典翰轉直提
學特加通政授副提
學疏筭十餘上切中
時病上每嘉納焉

丙戌入銀臺轉至左
承旨丁亥遭外憂己
丑服闋歷兵曹參知
參議移吏曹參議庚

모부인인 정경부인 김씨는 지평 언신의 따님으
로서 성화 병오년(1486) 4월 경진에 공을 낳으
니 총명이 뛰어나고 학문을 일찌기 이루니 당시
의 명사들이 모두 사모하여 교우하려 하였다.

정덕 계유년(1513)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
정자가 되었고 을해년(1515)에 예문관 검열을
배수하였다가 승정원 주서(注書)로 전보되었다.
병자년(1516)에 홍문관 수찬으로 승차 하였다가
병조, 이조 좌랑이 되었고 무인년(1518) 사간원
헌납, 사헌부 지평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

기묘년(1519)에 병조와 이조의 정랑으로 전보되
었고 신사년(1521)에 의정부 검상이 되었다가
사인(舍人)으로 승진되었다. 임오년(1522)에 장
령(掌令), 시강원 필선(弼善)이 되었고 계미년
(1523)에 응교를 배수하였고 갑신년(1524)에 사
간(司諫)이 되었다가 집의(執義)로 옮겼다.

을유년(1525)에 전한(典翰)을 배수하였고 직제학
으로 전보되고 통정대부로 특진하여 부제학에
임명된 뒤 10여 차례나 소, 차를 올려 당시의
병폐를 적절히 지적하니 임금께서 마냥 반갑게
받아들였다.

병술년(1526)에 은대(翰林)에 들어가 좌승지가
되었고 정해년(1527)에 친상을 당하였고 기축년
(1529)에 상을 마치자 병조에서 참지·참의를
역임한 후 이조 참의로 옮겼다. 경인년(1530)에

寅特受大司成壬辰
以都承旨提調內醫
院

癸巳 中廟未寧旋
就平復命賞加階嘉
善拜掌隸院判決事
遷戶曹參判拜大司
憲尋拜大司諫舊例
臺諫不外擬金安老
擅政惡不附己出公
爲忠清觀察使

秩滿又授全羅觀察
使所至人服其處決
平當丙申拜兵曹參
判兼副賓客冬皇太
子誕生普天同慶公
御命不旬日卽行先
諸藩進賀帝嘉之降
勅褒美既還上命錫
宴賜鞍馬寵之

丁酉轉漢城府右尹
禮曹吏曹參判京畿
道觀察使戊戌還拜
兵曹參判己亥特加
資憲歷工曹刑曹判
書庚子拜大司憲前
後任言責論事剴切
多所裨益轉禮曹判
書左參贊兼同知經
筵

대사성에 특수(特受)되었고 임진년(1532)에 도승
지로서 내의원의 제조가 되었다.

계사년(1533)에 중증이 병을 앓았는데 곧 회복
하자 상을 내려 가선대부를 내리고 장례원 판결
사를 배수하였다가 호조참판으로 자리를 옮겼
다. 이어 대사헌을 배수하였다가 곧 대사간을
배수하였는데 전례에 의하면 대간은 외직으로
내보내지 않았으나 김안로(金安老)가 정치를 마
음대로 하며, 자기를 추종치 않음을 미워하여
공을 충청도 관찰사로 나아가게 하였다.

임기가 다하자 다시 전라관찰사를 제수 받았으
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공의 처사가 공평
함에 감복하였다. 병신년(1536)에 병조참판 겸
부빈객을 제수 받았으며 그해 겨울 황태자가 탄
생하여 천하가 모두 경하하므로 공은 미명을 받
고 10여일만에 다른 나라들 보다 먼저 가서 하
례하니 황제가 가상히 여겨 칙령으로 포상하였
고, 돌아오자 임금께서는 잔치를 베풀고 말과
안장을 내려 총애하였다.

정유년(1537)에 한성부 우윤에 이어 이조와 예
조의 참판을 지낸 뒤 경기관찰사로 전보되었고
무술년(1538)에 병조참판, 기해년(1539)에 자헌
대부로 특진되어 공조와 형조판서를 역임하였으
며 경자년(1540)에 대사헌을 배수하였는데 전후
에 언관의 직책을 맡아 논의한 일이 적절하여
도움된 일이 많았으며 이어 예조판서, 좌참찬에
전보되어 경연을 겸하게 되었다.

辛丑遭母憂癸卯服闋又拜禮曹判書甲辰拜兵曹判書乙巳復以左參贊拜刑曹判書丙午大臣同辭薦公宜居弘化之地階崇政爲右贊成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

陞左贊成未幾階崇祿己酉五月疾革移于正寢十七日丙午卒訃聞上素服三日輟朝二日

公器局峻整度量寬弘與物無競累經世變夷險一致謙遜自守不趨時好平居坦夷而監事剛果

人有善行雖微不忘見人過誤不欲其暴揚再判刑部事涉權貴亦不肯屈意及判兵部甄拔武勇之士下至鎮堡之守惟擇其才

軍職流品以勤慢付祿屬禁軍者以矢格爲次第畫一而不撓

신축년(1541)에 모부인 상을 당하였고 계묘년(1543)에 상을 마치자 예조판서를 배수하였다. 갑진년(1544)에 병조판서를 배수하였다가 을사년(1545)에 다시 좌참찬을 배수하고 형조판서를 지냈으며, 병오년(1546)에 대신들이 모두 공이 널리 교화할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천거하여 승정대부로 승차하여 우찬성 겸 판 의금부사가 되었고 지 경연 춘추관사를 겸임하였다.

좌찬성으로 승차한지 얼마 되지 않아 승록대부로 품계가 올라갔으나 기유년(1549) 5월에 병환이 심하여 정침(내실)으로 옮긴 뒤 17일 병오에 돌아갔다. 부음을 듣자 임금께서는 사흘동안 소복을 하였고 이틀 동안 조회를 물렸다.

공은 기국이 준정하고 도량이 넓어 남과 다투는 일이 없었고, 여러번 세대의 변혁을 만나도 험하거나 평이 하거나 모두 한결 같았다. 겸손으로 스스로를 지켜 시대의 유행에 따르지 않고 평상시에는 평탄하나 일에 다달으면 과단성있고 강직하였다.

사람이 착한 행동이 있으면 작은 일이라도 잊지 않았고 남의 과오를 보면 들어내려 하지 않았다. 두차례 형조판서가 되어 사건이 권귀와 관련이 있었는데 역시 뜻을 굽히지 않았다. 병조판서가 되자 무용이 있는 군사들을 뽑았고 아래로 진보(鎭堡)의 수비까지도 오직 재주만을 골랐다.

군직(軍職)의 품수는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하였고 금군(禁軍)에 소속되려는 자는 시격(矢格)으로 차례를 삼아 한결같이 하여 흔들림이 없이

舉可遵行明識典章
鍊達事體善治煩劇
而不見於色人以爲
難公嘗患法令滋章
前後牴牾請加刪定
後續錄因此撰出

甲辰中廟賓天公爲
國葬都監提調出則
盡誠敦事入則扶曳
陪祭子弟請移告公
正色曰臣子當此時
仆地則已豈敢爲養
病計乎

發靱之日以兵判當
騎馬扈衛而徒步以
從乙巳仁廟繼陟公
又爲國葬提調勤若
不懈病已深矣

公誠孝出天參判公
居廬公年纔數歲思
慕不已

嘗聞其歸期既貴顯
親舍之側舊室隘甚
公仍居之以便溫清
出告反面晨夜不廢

參判公卒公廬于墓
側三年不進酒醴母
夫人年踰八十公奉

모두 준행하게 하였다. 법전을 바르게 알고 사
체에 통달하여 번잡하고 급한 것을 잘 다스려
얼굴에 나타나지 않으니 사람들이 어렵게 여겼
다. 공이 일찌기 법령이 너무 많고 앞뒤가 어긋
나 산정을 가할 것을 청하니 뒤에 속록이 이 일
로 인하여 만들어졌다.

갑진년(1544)에 중종이 붕어하시자 공이 국장도
감 제조가 되어 나아가서는 성의를 다하여 일을
감독하고 들어가서는 고된 몸을 끝머 제사를 모
셨다. 자제들이 쉬도록 청할 때면 공이 정색하
고 말하기를 신하가 이 때를 당하여 땅에 쓰러
지면 하는 수 없거니와 어찌 감히 병을 치료할
생각을 하랴 하였다.

발인하는 날에는 병조판서로서 의당 말을 타고
호위해야 함에도 도보로 따랐다. 을사년(1545)에
인종이 돌아가시니 공이 또 국장제조가 되어 근
고(勤苦)하여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이때 이미
병이 깊었다.

공의 지성스런 효는 하늘에서 내렸다. 참판공이
여막살이를 할 때 공의 나이 겨우 몇살이었는데
사모하기를 마지 않았다.

일찌기 돌아올 시기를 들으면 이미 귀한 몸이
건만 아버지 방 옆의 옛 방이 심히 좁은데도
공은 여전히 거기에 거처하면서 조석문안에
편리하게 하고 나갈때 고하고 돌아올 때 인사
하는 것을 새벽이나 밤이라도 폐하지 아니하
였다.

참판공이 돌아가시니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3
년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다. 모친께서 나이 여
든이 넘었는데 봉양하는 데에는 빠짐이 없었고

養備至每暇日設筵
使兒孫迭舞而悅其
心

厚於親戚故舊不以
榮枯而先後之雅性
淡素不營產業雖糲
飯菜羹對之晏如

奉公守正湛然無累
非理干請不入於耳
屢處權要門庭常寂
然子弟問疾答曰吾
受國厚恩爵位踰分
人事極矣勸以藥餌
亦不肯進遺命以儉
約治喪

是年八月丙辰葬于
高陽郡南茂院里未
坐丑向之原貞敬夫
人金氏祔焉夫人籍
尙州

祖諱慶門監察考諱
壽延司直年十七歸
于公內治修整媚于
舅姑睦于宗黨先公
卒享年五十九

生一男一女男應斗
歷官至左贊成女適
禮賓參奉閔蘭馨側
室有一男二女男蘭

매양 한가한 날에는 잔치를 베풀고 손자들에게
춤을 추게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후하게 대하여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차별하는 일이 없었다. 성품이 담백
하고 검소하여 산업에 힘쓰지 않고 비록 좋지
못한 밥이나 나물국이라도 대하기를 편안히 하
였다.

공사에는 정직을 지켜 당연히 꺼리낌이 없었고
사리에 맞지않는 청은 듣지 않았다. 여러차례
요직에 있었건만 집안이 항상 고요하였다. 자제
들이 문병을 하면 내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고 벼슬이 분수에 넘쳤으니 인간 일은 끝났다
하면서 약을 권하여도 즐겨 마시지 않고 검약하
게 장사를 치르도록 유언하였다.

이해 8월 병진에 고양군 남쪽 무원리 미좌축향
의 언덕에 장사 지내니 부인 정경부인 김씨와
합장이었다. 부인의 관향은 상주이다.

조부 경문은 감찰이었고 부친 수연은 사직(司
直)이었다. 17세에 공에게 시집와서 집안을 잘
다스렸고 시부모의 귀염을 받았으며 일가 친척
에게도 화목하였다. 공보다 먼저 돌아가시니 나
이 59세였다.

아들하나와 딸 하나를 낳으니 아들 응두(應斗)
는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고 딸은 예빈참봉 민난
형에게 시집갔다. 작은 집에서 한 아들과 딸 둘
을 낳으니 아들은 란이고 맏딸은 양사택에게 시

女長適梁思澤次適宋文慶贊成娶郡守宋世忠之女生四男四女男胤祚郡守胤禧府使胤祐正郎胤福承旨女長適趙瑞龍無後次適尹仁涵牧使次適權鵬牧使次適李堯臣縣令

參奉生四男哲命判官寶命縣監定命牧使 基命主簿

胤祚娶縣令尹穀之女生男日好仁好義好禮好智女長適柳重光次權霽次李蹲胤禧娶縣令鄭衡之女生男日好德好敬好誠

女長適柳崑壽次柳裕緒次幼允祐娶判官沈應祿之女生男日好謙好讓好謹女長適尹弘業次盧宣餘幼

胤福娶監察韓景祥之女生男日好約好恭好寬好善好恕好悌女長適韓頤次南以信次李榮復餘幼

집가고 둘째는 송문경에게 시집갔다. 찬성은 군수 송세충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네 딸을 낳았다. 아들 윤조는 군수이고 윤희는 부사이며 윤우는 정랑이고 윤복은 승지이다. 맏딸은 조서룡에게 시집갔으나 자손이 없고 둘째는 목사 윤인함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목사 권봉에게 시집가고 그 다음은 현령 이효신에게 출가하였다.

참봉이 네 아들을 낳으니 철명은 판관이며 보명은 현감이고 정명은 목사이며 기명은 주부이다.

윤조는 현령 윤각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호인, 호의, 호례, 호지이며 큰 딸은 유증광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권제에게 다음은 이준에게 시집갔으며 윤희는 현령 정형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호덕, 호경, 호성을 낳았고

맏딸은 유곤수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유유서에게 그 다음은 어리다. 윤우는 판관 심응록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호겸과 호양 호근이요. 맏딸은 윤홍업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노선에게 시집갔는데 나머지는 어리다.

윤복은 감찰 한경상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호약, 호공, 호관, 호선, 호서, 호제이고 맏딸은 한기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남이신에게 다음은 이영복에게, 나머지는 어리다.

尹仁涵生男曰弘毅
弘立弘裕女長適金
之誨餘幼權鵬生女
長適南以英次李弘
震次幼李堯臣生男
曰暢揚揚女長適曹
健閔哲命娶李壽男
之女生男曰潛淹女
長適李綏次金盡善
寶命娶權亮之女生
男曰浩涵定命娶韓
克明之女生男曰漑
餘幼

基命娶李元楨之女
生男曰洵洞女長適
宗室朱津守次金質
幹餘幼內外玄孫男
女四十餘人始公在
乙巳參錄

衛社勳後因廷議悉
改之只仍公正憲加
云公既卒贊成以神
道文屬暹暹以丙久
不脫藁壬申贊成公
又逝諸孤復以贊成
公治命來叩曰否則
無以示後世

윤인함은 아들을 낳으니 홍의, 홍립, 홍유이고
맏딸은 김지희에게 출가하였고 나머지는 어리
다. 권봉은 딸을 낳으니 창, 척, 양이었고 딸은
조건민에게 출가하였다. 철명을 이수남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잠, 엄이고 맏딸은 이
유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김진선에게 갔다.

보명은 권량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호, 함이다. 정명은 한극명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접이며 나머지는 어리다.

기명은 이원정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순, 형이요. 맏딸은 종실 주진수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김질간에게 시집갔는데 나머지는 어리
다. 안팎의 현손이 남녀 40여명이다. 공이 을사
년에 위사(衛社)의 공훈에 참록되었다가

뒤에 조정의 의론에 따라 모두 고치고 다만 공
은 정헌대부의 가자만이 그대로였다고 한다. 공
이 이미 돌아가니 찬성이 신도비문을 섬에게 부
탁하였으나 섬은 병으로 오래도록 탈고하지 못
하였다. 임진년에 찬성공이 또 돌아가니 여러
아들들이 다시 찬성공이 살아 계실때 유언으로
봐서 말하기를 그렇지 못하면 후에 보일것이 없
다고 하였다.

嗚呼當公之方長諫
院也遲以晚進忝正
言又辱與贊成公友
知公之詳宜莫如遲
其敢辭以不文銘曰

晬乎其外弻乎其中
一團和氣坐我春風
盍思由學問之功
文不欲多惟我知公

슬프다. 공이 간원의 장으로 계실때 섬이 후진
으로 정언의 자리에 참여 하였고, 또 황공하게
찬성공과 더불어 친구가 되었으니 공을 자세히
아는것은 섬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니 감히 글을
못한다하여 사양할 수가 없겠는가.

명을 지어 말하되

그 밖이 운택하니 그 안이 충만하도다.

한덩어리 화기가 봄 바람에 앞게하네

어찌 그 까닭이 없으리요 학문의 공이로다.

글은 많아 무엇하리. 오직 나만이 공을 안다.

정윤복(丁胤福) 神道碑

大匡輔國崇錄大夫議
政府領議政行嘉善大
夫司憲府大司憲丁公
神道碑銘并書

嘉善大夫前行成均館
大司成鄭經世謹撰

萬歷丁巳丁侯好善
牧吾尙一日以先大
夫狀授經世而言曰
吾先公之墓法宜有
顯刻而紀實之筆未
有所屬蓋不敢輕也
歲月侵尋倏忽二紀
于茲恐久遂湮泯無
以信先德於方來惟
吾子幸圖之經世辭
謝不敢承至再而不
獲命則竊伏惟念昔

先王戊子經世忝筮
珥筆班以朝夕侍公
於銀臺且半歲是時
先王臨御已久而勵
精無替選建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행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정공 신도비명 병서

가선대부 전 행 성균관 대사성 정경세 근찬

만력 정사년(1617) 정후 호선이 우리 상부의 목사로 있었다. 하루는 그 선대부 행장을 경세(經世)에게 주며 말하기를 「나의 선공(先公) 묘소에는 마땅히 비각이 있어야 할 것이나 사실을 기술할 글을 아직 위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체로 감히 가볍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서 어느 사이에 2기(二紀)가 되었습니다. 오래되면 드디어 인민(湮泯)하여져서 선공의 덕을 장래의 세상에 믿게 할 수 없을것을 두려워 합니다. 존좌(尊座)께서 다행히 이 일을 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경세가 감히 뜻을 받을 수 없다고 거듭 사양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가만히 엎드려 생각하니

옛날 선왕 무자년에 경세가 이필반(珥筆班)의 차석 자리를 더럽히고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공을 은대(銀臺)에서 모신것이 거의 반년이나 되었다. 이때에 선왕이 임어(臨御) 하신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에 힘쓰는 일이 변함이 없었다.

賢豪不眩不貳盖自廟堂臺閣以至從班言路端人正士星拱林立以左右治化一時彙征之盛與論美之

而數其傑然則公必與焉經世幸及瞻其容範聽其論議得親且詳則是猶足以承侯命而相茲役矣遂不敢終辭謹考其狀而叙之

曰公諱胤福字介錫其先羅州人有諱允宗仕麗朝爲檢校大將軍後遂顯高祖諱子伋官昭格署令曾祖諱壽崗恬靜不苟進

嘗爲集賢長值燕山政亂謝病閑居後事中廟官至兵曹參判祖諱玉亨兵曹判書考諱應斗議政府左贊成

어질고 호기스런 인물을 뽑아 쓰는데 현혹하지도 않고 마음이 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대체로 묘당(廟堂), 대각(臺閣)에서 부터 언로에 이르기 까지 단아한 사람과 바른 선비가 별처럼 들러있고 숲처럼 뻗뻗하게 서 있었다. 그래서 좌우의 치화(治化)가 일시에 휘정(彙征)의 성대함을 여론이 그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그런데 그중에서 걸출한 인물을 셀때면 공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었다. 경세가 다행히 그 용범(容範)을 보였고 그 논의(論議)를 친히 들을 수 있었으며 또 자세히 할 수 있었으니 이 점은 오히려 정 후(倓)의 명을 받들어 이 일을 돕기에 넉넉하겠다. 드디어 감히 끝까지 사양하지 못한다. 삼가 그 행장을 상고하고 이렇게 서술한다.

공의 휘는 윤복(胤福), 자는 개석(介錫)이니 그 조상은 나주 사람이다. 휘를 윤종(允宗)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으니 고려때에 벼슬하여 검교대장군이 되었다. 그 뒤로 부터 드디어 정씨는 드러나게 되었다. 고조의 휘는 자급(子伋)이니 벼슬이 소격서령(昭格署令)이다. 증조의 휘는 수강(壽崗)이니 염정(恬靜)하여 구차하게 나아가지 않았다.

일찌기 집현장(集賢長)이 되었으나 연산군의 어지러운 정치를 만나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한가하게 지냈다. 뒤에 증묘를 섬겨 벼슬이 병조참판에 이르렀다. 조의 휘는 옥형(玉亨)이니 병조판서이다. 고의 휘는 응두(應斗)니 의정부 좌찬성이다.

世以孝義陸媻訓于家清名厚德著聞當世妣宋氏貞敬夫人郡守世忠女也 嘉靖甲辰六月乙未

公以生幼而聽穎不劬而藝成丁卯中司馬其年登第選輔承文院副正字遷禮曹郎自是登擢日隆望實俱著

歷司諫院正言獻納弘文館修撰校理應教司憲府持平掌令執義轉司僕寺正甲申由司諫院司諫陞承政院同副承旨

歷長國子薇垣參兩銓議戊子拜都承旨進階授兵曹參判

乙丑冬有湖南變譙及縉紳一時士類坐貶斥殆盡公亦以大司憲被劾罷 先王察其枉尋下叙命

言者理前論家食者數年壬辰倭寇深入大駕西幸時公病跌

대대로 효의목인(孝義睦烟)의 도로써 집안을 가르치니 맑은 이름과 후덕한 것으로 당세에 명문으로 들어났다. 비 송씨 정경부인은 군수 세충(世忠)의 따님이다. 가정 갑신년(1584) 6월 을미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 부터 총영하여 노고(勞苦)하지 않고 학예가 기루어졌다. 정묘년(1627)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에 보직되었다가 예조의 낭관으로 옮겼다. 이로부터 등용과 발탁이 날로 높아져 명망과 실리가 모두 드러났다.

사간원의 정언·헌납·홍문관의 수찬, 교리, 응교 사헌부 지평, 장령 집의를 역임하고 사복시정으로 전임하였다. 갑신년(1644)에는 사간원의 사간(司諫)에서 승정원 동부승지로 승진하였다.

국자감(國子監) 미원(薇垣)의 장을 역임하고 이조와 병조의 참의(參議)를 지냈다. 무자년(1648)에는 도승지에 임명되었으며 품계가 올라가서 병조참판이 되었다.

기축년(1649) 겨울에 호남의 변이 있어서 터무니 없는 말이 진신(縉紳)에 난급되어 한때의 사류가 거의 다 폄척(貶斥)되었다. 공도 또한 대사헌으로 탄핵을 받아 파면되었다. 선왕이 그의 원왕(冤枉)함을 살펴서 곧 서용의 명을 내리셨다.

그러나 말하는 자가 전론(前論)을 다시 전개하므로 집에서 쉬는 것이 수년이나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깊이 들어오니 대가가 서순

傷甚重不任執羈

繼間關昇疾積日夜
至瑞興前不能及而
賊勢已迫後自以世
受國恩爲喬木世
臣一朝見君父播
越而不克先後之扣
心悲慟

遂成羸瘁疾聞今主
上受撫軍命駐伊
川從間道就謁授兵
曹參判扈衛至成川
時有軍務須稟決宰
臣當詣行在公病
已痼殆無以自力而
急於奔問自請以行

到嘉平郡病革遂不
起十月十日也享年
四十九權厝于郡境
寇稍退歸葬白川地
後以土薄水淺恐有
崩圯憂移兆于龍仁
浦谷卽向之原

하였다. 그때 공은 미끄러져 부상한 것이 병이 되고 매우 무거워져서 말 고삐를 잡고 호종(扈從)할 수 없었다.

병든 몸을 수레에 실은 채 어려운 먼 길을 여러 밤 낮을 걸려서 가다가 서흥에 이르렀을 때 앞으로 대가(大駕)의 행차에는 미처 따르지 못하였는데 적의 군세(軍勢)가 이미 뒤에 바짝 닥아왔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대대로 국은을 입어 교목세신(교목세신(喬木世臣: 대대로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이 되었는데 하루 아침에 군부(君父)의 파월(播越: 임금이 도성을 떠나 파란하는 것)을 보고도 대가의 앞·뒤에 모시고 가지 못한다고 하여 가슴을 치며 비통해 하였다.

드디어 지치고 병들게 되었다. 지금의 주상(主上)이 세자(世子)로서 군사를 위무(慰撫)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천(伊川)에 주재한다는 말을 듣고 사잇길로 쫓아가서 뵈었다. 병조참판을 제수하였으므로 호위하며 성천(成川)에 이르렀을 때에 꼭 품결(稟決)해야 할 군무가 있었는데 여러 신하들 중에서 마땅히 행재소에 가뵈어야 하게 되었다. 이때 공은 이미 병이 깊어져서 거의 스스로 힘쓸 수 없었으나 달려가서 여쭙어 올릴 일이 급하기 때문에, 공이 자청하여 가게 되었다.

가평군에 이르러서 병이 위독하게 되어 드디어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10월 10일이며, 향년은 49세였다. 임시로 군경(軍境)에 매장하였다가 적이 조금 물러간 때에 백천(白川)에 귀장(歸葬)하였다가 뒤에 그 곳은 흙이 얇고 물이 얕아서 무너지는 일이라도 있을 것을 두려워 하여 용인의 포곡 묘향 언덕에 이장하였다.

公資稟粹美志行醇
實自在童艸服勤弟
子之職逮從仕猶不
怠

供滌灑肖燠寒一出
忱意贊成公沒事伯
仲如事贊成有姑寡
居又母事之

遇宗黨極有恩意恤
孤貧如不及平居莊
以自持未嘗色于儉

及其接人則又謙和
樂易削去藩町雅性
恬靜不忘交遊其所
與友皆一時正人

好讀書公退輒開卷
先賢格言尤切於受
用者遂旋筭記以備
服膺尤喜

論語手自繕寫靜時
每端拱展讀居經
幄講說精確而盡其
委曲在臺閣持論平
恕而不爲吐茹至

공은 자품(資稟)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뜻과 행동이 순후하고 독실하였다. 어린 아이 때 부터 자제(子弟)의 직무를 부지런히 힘써 수행하였으니 벼슬에 종사하게 된 뒤에도 오히려 게을리 하지 않았다.

수수(滌灑)를 공궤(供饋)하는 일과 덥고 추운것을 묻는 일에는 한결같이 성의를 다하였다. 찬성공이 하세하니 백씨 중씨 섬기는 것을 찬성공 섬기는 것과 같이 하였다. 홀로된 고모 한분이 있었는데 또한 어머니 처럼 섬겼다.

종족의 무리를 대하는 것이 지극히 은의가 있었으며 외롭고 가난한 자를 구휼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못미치는 것처럼 하였다. 평소 기거는 장중하게 몸을 갖어 일찌기 경박한 얼굴을 하는 일이 없었다.

남을 접촉할 때에는 또 겸손하고 온화하며 즐겁고 상냥하게 하여 걸치레의 형식을 버렸다. 아존한 성품이 염정(恬靜)하였으며 함부로 남과 사귀지 않았다. 그가 더불어 벗으로 한 이는 다 한때의 바른 사람들이었다.

글 읽기를 좋아하여 퇴청하면 곧 책을 열었다. 선현의 격언을 받아들여 실천하기에 더욱 절실한 것은 드디어 초기(抄記)하여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대비하였다.

논어를 가장 좋아하여 손수 베껴 써 두었다가 고요한 때면 마냥 단정히 손을 모으고 앉아서 펴 보았다. 경악(經握)에 있어서는 강설(講說)이 정확하여 그 위곡(委曲)을 다하고 대각(臺閣)에 있어서는 지론이 평서(平恕)하며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

其慈詳惻怛濟人利物又一生所存心嘗奉使嶺南時有刷還邊民之舉辨覈失實冤呼徹天

還朝之日卽以所見陳啓全釋者多

公之立心制行最其槩有如此而其位與年乃不滿德論施報之理者感焉

公歿後十三年 朝廷追錄扈聖原從勳子好恭好善亦俱錄法當推恩以故累贈至領議政錫命之榮及於泉壤至是而向之惑者亦少解矣

公之配曰韓氏司憲府監察景祥之女也媿德娠賢爲世所稱先公歿追封貞敬初葬高陽後移祔公塋

그 자상하고 측은(惻怛)하는 마음에 이르러서는 남을 건져주고 남을 이롭게 해 주는것을 또 일생의 존심사(存心事)로 삼았다. 일찌기 영남에 봉사하였을 때에 변민쇄환(邊民刷還)의 조처가 있었다. 사실을 조사하여 밝히는 일이 실리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는 듯 하였다.

공이 환조(還朝)하는 날 즉시 그 본바를 가지고 진고(陳告)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히 석방된 자가 많았다.

공이 마음을 세우고 행동을 규제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개 이러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벼슬과 수(壽)가 도리어 그의 덕에 비하여 차지 않으니 보시(報施)의 이치를 론하는 자가 의혹한다.

공이 몰(歿)한 후 13년에 조정에서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의 훈호(勳號)를 추록(追錄)하였다. 아들 호공, 호선도 또한 녹공(錄功) 되었으니 법으로 당연히 추은(推恩)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여러번 증직되어 영의정에 이르는 석명(錫命: 벼슬을 내리는 임금의 명)의 영광이 천양(泉壤)에 미치니 이 때에 이르러 전자에 보시지리(報施之理)를 의혹스럽게 여기던 자도 또한 조금은 의혹을 풀게 되었다.

공의 배위는 한씨이니 사헌부 감찰 경상(景祥)의 따님이시다. 유덕한 이의 배우(配偶)이시고 어진 이의 어머니로서 세상의 칭송을 들었으나 공보다 먼저 하세 하였으며 정경부인으로 추봉(追封)되었다. 처음에는 고양에 장사하였다가 뒤에 옮겨서 공의 무덤에 부장하였다.

子男八人長好約生
員授參奉次好恭直
講好寬郡守好善卽
牧使好恕正郎皆文
科好悌進士好儉好
問皆夭

女五人長適韓頎次
適參判南以信次適
李榮復次適參議柳
孝立次適鄭文健

側生男一人好益參
奉生三女適李泐李
時華金墜

直講生四男二女男
彦瓚進士次彦頊次
彦璠爲參奉後奉公
祀

次彦瑛女適佐郎曹
佶餘幼郡守生一男
彦璜進士牧使生三
男二女男彦瑜次彦
瑗進士次彦璧女適
進士安獻徵一幼進
士生二男二女男彦
瓊餘幼

嗚呼善人之報其在
是矣何後嗣之秀且
蕃也銘曰

아들이 여덟이 있으니 장남 호약(好約)은 생
원·참봉에 제수되었다. 다음은 호공(好恭)이니
직강(直講)이다. 호관(好寬)은 군수, 호선(好善)
은 상주목사이며 호서(好恕)는 정랑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호제(好悌)는 진사, 호검(好儉), 호
문(好問)은 다 요서(夭逝)하였다.

딸이 5인이니 장녀는 한기(韓頎)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참판 남이신(南以信)에게 다음은 이영복
(李榮復)에게 다음은 참의 유효립(柳孝立)에게,
다음은 정문건(鄭文健)에게 시집갔다.

측실에서 아들 하나를 낳으니 호익(好益)이다.
참봉 호약이 3녀를 낳았는데 이진(李泐), 이시화
(李時華), 김전에게 시집갔다.

직강 호공이 4남 2녀를 낳았으니 남언찬(彦瓚)
은 진사, 다음은 언옥(彦頊)이고 다음은 언숙(彦
璠)으로 참봉이며 호약의 후사(後嗣)가 되어 공
의 제사를 받든다.

다음은 언황(彦璜)으로서 진사이다. 목사 호선이
3남 2녀를 낳았으니 남(男)은 언유(彦瑜), 다음
은 언원(彦瑗)이니 진사이고, 다음은 언벽(彦璧)
이다. 딸은 진사 안헌징(安獻徵)에게 시집가고
한사람은 어리다. 진사 호제가 2남 2녀를 낳았
으니 남은 언경(彦瓊)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아아 선인(善人)의 응보(應報)가 여기에 있구나.
그 후사들이 어찌 이렇게도 빼어나고 번성할까?
명(銘)을 지어 말하기를

既溫而貞既敏而靖
亦敦于行施及有政
孰豐其粹而嗇其永
天豈不定氣司其柄
我瞻公庭其平僸僸
維庭何有蘭茁玉挺
謂天不定視此餘慶
彼滛而福匪祥而眚
蒲原之麓有泉溼溼
有鑣其珉過者必敬

萬曆四十七年十月
五日

이미 온화하면서도 바르며, 이미 민첩하면서도
정하도다. 힘은 행실하는데 돈독하여 베풀어서
정사하는데 미쳤네. 누가 그의 수질(粹質)을 풍
부하게 품부(稟賦)하고서는 그의 수를 길게 하
는 것은 인색(吝嗇)하게 하였는가. 하늘이 어찌
정한 이치가 없으리요. 기(氣)가 그 권병(權柄)
을 잡았음일세. 내가 공의 뜰을 우러러 보니 그
평범함이 길고 멀쑥 하고나 그 뜰에 무엇이 있
는가. 난초는 싹이 나오고 옥수(玉樹)는 빼어났
네. 하늘의 이치가 정함이 없다고 하는이여 이
여경(餘慶)을 보라. 저 음란하고도 복이 있는
것은 상서가 아니고 재앙이니라. 포곡의 언덕
기슭에 맑고 밝은 샘이 있네. 옥돌에 새긴 비문
이 있으니 그 앞을 지나는 자 반드시 공경 하
리라

만력 47년(1619) 10월 5일 세움.

정응두(丁應斗) 神道碑

朝鮮國贈大匡輔國
崇錄大夫議政府領
議政兼領經筵弘文
館藝文館春秋館觀
象監事世子師行崇
政大夫議政府左贊
成兼五衛都摠府都
摠管世子貳師 賜
諡忠靖公神道碑銘
并書

外五世孫大匡輔國
崇錄大夫領中樞府
事致仕奉朝賀南九
萬謹撰

公諱應斗字樞卿姓
丁氏以正德戊辰歲
生年二十四中進士
二十七登甲科授繕
工直長遷侍講院說
書錄弘文館正字著
作副修撰選湖堂

歷吏曹佐郎正郎正
言持平校理應教掌
令左右輔德檢詳舍
人司諫陞兵曹參知
參議大司諫承旨大
司憲慶尙京畿平安

조선국 증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령경연 홍문관예문관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행
승정대부 의정부좌찬성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
세자이사 사시 충정공 신도비명 병서

외 오세손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중추부사 치사
봉조하 남구만 근찬

공의 휘는 응두 자는 추경 성은 정씨이니 정덕
무진년(1508)에 출생하였다. 24세에 진사에 합격
하고 27세에 문과 갑과에 뽑힌 이후 선공직장
(繕工直長)에 제수되었고 시강원 설서로 옮겼으
며 홍문관 정자, 저작, 부수찬을 지낸 다음 호당
(湖堂)에 들었다.

이어 이조 좌랑 정랑 정언, 지평, 교리, 응교, 장
령, 좌우보덕 검상, 사인 사간을 역임하였고 품
계가 올라가 병조참지, 참의 대사간 승지 대사
헌 경상, 경기, 평안, 함경, 전라도 등의 관찰사
에 이어 공조참판을 지냈으며 특히 병조판서에
임명되고 발탁되어 좌·우찬성에 임명되었다.

感鏡全羅等觀察使
工曹參判特拜兵曹
判書擢拜左右贊成
壽六十五卒葬于高
陽郡土堂山

公德性厚重字量寬
弘常有以自守於中
人不得窺其際此公
天賦之美也勤於讀
書嚴立課程焚膏繼
晷未嘗休息藝業已
富聲聞日彰而猶自
以爲不足此公嗜學
之誠也

事親孝雖已貴顯服
勞左右如幼少時有
姊早寡爲之繼紀其
家至於析箸有引老
收荒之義

賙給親戚常苦不及
以錄俸之不足贍洒
設義莊以爲拯濟吉
凶之資此公內行之
篤也

臨大事而神氣不動
遇盤錯而綜理愈明
容止辭氣雖一於寬
和或有非義干請則
斥之確如也

향년 65세로 졸하여 고양군 당산에 장사하였
다.

공은 덕성이 후중(厚重)하고 우량(宇量)이 관홍(寬弘)하며 항상 스스로 마음 속으로 지키니 사람들이 그 정한(程限)을 엿 볼 수 없었다. 이것이 공의 천부가 아름다운 것이다. 글 읽기를 부지런히 하여 엄중하게 과정을 정하고 밤을 낮에 이어 일찌기 휴식하는 일이 없었으며 기예와 학업이 이미 풍부하여 성문(聲聞)이 날로 들어났으나 오히려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공이 학문을 좋아하는 정신인 것이다.

아버이를 효도로 섬겨서 비록 이미 귀현하게된 뒤에도 아버이의 좌우에서 노고스럽게 받드는 것을 유년의 어린 때와 같이 하였다. 일찌기 과부가 된 자씨(姊氏)가 있었는데 공이 그 집의 살림살이를 맡아 돌봐주었으며, 심지어 집안 살림을 분가하여 늙은이를 인도하여, 흉년에 거두어 주는 의로움이 있었다.

친척들의 굶주림을 주급하여 항상 미치지 못한 것 처럼 하였으며 넉넉치 못한 녹봉으로 의장(義莊)을 설치하여 길흉사의 뒤를 도와주고는 하였다. 이것이 공의 내행이 돈독한 것이다.

큰 일에 임하여 신기(神氣)가 동요하지 않으며 서리고 엉키어 착잡한 일을 당하면 조리 정연하게 처리하는 것을 더욱 현명하게 하였다. 몸가짐과 말 기운을 비록 한결같이 너그럽고 온화하게 하지만 혹이나 의 아닌 간청이 있으면 확연히 배척하는 것이었다.

立朝四十年一心奉
公病不甚未嘗移告
雖家居燕閑亦未嘗
優遊自暇

或達夜思索治理或
終日點檢公簿無非
經國之要曾於三邊
並膺闕寄籌量事宜
撰三道關防錄以備
考閱此公任職之懿
也

處己以謙待人以恕
規人過婉而不迫爲
人謀盡其心力自奉
雖極簡儉急困無所
靳惜爲官長接下僚
以信在方伯待守宰
以誠雖徒隸之微亦
未嘗輕加譴罰此公
接物之仁也

公雖官位隆貴其在
冬月未嘗御毛藉曰
當我身專享厚福則
子孫何賴爲

조정에 선지 4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공하
였으니 병이 매우 심하지 않으면 일찌기 휴가
를 청하는 글을 올린일이 없었다. 비록 집에서
한가하게 있을 때라도 또한 일찌기 편안한 마
음으로 마음껏 자신의 여가를 누리는 일이 없
었다.

혹은 밤을 새우며 다스리는 도리를 사색하기도
하고 혹은 온종일 공문서를 점검하기도 하였으
니 어느 것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요무 아닌것이
없었다. 일찌기 삼변에서 모두 곤기(闕寄)의 임
무를 맡았을 때 일의 마땅한 바를 주량(籌量)하
여 삼도관방록(三道關防錄)을 찬술, 고열(古閱)
케 하였다. 이것은 공이 직임을 맡는데 충실하
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몸가짐을 겸손하게 하고 남을 대우하는
것은 관서(寬恕: 관용과 용서)로 하였고 남의
허물을 바로 잡을 때에는 완곡하게 절박하지
않았으며 남의 일을 위하여 꾀할 때에는 그 심
력을 다하였다. 자신을 받드는 일은 비록 지극
히 간소하고 검약하게 하지만 남의 곤한것을
급히 구할 때에는 인색함이 없었다. 관장(官長)
이 되어 하료를 접할 때에는 믿음성이 있게하
고 방백으로서 수재(守宰: 군수, 현령, 현감)들
을 대할 때에는 정성을 다하였다. 비록 미천한
하인들 일 지라도 또한 일찌기 경솔하게 꾸짖
거나 벌하지 않았다. 이는 공이 남을 접하는데
어질었기 때문이다.

공은 비록 벼슬의 지위가 높고 귀하였으나 겨울
철에도 일찌기 털 깔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는 말하기를 「나 자신이 두터운 복을 전적(專
的)으로 누려 버린다면 자손들은 무엇을 힘입을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其教子弟恒使執勞
役勿之惰遊曰子弟
之職當先服勤而後
文藝

此公劬躬巽後之德
也以此當壬辰亂公
之諸孫避兵奔迸雖
人深山窮峽知公苗
裔必相顧濟

此可見公仁聞之及
人遠也

公之諸孫及外孫條
葉繁衍而文譜連倫
奕世貴盛至于今未
艾此可見公餘祉之
自天申也

公系出羅州押海縣
遠祖允宗高麗檢校
大將軍曾祖諱子伋
昭格署令贈禮曹判
書祖諱壽崗兵曹參
判 贈左贊成考諱
玉亨兵曹判書 贈
左贊成

妣尙州金氏司直壽
延女配恩津宋氏郡
守 贈吏曹判書世
忠女生後公一年卒
後公八年葬祔公

그가 자손을 가르칠 때는 항상 로역(勞役)을 집행하고 게을리 놀지 말라고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자제들의 직분은 마땅히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을 먼저하고 문예는 뒤로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공이 자신을 수고롭게 하여 후손을 부육(覆育)하는 덕인 것이다. 이리하였기 때문에 임진란을 당하여 공의 여러 후손들이 피난하여 달아났을때 비록 심산궁협에 들어 갔더라도 공의 후예라는 것을 알면 반드시 서로 돌보아 주고 구제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공의 어진 명문(名聞)이 사람에게 심원(深遠)하게 미침이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의 제손과 외손들은 가지와 잎이 번성하게 일어나고 문학의 계보는 차례를 이어 대대로 귀성(貴盛)함이 이제에 이르기 까지 그치지 않았다. 이것은 공의 남기신 복지(福祉)를 하늘이 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의 가계(家系)는 나주 압해현(押海縣)에서 나왔다. 원조(遠祖) 윤종(允宗)은 고려의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이다. 증조의 휘는 자급(子伋)이니 소격서령(昭格署令)으로 예조판서에 증직되었고 조(祖)의 휘는 수강(壽崗)이니 병조참판에 좌찬성으로 증직되었다. 고(考)의 휘는 옥형(玉亨)이니 병조판서를 역임하셨고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비위(妣位)는 상주김씨이니 사직(司直) 수연(壽延)의 딸이며 배위(配位)는 은진송씨이니 군수 증 이조판서 세충(世忠)의 따님이시니 공보다 일년 뒤에 출생하였으며 공보다 8년 뒤에 졸(卒)하였으니 공의 묘소에 합장하였다.

長男胤祚典籤次胤禧觀察使 次允祐觀察使次胤福大司憲女長適趙瑞龍次適參判尹仁涵次適牧使權鵬次適郡守李堯臣

胤祚四男別提好仁好義好禮好智胤禧三男好德進士好敬監察好誠允祐三男好謙好讓好謹胤福六男參奉好約正郎好恭司成好寬觀察使好善節度使好恕進士好悌

女孫及曾玄以下多不悉記公之下世至今一百三十餘年矣凡其流風遺教得之於後孫之口語國人之公誦者止此而已至若賜暇湖堂酬應公私其辭章之可傳者必多而荐經兵亂文籍散佚今無存者嗚呼其可惜也已公之玄孫參議時潤念公節惠之闕 贈墓道之無刻爲之愴然寤歎

장남 윤조(胤祚)는 전참, 다음은 윤희(胤禧)는 관찰사, 다음은 윤우(胤祐)는 관찰사 다음은 윤복(胤福)은 대사헌이다. 장녀는 조서룡(趙瑞龍)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참판 윤인함(尹仁涵)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목사 권봉(權鵬)에게, 다음은 군수 이요신(李堯臣)에게 출가하였다.

윤조에게 4남이 있었으니 별제(別提) 호인(好仁)과 호의(好義), 호례(好禮), 호지(好智)이다. 윤희에게 3남이 있으니 호덕(好德)과 진사 호경(好敬), 감찰 호성(好誠)이다. 윤우에게 3남이 있으니 호겸, 호양, 호근이다. 윤복에게 6남이 있으니 호약(好約)은 참봉이고 호공(好恭)은 정랑이며 호관(好寬)은 사성, 호관(好寬)은 관찰사 호선(好善)은 관찰사, 호서(好恕)는 절도사이며 호제(好悌)는 진사이다.

여손(女孫)과 증·현손 이하는 많아서 다 기록하지 않는다. 공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 일백 삼십여년이 되었다. 무릇 그의 유풍·유교(遺教)는 후손의 구술과 나라 사람들의 공공연한 칭송에서 얻은 것이어서 이것에 그칠 뿐이다. 호당에 사가 하였을 때와 공사(公私)에 수용한 사장(辭章)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이 반드시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거듭 병란을 겪는 동안 문적이 산실되어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아아 아갑구나 공의 현손 참의 시윤(時潤)은 공에게 절해(節惠: 諡號)를 줌이 없는 묘도에 비각이 없음을 생각하고 눈만 뜨면 슬피 탄식하였다.

以崔相國錫鼎之爲
公孫好善之外曾孫
也請撰狀 上聞賜
諡忠靖以九萬之爲
公孫好敬之外曾孫
也請作銘載碑以眎
久遠九萬雖不敢當
亦何敢辭 銘曰

祖宗中葉泰運方升
中仁明宣 多士蔚興
維公生世 際此四朝
偉器長德 冠于群僚
左右文武 無施不可
歷試中外 績用實大
惟於後事 猶未之葢
承有裔孫 篤於追遠
既請易名 又營顯刻
樹之風聲 百世如觀

최상국 석정(錫鼎)이 공의 손자인 호선의 외증손이라고 하여 칭하여 행장을 지으니 주상(主上)께서 들으시고 충정(忠靖)이라 시호를 내리시고 구만(九萬)이 공의 손자의 호경의 외증손이 되어 나에게 명(銘)을 청하여 비에 새겨 영원히 보이게 하겠다고 한다. 구만이 비록 감당할 수 없으나 또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는가 명을지어 말하기를

조종(祖宗)의 증엽에 큰 운이 한창 상승하여 중종(中宗), 인종(仁宗), 명종(明宗), 선조(宣祖) 때에 많은 선비들이 성대하게 일어났다. 공이 세상에 나심이 4조(朝)에 즈음하였네. 위대한 기량과 크신 덕망이 모든 동료의 으뜸이었으니 좌우 문무 어디에 시용(施用)하나 불가함이 없었네. 차례로 중외(中外)에 시험하여 치적이 실로 컸었다네. 오직 뒷일을 아직도 오히려 갖추지 못하였더니 계승하는 후손이 있어서 추원(追遠)하는 마음 돈독하여 이미 시호(諡號) 내리기를 청하고 또 들어 낸 돌에 새기기를 경영하였네. 고풍(古風)과 명성을 세우니 백세(百世)에 빛나는 듯 하네.

정준(鄭僑) 墓碣

崇禎丁丑之難南漢
爲解朝廷爲虜立碑
於三田江上

詞臣李景奭撰進其
文頌虜功德其盛我
肅宗大王嘗臨筵論
此事

曰雖不得已而應
命胡乃褒揚至此其
語全無斟酌量宋時
烈譏斥之言宜哉

當其時也鄭公僑士
秀爲瓦署別提當燔
瓦而閣之 恥不肯
爲卽棄官去

公之子雲翰方爲雲
峰守公不苟就專城
之養遵海濱而處不
易其介

次子雲翼以童子隨
行商以爲養士大夫
高其風節

公筵日人圃隱先生
之雲孫也先生固吾
東方道學之祖而其

승정 정축(1637, 즉 병자호란 이듬해를 말함)의 난 때에 남한산성이 청나라 병사로 부터 포위된 것이 풀리자 조정에서는 오랑캐를 위하여 삼전도 강상에 비를 세웠다.

이경석(李景奭)이 사신(詞臣)으로서 청나라의 공덕과 그 성함을 글로 지어 바쳤는데, 우리 숙종대왕께서 일찌기 경연에 임하시어 이 일을 논하여 말씀 하시기를

「비록 명에 의하여 부득이 응하여 청나라로 부터 이에 포양(褒揚)이 이르렀으나 그 글 중에는 그들을 칭송하는 말에 보탬이 전혀 없었는바 송시열이 꾸짖어 배척하는 말들이 어찌 의당하리요」 하시었다.

그 때를 당하여 정공(鄭公) 준(僑)은 뛰어난 선비로서 와서별제(瓦署別提)가 되었는데 삼전도 비각에 쓸 기와를 굽는 일이 맡겨지자 공은 이에 응하지 않고 즉시 벼슬을 버리고 떠나갔다.

공의 아들 운한(雲翰)이 운봉(雲峰)의 수령이었는데 성주로서 지위를 취하여 참으로 오로지 하지 아니하고 해변가의 땅으로 따라가 그곳에서 양친을 부양하니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차자 운익(雲翼) 또한 동자(童子)로서 수행하고 양친을 위하여 마음을 쓰니 그것이 곧 사대부(士大夫)의 높은 기풍이며 절의이다.

공은 연일인(延日人)이며 포은 선생의 운손(雲孫)이다. 포은 선생은 동방도학의 조(祖)로서 춘추(春秋)의 대의를 밝히시어 세상의 교훈에 공을

倡明春秋之大義
尤有功於世教公之
所表見於世者雖是
微事亦可謂不恭先
烈矣

公以大賢宗孫朝廷
始廩之三十除 禧
陵參奉轉 建元陵
遷濟用監奉事司宰
監直長長興庫敦寧
府主簿

由敦寧府褫爲瓦署
後累歲復敦寧府判
官甲申十月十九日
以宗親府典籤卒年
七十二葬于先生墓
西未向之原後用扈
從勞贈承政院左承
旨

公凡再娶元氏士人
世弼女吳氏進士尙
立女

男雲翰及女適縣監
趙沔者元出男雲

翼後爲縣監女適尹
龜李命時者

吳出也長房男元徵
縣監龜徵從仕郎星
徵奉事次房文徵獻
徵

더하였고 후세 사람에게 사표가 되셨으니 비록
이처럼 미미한 일이라 하더라도 가위 선열에게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공은 대현(大賢)의 종손으로서 조정에서는 30여
번이나 벼슬을 내렸는데 희릉참봉(禧陵參奉)에
서 건원능(建元陵) 참봉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
제용감(濟用監) 봉사(奉事) 사재감(司宰監) 직장
(直長) 장흥고(長興庫) 돈령부(敦寧府) 주부(主
簿)

돈령부에서 와서(瓦署)로 자리를 바꾼 후 여러
해 다시 돈령부 판관(判官)을 지냈으며 갑신년
10월 19일 종친부(宗親府) 전참(典籤)이 되었다
가 향년 72세로 타계하여 포은선생 묘 서쪽 미
향지원(未向之原)에 장사 지냈다.

후에 왕을 호종(扈從)한 공로로서 승정원(承政
院) 좌승지(左承旨)로 증직(贈職)되었다.

공은 무릇 재취(再娶) 하였으니 처음 부인은 원
씨(元氏)로 사인(士人) 세필(世弼)의 따님이고
나중 부인은 오씨로 진사 상립(尙立)의 따님이다.

남(男)은 운한(雲翰)이고 딸은 현감(縣監) 조면
(趙沔)에게 출가 하였다.

원씨(元氏) 소생 아들 운익(雲翼)은 현감(縣監)
이 되었고 딸 둘은 윤원(尹龜), 이명시(李命時)
에게 각각 출가 하였고

오씨 소생 장방(長房)의 아들 원징(元徵)은 현감
(縣監), 구징(龜徵)은 종사랑(從仕郎) 성징(星徵)
은 봉사(奉事), 차방(次房)은 문징(文徵)과 헌징
(獻徵)을 두었다.

元徵男纘光都事纘
輝翊贊能世其學

龜徵男纘憲參奉纘
祖纘昌纘成纘章星
徵男纘一纘彬纘馨
纘淵纘明文徵男纘
胄纘豈都士二子鎬
錫皆縣監

銘曰 位微祿而身
大義兮 凜乎其蹈
海之風 惟歸骨於
山足兮 庶庶愧於
圃翁
李緯記

원징(元徵)의 아들 찬광(纘光)은 도사(都事)이고 찬휘(纘輝)는 익찬(翊贊)으로서 학문이 일세에 능하였다.

구징(龜徵)의 아들 찬헌(纘憲)은 참봉(參奉)이고 그 다음은 찬조(纘祖), 찬창(纘昌), 찬성(纘成), 찬장(纘章)이다. 성징(星徵)의 아들은 찬일(纘一), 찬빈(纘彬), 찬형(纘馨), 찬연(纘淵), 찬명(纘明)이고 문징(文徵)의 아들은 찬주(纘胄)이고 찬기(纘鬚)는 도사(都士)인데 아들 호(鎬)와 석(錫)은 모두 현감(縣監)이다.

명(銘)에 이르기를 지위는 미록(微祿)하였으나 몸에는 대의(大義)가 있고 늠늠함은 해풍을 이겼네 오직 유골은 돌아가 산에 묻히기 족하나 포은 응에게는 문간채에 이르기가 부끄럽구나

이재 쓰다.

정호선(鄭好善) 神道碑

公諱好善字士優姓
丁氏系出羅州麗朝
檢校大將軍允宗其
遠祖也後世多韻人
見家牒高祖諱壽崗
燕山朝爲副提學見
幾而去免於禍後事
中廟官至兵曹參判
曾祖諱

玉亨官至兵曹判書
贈左贊成諡恭安祖
諱應斗官至左贊成
贈領議政考諱胤福
官至大司憲 贈領
議政妣 贈貞敬夫
人韓氏監察景祥女
也隆慶辛未七月癸
卯公

生兒時穎異出群自
能勝衣桀度整整有
遠器萬歷辛丑春舉
進士夏登文科秋拜
藝文館檢閱壬寅遷
注書兼說書俄拜弘
文館正字著作博士
冬陞副修撰兼司書
知製教

공의 휘는 호선(好善)이며 자는 사우(士優)이고 성(姓)은 정씨(丁氏)이다. 가계는 나주에서 나왔는데 고려조의 검교대장군(檢校大將軍) 윤종(允宗)은 그의 먼 선조(先朝)이다. 후세에 현달한 사람이 많아 가첩(家牒)을 보니 고조인 휘 수강(壽崗)은 연산조(燕山朝)에 부제학이 되었는데 기회를 보아 이를 버리고 은퇴하였던 바 이로써 뒤에 일어나는 사화를 면하였다. 후에 중종(中宗)을 섬기면서 벼슬이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증조 휘

옥형은 벼슬이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이르고 좌찬성(左贊成)을 증직받았으며 공안(恭安)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조부의 휘 응두(應斗)는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고 영의정을 증직 받았다. 부친의 휘는 윤복(胤福)으로 대사헌(大司憲)에 이르고 영의정에 증직되었으며 모친 한씨는 정경부인을 증직받았는데 감찰 경상(景祥)의 따님이다. 공은 융정 신미년(1571) 계묘에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빼어나고 기이(奇異)하여 무리중에서 출중하였으며 스스로 능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의연하였다. 법도가 정연하였으므로 훗날 그릇이 될만 하였다. 만력 신축년(1601) 봄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여름에 문과에 올랐으며 가을에 예문관 검열(檢閱)의 벼슬을 제수받았다. 임인년(1602) 주서 겸 설서로 옮기고 곧 홍문관 정자(正字), 저작박사를 역임하였으며 겨울에 벼슬이 올라 부수찬 겸 사서(司書), 지제교(知製教)에 올랐다.

每於講讀之際音吐
洪暢語約而義明凡
所進言意存規諷
宣祖嘗對經筵官稱
其善癸卯歲以事曹
卽承命巡按海西
有一邊將行賂於公
所親者求以治狀而
聞於朝

公杖其罪而黜之甲
辰陞正郎時朝議潰
裂秉銓之人皆以好
惡而爲取舍公獨扶
正抑邪屹然不以私
撓雖以此而爲公論
所重亦以此而爲同
列之所側目也秋以
災傷御史

出按嶺南黜鄭造朴
光先等奸贓之罪一
路威風肅然丙午以
司藝兼迎接都廳因
事罷官冬求郡拜遂
安郡守蓋以權臣顛
柄蹤跡孤危見識之
明已炳於行違之際
也到任疏

매양 감독할 때 음(音)과 토(吐)가 크고 길며,
말이 간략하고 뜻이 명확하여 무릇 진언하는 바
의 뜻은 규범과 풍간(諷諫)하여 선조께서 일찌
기 경연관에 봉하여 그 잘하는 것을 칭찬하였
다. 계묘년(1603) 이조랑(吏曹郎)으로써 명을 받
들고 해서(海西)를 살필 때 변방의 한 관리가
공과 친분이 있는 자에게 뇌물을 주어 선치(善
治)를 구하였다는 소문이 조정에 들리자

공이 그 죄상을 살펴서 이를 내쫓았다. 갑진년
에는 정랑(正郎)으로 승진하였는데 조정의 의론
(議論)이 분열되고 아울러 전형(銓衡)을 잡은 자
들이 모두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으로서 임용하
고 내쫓는 것을 일삼았으나 공은 홀로 바른 것
을 붙들고 사악한 것을 억제하여 우뚝하게 사사
로서 흔들리지 아니하여 비록 이로써 공론이 중
한바가 되었으나 또한 동렬(同列)의 결눈질을
받는바 되었다. 가을에 재해(災害)로 상해를 입
은 것을 살피는 어사로서

영남지방에 나가게 되었는데 정조(鄭造) 박광선
(朴光先) 등을 간사하게 재물을 모은 죄로 내쫓
으니 한번의 위엄으로써 바람이 숙연하여졌다.
병오년(1606) 사예(司藝)겸 영접도청(迎接都廳)
으로 임용되어서는 일로 인하여 관직을 파직하
였고 겨울에 군(郡)으로 나가기를 청하여 순안
군수(順安郡守)로 임명되었다. 대개 권신이 정권
을 잡으면 종적(蹤跡)이 외롭고 위태로워서 견
식이 밝음이 이미 그릇된 행동의 모양을 환희
알게되는 것이다. 임자에 이르러

陳弊瘼爲政以剔吏
蠹遂民生爲先視篆
四年民畏信而便安
之己酉知貢擧于白
川見金直哉之子百
誠在試圍中以其兇
悖之種而黜之庚戌
弃官歸闔境遮道請
留者滿野

立石寓去後思承叙
拜掌令病遞授司導
正兼弼善辛亥授判
校拜應教時光海大
徵女樂欲稱壽于
慈殿公進言曰孝親
之道不在於觀美之
隆請罷之識者偉之
冬移拜

司諫彈奸黨之不合
爲臺諫者坐此左遷
高城郡壬子春金直
哉獄起百誠以宿憾
誣引公昆季四人同
被逮旋釋冬拜軍器
寺正癸丑拜舍人遷
典翰兼問事郎廳時
誣蠹獄起辭

병폐를 막는 상소를 올리고 정사(政事)를 살핌
에는 좀도독질하는 아전을 잘라 없애고 민생을
먼저 위하였다. 정사를 돌본지 4년만에 백성들
이 공경하고 신임을 얻어 온 고을이 편안(便安)
하여졌다. 기유년 백천(白川)에서 지공거(知貢
擧)를 할때 김직재(金直哉)의 아들 백함(百誠)이
시험의 무리중에 있는 것을 보고 흥패의 무리라
하여 이를 쫓아 냈으며, 경술년에는 벼슬을 버
리고 돌아옴에 백성들이 군(郡)의 경계까지 길
을 가로 막으며 더 머무르기를 청하였고 들에는
가득하게

돌을 세워 거하기를 부탁하였다. 또 후에 왕의
은혜를 입어 장령(掌令)을 제수받고 서용되었으
나 병으로 체직하고 사도정(司導正)을 제수받고
필선을 겸하였다. 신해년(1611) 판교(判校)를 거
쳐 응교(應教)를 제수 받았는데 이때 광해군(光
海君)이 크게 여악(女樂)을 불러 자전(慈殿)의
수(壽)를 빌려고 하자 공이 진언(進言)하여 아뢰
기를 “아버이에 대한 효성의 도리는 아름다움을
융숭하게 보는 것에 있지 아니하오니 청컨데 이
를 파하시옵소서”라고 하여 이를 아는 사람들은
공을 크게 여기었다. 겨울에 옮겨서

사간(司諫)을 제수 받았는데 간당의 무리가 대
간(臺諫)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탄핵하여
좌천되어 고성군수(高城郡守)로 옮겨졌다. 임자년
봄 김직재(金直哉)의 옥사가 일어나자 백함(百
誠)이 예전의 원한으로 무고(誣告)하니 공의 형
제 4인이 같이 잡혀 들어갔다가 곧 풀려났으며
겨울에 군기시정(軍器寺正)을 제수 받았다. 계축
년 사인(舍人)이 되었다가 옮겨 전한(典翰)을
제배하여 문사랑청(問事郎廳)을 겸하였다. 이때
무고의 옥사가 일어나

連 母后賊臣鄭造
尹訥始爲廢 母之
論乃以出處別宮發
論於臺席公兄好寬
以持平持不可造訥
等避嫌其黨韓纘男
朴鼎吉在玉堂力主
造認之議獻納柳活
亦左袒

於凶徒公上筭并請
遞之其略曰國家不
幸巫蠱禍作人倫之
變前古所未有也討
送不可不嚴而處變
之道亦不可不盡苟
於此而有一毫未盡
則人道幾乎息矣以
殿下無

間之孝遭千古所無
之變一國臣民之所
望於 殿下者豈不
以古聖人至極之道
而爲法於今日乎鄭
造尹訥掇拾李偉卿
之論直斥 慈殿至
曰顯有當絕之惡又
曰爲今臣

모후(母后)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 있자 적신(賊臣) 정조(鄭造), 윤인(尹訥)이 폐모론을 이르켜 별궁(別宮)에 나가 대석(台席)에서 발론(發論)하고 지평(持平)인 공의 형 호관(好寬)이 불가함을 견지 하였으나 정조, 윤인 등은 싫어하며 피하고 그 무리인 한찬남(韓纘男), 박정길(朴鼎吉) 등은 옥당에 있다가 정조, 윤인의 의론을 힘주어 주장하였으며, 헌납 유활(柳活) 역시 좌단

홍도들에게 동조하였다. 공은 상소를 올리고 아울러 이들의 체벌을 청하였는데 그 대략은 “국가가 불행하게도 무고(誣告)로 인하여 화가 일어나니 인륜(人倫)의 변은 전고(前古)에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역적(逆賊)을 토벌하는데 엄하게 하지 않음은 불가(不可)하며, 처변(處變)하는 길 또한 구차하게 이를 다하지 아니하면 불가한데 추호의 미진함이 있어서는 즉 사람이 어찌 마땅한 도리를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殿下)의

허물없는 효도는 천고(千古)에 없는 바 변(變)을 만났으니 한 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전하에게 바라옵는 바는 어찌 옛 성인(聖人)의 지극한 도로써 금일에 법이 되도록 아니하겠습니까?” 하였다. 정조 윤인의 뜻을 모아 이위경(李偉卿)이 직접 자전(慈殿)을 배척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르기를 “마땅히 끊어야 할 악덕(惡德)이 나타났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금일

子者其可以國母待之耶又引遜邾遷后之語以證之此豈人臣之所可道耶其得罪於倫紀大矣柳活多少辭說亦無非所以爲造謫之地其心所在固未可測也云云續男等

勃然起出當時權臣勢焰如火鼻息所嚮誰敢違者而公能焱厲迅發毅然不可奪如是而況於其易者乎秋拜宗簿正遷舍人甲寅拜執義遞授司成拜司僕寺正遷輔德舍人

典翰時以巫蠱事將布告中外以爲廢母后之張本公称病不進坐罷乙卯拜掌樂院正遷舍人丙辰春以問事郎陞資夏以千秋使赴京及還行褚蕭然無一物丁巳

신화된 자로서 가히 국모(國母)로서 대접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으며, 또 손주(遜邾)가 왕후(王后)를 옮긴다는 말을 인용하여 론증하기를 “이 어찌 가히 인신(人臣)의 도리이겠는가? 그 윤기(倫紀)의 득죄(得罪)함이 크다”고 하였다. “유활(柳活)의 다소의 사설(辭說)이 또한 정조와 윤인의 처지를 위한 소이(所以)가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마음의 있는 바도 진실로 측량하지 못하겠다”라고 운운하였다. 한찬남(韓纘男) 등이

발연(勃然)히 일어나 나와 당시 권신들의 세도가 불과 같이 타오르듯 하며, 그들의 입김이 향하는 바를 누가 감히 어길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공을 능히 불꽃속으로 뛰어들 듯 신속하게 발론(發論)하였으니 그 의연한 태도는 가히 막기 어려웠으며 하물며 쉬운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가을에 종부시정(宗簿寺正)에 임명되었다가 사인(舍人)으로 옮겼고 갑인년(1614)에 집의(執義)에 제수 되었다가 체직하고 사성(司成)을 거쳐 사복시정(司僕寺正)을 배수하였으며 보덕(輔德), 사인(舍人),

전한을 역임하였다. 이때 무고사(誣告事)로 장차 중외(中外)에 포고(布告)하여 모후(母后)를 폐하는 구실을 삼으니 사인(舍人)으로 옮겼으며 병진년 봄에는 문사랑(問事郎)으로 승진하고 여름에 천추사(千秋使)로서 연경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행장이 검소하여 한가지 물건도 없었다. 정사년

除尙州牧使爲治先
教而後罰始至聚耆
老而告之曰嶺南本
禮義之鄉也今之爲
吏者自以不善而爲
民之所怨詈則曰倭
悍而難治也欲以土
豪二字而防士民不
齊之日吏以豪

習而視民民何以爲
勸吏民之義如父子
吾但欲胥告以胥益
不欲相敗而相傷耳
吾有疵政願父老之
不憚於告語也至如
科糴之收雖上司催
理日急必均調民力
思以緩其

期而紓其苦民感於
忱意而樂輸之無一
賊之後期者時逆賊
朴致毅亡命督捕日
急列邑守宰偶得拘
鼠之偷橫羅堅織爲
希功竊賞之地公捕
得一無賴訊之自稱
知朴賊

상주목사(尙州牧使)를 제수함에 치정(治政)하는 데 있어서 먼저 가르치고 후에 벌(罰)을 주었으며 처음 부임하면서 기로(耆老)들에게 이르기를 “영남(嶺南)은 본래 예의(禮儀)의 고장인데 지금의 아전(衙前)들은 스스로 선하지 못하므로써 백성의 원망(怨望)이 된 즉 풍속이 사나워져서 다스리기가 어려운지라 토호(土豪) 두 글자로써 선비와 백성들의 고르지 못한 일을 막고자 한다면 토호의

습관으로서 아전(衙前)들은 백성을 볼 것이니 백성이 어찌 부지런 하겠는가? 아전과 백성의 의리(義理)는 부자(父子)와 같으니 내가 다만 서로 이로움으로써 서로 고하기를 바랐으나 서로 패(敗)하고 상(傷)하기만 할 뿐 고하지 못하였으니 내게 병폐가 되는 정사가 있거든 부로(父老)들은 기탄 없이 말하여 주기 바라오 라고 하였다. 과적(科糴)을 거두어 들임에 있어서는 비록 상사(上司)가 재촉하는 기일이 급하더라도 반드시 민력(民力)에 고르게 분배할 것을 생각하여 그

기한을 늦추어 괴로움을 덜어주어 백성들이 감동하고 기꺼이 운반하였기 때문에 한가지 부과(賦果)라도 기한이 지난 후에 내는 자가 없었다. 이때 역적(逆賊) 박치의(朴致毅)가 망명(亡命)하였는데 독려하여 체포하기가 급하거늘 열읍(列邑)의 수령(守令)들이 우연히 걸려든 좀도둑을 잡아 자기의 공을 세워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처지에 있었다. 공이 한 무뢰한을 붙잡아 물으니 자칭 박적(朴賊)의

所在仍出一紙奸書
覬欲嫁禍於人而僥
功於已公不問而杖
斃之蓋惡其捏誣之
狀且有嫉於俗吏用
意之慘也人情快之
雨暘少愆容色慘然
已未旱甚公禱雨於
主屹山既退

而兩人謂精誠所召
秩滿因民情許留而
聞鄭造爲本道方伯
卽日解綬而去庚申
授分兵曹參議冬拜
江原道監司 啓罷
府使李元燁貧鄙之
罪元燁乃爾瞻之子
也其弟

吏曹郎益燁嘗無禮
於蓮堂公時爲舍人
以墜古風而杖其吏
矣二奸挾其父之勢
思以報怨於公者曷
嘗暫忘而終不得禍
焉可見其所守之正
雖以權臣氣勢而亦
無奈何也壬

소재를 안다고 하고는 이에 한장의 간사한 글월
을 내어 놓았는데 화(禍)를 남에게 넘겨줘 공
(功)을 요행히 바라는 무고(誣告)였다. 이에 공
은 묻지도 않고 그를 장살(杖殺) 시켰다. 이는
보조하여 무고하는 글을 미워하고 또 허씨로써
공(功)을 세우려는 속리(俗吏)들의 나쁜 버릇을
질시(疾視)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로써 인정(人情)
이 쾌정하여 졌다. 공은 또 장마와 가뭄이 조금
만 들어도 얼굴빛에 수심이 가득하였는데 기미
년(1619) 가뭄이 심해지자 공이 주흘산(主屹山)
에 올라가 비가 내리기를 빌었다. 가뭄이 물러
가고

곧 비가내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는 공의 정
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임기가 가득차자
백성들과의 정(情)으로 인하여 유임(留任)하기로
허락하였으나 성조(鄭造)가 본도의 방백이 되었
다는 소리를 듣고 그날로 사임하고 돌아갔다.
경신년 병조참의(兵曹參議)를 거쳐 겨울에 강원
도 감사(監司)를 제수 받았다. 부사(副使) 이원
엽(李元燁)이 탐욕한 마음으로 죄를 피하는 계
(啓)를 올리어 파직할 것을 아뢰었다. 원엽은 이
첨(爾瞻)의 아들이며 그의 아우

이조랑(吏曹郎) 익엽(益燁)은 일찌기 연당(連堂)
에서 늘 부례(無禮)하였는데 공은 이때 사인(舍
人)으로 옛 풍도(風度)를 떨어뜨리는 그 관리를
벌하였다. 이후 두 간신(奸臣)이 그 아버지의 세력
을 믿고 공에게 원한을 갚을 생각을 잠시도 잊
지 않고 있었으나 끝내 화를 당하지 않았으니
그 지키는 바가 바르면 비록 권신(權臣)의 세력
으로도 역시 어쩔 수가 없는 것을 가히 볼 수가
있다.

戊春以病聞千 朝
封還符節乞歸忠原
縛數椽于荷潭爲終
老計盖見時事日非
無復當世念也癸亥
三月今 上反正四月
拜安邊府使五月
降資凡爲廢朝問事
卽而加資

者皆降也施以摧折
造訥之功加資 賜
教略曰惟爾明粹之
姿醇厚之德世其家
聲人稱瑞鳳項者群
兇肆虐謂 母可廢
誰敢屹然障此橫流
爾獨一言斥邪二賊
墜膽大義

己晦賴爾以明正氣
已喪賴尔以壽誰知
今日之反正實有基
於爾力噫天地再位
宗社再安飛廉惡來
皆已膏於鉄鎖彰善
瘡惡其可緩於此時
樹之風聲予自爾始
庸懋乃

임술년(壬戌年:1622) 봄, 병환을 알리는 부절(符節)을 봉해 보내고 충원(忠原)으로 돌아가기를 간청하여 하담(荷潭)에 두어칸 집을 얻어 짓고서 종로(終老)를 위한 계획을 세우니 이는 대개 이때의 정사가 그릇됨을 보고 다시 세상에 나가지 않을 생각에서 있다. 계해년 3월 금상(今上:인조)께서 반정(反政)하자 4월 안변부사(安邊府使)를 제수 받았으며 5월에 품자(品資)를 내렸는데 폐조(廢朝) 때 문사랑(問事郎)을 가자(加資)

한 사람에게 모두 내렸으니 곧 공이 정조(鄭造)와 윤인(尹訥)의 죄를 꺾은 공(功)에 가자(加資)하고 교지(教旨)를 내린 것이다. 그 대략은 “오직 그대의 밝고 순수한 자질과 순수(醇厚)한 덕이 대대로 내려온 그 집의 명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상서(祥瑞)로운 봉(鳳)이라 칭송하였도다. 전자(前者)에 흉악한 무리들이 사납고 방자(放恣)하게 모후(母后)를 폐단한다고 하였지만 감히 누가 홀연히 나서서 이러한 횡류(橫流)를 막을 수 있었겠는가 만은 오직 그대만은 말한다디로 사악한 것을 물리쳐 이적(二賊)의 담(膽)을 떨어뜨리고 대의(大義)가

이미 어두어 졌으나 그대의 밝음으로써 힘입었으며 바른 기운이 이미 쇠하였지만 그대의 힘을 입어 오래 가게 되었으니 금일의 반정(反政)은 실로 그대의 힘에 기초(基礎)함이 있도다. 슬프도다. 천지가 두번 자리를 바꾸고 종사(宗社)가 두번 안정되었으니 비렴(飛廉:주왕 때의 倭臣)과 악래(惡來)은 주왕때의 신하로 힘이 세었음이 이미 모두 부질(鉄鎖:도기로 죽이는 형벌)에 말라 없어져 창선(彰善)과 악을 미워함으로 이때 가히 덕을 힘쓰게 되었고 나무의 바람소리처럼 웅장한 그대로 부터 비로소 덕을 힘쓰게 되었으니

德命爾增秩於戲知
勁草於疾風識蠱臣
於板蕩宜置爾於金
閨姑得重於淮陽云
上任疏陳府弊請
減規外上供復立戶
保之法甲子正月逆
適倡亂公以辭連而
被逮時公

弟好恕牧定州斬賊
使以徇督府以其事
聞於 朝大臣皆曰
豈有其弟斬賊而其
兄從逆者乎俄而自
上燭其被誣而釋之
公出獄之夜聞 大
駕南巡公恐退宿於
家未及

隨 駕約二三同志
往候 闕門外公於
拿 命之下既傷於
道路凍獄之滯仍傷
於桎梏氣息如一綫
扶病至漢津得破舡
水沒半身同舟者還
下公曰當此泥露之
日水火何

그대에게 증질(增秩)을 명하노라. 생각컨데 굳센
풀은 질풍(疾風)에게서 알 수 있고 진언(進言)하
는 신하는 판탕(板蕩)에서 알 수 있나니 마땅히
그대를 금궤(金閨: 귀족의 집안을 지칭함)에 두
어야 하나 아직은 회양(淮陽: 지방)에서 민심을
얻는 것이 중하노라” 하였다. 임금께 임지로 가
는 상소를 올리고 나아가 부내(府內)의 폐단을
막고 규칙(規則) 외의 상공(上供)을 감하고 다시
호보(戶保)의 법을 세울 것을 청하였다. 갑자년
(1624) 정월 역적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키자
공이 관련되었다는 말이 있어 체포되었다. 이때
공외

아우 호서(好恕)는 정주목사(定州牧使)로 있으면
서 적사(賊使)를 참하여 독부(督府)로 보내니 이
로써 일이 조정에 알려져 대신들이 모두 말하되
“어찌 그 아우가 참적(斬賊)을 하였는데 그 형
이 역적을 따랐을 수가 있겠는가?”라 하여 이로
부터 상께서 그 무고함을 밝히시어 공을 석방하
였다. 공이 출옥하는 날 밤에 대가(大駕)가 남쪽
으로 순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물러가 집에서 자
다가 미쳐

따라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二, 三 동지(同
志)와 약속하고 궐문 밖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공에게 명을 관장하라는 소임이 내려져 도로와
동옥(凍獄)에서, 그리고 질고(桎梏: 차보와 수갑)
에 상한 병든 몸을 이끌고 한강 나루에 이르러
파선(破船)을 얻어타게 되었다. 몸이 물에 반쯤
잠기자 같이 탄 사람들이 내려 돌아가는데 공이
이르기를 “이러한 진흙 속에서 어찌 물 불을 피
할 수 있으리요”라 하고

避蒼黃渡江扈 蹕
至果川體凍而戰喘
息欲絕乃由便路寸
寸而前追及 行在
於一日之後豈知射
者之乃以後至而爲
之的也秋拜仁川府
使己丑秋又罹誣告
之獄翌日

蒙宥特 命仍任丙
寅春遞還四月以
天使問安使兼迎慰
使赴關西秋拜豐基
郡守丁卯有胡變公
以把守大將領二千
兵遮截竹嶺凡所施
置皆得其宜時以牛
酒而勞之

軍士感奮無敢有參
差失伍者戊辰以病
辭歸楊州地已巳夏
得風疾冬拜清風郡
守時公病已瘳猶究
心民事不敢自暇壬
申四月遞歸忠州六
月二十八日 仁穆
賓天七月

창황(蒼黃)히 강을 건너 어가(御駕)를 따라 과천
(果川)에 이르니 몸이 얼고 떨어져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편로(便路)를 따라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 하룻만에 행재소(幸在所)에 이르
렀으니 어찌 활 쏘는 자가 뒤에 있으면서 표적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가을에 인천부사
(仁川府使)를 제수받고 을축년 가을 또 무고(誣
告)로 옥에 갇혔으나 다음날

풀려나와 특명으로 전(前)의 벼슬이 그대로 맡
겨지게 되었다. 병인년 봄 체직하고 돌아 왔으나
4월 천사(天使)의 문안사 겸 영위사(迎慰使)로써
관서에 나아갔고 가을에 풍기군수를 배수 하였
다. 정묘년(1627) 호변(胡變)이 있자 공은 파수
대장(把守大將)으로 2천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죽령(竹嶺)의 길을 막아 끊으니 비로소 시설과
배치가 다 알맞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술과 고
기로

군사들을 위로하자 감동하고 분발하여 감히 참
차(參差: 가지런히 하지 아니함)와 대오를 이탈
하는 자가 없었다. 무진년 병으로 사직(辭職)하
고 양주(楊州)로 돌아와 기사년(己巳年) 여름 풍
질(風疾)을 앓았으나 겨울에 청풍군수(淸風郡守)
를 제수 받았다. 이때 공은 병이 이미 고질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마음을 민사(民事)를 연구하
는데 열중하여 감히 스스로 한가로이 지내지 않
았다. 임신년(1632) 4월 체직하고 충주(忠州)로
돌아와 6월 28일 인목대비가 돌아가자 7월

初赴哭于 闕下仍
留京第至癸酉春初
病已不可爲矣時西
鄙有不靖之虞公終
夕不安枕翌朝呼子
弟口占疏草一曰定
心志專意討賊二曰
推誠信以開言路三
曰殺財貨

以得民心辭意剴切
莫非流出片片血心
將奏病弥甚未果達
以三月十二日啓手
足于兵使公家享年
六十三以 宣廟扈
聖清難原從功臣
贈吏曹判書遣禮官
賜吊

祭五月初五日祔葬
于龍仁蒲谷里先塋
卯向之原先夫人姜
氏墓之右公風骨玉
瑩自能言始讀書一
閱輒誦十三通經史
識大義嘗謂學原於
思凡聖賢言語必務
探蹟奧旨

초에 권하(闕下)에 나가 곡(哭)을 하고 서울에 머물렀다. 계유년 초봄에 병이 이미 깊어져 어찌할 수 없었는데도 서쪽 변방에서 편안치 못한 근심이 있어 밤새도록 베개를 편히 하지 못하다가 다음 날 아침 자제를 불러 입으로 불러서 상소(上疏)의 초(草)를 쓰게하니, 첫째는 마음과 뜻을 안정하여 오로지 도적을 토벌하는데 전심을 기울일 것이요. 둘째는 성신(誠信)을 다하여 언로(言路)를 열 것이요. 셋째는 재화를

나누어 민심(民心)을 얻으라는 것이었다. 말의 뜻이 칼로 베는 것 처럼 마디마디 피가 흐르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점점 병이 심하여져 주달(奏達)하지 못하고 3월 12일에 병사공(兵使公)의 집에서 돌아가니 향년 63세였다. 선조조(先祖朝)의 호성청난 원종공신(扈聖清難原從功臣)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하고 예관을 보내어 조제(吊祭)

를 내리고 5월 5일 용인현 포곡리 선영(先塋) 묘향(卯向)의 언덕, 선부인(先夫人) 강씨(姜氏)의 묘(墓) 오른편에 부장(祔葬)하였다. 공은 풍골이 옥같이 아름답고, 말에 능하였고, 글을 읽을 때는 처음 한번 읽으면 곧 암송하였다. 13세때에 경사(經史)를 통달하고 대의(大義)를 깨우쳐 일찌기 이르기 “학문은 근원을 생각하는데 있고 무릇 성현(聖賢)의 말은 반드시 자취와 깊은 뜻을 힘써서 탐구하고

其學之見於日用則常以養不逮親爲至痛孺慕終身不衰以之推於兄弟而睦交於朋友而信施於閨門而恩義竝行此發於至性非有所爲而爲之也不喜交遊常避權勢如

臭穢樂善好義出於至誠人有片長可取必禮貌而樊與之猶恐不及素性儉約不以居處服玩而爲一心清虛之累生產不營非義之物不取於人嘗在銓部有一名官以相資

爲名而搬送米碩謝不受至薄其爲人德量淳厚報德不報怨至於奴僕之賤未嘗恚詈虫豸之微亦不妄殺子弟或乘忿杖奴則輒戒之曰奴僕服勞以事我勿爲茄刻壞吾家

그 배운 것은 날마다 사용하여 보여야 한다. 항상 봉양함이 어버이에게 미치지 못함을 지극히 아파하고, 어려서 사모하는 마음이 종신(終身)토록 쇠하여지지 않아야 형제에게 미쳐 화목(和睦)하게 되고, 벗과 교우함에는 믿음이 규문(閨門)에 베풀어지면 은의(恩義)가 아울러 행하여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지성(至性)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고자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교유(交遊)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항상 권세를

더러운 냄새로 여겨 피하였으며, 선을 즐거워하고 의를 좋아하였으니, 이는 지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장점이 있으면 취하여 반드시 예모(禮貌)를 갖추어 장려하고 함께 하였으며,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 하였다. 평소 품성이 검약하여 거처(居處)와 의복(衣服), 애완물(愛玩物)은 관여치 않고 일심으로 하여 청허(淸虛)의 누가 생기는 것은 경영하지 않았다. 또 의로운 물건이 아니면 취하지 않았다. 일찌기 전부(銓部: 吏曹)에 있을 때 한 명관(名官)이 서로 돕는다는

명분으로 쌀을 운반하여 보냈는데 사양하여 받지 않차 그 사람됨이 야박하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덕량(德量)이 순후(淳厚)하여 덕(德)은 갚아도 원망(怨望)은 갚지 않았고 천한 노복에 이르기까지 일찌기 성내거나 꾸짖는 일이 없었고 벌레와 같은 미물 이라도 함부로 살생(殺生)하지 않았으며, 자제들이 혹시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노복(奴僕)들에게 매질을 하면 즉시 훈계(訓戒)하여 이르기를 노복들이 복종하고 힘써 나를 섬기는데 가각(茄刻)하게 하여 우리 집안의

法高城赴任纔閱月而被拿郡吏多悍習不卽護送內行及公觀察本路邑人恐以宿罪而被重究皆懷惧心公巡到本郡終不問人皆服其德其持心之厚爲政之恕多類此

甲子之獄金吾郎見公有疾曰可安意而進不用趨程趁限也公曰臣子辭連逆獄其行可緩緩耶偶因金吾郎疾發遲却片時復命時賊報甚爲搢紳之凡以連累而囚者幾四

十餘皆駢首就戮公獨以後至而免於俱焚吁亦異哉完平及鄭公曄聞而歎曰此其平日厚德之報也公在清風嘗於履端之日命子弟書曆日上面曰節喜怒慎言語少思慮

법도를 망가뜨리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고성에 부임한 지 한달이 채 못되어 군(郡)의 속리(屬吏)들이 사나운 관습이 많아 즉시 내행(內行)을 호송(護送)하지 않자 공은 관찰사(觀察使)로 읍인(邑人)들이 중한 죄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공이 본군(本郡)을 순시할 때 끝내 묻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 덕에 감복하였으며, 그 마음의 후함과 정사(政事)를 함에 있어서 어짐이 이와 같았다.

갑자년(甲子年: 1624) 옥사(獄事)로 공이 병이 있음을 보고 금오랑(金吾郎)이 “안심하라”고 하고 나갔으나 기한을 헤아려 나가기를 힘쓰지 않았다. 공이 이르기를 “신자(臣子)가 역모(逆謀)에 관련되어 옥에 있으면서 그 행실을 가히 완완(緩緩)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하고 우연히 금오랑(사헌부·관원)으로 인하여 병이 나서 임시 방편으로 잠시 물러남을 미처하였다. 복명(復命)할 때는 역적의 보고가 심히 급해서 고관들로서 연루되어 가둔자가 거의 4

십여명이 되었는데 모두 교수형에 처하였다. 난이 평정된 후 정공 엽(燁)이 이를 듣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러한 것은 평일(平日)의 후덕(厚德)함에 대한 보답이다” 하였다. 공이 청풍(淸風)에 있을 때 일찌기 이단(履端: 정월 초하루)에 자제들에게 명하여 책력(冊曆)의 상면에 쓰게 하기를 “기쁨과 노여움을 절제하고 언어는 삼가하며, 사려(思慮)는 적게하고,

淡食飲寡嗜慾五者
養生之要公明信約
己寬民五者莅官之
要自此謝絕人事歸
卧故林爲保晚之計
病中嘗歛襟而坐言
于子弟曰少時所讀
今了了在目每念之
甚有味

以此而忘疾痛之苦
矣又曰吾性喜酒微
醉則止醉時精神常
惺惺古今事迹無不
默記完養之素雖三
履大患而以理自遣
處之安焉病革之日
見一家遑遑猶以生
死常理而

勉於夫人恬然而逝
非平日操守之有過
人者焉能如此爲文
操筆立就初若不經
意而及成其味雋永
皆理達之言而尤長
於疏筭辭婉而理直
不失告君之體然不
以文翰自

음식은 담백(淡泊)하게 하며, 기욕(嗜慾)은 적
게 하라”고 하였고 “이 다섯가지는 양생(養生)
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공평(公
平), 명분(明分) 신의(信義)와 검약(儉約), 관민
(寬民), 이 다섯가지는 벼슬에 임하는데 중요
한 것이라 이르고 이로부터 인사(人事)를 사절
(謝絕)하고 옛 살림 집으로 돌아와 누워서 만
년의 시절을 보전(保全)할 계획을 도모하였다.
병환중에도 늘 옷깃을 여미고 앉아서 자제(子
弟)들에게 이르기를 “소시(少時)에 읽었던 바
가 이제 낱낱히 눈에 있어서 매번 생각할 때
심히 즐거움이 있으니

이로써 괴로움을 잊는다”고 하고 또 이르되,
“나의 성품이 술을 좋아하여서 조금 취하면 곧
그치지만 취할 때에는 정신이 항상 고금(古今)
의 사적(事蹟)이 성성(惺惺)하게 생각나서 기억
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완전히 양생(養生)의 근
본이 된다”고 하였다. 비록 세번이나 큰 우환을
겪었어도 이치로써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편안
케 하기를 쫓았다. 병이 깊어져서 위태로운 날
에 온 집안이 황황하게 보였지만 생사의 이치를

부인에게 힘써서 지키라 하여 염연(恬然)하게
돌아가니 평상시 부터 지조(志操)를 지키어 보
통사람보다 뛰어났음을 능히 이를 보고 알 수
있다. 글을 위하여 붓을 잡으면 곧 지어내는데
언뜻보면 뜻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 완
성에 이르러서는 그 뜻이 뛰어나고 아름다웠으
니, 모두 이치에 통달한 말이고 더욱이 상소(上
疏)와 주차(奏筭)에 있어서는 말이 아름답고 이
치가 곧아 임금에게 아뢴때 체면(體面)을 잃지
않았다. 문한(文翰)으로서 스스로

處隨作輒奔無遺稿
之傳在尙州乘簿領
之暇與愚伏諸老徇
祥泉石間多有唱酬
諸詩爲邑人所傳播
嗚呼自副學公至大
憲連擢儒科皆以德
業相承而位躋達官
至公之兄弟

四人復繼之一門五
世以名第進者八人
衣冠世德之盛可與
漢之袁楊而相軼所
惜者以公之才且賢
尙未及究具用官不
出三品年止六十三
其不謂之命耶然觀
公之教

子弟一以忠厚爲本
而勉之以向上工夫
不汲汲於世俗之所
驚其諸子之賢亦文
行相契餘慶將未艾
古云種德不食其穫
在後者將如期而至
理無疑矣公前聘姜
氏承旨緒

자처하지 않아 글을 지으면 곧 버려서 전하여지
는 유고(遺稿)는 없고, 단지 상주(尙州)에 있을
때 정사(政事)의 틈을 이용하여 우복(愚伏) 등
여러 어른들과 경치좋은 샘과 바위를 구경 다니
면서 주창(酬唱)한 약간의 시편(詩篇)이 있어 읍
인(邑人)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오로하! 부학공
(副學公)으로 부터 대헌(大憲)에 이르기까지 연
이어 문과(文科)에 급제 하였으니 덕업(德業)으
로 서로 이어져 지위의 오름이 벼슬에 이어졌고
공의 형제

4인이 또 이를 이어 일문(一門) 오세(五世)의 名
第)로서 나온 자가 여덟사람이 었으니 의관세덕
(衣冠世德)의 성(盛)함이 가히 한(漢)의 원양(袁
楊)과 더불어 견줄만 하였으나 애석한 바는 공
의 재주와 어짐이 오히려 그 쓰임에 이르지 못
하고 벼슬이 삼품(三品) 밖에 오르지 못하였으
며, 나아가 62세에 그쳤다는 것이니 이를 운명
이라고 이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공의

자제들의 가르침을 보건데 충(忠)과 후덕함으로
일관하여 근본으로 삼고 항상 공부에 힘씀으로
서 세속의 급변함에 급급하지 않게 하였다. 이
에 여러 자제들의 어짐 역시 문행(文行)이 서로
일치하여 경사스러운 일이 장차 끊이지 않았으
니 옛말에 이르기를 “덕을 심는데는 그 얻어지
는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하고 “후에 있는 자가
장차 기약과 같이 이른다”고 하였으니 이치에
의심이 없다고 하겠다. 전부인(前夫人) 강씨(姜
氏)는 승지 서(緒)의

之女生一男彦瑜後聘宋氏府使瑄之女竝封貞夫人生二男二女男彦瑗進士蔭補察訪爲兵使公後次彦璧生員女長適司藝安獻徵次適進士吳挺一彦瑜娶牧使李安民

女生一男二女男時翼女適生員洪柱夏餘幼安獻徵生一男三女皆幼彦瑗娶參判金壽賢女吳挺一生三男一女皆幼彦璧娶參奉睦樂善女生一男一女幼銘曰國運昔否 重闈在栴一筍摧兇羣孽色變維公之節一柱禹門大者旣立其細奚言侍講前席 玉音有褒賊政外郡時雨流膏窮陰忽釋太陽昇空乃降十行駕汝之忠凡今

딸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언유(彦瑜)이고 후부인(後夫人) 송씨(宋氏)는 부사(府使) 선(瑄)의 딸로 함께 정부인(貞夫人)에 봉하여 졌는데 2남 2녀를 낳았다. 아들 언원(彦瑗)은 진사(進士)에 합격하여 음보(蔭補)로 찰방(察訪)이 되었다가 공이 돌아간 후에는 병사(兵使)가 되었고, 다음은 언벽(彦璧)으로 생원(生員)이다. 장녀는 사예(司藝) 안헌징(安獻徵)에게 출가하였다. 언유는 목사(牧使) 이안민(李安民)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시익(時翼)이고 딸은 생원 홍주하(洪柱夏)에게 시집 갔으며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안헌징은 1남 3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며 언완은 참판(參判) 김수현(金壽賢)에게 장가들었고, 오정일은 3남 1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며, 언벽은 참봉(參奉) 목락선(睦樂善)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명하노니

국운(國運)이 옛날 비색(否塞) 했을 때 조정의 중임을 맡으니 국가의 초석이다. 추상같은 호령으로 무고 중상하는 흉도를 꺾으니 간신배들이 모두 얼굴색이 변하였도다. 오직 공은 한결같은 지조로써 행세하였으니 그 큰 지조의 기둥은 하우(夏禹)의 문과 같이 우뚝 하여라. 그 큰 뜻 이미 우뚝 섰으니 미세한 것이야 말하여 무엇하리오. 왕을 모시고 시강할 때 군왕의 칭송을 한몸에 받았으나, 외직으로 나가 정사(正事)할 때는 단비가 온 세상을 덮는듯 하였도다. 궁한 음기가 홀연히 풀리고 태양은 이미 공중에 우뚝 솟음과 같았구려, 왕께서 열번 칭송을 내려 충성을 찬양하였도다 무릇 오늘을

之人欲知公心請眎
宸翰奎璧昭森謂仁
必壽胡靳厥筭施之
未究命也奚歎滿谷
之陽有石屹屹百世
之名則如皦日

李峻撰 尹弼秉 篆
并書

後彦瑜官奉事彦瑗
文科官弼善彦璧文
科官校理安獻徵官
監司吳挺一官判書
又有側生男彦瑞官
部將彦瑜次女李柱
漢時翼男道曾彦瑗
系男時澤僉樞時澤
男道徽

文正言彦璧男時潤
文參議女獻納洪柱
震生員安春國判書
李宇鼎判官閔思道
時潤男道泰道復文
承旨道濟庶男道吉
同知安獻徵子後相
郡守女左尹崔後亮
正言李行道

사는 사람들 공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알려한다
면 청컨데 왕께서 내린 친서를 볼진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공을 칭찬하고 있는가를 이르기
를 어진자는 반드시 오래도록 칭송을 받을진대,
어찌하여 베풀지도 못하고 미구(未久)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는가, 이를 탄식하며 포곡의 밝은
곳에 비석을 홀연히 있게하여 그 이름 백세토록
빛나게 하리라.

이준 짓고 윤필병 전액하고 글을 쓰다.

<추기> 후에 언유는 벼슬이 봉사에 올랐고, 언
완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필선에 올랐으며
언벽을 문과에 급제하여 교리(校理)가 되었다.
안현징은 벼슬이 감사(監司)이고 오정일은 판서
이다. 또 측실(側室)에서 낳은 아들 언상은 부장
이다. 언유의 차녀는 이주한(李柱漢)에게 시집갔
고 시익(時翼)의 아들은 도노(道魯)이며 언완의
작은 아들 시택은 첨추(僉樞)이고 시택의 아들
도징은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이 되었다. 언벽은
아들 시윤을 두었는데 문과로 급제하여 참의가
되었고 딸들은 헌납 홍주진, 생원 안춘국, 판서
이우정, 판관 민사도에게 출가 하였다. 시윤의
아들 도태와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로 있는 도
복, 도제이며 서자인 아들 도길은 동지로 있다.
안현징은 아들 후상을 두었는데 군수이고 딸들
은 좌윤 최준량, 정언 이행도

縣監權倅吳挺一子
始泰郡守始益府使
始鼎始謙縣監始震
縣監始恒武佐郎始
萬大司諫女鄭宗祥
府使姜碩臣彥瑞男
時淑僉知時激時濟
浚時瀾時淑男道夏
道殷同知

道周時激男道賢時
浚男道春玄孫及外
魯孫以下多不能悉
記焉嗚呼公歿後十
五年而用公男校理
原從功加 贈至領
議政又百四十有五
年而嶠南多士慕公
名節餽

享于尙州之蘇齋盧
先生書院而謂之東
園先生蓋東園公之
所嘗自號也尙卽公
所莅治而與愚伏蒼
石諸君子道義相隨
之地也又十二年而
六代孫載進謀於諸
宗鳩財而十六代孫
前正郎載運追記
崇禎紀元後三任戊
清嘉慶七年日立

현감 권용에게 시집갔다. 오정일의 아들 시태는
군수이고 시익은 부사이며 시정, 시겸은 현감이
고 시진 역시 현감이며 시항은 무좌랑 시만은
대사간이고 딸들은 정종상 부사 강석신에게 시
집갔다. 언상의 아들 시숙은 첨지이고 시징 시
제 시준 시두가 있다. 시숙의 아들은 도하, 동지
사 도은과

도주가 있다. 시징은 아들 도현을 두고 시준은
아들 도춘을 두었으며, 현손 및 외증손 이하는
너무 많아 다 기록하지 못한다. 오로라! 공이 돌
아간 후 15년이 되어 공의 아들이 교리가 되어
서 원종공신을 더하고 영의정을 증직 받기에 이
르렀고 또 145년이 지나 교남의 많은 선비들이
공의 절개와 명성을 사모하여

상주의 소재(蘇齊) 노선생(盧先生) 서원에 제
향하고 이를 일러 동원선생(東園先生)이라 일
렀는데, 대개 동원은 공의 어려서의 자호인 것
이며 상주(尙州)는 즉 공이 정사(政事)를 한
바가 있는 곳으로 우복(愚伏), 창석(蒼石) 등
여러 군자(君子)들과 도의(道義)를 서로 나누
던 지역이다. 또 12년 후 6대손 재진(載進)이
여러 종중들과 의론하여 재물을 모아 이와같
이 새긴다.

16대손 전 정랑(正郎) 재운(載運) 추기(追記)
하다.

송정기원 후 3임술 청가경 7년(18인) 세우다.

조광조(趙光祖) 墓表

皇明萬曆乙酉冬縉紳韋布相與謀乃碑于先生神道寔先生葬六十有七年也

既曰卽其墓不可無表於是樹慈石刻之爵諡而之

盖載道顯德則有碑文在嗚呼碑固不足爲先生輕重況復有待於此耶特後之人區區欲使樵牧者重識其所而不敢近也

墓原用戌坐艮向碑不及故詳錄之韓山後學李山海謹識

명 황제 만력 을유년(1585) 겨울 진신(縉紳: 공경대부를 지칭함)와 위포(韋布: 韋袴布皮의 준말. 즉 문무관이나 포의한사를 지칭함)가 더불어 상의하여 선생의 신도(神道)에 비를 세우고자 하였으니 이는 선생의 장례를 모신지 67년이 되는 해이다.

이미 말하기를 그 묘에 표가 없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이에 돌을 다듬어 세우고 작위(爵位)와 시호(諡號)를 새기는 것으로 그쳤다.

대개 도(道)가 있고 덕(德)이 드러남에는 비(碑)가 있고 글이 있는 것이다. 오호라! 비(碑)는 선생의 경중을 위하면 진실로 부족한데 하물며 이에 주저함이 있을 것인가? 특히는 후대 사람으로서 구구하게 나뭇꾼이나 아이들로 하여금 그곳(묘소)을 거둬 알게 하여 함부로 접근치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묘는 원래 술좌진향(戌坐: 서북서 辰向: 동남동)에 썼는데 비(신도비)에는 언급되지 않아 이에 상세히 기록한다. 한산인(韓山人), 후학 이산해(李山海) 삼가 기록하다.

조광조(趙光祖) 神道碑

朝鮮國嘉善大夫司
憲府大司憲兼同知
經筵成均館事 贈
大匡輔國崇錄大夫
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
春秋館象監事文貞
公靜庵趙先生神道
碑銘 并序

隆慶戊辰今 上之
元年 贈靜庵先生
領議政越明年易名
爲道德博聞以正服
之曰文正既又 命
錄其言行聽建書院
祠蓋其表著天心扶
持人紀赫赫照人耳
目

於是一邦之爲士子
者定後十有一年縉
紳韋布咸以其墓道
闕顯刻相率來屬于
守愼正 孝陵所賞
諸生正學本先生教
澤之意孰不良是斯
舉其如

조선국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겸 동지 경연
성균관사 증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령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문
정공 정암 조선생 신도비명 병서

융경 무진년(1568)은 금상(今上: 지금의 임금 즉
조선 선조) 원년이다. 이해에 정암 선생을 영의
정으로 증직(贈職)하였는데 다음해에 시법에 따
라 도덕박문(道德博聞)을 ‘문(文)’이라 하고 이정
복지(以正服之)를 ‘정(正)’이라 한다는 뜻을 취하
여 문정공(文正公)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또한
이미 왕명에 따라서 그 언행(言行)을 기록케 하
였고, 왕께서는 서원과 사당을 세우는 것을 들
어 주셨으니 대개 그것이 나타남은 부지(扶持:
천심이 도와주며 돌보아 주는 것)와 인기(人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혁혁하게 사람의 이
목을 비추어 준 때문이다.

이로써 일방(一邦)이 선비와 자제들이 안정된
뒤 11년, 진신(縉紳)과 위포(韋布: 위고포피(韋袴
布皮)의 준말. 곧 문무관과 포의한사(布衣寒士)
를 지칭함)가 모두 그 묘도(墓道)에 현각(顯刻:
비석)이 없음을 보고 서로 슬선하여 나 수신(守
愼)에게 와서 부탁 하였다. 바로 효릉(孝陵)께서
상을 내린바에 제생(諸生: 유생)들이 배움을 본
으로 하고 선생의 가르침의 덕택과 그 뜻을 본
받게 하고자 함이니, 누가 이 사문(斯文)의 거사
(舉事)를 그르다고 하겠는가

末學見膚語綿不足
以侔高狀明凡往返
三四終不可得而辭
焉則謹按趙氏本漢
陽人有諱之壽爲高
麗僉議中事生諱暉
雙城揔管揔管生諱
良琪襲職年十三副
金方慶從元將討日
本有功詔錫之錦袍
玉帶子龍城府院君
諱暉孫左政丞漢山
伯龍源府院君襄烈
公諱仁璧戮力克復
登州十一城又收西
邊侵疆

歷諱濫錄本朝開國
定社佐命功臣漢川
府院君諱良節諱育
義盈庫使 贈吏曹
參判諱衷孫成均館
司藝 贈禮曹判書
至諱元綱司憲府監
察 贈吏曹參判聘
驪興閔氏縣監諱誼
門成化壬寅八月十
日先生生淵秀端潔
其嬉戲舉止卽成人
儀度見人非違輒能
諷止之比長自知讀
書慷慨有大志孝友
慈諒皆出自然

학문의 끝자락에서 견식이 얇고 사어(辭語)를 이어감이 높은 것을 기술함이 부족함으로 무릇 서너차례를 망서렸으나 종래 사양함을 얻지 못하였음 즉. 삼가 살펴보니 조씨의 본(本)은 한양인으로 휘(諱) 지수(之壽)는 고려 침의 중사(僉議中事)로 휘(諱) 휘(暉)를 낳으니 쌍성총관(雙城總管)이요. 이분이 휘 양기(良琪)를 낳으니 부친의 직첩을 이어받았는데 13세에 김방경(金方慶)의 부종사(副從使)로 원나라 장수를 따라서 일본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워서 조서와 비단도포와 옥대를 하사 받았다. 그의 아들은 용성부원군 휘 둔(墩)이며 손자는 좌정승(左政丞) 한산백(漢山伯), 용원부원군(龍源府院君), 양열공(襄烈公) 휘 인벽(仁璧)이다. 그는 룡력(戮力: 힘을 합함)으로 등주(登州)의 11개 성(城)을 극복하였고 서변의 침강된 땅을 수습하였다.

이로부터 휘 온(濫)에 이르러서 본조(조선조) 개국정사 좌명공신(開國定社佐命功臣) 한천부원군시(諱) 양절공(良節公) 휘 육(育)은 의영고사(義盈庫使)로 이조참판에 증직되었고 휘 충손(衷孫)은 성균관 사예로서 예조판서에 증직되었다. 휘 원강(元綱)에 이르러 사헌부 감찰로써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는데 여흥민씨 현감 휘 의(誼)문에 장가를 들어서 성화 임인년 8월 10일 선생을 낳으시니 사려가 깊고 용모가 준수하고 바르고 정결하였으며 즐기고 노는 모양이 성숙한 사람의 행동거지와 정도가 같았을 뿐 아니라 도리가 아니면 문득 능히 비유로 간하여 그치게 하였다. 자라면서 스스로 글을 읽을 줄 알았으며 세상의 그릇됨을 보면 강개하였고 큰 뜻을 지니고 있었는데 효우(孝友)와 자량(慈諒: 자비롭고 민뽐)은 모두가 스스로로 부터 나온 것이다.

弘治乙卯冬參判公
爲魚川察訪戊午秋
寒暄先生謫熙川先
生既趨庭遂往從之
遊得聞爲學大方久
而歸目送之曰吾道
東矣自是篤信敏求
脫世習洒如也

庚申夏服斬廬于塋
下行必繞塋坐必對
墳時文公家禮不行
獨一遵之制除架茅
宇數間其側爲永思
地思事大夫人餘力
學文未嘗須臾離然
頗有謗詆至指爲狂
爲禍胎知故皆莫與
交不少撓

丙寅始鳴其道陶成
士類但一室圖書於
學子業初不經意正
德庚午春試司馬考
官得之驚嗟定爲魁
夏登天磨聖居遇權
適處緩步微吟蕭然

홍치 을묘(1495)년 겨울 참판공(부친)이 어천도
찰방(察訪)이 되었는데 무오년(1498) 가을 한훤
(寒暄: 김굉필) 선생이 희천(熙川)에 유배 되었
는데 선생은 이에 추정(趨庭)에 가서 선생을 따
르게 되었으며 벗을 사귀어 견문을 넓히고 학문
하는 방도를 배우게 되었다. 오랜 뒤에 돌아가
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나의 도(道)는 오른쪽
(東)에 있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신의를 돈독히
하였고 세습을 탈속하는 것을 민첩하게 구하여
씻은 듯이 하였다.

경신년(1500) 여름 부친의 상을 입자 묘 아래
여막을 짓고 아래를 다닐 때는 반드시 주위를
돌고 묘소를 대할 때면 반드시 봉분을 마주 대
하여 앉았다. 당시에는 문공(文公)의 가례(家禮)
가 행하여지지 않았으나 선생은 홀로 한결같이
이 법도를 따랐다. 복제(상기)를 마치자 초막 수
간(間)을 선영 곁에 짓고 영사지(永思地: 부친을
영원이 사모하는 곳)으로 하였다. 대부인을 섬
기면서 그 여력으로 학문을 익히면서도 일찌기
어른 수염의 터럭 만큼도 떠나지 않았다. 그러
나 빼돌어진 사람이 나무라고 꾸짖어 말하기를
실성함에 이르렀다고 하기도 하고 화가 잉태되
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모두가
더불어 교우하지 않았으나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다.

병인년 처음으로 그 도가 통하여 울려지매 사류
(士類)를 이루었으며 한 방안에서 오직 책과 더
불어 있을 뿐 과거에는 처음부터 경영할 뜻이
없었다. 정덕 경오년(1510) 봄 진사시에 응시하자
시험관이 과지(科紙)를 보고 놀라면서 장원으로
차정(嗟定)하였다. 여름에 천마(天磨)와 성거(聖
居)산에 올라 기꺼운 곳에 이르면 적처(適處)로

有出塵之想或寓蓮社兀若泥塑人攻苦食淡與禪共之惟子時在寢

辛未冬宅恤乙亥春栖砥平之龍門寺夏回成均館薦特授造紙署司紙嘆曰今之時非古之時也寧由科第以行道虛譽的然吾恥也八月上謁聖策士中第二名除成均館典籍遷司憲府監察

十一月擢司諫院正言是年春章敬上仙秋潭陽府使朴祥淳昌郡守金淨同疏乞復愼氏臺諫請鞫致于理止鬼薪論至是先生首言臺諫職主言路先自杜絕不可相容請罷命適已而先生亦適為典籍丙子春歷戶禮工三曹佐郎俄選為弘文館副修撰入對言伊

삼고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음미하고 소연(蕭然: 쓸쓸한 모습)하게 세속을 떠나 있었다. 산사에 우거하며 명상하고 있을 때는 마치 진흙으로 만든 소조상과 같았으며 쓰고 담백한 음식을 선승과 같이 하였고 자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신미년(1511) 겨울에 태홀(宅恤: 집안의 근심)이 있었으며 을해년(1515)에 지평 용문사(龍文寺)에 머물렀다가 여름에 돌아와서 성균관(成均館)의 천거로 조지서(造紙署) 사지(司紙)로 특수(特授)되었는데 탄식하여 말하기를 지금의 시대는 옛날의 시대와는 다르다. 차라리 과거로써 등제하여 도를 행하는 것만 같지 않다. 적연한 허예(虛譽)는 내게 있어서 수치일 뿐이다”라고 하고 8월에 알성시 책사(策士: 국가 정책에 관한 포부를 밝히는 과목)로서 2명 가운데 하나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典籍)에 제수되었다가 사헌부 감찰(監察)로 옮겼다.

11월에 사간원 정언(正言)으로 발탁되었고 이듬해 봄 장경(章敬) 왕후께서 상선(上仙: 돌아가셨다는 뜻) 하시자 가을에 담양부사 박상(朴祥), 순창군수(淳昌郡守) 김정(金淨)이 함께 소(疏)를 올려 신씨(愼氏: 왕후)의 복위를 청하자 대간(臺諫)에서 국문할 것을 청하면서 이들을 나무꾼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에 이르렀을 때 선생은 대간직의 첫마디로서 언로가 위주가 되니 이를 스스로 두절시켜서는 않된다고 하자 서로 얼굴을 맞대고 파명을 청하여 이들을 체직시키는데 그쳤으나 선생 역시 전적(典籍)으로 강등되었다. 병자년(1516) 봄에는 호조, 예조, 공조 등 3조의 좌랑을 역임하였고 얼마 있다가 홍문관 부수찬으로 선발되어 들어가서 임금을 대하고 말하기를

尹言一夫不獲若撻于市君臣爲民而設者也誠知此義日夜以民爲心治平可期又言天怒有二作孽不悟必示以譴告之乘勢不進亦示之使警察加勉惟命無常甚可畏也

丁丑春賜暇讀書進校理 啓言俗喜因循人安汚染宜隨時商量可改必改俾相與觀感而優游以導之秋進應教進典翰請免曰小臣志學未就願調僻郡五六年得兼用力於學幸復收用方可兩全不許冬進直提學戊寅春進副提學

馬墜移告醫問交道啓言金宗直儒者縱其時大儒不得大施後多聞風而作者此

“이윤(伊尹)이 말하기를 하나의 사대부를 얻지 못하면 시중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군신(君臣)은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아시고 성찰하셔서 낮이나 밤이나 백성에게 마음을 두시면 가히 치평(治平)을 기대할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하늘이 노하는 것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요사함을 짓고 깨닫지 아니하면 반드시 꾸짖음을 나타내고 알려주는데 이에 편승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면 역시 경고로 하여금 나타내니 이를 살피면 면할 것이요, 오직 천명(天命)이란 심히 무상한 것이어서 두려울 뿐입니다” 하였다.

정축년 봄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고 교리로 나아갔다. 계언(啓言) 하기를 세속이 옛 습관을 지키고 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즐겨하고 사람은 오염된 것을 편히 여기며 의당히 이에 따르니 개혁이 가능한 것은 반드시 개혁하여 서로 보고 느끼게 하므로서 우유(優游: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냄)토록 인도하소서 하였다. 가을에 응교로 진급하였고 다시 전한(典翰)으로 나아갔다. 이때 면직(免職)시켜 줄 것을 청하여 말하기를 “소신은 뜻과 학문을 아직 성취하지 못하였으니 원컨데 한 5~6년 벽지 군수나 지낼 수 있도록 하시고 겸하여 써 주심을 얻어서 학문에 힘쓴 후에 다행히 다시 수용(收用)하시면 바야흐로 양쪽이 모두 온전하겠습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시었다. 겨울에 직제학(直提學)으로 나아 갔고 무인년 봄에 부제학(副提學)으로 나아갔다.

이때 이동 중 말에서 떨어져서 임금께 고하였으므로 전의를 통해 안부를 묻는 길이 교차되었다. 계언(啓言) 하기를 김종직(金宗直)은 유자로서 그 생전 당시에는 크게 유학을 세웠으나 크게

其功也善人爲國元氣自李承健構禍日以耗喪今其氣如早春之草微霜使痿其可弃十善而舉一失乎

宗社安危皆自此始矣夏遷承政院同副承旨 啓言學者閑居工夫亦難乍出而仕臨事多舛況人主九重萬機易以搖奪此是惕念處

朝議以爲論思輔養非此人不可不數日還前職時欲設大科先生 啓言自上志治未效爲不得人才也信能行此不患不得後果稱得士

秋三司請革昭格署累月先生手疏略曰茲教之奉雖在閭跟

배풀어짐을 얻지 못하였으나 후에 문풍(聞風)이 많이 만들어진 것은 곧 그의 공입니다.

착한 사람이 나라의 원기(元氣)가 되어야 하는데 화(禍)는 이승건(李承健)으로 부터 얽히어져서 날로 모상(耗喪: 감하여지고 잃음)되고 이제 그 기운이 이른 봄의 풀처럼 작은 서리에도 사그러지는 것과 같이 되었으며 10의 착함을 버리고서 하나의 실책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종사(宗社)의 안위(安危)는 모두 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였다. 여름에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옮겼다. 계언(啓言) 하기를 배우는 것은 한가하게 거(居)하면서 공부하기는 역시 어려운 일이며 벼슬에 잠깐 임하여서는 많은 일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인데, 하물며 인주(人主: 즉 임금님을 지칭함)로서 구중(九重: 구중궁궐)에서 만기(萬機: 정치상의 중요한 기틀)가 요탈(搖奪)되기 쉽사릅니다. 이것이 곧 척념(惕念: 두려워 하는 마음)해야 할 바입니다 하였다.

조정의 의론이, 사상을 론하고 세자를 보양(輔養) 하는 일을 이 사람(조광조)이 아니고서는 불가하다고 하여 몇일이 되지 않아서 전(前)의 직책으로 돌아갔다. 대과(大科)를 시행 하고자 할 때에 선생이 계언 하기를 임금님으로 부터 정치에 뜻을 두었음에도 아직 실효가 없는 것은 인재를 얻지 못해서 입니다. 이를 믿고 능히 행하신다면 이를 얻지 못하는 근심은 없을 것입니다 하니 후에 과시 선비를 얻었다고 칭하였다.

가을에 삼사(三司)에서 소격서(昭格署)를 혁파할 것을 청하였으며 선생께서 여러달에 걸쳐 손수 소를 올려 아뢰기를 대략 이에 가르침을 받들음 비록 마을에 있는 절름발이 일지라도 원후(元后:

作元后者固當明禮
眎義俾迪正方乃反
置司述醮敬之如當
享之神祝禱幽繁陰
鬼釀奸是乃后猷無
令下民焉式何惜毅
斷以疑鬱群情仍語
同僚曰今日不得請
不得退

至暮臺諫皆退玉堂
爭之俞又以會寧藩
胡速古乃陰連深處
掠甲山界議遣防禦
使潛伺捕梟 上臨
軒將相環侍先生自
外至曰禦戒安民貴
布恩威滿浦僉使許
混襲擒獵虜 成宗
特誅混今忿小醜
命大將行盜賊之謀
以重傷國體臣實羞
之上遽令更議左右
競言兵有奇正不家
因或言沮成筭 上

제왕)된 자가 진실로 마땅히 예를 밝히고 의로
움을 보여 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오른 방향
으로 나아가게 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벼
슬 자리나 만들어 주고 초제 올리는 것이나
공경하면 이것은 마땅히 신에게 향사를 돌리
는 것과 같이 그윽하고 번음(繁陰: 나무나 대
가 무성한 곳의 그늘)한 곳의 귀신에게 축도하
며 사특하게 잔을 올리니 이는 곧 제후에게
령(令)이 없는 것과 같으니 하민(下民)은 어찌
하겠아오며 어찌 아낌을 굳게 하셔서 많은 무
리들의 심정에 의혹되고 답답함을 단절시키지
않으십니까 하고 인하여 동료에게 말하기를
오늘 청함을 얻지 못하면 물러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저녁 때에 이르자 대간들이 모두 물러갔으나 공
은 홀로 옥당에서 쟁의를 벌여 왕의 대답을 얻
어내었다. 또 회령(會寧) 변경의 오랑캐 속고내
(速古乃)가 산속 깊이 은신하고 숨어서 갑산지
경을 약탈하매 방어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숨어
서 살펴보다가 체포하여 효수하기로 논의가
되었다. 임금께서 의정헌에 임하시어 장상(將
相)들이 두루 시립하였는데 밖으로 부터 이르러
말씀을 올리기를 군사의 수고로움을 그치게 하
며 백성을 편안케 하여 은위(恩威)를 펴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만포 첨사 허혼(許混)이 오
랑캐를 급습하여 사로 잡으며 성종께서 특별히
혼(混)을 주벌(誅罰)하였음은 이제 조그마한 추
행을 분히 여기시어 대장을 명하여 도적의 꾀와
같이 행한다면 나라의 체모를 손상시킬 뿐이니,
신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나이다 하니 상께서
급히 령을 다시 내리니 좌우가 다투어 말하기를
병법은 기이한 것과 정법이 있어오니 불가하다
하기도 하고 혹은 계산된 것을 저성(沮成)하였다

却之是月特進秩尋兼同知成均館事聳而力辭 睿眷愈隆

冬 上不時御講以操舍聖狂爲言對曰心有感則事爲主有似不亂常人未接物時轉覺紛擾操存不是著於一處亦不必每存善念只得整齊虛一常惺惺之謂世也

一日 上命先生述乃作戒心箴以獻其序曰人君一心體天之大理氣皆包在吾心運用之中一日之候一物之性其可不順吾度使之乖戾邪枉耶然人心有欲靈妙者沉焉梏於情私不能流通天理晦冥氣亦否屯彝倫斃而萬物不遂沉聲色臭味之誘日湊於前而勢之高亢又易驕與

고 하였으나 상께서는 이를 물리치셨다. 이달에 특별히 진질(進秩: 위계를 높임)하여서 동지성균관사로 높임에 힘써 고사하였으나 권유(眷愈)하심이 더욱 융성하였다.

겨울에 상께서 불시에 어강(御講: 어린강론)을 베푸셔서 마음을 다잡으면 성(聖)을 이루고 이를 놓으면 당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 하시었다. 이에 대하여 아뢰기를 마음에 감동함이 있으면 일이 위주가 되어서 어지럽지 아니한 것 같음이 있어온데 일반 사람들은 물건을 접하지 못했을 때 분요(忿擾: 어지러워 지는 것)를 느끼웁니다. 잡아서 있게 하는 것이란 한 곳에 집념하는 것만은 아니웁고 또한 반드시 매사를 선에 집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제(整齊: 가지런히 함) 하고 일상을 비워서 작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니다고 하였다.

하루는 상께서 선생에게 계(戒)를 지으라고 명하시니 이내 계를 짓기를 심잠(心箴)이라 하여 올렸는데 그 서(序)에 말하기를 인군(人君)은 일심으로 하늘의 큰 이치와 기(氣)의 모든 것을 본 받는 것은 모두가 내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으니 리·기의 운용 가운데에 하루의 기후와 함께 하는 한 물건의 품성이라도 가히 나의 법도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어그러지거나 사특해 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영묘(靈妙: 신령스럽고 기묘함)함에 있어서 침체되고 정이 어지러워 저서 사사로히 천리(天理)가 유통되지 못하고 회명(晦冥: 어둠과 밝음, 즉 주야를 뜻함)의 기운 역시 모이지 아니하고 떼떽한 윤리를 싫어하며 만물이 따르지 못합니다. 하물며 성색(聲色)과 취향과 맛에 유혹되어 일로 앞에 모이고 그 세(勢)가 목까지 차서 또한 교만하여 지기가 쉽습니다 하였다.

遷司憲府大司憲兼
同知 經筵事請辭
兼成均許之又充元
子保養官辭曰保養
之任須責老成厚德
臣決不敢當此名不
許己卯春金友曾誣
毀士林事發廷訊兩
司以先生不欲窮詰
論遞爲同知中樞府
事未幾復爲副提學
夏兼同知成均館事
用政府 啓復爲大
司憲

十月兩司請削靖國
功臣濫錄者先生亦
極論以爲成希顏委
柳子光故當極典者
多參在上利源一開
爲國家膏肓之疾知
有利而不知有義殆
必有不忍說之事十
一月十一日蒙 允
繼請遞因功濫資不
納十五日群臣將錄
詣 榻前改正是夜
二鼓

사헌부로 옮겨서 대사헌 겸 동지경연사가 되었는데 이를 사양하고 청하여 성균(成均)을 겸하고자 하니 허락되었다. 또 원자(元子) 보양관으로 임명하시니 고사하여 아뢰기를 세자들 보양(保養)하는 책주는 모름지기 노성(老成)함과 두터운 덕이 있는 신하에게 책임을 맡겨야 함으로 결코 감히 이 명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기묘년 봄에 김우증(金友曾)이 사림을 무훼(誣毀)한 일로써 심문하기에 이르렀는데 양사(兩司)에서는 선생이 추궁하고 힐책하는 것을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써 론란이 일어 동지중추부사로 체직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부제학이 되었는데 여름에 겸 동지 성균관사가 되었는데 정부의 계청에 의하여 다시 대사헌이 되었고,

10월에 양사(兩司)에서 남록(濫錄: 공신으로 남발되어 특선된 작위)된 정국공신(靖國功臣)을 삭제할 것을 청하였을 때 선생 역시 극론으로써 성희안(成希顏)과 유자광(柳子光)에게 위임한 고로 극전(極典)에 참여 받은자가 많으므로 이들이 위에 있어서 이(利)의 근원이 한번 열려서 국가가 어두운 고질이 되어서 이(利)만 있는 것을 알 뿐 의(義)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니 반드시 위태로울 일이 있음은 참지 못할 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고 11월 11일 윤음을 무릅쓰고 계속 남자(濫資)된 녹공을 체직시키고 자 하였으나 용납되지 않았다. 15일 군신(群臣)들이 문서를 들고,榻前(榻前)에서 개정하니 이미 밤 2경이었다.

沈貞南袞洪景舟等
入神武門上變曰趙
某與其黨謀不軌旋
由延秋以入既掩逮
多官繫大庭事且不
測首相鄭公光弼請
對言淚俱發至於牽
裾得下禁府盡行竄
逐庠塾號哭衢塗
灑先生責綾城扶牆
北望以紓戀 闕之
思

十二月二十日後命
至沐浴更衣請使者
罪名不應乃編作親
友書有曰吾必從先
人兆又曰愛君如愛
父白日照丹衷遂卒
壽三十八諱光祖字
孝直明年葬龍仁縣
深谷里嘉靖丁巳十
一月二十四日因葬
夫人遷之西數十許
步

夫人僉使李允洞女
貞恪敬慎克守君子
之訓男定娶縣監權
恰女夙逝容文川郡
守娶大護軍李鏡女

심정(沈貞), 남곤(南袞), 홍경주(洪景舟) 등이 신
무문(神武門)에 들어가서 임금께 변을 고하여
아뢰기를 조모(조광조)와 그 일당이 부궤(不軌)
를 꾀하여 문득 정추(廷秋)에 들어와 이미 많은
관원을 대정에 잡아 두었습니다 하였다. 일이
또한 측량키 어려움에 수상(首相) 정광필(鄭光
弼)이 임금을 청대(請對)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
하기를 임금의 옷자락을 끌면서 호소하여 겨우
금부에 하옥시킬 수 있었으며 모두 부처 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자 서숙마다 호곡을 하면서
질척거리는 거리로 나와서 눈물을 뿌렸다. 선생
은 책하여 능성(綾城)으로 유배되었는데 북쪽
담장을 헐고 북쪽을 바라보며 대궐을 사모하는
정에 이끌려 있었다.

12월 20일 후에 어명이 이르렀음에 목욕재계 하
고 옷을 갈아입고 금부도사에게 청하여 죄명을
물으니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내 두루 벗에게
글을 쓰고 만나서 말하기를 나를 반드시 선인
(先人 부친을 뜻함) 묘소 아래에 묻으라고 하고
나서 또 말하기를 임금을 사랑하기를 부친과 같
이 사랑하였으니 백일이 내 붉은 충심을 비추리
라 하고 드디어 졸하니 수 38세 었다. 선생의
휘는 광조(光祖)요 자는 효직(孝直)이다. 이듬해
용인현 심곡리에 장사하였고 가정 정사(1514)
11월 24일 부인의 장례로 인하여 서쪽 수십 허
보(許步)에 옮겼다.

부인은 첨사 이윤형의 딸인데 정숙하고 정성스
럽고 공경하여 삼가며 군자의 가르침을 지켰다.
아들 정(定)은 현감 권휼(權恰)의 딸로 일찍 죽
었고 용(容)은 문천군수로 대호군 이경(李鏡)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사위 둘이 있으니 좌랑 허감

有二壻佐郎許鑑生子昀進士洪遠生二女幼以堂弟希顏子舜男後

嗚呼吾東方豪傑迭興局於功名節義溺於訓誥詞章至或號爲理學者非極於鑽研亦涉於虛遠而已及文敬公出先覺倡道先生實承而擴之其學以省身克己爲先持敬主靜爲要沉潛刻厲精思力踐能體道成德得聖人之誠若衣冠容貌視聽言動絜往哲是範尊小學近思而發揮于諸經傳

晚好學易不暫輟入則服勞承順靡不曲盡喪致哀祭致敬一於禮不苟內外截然而仁信行焉出則接引因其材稟品藻取其器識排闥務欲反經人見其樂易

은 아들 균(昀)을 낳았고 진사 홍원(洪遠)은 그녀를 두었는데 어리니 당제(堂弟) 희안(希顏)의 아들 순남(舜男)으로 후사를 삼았다.

오호라! 우리 동방에 호걸이 연달아 일어나 공명과 절의에 국한되고 훈고(訓誥: 고문의 자구나 해석하는 것)와 사장(詞章: 시가와 문장)에 빠지고 혹은 이학(理學)을 한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찬연(鑽研: 갈고 닦는 것)을 지극히 하지 아니하고 또한 허황되고 멀리 있는 것을 섭렵할 뿐이다. 그러나 문경공(文敬公)이 나타남에 이르러서는 선각자가 창도한 것을 선생이 실질적인 것을 이어 받고 그 학문을 넓히고 몸을 살펴서 자기를 극복하는 것을 먼저하여 공경함을 지니고 정(靜)을 위주로 하여 요체를 삼아 깊이 잠기고 각려(刻厲: 정성껏 함)하며, 정(精)하게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여서 능히 도를 본 받고 덕을 이루어 성인(聖人)의 정성을 얻으니 의관과 용모와 듣고 보는 것과 언동(言動)하는 것은 지나간 현철들을 본받고 소학과 근사록을 높이고 제 경전을 발휘하였다.

늦게는 주역을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잠시도 쉬임이 없었다. 집에 들어 와선 즉은, 복로(服勞) 순승(順承)하여 곡진(曲盡: 마음과 정성을 다함)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상을 당해서는 슬픔이 극에 이르렀고 제사는 공경하기를 극진하게 하여 예를 한결같이 하였으며, 진실로 안과 밖을 절연(截然: 사물의 구별이 칼로 베인 듯이 확연한 모양)하지 아니하고 인(仁)과 신(信)을 행하였다. 밖으로 나간 즉은 사람을 사귀면 그 재품(材稟)에 따라서 하였고 품조(品藻: 지적 수준)는 그 그릇됨과 학식을 따라 취하였으며 경서에 반하는 것을 배척하려는데 힘썼으니 이를 아는 사람들은 즐겨하였다.

自奉以清約嘗謂夫人曰我心王室自不及家當是時上尙儒術慕古誼倚先生爲治先生抱負經濟感激遭際以堯舜之道爲己任謂君心出治之本本正然後政立而教達每當講前夕端書熟讀如在 上傍

至曉易服而進肅然對越冀必感動於上開陳治道別白事宜自性情善惡義利之辨天人王伯淑慝之分與夫崇學備邊之虛實祭祀興繼之得失莫不傾倒羅列

日吳忘倦 上必專心竦聽多所稱善以至百僚拭眼齊民手額皆得熏醉想望庶幾先王法度以次而舉奈諸公近於欲速年少從而鼓之舊臣居散地者怨恚入骨昏晨覘變而

자신을 받드는 것은 청빈하고 간략하게 하여서 일찌기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은 왕실에 있어서 스스로 집안 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고 이때에 마땅히 상께서 선비들의 재주를 숭상하여 옛 사람의 옳은 것을 사모하매 선생에게 의지하여 다스리셨다. 선생의 포부(抱負)가 경세제민에 있음을 감격하여 만난 것을 요(堯), 순(舜)의 도로써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군심(君心)은 치세의 근본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근본이 바꾸어진 연후에 정치가 바로 되는 것이고 교화에 이릅니다 하고 매번 강론을 말할 때 마다 그 전에 저녁이면 책을 바로 대하고 숙독(熟讀)하기를 입금 곁에 있는 것같이 하였다.

새벽에 이르러서는 옷을 바꾸어 입고 나아가 숙연히 대하여 반드시 입금께서 감동되게 하고자 하였고 치도(治道)에 대한 의견을 말하여 사리를 분별하는 것을 명백히 하여性情(性情: 성질과 심정)과 선악과 옳은 것과 이로움의 분별, 하늘과 사람과 왕백(王伯)으로서 맑거나 간특한 것은 분변으로 더불어 대저 그 학문을 숭상하고 변방의 허실을 대비하고 제례의 실제와 나라의 흥함을 계승하는데 있어서 득과 실에 경도(傾倒)하고 나열하지 않음이 없었다.

해가 기우는 데도 권태로움을 잊고 입금께서 반드시 전심(專心) 하도록 하여 송청(竦聽)하시고 많은 것은 칭찬하시었다. 이에 이르러 백관들은 눈을 씻으며 백성들은 이마에 손을 얹고 모두가 훈취하여 기대들 가져서 거의 선왕의 법도가 점차 거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너무 급속히 하려는데 가까워지고 연소(年少)한 사람들은 따라서 고취되어 구신(舊臣)들은 호터지게 되니 원망이 골수에 미쳐서 아침 저녁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先生固已早見其幾
欲去久矣常與申公
鏞李公耜權公機欲
調適兩間不至敗闕
而一時有以爲依違
至擬舉劾吁亦異矣
第推載攀附一代高
勳顧探論已事不戒
大貞先生自知不得
去不塞不流遂悉力
繫破之不顧也與

抑談者以爲驟用無
以融徹蓄積早終無
以設教立言吁其可
悼可愍詎免爲吾道
之冤惟我 中廟有
深恩遺旨 仁廟回
而復其官 明廟又
撫而有之式克至于
今日休

且將祀諸孔庭僞學
無禁正脉有托用牖
斯民知所愛惡稍稍
態奮發有爲是孰使
之然然非四 朝有
以終始之又孰能與
於此大抵大賢之德
具體於初論述之書

선생도 이미 그로 인한 기미는 일찍이 알고 있
어서 떠나려 한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항상
신상(申鏞)과 이자(李耜)와 권발(權機)과 더불어
양쪽 사이를 적이 조종하여 낭패가 없도록 하려
하였다. 일시적으로는 어긋남에 의한다 하여 탄
핵을 하려 하는데에 까지 이르렀으니 슬프고 또
한 괴이하였다. 오직 추대되어 세력을 잡았고
한 때의 높은 훈신들은 자기의 일을 탐지하고
논하는 듯하고 반응에 대하여는 경계하지 아니
하였으나 어찌 선생이 스스로 떠나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언만 시류를 막지 못할 수
있겠는가. 드디어 모든 힘을 다 기우려 돌아보
지 아니하고 격파되기에 이르렀다.

여론을 억누르려는 사람들과 더불어 별안간 등
용되어서 융합과 뜻을 관철시킬 능력을 축적시
킬 수가 없었고 일찌기 끝나쳐서 교화를 베풀고
교훈을 세울 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가도가
민(可悼可愍: 슬퍼한다는 뜻)이라 어찌 나의 도
리를 면할 수 있겠는가. 다만 우리 중묘(中廟)께
서 깊은 은혜와 유지를 남기시고 인묘(仁廟: 인
조)께서 그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명묘
(明廟: 명종)께서 또 유념하여 보살펴 주시니 능
히 오늘 날에 더욱 훌륭하게 될 수 있었다.

또 장차 공정(孔庭)에 제사를 받들게 되었으니
이제 위학(僞學)에 금 함이 없어도 바른 맥이
의탁될 수 있었다. 우리 백성들을 계몽시켜 사
랑하고 미워할 바를 알게 되어서 차차로 분발하
고 그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게 하였으니 이것
은 누구의 공으로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그러
나 네 임금의 여기에 대해서 시종 돌보아 주지
않았더라면 누가 능히 이렇게 까지 이르게 하겠
는가. 대저 대현의 덕은 당초에 구체화 되는 것이

在不得已借如進德
益邵著書益多無復
疑憾于後學苟身不
立於朝少有所施爲
爲之兆也後之君臣
何所鑑法得以審邪
正原興喪見此道爲
當今之可行或者其
天意夫銘曰

天篤繼開反樸收坏

鍾異于鮮粹然離障

存以無妄保厥不偏

惟心之活入荒在闕

一視陶甄時汔小休

將升大猷首膺廣延

明于雪日調以琴瑟

望之神仙執經以沃

持憲以督斷斷拱筵

요. 논술한 글이란 마지못한 데에서 있는 것이다. 가령 만일 덕에 나아간 것이 더욱 밝고 글로 지은 것이 더욱 많았더라면 다시 후학에게 유감되고 의심할 바가 있겠거니와 진실로 자신이 조정에 서질 못했고 조금 베풀어 한 것이 될 수 있는 조짐만 없었더라면 뒤에 군신들이 어떻게 본 받을 수가 있으며 감사하며 바른 것은 살피고 흉하고 망하는 것을 찾아서 이 도가 당금에 행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것은 하늘의 뜻인가 하노라. 대저 명하기를

하늘도 돈독하여 개명(開明: 췌가 열리고 문물이 발달함)을 이었으나 도리어 박순(樸淳: 순하고 꾸밈이 없음)은 뒤에 가리고

중애(鍾愛)함은 선호(鮮好)하였으나 수연(粹然)함은 장애가 되었네

무망(無妄: 허위나 사심이 없음)으로 보지(保持)하여 국왕을 섬김에도 치우치지 않았고

오직 마음의 활법(活法: 활용하는 법)은 황황(荒荒: 어두침침함, 암담)한 속에서도 궁궐(宮闕)에 있었네

한번의 본보기로 도견(陶甄:甄陶, 사람을 교도함)하니 시세는 거의 약간의 휴휴(休休:安閒한 모양)한 때가 되어

장차 조정에서의 큰 계책(計策)을 세우고 가장 먼저 응함이 광연(廣淵: 넓고 깊음, 洪淵)하였네

명철(明哲)함은 눈은 날과 같이 밝아 금슬(琴瑟: 부부)같이 화합하였고

우리름이 신선(神仙)과 같았고 책을 잡음에는 옥옥(沃沃: 성하고 아름다운 모양)하였네

법(法)을 부조(扶助)함에는 독후(督厚: 성실함, 篤厚)하고 경연(經筵)을 공경함은 단단(斷斷: 성실하고 專一한 모양)하였으며

據舊圖新行王定民

風動化宣賣聰既達

惟茅斯拔則莫我癘

有含其沙荐磨群牙

坑灰復燃迺瞻容色

或伺鼻息曷貳曷騫

存順沒安一念如舟

昭漢炳泉有來有歸

不忘不達在後在前

列聖攸惠諸儒足衛

尙克有傳功深數歲

澤流百世益見其全

我告伊昧無懼無悔

必信仁賢嗚呼嘻噫

厥有成敗竟歸之天

옛 것을 의지하여 새로움을 도모하고 왕도(王道)를 행하여 백성을 안전시켰네

선덕(宣德: 덕을 베풀)함에는 풍동(風動):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따름, 강화됨)하여 크디 큰 충예(聰睿: 총명함)함이 이미 이루어졌고

오직 풀을 뽑고 쪼개어 내 병을 없앴다네

그 모래를 머금고 풀로 많은 어금니를 갈았고

구덩이 속의 재를 다시 태우니 비로서 용색(容色: 용모와 안색)을 앙모(仰慕)케 되었다네

혹 비식(鼻息: 남의 안색, 남의 의견)을 살펴보면 어찌 돌이고 어찌 이리질것인가

온순함을 보지(保持)하고 편안히 돌아가니 한결 같은 마음은 배와 같았다네

한천(漢泉: 한강물을 지칭하는 듯)이 밝게 빛나래귀(來歸: 돌아옴)함이 있으니

잊지 않고 따르지 못함은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법한 일이라네

열성(列聖: 역대 국왕)의 은혜를 받아 모든 유생(儒生) 호위함이 족하였으니

높이 숭상함 계속 전해져 그 공(功) 여러해 동안 깊어만 가네

그 은혜 백세(百世)토록 류전(流轉: 사람의 생사 등이 변전하여 끊이지 않음)하여 더욱 그 갖추어져

내 오직 매매(昧昧: 어둑어둑한 모양)한 때 고향지라도 두려움도 없고 후회도 없다네

반드시 인현(仁賢)을 믿었으니 오호(嗚呼)라! 슬프고도 슬프도다

그 성패(成敗: 일의 됄과 앓됨)가 있음은 반드시 하늘의 허락함이라네

大匡輔國崇錄大夫
議政府左議政兼經
筵監 春秋館事 盧
守慎 撰

崇貞大夫議政府左
贊成兼判義禁府事
弘文館大提學藝文
館大提學知經筵春
秋館成均館事 李
山海 書

通政大夫承政院左
副承旨知制教兼經
筵參撰官 金應男
篆

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좌의정겸춘추관사 노수
신 짓고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경연춘추관 성균관사 이
산해 쓰고

통정대부 승정원 좌부승지 지제교겸 경연참찬관
김응남 전액하다.

조변(趙抃) 神道碑

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藝文館提學蔡濟恭謹撰

通仕郎 宜寧南相舜謹書 十三代孫炳柱謹篆

濟恭嘗以史官曬史五臺讀己卯諸賢獄中書未嘗不太息流涕未終篇而爲之掩卷今於趙公家狀得重峰己卯

感懷詩讀之亦足以一字一涕然當其時士大夫喪魄於士禍連仍惴惴然直氣消磨肆爲指日互相訾謗猶有情人

可與公論往事詩云民之秉彝好是懿德秉彝之不可泯有如是矣公諱抃漢陽人在麗朝有達官聞人至諱仁璧

가선대부(嘉善大夫)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겸(兼)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채제공(蔡濟恭)은 삼가 비문(碑文)을 짓고

통사랑(通仕郎) 의령(宜寧) 남상순(南相舜)은 삼가 글을 썼으며

13대손 병주(炳柱)는 삼가 전액(篆額)을 하다.

제공(蔡濟恭)이 일찍이 사관(史官)으로서 오대(五臺)에서 쬐서(曬書: 서적을 햇볕에 쬐)를 하면서 기묘제현들이 옥중(獄中)에서 쓴 글을 읽고 아닌 게 아니라 크게 한숨을 쉬며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마지막 편(篇)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책을 덮었다. 이에 지금 조공(趙公: 趙抃)의 가장(家狀)에서 중봉(重峰: 趙憲)의 기묘사화에 대한

감회의 시를 얻어 읽어 보니 또한 한 자(字) 한 자(字)마다 눈물을 흘리기에 족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사대부들은 사화(士禍)에 연루되어 넋을 잃고 이로 인하여 더욱 췌췌(惴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양)하게 되었고, 곧은 기개(氣概)는 점점 사라져 마침내 지일가기(指日可期: 다른 날 성공할 것을 꼭 믿음)를 호상간에 헐뜯고 오오(嗷嗷: 여러 사람이 지껄이고 시끄러운 모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정인(情人: 벗)이

가히 공론과 더불어 왕사(往事)를 읊은 시(詩)가 있으니 이르기를 “백성의 병이(秉彝: 常道を 굳게 지킴)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의덕(懿德)이요, 병이(秉彝)의 민연(泯然: 멸망)하지 않음은 이와 같은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공(公)의 휘는 변(抃)으로 한양인이다. 고려시대에는 달관(達官)하여 문인(聞人: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 있었고 휘(諱) 인벽(仁璧)에

官左政丞漢山伯諡襄烈公夫人卽我太祖娣也三世而至郡守承源娶大提學文僖公辛碩祖女生內贍寺正諱璋

內贍正娶宗室銀川君瓚女生縣令諱光彦寔公考也妣文化柳氏節度使睇之女判書季文之孫女也以

弘治庚申正月十五日生公公幼而聰敏稍長魁偉醇慤年幾志學遊於靜菴先生之門博於文辭而不屑爲舉子業

用力於古人爲己之學學日進爲儕流冠先生亟稱許之己而己卯禍作矣士多改頭換面要以保命公慟泣憂憤

如欲無生不以一身禍害攬其念素與安公處謙相善辛巳安氏家爲人橫陷安公

이르러서는 벼슬이 좌정승(左政丞)에 이르렀고 한산백(漢山伯)에 봉해졌으니 시호(諡號)는 양열(襄烈)이며, 공(公)의 부인은 즉 우리 태조(太祖: 李成桂)의 누이이다. 3세(世)를 지나 군수(郡守) 승원(承源)에 이르러서는 대제학(大提學) 문희공(文僖公) 신석조(辛碩祖)의 딸을 취(娶)하여 내섬시정 휘(諱) 위(璋)를 낳았고

내섬정(內贍正: 璋)는 종실(宗室: 全州李氏) 은천군(銀川君) 찬(瓚)의 딸을 취(娶)하여 현령(縣令) 휘(諱) 광언(光彦)을 낳았으니 이 분이 공(公)의 아버지이다. 비(妣: 어머니)는 문화유씨(文化柳氏)인데, 절도사(節度使) 제(睇)의 딸이며 판서(判書) 계문(季文)의 손녀로

홍치(弘治) 경신년(연산군 6) 정월 15일에 공을 낳았다. 공(公)은 어려서부터 총민하였으며 점차 성장하면서는 괴위(魁偉)하고 순각(醇慤: 온후하고 성실함)하였다. 나이가 지학(志學: 15세를 일컬음)에 이르러서는 정암선생의 문하(門下)에서 유학(遊學)하여 문사(文辭)를 넓혔고 불초(不肖)가 거자업(舉子業: 科擧)에

힘쓸 때에는 고인(古人)의 위기지학(爲己之學)에 힘쓰라고 하였으며, 학문이 날로 진보하여서는 동년의 무리들이 으뜸으로 삼아 선생을 극히 칭송하였다. 기묘사화가 일어나서는 사류들의 대부분이 마음을 고치지 않고 겉으로만 달라진 체하여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자 공(公)은 이를 분하게 여기기를

마치 살고자 하지 않고 일신(一身)에 화해(禍害)가 미치는 것을 염두하지 않으며 처렴(處謙) 안공(安公) 상선(相善)과 더불어 소회(素懷)하였다. 신사년(중종 16) 안씨(安氏) 집안의 사람이 계속 변지는 모함(謀陷)에 빠져 안공(安公) 역시 국문

被鞫時公易常服擔
舁出入

問候事連公酷被拷
掠流康津嗚呼三代
以後群賢之生此王
國莫如己卯明良相
遇非堯舜不學凜凜
乎朝夕之治

又莫如己卯不幸小
人碁之際遇不終羣
賢駢首就死則千古
志士仁人之慟又就
如己卯也孟子曰誦
其詩讀

其書不知其人可乎
是以論其世也名列
己卯錄斯亦足矣況
公年未弱冠以文正
公爲依歸毅然與群
賢同禍福

然後之論其世者安
得無高山景仰之誠
乎公之居謫康津以
承重遭祖母喪作廬
設凡筵喪祭一遵古
禮公早失

(鞫問)을 당하게 되었다. 이때 공(公)은 상복(常服)으로 갈아 입고 있었는데 국문(鞫問)을 함께 당해 안씨 집안과 출입하고

문후(問候)한 일이 공(公)에게까지 연루되어 고략(拷掠:拷問)을 혹독하게 입고 강진(康津)으로 유배(流配)당하였다. 오호(嗚呼)라! 3대(堯·舜·禹 3대를 지칭) 이후 군현(群賢)들이 이 나라에서 많이 태어났으나 己卯年(1519년)의 명량(明良)들과 같은 사람이 없어 서로 접하여 요순지학(堯舜之學)을 능름(凜凜)하지 않음이 없고, 조석지치(朝夕之治)

또한 기묘명현(己卯明賢)을 능가할 이 없었는데 불행히도 소인(小人)들이 날뛰는 때를 만나 마침내는 군현(群賢)들이 머리를 나란히 하여 죽은 즉 천고(千古)의 지사(志士)나 인인(仁人)의 통탄할 바이며, 또 기묘명현과 같이 취하는 것은 『맹자(孟子)』에 이르기를 “그 시(詩)를 암송하고

그 책을 읽어도 그 사람됨을 알지 못할지니 이로써 세고(世故)를 논하는 것이라”라고 하였음에 그 이름 『기묘록(己卯錄)』에 올랐다는 것으로 역시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하물며 공(公)의 나이가 약관(弱冠)에도 미치지 않았을 때 문정공(文正公)으로 의귀(依歸)함을 삼을 때도 의연(毅然)하여 여러 군현(群賢)들과 더불어 화복(禍福)을 같이하여 후에 그 세고(世故)를 논하는 것에 어찌 고산경양(高山景仰:높은 산과 같은 큰 덕을 사모하여 우러러 봄)의 정성을 얻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공(公)은 거적(謫所)인 강진(康津)에서 승중(承重)하여 조모상(祖母喪)을 천이(遷移)하여 여막(廬幕)을 짓고 궤연(几筵)을 설치하였으며 상제(喪祭)를 치르는데는 한결같이 고례(古禮)를 준수(遵施)하였다. 공(公)은 일찍이

父母祖母李氏撫育之常欲爲追服以侍祖母不敢至是仍居廬毀瘠成疾淹歲未克成其志每以爲終身之慟也

戊戌蒙 宥還京自是隱避不出門數十年以琴書自娛平生患腓出碎骨五片者三萬曆己卯公年八十諸孫設

壽宴公以詩云云歲壬午患微恙一日解衣帶倚枕曰吾今大臥遂卒是九月五日也享年八十三後以己卯名賢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僉知例 諡貞翼公寬柔和易敦睦隣族尤眷眷於奉先遺書與諸孫曰先君早世

汝父母亦夭皆不得奉祀吾祖父母至汝當祧情甚慟愴須倣

부모를 잃어 조모(祖母) 이씨(李氏)가 이를 길러 항상 추복(追服)코자 하였으나 조모(祖母)를 모시는데는 이에 이르지 못해 이로 인하여 여막(廬幕)에서 거처하며 훼손(毀瘠)함으로써 오랜 지병(持病)이 생겨 길고 오랜 세월동안 능히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매양 죽을 때까지 통탄(慟歎)하였다.

무술년(중종 38) 왕의 사면(赦免)을 입어 한성(漢城)으로 돌아와서는 이로부터 은피(隱避)하고 문밖을 나가지 않으며 수십년동안 거문고와 독서로 자오(自誤)하였으니 평생 환비(患腓: 병)로 쇠골(碎骨: 粉骨碎身)한 것이 3/5이었다. 만력(萬曆) 기묘년(선조 12) 공(公)의 나이 80으로 여러 손자들이

수연(壽宴)을 열자 공(公)은 시(詩)로써 화답(和答)하기를 “임오년(중종 17)의 환난(患難)은 미양(微恙: 적은 근심)이었네 하루만 의대(衣帶)를 풀고 베개에 기대려는데 나는 지금에야 크게 누웠네”라고 하였다. 마침내 돌아가시니 그해 9월 5일로 향년(享年) 83세이다. 후에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서

승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 첨지(僉知)에 증직(贈職)되었으며 예(例)로서 정익(貞翼)이라는 시호(諡號)를 하사(下賜)받았다. 공(公)은 관유(寬柔)하고 화이(和易)하였으며 인족(隣族)에게는 돈목(敦睦)하였다. 봉선(奉先: 奉祀)에는 더욱 권권(眷眷)하여 여러 자손에게 이르기 “선군(先君)께서 일찍 세상을 버렸고

너희 부모 역시 요절(夭折)하여 우리 모두 조부모(祖父母)를 봉사(奉祀)할 수 없다. 너희에게 이르러 조묘(祧廟)의 사정이 매우 통창(慟愴)하니 모름지기 고례(古禮)를 모방하여 고조(高祖)

古禮祭高祖可也十二月丁酉葬于浦谷先塋西崗

配廣州安氏弘文博士漢英之女判書潤德之孫女生于甲子以己未終享年五十六墓在公塋之左嗚呼己卯

今五週矣公之文章德行之載於家乘者累閱兵燹無一餘存可攷者惟有己卯錄能存而病於略又失實矣槩公

問其師則靜菴先生問其友則當世群賢氣絕則履禍變於不渝孝慕則逮遲暮而不衰雖其資質有過人者而學問

之力百世之下可以推知錄之詳略疎密何足增損於公也公生一男壽麟先公歿壽麟則副室男也壽麟生六男

를 제사(祭祀)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12월 정유일(丁酉日) 포곡의 선영(先塋) 서강(西崗)에 장례하였다.

배는 광주안씨(廣州安氏)로 홍문관박사(弘文館博士) 한영(漢英)의 딸이며 판서(判書) 윤덕(潤德)의 손녀인데, 갑자년(연산군 10)에 태어나 기묘년(명종 14)에 돌아가시니 56세였다. 묘(墓)는 공(公)의 분영(墳塋) 왼쪽에 있다. 오호(嗚呼)라! 기묘년(己卯年)

지금은 5주년(五週年)이로다. 공(公)의 문장(文章)과 덕행(德行)중 가승(家乘)에 실려있는 것은 수차례의 병선(兵燹: 兵火)으로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어 가히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묘록(己卯錄)』 뿐으로 이 역시 존재하기는 하지만 약술(略述)되어 있음이 단점이며, 또한 충실하지 못하다. 대개 공(公)은

그 스승을 물으면 정암선생(趙光祖)이요, 그 친우(親友)를 물으면 당세(當世)의 군현(群賢)이었다. 기절(氣絕)하는데 화변(禍變)을 겪어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효모(孝慕)하는 것은 지지(逮遲)하여 저녁이 되어도 쇠진(衰盡)하지 않아 비록 그 자질(資質)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면이 있었지만, 학문(學問)은

오랜기간동안 가히 추지(推知: 추측하여 알음)하여 이를 기록하였음에 상략(詳略)의 소밀(疎密)을 어찌 족히 공(公)에게 증손(增損: 늘임과 줄임)하겠는가! 공(公)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수린(壽麟)으로 공(公)보다 먼저 죽었으니 수린(壽麟)은 즉 부실(副室)의 소생이다. 수린(壽麟)은 6남

一女長詡察訪次詢
參奉次誠次誼武科
大將次諶監察次詡
郡守詡生二男國弼
參判國瑞詢生一男
國廉僉正

誠生一男二女國馨
誼生二男四女國哲
宣傳官國信縣令諶
生一男三女國老奉
事詡生一男一女國
俊判官

1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후(詡)로 찰방(察訪)을 지냈고 다음은 순(詢)으로 참봉(參奉)을 지냈으며 다음은 함(誠)이며, 다음은 의(誼)로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대장(大將)에 올랐고 다음은 심(諶)으로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다음은 인(詡)으로 군수(郡守)를 지냈다. 후(詡)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참판(參判)을 지낸 국필(國弼)과 국서(國瑞)이고 순(詢)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국렴(國廉)으로 첨정(僉正)을 지냈다.

함(誠)은 1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국형(國馨)이고 의(誼)는 2남 사녀를 두었는데 아들 국철(國哲)은 선전관(宣傳官)을 지냈고 국신(國信)은 현령(縣令)을 지냈다. 심(諶)은 1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 국노(國老)는 봉사(奉事)를 지냈으며 인(詡)은 1남1녀를 두었는데 아들 국준(國俊)은 판관(判官)을 지냈다.

조 사(趙 師) 墓碣

公姓趙氏諱師號嘉川齋漢陽望族也有諱之壽仕高麗官僉議中書事是爲胄祖生諱暉元朝宣授雙城管軍摠管領和州迤北十二城是生諱良琪年十三襲父爵爲摠管

二十二討克哈丹獻俘于元世祖受袍帶之賜以幼少履海克強聞于天下是生諱噉擊走紅巾錄功一等禮儀判書龍城府院君是生諱仁璧爲輔理功臣三重大匡龍源府院君麗末退老襄陽至我太祖初守罔僕之義堅臥不起爲杜門諸賢之一

本朝贈漢山伯賜諡襄烈公襄陽人立忠顯祠以祀之寔公

공의 성은 조씨이고 휘는 사(師), 호는 가천재(嘉川齋)이니 한양의 명망있는 종족이다. 휘 지수(之壽)라는 분이 고려에서 벼슬하여 첨의(僉議) 중서사(中書事)가 되었는데 이분이 시조(胄祖)가 되고 휘 휘(暉)를 낳았는데 원조(元朝)에서 쌍성관군총관(雙城管軍摠管)을 선수(宣授)하여 화주(和州) 이북 12성을 거느렸고, 이분이 휘 양기(良琪)를 낳았는데 부친의 작위를 물려받아 총관이 되었다.

22세 때에 합단(哈丹)을 쳐서 이기고 원세조(元世祖)에게 포로를 바쳐 금포(錦袍)와 옥대(玉帶)를 내리는 것을 받았으며 어렸을 때에 바다를 건너가 강한 자를 이겼으므로 천하에 소문이 났었다. 이분이 휘 돈(噉)을 낳았는데 홍건적(紅巾賊)을 쳐서 쫓았으므로 일등 공신에 녹공(錄功)되고 예의판서 용성부원군(禮儀判書 龍城府院君)에 피봉되었고 이분이 휘(諱)인벽(仁璧)을 낳으니 보리공신(輔理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용원부원군(龍源府院君)이 되었다가 고려 말엽에 양양으로 물러가 늙으면서 우리 태조 초기까지 이르는 동안 신하 노릇을 하지 않는 의리를 지켜 굶이 숨어서 나가지 않으므로서 두문제현(杜門諸賢)의 한 사람이 되었다.

본조(本朝)에서 한산백(漢山伯)을 증직하고 양렬공(襄烈公)이라 시호(諡號)를 내렸다. 양양 사람들이 충현사(忠賢祠)를 세우고 향사 하였으니 이분이 공의 선친이다. 무릇 재취하여 7남을 낳았

之考凡再娶生七男
長諱溫漢川府院君
諡良節初配河東鄭
氏出次諱涓漢平府
院君諡良敬后配李
氏桓祖女貞和公主
出

其次皆然而公其第
四也以 太祖親甥
例授通政僉知中樞
院事良節良敬并以
開國元勳有名於世
公則不仕 本朝隨
襄烈公於襄陽屢徵
不起而終與三隱同
志其忠孝節義道德
文章可以爲百世所
宗

嘗與元耘谷衛護恭
讓交誼親密以所居
謂之臥仙臺時或與
共嘯詠於嘉致川上
因以自號且嘗有言
曰 我死後埋近於
圃隱塚使得從遊於
地下子孫遵遺教葬
于龍仁陵洞午坐原
與淑夫人彥陽金氏
上下同原

으니 맏이 휘는 온(溫)으로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이고 시호는 양절(襄節)이니 초취 하동정씨(河東鄭氏) 소생이고 다음은 휘 연(涓)으로 한평부원군(漢平府院君)이며 시호는 양경(良敬)이니 후취 소생으로 이씨는 환조(桓祖)의 딸 정화공주(貞和公主)이다.

그 다음도 다 그런데 공은 넷째이다. 태조의 친생질이므로 예에 따라 통정(通政), 첨지(僉知), 중추원사(中樞院事)에 제수 되었으나 양절, 양경이 모두 개국원훈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으므로 공은 본조(本朝)에서 벼슬하지 않고 양렬공을 따라가 「조정에서」 여러번 불러도 일어나지 않아 마침내 3은과 더불어 그 뜻을 같이 하였으니 그 충효, 도덕, 절의, 문장은 백세의 사표가 될 것이다.

일찌기 원운곡(元耘谷)과 더불어 공양왕(恭讓王)을 호위 하면서 사귀는 정의를 친밀하였는데 살고 있는 곳을 와선대(臥仙臺)라고 이르고 혹 함께 가치천(嘉致川) 위에서 시도 읊고 노래도 불렀으므로 따라서 가천재(嘉川齋)라 호하였다. 그리고 일찌기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포은총(圃隱塚)이 가까운데 묻어 지하에서나마 따라 놀 수 있게 하라」 하였으므로 자손들이 유교를 따라 용인(龍仁) 능동(陵洞) 오좌의 언덕에 장사 하였으니 숙부인(叔夫人) 언양김씨(彥陽金氏)와 위 아래 같은 언덕이다.

夫人司憲繼生之女
生三男諱孟發縣令
諱仲發縣監諱季發
錄事長房孫曰郡守
承源二房孫曰文府
使岷曰都事靖曰郡
守嶠曰司勇崇曰文
府使鉉三房孫曰判
官崙厥後子孫繁衍
不能盡錄

而曾孫有諱文琚文
翰林父喪過哀而卒
玄孫有諱光彥文應
教經東來伯爲承旨
有諱珙文司成與靜
菴先生同禍己卯五
世孫有諱杼號琴齋
亦與靜菴同禍後
贈左贊成諡貞翼并
其尤著者而貞翼公
於吾爲十一世

嗚呼今距公之世五
百矣墓碣年久剝落
後裔庠教鍾夔等謀
改立屬余爲文文獻
多略凡公事行實蹟
非後生後學所能揄
揚亦非後孫所敢向
私者然昔我 定廟

부인은 사헌(司憲) 계생(繼生)의 딸로 세 아들을
낳았으니 휘 맹발(孟發)은 현령(縣令)이며, 휘
중발(仲發)은 현감(縣監)이요. 휘 계발(季發)은
녹사(錄事)이다. 맏집 손자로는 군수(郡守) 승원
(承源)과 둘째집 손자로는 문부사(文府使) 민
(岷), 도사(都事), 정(靖) 군수(郡守) 준(嶠), 사용
(司勇) 승(崇) 문부사(文府使) 금(鉉)이고 셋째
집 손자에는 판관(判官) 윤(崙)이다. 그 후도 자
손이 번영하여 다 기록하지 못한다.

증손에는 휘 문숙(文淑)이라는 분이 있어 문한
림(文翰林)이었는데 부친상에 너무 슬어하다가
졸하였고 현손에 휘 광언(光言)이란 분이 있어
문응교(文應教)로 동래백(東萊伯)을 거쳐 승지
(承旨)가 되었고 휘 공(珙)이라는 분이 있는데
문사성(文司成)으로 정암(靜菴) 선생과 더불어
기묘년(1519)의 사화를 같이 당하였고 제 5세손
에 휘 변(杼)이라는 분이 있어 호는 금제(琴齋)
였는데 또한 정암과 더불어 화를 당하였다가 나
중에 좌찬성(左贊成)에 증직되고 시호는 정익
(貞翼)이라 하였으니 아울러 더욱 드러난 분으
로서 정익공은 내게 11세가 된다.

아아 지금은 공의 연대와는 오백년이나 멀어졌
는데 묘갈(墓碣)도 해가 오래 됨에 따라 돌이
벗겨져 떨어졌으므로 후손 상교(庠教), 종기(鍾
夔)등이 상의하여 다시 세우고 내게 비문을 지
을것을 청하나 문헌이 너무 간략하고 무릇 공의
행사와 실적은 후생이나 후학으로 능히 측켜
올릴 수도 없는 일이며 또한 후손이 감히 사사
로히 아유(阿諛)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 정묘

謂良敬公曰卿之弟
師忠孝兩全王言至
此可以徵吾祖於百
世何必多求也畧叙
以刻用詔來裔云爾

六代孫通訓大夫弘
文館校理知製教兼
經筵侍讀官鍾宇
謹撰

十七代孫進士筮主
事翼謹書

(정종)께서 양경공에게 이르기를 「정의 아우 사(師)는 충효를 완전히 다 하였다」 하였으니 임금의 말씀이 이와 같을진대 나의 선조를 백세에 까지 증언이 될것이니 어찌 반드시 더 찾아야 할 것이 있으리요. 대략 적어 새기므로써 후손에게 가르치노라.

6대손 통훈대부 홍문관교리 지제교겸 경연시독관 종우 삼가 짓고

17대손 진사 서주사 익원 삼가 쓰다.

조 씨(趙氏) 墓表

肅宗七年辛酉 仁顯王后正位壺極我外王考閔文貞公諱維重由兼兵曹判書封驪陽府院君文貞公凡三娶海豐府夫人李氏

恩城府夫人宋氏從贈如例貞敬夫人趙氏亦錫號豐昌府夫人越七年丁卯文政公捐館舍己巳之變盡牧封誥甲戌復還授趙夫人享有尊榮六十餘年 國家有吉凶大事往往承命入大內

文貞公二男忠文公鎮厚左議政鎮遠爲世名臣其事夫人忠養備至夫人常稱忠文公曰不知古所謂孝子視此何如爾

숙종 7년 신유년(1681) 인현왕후(仁顯王后)께서 정위(正位)에 오르시자 나의 외조부이신 민문정공(閔文貞公) 휘 유중(維重)이 병조판서(兵曹判書) 겸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에 봉(封)해지셨다. 문정공께서는 삼취(三娶)를 하셨는데 해풍부부인(海豐府夫人) 이씨와

은성부부인(恩城府夫人) 송씨는 예(例)에 따라 부부인에 증직 되었고 정경부인(貞敬夫人) 조씨 역시 풍창부부인(豐昌府夫人)으로 석호(錫號)되었는데 7년 뒤인 정묘년(1687)에 문정공께서 관사(館舍)에서 돌아가셨다. 기사지변(己巳之變: 기사환국)으로 봉작이 환수되었다가 갑술년(1694)에 다시 내려졌으니 조(趙)부인께서 누리신 영화 60여년이었고 나라에서 길흉대사가 있을 때 마다 명을 따라 궐내로 들어가시었다.

문정공께서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충문공(忠文公) 진후(鎭厚)와 좌의정(左議政), 진원(鎭遠)은 세상에서 명신(名臣)이라 하였다. 부인(夫人)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충심을 갖추어 봉양하기에 이르니 부인께서 항상 충문공을 칭하여 말하기를 「옛날의 효자라고 칭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알지 못하나 바로 이와 같지 않았겠느냐?」 하시었다.

及忠文公卒夫人常從議政公居其謫原城及自驪而廣自廣而京也輒奉以往

議政公又卒夫人自以餘日無幾願歸守文貞公墓 上聞而愍之賜手書諸孫俾止其行數使掖隸訊起居疾則醫問不絕

每歲首優致惠養以今歲爲封爵周甲筵中屢有恩言夫人偶感微疾三月二十二日終于安國坊賜第春秋八十三

上震悼弔祭如儀遣中使庀喪以 景廟常月賜廩 命限三年勿收隱卒之典嗚呼至

豐壤之趙肇自高麗侍中孟曾祖諱邦亮參奉 贈承旨祖諱仁亨正郎考諱貴中成均生員

충문공께서 세상을 마치시니 부인께서는 의정공(議政公)을 따라 거(居)하셨는데 그는 원성(原城)에 귀양살이 때로 부터 여주(驪州)로 여주에서 광주(廣州)로 광주에서 서울로 모시고 다니면서 받들기를 오로지 하였다.

의정공이 또한 세상을 마치매 부인께서는 스스로 살아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여 돌아가 문정공(文貞公)의 묘를 지키기를 원하시었는데 상께서 들으시고 이를 민망히 여겨 후손에게 손수 글을 내려 만류케 하시고 나인으로 하여금 수시로 나아가 부액케 하며 기거(起居) 문안을 듣고 질병이 나면 의원을 보내어 묻게 하기를 끊이지 않게 하시었다.

매년 년초가 되면 은혜를 베풀어 부양함이 흠족함에 이르렀는데 금년은 부부인(府夫人)으로 봉작된지가 주갑(周甲)이라 하여 잔치를 베푸신 가운데에서도 여러번 위로의 말씀이 있으시었다. 부인께서는 우연히 대수롭지 않은 질병에 걸리시어 3월 22일 안국방 사제(賜第: 하사하여 주신 집)에서 임종하시니 춘추는 83세였다.

상께서는 매우 슬퍼하신 나머지 제물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시고 중사(中使)를 보내어 상례를 돕게 하시었고 경묘(景廟: 경종)로 하여금 능품(廩品)을 하사케 하되 상기를 마칠때까지 3년간은 이를 거두지 못하게 명하시니 아아! 지극함이시다.

풍양조씨는 고려시중(高麗侍中) 맹(孟)으로 부터 비롯하여 증조 휘 방량(邦亮)은 참봉으로서 좌승지(左承旨)로 증직되었고 조(祖) 휘(諱) 인형(仁亨)은 정랑(正郎), 고(考)의 휘(諱)는 귀중(貴中)이니 성균관(成均館) 생원(生員)이다.

妣清州韓氏掌令縝
之女以節行旌閭夫
人生于 孝廟己亥
二月丙辰十八歸于
文貞公文貞公時己
躋崇班矣

觀察使 贈領議政
諱光勳 府尹 贈領
議政諱機庫令 贈
吏曹判書諱汝健文
貞公三世而外祖曰
延原府院君李公諱
光庭

夫人端莊靜一自幼
有女中君子之稱神
安氣定雖當倉卒聲
色不遽居常穆然罕
言笑而及

老更和厚婉曲疾時
亦必整飭衣衾雖小
孫在傍不令見體服
用簡素無異寒士家

年方大耋猶手執鍼
線曰人不可閒坐度
日事無專制必問而
後行

모친은 청주한씨(淸州韓氏)로 장령(掌令) 진(縝)의 따님인데 절행(節行)으로 정려(旌閭)되었다. 부인은 효종 기해년(1659) 2월에 출생하였고 병진년(1676) 18세때 문정공(文貞公)에게로 시집 오셨는데 당시 문정공은 이미 숭정(崇政)의 반열(班列)에 올라 있었다.

관찰사(觀察使)로 영의정에 증직된 휘 광훈(光勳), 부윤(府尹)으로서 영의정에 증직된 휘 기(機)와 고령(庫令)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된 휘 여건(汝健)은 문정공(文貞公)의 3세(三世)이며 외조(外祖)는 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 이공(李公) 광정(光庭)이다.

부인께서는 어려서 부터 단정하시고 정일(靜一)하시어 여중군자(女中君子)라 칭하였는데 신(神)과 기(氣)가 안정되어 비록 창졸(倉卒) 지간을 당하여서도 성색(聲色)이 다급히 변하지 아니하였고 언어와 용모가 고왔으며 말 수와 웃음이 해프지 않았다.

노경에 이르러서는 온화함이 두터우시고 완곡하시어 질병이 있을 때라도 역시 반드시 금침을 정돈하시었고, 비록 어린 손자들과 함께 방에 계실때라도 몸체를 들어내시지 아니하시며 의무는 간결하고 소박하게 착용하시니 빈한한 사대부 집과 다름이 없었다.

나이가 많아 7-8십에 이르러서도 손에 바느질 거리를 잡고 말씀 하시기를 「사람이 한가롭게 앉아 있으면 못쓴다」고 하시었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전제(專制)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물어 본 후에 행하시었다.

諸子歷官內外未嘗于以毫髮私屢出入禁庭而宮人無一親熟者絕無以宮內事說與人

夫人之德盖不可勝書而勤儉慎密乃其大者又素性謙把平生口不道己能家人子孫亦不能盡知也

夫人舉一男二女男鎮永正郎女適進士李長輝參奉洪禹肇正郎男樂洙直長覺洙李壻子潤潢洪壻子啓承啓能也

恩城府夫人實誕毓聖女而吾先妣忠文公議政公皆其出忠文公嗣子曰掌令翼洙

五月二十一日葬于龍仁縣東壽院洞用一等禮既葬卽樹石墓前爲文以刻于陰亦用 恩庇也

아들이들이 내외직(內外職)을 역임하였지만 털끝만큼도 사적인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췌내를 출입하면서도 궁인(宮人)과 친숙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궁내의 일은 사람과 더불어 절대 말하지 않으셨다.

부인의 덕성을 어찌 다 글로 읊길 수 있겠는가마는 근검(勤儉)하시고 신밀(慎密)하심이 가장 크시며 또한 소탈한 성품에 항상 겸양 하시고 자신의 능력과 도리(道理)가 아닌것은 평생 말하지 아니하시니 집안 사람이나 자손된 자라도 역시 그 분의 유능 하심을 다 알지는 못하였다.

부인은 1남 2녀를 두셨으니 아들은 진영(鎭永)으로 정랑(正郎)이다. 큰 딸은 진사(進士) 이장휘(李長輝)에게 출가하였고 작은 딸은 참봉 홍우조(洪禹肇)에게 출가하였다. 정랑(아들)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 낙수(樂洙)는 직장(直長)이며 차는 각수(覺洙)이다. 이서방(큰 사위)의 아들은 윤(潤)과 황(潢)이고 홍서방(둘째 사위)은 계승 계능(啓能)이다.

은성부부인(恩城府夫人)께서는 왕비를 낳아 기르셨으며 나의 어머니와 충문공(忠文公), 의정공(議政公)은 모두 그에게서 태어나시었다. 문충공의 후사는 장령(掌令) 익수(翼洙)이다.

5월 21일 용인현(龍仁縣) 동수원동(東壽院洞) : 지금의 구성면 상하리 민제궁)에 1등급으로 예장(禮葬)되었다. 이미 장례를 모셨음에 묘전에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지어 비움에 새는는 것은 역시 은전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文貞公墓在驪州蟾
樂里二夫人附 肅
廟嘗手書大字以表
之云

崇禎紀元之百十四
年 辛酉五月日

外孫資憲大夫知中
樞府事兼知 經筵
事 李 緯 記

孫宣略將軍前 行
世子翊衛司洗馬
遇 謹 書

문정공(文貞公)의 묘는 여주(驪州)의 섬락리(蟾樂里)에 있으며 두 부인이 합필되었다. 숙종께서 일찌기 손수 대자(大字)의 글을 표(表)하시었다.

송정기원지 114년 신유(1741) 5월 일

외손 자헌대부지중추부사 겸지 경연사 이재 짓
고

손 선략장군전 행세자익위사세마 우 삼가 쓰다.

조씨(趙氏) 墓表

夫人性趙氏開國定社佐命功臣領議政漢山府院君忠武公諱英茂之後別坐諱繼男之女郡守李處恭之外孫

生於天順二年戊寅年十四歸于純誠佐理功臣筵城府院君文康公性李諱石亨之門

爲贈通政大夫平海郡守行通訓大夫成均館司藝諱渾之繼室

生三男曰孝長行司果曰順長前行部長曰敬長中宗己卯生員

夫人二十六司藝公卒寡居四十一年甲申九月初四日終享年六十七

司藝公先娶竹山安氏生三男一女曰壽長大護軍曰命長保功將軍曰福長宣略將軍

부인의 성은 조씨이니 개국정사좌명공신 영의정 한산부원군 충무공 이영무(李英茂)의 후손으로 계남(繼男)의 딸이며 군수 이처공(李處恭)의 외손이다.

천순 2년(1458) 무인년에 출생하였고 14세 때 순성좌리공신 연성부원군 문강공 이석형의 가문에 출가하여

증 통정대부 평해군수 행통훈대부 성균관 사예이 혼(李渾)의 계배가 되었다.

아들 셋을 두었는데 효장(孝長)은 사과(司果)요, 순장(順長)은 전 행 부장(部長)이며 경장(敬長)은 중종 기묘(1519)년 생원이 되었다.

부인이 26세에 사예공이 졸하자 41년 동안 과거(寡居) 하다가 갑신(1524) 9월 초 4일에 일생을 마치니 향년이 67이었다.

사예공의 전배(前配)는 죽산안씨이니 3남 1녀를 낳았는데 수장(壽長)은 대호군이며, 명장(命長)은 보공장군이며 복장은 선략장군이다.

女適靖國功臣僉知
事邊士謙內外孫男
女凡三十餘人其年
十一月初一日葬于
龍仁縣東李氏先塋
良山甲坐庚向之原
嘉靖五年丙戌二月
二十五日 孫通德
郎兵曹正郎
李 夔 書

딸은 정국공신 첨지사 변사겸(邊士謙)에게 출가
하였는데 내 외손이 30여인이다. 그해 11월초 1
일 용인현 동쪽 이씨 선영 간산(良山) 갑좌경향
(甲坐庚向)에 장사 하였다.

가정 5년(1526) 2월 25일 손 통덕랑 병조정랑
기(夔) 쓰다.

조중정(趙重鼎) 墓表

公字重卿金紫光祿
大夫樞密院府使椿
之後養心堂先生晟
之五代孫

考諱倚樓妣南陽洪
氏生於崇禎壬申卒
於丙申得年二十五
配權氏孝子知事常
之玄孫女無子有二
女季遺腹

長適李尙顏顏季適
尹憲柱權氏取公弟
重益子聚奎爲後尙
顏子璋琛女鄭得天
林右彥憲柱子慶一
進士慶運女李岳鎮

聚奎子世胤女元弘
儀權氏後公五十四
年終享年八十一合
窆于龍仁縣南六十
里阿里谷西坐卯向
之原

崇禎紀元後九十一
年戊戌女婿嘉善大
夫忠清道觀察使兼
兵馬水軍節度使巡
察使坡平尹憲柱書

공의 자는 중경(重卿)으로 금자광록대부 추밀원
사 춘(椿)의 후손이며 양심당(養心堂)선생 성
(晟)의 5대손이다.

고(考)의 휘는 기루(倚樓)이며 비(妣)는 남양홍
씨이다. 공은 승정 임신년(1632)에 태어나 병신
년(1656)에 졸하니 득년은 25세이다. 배위 권씨
는 호자 지사(知事: 지중추부사) 상(常)의 현손
녀인데 아들은 없으며 딸이 둘인데 막내는 유복
자로 태어났다.

큰 딸은 이상안(李尙顏)에게 출가하였고 작은
딸은 윤헌주(尹憲柱)에게 출가 하였다. 권씨는
공의 아우 중익(重益)의 아들 취규를 취하여 후
사로 삼았다. 상안(尙顏)의 아들은 장(璋)과 침
(琛)이고 딸은 정득천 임우언에게 각각 출가 하
였다. 헌주의 아들은 진사 경일(慶一)과 경운(慶
運)이며 딸은 이악진(李岳鎮)에게 출가 하였다.

취규의 아들은 세윤이고 딸은 원홍의 (元弘儀)
에게 출가 하였다. 권씨는 공이 졸하신지 54년
뒤에 임존하니 향년 81세였으며 용인현 남쪽 60
리 아리곡(阿里谷: 남사면 아리실) 유좌묘향 지
원 공의 묘에 합장하였다.

승정기원 후 91년 무술(1718) 사위 가선대부 충
청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파평윤
현주 쓰다.

조중회(趙重晦) 墓表

公諱重晦字益章系
出咸安鼻祖諱鼎仕
新羅爲元尹趙氏之
譜自此始

其後有諱悅工曹典
書之孫曰漁溪先生
諱旅當 瑞宗內禪
之日自泮齋揖諸生
歸鄉里漁釣以終老
論者以西山採薇比
之世稱生六臣院享
於咸安

今 上辛丑因公疏
贈吏曹判書諡貞節
孫諱舜吏曹參判爲
戊午名賢於公爲八
世祖也

生諱庭堅 穆清殿
參奉生諱堪宗簿寺
主簿生諱毅道軍資
監主簿生諱鎰平市
署令 贈吏曹參判
曾祖諱逢源同知中
樞府事德望見重於
一世

공의 휘(諱)는 중회(重晦) 자는 익장(益章) 계출
(본관)은 함안(咸安)이다. 비조(鼻祖) 휘 정(鼎)
은 신라에서 벼슬을 하여 원윤이 되었는데 조씨
지문의 족보는 이에서 부터 비롯된다.

그 후 휘 광열(光悅)이 공조전서(工曹典書)에
있었고 그 후손이 어계선생(漁溪先生) 휘(諱)
여당(旅當)이시니 단종께서 안으로 선위(禪位)
하는 날로 부터 반재(泮齋)에서 모든 유생들과
작별하고 향리로 돌아와 고기를 낚는 것으로
노년을 마쳤으니 론자(論者)들은 이를 서산채
미(西山採薇(중국 백이 숙제)에 비하였으며 세
간에서는 이를 생육신이라 칭하였고 함안의
서원에 향사를 받들고 있다.

금상(今上: 정조) 신축년(1781) 공의 상소로 연
유하여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었고 정절
(貞節)공이란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그의 손
(孫) 휘 순(舜)이 이조판서로서 무오(戊午) 명
현(名賢)이 되니 공에게 있어서 8대조가 된다.

휘(諱) 정건(庭堅)을 낳으니 목청전(穆淸殿) 참
봉(參奉)이고 휘(諱) 감(堪)을 낳으니 종부시
(宗簿寺) 주부(主簿)요. 이가 휘(諱) 의도(毅道)
를 낳으니 군자감(軍資監) 주부(主簿)요. 휘 일
(鎰)을 낳으니 평시서령(平市署令)으로서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었고, 증조(曾祖) 휘
(諱) 봉원(逢源)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로 그 덕망이 일세(一世)에 무겁게 나타내 보
였다.

祖諱楷淳昌郡守
贈吏曹判書考諱榮
福開城府留守以公
貴屢 贈議政府左
贊成

妣咸陽呂氏副正必
寬女繼妣延日鄭氏
參奉續憲女俱 贈
貞敬夫人

公以 肅宗辛卯九
月十八日酉時生卽
鄭夫人出也自在髫
鬣已成德器及長就
學於陶庵李先生之
門丙辰庭試文科爲
侍講院說書兼說書
癸亥陞兵曹佐郎移
拜司諫院正言

疏論 私廟享儀又
斥時相悖於春秋之
義末又引先正臣宋
時烈忍痛含冤迫不
得己之語以明之英
廟震怒罪將不測及
承刊版之 命出寓
江郊坐廢六年杜門
讀書

조(祖)의 휘(諱) 해(楷)는 순창군수(淳昌郡守)로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 되었으며 고(考)의 휘(諱)는 영복(榮福)으로서 개성유수(開城留守)를 지냈는데 공(公:중회)이 귀(貴)하게 되자 누차 증직되어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 되었다.

비(妣)는 함양여씨(咸陽呂氏)로 부정(副正)을 지낸 필관(必寬)의 따님이며 계비(繼妣)는 연일정씨(延日鄭氏)로 참봉(參奉) 찬헌(贊憲)의 따님인데 모두 함께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증직 되었다.

공(公)은 숙종(肅宗) 신묘년(1711) 9월 18일 유시에 정씨 부인에게서 태어났다.

머리털이 자라고 이를 갈 때가 되어서 이미 그릇이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여겨졌는데 자라나서는 도암(陶庵) 이선생(縉)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고, 병진년(1736, 영조 12)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고, 시강원(侍講院) 설서(說書)와 겸설서가 되었으며 계해년(1743)에 병조(兵曹) 좌랑(佐郎)이 되었다가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으로 옮겼다.

(이때) 소를 올려 사묘(私廟:임금의 생모)의 향의(享儀:제사 의식)에 관하여 논했으며, 또 당시의 상신(時相)이 춘추지의(春秋之儀:尊明論)를 거슬러 이를 론척(論斥)하였는데 말미에는 또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인통(忍痛), 함원(含冤)이 부득이 하다는 말을 끌어내어 명문(明文)하니 영조가 진노하여 장차 죄를 측량하지 못하더니 간판(刊版:선비의 사판)에서 삭제 하라는 명을 받고 교외 강가 한 모퉁이에서 앉아서 육년간 문밖을 드나드는 일을 폐하고서 책을 읽었다.

至丙寅 特命 蕩滌
戊辰拜弘文館副修
撰疏 批有開釋無
餘之 教公感激 恩
言卽謝而遞無何復
拜校理

自是連在玉書或兼
侍講院司書文學己
巳拜北評事遞拜吏
曹正郎獻納兼教書
校理庚午乞養爲殷
山縣監

辛未夏移拜兼弼善
講書院右贊讀冬
以書壯官赴燕壬申
還 朝拜軍資監正
兼漢學東學教授差
摠戎廳從事官御營
郎廳尋拜副應教癸
酉以嘉禮都廳勞陞
通政拜承政院承旨
歷兵曹參議甲戌出
爲尙州牧使大有遺
惠民至今頌之丙子
遞拜禮曹參議歷大
司諫己卯拜成均館
大司成庚辰丁鄭夫
人憂壬午服闋拜戶
曹參議移左承旨

병인년(1746)에 특명(特命)으로 당척(蕩滌: 깨끗이 씻어 줌)하고 무진년(1748)에 홍문관(弘文館) 부수찬(副修撰)에 임명 되었는데 소를 올리자 왕이 비답을 내리기를 남김없이 풀어 주라 하매 공은 감격하여 즉시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사체(謝遞) 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다시 교리(校理)에 배제되었다.

이로부터 연달아서 홍문관의 옥서(玉署) 시강원(侍講院) 사서(司書) 문학을 겸하였고 기사년(1749)에 북평사(北評事)에 제배 되었으나 체직하고 이조(吏曹) 정랑(正郎) 헌납(獻納) 겸 교서(校書) 교리(校理)를 겸하였고 경오년(1750)에 양친 부양을 위해 은산현감(殷山縣監)이 되었다.

신미년(1751) 여름에 자리를 옮겨 필선(弼善) 강서원(講書院) 우찬독(右贊讀)이 되었다. 겨울에는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에 갔다가 임신년(1752)에 돌아와서 군자감정(軍資監正) 겸 한학(漢學)과 동학(東學)의 교수로 임명 되었고, 총융청(摠戎廳) 종사관(從事官)과 어영청(御營廳) 낭청(郎廳)이 되었다가 부응교(副應教)에 제배되었다. 계유년(1753)에는 가례도청(嘉禮都廳)의 노고로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품되어 승정원 승지(承旨)와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역임하였다. 병자년(1756)에 체직하였다가 예조참의(禮曹參議)를 거쳐 대사간(大司諫)이 되었고 기묘년(1759)에는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에 제배 되었다가 경진년(1760)에 정부인(모친)의 상을 당하여 사직 하였다가 임오년(1762)에 결복으로 호조참의(戶曹參議)가 되었다가 좌승지(左承旨)로 옮겼다.

時閏五月十三日也
初黑山島投界之命
旋即還寢後數日又
命遠竄茂長六月□
有旋又 教曰趙某
其時雖以國禮處分
其心可諒即爲叙用
又歷兵議承旨出爲
寧邊府使

甲申遞乙酉拜刑曹
參議丁亥出爲楊州
牧使戊子遞 特拜
承旨 教曰某年趙
某之奏尙今記憶今
之舉直措枉宜先此
人

己丑拜敦寧府都正
遞拜吏曹參議庚寅
陞拜開城府留守辛
卯遞拜漢城府右尹
兼同知春秋館義禁
府事壬辰歷都承旨
特授吏曹參判以違
牌不膺 命下 嚴旨
外補忠州牧旋寢拜
禮曹參判兼都摠府
副摠管尋又特陞漢
城府判尹兼提舉瓦
署平市署內資寺承

그때가 윤 5월 13일인데(사도세자가 죽은 날)
처음에는 흑산도 지경에 내치라고 명(命)하였
으나 즉시 거두어지고 수일이 경과된 뒤에 다
시 무장(茂長)으로 멀리 귀양(遠竄) 보내라는
명이 내려 졌다. 6월에 돌아오니 또 하교 하시
기를 조모(중회)는 그 당시 비록 나라의 체모
때문에 처분이 내려 졌으나 그 마음 만은 헤
아릴만 하다고 하여 즉시 서용하여 또 병조참
의, 승지를 역임 하였고 외직으로 나아가 영변
부사가 되었다.

갑신년(1764)에 체직 하였고 을유년(1765)년에
형조참의(刑曹參議), 정해년(1767)에 다시 외직
으로 나가 양주목사(楊州牧使)가 되었고 무진년
(1768)년에 체직되었다가 특별로 승지에 제수되
었는데 (왕께서) 하교(下教) 하기를 조모(중회)
가 진언한 것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제 끝은 사람을 쓰려 한다면 의당히 먼저 이사
람을 쓰라고 하시었다.

기축년(1769)에 돈령부(敦寧府) 도정(都正)에 제
배 되었다가 바뀌어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었
고, 경인년(1770)에 개성부(開城府) 유수(留守)
로 승차하여 제배 되었다. 신묘년(1771)에 바뀌
어 한성부(漢城府) 우윤(右尹) 겸 동지(同知),
춘추관(春秋館), 의금부사(義禁府使)가 되었다가
임진년(1772)에 도승지(都承旨)를 역임한 다음
이조참판(吏曹參判)에 특수(特授) 되었으나 패
지를 받들지 않고 불응하자 명하여 엄지(嚴旨)
로 충주목사로 외임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 예조
참판 겸 도총부(都摠府), 부총관(副摠官)을 겸하
였다가 특별 승차되어 한성부 판윤 겸 제거(提
舉) 와서(瓦署), 평시서(平市署), 내자시(內資寺),
승문원(承文院), 주사(籌司), 사헌부 대사헌(大司憲),

文院籌司移司憲府
大司憲工曹判書以
上遞都監勞陞正憲

癸巳歷刑曹判書特
拜兵曹判書甲午遞
乙未 特拜吏曹判
書兼知 經筵同知
成均館事丙申拜禮
曹判書又以都監勞
陞崇政拜判義禁府
事提舉惠民署

是年今 上嗣服初
拜感鏡道觀察使屬
歲大侵損廩移粟殫
誠調飢一路生靈賴
以全活

丁酉辭遞戊戌拜議
政府左參贊兼造紙
署觀象監提舉旋拜
知敦寧府事己亥復
拜吏判力辭遞

庚子入耆社冬致仕
奉 朝賀自春徂夏
引年乞休章凡四上
始得準請

宣麻之日 上特命
入侍及退 命掖隸
扶腋下 殿此異數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옮겼으며 상호도감(上號都監)의 노고로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차하였다.

계사년(1773)에 형조판서를 역임한 뒤 병조판서로 특배(特拜)되었고, 을미년에는 이조판서(吏曹判書) 겸 지경연(經筵) 성균관사(成均館事)에 특배(特拜)되었다. 병진년(1776)에 예조판서에 제배되었다가 또 도감(都監)을 맡은 노고로 인하여 승정대부(崇政大夫)의 위계로 올라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고 혜민서(惠民署)의 제거(提舉)가 되었다.

이 해에 금상(今上)의 사복(嗣服) 초기에 함경도 관찰사(觀察使)에 제배되었는데 마침 기근이 들어서 늪품(곳간)을 풀고 밖에서 곡식을 훔겨다가 성심을 모두어 기민을 구휼하니 일로(一路)의 생령들이 이에 힘입어 온전히 살아 남았다.

정유년(1777)에 사직하였고 무술년(1778)에 의정부 좌참찬(左參贊)과 조지서(造紙署)를 겸하였고 관상감(觀象監) 제거(提舉)에서 다시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가 되었고 기해년(1779)에 다시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제수 되었으나 극력 사체(辭遞)하였다.

경자년(1780)에 이르러서 기로소(耆老所)에 들었고 겨울에 봉조하(奉朝賀)로 치사(致仕) 되었는데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많을 들어 치사(致仕) 되기를 무릇 네번이나 청하는 글을 올리자 비로소 받아들여 졌다.

선마(宣麻: 원로 공신에게 내리는 궤장)하는 날 임금께서 특명으로 입시케 한 후 물러 나오게 되매 명을 내려 부액(扶掖)하게 하고 전(殿)을 내려가도록 하였는데 이는 전에 없는 예였다.

也以壬寅四月三十日損背享年七十二諡曰忠憲取慮國忘家行善可紀也

合窆于竹山治西朔寧山下高峙洞坤坐之原配貞敬夫人完山李氏左議政文靖公諱觀命女端莊和順孝友慈敬享年七十一先公二歲而卒祔于左

有三男二女男長卽不肖景鎭縣監出后長房次秉鎭早沒次厚鎭參奉女洪樂彬李集培

景鎭子灑秉鎭繼子澍厚鎭女金雨根洪生益榮進士李生韶會女金履平

嗚呼公德性渾厚言語簡重恬靜自守交遊絕罕居家盡奉先之孝在官有鎭物之

임인년(1782) 4월 30일 운명하니 향년 72세였으며

시호를 내리기를 충헌공(忠憲公)이라 하였으니 곧 나라를 염려하여서는 집안을 잊었고 선을 행함이 가히 기록할만 하다고 하는 뜻이다.

합장(合掌: 合窆) 하였으니 죽산 서쪽 삭령산(朔寧山: 지금의 원삼면 학일리 쌍령산을 지칭함) 아래 고치동(高峙洞: 지금의 원삼면 학일리 고초동. 속칭 고초골의 옛 명칭) 곤좌지원(坤坐之原: 서남쪽)이다. 배(配) 정경부인(貞敬夫人) 완산이씨(完山李氏)는 좌의정(左議政) 문정공(文貞公) 휘 관명(觀命)의 따님으로 단장(端莊) 화순(和順)하고 효성과 우애가 깊었으며 자애 공경하였는데 향년이 71세로 공(公)보다 2년 앞서 타계하니 공의 묘소 좌측에 부장되어 있다.

삼남 2녀를 두었으니 장남은 불초(不肖) 경진(景鎭)으로 현감(縣監)인데 장방(長房)으로 출후(出后) 하였고 차남은 병진(秉鎭)인데 일찍 죽었다. 셋째는 후진(厚鎭)으로 참봉(參奉)이다. 두 딸은 (각각) 홍낙빈(洪樂彬)과 이집배(李集培)에게 출가 하였다.

경진(景鎭)의 아들은 익(灑)이며 병진(秉鎭)의 계자(繼子: 양자)는 정(澍)이고 후진(厚鎭)의 딸은 김우근(金雨根)에게 출가 하였다. 홍생(홍낙빈으로 부터 낳은) 아들은 진사 익영(益榮)이고 이생(李集培)의 아들은 소회(韶會)이고 딸은 김이평(金履平)에게 출가하였다.

오호라. 공의 덕성(德性)은 견잡을 수 없이 크고 풍부하였으며 언어는 간결하면서도 중후 하였고 편안하고 고요함을 스스로 지켜서 교유(交遊)함이 극히 드물었다. 집에 거할 때는 효도로서 선친을 받들어 봉양하기에 진력을 다하였고 관에

量至於五十年立朝
大節不但赫赫若照
人耳目

昔在壬辰 英考語
廷臣曰古所謂知勁
草識誠臣今日趙某
之謂矣又 教曰宦
官宮妾不知姓名自
是厥後凡於官職
持授居多逮

夫壬寅我 聖上隱
卒之 教有曰重臣
確然之守奚持決退
一事使卽議諡勿令
撰送諡狀猗歟

大哉兩朝知遇之盛
褒尙之隆雖在千載
之下足令人欽仰激
礪而若其進退以正
終始不渝世皆以元
祐中完人稱之則其
將傳之無窮而永有
辭矣百世不朽之圖
其在斯歟

今於墓前之石不肖
景鎮只撤先系官歷
及內外子系之槩謹
次如右云爾出後男
景鎮泣血謹記

있어서는 몰량을 진정시키는데에 두량이 있었고
입조(立朝) 50년에 이르기까지의 대절(大節)은
혁혁하였을 뿐 아니라 사람의 이목에 이와 같이
비쳐 있었다.

지난 임신년(1772)에 영고(英考: 영조)께서 정신
(廷臣)에게 이르기를 “소위 지경초(知勁草: 疾風
知勁草)요. 식성신(識誠臣: 亂世識誠臣)이라 하
였는데 금일에 조모(趙某: 重晦)가 그러하다는
말”이라 하고 하교하시기를 또한 “그는 환관과
궁첩(宮妾)의 성명(姓名)도 모른다”고 하였으며
이후로 부터는 모든 관직을 특수(特授)한 것이
많았다.

임인년(1782)에 이르러서 우리 성상(聖上)께서
공의 줄서를 애도하는 교서에 말씀 하시기를 중
신의 확연한 의지를 시킴이 어찌 결퇴(決退)하
는 한가지의 일 뿐이라. 하여금 즉시 시호 내릴
것을 의론하여 시장(諡狀)을 지어서 보내지 말
도록 하라고 하였다.

대재(大哉)라! 양조(兩朝)의 지우(知遇)가 성대
하였음이나 포상이 융숭했음이나가 비록 천재(千
載) 후에 있어서라도 족히 사람으로 하여금 흠양
하고 고무될 만하지만 그 진퇴가 정대하여 종신
토록 흐리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모두
원우중 완인(당쟁이 심했던 시점에도) 이라고 일
컬었음 만으로도 앞으로 무궁토록 전해지고 길이
평판이 있을 것이니 백세토록 불후함이 도모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에 있지 아니한가?

이리하여 지금 묘전의 돌에 불초 경진(景鎭)은
다만 선계와 관력과 내외 자손의 대략을 우와같
이 기록하면서, 아들 경진은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기록한다.

上之十年丙午 月 상지 14년(1786) 월 일 세움.
日立

前面集韓濩

비문(음기) 안진경의 해서 집자이고 전면의 대

字陰記集顏眞卿書

자(비명)은 한호 글씨를 집자하였다.

채제공뇌문비(蔡濟恭誄文碑)

議政府領議政 奎章閣提學華城府留守壯勇外使賜諡文肅公蔡濟恭葬日遣閣臣替訣于其靈若曰

松喬上竦山巖脚牢卿式似之判不桔槔

挺然獨任義三秉一木天編史手握弗律斧鉞狐鼠日星忠蓋蜀訛易驚巴賓不賸

洞辨廓關返我鄒魯知申膝席血涕如雨自持寸丹質諸天神萬育莫奪百劫無磷蓋卿稟賦俊爽英特寧驥櫪伏不駒轅促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화성부유수(華城府留守) 장용외사(壯勇外使) 사시(賜諡) 문숙공(文肅公) 채제공(蔡濟恭)의 장례일(葬禮日)에 각신(閣臣:奎章閣에 소속된 신하)을 보내어 그 혼령(魂靈)에게 영결(永訣)하니 이와 같노라.

소나무는 높히 송송(竦竦:竦峙, 우뚝 솟은 모양)하며 산은 높고 가파르고 그 기슭 깊도다. 경(卿:蔡濟恭)의 절도 이와 같으니 길고(桔槔)가 아님을 알겠도다.

정연(挺然:뛰어난 모양)히 홀로 임지(任地)에서의 의로움을 3차례나 떨침에 한결같았도다. 목천(木天)을 잡아 역사(歷史)를 편찬하고 손아귀에서 [처리하는데 있어] 법률이 아닌 것은 물리쳐 부월(斧鉞:옛날에 형벌에 쓰이던 도끼로 刑罰을 의미한다)로 호서(狐鼠:여우와 쥐, 전하의 소인·좀도둑을 의미함)를 내쳐 밤낮으로 충성을 다하였도다. 촉와(蜀訛)도 쉽게 놀라고 파빈(巴賓)도 받아 들이지 않았도다.

밝게 분별하고 넓게 열어서 우리를 추로(鄒魯)로 돌아가게 하였도다. 무릎 펼 곳을 알고 피눈물을 비오듯이 흘렸도다. 스스로 지니고 있던 일편단심(一片丹心) 여러 천신(天神)에게 바탕하였도다. 만육을 빼앗음이 없고 백겁(百)을 당게함도 없었으니 대개 경(卿)의 품부(稟賦:품성)가 준이(俊爽)하고 영특(英特)하였기 때문이었도다. 어찌 준마(駿馬)를 마판(馬板:마굿간에 갈아놓은 널빤지)에 수레를 재촉하지 않으리요.

薄雲氣槩吞潮局量
發之於文忼慨瀏亮
莊精列液馬髓班筋

燕南歌筑抗隊新翻
篋雖魏盈杼不曾投
予匪懸鏡卿實虛舟
萬籟歸竅三品出鑪
起來

樊巖坦履康衢嗟卿
巷遇 寧考則哲特
置經幄知自簪筆若
龍於虞出納 王命

若僑於鄭潤色辭令
口嘗 御藥手綴
天章魚魚雅雅赤芾
蒼珩知卿用卿予篤
自信

얇은 구름과 같은 기개와 바다를 삼킬만 한 국량(局量)으로 문장에 힘쓰니 강개(忼慨:義氣가 북받치어 분개함)하고 유량(瀏亮:맑고 밝은 모양)하여 장자(莊子)의 정근(精勤)을 취한 듯, 열자(列子)의 진액인 듯 사마천(司馬遷)의 골수(骨髓)같고 반고(班固)의 근육과 같았도다.

연남가(燕南歌)를 부름에도 공항(筇抗)하여 그 편제를 새롭게 하였도다. 광주리가 비록 가득 차고 또 찼으나 그 도량을 모두 다 쏟지 못하였도다. 나는 현경(懸鏡:매다는 거울)이 아니요 그대는 실로 허주(虛舟:빈 배)였도다. 만뢰(萬籟:온갖 소리)는 뚫린 자리로 돌아가고 삼품(三品:세가지의 품위)은 화로속에서 나오는 도다.

번암(樊巖:蔡濟恭의 號)이 일어나 강구(康衢:康은 五方으로 통한 길이고,衢는 四方으로 통한 길로 변화한 거리를 뜻함)를 평탄케 하였도다. 슬프도다! 경(卿)을 거리에서 만나다니! 영고(寧考)는 즉 명철하여 특별히 경악(經幄)을 설치하여 스스로 잠필(簪筆:필요할 때 바로 쓰려고 붓을 머리 위에 꽂음, 전하여 얹은 벼슬아치를 이름)임을 알았도다. 마치 우(虞:舜) 임금 때의 용(龍)과 같이 왕명(王命)을 출납(出納)하고

정(鄭)나라의 교(僑)와 같이 사령(辭令)을 윤색(潤色)하였도다. 입으로는 일찍이 어약(御藥)을 맛보기도 하고 손으로는 천장(天障)을 꺾메기도 하여 어어(魚魚)가 아아(雅雅)하고 붉은 슬갑과 푸른 갓끈이로다. 경(卿)을 알아 경(卿)은 쓴 것은 내가 독실히 자신(自信)함이었네

有謨必採取卿抱蘊
有牘必詔嘉卿秉執
有事必咨喜卿諧洽
有唱必醜愛卿風韻
一號負荊

舉世廉藺太阿如水
疇敢弧車策名立朝
五十年餘清華要膺
奚適不宜度支中權
藝苑樞司延登奎閣
接武江漢

煌煌六節藩留及闔
乃立之相不卜不夢
捍流屹石支厦巨棟
澤漉群黎祿仁九族

계책이 있으면 반드시 채택하고 경(卿)의 품은 (抱蘊: 머리속에 품은 재주)를 취하였는데, 책을 읽으면 반드시 두루 빠짐없이 한 후에야 마쳤도다. 경(卿)의 집행(執政)을 아름답게 여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자문을 하여 경(卿)이 화합함을 기뻐하였고 창화(唱和)가 있으면 반드시 초청하여 경(卿)의 풍운(風韻)을 사랑하여 한번 불러 부형(負荊: 가시나무를 등에 지고 매질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사죄하는 일을 지칭함)하였도다.

은 세상이 골 풀처럼 청렴해지고 태아(太阿: 名劍의 이름이나 여기서는 벼슬의 지칭으로 사용)는 물과 같으며 주관(疇官: 家業을 대대로 물려받는 일)은 감히 활과 수레와 같아 책명(策名: 이름을 臣籍에 올림, 즉 신하가 됨)하고 입조(立朝)한 지 50여년이였도다. 청화(淸華: 지체가 썩 높음)하여 무무(膺膺: 아름다운 모양)함을 요구하니 어찌 옳지 않음을 좃으리요. 탁지(度支), 중권(中權: 中軍, 主將이 거느리는 중요한 군대), 예원(藝苑), 추사(樞司) 등을 역임하고 규각(奎閣: 奎章閣)에 연등(延登: 처음으로 벼슬하는 사람을 천자가 맞아들여 殿上에 오르게 하고 친히 詔書를 내림)하였으며 강한(江漢)을 접무(接武: 踵武)하였도다.

육절(六節)을 황황(煌煌: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케 하여 변방에도 머물고 조정에도 머물기도 하였도다. 영상(領相)의 자리에 우뚝 서 복(卜)하지도 않음에 사나운 시세(時勢)의 흐름에 우뚝한 돌이자 처마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였도다. 그 은택(恩澤) 여러 백성에게 미치고 그 복록(福祿) 구족(九族: 온 가족)에게 미쳤도다.

桃門韋布槐庭襪襪
西樓七分上應壽星
鶴髮象笏尚有典型

도문(桃門:民間)에서 위포(韋布:韋帶와 布衣, 빈천한 사람의 의복을 지칭함)를 입고 괴정(槐庭:朝廷)에서 발석(襪襪:雨衣, 비옷)을 입었다. 서루칠분(西樓七分)은 위로 수성(壽星:南極星, 老人星)에 응하고 학발상홀(鶴髮象笏:鶴髮은 노인의 백발을 지칭하고 象笏은 관직을 지칭함)은 오히려 전형(典型)이 있었다.

爰宅于華青繩路臨
采采春露手指松陰
大耋元朝聽漏起居
渥顏炯眸端拱穩

이에 화성(華城)에 거주하며 청승(靑繩)으로의 길은 채채(采采:화려하게 치장하는 모양)하였도다. 봄 이슬 내리니 손으로는 송음(松陰)을 가리켰도다. 대질(大耋:칠팔십세의 노인)로 원조(元朝:元旦)부터 청루(聽漏)하고 기거(起居) 또한 두터웠도다. 안색(顏色)은 윤택하고 눈동자는 빛이 나며 단정하고도 안온(安穩)하였도다.

趨卿期八齡予謂百
歲西來一氣敢肆垂
沴間起人物卿亦乘
箕朝無老成國其何
爲且聞孝親罕如卿
者今焉已矣有淚一
灑春杵遽撤凡杖

경(卿)이 80세를 기약하면 나는 백세를 살라고 하였는데, 서방(西方)에서 한 기운이 와서 감히 진기(沴氣:나쁜 기운)를 드리우며 그 사이 다른 사람 또 일어나 경(卿) 또한 기(箕)를 탔다네. 조정(朝廷)에 노성(老成)이 없다면 나라는 어찌 할 것인가. 또 효친(孝親)으로 소문이 나 경(卿) 같은 사람 드물다고 하니 이제는 그만 두어야지. 눈무를 뿌려 봄에 절구를 찜으며 격양가를 부르고 궤장(凡杖)을 내렸도다.

未錫不與人亡滿架
牙軸徵付劄劄將壽
其傳親製誄文五百
餘言歷鋪平素予筆
無愧寄語弘遠毋忝
毋貳

다른 사람과 같이 잇을 수 없고 시령에는 아축(牙軸)이 가득 찼도다. 기궤(劄劄:조각하는 칼)을 징부(徵付)하여 장차 길이 길이 전하리라. 친히 뇌문(誄文:祭文)을 지으니 5백여의 말로다. 평소의 일들을 기록하니 내 붓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로다. 여기에 부친 말들은 홍원(弘遠:넓고 멎)하고 더함도 덜함도 없을지어다.

己未三月二十六日

기미년(己未年:정조 23, 1799) 3월 26일

최내길(崔來吉) 墓表

公諱來吉字子大崔
系全州始祖純爵
在麗朝爲上將軍世
繼冠冕文貞公宰平
度公有慶敬節公士
康皆至大官

曾祖諱業別提祖諱
秀俊學生考諱起南
受業牛溪登第歷清
顯卒永興府使

以次子領議政完城
府院君鳴吉靖社勳
贈領議政學生公左
贊成別提公吏曹判
書公完城兄也

妣全州柳氏兵曹參
判永立女也生于萬
歷癸未丙午舉司馬
辛亥登第選槐院歷
典籍直講司藝癸未
反政與謀錄勳拜掌
樂正陞通政拜禮曹
參議甲子賊适叛扈
駕陞嘉善封完川君

공의 휘는 내길(來吉), 자(字)는 자대(子大)이다. 전주최씨 세계(世系)는 고려 상장군 순작(純爵)으로 시조로 삼아 세를 이어 높은 벼슬을 하였으니 문정공(文貞公) 재(宰) 평도공(平度公) 유경(有慶), 경절공(敬節公) 사강(士康)은 큰 벼슬에 이르고

증조는 별제(別提)로 휘(諱)는 업(業)이고 조(祖)는 학생(學生) 휘 수준(秀俊)이며 고(考)는 휘(諱) 기남(起南)이니 우계(牛溪) 문하에서 공부하며 등제하였으며 영흥부사(永興府使)를 역임하였다.

차자(次子)는 영의정 완성부원군(完成府院君) 명길(鳴吉)로서 정사공신(靖社功臣)에 훈봉(勳封)되었으며, 증영의정(贈領議政) 학생공(學生公) 좌찬성(左贊成) 별제공(別提公) 이조판서공(吏曹判書公)은 완성(完城)의 형이다.

비(妣)는 전주유씨로 병조참판 영립(永立)의 딸이다. 공은 만력 계미(1583)에 나시어 병오년(1606),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고 신해년(1623)에 반정(反政)을 도모하여 공신에 녹훈(錄勳)되고 장악원정(掌樂院正)을 배수하고 통정대부로 승진하여 예조참의를 배수하였으며 갑자년(1624), 이괄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임금님을 모시고 피란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였으며 완천군(完川君)으로 봉훈되었다.

歷漢城左右尹刑工
曹參判庚子出宰長
興邑人慕之立碑稱
仁似春陽清如秋水
政化如此後宰清州
綾州之然

丙子扈駕南漢陞嘉
義乙酉與會盟祭資
憲拜都摠管戊子拜
京畿監司病遞己丑
拜工曹判書五月初
一日卒壽六十七

先是病上遣醫同疾
訃聞震悼賻禮有加
贈領議政葬于龍仁
紫鳳山之南

公樂易平坦至當事
人莫敢于私夫人宗
室益城君亨齡女也
一男三女男後胤登
第壯元官文學子昇
早六女長適主簿李
齊賢無子次郡守尹
鴻舉次持平李整

後胤二男一女男錫
三錫命皆士人女幼
尹鴻舉二男五女長

그후 한성 좌·우윤과 형조, 공조판서를 역임하
고 경자에는 장흥읍 사람의 인모지비(人慕之碑)
세우는 것을 주재 하였는데 비에 이르기를 인이
란 봄날의 맑고 푸름과 같고 가을에 정화되는
물과 같다(仁似春陽清如秋水政化如此)고 하였고
그후에 청주와 능주에서도 이와 같이 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임금을 모시고 남한산성
으로 피란하여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였으
며 을유년(1645)에 회맹제를 올렸고 자헌대부
(資憲大夫)로 승품하여 도총관(都摠管)을 배수
하였으며 무자년(1648)에 경기감사를 제수 하였
으나 병환으로 체직 하였다. 기축년(1649)에 공
조판서를 배수(拜受) 하였으나 5월초 1일에 졸
하니 수 67세였다.

이에 앞서 임금께서 의관(醫官)을 보내어 병환
을 진찰하였는데 공의 부음을 듣고 임금께서는
깊히 애도하고 부의를 내리는 한편 영의정으로
증직하였다. 용인 자봉산(紫鳳山) 남쪽(지금의
기흥읍 공세리)에 장례를 모셨다.

공은 일에 이르러서는 평탄하게 다스리고 사적
인 일에는 사람을 즐겨 부리지 않았다. 부인은
종실(宗室) 익성군(益城君) 형령(亨齡)의 딸이며
1남 3녀를 두었으니 남은 후윤(後胤)이요, 장원
급제하여 벼슬이 문학(文學)이었으나 어렸을 때
타계하였고 장녀는 주부(主簿) 이재현(李齋賢)에
게 출가하였으나 자식이 없고 차녀는 군수 윤흥
거(尹鴻舉)에게 삼녀는 지평(持平) 이무(李莖)에
게 출가하였다.

후윤은 2남 1녀이니 남은 석삼(錫三) 석명(錫命)
인데 모두 선비이며 여는 아직 어리고 윤흥거는
2남 5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도사(都事) 항(抗)이

抗都事次摠士人女
長適鄭正陽次洪受
疇次朴泰辰皆士人
餘幼

李整三男二女長適
進士李潤朝次士人
權松萬男幼

崇禎紀元之後三十
六年 癸卯 月 日

通政大夫承政院同
副承旨知製教兼經
筵參贊官春秋館修
撰官 鄭斗卿 撰

嘉善大夫行龍驤護
軍 尹文學 書

요. 차남은 선비 총(摠)이며 장녀는 정정양(鄭正陽)에게 3녀는 박태진(朴泰辰)에게 출가하였는데 모두 선비이며 나머지는 어리다.

이무는 3남2녀를 두었는데 장녀는 진사 이윤조(李潤朝)에게 차녀는 선비 권사만(權私萬)에게 시집 보냈으며 아들은 모두 어리다.

승정기원지후 36년(1663) 계묘 월 일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 지제교겸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정두량 짓고

가선대부 행 용양호군 윤문거 쓰다.

최사용(崔士庸) 墓碣

公姓崔氏諱士庸全州人以高麗侍中上將軍完州伯純爵爲始祖自此簪纓圭組輝赫相承而諱得杵諱選部典書上護軍諱宰左侍中重大匡完山君諡文貞諱有慶號竹亭太祖朝參贊議政府事試平度清白吏以孝旌是公之考以上三世也

平度公凡三娶生六男一善郡夫人金氏密直副使達祥之女生一男上洛郡夫人金氏上洛君昂之女生一男固城縣夫人李氏門下侍中崇之女生四男公李氏出而序居五也公而太祖壬申生天姿英明溫雅早襲庭訓又出入于春亭卞文肅公門辭夙就操筆成章

謹按實錄則公以世宗己亥補尙衣院直長陞太倉奉事庚子實錄廳堂郎選入爲王子師傅辛丑義禁府都事轉掌樂院

공의 성은 최씨이며 휘는 사용(士庸)으로 전주인이다. 고려시중 상장군 완주백 순작(純爵)이 시조가 되는데 이로부터 잠령과 규조가 빛이 나며 서로 이어져 휘 득평(得杵)은 선부전서 상호군이고 휘 재(宰)는 좌시중 중대광 완산군으로 시호는 문정이며 휘 유경(有慶)은 호가 죽정(竹亭)이고 태조 때에 참찬 의정부사로 시호는 평도(平度)로서 청백리이며 효자로 정려되었다. 공은 이로부터 고(考)에 이르기 3세가 된다.

평도공은 무릇 3취를 하셔서 6남을 두었으니 일선 군부인 김씨는 밀직부사 달상(達祥)의 따님으로 1남을 낳았고 상락군부인 김씨는 상락군 양(昂)의 따님으로 1남을 낳았으며 고성현부인 이씨는 문하시중 숭(崇)의 따님으로 4남을 낳았으니 공은 이씨에게서 낳았으며 서열은 다섯째이다. 공은 태조 임신생(1392)으로 타고난 자품이 영명 온아하였으며 일찍이 가정 교훈을 승습(承襲)하였고 춘정(春丁) 변문숙공 문하에 들어가 문사가 조필성장(操筆成章) 하였다.

삼가 실록은 살펴본 즉 공이 세종 기해(1419)에 상의원 직장을 도와 태창봉사에 오르고 경자년(1420) 실록청 당랑으로 뽑혀 들어가 왕자사부(王子師傅)가 되었다. 신축년(1421) 금위부 도사에서 장악원 주부로 옮겼고 용양위 부호군이 되었고 또 예빈시 주부로 있다가 송화현감으로

主簿龍讓衛副護軍
 又禮賓寺主簿出爲
 松禾縣監設講塾教
 養聰俊移拜信川郡
 守俄遷爲益山郡守
 清政聞於朝賜鹿皮
 癸卯拜司憲府監察
 仍命爲行臺監察革
 弊瘼務張公道甲辰
 司僕寺判官僉正乙
 巳奉正大夫刑曹正
 郎兵曹正郎丙午繇
 漢城府判官移司諫
 院司諫司憲府執義
 啓曰寵姬在後宮侍
 上眷愛干涉政務使
 此姬更無此弊 上
 嘉納之

又啓官僚不修政務
 不遵政令僥倖陞差
 以爲能事國法綱大
 壤願速除之 上從
 之丁未禮賓寺經歷
 轉濟用監副正出補
 青松府使又移密陽
 府使

庚戌僉知中樞府事
 繇掌樂正出典尙州
 牧使既而解符而歸
 監司馳啓曰州牧崔

나아가 강숙(서당)을 설치하고 충준을 길렀다. 신천군수로 이배 되었다가 다시 옮겨 익산군수가 되어 청정(淸政)하니 이의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록피를 하사받았다.

계묘년(1423) 사헌부 감찰을 배수하고 연하여 행 대 감찰이 되어 고질적 업무를 혁폐하고 공도를 베풀었다. 갑진년 사복시 판관, 첨정이 되고 을사년(1425) 봉정대부 형조정랑, 병조정랑이 되었고 병오년(1426) 한성부 판관이 되었다가 사간원 사간, 사헌부 집의로 옮겨서는 “계(啓)로 아뢰기를 총희(寵姬)가 후궁에 있어 상께서 사랑하는 것만 돌보고 정무에는 간섭치 아니하시니 총희로 하여금 다시 이런 폐단이 없게 하소서”하니 상이 가납하였다.

또 계하기를 “관료가 정무를 세우지 않고 정령을 준수하지 않으며 요행으로 승차하는 것으로 써 능사로 삼아서 나라의 법과 기강이 크게 무너지니 속히 고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정미년(1429) 예빈시 경력에서 제용감 부정으로 옮겨졌으며 청송부사로 나갔다가 또 밀양부사로 옮겨졌다.

경술년(1430) 첨지중추부사로 또 장악원정으로 있다가 상주목사로 전(典)하였으니 이미 해부(解符)하셨는데 감사가 돌아와 치계하기를 “주(州) 목사 최모가 과만이 되어 돌아오니 읍인들

某瓜滿而歸邑人奔走號訴請留其愛民
清政出於至誠後州民磨崖而銘其德

陞拜通政大夫通禮院左通禮甲寅又爲
僉樞己未陞嘉善拜軍器寺判事仍拜司
僕寺正辛酉爲都摠府大護軍旋爲知中
樞府事上護軍

方其前後歷官恪謹奉職惟以扶正抑邪
愛民化俗爲務而按狀公惟又至孝平度
公墓在深山中而自公省掃之勤有猛虎
滅跡之異平居冠帶必整動止後容談論
暢達當時碩德若玩易齋姜公戴敏文節
金公淡其講磨交也配廣州安氏參贊清
白吏思簡公省女生五男二女男長安禮
奉禮次安智縣監安孝護軍安信司直安
仁持平女適丹陽禹克忠府使河陰奉忠
孝奉禮

이 분주히 호소하여 머물기를 청하매 그가 백성을 아끼고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지성에서 나왔으며 후에 고을 백성들이 돌을 깎아 그 덕을 새겼다.

통정대부로 승차하여 통례원 좌통례가 되었고 갑인년(1434)에 또 첨추(첨지 중추부사)가 되었다가 기미년(1439) 가선대부로 올라 군기시 판사가 되었고 곧이어 사복시정을 배수하였고 신유년(1441) 도총부 대호군이 되었다가 다시 지중추부사 상호군이 되었다.

바야흐로 그 전후의 벼슬을 지낼 때 삼가 직책을 받들어 오직 정직함을 붙잡고 사특함을 억제하고 민을 아끼고 풍속을 교화하는데 힘써 오로지 하였다. 또 지극히 효도하여 평도공의 묘가 깊은 산중에 있으나 묘소를 살피고 청소하기를 근면히 하매 있던 맹호의 종적이 없어지니 기이 하였다. 평상시 집에 있을 때에도 관대를 정제하고 행동거지를 종용(從容)히 하였으며 담론이 창달하여 당시 석학이며 덕이 큰 완역재(玩易齋) 강공(姜公) 대민(戴敏)과 문절(文節) 김공담(淡)과 같이 강학 연마하고 교우하였다.

배위는 광주안씨로 참찬(參贊) 청백리 사간공(愍簡公) 성(省)의 따님이다. 5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 안례(安禮)는 봉례요. 차는 안지(安智)로 현감이며 안효(安孝)는 호군이고 안신(安信)은 사직이요. 안인(安仁)은 지평이다. 딸은 단양부사 우극충(禹克忠)과 하음봉(河陰奉)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孫男曰淑文號獨秀堂司馬 贈司僕正文章道學爲世推重享禮山院淑行文吏曹判書淑忠淑信內禁衛淑善曰淑喆曰淑瑞淑祥曰淑謙淑謹曰後賢後昌也曾玄以下繁不盡錄

公以 端宗癸酉卒墓在龍仁縣器谷面貢稅洞紫鳳山坐原配安氏祔焉公之後孫爲是之慨將治石樹之遂叩余以文顧河英以不文固辭而辭不獲只據實錄及家狀敢撰撮之始右繼以銘曰

聖朝嘉其直州民頌其澤盖其蓄於中者深宜有施於外也赫相彼紫鳳松栢苑然繫公幽宅食報萬年籩豆秩秩雲仍成行崇碑刻銘惟德用章礪山 宋夏英 撰並書

一九六六年 改堅

손자 독수당(獨秀堂) 숙문(淑文)은 사마(司馬)로서 사복정(司僕正)에 증직되었는데 문장과 도학이 세상에 추중되어 예산원에 향사되었고 숙행(淑行)은 문과로 이조판서요. 숙충과 숙신은 내금위이며 또 숙선, 숙철, 숙단, 숙상, 숙겸, 숙근, 후현, 후창이다. 증 현손 이하는 번성하여 이에 모두 기록치 않는다.

공은 단종 계유(1453)에 세상을 떠나매 용인현 기곡면 공세동 자봉산 좌원에 배위 안씨와 합장하였다. 공의 후손이 이에 탄식하며 장차 돌을 다듬어 비를 세우려 함에 따라 나에게 물으며 글을 돌이켜 보니 나 하영이 글을 하지 못하므로 고사 하였으나 사양함을 얻지 못하여 다만 실록과 가장을 근거로 하여 감히 그 대강을 찬하여 우와 같이 명(銘)한다.

성조(聖朝)께서는 그 곧음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주민(州民)은 그 혜택을 칭송 하도다. 대개 그 가운데 쌓인 것이 깊으니 마땅히 밖으로 베풀 것이 있어 서로 빛나도다. 저 자봉산 송백이 완연하매 진실로 공의 유택은 만년 식보하리로다. 변두가 질질(많다는 뜻)하며 운잉이 줄을 이루도다. 높은 비에 명을 새기니 오직 덕이 써 빛나도다.

여산 송하여 짓고 쓰다.

1966년 다시 세우다.

최사위(崔士威) 墓碣

朝鮮資憲大夫漢城
府尹崔先生墓碣銘

先生諱士威全州人
其先高麗文宗朝門
下侍中上將軍完州
伯文烈公諱純爵其
上祖也是生禮部諱
宗禮部生大將軍全
州伯文康公諱南敷
文康生少尹諱佺少
尹生知製教諱正臣
知製教生典書諱得
枰典書生侍中重大
匡完山君文貞公諱
宰大明洪武十一年
戊午理命也

門人李穡哭三首詞
達尊三者但風彩冠
儒林方此可見先生
之所以先生門人之
所以門人而非溥古
明道之君子者莫能
道之也是先生之祖
曾至六世也

大匡生諱有慶官至
三宰正憲大夫 太
宗朝選清白吏進無

조선자헌대부 한성부윤 최선생 묘갈명

선생의 휘는 사위(士威)로 전주인이다. 그 선계는 고려시대 문종조에 문하시중 상장군 완주백 문열공 휘 순작을 그 상조(上祖)로 한다. 이분이 예부공 휘 종을 낳았고 예부공 종이 대장군 전주백 문강공 휘 남부를 낳았으며 문강공이 소윤 휘 전을 낳았다. 소윤공(전)은 지제교 휘 정신을 낳았고 지제교공(정신)은 전서 휘 득평을 낳았으며 전성공(득평)은 시중 중대광 완산군 문정공 휘 재(宰)를 낳았으니 대명 홍무 11년 무오(1378) 이명(타계) 하였다.

이에 문인(門人) 이색이 삼수사(三首詞)를 곡(哭)하였는데 이색의 3자(三者: 관작 학덕 년령을 지칭함)는 달존(達尊: 존경하는 것)의 풍채는 유림의 으뜸으로 이것은 마야흐로 선생은 선생된 까닭을 문인은 문인된 까닭을 볼 수 있는 것이었으니 준고(옛 것을 좃춤)에 명도(明道)한 군자가 아니면 그 도에 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분들이 선생의 조(祖) 증조(曾祖)로 부터 6세에 이른다.

대광공(宰)은 휘 유경(有慶)을 낳으니 벼슬은 삼재(三宰) 정헌대부에 이르렀다. 태종 때 청백리에 록선되었으며 무일(無逸)로써 벼슬에 나아갔고

逸圖 世宗朝旌孝
閭諡平度是先生之
考世妣一善金密直
達祥女上洛君金昂
女固城李侍中崇女
先生初配出也家傳
先生生恭愍辛丑壬
寅間而卒亦未詳竹
亭先塋之側卯原子
坐窳于祔

李朝黃海觀察資憲
大夫漢城府尹國誌
亦有此官啣兩道與
府民到之父母之去
之如失之亦有去思
碑宛然之文後生來
見者則躬與爲禮如
對大賓諄諄教誨必
依於孝悌忠信未嘗
以爵齒自高而有懈
意情容也以是入思
則凶水高長之德不
待言兩可知也

娶義城金判書孝誠
女以先生之德封貞
夫人生四男肇吏判
不就啓司直達禮判

세종 때에는 효성으로 정려를 하사받았다. 시호(諡號)는 평도(平度)이니 이분이 선생의 고(考)이다. 비(妣)는 일선김씨(一善金氏)인데 밀직(密直) 달상(達祥)의 따님과 상락군(上洛君) 김묘(金昴)의 따님과 고성이씨(固城李氏)인 시중(侍中) 숭(崇)의 따님이 있는데 선생은 초배(初配: 달상의 딸) 출생이다. 가전(家傳)에 의하면 선생은 공민왕 신축년(1361)과 임오년(1362) 사이에 출생하였고 별세한 년대는 자세치 않으나 죽정공(최유경) 선영 측면인 묘원(卯原)의 구릉 자좌의 언덕에 장례하였고 부인 고성이씨가 함께 묻혔다.

조선에 들어와서 황해도 관찰사와 자헌대부 한성부윤을 지냈는데 국지(國誌)에 또한 이 관직이 있다. 양도(兩道) 부민(府民)들이 선생이 이곳에 이르자 부모와 같이 생각하였고 이곳을 떠나자 마치 부모를 잃은 것과 같이 여겼으며 또한 거사비(去思碑)가 있어 그 완연한 문장은 후생으로 와서 보는 사람들이 직접 예를 갖추어 대빈(大賓: 큰 손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순순하였다. 교회(教誨: 잘 가르쳐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치게 함) 함에는 반드시 효제충신에 의지하였고 일찍이 작치(爵齒: 관직의 나이)가 자연히 높아졌으나 해의(懈意: 게으른 마음)로 그 뜻을 용여(容與: 마음이 태연한 모양)하지 않았다. 이로써 사람들이 이를 사모한 즉 흉수(凶水) 고장(高長)한 덕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을 가히 알만 하다고 하겠다.

판서 의성 김효성의 딸을 취하였는데 선생의 덕으로 정부인에 봉해졌다. 4남을 낳으니 조(肇)는 이조판서에 제배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계(啓)는 사직(司直)을 지냈으며 달(達)은 예조판서를 지냈다. 또 계(縈)는 은덕(隱德)이 있었으나 벼슬

繁有隱德不仕果川
 之上幕溪之下有園
 林水石之勝不就公
 於是俯仰其間盡棄
 人間事獨居一室危
 坐或意日嗒然無一
 言有所得則筆之於
 書或詠歌焉以自適
 間

數日一陟屋後峰瞻
 望北辰第泗嗚咽而
 返鄉人敬歎而號之
 曰處士先生長生吏
 議咸鏡觀察善敏仲
 生司果好德奉事洽
 叔生禦侮將軍湜河
 季生叔良善敏生羅
 牧玉筍僉樞玉浩吉
 牧玉明好德生參奉
 諱僉知纘洽生鄉揮
 湜河生自豪自宗自
 建叔良生仁弘玉筍
 清道郡守澗敦寧潔
 生員濱進士滋玉浩
 生廣牧沆玉明生洽
 進士漣參奉澈纘生
 佑顓副尉寔鄉揮生
 得壽得泉自宗生碩
 根自□生伯春鶴武
 俊仁弘生逸嵐至海

에 나아가지 않고 과천의 위편 막계의 아래쪽
 원림(園林: 집터에 딸린 수풀)과 수석으로 이루
 어진 경치 좋은 곳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았다.
 이에 공은 그 사이를 부앙(아래위로 치켜다 봄)
 하며 인간 세상의 일을 버리고 혼자 한 방에서
 거처하고 앉아 혹 뜻이 있으면 입으로 말을 해야
 하지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뜻한 바에 얻음
 이 있으면 이를 글로 쓰거나 혹은 노래로 부르
 며 자적(自適) 하였다.

또 여러날 동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집
 뒤에서 북진(북두칠성)을 침망(瞻望: 멀리서 우
 러러 봄) 하며, 체음하며 소리내어 우니 오히려
 향인들은 이를 경탄하며 이를 처사라고 불렀다.
 선생의 장남(肇)는 이조참판, 함경도 관찰사, 선민
 (善民)을 낳았고 중자(仲子: 啓)는 사과(司果) 호
 덕(好德)과 봉사(奉事) 흠(洽)을 낳았으며 숙(叔:
 達)은 어모장군 식하(湜河)를 낳았다. 막내(繁)는
 숙양(叔良)과 선민(善敏)을 낳았다. 선민(善敏)은
 나주목사 옥순(玉筍)과 첨추(僉樞) 옥호(玉浩) 길
 주목사 옥명(玉明)을 낳았다. 호덕(好德)은 참봉
 휘와 첨지 찬(纘)을 낳았고 흠은 향휘(鄉揮)를 낳
 았으며 식하(湜河)는 자호(自豪) 자종(自宗) 자건
 (自建)을 낳았다. 숙양(叔良)은 인홍(仁弘)을 낳았
 고 옥순(玉筍)은 청도군수(淸道郡守) 정(澗)과 돈
 령(敦寧) 결(潔) 생원 빈(濱) 진사 자(滋)를 낳았
 으며 옥호(玉浩)는 광주목사 항(沆)을 옥명(玉明)
 은 흠(洽) 진사 연(漣) 참봉 철(澈)을 낳았다.
 찬(纘)은 우전(佑顓)과 부위(副尉) 식(寔)을 낳았
 고 향휘는 득수(得壽)와 득천(得泉)을 낳았으며
 자종(自宗)은 석근(碩根)을 자□는 □백과 춘학
 (春鶴), 무준(武俊)을 낳았다. 인홍은 일람(逸嵐)
 과 지해(至海)를 낳았고 정(澗)은 병절(秉節: 절

澗系子秉節校尉斯胤
 潔生白川郡守以孝
 宣廟朝旌閭贈吏
 參斯立校尉斯胤
 壬胤戰七斯廷濱生
 生員自英水使彦英
 滋生光佑光瑞光國
 光福沆系子慶尙水
 使彦英洽生進士斯
 元判官斯貞漣生將
 仕仁進士斯義澈生
 進士斯弘寔生生員
 處汀得泉生濕澱碩
 根生德粹□伯生邦
 應成春鶴生秀武陵
 生邦節逸嵐生個倫
 至海生峻天峻極峻
 成斯胤生德峰德崙
 斯立生戶參德麟忠
 牧德岫斯廷生刑議
 永□自英生衡光佑
 生進士應星光瑞生
 應台光福生僉正應
 箕彦英系子忠牧孝
 閭德岫斯元參奉德
 崙斯貞生慶壽興壽
 明壽昆壽斯仁生德
 豈德珉德崙斯義生
 德岫德崙斯弘生

개를 떨침)로 교위(校尉)를 지낸 사운(斯胤)을
 계자(系子) 하였으며 결(潔)은 백천군수를 지내
 고 효도로써 선묘(宣廟)때 정려를 하사 받았으
 며 이조참의에 증직된 사립(斯立)과 교위(校尉)
 사운(斯胤)은 임진왜란 당시 전쟁에 7번 출정한
 사정(斯廷)을 낳았다. 빈(濱)은 생원 자영(自英)
 과 수사(水使) 언영(彦英)을 낳았고 자(滋)는 광우
 (光佑) 광서(光瑞) 광국(光國) 광복(光福)을 낳
 았으며 항(沆)은 사원(斯元)과 판관(判官) 사정
 (斯貞)을 낳았다. 연(漣)은 장사랑(將仕郎) 사
 인(斯仁)과 진사 사의(斯義)를 낳았고 철(澈)은
 진사 사홍(斯弘)을 낳았으며 식(寔)은 생원 처
 정(處汀)을 낳았다. 득천(得泉)은 습전(濕澱)을
 낳았고 석근(碩根)은 덕수(德粹)를 낳았으며
 □백은 방□과 춘성(春成)을 낳았고 춘학(春鶴)
 은 수(秀)를 낳았으며 무준(武俊)은 방절(邦節)
 을 낳았다. 일람(逸嵐)은 개륜(個倫)을 낳았
 고 지해(至海)는 준천(峻天)과 준극(峻極) 준성
 (峻成)을 낳았다. 사운(斯胤)은 덕봉(德峰)과
 덕륜(德崙)을 낳았고 사립(斯立)은 호조참의
 덕린(德麟)과 충주목사 덕순(德岫)을 낳았으며
 사정(斯廷)은 형조참의 영□을 낳았다. 자영(自
 英)은 형(衡)을 광우(光佑)는 진사 응성(應星)
 을 광서(光瑞)는 응태(應台)를 광복(光福)은 첨
 정(僉正) 응기(應箕)를 낳았으며 언영(彦英)은
 충주목사를 지내고 효자로 정려를 받은 덕순
 (德岫)을 계자(系子)로 들였다. 사원(斯元)은
 참봉 덕곤(德崙)을 사정(斯貞)은 경수(慶壽)와
 흥수(興壽) 명수(明壽) 곤수(昆壽)를 사인(斯
 仁)은 덕기(德豈)와 덕민(德珉) 덕을(德崙)을
 낳았고 사의(斯義)는 덕수(德岫)와 덕륜(德崙)
 을 사홍(斯弘)은 석순(錫巡)과 진사 의각(義覺)을

錫巡進士義覺處汀
 生秀澗演洽澱生應
 寔邦生景南錫立應
 成德南秀生天老邦
 節系子仁立峻成生
 時藏時嘩下之孫錄
 浩不了筆□

先生清夷恬曠直內
 惠和談經論事簡易
 修暢一意操存杜門
 終日□然若無所營
 者至其論說古今指
 陳得失則又明白慷
 慨可舉而行平居崇
 德義厲廉節絕口未
 嘗及功利至於牧族
 恤孤興事濟衆則又
 慇懃憂勞如己嗜慾
 言行相循沒身懈

又將終所子弟教戒
 一以義理終不及家
 人生產事獨曰洽恕
 以禮勿用浮屠鬼教
 亂吾法而已櫛聞於
 家傳而述其大槩如

처정(處汀)은 수(秀)와 간연(澗演)을 낳았다. 습전은 응(應)을 낳았고 식방(寔邦)은 경남(景南)과 석남(錫南) 석립(錫立)을 응성(應成)은 덕남(德南)을 낳았다. 수(秀)는 천노(天老)를 낳았으며 방절(邦節)은 인립(仁立)을 계자(系子) 하였고 준성(峻成)은 시장과 시엽을 낳았다. 이하의 후손들은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선생은 청렴하면서도 염담(恬淡)하고 이광(夷曠) :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모양) 하였으며 집안을 다스림에는 화담(和談)하였다. 일을 경론함에는 간이하고 조리 있으면서도 통하게 하였고 오로지 조신(操身)하여 문을 닫고 종일토록 □만일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그 논변에 관여하게 되면 고금의 것을 설명하며 득실을 지진(指陳 : 지시하면서 진술함) 하였다. 일의 전모가 명백하게 들어나면 강개(慷慨) 하였다. 또 평소에 생활 하면서 덕의(德義)를 높이고 염절(청렴한 절개)을 권장하여 일찍부터 공리(功利)가 목족(牧族)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홀고(恤孤 : 고아를 구제함)하는 일에 힘써 제중(濟衆)에는 또 이들을 간측(懇惻)하고 우로(憂勞)함에 매우 기쁘게 하여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됨이 없게 하고자 하였으며 죽을 때 까지 게으름이 없었다.

장차 죽음에 이르러 그 제자들을 불러 교계(敎戒)하는데 한결같이 의리(義理)로써 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집안 사람들의 생산(生産)에 관계되는 일은 간섭하지 않고 혼자 말하기를 “기꺼이 예(禮)로써 헤아릴 것이지 부도(불교)나 귀교(鬼教 : 무속)를 사용하여 우리 법(유교)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하였다. 숙(櫛 : 비문을 쓴 사람)이

此用示無窮且以爲
銘曰

玉洞宰相進退不明
逍遙山水衣其銀青
戶部多年儒風不鳴
文柄武略咸繼大庭
文康大將誅賊國快
又好文章每尙文治
少尹賢良先見孔明
先人弊廬乃守乃寧
寶文學丞其諱正直
不負其名南竄北謫
典書廉正人皆敬憚
三人選部銓衡平穩
文貞三達補世養民
爵齒雖高對民若賓
竹亭清白圖進無逸
愛日克孝治平惟一
嗟惟先生承襲孝忠
有大其識務本自躬
烝烝于家懇懇于國
根深末茂綱舉隨目
行滿當世言合龜卜
亦曰于仕我止我行
亦生而死我安具寧
紫鳳大墓東有斯碣
嘉我後人仰止遺烈
毋以頂天立地者而
爲門戶之悖也

가전(家傳)에서 전해 듣고 그 대략을 서술함이
이와 같으니 영원토록 보여지고 보여질지이다.

명하기를

옥동(玉洞)의 재상은 진퇴가 불명하여 소요의
산수는 그 은청을 입었네. 호부에서 지낸 많은
세월 유품은 떨치지 못했지만 문병과 무락은 모
두 대정에 계승되었네. 문강공께서 대장으로 적
을 주살한 것은 나라의 쾌거였고 또 문장을 좋
아하여 문치를 숭상하였네 소윤공께서는 현량으
로 공명을 선견하였고 선인께서는 패려를 수녕
(守寧)하였네 보문각의 학생을 지낸분은 그 휘
가 정직으로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아 남북으로
찬적 되었네 전서공께서는 열정하여 사람들 모
두 경탄하였고 세분의 선부(이조)께서는 전형하
는데 평은 하였네 문정공(崔宰)의 삼달(知, 仁,
勇)은 보세양민하여 작치 비록 높았지만 백성을
대하는데는 마치 손님과 같이 하였네 죽정공(최
유경)의 청백은 무일을 도모하여 매양 효성을
다하고 치평하는데 힘썼네 차라! 오직 선생께서
는 효충을 승습하여 그 식려(識慮: 식견과 사려)
가 매우 커서 스스로 그 근본을 지키기에 힘썼
네 집안에서는 증증(성하게 일어나는 모양) 하
였고 나라에는 간간(懇懇: 지성스러운 모양) 하
였으니 그 뿌리깊고 그 끝은 무성한 것은 강목
(綱目)을 따른 것이었고 행실이 당세에 넘쳐 말
과 합치된 것은 구복(龜卜)이었으니 말하기를
벼슬에서의 행지(行止)는 또한 삶과 죽음에서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자봉산에 있는 큰 묘
의 동쪽에 있는 이 묘갈은 기꺼이 우리 후인들이
유열(遺烈)을 양지(우러러 봄) 할지니 정천입
지(頂天立地)로써 문호지패(門戶之悖)를 삼지 말
지이다.

隆熙紀元之五十七
年癸卯三月日(改
堅) 後孫 櫛 謹
撰

음희 기원지 57년 계묘 3월 후손 숙 삼가 쓰다

최유경(崔有慶) 墓誌

完山崔氏肇自新羅
六部大人而貴其詳
近以高麗門下侍中
兼上將軍完州伯諱
純爵爲始

完州伯生判禮部知
中郎崇禮部生知工
部兼上將軍全州伯
南敷全州伯生小尹
知保勝郎將侄小尹
生三司副使知中郎
正臣副使生選部典
書上護君得杵選部
生左侍中重大匡完
山君文貞公宰是爲
公之考也

文貞公娶軍簿正務
安朴公允鏐女元至
正三年癸未四月甲
子生公諱有慶字慶
之號竹亭

乙未出就外傳習口
讀聰明節倫文貞公
諸子中視公尤奇重
之庚子娶密直司事
一善金達祥女九月
以清白及學行拜宣
仁館直年纔十八

완산 최씨는 신라 6부대인(六部大人)으로 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그 자세하고 가까움을 귀하여 여겨 교려 문하시중(門下侍中) 겸 상장군 완주백(完州伯) 휘 순작(純爵)으로 시조를 내세웠다.

완주백이 판 예부 지중랑(判 禮部 知中郎) 승(崇)을 낳고 예부는 지 공부겸 상장군(知工部兼上將軍) 전주백 남부(南敷)를 낳고 전주백(全州伯)은 소윤(小尹) 지보승랑(知保勝郎) 장전(將侄)을 낳고 소윤 전(侄)은 삼사부사(三司副使) 지중랑(知中郎) 장신(正臣)을 낳고 부사는 선부 전서(選部典書) 상호군(上護軍) 득평(得杵)을 낳고 선부는 좌시중(左侍中) 중대광(中大匡) 완산군(完山君) 문정공(文貞公) 재(宰)를 낳으니 이분이 바로 평도공(平度公)의 부친이다.

문정공이 군부정 무안박씨를 취하여 원나라 지정(至正) 3년(고려 충혜왕 4년 1343년) 계미 4월 갑자일에 공을 낳으니 휘(諱)는 유경(有慶)이요. 자는 경지(慶之)요. 호는 죽정(竹亭)이다.

을미(고려 충혜왕 4년, 1355)에 입학하니 총명이 비길데 없는지라 문정공이 여러 아들 중에 공을 더욱 중하게 여겼다. 경자(고려 공민왕 9년, 1360) 밀직사사 일선(一善) 김달상(金達祥: 기흥읍 지곡리에 묘가 있다)의 여를 취하였는데 9월에 청백과 학행으로 선인관직(宣仁館直)이 되니 나이 겨우 18세였다.

壬寅妻金氏故丙午受奉承郎己酉再娶判吏部上洛金昂女十二月遷工部散郎賜緋魚袋 洪武四年辛亥拜民部散郎壬子改判制行承奉郎判圖佐郎時各道置議鹽倉而鹽盆皆爲豪強所占公具書以聞皆屬鹽倉豪強者知其所畏十二月行典養寺丞甲寅爲江原道按廉副使

初恭愍王以姬殿息布送于各道分給民間每年以粳米收其利民甚患若至是公不稟朝廷列其弊悉以還送民懷其惠十二月以奉善大夫司憲府掌令召還去道之日一道之民如失怙恃

公初入臺閣時有宦者尹忠佐恃寵驕恣多行不法憲府欲問而不能問遂於視事之初卽啓劾罪宦官莫不畏憚

임인년(공민왕 11, 1362)에 부인 김씨가 졸하였고 병오(공민왕 15, 1366)년에는 봉승랑(奉承郎)이 되고 기유년(공민왕 18, 1369)에는 판이부상락(判吏部上洛) 김양(金昂)의 여를 재취하고 12월에는 공부산랑(工部散郎)으로 옮겨 배어대(緋魚袋)를 하사 받았다. 홍무4년(공민왕 20, 1371) 신해에 민부산랑(民部散郎)이 되고 임자(공민왕 21, 1372)에는 다시 봉승랑(奉承郎)과 판도좌랑(判圖佐郎)이 되었다. 이때에 각도에 염창(鹽倉)을 두었으나 그 염분이 모두 세력있는 자에게 점유 당하자 공이 글을 올려 보고하고 염창에 귀속하게 하니 세력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 할 바를 알게 되었다. 12월에 전양사승(典養寺丞)으로 갑인년(공민왕 23, 1374)에는 강원도 안렴부사가 되었다.

처음에는 공민왕의 희전(姬殿)이 이자를 노리는 포목을 각 도민간에 분급하여 주고 해마다 쌀로 그 이자를 거두게 되니 백성들이 심히 괴로워하는지라. 공이 나라에 보고 하지도 아니하고 돌려 보내니 백성들이 은혜로히 여겼다. 12월에 봉선대부(奉善大夫)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으로 부르니 임지를 떠나는 날에는 한 도의 백성들이 부모를 잃음과 같이 하였다.

공은 처음으로 대각(臺閣)에 들어감에 내시 윤충좌(尹忠佐)가 임금의 사랑을 믿고 교만하고 방자하여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었으나 헌부(憲府)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공은 부임하면서 왕에게 보고하여 처벌하매 내시들이 두려워 하였다.

乙卯遷典法摠郎府有疑獄盖李思忠家奴欲刺殺其主不中思忠訴之考訊屢次而不得其情公初當法府引情徐問不下重杖家奴實吐人稱剛明丙辰遷軍簿摠郎丁巳爲三道副元帥

時 李太祖康獻大王仕于前朝以楊廣慶尙全羅三道都元帥素知公忠義之節剛直之風故啓公爲副元帥公巡之處軍士畏公剛明少無違律三道諸鎮舉皆敬憚遂陞中顯階爲司宰令又遷宗簿令知典法事戊午以決訟之直爲權臣所忌削知典法請歸覲清州十月始六日文貞公卒以十二月葬于州之北坎麓而遂廬墓己未喪再室金氏壬戌階通憲出牧公州時三娶檢校侍中李崇女既赴任州吏李

을묘(1375)년에 전법총랑으로 옮기자 의심이 가는 송사가 있었는데 이사충(李思忠)의 가노(家奴)가 그 주인을 죽이려 하였으나 사충이 죽지 않고, 사충이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여러번 고문도 하고 심문도 해 보았으나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공이 처음으로 법부(法府)를 맡아 가지고 심리적으로 달래어 형장(刑杖)을 사용하지 않고 자백하게 하니 사람들이 그 명찰함을 보고 일컬었다. 병진(1376)년에 군부총랑으로 정사(1377)년에는 삼도부원수(三道副元帥)가 되었다.

그때는 태조 헌강대왕이 고려조에 벼슬하여 삼도 도원수(三道都元帥)로 있을적인데 공의 충의와 강직함을 보고 부원수로 천거하매 공이 순행하는 곳에서는 공의 강명함을 두려워하여 조금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3도의 제신이 모두 공경하였다. 드디어 중현대부(中顯大夫)에 올라 사재령(司宰令)이 되고 또 옮겨서 종부령 지 전법사(知典法事)가 되었다. 무오(1378)에는 송사를 공정하게 판결하므로 권신들의 미움을 사서 삭직을 당하고 고향 청주로 돌아 갔으며 10월 초 6일 문정공(文貞公)이 졸하니 12월에 청주 북쪽 산에 장례하고 시묘 하였다.

기미년(1379)에 재취 김씨의 상을 치르고 임술(1382)에 통의대부(通議大夫)가 되어 공주목사로 나아갈 때 겸교시중 이승(李崇)의 따님을 삼취로 맞았다. 부임하여서는 아전 이식(李植)

植爲大興安集得幸
於巡撫使而因鍊軍
至州恃勢無禮公卽
令還本姦猾畏服

爲政數歲廉正自守
清約以行吏畏民愛
乙丑陞奉翊判書戊
辰誅權臣林味等公
爲楊廣按廉使推正
權奸濁亂民田夏僞
主興師攻大明公以
西北道按廉使兼運
糧使出攻遼之役

李太祖以右軍都統
使次于威化島因舉
回軍之時舉朝皆附
於太祖而公獨不
畏勢不附權馳至成
川見僞主而告回軍
之變仍隨駕還京及
太祖還朝以崔瑩之
攻遼不忠於國家稟
于朝而流之當此之
時人多爲公危懼獨
正色朝端少無幾微
太祖知公之忠議素
所蓄積不以爲罪反
擢公爲密直副使上
護軍

이 대흥골 안집(安集) 때문에 순무사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군사를 조련하려고 공주로 와서도 세력을 믿고 무례하여 공이 그 자리에서 돌려 보내니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두려워 하였다.

수년 동안을 염정(廉正)으로 처신하고 청(淸)과 약(約)으로 실천하니 아전은 두려워 하고 백성은 신뢰하였다. 을축(1385)에 봉익판서가 되고, 무진년(1388)에 권신 임견미(林堅味)의 무리를 벌주었다. 공이 양광도 안렴사가 되어 권신과 간신들이 백성의 토지를 빼앗는 것을 시정 하였다. 여름에 왕이 군사를 이르켜 요(遼)를 공격할제 공은 서북도 안렴사로서 운량사가 되어 참전하였다.

이태조가 우군(右軍) 도통사(都統使)로 위화도(威化島)에 있다가 반기를 들고 회군하게 되니 온 조정이 모두 태조에게로 따라 붙었으나 공은 홀로 세력을 두려워 하지 않고, 또한 권력에도 따라붙지 않고 성천(成川)으로 달려가서 왕에게 회군의 변고를 보고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태조가 서울로 와서 최영(崔瑩)이 요를 치려고 한 것은 국가에 불충한 것이라 주장하고 귀양보냈다. 이 때를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을 염려하였으나 공은 정당한 얼굴로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으니 태조는 공의 충의의 마음이 평소부터 축적되어 있음을 알고 허물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밀직부사(密直府使) 상호군(上護軍)으로 발탁하였다.

時朝廷欲選大臣分
遣各道按察民情黜
陟幽明以革積年之
弊公素以剛明果斷
乃中其選秋九月授
教書仗鐵鉞出爲全
羅道觀察使于時都
巡使崔雲海見賊逗
遛公監禁請罪守令
將卒莫不辰懼

長興寶城諸州因倭
寇所侵民皆失業飢
饉轉死公發倉賑救
民賴以生僞主嘉之
遣開城小尹金畝賜
酒與衣公上箋以謝
僞主回教曰守令藩
鎮陷民於飢寒死亡
臺諫都堂推卿爲都
觀察使奉綸音而慷
慨犯霜露而驅馳念
卿勤若遣使慰問

恭讓王元年己巳以
同知密直使兼典法
判書召還知世道之
莫救乃致仕退居于
西原每仰室發嘆曰
古人有言大廈將頽
一木難支豈非今日
之朝家乎顧念朝廷
事只切漆室之夏矣

그 때 나라에서 대신을 선발하여 각 도로 보내
서 민정을 안찰(按察)하고 잘못을 가려 쌓인 폐
단을 없애려고 하였다. 공이 평소 강명(剛明)
하고 과단하다고 하여 선발 추구월(秋九月)에
교서를 내리니 부월(斧鉞)을 잡고 전라도 관찰
사가 되었다. 이때에 도순무사(都巡撫使) 최운해
(崔雲海)가 적을 만나 추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금하고 왕에게 죄줄것을 청하니 수령과 장졸
이 모두 떨었다.

왜적의 침략으로 장흥과 보성의 백성들이 생
업을 잃고 굶어 죽게 되자 창고를 열어 구원
하였다. 왕이 칭찬하고 개성소윤(開城小尹) 김
무(金畝)를 보내어 술과 옷을 내리매 글을 올
려 사은하였다. 왕의 회답에서 “수령과 번진
(藩鎮)이 백성을 기함에 빠트려 대간과 도당에
서 그대를 추천하기에 관찰사로 하였더니 윤
음(綸音)을 받들고 강개하며 상로(霜露)를 무
릅쓰고 달리고 달리니 그대의 근고함을 생각
하고 사신을 보내어 위문한다”고 하였다.

공양왕 원년(1389) 기사에 동지 밀직사경 전법
판서(典法判書)로 불렀으나 세상을 바로 잡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청주에 살며 탄식하기를
“큰집이 쓰러지려는데 하나의 받침대가 지탱하
기 어렵다는 말이 어찌 금일의 왕조가 아니라.
나라의 일을 돌아 보건데 답답한 뿐”이라고 하
였다.

歲壬申 李太祖因
 裴克廉等見高麗政
 亂倡義推戴遂化家
 爲國定鼎于漢陽越
 明年癸酉特旨召公
 將畀詳定都監及都
 城營築都監之任人
 有以威化島奔告之
 事沮之者 太祖褒
 之以忠義傳之以御
 札乘之以驛駟公不
 得已奉 聖旨與書
 李牧隱曰天地翻覆
 此何世界吾輩曾非
 愛死者而不幸未死
 於本朝乃見今日生
 而不死也

實爲鄭達可吉純一
 之罪人生何以對純
 一於世上死何以見
 達可於地下惟吾兩
 心之相照也

其後相逢輒携手入
 窮山相對痛哭而歸
 人皆歎其本心之忠
 義憐其歸順矣終下
 免被召因監營築
 朝家錄開國原從勳
 又賜田民公屢謝不
 獲

임신년(1392)에 배극렴(裴克廉) 등이 고려의 정
 치가 어지러움을 보고 이태조를 추대하자 다음
 해 계유(1393)년, 한양을 도읍으로 하기를 정하
 고 공을 불러 상정도감(詳定都監)과 도성영축도
 감(都城營築都監)의 책임을 맡기려고 하니 위화
 도에서 왕에게 고변한 일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
 람이 있었으나, 태조는 충의(忠義)라 칭찬하고
 친서를 전하며 역마를 타고 오라 하매, 공이 마
 지 못하여 성지(聖旨)를 받고 목은 이색에게 편
 지를 쓰기를 「천지가 번복하니 이것이 어느 세
 계인가? 우리가 죽기를 좋아 하지는 아니하지만
 불행히도 고려조에 죽지 못하고 금일을 보게되
 니 살아도 죽음만 같지 못하다.

정달가(鄭達可: 포은)와 길순일(吉純一)에게 죄
 인이 되었으니 살아 무슨 낫으로 야은(길재)을
 세상에서 상대할 것이며 죽어 무슨 면목으로 포
 은을 지하에서 보리요. 오직 우리 두 마음만이
 서로 비친다」고 하였다.

그 후에도 서로 만나면 손을 잡고 깊은 산으로
 들어가 마주 대하여 통곡하고 돌아오니 사람들
 이 모두 그 본심의 충의를 탄식하며 그 귀순함
 을 애석해 하였으며 마침내는 부름 당함을 면하
 지 못하고 한양성 쌓는 일을 감독 하였다. 나라
 에서는 개국원종훈(開國原從勳)으로 책록하고
 전(田)과 민(民)을 사(賜)하매 공은 이를 여러번
 사양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城役始訖奏其準役
請其退仕 太祖因
不教曰只塞責於築
城而旋欲辭歸則無
乃不臣之心歟予之
勤卿越自副帥之時
也卿之惡予亦自奔
告之日也其所勤卿
其所惡予何莫非流
出於愛忠激忠之中
乎

雖然到今滄桑已變
卿之處義豈不與鄭
侍中有異哉卿則知
幾退鄉鄭則執政立
朝是以生死已判於
曩時進退何關於今
日耶

古有死亦忠生亦忠
之言又有進亦忠退
亦忠之語卿之退仕
前朝知幾之人也
進身今日制義之心
也予欲使卿以禮既
許忠義之臣則卿亦
一立寡人之朝不宜
遽退於此時

仍以天意向背麗朝
興亡面諭懇惻公奉

축성(築城)의 역사를 마치고 물러갈 것을 청하
매 태조가 하교하여 이르되 “다만 성 쌓는 책임
만을 다하고 물러가고자 하는 것은 신하 노릇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니냐. 내가 그대를 아
끼는 것은 부원수(副元帥)로 있을 때 부터이다.
그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성천(城川)으로 변
을 고하려고 달려 나가던 날 부터이다. 내가 그
대를 아끼던 것과 그대가 나를 미워하던 것이
모두가 충(忠)을 사랑하고 충에 격동을 받은 것
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제에 이르러 천지가 이미 변하였으니
그대의 의(義)에 처함이 어찌 정시중(포은)과 다
름이 있으리요. 그대는 기(幾)를 알고 고향에 돌
아 갔으며 정시중은 정권을 잡고 조정에 버티고
섰으니 이로써 생과 사가 이미 그때에 결정 지
어진 것이다. 나감과 물러감이 오늘과 무슨 관
계가 있으랴.

옛말에 사(死)도 충이요. 생(生)도 충이다 하였
고 또 진(進)도 충이요. 퇴(退)도 충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대는 전조(前朝: 고려)에서 기(幾)를
지(知)한 사람이라. 금일에 몸을 진(進)하였으니
의(義)를 조절하는 마음이라. 내 또한 그대를
예로써 부리고자 하노니 그대가 충의의 신(臣)
이라 자부하거든 한번 과인의 조정에 설것이요.
구태어 이 때에 물러감이 마땅치 못하다” 하
였다.

그리고 천의의 향배가 고려조가 흥망한 것으
로서 면유(面諭)함이 간곡(懇惻)하여 공이 봉교

敎嗚咽終不敢致仕
特授中樞密院事及
都評議司使

戊寅 太祖將幸平
州溫井駐駕于開城
府見留後政令陵夷
舉公授之其職公進
曰 臣奉香頃詣 齋
陵則守護諸節祭祀
器具未備以義言之
齋陵先嫡也今當開
國之初何其太薄於
齋陵而獨厚於 貞
陵乎 太祖曰非予
薄之有司不告耳公
以是言都堂守護及
祭器具備焉

秋移京畿道都觀察
使建文皇帝三年辛
巳九月復命 上特
拜左參贊兼判軍資
是冬 命公爲壬午
賀正使以參贊兼判
工曹而使上國越年
三月還自京帥復命
上問使行時沿路所
見何事公對以豐海
道埋香漁獵之弊
上納其言卽命革之
永樂元年癸未四月

(奉敎)하고 오열(嗚咽)하면 마침내 치사(致仕)
하지 못하니 특히 추밀원사와 도평의 사사를
시켰다.

무인년(이태조 7, 1398)에 태조가 평주 온천으로
거동하다가 개성부에 머물러 행정의 침체함을
보시고 공에게 그 직을 맡기시니 공이 이르되
“신이 받들고 재능으로 가보니 수호하는 제절과
제사 기구가 미비 하더이다”의로써 말하자면 재
능은 먼저요 적자입니다. 이제 개국(開國)의 처
음부터 어찌자고 재능에는 지나치게 박하고 정
능(貞陵)에는 특히 후하게 하십니까? 하니 태조
께서 이르되 “내가 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
사(有司)들이 보고를 하지 않음이다” 하였다. 공
이 이로서 도당(都堂)에 말하여 수호와 제기를
구비하게 하였다.

가을에 경기도 관찰사로 옮겼다.

건문황제 3년 신사(태종 1, 1401)년 9월에 복명
하니 상께서 특히 좌참찬겸 판군자(左參贊兼判
軍資)에 특배(特拜)하였다. 이해 겨울에 임오
(1402) 하정사(賀正使)를 명하였으며 참찬(參贊)
으로 공조판서를 겸하고서 중국의 사신으로 갔
다가 다음 해 3월 돌아와서 복명하였다.

상께서 사행(使行)할 때 연로에서 본것중에 무
슨 일이 있었더냐고 물으시니 풍해도에서 향을
몰어 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폐단을 말하니 상께
서는 그 말을 받아들여 즉시 개혁 할 것을 명하
였다. 영락 원년(1403) 계미 4월에 참판 사평부사

參判司評府事甲申
復判漢城尹十二月
遞歸西原以爲終老
之計

丙戌 上命各司各
薦老成人可任政府
者三司六曹同辭並
薦以公舉之閏七月
陞拜正憲大夫參贊
議政府事自是國政
必與聞謹事八年多
有贊襄矣癸巳六月
二十四日以病卒于
第享年七十一至屬
續言辭自若

訃聞輟朝三日致賻
特厚以八月旬三禮
葬于京畿道龍仁縣
紫鳳山駒洞乙坐辛
向之原卽 朝家思
謝之地

公剛明果斷好善疾
惡黜陟幽不畏強御
倜儻敢言無所撓屈
出入中外振起法網
事親克孝六年廬墓
立朝廿載人稱清直
蓋有當世之定論而
其得於天稟者如是
矣

(參判 司評府事)가 되고 갑신(1404)에는 다시 한
성부 판윤(判尹)으로 있다가 12월에는 서원(西
原)으로 돌아가 노년을 마칠 계획을 하였다.

무술년 상께서 각 부처에 명하여 노성(老成)한
사람으로 가히 정부를 맡길만한 자를 천거하
라 하시니 삼사(三司) 육조(六曹)가 공을 천거
하였다. 윤 7월에 정헌대부(正憲大夫) 참찬(參
贊) 의정부사(議政府事)로 승진하여, 이로부터
국정에 반드시 참여하였다. 8년 동안 찬양함이
많았으나 계사 6월24일 병으로 우제(집)에서
졸하니, 향년은 71세인데 임종할때까지 말씀이
여전하였다.

그의 임종을 부고하니 조정에서는 3일간 철조
(輟朝)하였으며 부의도 후하게 내려 주셨다. 8월
13일 경기도 용인현 자봉산 구동(駒洞) 을좌(기
홍읍 공세리)에 장사하니 바로 나라에서 사패지
로 내려준 땅이다.

공은 강명(剛明)하고 과단하며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흔들리거나 굴하지 아니하며 중
외(中外)를 출입하여 법강(法綱)을 떨쳤다.

부모에게 극진히 효하여 6년을 시묘 하였으며
조정에 선지 20년에 사람들이 맑고 곧았다고 일
컬었던 것이 당세에 정평이 있었으니 천품으로
얻은 것이 이같은 것이다.

贈諡平度布綱治紀
曰平心能制義曰度

公凡三娶一善郡夫人金氏子士威漢城府尹上洛郡夫人金氏子士儀判敦寧女適經歷李佐固城縣夫人李氏子士規持平士康侍直士庸僉正遺腹有未知男女(即監務公士興)侍直吾之畏友求銘於予不敢以不文辭焉遂銘曰

玉壺置水惟公之清
塵匣開鏡惟公之明
惟清惟明惟世之則
愛日克孝惟公敬篤
進思盡忠惟公義直
生死進退煥天褒
知幾制義俯仰無愧
若能大用邦國丕治
其在臺部臺綱振起
出爲民牧民物咸若
無思無慮允矣清德
嗚呼崔公永世不忒

太宗十三年癸巳

평도(平度)라 시호(諡號)를 내리니 “기강을 펴고 벼리를 다스리는 것을 평(平)이라 하고 마음이 능히 의를 판(判)함을 도(度)라고 한다”는 뜻이다.

공이 삼취(三娶)를 하였으니 일선군부인(一善郡夫人) 김씨가 낳은 사위(士威)는 한성부윤(漢城府尹)이요 상락군부인(上洛郡夫人) 김씨가 낳은 사규(士規)는 지평(持平)이며 사강(士康)은 사직(侍直) 사용(士庸)은 첨정(僉正)인데 유복(遺腹) 중인 아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즉 사흥(士興)인데 감무공(監務公)이다) 시직(侍直)은 나의 선배이다 명(銘)을 나에게 부탁하니 감히 글 못한다고 사양하지 못하고 명(銘)하기를

옥병에 어름을 담으니 공의 맑음(淸)이요. 거울의 먼지를 털어내매 공의 명(明)함이다. 청(淸)과 명(明)함이 세상의 모범이로다. 아버이를 지성껏 효양함은 공에 공경심이 도타움이요. 나아가면 충성을 다할것을 생각하니 오직 공의 의리가 크도다. 생사와 진퇴가 빛남을 임금이 포상하고. 기미를 알고 의리를 절제하니 하늘과 땅에 부끄러움이 없도다. 만약에 크게 등용 했더라면 나라가 크게 다스려졌을 것이니 그가 대각에 있으면 기강을 떨치고 목민으로 나아가면 민심과 물정이 다 넉넉해지고 공평무사하니 참으로 청덕이로다. 아! 최공이여 길이 변하지 아니 하리로다.

태종 13년(1413) 계사 8월

崇政大夫行吏曹判
書兼文明殿大提學
藝文館大提學 卞
季良 敬誌

송정대부 이조판서겸 문명전 대제학 예문관 대
제학 변계량 존경하여 기록하다.

한명윤(韓明胤) 神道碑

宣武原從功臣 贈
嘉善大夫吏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五
衛都摠府副摠管行
通政大夫尙州牧使
兼防禦使韓公神道
碑銘并書

公諱明胤字誨叔姓
韓氏清州人上祖諱
蘭佐麗祖位至大匡
太尉諡威襄自是赫
世蟬聯至諱渥右政
丞上黨府院君諡思
肅生諱方信贊成事

西原君歷三世有諱
確佐翼功臣左議政
西原府院君諡襄節
有子諱致義佐理功
臣兵曹判書清陽君
諡章悼是爲公高祖

曾祖諱倬平海郡守
祖諱守貞司直性至
孝三年廬墓考諱頤
副護軍亦有至行妣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증(贈) 가선대부(嘉
善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겸 동지의금부사(兼
同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
(副摠管) 행(行) 통정대부(通政大夫) 상주목사
(尙州牧使) 겸 방어사(防禦使) 한공(韓公) 신도
비명(神道碑銘) 병서(并書)

공(公)의 휘(諱)는 명윤(明胤)이요 자(字)는 회숙
(誨叔)이며 성(姓)은 한씨(韓氏)로 청주인(淸州
人)이다. 상조(上祖)는 휘가 난(蘭)으로 고려 태
조를 도와 벼슬이 대광태위(大匡太尉)에 이르렀
고 시호(諡號)는 위양(威襄)이다. 이로부터 대대
로 명성을 떨침이 선련(蟬聯: 蟬連, 연속함)되어
휘 악(渥)에 이르러서는 우정승(右政丞)을 지내
고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사숙
(思肅)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가 휘 방신(方
信)을 낳으니 찬성사(贊成事)를 지내고

서원군(西原君)에 봉해졌으며 3대를 지내고 휘
확(確)은 좌익공신(佐翼功臣)으로 좌의정(左議政)
을 지내고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양절(襄節)이다. 그의 아들 휘 치의(致義)
는 좌리공신(佐理功臣)으로 병조판서(兵曹判書)
를 지냈고 청양군(淸陽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장도(章悼)이니 이분이 공의 고조(高祖)가 된다.

증조(曾祖)는 휘가 탁(倬)으로 평해군수를 지
냈고 조 휘 수정(守貞)은 사직(司直)을 지냈는
데, 성품이 지효하여 부모의 상을 당하여는 3
년동안 여묘살이를 하였으며 고의 휘는 이(頤)
로 부호군을 지냈고 역시 지행(至行)이 있었다.

安東金氏彰信校尉
元之女生三男長氷
胤內禁尉次匡胤同
中樞府事受

西班牙公其季也公
以嘉靖壬寅生自幼
有才智忠孝根天
隆慶戊辰中司馬兩
試用薦授延恩殿參
奉歷畿官萬曆庚寅
爲永同縣監

安民祛瘼一邑頌德
壬辰倭賊大學入寇
永之爲邑介於湖嶺
爲之喉舌故自嶺南
而向青山沃川茂州
之賊自清州錦山還
向嶺南者皆由於

此其衝突之勢愈不
可遏公誓邑衆勤完
聚防要害爲使守計
人莫不感泣而從之
及賊初犯境公率武
人李春起朴糾官人
孫忠鄭連等十餘人

迎賊力戰突刃爭死
却賊數十里外二日
後賊又大來乃見陷

비는 안동김씨로 창신교위를 지낸 원(元)의 딸로 3남을 낳았으니 장남은 영윤(永胤)으로 내금위에 있으며 차남은 광윤(匡胤)으로 동중추부사로 있으면서

서반록(西班牙)을 받았으며 공은 그 막내이다. 공은 가정(嘉靖) 임인년(1542)에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재지(才智)와 충효(忠孝)가 있었는데, 그 뿌리를 하늘에 두었다. 용경(隆慶) 무진년(1568)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양시(兩試)에 급제하여 천거로 연은전참봉을 배수하고 기관(畿官)을 역임하였다. 만력(萬曆) 경인년(1590) 영동현감이 되어

백성을 편안히 하고 민막(民瘼: 백성의 고통)을 제거하여 일읍에서 그 덕을 칭송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적이 대거 침입하여 들어왔는데 영동(永同)은 그 위치가 호남과 영남지방의 중간에 끼어 후설(喉舌: 목구멍과 혀)과 같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영남으로 부터 청산과 옥천 무주를 향하였다. 적이 청주, 금산으로 부터 돌아 영남으로 향한 것은 모두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 충돌의 기세가 더욱 저지하기 어렵게 되자 공은 읍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경계하고 부지런히 완취(完聚)하여 요해처(要害處)를 방비하였으며 죽음으로 사수할 것을 도모하니 사람들이 감읍하지 앓음이 없이 이를 따랐다. 적이 처음에 읍의 경계를 넘어 들어오자 공은 무인 이춘기(李春起)와 박규(朴糾) 및 관인(官人) 손충(孫忠), 정연(鄭連) 등 십여인을 거느리고

적을 맞아 힘써 싸웠는데, 갑작스럽게 칼날에 맞아 싸우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으나 적을 읍의 경계로부터 수십로 밖으로 물러나게 하였다. 이들

沒然賊亦畏忌不留
而退公還卽收聚兵
糧於灰燼之餘縣人
朴庭訓鄭谷等

亦傾財餉軍軍得不
散賊自黃澗由縣北
趨青山公簡率精銳
部分左右邀賊於龍
山街路血戰數日賊
徒大敗斬獲無數其
餘遁北之賊亦被

槍中矢無一全還者
因爲青山沃川人等
所獲自是賊不敢窺
縣幾浹旬至六月二
十二日嶺南諸屯之
賊合勢入寇充滿縣
界所過無不蕩殺

公乃泣而誓曰寧守
土而死不可越境而
去以身率衆奮不顧
死公夫人朴氏遇賊
自剄公不爲斂殯惟
與士卒候賊進退欲
一擊之而隣陳無

후 적이 또 크게 밀어닥쳐 곧바로 함몰(陷沒)시
킴에 적은 또 외기(畏忌)하여 머물지 못하고 물
러갔다. 공은 돌아온 즉시 회신지여(灰燼之餘:
불에 탄 나머지, 재)에서 병량(兵糧:軍糧)을 수
취(收聚)하고, 현인(縣人) 박정훈(朴庭訓)과 정곡
(鄭谷) 등은

또한 경군도름(傾困倒廩)하여 군사들을 먹임에
군사들이 흩어짐이 없었다. 황간으로부터 현북
을 거쳐 청산에 이르기까지 공은 간솔(簡率)하
게 정예의 군사를 좌우로 나누고 용산(龍山)의
거리에서 적을 요격(邀擊)함에 혈전(血戰)을 벌
리기를 수일동안이나 하여 적도(賊徒)를 크게
물리침에 참획(斬獲)한 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 나머지 잔당들이 북쪽으로 달아나 숨음에

또한 창으로 찌르고 화살을 쏘아 무사히 돌아간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은 청산(靑山)과 옥
천(沃川) 사람들이 참획(斬獲)한 바로 이때부터
왜적들은 거의 열흘동안 감히 고을을 엿보지 못
했다. 6월 22일에 이르러 영남지방에 진둔(陳屯)
하고 있던 왜적들이 힘을 합쳐 침구(侵寇)하여
가득차 있어 현(縣)의 경계를 지나는 사람들중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이에 공은 눈물을 흘리며 경계하여 말하기를
어찌 국토를 수호함에 죽음이 불가(不可)할 것
인가”라고 하고는 고을의 경계를 뛰어넘어 가
서 몸소 무리를 거느리고 분연(奮然)하는데 죽
음을 돌아보지 않았다. 공의 부인 박씨가 우연
히 적을 만나 스스로 칼로 목을 찢러 죽었음
에도 불구하고 공은 염빈(斂殯)하지 않고 오직
사졸들과 더불어 적의 진퇴(進退)를 염탐하여
일격에 물리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근의 진
둔(陳屯)에서

蚍蜉之援賊亦向錦山時再經虐焰兵殘糧絕計無所出公乃與習靜宋公邦祚及一縣士民相議以義爲名衆推公爲義兵將公手自書檄以

諭兩南湖西及本縣辭義慷慨有瞻望西關無淚可揮之語又榜示斬級除官 宣教募兵覓糧稍備軍容七月二十四日錦山賊太半還屯

縣境四出焚掠公百般拒戰斬首九級而賊無退意公與士卒謀畫異策出賊不意夜斫其營賊遂驚惑顛倒宵遁自是以後常用此規賊雖累至

不敢少留民得以安自清錦賊徒敗遁之後公領率官義諸軍竝力南向且戰且守

비부지원(蚍蜉之援)도 없었고 적 또한 금산(錦山)으로 향하였다. 이때 다시 재앙을 겪어 병사들이 쇠잔하였고 남아있는 군량(軍糧)이 거의 없어 계획을 도모할 수 없었다. 공은 곧바로 습정(習靜) 송공(宋公) 방조(邦祚) 및 일현(一縣)의 사민과 더불어 상의하여 의로써 명분을 삼으니 무리[士民]들이 공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공은 손수 백서하여 격문(檄文)을 내어 양남(兩南: 영남과 호남)과

호서(湖西: 충청도) 및 본현(本縣: 永同)을 유시함에 말의 뜻이 강개(慷慨)하여 침망(瞻望)함이 있어 서관(西關)들이 눈물을 흘림이 없이 가히 이를 지휘할 것을 말하였으며 또 참급(斬級)한 것을 방시(榜示)하였다. 관직을 제수하는 왕의 선교(宣敎)가 있음에 병사를 모집하고 군량(軍糧)을 먹득(覓得: 구해 얻음)하여 점차 군용(軍容)이 갖추었는데, 7월 24일 금산(錦山)에 있던 왜적 대반이 돌아와

현(縣)의 경계에 진둔(陳屯)하며 4번이나 나와 분략(焚掠)함에 공은 백반(百般)으로 거전(拒戰)하며 9급을 참수하였다. 그러나 적이 물러날 뜻이 없자 공은 사졸(士卒)들과 더불어 이책(異策)을 모획(謀劃)하고 나아가 적과 맞섬에 밤에 뜻하지 않게 그 진영(陣營)을 작각(斫却)하니 왜적이 드디어 경혹(驚惑)하고 전도(顛倒)되어 밤에 둔주(遁走)하였다. 이로부터 그 이후에는 항시 이 계책(計策)을 사용하여 적이 비록 여러차례 이르더라도

감히 소류(少留)하지 못하여 백성들은 편안함을 얻었다. 청주와 금산의 적도들이 패둔한 이후부터 공은 관군과 의병을 영솔하고 제군과 힘을 합쳐 남쪽으로 내려가 한편으로는 싸우고

晝攻夜擊俾不得恣
突賊遂少挫焉 朝
家嘉其忠勇超階

褒之兼帶助防將之
號公上疏請賞有軍
功人曰如臣不職非
有超乘之勇擊劍之
能也其僅收毫髮之
效者只賴士卒之勞
而褒居人先臣之

編裨南景誠朴夢說
皆爲縣長厥後趙勳
等十二人受賞有差
而朴欄等十數人執
銳奔走畏瘡被瘻以
成獲醜之功者迄未
聞受某職蒙某賞

力戰者反爲解體有
功者不能無冤咸掣
沙中之語孰爭綏下
之死然則當今竊先
急務不在軍功之均
賞乎臣日奉 宣教
則斬一級者除某官

한편으로는 수호(守護)하기도 하고, 낮과 밤으
로 공격하여 적으로 하여금 자포(恣暴)하거나
돌전(突戰)하지 못하게 하여 적은 마침내 그
기세가 약간 꺾이게 되었다. 조가에서는 그 충
성과 용맹함을 가상히 여겨 관계(官階)를 높혀
주고

이를 포상하며 조방장의 관직을 겸대하게 하자
공은 상소하여 군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내
려줄 것을 청하며 말하기를 “신(臣)과 같이 부
직(不職)한 사람은 초승(超乘)의 용기나 격검(擊
劍)의 능력도 있지 못합니다. 겨우 호발(毫髮)의
효적(效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사졸(士卒)들
의 노고를 믿었던데 있을 뿐으로 거인(居人)을
포상하소서. 선신(先臣)의

편비(編裨: 副將) 남경성(南景誠)과 박몽열(朴夢
說) 등은 모두 현장(縣長)이며 그 뒤의 조훈(趙
勳) 등 12인은 상을 차등있게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박란(朴欄) 등 십여인은 집행(執銳)함에
분주(奔走)하여 악창(惡瘡)으로 상처를 입었습니
다. 획득지공(獲醜之功)을 이룬 자가 필경 어떤
관직을 받았든가, 어떤 상을 받았든가 하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으며,

전쟁에서 힘써 싸운자가 도리어 공을 해체(解
體)당하는 것은 원죄(冤罪)가 없이는 가능한 것
이 아니니 사중지어(沙中之語)를 모두 없애 주
십시오. 누가 수하지사(綏下之死)를 간쟁(諫爭)
하리요. 그런즉 당금(當今: 지금)에 있어 가장
급선한 업무는 군공(軍功)의 균등한 수상(受賞)
에 있지 않겠습니까. 신(臣)이 일전에 선교(宣
教)를 받은 즉 1급(級)을 참(斬)한 사람은 어떤
관직에 제수하고

殺一賊者加某賞臣
卽榜示遍諭則志仕
路者爭戰望許通者
戮力欲免賤者敢死
變生旣久獻功亦多
而陞秩增資之命
只加於在仕出

身之徒許通免役之
賞不及於力戰賤微
之流可謂賞不均而
信亦失矣昔唐憲宗
不行捕賊之賞而地
不得盡復自古以來
未有不信其言而

能成大功者也今之
議者以爲重惜名器
王政之大當待事定
覈功行賞尙未晚也
臣竊以爲不然愛惜
名器在平時仰無功
杜倖路之意也

非謂今日當急亂獎
士卒之謂也臣愚以
爲速施賞典均及賤
微昭示大信各酬其
勞則信在言前事無

1적(賊)을 죽인 사람은 어떤 상을 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臣)이 이를 방시(榜示) 하여 두
루 유고(諭告)하였더니 벼슬에 뜻이 있는 사람
들이 다투어 전쟁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고, 허
통(許通)된 사람들은 이에 죽을 힘을 다하였습니다.
또 천출(賤出)을 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힘을 다한지 이미 오래로
헌공(獻功) 또한 많았으니 질(秩)을 올리고 증자
(增資)의 명을 내려 주십시오. 단지 벼슬을 더해
줌에 있어서

출신지도(出身之徒)에게만 역역(役役)을 면하는
상을 허통(許通)하고 힘써 싸운 천미지류(賤微
之流)에게 포상이 미치지 않는다면 가위 상에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고 신의(信義)
를 잃는 것입니다. 옛날 당(唐)나라 헌종(憲宗)
이 적(賊)을 포획한 상전(賞典)을 실행하지 않아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하지 못했으니 자고이래(自
古以來)로 그 말에 신의(信義)가 없으면,

능히 큰 공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의논하는 사람들이 그 명기(名器)를 매우 아까
와 하지만 왕정(王政)을 함에 있어서는 일을 기
다려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정하는 것으로 오히
려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니다. 신(臣)이 은연중에
생각건대 그렇지 못하고 명기(名器)만을 애석
(愛惜)하게 생각하고 평상시에는 공(功)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는 것은 행로지(倖路之意)를
막는 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오늘 급한 난리를 당하
여 사졸(士卒)을 표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
니다. 신(臣)이 우견(愚見)으로 속히 상전(賞典)
을 균등하게 시행하고 천미(賤微)한 사람들에게
큰 신의(信義)를 소시(昭示:明示)하여야 한다고

不濟矣又曰今之急務不止於軍功之賞

而國之失信又在於納粟之家蓋食足然後兵可以足兵足然後賊可以討則食足一事討賊急務而足食之方乃在於納粟之路廣

納粟之要莫先於激勵富室故宋臣朱熹之言曰今日之政最所急者莫大於速行賞典其在紹興之時尙以浙東之飢賞富室廣收糴爲急則今日兇賊之變

奚啻浙東之飢哉伏願 殿下速行賞職以廣納粟之路焉又陳本固邦寧之義曰兇賊之長驅三京之失守非兵革之不堅利也非

생각하는 것은 각각 그 노고에 보답하여 알에 있어 믿음을 가지게 하고 앞서의 일에서 성취하지 못함을 없애기 위함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금의 급한 일은 군공(軍功)의 상전(賞典)을 막지 않는 것이며

나라가 신의를 잃는다는 것은 또 납속지가(納粟之家)에 그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개 먹는 것이 풍족한 연후에야 병사들도 가히 사기를 올릴 수 있고 병사의 사기가 오른 연후에야 적(賊)들도 가히 토벌할 수 있는 것인 즉 먹는 것이 족하다는 것을 토벌하는 급한 일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며, 먹을 것을 풍족히 하는 방법은 납속(納粟)을 넓히는데 있으니 납속의 중요함을 깨우치는 것이 부실(副室)을 격려하는 것 보다 먼저 도모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송(宋)나라 신하 주희(朱熹)의 말에 이르기를 ‘지금의 정사(政事)를 행함에 있어 가장 급한 것은 상전(賞典)을 속히 시행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소흥(紹興)에 있을 때 오래도록 절동(浙東)의 기근이 있게 된 것은 부실(副室)을 포상하는데 여러 곳에서 곡식을 거두어 위급을 자초했기 때문이다’라고 한 즉 지금 흉적(凶賊)의 변란이

어찌 절동(浙東)의 기근과 다름이 있겠습니까. 앞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하루빨리 상전(賞典)과 그에 맞는 승직(陞職)을 속행(速行)하시고 납속(納粟)이 방법을 넓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또 진언(陳言)하기를 “진실로 나라를 편안히 하는 의리는 흉적(凶賊)의 장구(長驅)와 삼경(三京)의 실수(失守)에 관련하여 말하는 것이지 병혁(兵革)의 견리(堅利)하지 못함이나

城池之不險固也實由於民心之失和而天意之不助也目今經亂之地盡於焚掠幸全之邑疲於供役同歸板蕩相與流散死者盈於溝壑生者餓於道路

今雖待之如嬰兒盡其寘懷之誠保之如赤子救其入井之急尙不能安集於數年之內矣若使嚴課而徵之毒楚而役之則舉四方而

爲墟指一朝而可待言念及此不寒而慄宋臣陳垓之言曰民生命脉與國家命脉相維由此以言未有民生竭盡而國家支持者也臣願

御供及軍務外可蠲之供不急之務一切減損而殿下又宜深軫聖衷恒念民事施一令以安其生

성지(城池)의 험고(險固)하지 못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민심(民心)에게 화기를 잃는다는 것은 천의(天意)의 도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하여 지금 난리를 겪음에 모든 것이 분략(焚掠)되어 모든 고을에서 공역(供役)에 대한 고달픔이 판탕(板蕩)으로 귀착됨에 서로 더불어 유산(流產)하고 죽은 사람의 시체가 구학(溝壑)에 나 텅글고 살아있는 사람조차 길바닥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이를 보살핌에 영아(嬰兒)와 같이 하여 정성을 다하고, 이로 위로하는데 성각(誠懇: 성의)으로 하며, 이를 보전(保全)하는데 적자(赤子)와 같이 하여도 우물에 들어가는 급한 지경을 얻게 되는 것으로 수년동안 내에는 오히려 백성들을 안집(安集)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엄과(嚴課: 嚴刑)를 사용하여 이를 징벌하고 독한 회초리를 사용하여 부역시킨다면, 사방(四方)에서 들고 일어나

고을 전체가 하루 아침에 비게 [墟]될 것이니 가히 말을 기다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다면 곤궁함이나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송(宋)나라 신하 진해(陳垓)의 말에 의하면 '민생의 명맥과 국가의 명맥은 서로 유계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하자면 민생에게 갈진하는 것이 국가를 지지(支持)하는 것입니다. 신(臣)이 원하건대

어공(御供)과 군무(軍務) 이외의 견복(蠲復: 조세같은 것을 면제함, 蠲減, 蠲除)의 공수(供需)와 급하지 않은 무권(務勸)을 일체 감원(減損)하십시오. 전하께서는 또 마땅히 성충(聖衷)을 깊게 진념(軫念)하시고 항시 백성의 일에 마음을 두시어 한가지 명령을 내어 시행하시더라도 민생

舉一政俾遂其業又
下惻怛之教以示

憂勤之意然後可以
迓續天籙鞏基無疆
伏惟 殿下更加留
意焉癸巳除尙州牧
使兼防禦使亦以前
勤也公至則爲檄諭
倭將士以捲甲退

歸之意言甚嚴正懇
至十月十一日又與
賊戰遂死之年五十
二權厝本州 上因
書講下教于 筵席
曰韓明胤爲永同時
多有捕獲之功

特進官李恒福檢討
官鄭經世遂陳公夫
婦殉節其子未葬其
父母流離東西迫於
飢死之狀請減給料
糧 上曰當矣 特施
恤典乙未搢紳發文

使湖西守令出米布
護送旅櫬葬于龍仁
枝內面巨里洞申坐
之原先兆塋也乙巳

을 편안히 하는 것으로 정사(政事)를 베풀면 그
업(業)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측달(惻怛)의 교
서(敎書)를 내리시어

우근(憂勤)의 뜻을 보이신 연후에야 가히 천뢰
(天籙)를 위로함으로써 공기(鞏基)가 무강할 것
입니다. 옳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계사년(1593) 상
주목사를 제수하고 방어사를 겸하였으니 또한
앞서의 수고에 대한 포상이었다. 공이 도착한
즉 격문(檄文)으로 왜적의 장사(將士)를 권갑
(捲甲)하고 퇴귀(退歸)하라는 뜻으로 효유(曉諭)
하였는데,

말이 심엄(深嚴)하고 정간(正懇)하였다. 10월 11
일에 이르러 또 與적과 더불어 싸우다가 마침내
돌아가니 나이 52세였다. 본주에 임시로 매장하
였다. 왕께서 이를 가지고 낮에 강연(講演)하며
경연(經筵)의 자리에서 하교(下敎)하여 말하기를
“한명윤은 영동(永同)에 재임하고 있을 때 포획
의 공(功)이 많았다”라고 하였다.

이에 특진관 이항복과 검토관 정경세가 마침내
공(公)의 부부(夫婦)의 순절(殉節)과 그 아들이
그 부모를 장례하지 못하고 동서(東西)로 유리
하여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 장계를 올
려 요량(料糧)을 감급(減給)해 줄 것을 청하였
다. 이에 왕이 이르기를 ‘당연하다’라고 하며 특
별히 홀전(恤典)을 시행케 하였다. 을미년(1595)
진신(招紳)들이 발문(發文)하여

호서수령(湖西守令)으로 하여금 미포(米布)를 내
어 여촌(旅櫬: 棺)을 호송(護送)케하여 용인(龍
仁)의 지내면(枝內面) 거리동(巨里洞) 신좌(申
坐)의 언덕에 장례하니 선영(先塋)이었다. 을사년

錄宣武原從勳二等
後 贈嘉善大夫吏
曹參判兼

同知義禁府事五衛
都摠府副摠管又旌
其閭曰忠臣之門配

贈貞夫人羅州朴氏
忠義衛雲從之女繼
配 贈貞夫人密陽
朴氏縣監寅之女當
亂初

公謂夫人曰我當死
於此卿可遠避夫人
涕泣曰夫子在此妾
將何往同死而已自
是常把刀子不離於
手及敵大至衙奴林
石欲負而逃

夫人不許曰寧一死
不可將身近汝之背
遂自刎而死時實六
月二十二日也賊亦
駭顧嗟歎事 聞命
旌二男三女男珏縣
監女適監役

(1605) 선무원종(宣武原從)의 2등 훈(勳)에 책록
되고 후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판서(吏曹判
書) 겸(兼)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증직되었으
며 또 정려(旌閭)하기를 ‘충신지문(忠臣之門)’이
라고 하였다.

배는 정부인(貞夫人)에 증직된 나주박씨(羅州朴
氏)로 충의위(忠義衛)를 지낸 운종(雲從)의 딸이
며 계배(繼配)는 정부인에 증직된 밀양박씨(密
陽朴氏)로 현감(縣監) 인(寅)의 딸이다.

임진왜란을 당한 초반에

공이 부인에게 이르기를 “나는 마땅히 이곳에서
죽을 것이니 그대는 먼곳으로 가서 가히 피하도
록 하라”라고 하자 부인의 눈물을 흘리며 말하
기를 “지아비와 자식이 이곳에 있는데, 첩만이
장차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죽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고는 이때부터 항시 도
자를 쥐고 손에서 놓지 않았다. 왜적이 크게 이
러름에 있어 아노 임석(林石)이 부상을 당한 척
하고 도망하고자 하자

부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어찌 한 번
죽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장차 몸소 너의 배반
을 겪게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마침내 스스로 목
을 베어 죽었으니 이때는 실로 6월 22일 이었다.
적 또한 놀라 도리어 이를 차탄하였고 왕께서는
정려의 명령을 내렸다. 2남 3녀를 낳았는데, 현감
을 지낸 아들 각(珏)과 딸은 감역 이정양(李正
養)에게 출가한 딸은 전부인(前夫人)의 소생이
고, 봉사(奉事)를 지낸 아들 진(璉)과 진사(進士)
임위(林偉)에게 출가한 딸,

李正養前夫人出男
璉奉事女適進士林
偉次適縣令申濯後
夫人出也縣監男尙
儉察訪奉事男尙廉
宣敎郎曾玄以下不
盡錄嗚呼龍蛇之變
生靈

魚肉 國步播遷當
是時懷章握符之徒
舉皆鳥獸竄無敢向
賊發一矢公獨以忠
義堅守孤城感肅義
旅躬嬰鋒刃拔距搯
吭爲國保障卒乃

視死如歸是可以愧
王臣苟活之心而折
賊方生之氣掃蕩妖
氣國以再造者未必
非公一死之力也若
是者死有重於泰山
者也而朴夫人又

能殉節節義雙成一
何壯哉公樹立無讓
於趙重峰高霽峰諸
公而諸公則太史傳
之國人祀之竣秩美
諡所以崇報者靡不
畢舉惟公幾乎名

그리고 현령 신탁(申濯)에게 출가한 딸은 후분
인(後夫人)의 출생이다. 현감(縣監:璉)의 아들은
상겸(尙儉)으로 찰방(察訪)을 지냈고 봉사(奉事:
璉)의 아들은 상겸(尙廉)으로 선교랑(宣敎郎)을
지냈다. 증손과 현손(玄孫) 이하는 모두 기록하
지 않는다. 오호(嗚呼)라! 용사지변(龍蛇之變:龍
蛇중 龍은 賢者, 蛇는 凡夫를 지칭하는 것으로
임진왜란을 뜻함)에 생령(生靈:백성)들이

어육당하고 국보(國步:나라의 운명)가 파천(播
遷)당하였다. 이때 악부지도(握符之徒)를 품은 무
리들이 일어나 모두 조수(鳥獸) 조차도 몸을 숨
겨 적을 향하여 감히 한 발의 화살도 쏘지 못했
는데, 공(公)은 홀로 충의(忠義)로써 고성(孤城)을
굳건히 지키고 의병들을 감숙(感肅)케 하며 몸소
봉도(鋒刃)를 가지고 발거(拔距)하여 액항(搯吭)
함으로써 위국보장(爲國保障)하였다.

이에 마침내 시사여귀(視死如歸) 하였으니 이는
가히 왕신(王臣)의 구활지심(苟活之心)을 부끄럽
게 하고 적의 방생지기(方生之氣)을 꺾어버린
것으로 요기(妖氣)를 소탕(掃蕩)하여 나라를 재
조(再造)케한 것은 반드시 공(公)의 일사지력(一
死之力)이 아닌 것이 없었다. 이것은 죽음이 태
산(泰山)보다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박부인(朴夫人)

또한 능히 순절(殉節)로써 절의(節義)를 보여 들
이 짝이 되어 하나를 이루었으니 어찌 장하지
않겠는가. 공이 수립(樹立)한 공(功)은 중봉(重
峰) 조공(趙公)이나 나라의 법규, 기록에서 이를
전하고 나라 사람들이 이를 제사(祭祀)하는 사
람이다. 준질(竣秩)과 미시(美諡)로 숭보(崇報)받
는 자로 반드시 천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오직 공(公)뿐으로

湮沒而不稱惜哉凡忠臣烈士之成仁取義者即天理當然吾不得不然耳後人之知不知亦何與於公哉然習靜宋公尙公忠義終始同事故

清陰金文正公鷄谷張文忠公并載公事于習靜墓文尤庵先生亦跋公討賊時文字極致景慕之意仍惜後承之不振是皆足以不朽公又何

待後世之子雲堯夫耶公沒後二百餘年永同士人得一碣於沙場即公遺愛碑而萬曆辛丑所建也乃復立于古城之下顯晦固有數

造物者之意亦豈偶然也哉不佞素服公風節竊有執鞭之願今其後孫用然性教二人托以狀德之文詎可以筆朽辭哉第撰次如右公平日言行

이름이 인물(湮沒)한다면 애석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무릇 충신(忠臣)과 열사(烈士)가 인(仁)을 이루고 의(義)를 취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로 당연한 것으로 나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후인(後人)들의 알고 모르는 것 또한 공에게 어떠하겠는가. 습정(習靜) 송공(宋公)이 오래도록 공(公)의 충의(忠義)에 대한 처음과 끝을 같은 일로 여긴 까닭에

청음(淸陰) 김문정공(金尙憲)과 계곡(溪谷) 장문충공(張維)은 습정(習靜)의 묘비(墓碑)의 글을 쓰면서 공(公)의 일을 함께 병기(并記)하였으며 우암선생 역시 공(公)이 왜적을 토벌할 때의 일을 발문(跋文)함에 그 글이 경모(景慕)의 뜻에 극치를 이루어 거듭 애석하게 여겼다. 후에 이를 계승하여도 떨치지 못하지만, 모두 불후(不朽)한 것으로 족하다고 여길지어다. 공 또한 언제 후세의 운잉(雲仍)을 기다리겠는가.

공이 돌아간 2백여년후에 영동(永同)의 사인(士人)들이 모래벌에서 하나의 비석(碑石)을 얻었는데, 공의 유애비(遺愛碑)로 만력(萬曆) 신축년(1601)에 건립된 것이었다. 이에 옛성의 아래에 다시 세웠다. 현회(顯晦)라는 것은 진실로 유수(有數)와 같은 것으로

조물자(造物者)의 뜻 역시 어찌 우연이라고 하겠는가 불녕(不佞)은 소복으로 공(公)의 모습과 절의를 봄에 집편지원(執鞭之願)이 간절하였다. 지금에 이르러 그 후손 용연(用然)과 성교(性教) 2인이 편지로 덕업(德業)의 글을 부탁함에 어찌 가히 필묵(筆墨)을 써혀 사양하겠는가. 글을 지은 차례가 오른쪽과 같노라. 공의 평소에 언행(言行)은

宜多可書而不惟世
遠無徵大節如此其
餘當如范狀之麥舟
云

崇禎四千戌四月日
嘉善大夫吏曹參判
成均館祭酒 經筵
館 侍講院贊善 西
河任憲晦撰

歲丁丑春公之嗣孫
德與宗有司鴻履禹
教堪錫合族同議略
具儀物伐石竣托銘
于錫景何足以當重
大金石文在旁孫之
列故不敢固辭而銘
之曰

吾韓得姓厥由其久

太尉功德昭著千秋

子孫承業世濟其美

文德武功卿相累累

入于本朝家聲顯揚

公宰永同賊入四疆

많은 부분이 서책(書冊)과 마땅하였으나 세월이
너무 흘러 대절을 징험할 수 없음은 이와 같노라.
그 나머지는 당연히 범장(范狀)의 맥주(麥舟)와
같노라.

숭정(崇禎) 4 임술(壬戌: 철종 13, 1862) 4월 일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성균
관제주(成均館祭酒) 경연관(經筵館) 시강원찬
선(侍講院撰善) 서하(西河) 임헌회(任憲晦)는
글을 짓다.

정축년(丁丑年: 1937) 봄에 공(公)의 사손(嗣孫:
후손) 상덕(尙德)이 종족 유사(有司) 홍이(鴻履),
우교(禹敎), 기석(堪錫) 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상의하여 간략히 의물(儀物)을 갖추고 들을 갖
추어 일을 마치며 경석(景錫)에게 명(銘)을 부탁
하였다. 이에 경석(景錫)이 어찌 족히 중대(重
大)한 금석(金石)의 문장을 감당하겠는가. 그러
나 방손(旁孫)의 반열(班列)에 있으므로 감히 고
사(固辭)하지 못하고 명(銘)하노라.

우리 한씨(韓氏)가 성(姓)을 얻은 것은 그 유래
가 오래되어(吾韓得姓厥由其久)

태위공(太尉公: 鄭蘭)의 공덕(功德) 천추에 소저
(昭著: 환희 나타남)되었다네(太尉功德昭著千秋)

자손들은 그 업(業)을 계승하여 대대로 그 아름
다움 이루고(文德武功卿相累累)

문덕과 무공으로 누누히 경상(卿相)을 배출하여
본조(本朝: 조선)에 들어와 가문의 명성 현양(顯
揚)하였다네(入于本朝家聲顯揚)

공(公)은 영동(永同)의 현감(縣監)있을 때 적이
사방으로 들어오자(公宰永同賊入四疆)

州縣奔竄土崩瓦解	주현(州縣)이 도망하고 토붕와해(土崩瓦解)되었네(州縣奔竄土崩瓦解)
公奮義旅誓衆淚灑	공은 분연히 의려(義旅:義兵)을 일으켜 눈물을 흘리며 무리에게 맹서(盟誓)하고(公奮義旅誓衆淚灑)
斬將刈旗賊氣乃挫	적장(賊將)을 참살하고 깃발을 빼앗아 왜적의 기운을 꺾어 버리니(斬將刈旗賊氣乃挫)
受賞于朝推功幕佐	조정에서는 이를 포상(褒賞)하고 그 공(功)을 올려 공신훈(工臣勳)을 내려주었네(受賞于朝推功幕佐)
婦死于節復何堂堂	부인 역시 절개로서 죽으니 어찌 당당(堂堂)하지 않을 손가(婦死于節復何堂堂)
一心爲國未暇成喪	마음은 오로지 나라를 위하는데 있어 장례(葬禮)할 겨를조차 없었다네(一心爲國未暇成喪)
陞任尙州泣血討賊	벼슬은 올라 상주(尙州)에 있으면서 피눈물로 적을 물리치는데(陞任尙州泣血討賊)
援兵不到天日又昃	구원병이 도착하지 않고 천일(天日:태양) 또한 기울었고(援兵不到天日又昃)
矢盡刀折視死如歸	화살도 다하고 칼 역시 꺾였어도 시사여귀(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 있으니(矢盡刀折視死如歸)
湖西無警公之餘威	호서(湖西)에 변고가 없음은 공(公)의 위덕(威德) 때문이었네(湖西無警公之餘威)
重峰霽峰錦山立節	중봉(重峰)과 재봉(霽峰)은 금산(錦山)의 사당에 절개로써 모셔졌고(重峰霽峰錦山立節)
公能如之無愧烈烈	공 또한 함께 입절(立節)됨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열렬하였네(公能如之無愧烈烈)
墓道寂寞曠憾百年	묘도(墓道)가 적막하여 백여년을 비어 있었는데(墓道寂寞曠憾百年)
今茲立石有光舊阡	오늘에 이르러 비석(碑石)을 세워 구천(舊阡)에 빛을 발함에(今茲立石有光舊阡)
旁孫修辭辭不盡意	방손(方孫)의 수사(修辭)함에 그 말이 공의 뜻에 모두 이르지 못하니(方孫修辭辭不盡意)

嗚呼後人更加拾遺

오호(嗚呼)라! 후인(後人)이 다시 습유(拾遺)하리라(嗚呼後人更加拾遺)

檀君紀元四千二百七十年丁丑九月

단군기원(檀君紀元) 4270년 정축(丁丑:1937) 9월 세우다

日立

通政大夫 奎章閣
原任直閣侍講院侍
讀官青松沈周澤書
崇錄大夫前判敦寧
院事海平尹用求篆

통정대부(通政大夫) 규장각원임직각(奎章閣原任直閣) 시강원시독관(侍講院侍讀官) 청송(靑松) 심주택(沈周澤)은 글을 쓰고

崇錄大夫 전(前)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는 전액(篆額)을 하다.

한의증(韓義增) 墓碑

通政大夫副護軍清
州韓公神道碑

公諱義增字義成世
世簪纓後裔肅宗二
十一年甲戌生於漢
城府英祖四十一年
甲申逝去享年七十
有一始祖諱蘭高麗
太祖統合三韓開國
壁上功臣威襄公二
十五代孫中始祖諱
確西原府院君襄節
公配府夫人南陽洪
氏十二代孫崇錄大
夫清原尉諱景祿配
中宗大王女懿惠公
主之七代孫也

公二十五歲肅宗戊
戌武科應試及第出
仕官至通政大夫副
護軍天稟寬厚清廉
重於義人皆謂小關
羽也當時以老少東
西黨爭政慾亂舞骨
肉相殘鮮血滿朝豈
不可嘆哉故無青雲
之志謝別帝庭漂然

통정대부(通政大夫) 부호군(副護軍) 청주(淸州)
한공(韓公) 신도비(神道碑)

공(公)의 휘(諱)는 의증(義增)이고 자(字)는 의성(義成)으로 세세 잠영(簪纓: 官員이 쓰는 冠에 꽃는 비녀와 갓끈의 뜻으로 高官을 의미함)의 후예(後裔)이다. 숙종(肅宗) 21년 갑술년(甲戌年)에 한성부(漢城府)에서 태어나 영조(英祖) 41년 갑신년(甲申年) 서거(逝去)하였으니 향년(享年) 71세이다. 시조(始祖) 휘 란(蘭)은 고려(高麗) 태조(太祖)의 후삼국통일시에 삼한개국벽상공신(三韓開國壁上功臣) 위양공(威襄公)이고 그 25대손인 중시조(中始祖) 휘 확(確)은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양절공(襄節公)이며 그 배(配)는 부부인(府夫人)으로 남양홍씨(南陽洪氏)의 12대손 승록대부(崇錄大夫) 청원위(淸原尉) 휘 경록(景祿)의 딸인데, 그 부인은 중종대왕(中宗大王)의 딸인 의혜공주(懿惠公主)의 7대손이다.

공(公)은 25세 때인 숙종 무술년(1718)에 무과에 응시하여 급제하였고 벼슬에 나아가 관직은 통정대부 부호군(副護軍)에 이르렀다. 천품은 관후하고 청렴하였으며 의(義)를 중요하게 여겨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를 작은 관우(關羽)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노론(老論)과 소론(少論),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나뉘어 당쟁(黨爭)과 정변(政變)이 난무하고 골육상잔하여 선혈(鮮血)이 조정(朝廷)에 가득차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청운의 뜻을 버리고 조정(朝廷)과 사별하여 표연(漂然)히 용인현의 소조(小祖)

龍仁縣小祖峴歸去
來與山鳥野鷺自慰
隱居然而憂國之懷
綿綿無絕也

墳墓上無石物者何
也宅地形局金鷄抱
卵以石物之重壓而
母鷄卵子不得孵化
是以後孫不榮云故
無石物而至於今也
膝下有三男季子順
鉉嘉善大夫知中樞
府事墓在西崗丙坐
九代孫 奎哲 謹書
八代孫 星熙 建立

가 모셔져 있는 언덕으로 돌아와 산새 [山鳥], 들오리 [野鷺]들과 더불어 자위(自慰)하며 은거(隱居)하였다. 그러나 우국(憂國)의 심정이 면면히 내려와 끊이지 않았다.

분묘(墳墓)에 석물(石物)이 없는 것은 어찌하여야 할 것인가. 택지(宅地)의 형국(形局)은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으로 석물로써 중압(重壓)해야 할 것이나 계란의 형국을 없애 부화(孵化)를 얻지 못하여 이에 후손들이 번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석물이 없이 지금에 이르렀다. 슬하(膝下)에 3남을 두었는데, 계자(季子: 막내) 순현(順鉉)은 가선대부(嘉善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냈다. 묘(墓)는 서쪽 등성이 병좌(丙坐: 남동방향)에 있다.

9대선(代孫) 규철(奎哲)은 삼가 글을 쓰고
8대손 성희(星熙)는 비(碑)를 세우다.

한현모(韓顯謨) 墓碣

有明朝鮮國嘉善大夫
司憲府大司憲韓
公墓碣銘并書

崇錄大夫行刑曹判
書兼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知成
均館事同知經筵春
秋館事 世孫左副
賓客致仕奉 朝賀
南有容撰

孫男大匡輔國崇錄
大夫判中樞府事用
龜謹書

大匡輔國崇錄大夫
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原任 奎章閣提學
金載瓚 篆

公諱顯謨字晦而韓
氏之籍清州者皆祖
高麗太尉蘭代有聞
人入 國朝左議政
西原府院君襄節公
諱確佐 世祖策元
功數世而至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가선대부(嘉善大夫) 사
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한공(韓公) 묘갈명(墓
碣銘) 병서(并書)

승록대부(崇錄大夫) 행(行) 형조판서(刑曹判書)
겸(兼)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
학(藝文館大提學)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동지
경연(同知經筵) 춘추관사(春秋館事) 세손좌부빈
객(世孫左副賓客) 치사(치사致仕) 봉조하(奉朝
賀) 남유용(南有容)은 글을 짓고

손남 대광보국승록대부 판중추부사 용구 삼가
쓰고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錄大夫) 의정부
(議政府) 우의정(右議政) 겸(兼) 영경연사(領經
筵事)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원임(原任) 규장
각제학(奎章閣提學) 김재찬(金載瓚)은 전액(篆
額)을 하다.

공의 휘는 현모(顯謨)이고 자(字)는 회이(晦而)
이다. 한씨의 적은 청주(淸州)로 개조(皆祖: 始
祖)는 고려시대에 태위(太尉)를 지낸 난(蘭)이
다. 대대로 문인(聞人)이 있어 국조(國朝: 朝
鮮)에 들어와서 좌의정(左議政) 서원부원군(西
原府院君) 양절공(襄節公) 휘 확(確)은 세조(世
祖)를 도운 공(功)으로 공신(功臣)에 책훈(策
勳)되었으며

右議政清平府院君
忠靖公諱應仁受
宣廟顧命爲中興名
臣生諱德及同知敦
寧府事清寧君諱壽
遠尙州牧使 贈吏
曹參判以沙溪

金先生外孫名行在
儒林間曾祖諱聖佑
吏曹參判以清論爲
朝廷重後 贈吏曹
判書祖諱配義漢城
府右尹 贈左贊成
考諱師範成均進士

以公貴初 贈吏曹
參判後以公弟議政
公加 贈領議政妣
贈貞敬夫人杞溪俞
氏正郎命興之女市
南先生棨之孫也公
以 肅宗

十九年癸酉生自少
以遠器稱於長者游
庠序文譽籍甚 景
宗癸卯擢增廣丙科
時群小主分館始置
公槐院旋改國子仍
自劾曰但知其

우의정 청평부원군 충정공(忠靖公) 휘 응인(應仁)에 이르러서는 선묘(宣廟)의 고명(顧命)을 받아 중흥(中興)의 명신(名臣)이 되었다. 이분이 휘 덕급(德及)을 낳으니 동지돈녕부사를 지내고 청녕군(淸寧君)에 봉해졌고 휘 수원(壽遠)은 상주목사를 지내고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贈職)되었다. 이분은 사계(沙溪)

김선생(金長生)의 외손으로 그 명행(名行)을 유림(儒林)에 떨쳤다. 증조(曾祖)의 휘(諱)는 성우(聖佑)로 이조참판을 지냈는데, 청론(淸論)으로 조정(朝廷)에서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조(祖)의 휘는 배의(配義)로 한성부우윤을 지내고 좌찬성에 증직되었고 고의 휘는 사범(師範)으로 성균진사가 되었는데

공(公: 韓顯暮)이 귀해진 것으로 처음에는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증직되었고 후에 공의 동생 의정공(議政公: 韓翼謨)에 의해 영의정(領議政)의 증직이 더해졌다. 비는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증직된 기계유씨(杞溪俞氏)로 정랑(正郎) 명흥(命興)의 딸이니 시남선생(市南先生) 계(棨)의 손녀이다. 공(公)은 숙종(肅宗)

19년 계유년(1693)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원기로써 칭찬을 들었으며 상서(庠序: 학교)에 들어가서는 문예를 적심하였다. 경종 계묘년(1723) 증광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이때 군소배들이 분관(分館)을 시치(始置)할 것을 주장하여 공은 괴원에 잠시 나가 있으면서 국자(國子)를 바로 잡았다. 이에 스스로 핵장(劾狀)하여 말하기를 “단지 그

妙年名閥不知身有重犯盖公爲諸生嘗論賊臣耆輝此其所謂重犯也一時傳笑之今 上乙巳薦入藝文館爲檢閱以善記事名陞待教

奉教侍講院兼說書 丁未用大臣 筵白陞授宗簿寺主簿盖以堂錄將行也尋選爲弘文館副校理知製 教公辭不拜屢除不一拜公常於進退獨見其幾華顯非其志也未幾

時事果大變黜公爲洪川縣監時光佐爲首相公耻於歷辭亟投狀得遞携家入湖中戊申春

聞逆寇犯 闕奔問至京拜校理是時逆招多引一邊巨族而按獄者率稱 旨勿問公上疏言人君雖

묘년(妙年)에 명벌(名閥)을 알고 자신에게 중범(重犯: 큰 범죄)이 있음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대개 공이 제생(諸生)을 위하여 일찍이 적신(賊臣)의 구요(耆輝)를 논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중범(重犯)이라 하여 한때 이것이 웃음거리로 전해졌다. 금상(英祖) 을사년(1725) 천거되어 예문관에 들어가 검열이 되었는데 기사(記事)를 옹계 기록한 공(功)으로 대교(待教)에 승진하여

봉교, 시강원 겸설서를 역임하였다. 정미년(1723) 대신(大臣)이 경연(經筵)에서 쓸 것을 아뢰어 승진하여 종부시주부를 제수하였는데 대개 당록(堂錄)으로 그 행동을 권장한 것이다. 얼마후에 선발되어 홍문관부교리 지제교가 되었으나 공은 사양하여 배수하지 않았고 여러차례에 걸쳐 또 제수가 있었으나 한 번도 배수함이 없었으니 공은 항상 진퇴에 있어 홀로 그 조짐을 살피고 화현함을 그 뜻으로 삼지 않았다.

얼마후에 시사가 과연 크게 변하여 출척(黜陟)함에 공은 홍천현감(洪川縣監)이 되었는데, 이때 광좌(光佐: 李光佐)가 수상(首相)이 되어 공은 관직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사양하여 급히 장계를 올리고 체직(遞職)을 얻어 휴가(携家)하여 호중(湖中)으로 내려갔다. 무신년(1728) 봄에

역도(逆徒)가 침입하여 궁궐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분망(奔忙)하게 한양으로 돌아와 문안하고 교리를 배수하였다. 이때 역도들이 일변(一邊)의 거족(巨族)들을 끌어 당겨 부르고 안옥(按獄)하는 자들이 경망스럽게 왕의 뜻을 칭하며

聞逆寇犯 闕奔問
至京拜校理是時逆
招多引一邊巨族而
按獄者率稱 旨勿
問公上疏言人君雖
小政令不可以私意
累之孰嚴於治逆而

猶事姑息一切以婦
人之仁乎臣見禍亂
不旋踵而復起矣不
納時相有伸白賊臣
眞儒者公又言大臣
謂眞儒瘡於黨習耳
長處自難掩其

論長處逆儉之獄泣
請正刑也夫逆儉之
情節未究徑先伏法
至今爲臣子痛恨曾
是以爲長處乎一鏡
爲逆專在教文中凶
言而其時一

諫臣論之輒爲眞儒
斥逐其和附於鏡明
甚今當凶言益肆誅

역도(逆徒)가 침입하여 궁궐에 들어왔다는 소
식을 듣고 분망(奔忙)하게 한양으로 돌아와 문
안하고 교리를 배수하였다. 이때 역도들이 일
변(一邊)의 거족(巨族)들을 끌어 당겨 부르고
안옥(按獄)하는 자들이 경망스럽게 왕의 뜻을
문초하지 않다 공이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인군(人君)은 비록 하찮은 정령(政令)이라도
사사로운 뜻으로 이를 다스리는 것은 옳지 않
습니다. 누차에 걸쳐 그렇게 하면 누가 역도를
다스리는 것을 엄하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고
식(姑息)을 섬겨 일체를 부인지인(夫人之仁)으
로 하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화란(禍亂)이 선종(旋踵)하지 않는
다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하고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때 재상(宰相)이 적신(賊臣)
진유(眞儒: 李眞儒)를 곧게 아뢰는 사람이 있음
에 공(公)이 또 말하기를 “대신(大臣)이 진유(眞
儒)를 일컬어 당습(黨習)에 있어 고질일 뿐입니
다. 장처(長處: 가장 잘하는 점)는 스스로의 어
려움에서

그 논의를 가리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나온 것
은 역검지옥(逆儉之獄)입니다. 눈물로 청하건
대 형벌을 바르게 하소서. 무릇 역검지정절(逆
儉之情節)이 구경(究竟: 극진함)하지 않으면 먼
저 복법(伏法)하소서. 지금 신하가 되어 통한
(痛恨)하오니 이에 이것으로 장처(長處)를 삼
으소서. 일경(一鏡: 金一鏡)이 역전(逆轉)시켜
교문(教文)중에 흉언(凶言)이 있다고 하고 일
시에

간신(諫臣)들이 이를 논하여 갑자기 진유(眞儒)
가 척축(斥逐)당하고 김일경(金一鏡)의 무리에게
화부(和附)함이 매우 심하니 지금 만연하고 있는

鏡黨宜益嚴而大臣
之愛護益力臣莫曉
其心也不省己酉又
入館職會李亮臣

吳瑗等言事被罪公
言既授以言責重譴
以隨之是 殿下之
置三司非欲聞直言
也直驅以納諸陷阱
耳 上下嚴旨而不
之罪也庚戌

臺臣請逆宗垓圻極
律未蒙 允公上疏曰
殿下獨不鑑戊申之
事乎外而兵勦矣內
而孥戮矣梟獍餘孽
若可以小戢矣曾未
數歲逆謨逾

肆至放火挾七而極
矣究厥所由正坐根
柢未盡除耳譬之病
腫之發於外者痛痒
雖切易以爲療惟伏
於臟腑之內者鍼砭
之所不及將不

흉언(凶言)이 더욱 방자해집니다. 경당(鏡黨)을 주벌(誅罰)하고 마땅히 더욱 엄하게 하시고 대신(大臣)을 애호(愛護)하는데 더욱 힘쓰십시오. 신(臣)은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유년(1729) 또 관직(館職)에 들어가 이양신(李亮臣)

오원(吳瑗) 등과 만나서 시사(時事)를 논하다가 죄를 입었는데, 공의 말은 이미 언책(言責)으로써 중견(重譴)을 받아 이를 따른 것으로 이것은 전하(殿下)의 조치였는데, 삼사(三司)는 그 직언(直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직접 모든 함정(陷阱)에 빠뜨리려고 할 뿐이었다. 이에 왕께서 엄지(嚴旨)를 내려 죄로 삼지 않게 하였다. 경술년(庚戌年: 영조 6, 1730)

대신(大臣)이 역종(逆宗) 해(垓)와 기(圻)를 극율(極律)로 처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의 윤허가 없자 공은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전하(殿下)께서는 유독 무신지사(戊申之事)를 감계(鑑戒: 본보기)하지 않으십니까. 밖으로는 병초(兵勦)가 있었고 안으로는 노육(孥戮)이 있었습니다. 효경(梟獍)과 여열(餘孽)이 약간 그친다고 했으나 몇년이 지나지 않아 역모(逆謀)는 더욱 방자하여쳐서

방화(放火)가 두루 일어나기가 7번으로 극에 달했습니다. 그 까닭을 궁구하시려면 바르게 앓아 근저(根柢)중에 미진(未盡)한 것을 제거할 뿐으로 이를 비유한다면, 외부에서 병의 종기(腫氣)가 성한 것은 통양(痛痒)을 베어 비록 치료되기가 쉽지만, 옳드려 생각건대 장부(臟腑: 五臟과 六腑)의 안에 있는 것은 침핍(鍼砭)하는 바가 미치지 못하니

知潰決於何處治之
必猛絕其根核然後
無後患 殿下何不
念及於此而徒拘不
忍之小仁強拂同仇
之群情乎翌日以次
律準下時群小

用事既久蕩平之論
大行復定策二大臣
爵謚以羈縻一邊仍
二大臣罪籍以慰籍
一邊公又上疏曰爲
忠爲罪四臣一也忠
當盡復罪當盡

削但不當二之也盖
嗣服之初 聖旨惻
怛所以處四臣者灑
然光明則彼斬斬於
四臣者反懷無聊之
心強起此論佯若以
去就爭之而

聖志不能無動欲盡
復之則慮在朝之或
去欲盡削之則慮在
野之不來終於半
復半削苟爲群下之
地而四臣之忠與罪
在所不論臣恐

어느 곳에서 궤결(潰決)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엄한 것으로 그 근
핵(根核)을 끊어 내셔야 하며 그런 연후에야
후환(後患)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殿下)께서는
어찌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리들이
차마하지 못할 소인(小仁)을 꺼리끼어 동구(同
仇)의 군정(群情)힘써 닦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다음날 법의 순서에 따라 아래를 바로잡음에 이
때 군소배(群小輩)들이

용사(用事)한지 이미 오래되어 탕평(蕩平)의 논
의(論議)가 크게 행하여져 2대신(大臣)의 죄적
(罪籍)에 기대고 한쪽에서는 위적(慰籍)에 기미
(羈縻: 매임)하였다. 공이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충(忠)이 되고 죄(罪)가 되는 것은 4신(臣)이
모두 같습니다. 충(忠)에는 보상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죄(罪)에는 삭직(削職)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단지 2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부당(不當)합
니다. 대대개 사복지초(嗣服之初)에 성지(聖旨)
가 측달(惻怛: 몹시 슬퍼함)한 까닭은 4신(臣)이
처한 것이 광명(光明)을 쇄연(灑然)케 한 것인
즉 저들이 4신(臣)에게 근근(斬斬)한 것은 도리
어 무런지심(無聊之心)을 품고 강제로 이 논의
(論議)를 일으킴에 양약(佯若)하여 거취(去就)로
써 이를 다투니

성지(聖志)가 능히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
다. 이를 진복(盡復)하고자 한 즉 걱정이 조정
(朝廷)에 있고 혹 이를 진삭(盡削)하고자 한 즉
걱정이 재야(在野)에 있게 되니 불래(不來)하여
마침내는 반은 진복(盡復)하고 반은 진삭(盡削)
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군하(群下)의 입장을
위해서 4신(臣)의 충(忠)과 죄(罪)를 논의하지
마십시오.

聖王皇極之政無此法也 嚴批還給辛亥奉命廉問關東還以館職乞一小縣以養母得矜川縣監踰年以校理八儒臣有以信被責者

公爭之仍曰通者朝廷之上氣色一變內未必水火同情酸醎齊味而外爲雍容和泰之衆雖有瑕累之可論嫌存伐異互相拱默官師乏

箴規之風當路無忌憚之心悠悠之中士氣日消世道日喪是豈國家福也哉尋以屢逋召特補鏡城判官會值都政大臣以銓郎乏人奏寢之

遂拜吏曹佐郎族移館職以中庸言敬一段陳勉累百言末又乞外 上嘉納其言

신이 생각하기로는 성왕(聖王)의 황극(皇極)의 정치는 이 법박에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엄한 비답(批答)이 있었다. 환급(還給)되어 신해년(1731) 명령을 받들어 관동을 염문(廉問)하고 돌아와 관직(館職)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소현(小縣)의 관직을 빌어 금천현감을 제수하였다. 해를 넘겨 교리(校理)로 있으면서 8 유신(儒臣)이 언사(言辭)로써 책임을 입게 되자

고은 이를 간쟁(諫爭)하며 거듭 말하기를 “말이 통하는 것은 조정(朝廷)에서 숭상해야 할 것으로 기색(氣色)이 일변(一邊)하여 안으로는 반드시 수화(水火)에 동정(同情)하고 산함(酸醎)이 맛으로 가지런해지지 못하면서 밖으로는 옹용(雍容)하고 화태(和泰)한 무리가 있습니다. 비록 하루(瑕累)의 가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혐존(嫌存)을 논의하여 괴이한 것을 배어버리고 서로간에 공묵(拱默: 두손을 마주잡음)하여 본보기로 잠규지풍(箴規之風)을 삼아 당로(當路)들이 기탄(忌憚)의 마음을 없앤다면 유유(悠悠)한 가운데 사기(士氣)가 날로 쇠잔할 것이며 세도(世道)가 날로 상실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국가의 복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얼마후 후차례의 관직이 내려졌으나 모두 사양하였고 특별히 불러 경성판관에 보임하였는데, 회소(會所)에서 도정(道政) 대신(大臣)이 만나 전랑(銓郎)으로 하여금 사람을 펴하할 것을 주청함에 관직에서 물러났다.

마침내 이조좌랑을 배수하였고 얼마되지 않아 관직으로 옮겨 『중용(中庸)』의 말을 공경하고 한층 더 수차례에 걸쳐 백언(百言)으로 진면(陳勉)하였으며 또 외직으로 나아갈 것을 청하여

而不許外勳臣朴文秀每奏事雜以俚辭諛諛

上亦俳優畜之公駁之曰文秀外托狂戇內懷譎詐殊無敬畏之心使朝廷有一中屠嘉者敢如是耶南中大饑人相食郡邑懼罪不以聞公言人

而相食變孰大焉而君上不知此豈古人日聞災異之意乎宜著勿罷邑宰之令有災輒聞以爲上下警省之道甲寅出令龍仁縣以

陵幸時調役偏重驟爭於監司而不能得棄官歸乙卯世祖影幘成而公用大祝陞通政資除兵曹參知冬拜關東觀察使黜陟公而關節息一

왕께서 그 말은 가납(嘉納)하였으나 외직으로 나아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훈신(勳臣) 박문수(朴文秀)가 매번 상주(上奏)하는 일에 이사(俚辭)과 회학(詼謔)이 섞여 있고

왕께서 배우(俳優: 광대)를 보고 이를 따라함에 공이 이를 논박(論駁)하여 말하기를 “문수(文秀)는 겉으로 광당(狂戇)에 의지하고 속으로는 예사(譎詐)를 품고 있으며 특히 경외지심(敬畏之心)이 없어 조정(朝廷)이 1건의 문서를 보내는 것을 보고 좋아하니 시자이라도 어찌 감히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남쪽지방에서 큰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 먹고 있으나 군읍(郡邑)들은 죄를 두려워하여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를 듣고 공이 말하기를

사람이 서로를 잡아 먹는 변(變)처럼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군상(君上)으로서 이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고인(古人)이 매일 재이지의(災異之意)를 듣고 물을 것인가. 마땅히 드러내어 널리 알리되 군(郡邑)의 수령들은 파면하지 말고 재이(災異)가 있으면 반드시 듣고 상하(上下)의 경성지도(警省之道)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갑인년(1734) 외직으로 나아가 용인현령(龍仁縣令)을 배수하였는데,

능행차때에 조역(調役)이 편중(偏重)되어 수차례에 걸쳐 감사(監司)에게 쟁송(爭訟)하였으나 뜻을 얻지 못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을묘년(1735) 세조(世祖)의 영정(影幘)이 완성되자 공이 크게 축하를 하였는데, 이로써 승계(陞階)하여 통정계에 오르고 병조참지를 제수하였으며, 겨울에 관동관찰사를 배임하였는데, 공을 출척(黜陟)하여 관동(關東)이 장엄하고 정숙함으로써

路以肅公自爲御史時稔知黃腸之弊有犯者輒不饒將作木商依宮掖勢濫斫至累百板公并屬之公都下貴要囑簡盈篋而故不動商人

又圖出備局關稱國用以恐之公益知其詐回帖峽防大臣以體統言于上初命拿處後得罷始公之辭朝也大臣申托其姻親爲通判者

公察其無善狀輒置中考至是人知其所坐戊午敍拜承政院同副承旨旋移成均館大司成己未由承旨出尹廣州民戶凋弊徭役煩重

公爲之損廩料理雇民以應公役永爲後規踰歲解歸辛酉丁贊成公憂服闋參議兵禮甲子又自右承旨出爲寧邊府使例兼討捕使每治

일로(一路)가 편하게 되었다. 공은 어사(御史)로 있을 때부터 황장지폐(黃腸之弊)를 익히 알고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득 굽히지 아니하였고 장차 목적(木商)을 세워 궁액(宮掖)에 의지하여 세력을 남용하는 것을 물리친 것이 수백판(數百板)에 이르렀는데, 공은 이를 아울러 귀속시켰다. 공의 도하(都下)에는 귀요(貴要)가 부탁하는 편지가 상자에 가득했으나 근본을 움직이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또 비국(備局)에 들어가기를 도모하여 국용(國用)을 칭하며 이를 공갈(恐喝)하였는데, 공은 더욱 그 속임을 알고 회첩(回帖)을 엄하게 하여 막았다. 이에 대신(大臣)들이 체통으로 왕에게 아뢰어 장처(拿處)를 명하여 죄를 얻었으니 비로소 공의 사직(辭職)이 있었다. 대신(大臣)들은 그 인친에 신탁(申托)하여 통판(通判)을 삼음에

공은 그 선하지 못함을 살피고 장문(狀文)을 갑자기 가운데 두고 꼼꼼히 생각하니 이에 이르러 사람들은 그 앓아 있는 바를 알 수 있었다. 무오년(1738)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를 서배(敍拜)하였다가 얼마후 성균관대사성으로 옮겼으며 기미년(1739) 승지(承旨)로 있다가 광주부윤으로 나아갔는데, 민호(民戶)가 조폐(凋弊)하고 요역(徭役)이 번중(煩重)하여

공은 늬료(廩料)를 줄이고 고치(雇直)을 쓰니 백성들이 공역에 응하여 영원히 후규(後規)로 삼았고 해를 넘기고 해직되어 돌아왔다. 신유년(1741) 찬성공의 상을 당하여 상복을 벗은 후 병조참의와 예조참의를 지냈으며 갑자년(1744)에 또 우승지(右承旨)로 있다가 영변부사로 나아가 예(例)에 따라 토포사(討捕使)를 겸하였다.

盜輒蹶然曰彼迫於
饑寒耳不原其情輕
施惡刑使不得齒于
人類雖欲遷善其道
末由吾不忍爲也用
是全活甚衆盜竊亦
熄

翌年擢拜嘉善大夫
江華府留守府舊有
土城前守易以甌性
脆善崩公以石改築
之役民有方民樂趨
事既亟且完及今數
十年額額若金城之
固云歲

滿入拜司憲府大司
憲參判戶曹同知義
禁府朝議方擬以大
用無何遇疾卒戊辰
二月己巳也壽五十
有六四月葬于廣州
富谷里先塋側

西坐之原公氣度凝
遠寡笑與言視其外
可知其內守也常自
悲其早孤致養於贊
成公不知有身贊成
公季年寢疾久其與
居飲食非公

이에 매번 도적을 다스리는데 문득 축연(蹶然)히
하며 말하기를 “저들이 기한(饑寒)에 다다랐을
뿐이다. 그 뜻을 가볍게 하여 악형(惡刑)을 베풀
기를 원치 않노라. 사람들에게 나이로써도 얻지
못하는 것은 비록 천선(遷善)하고자 하여도 그
도(道)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차마 하지 못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전활
(全活)함이 매우 많아 도적 또한 점차 사라졌다.

다음해에 가선대부로 강화부유수로 탁배되었다.
부(府)에는 옛날부터 토성(土城)이 있어 전(前)의
유수(留守)가 이를 벽돌로 바꾸어 그 축성함이
성글어 힘이 적음에 자주 붕괴되었다. 이에 공은
돌로써 이를 개축(改築)의 역사(役事)를 일으킴에
백성들이 바야흐로 민락(民樂)으로 삼아 마음을
다하여 이루니 일이 빠르게 완성되었다. 또 완성
된 지 지금 수십년이 지났으나 액액(額額)하여
금성(金城)의 견고함과 같다고들 말하였다.

임기를 마치고 조정으로 돌아와 사헌부대사헌을
배수하였고 호조참판 동지의금부를 지냈는데,
조정(朝廷)의 의론이 바야흐로 크게 쓰일 것을
헤아렸으나 무하(無何) 우연히 병으로 돌아가니
무진년(1748) 2월 기사일(己巳日)이었다. 나이는
56세이다. 4월 광주(廣州) 부곡리(富谷里)의 선
영(先塋)의

옆쪽 유좌의 언덕에 장례하였다. 공(公)은 기도
(氣度)가 의원(凝遠)하고 웃음이 적었으나 더불
어 말을 하며 그 외양(外樣)을 보면 그 안의 지
조를 가히 알 수 있었다. 항상 스스로 일찍 부
모를 여의었음을 슬퍼하였고 찬성공(贊成公)에게
치양(致養)됨에 그 몸이 의탁되었음을 알지 못하
였으며 찬성공이 말년에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게 되자 함께 거처하며 음식(飲食)을 수발하
였는데, 찬성공(贊成公)은 공(公)이 아니면

不能安也公亦不躬
不敢安也及喪毀戚
既三年弗怠當祭而
哭哀動一家蓋公之
爲孝善推親心祖妣
朴夫人父母祠墓爲
致時節祭需以爲常

季妹俞氏婦家甚窶
母夫人之所憐念者
則迎置母夫人側怡
愉以晨夕撫養二甥
猶已子焉推是以及
族黨堂叔參奉公歿
于江上而

無子公爲買屋城裏
奉其母繼以衣糧謀
於門中爲立後闔宗
翕然歸義然視其居
家寒儉如布衣時視
其居官毫芒不以非
義取乃其所以

爲難也立朝三十年
出入館職殆十年而
計其行公厘十餘日
又未嘗一謝臺御然
遇大得失未嘗不言
也蓋公雅尙敦素且
懲夫時人貞黷

불안해 하였고 공(公) 또한 몸소 하지 않으면 감
히 편안해 하지 않았다. 상(喪)을 당해서는 훼손
(毀戚)하였고 3년을 여묘(廬墓)하는데 있어서는
게으름이 없었으며 제삿날을 당해서는 곡(哭)을
하는데 애통(哀痛)히 하여 일가(一家)에서는 대개
공의 효선(孝善)을 이루었다고 하였으며 친심(親
心)으로 조비(祖妣) 박부인을 추앙하였다. 부모의
사묘(祠墓)에는 시절(時節)에 맞게 제사하였는데,
제수(祭需)는 항상 손수 마련하였다.

계매(季妹) 유씨(俞氏) 며느리의 집안이 매우 가
난하여 모부인(母夫人)의 곁에 두고 태유(怡愉)
케 하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양(撫養)하였으
며 2명의 조카 또한 자기의 자식인 양 여겼다.
이에 그 추앙함이 족당(族黨)에까지 미치게 되
었다. 당숙(堂叔) 참봉공(參奉公)이 강상(江上)에
서 돌아갔는데,

자식이 없어 공(公)은 성(城) 안에다가 집을 사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계속 의복과 양식을 거두며
문중(門中)에서 모의하여 입후(立後)케 하니 개종
(闔宗)이 흡연(翕然)히 귀의(歸義)하였다. 그러나
그 집안에서 거처함을 보면, 한검(寒儉)하기가 마치
포의(布衣)할 때와 같았고 관직에 있을 때를 보면,
호망(毫芒)한 것조차도 의(義)가 아니면 취하지
않아 이에 그 소이에 어려움이 되기도 하였다.

조정(朝廷)에 들어간 지 30여년 동안 관직(館職)
을 출입한 지가 거의 10여년이었고 그 행동을
도모한 것은 겨우 10여일에 지나지 않았다. 또
일찍이 한 번도 대어(臺御)를 물러나지 않았으
나 커다란 득실(得失)이 있을 경우에는 미상불
상소(上疏)하였다. 대개 공(公)은 올바름으로 오
래도록 그 본바탕을 돈독히 하고 또 무릇 시인
(時人)들의 정독(貞黷)을 징험(徵驗)하였고

驟變出處語默期在不奪其守時論或疑其過於周慎及國家操調劑之術驅策一世而向之稍持清議者駸駸刑方而就之然後識者始服

公素履之不苟焉夫人沈氏青松望族牧使鳳輝之女副提學攸之曾孫舉一男後裕今郡守娶徵士夙夜齋閔公翼洙女有四男用和判官

用鼎用中用龜用和二男三女女長嫁金基肯次嫁南公轍幼者姑不書不佞與公晚而同朝竊喜其進退雍容有見乎知時安命之義又喜

其子孫恂恂修潔有故家之流風迺者郡守君猥屬以墓銘且曰非文之爲爲知之眞也雖老不可辭其銘曰

갑작스럽게 출처(出處)가 변하여서는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때를 기약하며 시론(時論)을 지켜갔다. 혹 주위에서 과실을 의심하면 국가(國家)에 미칠까 조심스러워하여 조제지술(調劑之術)을 잡아 일세를 구책(驅策)하여 이를 향하였으며 점차 청의(淸議)로만 버티던 사람들이 완방(刑方)을 침침(駸駸)하게 하여 이를 취한 연후에야 식자(識者)들은 비로소

공의 소리(素履:소행)이 구차하지 않았다는데 북중하였다. 부인(夫人) 심씨(沈氏)는 청송(靑松)의 망족(望族)으로 목사(牧使) 봉휘(鳳輝)의 딸이며 부제학 유(攸)의 증손(曾孫)이다. 1남을 낳았는데 후유(後裕)로 지금 군수(郡守)로 있다. 이가 징사(徵士) 숙야재(夙夜齋) 민공(閔公) 익수(翼洙)의 딸을 취(娶)하여 4남을 낳았는데, 용화(用和), 판관(判官)

용정(用鼎), 용중(用中), 용구(用龜)이다. 용화(用和)는 2남 3녀를 낳았는데, 딸중 장녀는 김기궁(金基肯)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남공철(南公轍)에게 출가하였으며 어린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는다. 불녕(不佞)은 공(公)과 더불어 나이가 먹도록 늦게까지 조정(朝廷)에 있으면서 그 진퇴(進退)에 남모르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용용(雍容)를 볼 수 있을까. 안명지의(安命之義)를 알고 있음이 또한 기쁘다.

그 자손(子孫)이 순순(恂恂)히 수결(修潔)하는 것은 고가(故家)의 유풍(流風)이 있는 것이다. 처음에 군수군(郡守君)이 외람되어 묘비(墓碑)의 명문(銘文)을 부탁함에 또 말하기를 “옳지 않은 문장으로 하는 것은 아는채 할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비록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가히 사양할 수 없었다. 이에 명(銘)하기를

奕奕韓宗源深流遠

혁혁(奕奕)한 한씨성(韓氏性)은 근원이 깊고 유년(流年)이 멀도다.

孝謹忠亮世厥名顯

효근(孝謹)하고 충량(忠亮)하여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도다

公承其緒式克負何

공(公)은 그 서업(緒業)을 계승하여 공경하는 마음이 능히 부하(負何)되었도다.

鵠立王廷素質無澆

왕정(王廷)을 곡립(鵠立)함에 소질(素質)에 더럽힘이 없었도다.

橫經進規詞約義明

다스림에 거슬러 법도에 힘썼고 약속을 말하는 데는 의리가 밝았다네

秉節宣化弊絕風清

절개(節概)를 잡아 선화(宣化)하니 폐해(弊害)가 끊겨 풍화(風化)가 맑아졌다네

不爲利疚不以名趨

이익을 꺼려하여 하지 않았고 이름을 드높히려 하지도 않았도다

何毀何譽維志之求

어떤 비방과 칭찬도 뜻에 맞게 구하였도다

行有平陂我履無傾

행동함에는 평탄한 것과 기울어진 것이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에는 기울어짐이 없었도다

孰爲蘭艾我佩長馨

누가 난애(蘭艾)를 위하겠는가 우리는 길고 긴 향기로 장식하였다네

凡今之人羊質豹文

무릇 지금의 사람들은 양질표문(羊質豹文)인가

知我者希乃見其眞

우리를 아는 사람 드물어도 이내 그 진실을 보았다네

豐材薄施君子之傷

많은 재주가 있으면서도 베품이 적은 것은 군자(君子)의 손실이라네

銘言載石用昭无疆

명(銘)을 돌에 새기어 밝게 비춤으로 무강(無疆)케 하리라

文成後三十八年始

글이 이루어진지 38년 후에 비로소 현각(顯刻)

入顯刻其間子孫之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자손(子孫)으로 기록

未及入錄者竝與其

됨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과 아울러 그 역임한

所經官職而追刻于

관직(官職)을 왼쪽에 추가로 새긴다. 을축년(乙丑

左乙丑追 贈府君

年: 순조 5, 1805) 부군(府君)을 의정부(議政府)

議政府左贊成以不肖孫用龜貴

也男郡守官至敦寧府都正 贈領議政孫判官用和官至忠清道觀察使用鼎有文行早歿用中參奉用龜判中樞府事用和二男象履

縣監景履三女長嫁金基肯次嫁南公轍判書季嫁洪堧參奉用鼎一男元履縣監三女長嫁洪遇燮正言次嫁洪顯圭季嫁金基常用中

二男兢履校理成履進士用龜取景履爲子二女長嫁趙原永進士次嫁金鑑進士象履一男一女並幼

元履三男一女男長直教次在教

餘幼兢履二男幼成履二男一女男長命教餘幼

좌찬성으로 추증(追贈)하였는데 이것은 불초손(不肖孫) 용구(用龜)가 귀하게 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들 군수(郡守: 韓後裕)의 관직은 돈녕부도정에 이르러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고 손자 판관(判官) 용화(用和)의 관직은 충청도관찰사에 이르렀으며 용정(用鼎)은 문행(文行)이 있었으나 일찍 죽었다. 용중(用中)은 참봉(參奉)을 지냈고 용구(用龜)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지냈다. 용화(用和)는 2남을 두었는데, 상리(象履)는

현감(縣監)이고 다음은 경리(景履)이며 3녀중 장녀는 김기공(金基肯)에게 출가하였으며, 차녀는 남공철(南公轍)에게 출가하였는데 판서(判書)이며 막내는 홍전(洪堧)에게 출가하였는데 참봉(參奉)이다. 용정(用鼎)은 1남을 두었는데 원리(原履)로 현감(縣監)이고, 3녀중 장녀는 홍우섭(洪遇燮)에게 출가하였는데 정언(正言)이고 다음은 홍현규(洪顯圭)에게 출가하였으며 막내는 김기상(金基常)에게 출가하였다. 용중(用中)은

2남을 두었는데, 긍리(兢履)는 교리(校理)이고 성리(成履)는 진사(進士)이다. 용구(用龜)는 경리(景履)를 취하여 후사(後嗣)를 삼았고 2녀중 장녀는 조원영(趙原永)에게 출가하였는데 진사(進士)이며 다음은 김로(金鑑)에게 출가하였는데 역시 진사(進士)이다. 상리(象履)는 1남 1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고 원리(元履)는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직교(直教)이고 다음은 재교(在教)이며

나머지는 어리다. 긍리(兢履)는 2남을 두었는데 어리고 성리(成履)는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명교(命教)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戊辰二月望日孫男
大匡輔國崇錄大夫
行判中樞府事用龜
謹識

崇禎紀元後三戊辰
五月 日立

무진년(戊辰年: 순조 8, 1808) 2월 망일(望日: 보름)에 손남(孫男: 손자)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錄大夫) 행(行)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용구(用龜)는 삼가 글을 서술한다.

숭정(崇禎) 기원(紀元) 후 3무진(戊辰: 순조 8, 1808) 5월 일 세우다.

한후유(韓後裕) 墓表

府君諱後裕字伯昌
我韓自高麗太尉諱
蘭世有名碩至右議
政清平府院君忠靖
公諱應寅受 宣廟
顧命爲中興名臣於
府君爲七世祖也

高祖諱聖右吏曹參
判以清名直節爲朝
廷重後 贈吏曹判
書曾祖諱配義右尹
贈左贊成祖諱師範
成均進士 贈領議
政考諱顯 慕大司憲
贈吏曹判書妣貞夫
人靑松沈氏牧使諱
鳳輝之女

府君生於 肅宗癸
巳三月十七日贊成
公臨視撫頂曰骨法
俊偉壽貴相也吾之
後其昌歟三十五中
生員試三十八授健
元陵參奉歷 世孫
左從史司業寺主薄
判官僉正工曹佐郎
刑曹正郎翊衛司衛

부군의 휘(諱)는 후유(後裕)이고 자(字)는 백창(伯昌)이다. 우리 한씨는 고려시대에 태위(太尉)를 지낸 휘 난(蘭)으로부터 세상에 이름을 크게 드러내게 되었고, 우의정(右議政)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 충정공(忠靖公) 휘 응인(應寅)은 선묘(宣廟: 宣祖)의 고명(顧命)을 받아 중흥(中興)의 이름난 신하가 되었으니 부군(府君)에게는 7세조(七世祖)가 된다.

고조(高祖)의 휘는 성우(聖佑)로 이조참판을 지냈는데, 청명(淸名)과 직절(直節)이 있어 조정(朝廷)에서 중요하게 여겼으며 후에 이조판서에 증직되었고 증조는 휘 배의(配義)로 우윤(右尹)을 재내고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조의 휘는 사범(師範)으로 성균진사인데,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고의 휘는 현모(顯謨)로 대사헌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비는 정부인 청송심씨로 목사(牧使)를 지낸 휘 봉휘(鳳輝)의 딸이다.

부군은 숙종(肅宗) 계사년(1713) 3월 17일 태어났는데, 친성공(韓配義)께서 몸소 가서 보고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골법(骨法: 骨格)이 준위(俊偉)하여 장수하고 귀하게 될 관상(觀相)이니 우리의 후손들이 창성하겠구나”라고 하였다. 35세에 생원 시(生員試)에 합격하였고 38세에 건원릉참봉을 제수한 후 세손좌종사(世孫佐從史),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 판관(判官), 첨정(僉正), 공조좌랑(工曹佐郎) 형조정랑(刑曹正郎), 익위사위졸(翊衛司衛卒)을 역임하고 외직으로

率出爲兎山縣監臨
陂江西縣令加平安
城郡守

正宗壬寅府君年七
十用不肖侍從 恩
進通政爲僉知中樞
府事五衛將敦寧府
都正庚戌今 上誕
降加 恩區內進階
爲嘉善大夫同知中
樞府事

以辛亥六月二十九
日考終于正寢享年
七十九九月乙酉窆
于廣州月谷月峰負
辛之原越二年癸丑
遷奉于同岡乾坐後
以不肖貴累 贈至
議政府左贊成

府君事父母至孝左
右服勤誠意常藹然
大憲公嘗疾篤齊沐
爲文禱于名山請以
身代其辭絕悲相其
事者爲之泣下

祖妣俞夫人妣沈夫
人俱享大耋數寢質
府君年已遲暮有四

나아가서는 토산현감(兎山縣監), 임파(臨陂)와
강서현령(江西縣令), 가평(加平)과 안성군수(安
城郡守)를 지냈다.

정종(正祖) 임인년(1782) 부군(府君)의 나이 70
으로 불초가 시종(侍從)하는 은혜를 입어 통정
계(通政階)로 진급하여 첨지중추부사 오위장(五
衛將)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었고 경술년
(1790) 금상이 탄생하시어 옛부터 가까이 지낸
정의(情誼)로 은혜를 더하여 위계(位階)가 올라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가 되었다.

신해년(1791) 6월 29일 정침에서 돌아가니 향년
(享年) 79세였다. 9월 을유일(乙酉日) 광주(廣州)
의 월곡(月谷) 월봉(月峰) 신좌(辛坐: 서북쪽)의
언덕에서 장례하였으며 2년후인 계축년(1793)
같은 구릉 건좌의 언덕에 옮겨 모셨다. 후에 불
초(不肖)가 귀하게 됨으로써 증직이 의정부(議
政府) 좌찬성(左贊成)에 이르렀다.

부군은 부모를 섬기는데 효성을 다하였는데, 좌
우에서 복근(服勤)함에 성의(誠意)를 다하여 항
상 애연(藹然)히 하였다. 대헌공(大憲公: 韓顯謨)
께서 일찍이 질병으로 고생하게 되자 독실(篤
實)하고 제엄(齊嚴)한 마음으로 목욕재계하고
글을 지어 자신이 이를 대신할 것을 명산(名山)
에 기도하였는데, 그 사의(辭意)가 슬프고도 간
절하였으며 그 일을 보는 사람들조차 눈물을
흘리지 않음이 없었다.

조비인 유부인과 비인 심부인이 구향(俱享)하고
있음에 대기(大耋)로 여러차례나 병자리에 누워
있게 되자 부군 역시 나이가 이미 지모(遲暮)함

男在側而不聽代勞
朝夕不暫離每夜深
命之退退亦不解帶
頻至窓間潛候氣息
聞鼾聲然後去天明
又往候于外侍者出
乃入或值降冬白鬚
成冰

沈夫人既釋梱政而
俸入必盡獻惟其所
欲與自飯膳衣服以
至日用百需無不躬
幹曲稱旨意沈夫人
嘗語不肖曰爾父性
似簡踈供奉我周悉
纖密殆婦女不如也

致愨於廟事老而彌
篤八旬之年躬將灌
薦蔬素櫛沐未嘗或
廢若病不得將事當
祭之夕擁被俯伏以
俟卒事始就枕是皆
純心之發非有所勉
強而然也

에도 불구하고 4명이 아들이 옆에 있었으나 대신 모시겠다는 것을 듣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잠시도 떠나지 않으며 매일 밤에 깊어 물러가라는 명령이 있는 다음에야 물러나왔다. 물러나와서도 또한 허리띠를 풀지 않고 자주 창문밖에 이르러 몰래 기식(氣息)을 살피고 코고는 소리를 들은 연후에야 돌아왔다. 날이 밝으면 또 언제나 바깥에서 모시는 사람에게 문후(問候)를 물었으며 나가고 들어옴에 있어서도 반드시 직접 뵈고 말씀을 드려 겨울철에는 백발(白鬚)에 고드름이 얼기도 하였다.

심부인(沈夫人)이 이미 끈정(梱政)을 벗었으나 녹봉(祿俸)을 받으면 반드시 진헌(盡獻)하고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였다. 이에 반선(飯膳)과 의복으로부터 일용(日用)의 백수(百需)에 이르기까지 몸소하여 그 지의를 맞추지 않는 것이 없었다. 심부인에게서 일찍이 불초에게 말하기를 “네아비의 성품이 간소(簡踈)하게 보이지만 나를 공봉(供奉)하는데 있어서는 두루 섬밀(纖密)함을 갖추었으니 거의 부녀(婦女)도 이와 같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묘사를 모심에 있어서는 성실함을 다하였고 나이가 들어서도 더욱 돈독히 하여 80의 나이에 이르러서도 몸소 채소(菜蔬)를 관천(灌薦)하는데 즐목(櫛沐)하여 일찍이 한번도 폐함이 없었다. 만약 병으로 부득이 일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면 제삿날 저녁에 이불을 치우고 부복(俯伏)하여 일이 마쳐지기를 기다리고서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으니 이것은 모두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면강(勉強)한 바가 아니었다.

配驪興閔氏夙夜齋
 文忠公諱翼洙之女
 早服家訓事舅姑以
 愛佐夫子以敬教諸
 子若孫慈而有道聲
 氣不出于外而內存
 規度畫如也宗黨咸
 服以女士先府君二
 年生後府君二年卒
 與府君同窆從 贈
 貞敬夫人

有四男用和監司用
 鼎有文行早幼用中
 參奉用龜判書一女
 未笄夭用和二男象
 履佐郎景履三女適
 金基肯參判南公轍
 參奉洪典用鼎一男
 元履縣監三女適正
 言洪遇變洪顯圭金
 基常用中二男兢履
 正言成履生員用龜
 取用和次子景履爲
 子二女適進士趙原
 永金鏞

嗚呼府君仁足以利
 物才足以需世然屈
 於公車不得表見於

배는 여흥민씨로 숙야제(夙夜齋) 문충공(文忠公) 휘 익수(翼洙)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었으나 시부모를 섬기는데는 사랑으로 하고 부자(夫子)를 보좌하는데는 공경으로 하며 여러 자식과 어린 손자를 가르침에는 자목(慈睦)한 것으로 가훈(家訓)을 삼았다. 도리(道理)가 있어 성기(聲氣)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안으로는 규도(規度)가 있음이 마치 그림과 같았다. 이에 종당(宗黨)들이 모두 여사(女士)로써 복종하였다. 부군(府君)보다 2년 먼저 태어나 2년 늦게 돌아갔는데, 부군과 함께 합장(合葬)하였고 그 예(例)를 좇아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증직되었다.

4남을 낳았는데, 용화(用和)는 감사(監司)이고 용정(用鼎)은 문행(文行)이 있었으나 요절(夭折)하였으며 용중(用中)은 참봉(參奉)이요, 용구(用龜)는 판서(判書)이다. 1녀는 비녀를 끼지도 못하고 [출가하지 못하고] 요절하였다. 용화(用和)는 2남을 두었는데, 상리(象履)는 좌랑(佐郎)이고 다음은 경리(景履)이며 3녀는 김기금(金基肯), 참판(參判) 남공철(南公轍), 참봉(參奉) 홍전(洪典)에게 출가하였다. 용정(用鼎)의 1남은 원리(元履)로 현감(縣監)이고 3녀는 정언(正言) 홍우섭(洪遇變), 홍현규(洪顯圭), 김기상(金基常)에게 출가하였다. 용중(用中)은 2남을 두었는데 궁리(兢履)는 정언(正言)이고 성리(成履)는 생원(生員)이다. 용구(用龜)는 용화(用和)의 둘째 아들 경리(景履)를 취하여 후사(後嗣)를 삼았으며 2녀는 진사(進士) 조원영(趙原永), 김로(金鏞)에게 출가하였다.

오호(嗚呼)라! 부군(府君)의 어질음은 사물을 이롭게 하는데 족하였고 재주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기에 족하였는데 관로(官路)에 있어서는 뜻을

世知者固鮮矣而不肖兄弟相繼淪逝惟不肖子子在世深懼一朝溘然並與潛德懿行之爲後世足法者而泯堙無徵今於表阡之石謹揭孝行大致凡我後承庶幾式型于斯而無墜焉壬午十月甲辰移窆于始興文星洞癸坐之原

男輔國崇錄大夫兼禮曹判書知經筵事用龜泣血謹撰

孫男通訓大夫戶曹佐郎 象履謹書

崇禎紀元後三乙丑月 日立

碑旣成不肖用龜猥膺 寵命進拜左相加贈 府君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象監事謹追刻于後用識餘慶攸暨云爾

얻지 못하여 세상에 표견(表見)함을 얻지 못하였으니 아는 사람들이 진실로 적었다. 불초의 형제들은 서로 계승하는데 윤굴(淪屈)하며 지내다가 오직 불초가 혈혈단신으로 세상에 있으면서 매우 두려워 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개연(溘然)히 잠덕(潛德)과 의행과 함께하여 세상에 가히 규범이 될만 하였으나 민연(泯堙)하여 징험할 수 없었다. 지금 표천지석에 삼가 효행이 크게 이루어졌음을 높히는 것은 무릇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거의 규범으로 삼아 계승하여 추폐(墜廢)됨이 없게 하는 것이다. 임오년(1822) 10월 갑진일 시흥(始興) 문성동(文星洞) 계좌(癸坐) 언덕으로 이장(移葬)하였다.

아들 보국(輔國) 승록대부(崇錄大夫) 겸(兼) 예조판서(禮曹判書) 지경연사(知經筵事) 용구(用龜)는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글을 짓고

손남(孫男: 손자) 통훈대부(通訓大夫) 호조좌랑(戶曹佐郎) 상리(象履)는 삼가 글을 쓰다.

송정(崇禎) 기원(紀元)후 3을축(乙丑: 고종 2, 1825) 월 일 세우다.

비(碑)가 이미 이루어진 다음 불초(不肖) 용구(用龜)가 외람되어 왕의 총애하는 명령을 받아 조정에서 좌상(左相)을 배수함에 부군(府君)의 증직에 의정부 영의정 겸(兼) 영(領) 경연(經筵)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관상감사(觀象監事)가 더하여져 삼가 후에 추각(追刻)하여 여경(餘慶) 유유(攸攸)하게 도달함을 깨닫게 하리라.

허엽(許曄) 神道碑

有明朝鮮國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許公神道碑銘

自余出海歸見輩流多凋落獨吾許公能無變其初纔十有三年而庵忍使予長抱無涯之痛今其二孤以家狀見屬噫公之跡應銘法復義無以辭願忍言哉

謹按許氏出金首露王妃姓鼻祖諱宣文佐麗朝定三韓食采孔巖遂世爲陽川人歷八世簪組綿延至珙位侍中爲名相傳冠伯綱錦皆卿宰

文章德業錦尤著愔判奉常寺事贈吏曹判書是生公高祖折衝將軍忠武衛護軍贈兵曹參判諱樞曾祖成均館典籍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경상도관찰사 허공 신도비명 병서

내가 바다 건너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많은 무리들이 유배를 가서 조각되었다. 오직 홀로 허공(許公)만을 처음과 같이 변함이 없었다. 겨우 13년이 지났을 뿐인데 홀연히 나로 하여금 끝없는 비통함을 안겨다 주었다. 이제 두 자제가 보여주는 가장(家狀)을 보니 슬프다! 그러나 공의 행적은 응당 비에 새겨 본받을만하다. 나는 무엇이라 말 할 수 없었으나 도리켜 생각해 보면 차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삼가 허씨의 가장을 살펴보니 김수로 왕비(金首露王妃)의 성씨로 부터 비조(鼻祖) 휘 선문(宣文)은 고려 건국을 도와서 삼한(三韓)을 안정하고 공암(孔巖)을 식읍으로 받아 드디어 양천인(陽川人)이 되었다. 이로부터 8세에 내려와서 부터 잠령세족(簪纓世族)에 이르렀고 시중(侍中)이 나왔으며 이름있는 상신과 관백(冠伯) 등이 나왔으니 모두 공경 재신(宰臣)의 지위였다.

문장(文章) 덕업(德)과 금의(錦衣)가 더해지더니 판봉상시사 증 이조판서 기(愔)가 공의 고조를 낳았고 이분이 절충장군 충무위호군(忠武衛護軍) 증 이조참판 휘 추(樞)이고 증조는 성군관전적 증 승정원 도승지 휘 갈(葛)이고 조(祖)는 금화사별제 증 이조참판 휘 담(聘)이며 부친(考)

贈承政院都承旨諱
葛祖禁火司別提
贈吏曹參判諱聃考
軍資監副奉事 贈
吏曹參判諱澣外祖
昌寧成氏敦寧府判
官諱熹

正德丁丑十二月二十九日公之初度也諱曄字太輝草堂其別號也嘉靖壬辰丁參判公憂守墓沒喪庚子選進士丙午中甲科癸丑登臺時尹春年以王大妃從祖弟居要津用事於公爲重內兄嘗托薦李戡銓曹政府屬甚力終不遂御之相與拮據無所得屬公先廬火公欲慰釋

大夫人且懼宗祀無所悉家財營建至是同在府乃嫁以貧黷漁索旁嗾劾罷之丁巳憂吉時疑金汝孚金弘度立黨相傾公責汝孚汝孚怒弘度逐而公求外得銀川汝孚尋敗

은 군자감 부봉사 증 이조참판 휘 한(澣)이다. 외조는 창녕성씨로 돈령부 판관(判官) 휘 희(熹)이다.

정덕 정축(1517) 12월 19일 공이 출생하였으니 휘(諱)는 엽(曄)이고 자(字)는 태휘(太輝)인데 초당(草堂)은 그의 별호(別號)이다. 가정 임진년(1532)에 참판공 상을 당하여 시묘살이를 끝내고 경자년에 진사시에 선발되었고 병오년(1546) 중에 갑과(甲科)에 등재되고 계축년에 대각(臺閣)에 올랐다. 그때 윤춘년(尹春年)이 왕대비(王大妃)의 종조제(從祖弟)로써 요진(要津)에 거하였는데 공을 내형(內兄)이 일찌기 이감(李戡)을 추천하고 부탁하였다. 전조(銓曹)와 정부에 힘썼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자 드디어 서로 군척(拮據)하려 하였고 소득이 없음에 공에게 당부하자 공은 먼저 농막에 불을 놓아 위로하여 풀어주었다.

이에 대부인이 또한 송구하게 생각하여 종사에 없는 바의 가재를 다 들여서 영건(營建)하였다. 이에 이르러 부(府)에 함께 있었는데 시집을 가서 탐획하고 어색(漁索)하며 방주(旁嗾)하므로 핵과(劾罷)하였다. 정사년에 근심거리와 길(吉)함이 있었는데 때에 김여부(金汝孚)와 김홍도(金弘度)가 당을 이르고 서로 정세를 가우리려 하자 공이 여부를 꾸짖으며, 여부가 노하여 홍도를 축출하므로써 공은 밖으로 은천(銀川)을 구하여 얻었으며 여부 역시 패하였다.

己未西海盜起朝議
 須武宰乃濟召公還
 爲中丞與僚長議不
 合長遞而公罷卽叙
 庚申超參水部壬戌
 秋入近侍夜對言國
 家所賴以維持者人
 才也人才不作由人
 心不正人心不正實
 原于 聖道不明臣
 此忝掌成均無敢信
 者良以其來有自也

中廟銳意致治趙光
 祖特蒙殊眷感激圖
 報庶幾堯舜君民不
 幸讒口甚之橫罹滯
 禍自是人心大懷不
 可救亟 賜申雪使
 風采立變則人心定
 而國家安矣 上曰
 事在先朝安敢輕議
 公復反覆極陳且曰
 如近世許磁主選不
 用關節積謗遠貶具
 壽聃不顧其身以至
 賜死

기미년에 서해에 도적이 일어나자 조정의 의론이 반드시 무재(武宰)로 대장을 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공을 불러 중승(中丞)을 삼으려 하매 여러 신료들이 오래 동안 논의하여 문관이 적합치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므로 공을 파하고 체직하였으나 곧 서용 되었다. 경신년에 계급을 뛰어넘어 참수부(參水部)가 되었고 임술년 가을 근시(近侍)로 들어가서 밤에 왕을 대하여 말하기를 국가에서 의지할바로는 오직 인재(人才)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재를 만들지 못하면 인심이 바로 서지 못하고 인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실로 본디의 성도(聖道)가 밝혀지지 못하니 신은 이를 천연합니다. 성균(成均)을 장악하고 있는 자는 감히 믿을 바가 없으니 어진이를 부른다면 스스로 있을 것입니다.

중묘(중종)께서 예의 다스리는 데에 이르러서는 조광조를 특히 알아보시고 또한 특별히 돌보아 주심에 성은에 감격하여 보답코자 요순과 같은 기회로 삼으려 하였으나 임금과 백성이 불행하여 잠간의 음화(淫禍)에 가로 걸렸습니다. 이로부터 인심이 크게 무너지고 구제하기가 어려우니 신원시켜 주셔서 이로하여금 풍속을 변화시키면 인심이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상께서 이르기를 “그 일은 선왕때에있었던 것인데 어찌 감히 가볍게 논의 할것인고” 라 하였다. 이에 공은 반복하여 극진히 말씀을 올리면서 또 아뢰기를 근래 허자(許磁)가 주선(主選) 되었으나 긴히 쓰여지지 못하고 관절마다 비방이 쌓여져서 원편(遠貶) 되었고 구수담(具壽聃)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가 사사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夫斷重辟必覆奏獨于大臣不然臣未知其故也又曰人有藏獲一投內司仰天太息無路可辨此亦不可不知群少競怒駁褫職癸亥六月叙拜直州八月李樑使戡網打及公

公上府十三日罷已而樑竄皆復用元衡等以公夜對所言不是請毋顯叙隆慶丁卯復知中啓言元衡芭欺罔先王先后盡取知名之士加以叛逆之名或有解者驅納一筭今若正其罪而釋其冤則和可致而戾可消矣又曰先臣李彥迪所著收畜玩味是亦師也今有李滉謝病在家致敬盡禮則必不敢不至

明廟所徵李恒曹植年齡衰邁招之以誠亦將來矣昔程朱生宋不見用千古憾也

대저 저 중요한 인재를 반드시 끊으려 해도 대신들은 홀연 복주(覆奏)하지 않으니 신은 그 연고를 알지 못하였나이다. 또 말하기를 사람에게 있어 장획(藏獲, 內司)에서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 하면서 무로(無路)하면 변통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아는바가 있지 아니하니 소인배의 무리가 서로 논박하여 체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계해년 6월에 직주(直州)에 서배(叙拜) 되었으며 8월에 이량(李樑)이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영향이 공에게 미쳤다.

공이 상부(上府)에 있는지 13일만에 파직되고 부처 되었던 이량이 원형(元衡) 등을 복직 시키매 공은 밤에 임금을 독대하고 이들을 서용치 말 것을 청하였다. 융경 정묘년(1567) 복직되어 원형과 기(莒)가 선왕과 선후(先后)를 기망하고 명성만을 취하며 사류가 가담하여 반역하려 하니 이러한 무리들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고 말하며 이제 만약 그 죄를 바로잡고 너그러히 풀어 준다면 화목해질 수 있으며 원한을 풀수 있다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선정신(先正臣) 이언적이 저술한 책을 수축(收蓄) 완미(玩味)하면 이 역시 스승이 된다고 하였고 이제 이황(李滉)이 병이 있다 말하고 집에 있으니 공경하기를 다하고 예를 다하여 반드시 조정에 이르게 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하였다.

명종조의 이항(李恒)과 조식(曹植)은 나이가 쇠하여 물러갔으나 그들을 불러들여 장래를 역시 도모해야 합니다. 옛적에 정주(程朱)가 송나라에서 태어났으나 이때 발탁되지 못하였으니 이는 천고에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리학(理學)의

理宗知尊尙其道而不知眞魏亦何益之有

上召滉至再造朝又言先朝有庶孽李仲虎張崙學行名世學者多超之今朴洞小學爲教其徒常數百人薦補童蒙訓導以不就考試居殿猶盡心不倦請例虎崙界祿從之

戊辰充進賀封太子副使購求讀書錄上之命印頒己巳長玉堂啓言近習之名出於叔世近者國禍多由戚里與宮壺爲徑最可憂也又曰人臣愛君先事預戒而醜正者反以爲過亦宜省念

又曰兩李與曹依漢朝故事歲給料長吏以時存問春秋致羊酒方伯諭諸生往學孝悌忠信之道則遠

종주됨을 알고 그 도(道)가 고상함을 받들면서 참된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위나라에는 또한 부엌이 유익함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상께서 황(滉)을 이르도록 불러서 다시 조정을 만들도록 하고 또 이르시기를 선조조에 서열(庶孽) 이중호(李仲虎)와 장륜(張崙)의 학행이 당세에 이름이 있어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지금에 이르러서 소학에 형통하고 그 무리를 가르침에 항상 수백인이 따르고 있으니 그를 천거하여 동몽훈도(童蒙訓導)로 일임하여 줌에 있어 고시(考試)를 취하게 하지 않으니 전내에 거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다하고 게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에게 청하여 예에 따라 이중호와 장륜에게 록을 주어 따르게 하였다.

무진년에 진하사(進賀使)에 충원되었으며 태자부사(太子副使)로 봉해졌고 독서를 구입하고 임금의 명경에 관한 일을 인쇄하고 기록케 하였다. 기사년에 옥당의 장이 되었는데 임금께 아뢰기를 근래의 세속이 숙세(叔世)에 이름이나 내려는 자들이 많아 국가에 화가 될것이 염려됩니다. 척리(戚里:임금의 친, 외척)과 더불어 궁호(宮壺)에서 가장 가깝게 행하여지고 있으니 이것이 근심거리입니다 하였고 또 아뢰기를 백성과 신하가 임금을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 경계해야 할 일은 누추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의당한 것이 과오가 되는지 살피시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아뢰기를 양 이씨와 조씨는 한나라 조정의 고사와 같이 세미와 급료를 주고 관리의 장은 때로 존부를 물으며 춘추도 술과 고기를 내려 방백을 효유하시고 유생들에게 나아가 효제와 충신의 도리를 본받고 배우게 하면 이것이 원근

近咸知 聖意所在
人心淑而風化達矣
又曰金鎧指鄭光弼
李荇爲一般人其眩
亂極矣二人爲貞安
老一忌一合幾致亡
國賴 中廟漸悟國
不亡所宜深察而痛
斥之

又曰禮曹以鄉約有
遠民往來之難凡
詔令之下莫不宣布
聳動豈有諉以深山
窮谷而廢導迪之理
上不能用鄉約遂不
行公參銓三載擺去
近例棘棘不阿郎官
患之謨擬祭酒不成
授諫長

公冤田應麒之罪見
僚二三病免後除臬
司義不忍鞠至控疏
辭又病免由是人多
悟者竟減死論初舉
國請削乙巳勳公欲
劾一異論者由是居
西幾一年

에 다 알려질 것이며 임금의 성지가 사람의 마음
에 있게 되며 인심이 맑아지면 풍속이 순화
되기에 이를 것입니다. 또 아뢰기를 김개(金鎧)
가 정광필과 이행을 지목하여 일반 사람이 되
게 하였으니 그 현란함이 극에 달합니다. 심정
(沈貞)과 김안노(金安老) 두 사람이 한번은 기
피하고 한번은 합하니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
에 이르자 중중께서 차차 깨달으심에 힘입어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바를 깊이 살피시어 통
척하소서 하였고

또 아뢰기를 예조에서 향약(鄉約)을 실시함에 먼
곳에 사는 백성들이 왕래하기가 어려우니 무릇 조
령(詔令: 임금의 명령)을 내리시면 종동(聳動: 무
서워서 몸을 솟구쳐 움직임)할 것이니 이를 선포
함만 같지 못하겠습니까? 비록 심산 궁곡일지라
도 임금의 명령을 어찌 미루어 핑계를 일삼아서
이끌어 나아감을 폐할 향약을 강제하지 않으시니
드디어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공은 전조(銓曹) 참
의로 세번 있었으나 제거됨에 가까히는 따가운 눈
총을 받는 예로써 아첨하지 않으니 낭관들이 근심
하다가 의론하여 췌주(祭酒)로 삼을 것을 꾀하였
으나 이루지 못하자 간원(諫院)의 장직을 받았다.

공은 전용기(田應麒)의 죄가 원통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신료들의 의견이 분분함을 보고 병을
칭하여 관직을 사직하였으나 뒤에 사의(司義)에
극진하게 제수 되었으나 국문(鞫問)에 이르름을
참지 못하고 앞 당겨서 소를 올려서 사직하였고
또한 병으로 면직되니 그 연유를 깨닫는 자가 많
았는데 마침내 전용기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
으로 논의가 되었다. 최초로 거국적으로 을사년
의 훈공을 삭제하려는 청원이 있자 공은 하나의
이론을 제기하는 자를 탄핵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연유로 거의 1년여간 서쪽에 거하였다.

萬曆癸酉復爲館長
啓言周禮宮中動靜
冢宰無不與知頃者
引見宗戚而政院不
知可乎 上有怒言
後於 延訪復斥 上
爲厭剛直好柔巽言
甚切至 上曰何事
玉音甚厲左右失色
公爲之陳列不已

公九領太學嘗慨然
以作人自任扶善遏
過起廢墜嚴教罰通
讀大學中庸近思錄
寫儒行篇貼東西齋
壁遍仕四學如國庠
驚恠乃定多矜舊者
雅留意先正書院經
紀保護不啻若家事

乙亥復長院時有弒
主者不理公請覈委
官正言趙瑗 啓以
爲啓人君輕大臣之
漸於是和附者衆是
非互發都憲與公俱
遞己卯五月嶺南伯

만력 계유년에 다시 관장(館長)이 되어 계언(啓言) 하기를 주례(周禮)에 궁중의 동정(動靜)은 재상이 덮어주고 더불어 알지 못함이 없지 아니하다고 하는데 경자(頃者: 요즈음의 뜻)에 임금의 종척을 인견하는 것을 정원(政院)이 알지 못하는 것이 어찌 가하겠습니까? 하니 상께서 노하시어 말씀하신 후 조정에 물어서 다시 공을 물리치시었다. 상께서는 강직한 언동을 싫어하시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시며 말이 심한데에 이르르면 상은 무슨 일인가? 하고 언성(玉音)이 높혀져서 좌우가 실색하였으나 공은 진실을 다하여 아뢰음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공은 아홉번을 태학의 영수로 있으면서 일찍이 개연히 사람을 만드는 것을 스스로의 임무로 알고, 선행을 돕고 지나친 것을 막으며 폐추(廢墜)된 것을 일으키셨으며 배움에 있어서 별책을 엄하게 하였다. 대학과 중용과 근사록을 통독하시고 유행편(儒行篇)을 필사하여 동서재(東西齋)의 벽면에 붙혀 놓으시고 벼슬을 두루 살피셨으며 사학(四學)을 국상(國庠: 태학)과 같이 하시고 놀랍고 두려운 바를 진정시키고 옛것을 바로잡는데 유의하였다. 선정신(先正臣)을 향사한 서원을 경기(經紀: 기강을 세움)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집안 일을 보는 것 짝과는 달랐다.

을해년에 다시 간원(諫院)의 장이 되었는데 때에 시골에서 주인을 죽인자가 있어서 공이 청하여 사실을 조사한 뒤 관원에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정언(正言) 조원이 계(啓)를 올리기를 인군(人君)이 대신을 점점 가벼히 한다하니 많은 무리가 이에 부화하여 상호 시비가 일어남에 도헌(都憲)과 함께 체직되었다. 기묘년 5월 영남

缺 上命三公議乃
舉五人 上擢公久
屈批出中外相賀公
急教化以金思齋所
撰警民編闕君上一
款就補之鍔布閭巷
數千本

又令大郡雕三綱二
倫行實所至謁文廟
廩諸生必書示爲學
之方剖柝詞訟搜剔
淵藪且欲並祛舊習
有飛語大興不恤也
九月感風寒拜章辭
不許感激愈力明年
春再辭至一善病遂
殆二月四日逝于尚
州之公館得其年四
月二十三日葬于果
川縣菊逸村西西坐
卯向之原

公亡識與不識莫不
爲之嘆惜送者以百
數國學及道峯深谷
兩院生咸來致祭其
衛道之功嚮德之風
有不可誣云公之器
宇夙成七八歲孝友
絕人既就傳不煩勸
飭卓然日進

백(嶺南伯)의 자리가 비워졌을 때 상계서 삼공에게 명하여 적임자를 선정토록 하였을때 5인을 천거하매 상계서 공을 발탁하여 임명하니 공은 사양하였으나 중외에서 서로 하례를 드렸음으로 공은 급히 교지를 받들고 김사재 선생이 지으신 경민편(警民編) 중에서 비어 있는 「군상일관」을 취하여 보완하고 새겨서 수천권을 마을에 배포하였다.

또 큰 군(郡)으로 하여금 <삼강이륜행실>을 판각하게 하고 문묘(향교)에게도 비치케 하여 모든 유생들이 이 글을 배우도록 하였다. 바야흐로 송사는 세밀하게 살펴서 공정하게 하고 연못과 늪을 메꾸었으며 또한 아울러 구습을 버릴 유언비어를 막아 크게 흥하니 근심거리가 없이 하였다. 9월에 풍한(風寒)에 걸려 글을 올려 사직코자 하였으나 허락치 않으시니 감격하여 병을 낫기에 힘썼으나 이듬해 다시 사직하고 일선에 이르렀으나 병이 깊어 드디어 위대하더니 2월 4일 상주의 공관에서 서거 하였고 그해 4월 23일 과천현 국일촌 유좌묘향지원에 장사를 모셨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공과 면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나가 모두 탄식하더니 수백명이 몰려들어 장송하였고 국학을 비롯해서 도봉서원과 심곡서원 유생들이 모두 다 와서 치제하였으니 공의 위도지공(衛道之功)과 향덕지풍(嚮德之風)에 대하여는 꾸밈말이 필요치 않았다. 공의 기우(器宇)는 일찍이 성숙하여 7-8세에 이에 효우가 따를 수 없을 만큼 뛰어났으며 이미 스승에게 나아가서는 번열하지 않고 권촉(勸飭)하여 날로 탁연(卓然)하였다.

嘗讀宋史至陳文龍
爲虜所獲指其腹曰
此皆節義文章可相
逼耶廢書嘆曰士當
如是遂標以爲正鵠
彌自激昂一口忽喟
然嘆曰程朱未出學
非不晦論人所到多
有可觀程朱以後學
非不明其所樹立反
下漢唐豈自得與聞
見有異也

與因質之羅公湜開
晦齋李先生勸仁
廟講心經附註索而
讀之悅有蹊可尋鎮
川李先生畚精數學
尤邃於易復進受後
事文康于花潭疾革
口占原理氣等六篇
遺公公每以不卒業
爲恨其始工於文詞
自是盡棄之尊賢愛
士不啻飢渴與鍾城
令學同門居比隣相
與講評無虛日

일찍이 송사(宋史)를 읽고 진문용이 오랑캐에게
잡혀서 그 복부를 갈랐다는 대목에 이르러서 말
하기를 그의 절의와 문장은 서로 가까히 함이
가하다고 말하면서 책을 덮고 탄식하며 말하거
를 선비란 과시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드디어 이에 표식(標式)을 해두고 정곡(正鵠)으
로 하였으며 스스로 격앙하여 홀연히 한숨을 쉬
면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정주(程朱)가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배움이 어둡지 아니함이 없었을
것이며 사람이 각자 론하는 바가 많아서 가관이
있을 것이다. 정주 이후의 학문이 밝지 아니함
이 없었으니 그 수립된 바가 반하여 한(漢), 당
(唐) 아래에 있었으니 어찌 스스로 얻음이 더불
어 듣고 보는 것과 바탕으로 인함이 다름이 있
으리요 하였다.

나식(羅湜)과 회재(晦齋) 이선생이 권하여 인조
께 심경(心經)을 강(講)함에 있어 주석과 색인을
붙여서 읽어 황홀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진
천 이선생 려(畬)를 오셨던 바가 지름길이였고
수학에 정진하는 한편 주역에 더욱 깊숙히 이르
렀기 때문이다. 다시 나아가 화담에서 문강공을
섬겨 배웠고 질혁(疾革)과 구점원과 리기(理氣)
등 6편을 공에게서 물려 받았다. 공은 매번 학
문을 다 마치지 못함을 한스럽게 생각하였다.
처음에는 문사(文詞)에 능하였으나 이로부터 모
든 것을 버리고 어진이를 존경하고 선비를 아끼
면서 단지 기갈을 면치 못하면서도 종성에서 동
문(同門)과 이웃과 서로 아우르며 학문을 강평
하기에 허송하지 않았다.

士有相從者必詢爲
學所就何如始政治
得失人物臧否未嘗
出一諸口晨興向宗
家再拜退而一室琴
書屏去外誘古今格
言揭以觀省體疲則
閉眼誦箴銘數徧夜
分乃寢以爲常酷好
泉石遇時和景明携
知舊出郊盡興而返
與人不設畦畛坐上
客常滿有蔬糲必共
之

少耽圍碁長者有言
面赤汗流終身不再
蚤孤色養無方事判
官公視父母百口無
間言受俸輒班諸弟
姪有昏媿喪葬竭力
助護至解衣衣之柳
公希春謫鍾城屢致
禦寒具不絕

常語子弟曰常存仁
恤之心必有及物之
時盖其風標凝遠晚

선비와 더불어 상종할 때면 반드시 학문의 취할
바를 꾀하고 정치의 득실과 인물의 장부(臧否:
좋은것과 나쁜것)에 관한 것에 관하여서는 일찍
이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면 종가를 향하여 재배를 드리고 물러나와서는
금서(琴書)의 병풍을 치고서는 밖으로 부터의 유
홀을 물리쳤다. 그리고 고금의 꺾언을 걸어놓고
살피 보며너 몸이 피로한 측은 눈을 감고 잠명
(箴銘) 수 편을 외우고는 하였다. 밤을 나누어
잠을 청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 되었으며 천
석(泉石)을 만나면 매우 즐겼다. 때로 화창하고
밝은 경치에 이끌려서 옛 친구와 더불어 교외로
나가 흥을 다하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사람과 더
불어 있을때는 밭고랑 갈피위에 앉아 있을지라
도 항상 객이 가득하였으며 반드시 소려(蔬糲:
채소와 쌀로 지은 밥)을 나누어 먹었다.

바둑 두는 일을 별로 즐기지 않았으며 윗 사람
의 말이 있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땀을 흘리면서
(공손 겸허 하였다는 뜻) 종신토록 일찌기 외롭
게 되었다는 것을 두번 다시 기색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또한 판관공(判官公)을 부모를 보고
모시듯 하여 섬기기를 다하였으며 집안 식구가
1백이 넘는다 하여도 이간질하는 말이 없었다.
봉록을 받으면 번번히 모든 아우와 조카들에게
나누어 주고 젊은이의 혼사가 있거나 상장(喪
葬)이 있으면 힘을 다하여 조력하고 도와주었다.
유희춘(柳希春)이 남루한 옷을 입고 종성에서
귀양살이를 할적에 여러번 추위를 막아주고 갖
추어 보살핌을 끊이지 않았다.

항상 자제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인홀지심(仁恤
之心)은 항상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물질에 미
쳐서는 적절한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更樂易喜慍不形或
罔以惡言詈婢僕立
兩朝勿欺爲主出入
盡瘁務持大體不矯
小節剖符三邑妻子
不敢干以私位通顯
三十年門庭如布衣
時

噫種德爲善既積而
豐理宜享有丕祉躋
于大耋而名位已不
穰又復嗇其年天之
報施何舛爾耶嗚呼
痛哉公之履歷長興
庫直長禮工兵吏曹
佐郎吏曹正郎工曹
兵吏刑參議參知司
憲府掌令執義司諫
院正言大司諫弘文
館副修撰修撰校理
副校理副提學侍講
院弼善議政府檢詳
舍人讀書堂 賜暇
濟用監副正軍資監
內資司導軍器內瞻
寺正成均館典籍直
講司藝大司成承文
院判校承政院同副
右副左副右承旨白
川郡守三陟府事慶
州府尹慶尙道觀察
使

대개 그 풍표(風標)는 원만(遠晚)함에 이르고 즐
거움이나 기쁨이나 성내는 것이 쉽게 바뀌는 일
이 형색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혹여라도 혐오스
런 말로 비복(婢僕)을 꾸짖는 일이 없었다. 양조
(兩朝)를 섬겼으며 임금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벼
슬에 나아가고 물러섬에 있어서는 비록 질병이
있을지라도 근본에 힘쓰기를 다하였고 조그만
절의에 거짓이 없었으며 삼읍(三邑)의 병부를 나
누어 받았지만 처자가 감히 사사로히 그 직위에
간여하지 않았으며 30여년을 현달하였다 하여도
그 문과 뜰은 포의한사 때나 다름이 없었다.

아아! 갖가지의 덕은 선(善)한 것이 되었고 이미
쌓은 것은 풍성한 이치와 의당히 향유할 바의
큰 비지(丕祉: 큰 기초)에 이르렀고 대질(大耋:
원로)에 이르렀으나 명위(名位)는 일컬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하늘의 베푸는 바가 인색하였
으니 어찌 어그러졌다고 칭하지 않겠는가? 오호
라 슬프다! 공의 이력을 살펴보니 장흥고 직장
예조 공조 병조 이조좌랑 이조정랑 공조 병조
이조 형조참의와 참지 사헌부 장령 집의 사간원
정언 대사간 홍문관 부수찬 수찬 교리 부교리
부제학 시강원 필선 의정부 검상 사인 독서당
사가 제용감 부정 군자감 내자 사도 군기 내섬
시정 성균관 전적 직장 사예 대사성 승문원판교
승정원 동 우부승지 좌부승지 배천군수 삼척부
사 경주부윤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公之夫人清州韓氏西平君叔昌女宣授光祿寺少卿左議政襄節公確之後資明達事公以禮篤孝友嘗與昆季釋產兒有所欲輒與之無所吝姑性嚴亟稱之曰吾賢婦也既歿語及心流涕

後夫人江陵金氏禮曹參判光轍女新羅宗姓溟源君王周元之後公之子六人前男箴生員內侍府敎官壻朴舜元典艦司別提禹性傳進士文科禮賓寺正後男箴生員文科議政府舍人與兄皆好學而文能嗣其家業箴幼壻金誠立幼學敎官娶留守李憲國女無後繼室兵使南彥純女生二男三女舍人娶郡守李禹賓女生一男一女別提生一男銘曰

士或志仁亦鮮嗜學

공의 부인 청주한씨는 서평군(西平君) 숙창(叔昌)의 딸이다. 의수광로시소경(宣授光祿寺少卿) 좌의정 양절공 한학(韓確)의 후손으로 자품이 명달(明達)하였고 공을 섬기기를 예로서 하였다. 효유가 돈독하여 일찌기 큰집과 작은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문득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시어머니의 성품이 매우 엄하였으나 극히 칭찬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어진 며느리이다”라고 하였다.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서 말은 이에 이르르면 눈물이 흘러 내렸다.

후부인 강릉 김씨는 예조참판 광철(光轍)의 따님으로 신라종성(新羅宗姓) 명원군(溟源君) 왕주원(王周元)의 후예이며 공의 자녀들은 6인인데 전부인에게서 난 아들 성(箴)은 생원을 거쳐 내시부 교관이고 사위 박순원(朴舜元)은 전함사(典艦司) 별제이고 우성전(禹性傳)은 문과에 올라 진사 예빈시정을 지냈다. 후부인 아들 봉(箴)은 생원, 문과에 올라 의정부 사인인데 그 형과 더불어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문장에 능하여 가업의 후사를 이루었으며 균(筠)은 어리다. 사위 김성립(金成立)은 유학으로 교관이다. 유수 이헌국(李憲國)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자식이 없고 계실은 병사 남언문에게 장가들어 2남 3녀를 낳았다. 사인(舍人)은 군수 이우빈(李禹賓)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1남1녀를 낳았으며 별제(別提)는 1남 성립(誠立)은 1녀를 낳았다. 명하기를

선비가 어진 뜻이 있더라도 학문을 즐기는 것은 드문 일이고

于志于嗜厥修罔覺	뜻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 수양함을 깨닫지 못한다.
魯無君子公焉取斯	노나라에 군자가 없다면 공께서 이를 취했으리라.
克持弗渝忠信以基	더러운 것을 떨쳐버리고 지극히 충성과 믿음으로써 그 근본을 삼으니
載揚王庭騫于邇列	왕정(王庭)을 드날리고 가까운 열을 뛰어 넘었도다.
銓衡帷幄耳目喉舌	장막에 가려진 이목(耳目)과 후설(喉舌 : 목구멍과 혀)을 가려 뽑으시고
犯逆堅懇聖衷內回	굳게 간하여 넘보는 무리가 흐터지매 성충(聖衷)은 안으로 감돌았다.
辨遏挫敵衆口積猜	중론의 시기가 쌓임을 막고 분별하여 이를 꺾어버리고
屢遭斥犇反而益縮	여러 조(曹)에서 물러났으나 오히려 더욱 거두어졌네
九典胄教始駭乃服	구전(九典)으로 말 자제들을 가르침에 처음에는 놀랐으나 이내 승복하였도다.
王軫嶺表其往撫循	영표(嶺表 : 영남)에 내려가서 왕진(王軫 : 왕명)을 떨치니 백성들이 사랑으로 따랐으며
公承德意刻厲作新	공의 덕과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것을 깎고 새기니
惟慕惟晦是範是守	오직 얼마되지 않았어도 오직 사모하니 이것이 모범이요 이것이 백성을 보살핌에서이다.
顛連胥悅浮躁競詬	이마를 맞대고 즐거움을 다하였고 부질없이 경솔하게 아첨하며 리(利)를 구함을 꾸짖었도다.
惟疾弗輟惟誠弗窮	오직 질병이 있더라도 거두어 들이지 아니하였고 오직 성실함으로 궁함을 물리쳤으며
惟弗自惜奈何乎公	오직 스스로를 아끼지 아니하니 공을 어찌 하겠는가
孰曰未學孰如其仁	누가 학문을 능치 못하다고 할 것이며 누가 그 어짊과 같으니 있으랴.

非公之慊我擬其倫

공이 싫어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인륜에 견줄 것이다.

萬歷十年壬午 月
日 立

만력 10년(1582) 임오 월 일 세우다

大匡輔國崇錄大夫
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監春秋館事盧
守愼 撰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령 경연감
춘추관사 노수신 짓고.

嘉善大夫同知敦寧
府事南應雲 篆

가선대부 동지 돈령부사 남응운 전액하고

成均進士韓濩 書

성균 진사 한 호 쓰다

현오국사탑비(玄悟國師塔碑)

贈諡玄悟國師碑銘
高麗國大華嚴浮石
寺住持贈諡玄悟國
師碑銘 并書

朝散大夫左散騎常
侍翰林學士寶文閣
學士知制誥兼太子
賓客賜紫金魚袋臣
李知命□□□

入內侍文林郎將作
小監國學直講充史
館修撰官兼太子中
允賜紫金魚袋臣柳
公權□□□

蓋聞 佛之道難成
言之使人悲酸愁

若其始學也弃絕骨
肉入山林衣麻布自
身口意莫不有禁戒

茹若含辛精修□□
□□□□□□□□□
□□□□醫離□蓋
人情好逸樂而惡辛

증시현오국사 비명

고려국 대화엄 부석사 주지 증현오국사 비명
명서

조산대부 좌산기상시 한림학사 보문각 학사 지
제교 겸 태자빈객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
은 신 이지명이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짓고

입내시 문림랑 장작소감 국학직장 총사관 수찬
관 겸 태자 증윤에 자금어대를 하사받은 신 유
공권은 조칙(詔勅)에 의하여 비문을 쓰다.

대개 듣건데 부처님의 도를 성취하여 어려움
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를 듣는 사람들이 현해
상(懸解想)을 이르켜 비수(悲愁)에 빠질 수가
있다.

누구나 그를 배우기를 시작하면 골육을 던져 버
리고 산림에 들어가 삼베옷을 입고 스스로 신
(身), 구(口), 의(意)를 금계(禁戒)하지 아니함이
없다.

쓴 것을 먹으며 매운 것을 머금고(온갖 신고와
고초를 겪으며 각고 정진한다는 뜻) 정미롭게
- 14字缺 - 닦아 모두가 - 1字缺 - 아니다.
대개 사람들의 상정(常情)은 일락(逸樂)을 좋아

勤也何況_田子弟生
 於富貴嗜欲玩好日
 陳於前而沉迷荒惑
 至死不悟滔滔皆是
 迺_田□□□□□□□□
 □□□□□□證□□
 百_田無焉可不嘆哉
 唯我 國師_田此批
 糖芻豢涕唾爵祿脫
 屣不顧厭煩求寂樂
 善無獸出於天性以
 謂_田□□□□□□□□
 □□□□□□□□_田
 田不知幻身實_田諸
 佛

□稱是性乃說_田國
 色空_田寄理事□明
 磨鏡_田光光由中出
 焦模見像匪_田□□
 □□□□□□□□
 □□□□□□□□
 誠求正覺_田如 同
 國_田乃歸心服_田終始
 不怠可不謂希有者
 乎

하고 행동은 싫어하거늘 어찌 하물며 왕가의
 자제로서 부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기욕(嗜欲)
 과 완호(玩好)들이 날마다 목전에 진열되어 그
 에 빠지고 유혹되어 죽음에 이르러서도 깨닫
 지 못하고 도도히 생사의 물결에 따라 흘러감
 에 있어서라! 이러한 것은 모두 - 11字缺 -
 수(證) - 2字缺 - 백_田무(百_田無) 어찌 가히
 탄식하지 아니하겠는가? 오직 우리 국사 스님
 께서 이와 같은 비당(批糖, 쪽정이나 겨 번잡
 한 일, 복잡한 일)과 추환(芻豢: 풀을 먹는 畜
 類와 곡식을 먹는 畜生)을 불쌍히 여겨 부귀와
 벼슬을 콧물이나 침처럼 천시하여 마치 현실
 을 버리듯 영원히 돌아보지 아니하고, 번거로
 움을 싫어하고 고요한 곳을 좋아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품성으로서 위(謂) - 14字缺 - 물 위에 뜬 거
 품과 같아서 환신(幻身)이 실로 제불(諸佛)의
 법신(法身)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진성(眞性) 중에서 설법하시어 화
 업의 색과 공(空)이 민멸(泯滅)함이 리(理)와
 사(事)를 함께 밝혔다. 거울을 갈아 광명이 드
 러남에 있어 그 광명이 거울 속으로부터 나오
 며 모형을 태우고 불상이 나타나는데 그 불상
 이 모형 밖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다. - 14字缺
 - 일(一) - 3字缺 - 진실로 정각(正覺)을 구함
 에는 동교(同教: 화업중에서 말하는 동교(同教
 一乘의 약칭) 교리만한 것이 없다. 이에 귀의
 하는 마음으로 복용(服膺)하되 처음부터 끝까
 지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희유(希有)하
 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師諱宗璘字重之俗
 性王氏帶方公□□
 □□□□□□□□
 □□□□□□□□
 □□器宇宏深與群
 兒異焉每見浮圖繪
 像恍□□□□□□
 敬至於飲食少有薰
 腥氣則風疹遍身□
 □□□□□□□□
 □□爲塵綱所□□
 於斯可見矣年

甫十三設□院□請
 度爲沙門 仁廟嘗
 恐 大覺餘風無人
 得嗣及是欣然 命
 圓明國□□□□□
 □□□□□□□□
 □□□□□□□□
 因自日喜□文字年
 當十五就佛日寺受
 戒乃辛酉十二月也
 仁廟嘗於內道場請
 □師講論日具聽之
 不

倦皇統□□□□□
 □□□□□□□□
 □□於毅宗元年丙
 寅下 批爲首座歷
 住歸信國泰重興浮

스님의 휘는 종린(宗璘)이요, 자는 중지(重之)이
 며 속성은 왕씨이다. 대방공(帶方公) - 13字缺 -
 주(主) - 2字缺 - 불(不) - 3字缺 - 기우(器宇:
 마음의 그릇, 인품의 도량)가 굉심(宏深)하여 다
 른 아이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항상 부도와
 불상을 볼 때마다 문득 불면(佛面)을 쳐다보고
 공손히 예경(禮敬)하였으며 심지어 음식에 조금
 이라도 누린내와 비린 냄새가 풍기면 두두러기
 가 온 몸에 나타났다. - 11字缺 - 진강(塵綱)에
 얽매인 바가 되지 않았음을 - 2字缺 - 여기에
 가히 엿볼 수 있겠다.

나이 겨우 13살 때 교(設) - 1字缺 - 원(院) - 1
 字缺 - 간청하여 득도(得度)하고 법문(法門: 출
 가하여 수도하는 이의 총칭)이 되었다. 인묘(仁
 廟: 고려 인종)께서 일찍부터 대각(大覺)의 여풍
 (餘風)을 계승 발전시킬 사람이 없을까 염려하
 다가 이 때에 이르러 기꺼히 원명국사(圓明國
 師)에게 명하여 - 11字缺 - 시시(示時) 인자일
 (因自日) - 1字缺 - 희문자(喜文字), 15살 때 불
 일사(佛日寺)에 나아가 비구계(比丘戒)를 받았으
 니 신유년(1141) 12월이었다. 인묘께서 항상 궁
 내의 도량에 국사를 청하여 강론하였는데 청중
 이 날마다 경청하고 조금도 게을리하는 이가 없
 었다.

황통(皇統) - 15字缺 - 의종(毅宗) 원년(1146)
 병인에 비서(批書: 신하가 상주한 장계(狀啓)끝
 에 임금이 스스로 칙답(勅答)을 쓰는 것)를 내
 려 수좌(首座)로 진급하였다. 그후 귀신(歸信)
 국태(國泰) 중흥(重興) 부석사(浮石寺) 등에 차례

石等寺然方丈蕭然
無十金之儲晏如也
蔚爲宗室軌□□□
□□□□□□□□□
□□□師早蘊道德
爲一代雅望迺爲
僧統

皇統七年丁卯□月
迎入于大內遂命
師手削大弟頂髮禮
儀之盛古無與□□
□□□□□□□□□
□□□以師□□爲
歲在庚寅今上踐
祚仍加佐世之號辛
卯□秋召至內
殿賜滿繡袈裟一領

至冬百座會俾師
□□□□□□□□□
□□□月少不豫門
人請歸曰□之□
□矣□未呼醫□□
□□□六日二十九
日病革迺以手指
日沒處條然而化顏
色不變手足屈伸□
□□□□□□□□□
東南園法園上聞
之震悼輟朝三日使
近致祭

로 주지(住持)하였다. 그러나 방장실(方丈室)은 소연(蕭然)하게 텅비어 있어 십전 값어치의 저축물도 없었다. 항상 안여(晏如)하여 올창한 종실(宗室, 큰 스님)이 되어 궤(軌) - 14字缺 - 스님께서는 일찍부터 도덕을 쌓아 일대에 걸쳐 사대부층의 아망(雅望)의 대상이었으므로 이에 배명(拜命)하여 승통으로 추대하였다.

황통 7년(1147) 정묘 2월에 대내(大內: 궁궐)로 영입하여 드디어 스님에게 명하여 손수 대제(大弟)의 머리를 깎아 주도록 하였으니 예의의 극성스러움이 자고로 비길데가 없었다. - 13字缺 - 스님으로써 주도하도록 하였다. 경인년(1170)에 이르러 지금의 명종 임금께서 즉위하여 다시 좌세(佐世)란 호를 첨가하였다. 신묘년(1171) 가을에 내전으로 초빙하여 만수가사(滿繡袈裟) 일령(一領: 한바탕)을 하사하였다.

그 해 겨울에 이르러 백고좌회(百高座會)를 열고 스님으로 하여금 - 11字缺 - 월(月)에 조금 몸이 불편하므로 문인의 의사를 청하니 스님께서 이르되 - 2字缺 - 의(矣) - 1字缺 - 미(未) - 1字缺 - 의사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6월 29일 병이 매우 심하여지므로 스님은 손으로 일몰처(日沒處)를 가르키면서 숙연히 입적하였다. 안색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며 수족의 굴신도 생전과 같았다. 개경 동남쪽 귀법사(歸法寺)에 유해를 임시 안장하였다. 임금께서 부음을 들으시고 크게 진도(震悼)하여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근신으로 하여금 치제(致祭: 이지관, 역대 고종비문에서는 “장사와 49제를 지내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음)하였다.

因七月十六日遣殿
 中少監任忠質尚書
 戶部員外郎崔光裕
 內侍含慶殿錄事□
 □□□□□國師贈
 諡曰玄悟是月十七
 日茶毗于東林山麓
 是年十二月歸厝于
 長湍縣大倬山也比
 葬五色氣如虹行隨
 柩車見者咸驚異之
 自□□□□□骨
 皆□□□□之春秋
 五十三臘三十九

師天資謙謹以儉約
 翫身不求贏餘喜慍
 不形於色好善忘勢
 雖至廝養莫不待之
 以厚焉臣嘗聞之傳
 □富與貴是夫人之
 所欲也不以其道得
 之不處也又曰不義
 而富且貴於我如浮
 雲

師以宿德秩高於僧
 統則以道處貴也儉
 約不求功餘則耻不

7월 16일 전중소감 임충질(任忠質)과 상서호부
 원외랑 최광유(崔光裕)와 내시 함 경전록사 - 6
 字缺 - 등을 보내어 국사로 책봉하고 시호를 현
 오(玄悟)라 추증하였다. 그리고 이달 17일 동림
 산록에 다비하고 이해 11월 장단현 대탁산에 안
 조(安厝)하였다. 장사하는 날에 하늘로 뻗은 5색
 기운이 무지개와 같아서 영구차를 따라갔으니
 보는 사람이 모두 그 비상함을 경탄하였다. 자
 (自) - 6字缺 - 골(骨), 개(皆) - 4字缺 - 춘추
 는 53세요. 법랍은 39세였다.

스님은 천성이 겸근(謙謹)하여 검소와 절약으
 로 몸을 단속하고 생활에 풍요로움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겁거나 불쾌함을 얼굴 표정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며 선행은 좋아하고 권세
 에 아부하지 않았다. 비록 사양(廝養: 비천한
 일을 하는 일문, 땀나물을 하거나 마소를 이끄
 는 마부)한 사람이라도 휴덕하게 상대하지 않
 음이 없었다. 신이 일찌기 문지전(聞之傳) - 1
 字缺 - 부귀는 사람들이 구하고자 하는 바이
 나 도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면 취할 것이
 아니다. 또 이르기를 “불의하게 얻은 부귀는
 나에게 있어서 마치 부운(浮雲)과 같다 라고
 하였다.

스님은 도덕의 아망(雅望)에 따라 승통에 추대
 되었으니 이는 도덕으로써 귀하게 여겨진 것이
 다. 항상 검약하여 가득히 채워 충족하기를 구
 하지 아니하였은 즉, 불의의 부를 부끄럽게 여긴

義之富也以貴下賤
則恭而有禮固豈固
所謂篤行君子耶

且至人邇乎天地之一氣以生爲附贅懸疣以死爲決疣潰癰則雖化而爲鷄爲蟬爲鼠肝爲蟲臂亦何礙哉

所以 師之於疾病視死生爲一體不圖不醫順而歸則知 師之存心異乎人之存心也歟門人具狀以聞曰吾師之骨已赴宅垂宜有以誌之敢以誠請 上命臣知命銘之臣無它技粗巨文字立身无可□□□□以辭乃據門人所錄強序而銘曰

十方世界華藏垢塵師之游戲如海之鱗一去一來體道之眞大空之心萬像之身濯濯水月英英花春

것이다. 존귀한 위치에서 스스로 하천하게 처신함은 공손하고 예의가 있기 때문이니 어찌 옛 사람이 말하는 독행군자(篤行君子)가 아니겠는가?

또 지인(至人:도를 닦아 지극한 경지에 달한 사람)이 천지의 일기에 유희하여 살아있는 것을 마치 군더더기와 매달려 있는 혹으로 여기며, 또한 죽음으로써 혹을 자르고 등창을 도려내는 것으로 여겼으니 비록 변하여 닭이 되고 매미가 되며 서간(鼠肝)도 되고 충비(蟲臂:모두 하찮은 것에 비유하는 말)도 되니 또한 무엇을 그리워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스님께서서는 질병에 대하여 사와 생을 보되 동일체로 여겨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치료하지도 아니하여 - 1字缺 - 조용히 - 1字缺 - 입적하였으니, 곧 스님의 마음 가짐이 일반인들의 마음 가짐보다 특이함을 알 수 있다. 문인들이 행장을 갖추어 임금께 건의하기를 “우리 스님의 유골이 이미 음택에 나갔으니 하조(下詔)하시어 행적비를 세울 수 있도록 감히 성청(誠請)하옵니다”라 하였다. 그리하여 임금께서 신(臣), 지명(知命)에게 명하여 비명을 지으라 하였으나, 신은 별다른 재주가 없고 대강 문자를 조금 알 뿐이어서 굳이 - 4字缺 - 사양 하였으나 마지 못하여 문인이 기록한 행장에 의거하여 억지로 서술하고 명에 이르되

시방세계 화엄찰해(華嚴刹海) 어느 곳이든/진진찰찰(塵塵刹刹) 미진국토(微塵國土) 두루 다하여/ 자재하게 유희하신 스님의 경지/ 넓고 넓은 바다 속의 비늘과 같네/ 열반세계 가고 음이 돌이 아니고/ 터득하신 진여세계 무하유(無何有)

劫風忽起兮身□□
 囹圄雲散盡兮心月
 圓輸既已能福利日
 歸兮風恬浪靜於日
 國囚焉知却向他方
 兮 慈雲甘露而行
 化如神鏤冰琢雪功
 跡略陳流芳萬古久
 而彌圓

大定二十五年乙巳
 二月日門人等奉宣
 瑞峯寺立石興王寺
 大師敏求圖字

일세/ 이름 없고 모양없는 공(空) 같은 마음/ 두
 두물물(頭頭物物) 삼라만상 몸 아님 없네/ 휘황
 찬란 그 광명은 수월과 같고/ 아름다운 향기는
 춘화(春花)와 같네/ 괴겁(壞劫) 때가 이르러서
 겁풍(劫風)이 부니/ 귀중하던 그 신체는 간 곳
 이 없네/ 무명구름 사라진 후 맑은 하늘에/ 마
 음 달이 온 세계를 비추는구나/ 스님께서 삼한
 국(三韓國)을 보호하시어/ 전쟁바람 사라지고
 태평이 되다/ 어찌하여 딴 곳으로 가시렵니까!/
 자비구름 널리 덮혀 감로를 뿌려/ 행원(行願)따
 라 교교함이 신(神)과 같을세/ 빙설(氷雪)에다/
 글 새기듯 힘을 다하다/ 위대하신 행적 간략히
 적어/ 천만년 지나도록 길이 전하여/ 지날수록
 더욱 더욱 새로워지다.

대정 25년(1185) 을사 2월에 문인(門人) 등이 왕
 명을 받들어 서봉아래 비를 세우고
 흥왕사 대사 민구(敏求)는 글을 새기다.

※ 본 자료의 원문은 <조선금석문집>과 李智冠
 의 <역대고승비문>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게재하였고 번역문은 이지관의 역
 대 고승비문 및 경기도 불적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였음.

□ 속의 글자는 결자를 추가 확인한 것과 오기
 를 바로잡은 것임

홍계희(洪啓禧) 墓碣

在家篤倫爲國任謗
 師友易聲色詩書作
 茶飯其唯吾澹窩公
 □□□□□□□□
 □□□□□□□□
 □□□□□□□□人
 有定者天宜其爲神

所勞福祿未艾也公
 自少聰敏子諒學語
 已能辨淑慝省事以
 □□□□□□□已□
 □□□□□□□□□
 □其在穎宮率諸生
 捲堂以嚴懲討爲持

平請金聖鐸正法以
 其事關 聖母也嘗
 以賑事往來北關得
 朴文秀情犯甚悉及
 文□□□北也公慮
 其稔惡按發其爲伯
 時贓汚乙亥夏徵誅
 闡義昭鑑成公同諸
 臣纂修而知罪在公
 群憾蝟起於是兇徒
 側目伺釁者衆矣公
 見邦本日瘁幾無以

집안에 있어서는 인륜(人倫)을 두터이하고 국가를 위하여는 임방(任謗:任放, 예의에 구애받지 않고 행함)하였으며 사우(師友:선생과 친구)에게는 성색(聲色:언어와 안색)을 편히 하였고 시서(詩書)는 차를 마시듯 한 사람은 생각건대 우리 담와공(澹窩公:洪啓禧) -23字缺 - 사람이 정한 바가 있는 것은 하늘이 마땅이 신(神)과 더불어

그 노고에 복록(福祿)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아직 보답함이 없도다. 공(公)은 어려서부터 총민(聰敏)하고 자량(子諒:慈諒)하였으며 학어(學語)에는 능변(能辯)하여 숙특(淑慝:선행과 악행)을 잘 가렸다. 성사(省事:어릴 때, 유년시대) - 6字缺 - 이(已) - 10字缺 - 반궁(穎宮)에 있으면서 제생(諸生)을 거느리고 권당(捲堂)함에 엄징(嚴懲)을 당하였다.

지평(持平)이 되어서는 김성택(金聖鐸)에게 정법(正法)으로 청하였는데, 그 일이 성모(聖母:인현왕후)와 연루되기도 하였다. 일찍이 구휼(救恤)의 일로 북관(北關:함경도 지방)을 왕래하였는데, 박문수(朴文秀)가 정곡(情曲:간곡한 정)을 얻어 저촉됨이 매우 심하고 - 3字缺 - 북야(北也). 공은 그 임악(稔惡:나쁜 일을 쌓음)을 염려하여 그 지방관의 장오(贓汚)함을 밝혀냈다. 을해년(乙亥年:1755년, 영조 31) 하징(夏徵)이 주살(誅殺)되면서 의(義)를 밝혀 소감(昭鑑:하느님이나 귀신이 환히 내려다 봄)되니 공은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찬수(纂修)하여 죄가 있음을 밝혀냈다. 공은 여러 무리들이 위기(蝟起:고슴

爲國則寧專意民瘼
少酬夙志務積誠懇

屢進而後入世所稱
均役事是也其言橫
豎反復動至數千萬
指陳利病鑿鑿中窾
畢竟所行雖不盡如
公志要之不失爲一
半之捃利歸於民而

在公果何得哉當是
時交章攻公者往往
全昧本事問焉莫之
對公則□□□□不
□□□也及至亮濟
變書出繼而有朴志
源之誣則雖其事件
不同

乃其旨意所在必無
公而後已公於是左
右受敵而早晚必退
□□□□□□□□
□□□□□□戒忤
旨被謫閒又斥補罷
削相繼辛巳五

도치의 털이 일어남을 지칭)를 근심하는데, 이에 흉도(兇徒)들은 측목(側目: 무서워하여 바라보지 못함)하여 혼단(矍端)을 엿보는 자가 많았다. 공은 방본(邦本: 국가의 근본)이 날로 췌췌(瘳瘳)하여 거의 없어짐을 보고 국가를 위하여는 민막(民瘼: 백성의 고통)을 줄이는데 전의(專意)하여 숙지(夙志)에 힘쓰고 성간(誠懇: 誠懇, 誠意)을 여러 차례 올려 후에 받아들여졌으니 세상에서 이르는 균역(均役)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의 횡수(橫豎: 橫豎說去)함이 계속 반복되어 수천만에 이르게 되자 그 속을 착착(鑿鑿: 의론이 정확한 모양)하게 하여 이병(移病)을 지진(指陳)함에 필경(畢竟) 그 행한 바는 공의 뜻과 같이 다하지 못하였으나 중요한 요목들은 잃음이 없이 절반의 구원을 이루어 이득이 백성에게 돌아갔으니

공은 과연 무엇을 얻었겠는가. 이때를 당하여 서로 장소(章疏)로 공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이 일에 대한 아주 우매한 질문을 하고 막막(莫莫)하게 공을 대한 즉 - 4字缺 - 불(不) - 3字缺 - 야(也).

양제(亮濟: 밝아서 막힘이 없음)에 이르러 글을 고쳐 출계(出繼)하였다. 박지원(朴志源)의 무고(誣告)가 있음에 비록 그 사건이 같지 않고

그 지의(旨意: 뜻)의 소재(所在)가 반드시 공에게 없었으나 이후 공에게 미치자 이에 좌우에서 적(敵)으로 몰려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몰려나 - 14字缺 - 계(戒). 왕의 뜻을 거스려 유배를 당하였다. 그 사이에 또 배척되어 관직을 삭탈당함이 계속되었다. 신사년(辛巳年: 1761, 영조 37)

月事尤人所難言而
奔奏 兩朝流涕陳
之幾陷罔測公之上
下無交又如此使公
在乙巳初政端笏諸
賢聞其昌言當如何
也陳建一奏在公又

爲末而修飾辭命關
係尤大以是靖獻其
志亦戚矣其他文廟
之祝華陽之刻筆削
具存無不漑鬻樂助
其若心所在蓋非一
日也公在泉門恩義

兩盡實有神明父母
之思先生亦愛重之
無行不與公亦無事
不請非同門諸人可
及也先生晚年酬應
益繁文字多散佚不
收者公實始手爲諸

人倡其衰然成帙可
傳於後公之力也然
卒不得行於世又誰
之咎也公生平好士
不擇親疎又不擇貴
賤苟有寸長無不爲
之先後士亦以此爭

5월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더욱 난언(難言)이
홍홍해져 양조(兩朝)를 분주(奔奏)하여 눈물을 흘
리며 이를 진주(陳奏)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로 많았으니 공의 위 아래로 교유함이 없었음이
이와 같았다. 공은 을사년(1725년)초에 정치가 바
르게 되고 제현(諸賢)들이 그 사이에 창언(昌言:
옳은 말)을 계속함에 상소(上疏)를 올림에 있어
공은 또

말석(末席)이 되어 사명(辭命)을 수식하는 관계
가 더욱 크고 이로써 정헌(靖獻: 선왕의 혼령에
성의를 다하는 일)하는 그 뜻 또한 척연(戚然)하
였다. 기타 문묘(文廟)의 축(祝)과 화양(華陽)의
각(刻)의 필삭(筆削)을 함께함에 시루에 물을 주
지 않음이 없듯이 즐거움으로 하였으나 그 고심
(苦心)의 소재 역시 대개 하루가 아니었다. 공은
천문(泉門)의 은의(恩義: 두터운 情誼)가 있어

실로 부모를 사모하는 신명(神明)이 돈독하여
선생(先生) 또한 이를 애중(愛重)하게 여겨 그
행실에 더불지 않음이 없었으며 공 또한 청하지
않는 일이 없어 동문(同門)의 여러 사람들이 가
히 미치지 못하였다. 선생이 만년(晩年)에 수응
(酬應)함이 더욱 잦아 문자(文字)가 산일(散佚)
하여 한데 모으지 못한 것이 많았는데, 공은 실
로 처음부터 손수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것들을 모아 책을
만들어 후세에게 전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공의
힘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세상에서 행함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 또한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공은
평생 선비를 좋아하여 친소(親疎)를 가리지 않
았고 또 귀천(貴賤)을 따지지 않아 단지 촌장
(村長)이라 할지라도 그 선후(先後)를 삼지 않음
이 없었으니 선비들 또한 이로서 다투어

附下風自少至老自朝至暮應接不倦各得歡心來往慶弔所求必先賙窮恤急常若不及交游之盛殆近世所無其於書亦然古今一親疎也雅

俗一貴賤也苟以書名者無不染公之指亦自朝至暮自少至老蓋無食息閒暇也孟子之論善士曰友天下未足又尙論古之人公實有焉其爲

文章本之經術切近事情操筆立就粲然可觀登壇諸公顏有厚者公議爲公恨甚然此在公特餘事耳人之知不知何有焉公才氣英發而又能

德以將之若論其眞不可及其事親孝奉祭祀以誠教子刑內必遵禮法自成門內典則求之易所稱家

하풍(下風:바람이 부는 방향, 즉 다른 사람의 아래)으로 의지하였다. 어려서부터 나이가 먹을 때까지 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응접(應接)하는데 게으름이 없어 제가꿈 환심(歡心)을 얻었고 경조사를 왕래함에 반드시 먼저 주섬(賙贍)하여 급한 것을 구휼하였음에 교유(交遊)의 성한 모습이 미치지 않은 바가 없어 거의 근세(近世)에 책에서도 그것을 보지 못했으니 고금(古今)에 친소는 하나라는 것과

아속(雅俗:고상함과 비속함) 또한 귀천(貴賤)과 한가지라는 것이다. 진실로 책의 이름으로 공의 뜻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없음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려서부터 늙어서까지 대개 밥을 먹을 여유 조차 없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맹자(孟子)의 선사(善士)에 대하여 말한 “천하(天下)를 벗함이 족하지 않다”는 것 또한 고인(古人)의 공실(公實)을 상론(尙論)함이였다.

문장(文章)에 있어서는 경술(經術)로써 본(本)을 삼아 사정(事情)에 절근(切近)하였고 조필(操筆)하여 뜻을 세움에는 찬연(燦然)하여 가히 불만하였다. 등단(登壇)하여서는 제공(諸公)들의 안색이 후안(厚顔)한 것으로 공의(公議)로 삼음에 공(公)은 이를 매우 한스럽게 여겼으나 이것을 공은 특히 여사(餘事)로 여길 뿐이었으니 사람을 알고 알지 못함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는 것인가. 공은 재기(才氣)가 영발(英發)하였고

또 덕(德)이 능하여 장래가 기대되었으나 그 진성(眞性)을 논함에는 가히 미치지 못하였다. 부모를 섬기는데 효(孝)를 다하였고 제사(祭祀)를 받드는데는 성경(誠敬)으로 하였으며, 자식을 가르침에는 본보기를 보여 따라하게 하였다. 집안에서는 반드시 예법(禮法)을 준수하여 스스로

人之義藹有不合者
族子無歸遠處鄉曲

以屬則袒免之外也
平日又無面目而公
取養如子嫁娶及時
嗚呼其眞不可及也
已公生有異夢骨法
清瘦風前脩竹望之
猗猗然紫髯瞭眸雙

着如畫毛髮皆精神
人有相公者退而曰
吾觀某公睛貫腦後
每見每進一格眞大
貴人也乙酉公以侍
從臣父卿宰年六十
以上子弟承 上命

設小酌于家公不許
絲竹俗聲只宵雅肄
三寂寥短章耳 上
特賜御筆以褒異之
蓋公所性不存也金
丈濟大嘗謂人曰色
能誤人在古難免如

성문(成門)함에 내전(內典)인 즉 이를 구하여
쉽게 풀이하여 집안 사람들의 의리(義理)로 삼
았고 부분적으로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즉
자(族子)들이 돌아감이 없었으며, 원처(遠處)의
향곡(鄉曲)에 있는 족속인

즉 단문(袒免)에서 제외하였고 평일(平日)에는
또 면목(면목)이 없이 하였다. 공은 양자(養子)
를 취하여 자식과 같이 대하였으나 가취(嫁娶)
할 때에 미처서는 그 진실함이 이르지 못하였으
니 오호(嗚呼)라! 공은 태어날 때 이몽(異夢)이
있었고 골법(骨法)이 청수(淸瘦)하여 바람 앞
에서도 대나무와 같이 꼳꼳함에 이를 바라봄의 의
의(猗猗)하였다. 그러나 자염(紫髯)의 요모(瞭眸)
를 함께 갖추어

그림을 보든 듯 하였고 모발(毛髮)은 모두 정
결(精潔)하여 신인(神人)의 모습을 보는 듯 하
였다. 퇴이(退而)가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보
니 공의 눈이 뒤통수를 꿰뚫어 매번 보거나
나아갈 때 마다 법식(法式:자품)이 있으니 참
으로 큰 귀인(貴人)이로다”라고 하였다. 을유년
(영조 41) 공은 시종신(侍從臣)으로 아버지가
경재(卿宰)로 나이 60세 이상인 자제는 왕명
(王命)을 따라

집에서 소작(小酌)을 베풀라고 하였으나 공은
사죽(絲竹)과 속성(俗聲)을 허락치 않고 단지 작
은 악기를 어루만지며 적료(寂寥:적막)한 짧은
문장을 읊을 뿐이어서 왕이 특별히 어필(御筆)
을 하사하여 그 가락함을 포상하였으니 대개 공
의 성품이 부존(不存)함에 따른 것이었다. 김장
제대(金丈濟大:金濟大)가 일찍이 사람들에게 일
러 말하기를 “색(色)에 능하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이 옛부터 어려움을 면함이 있는 것은

某台之獨無所累神仙其人也公嘗問余曰近日何所事曰高枕耳公笑曰何相隱之深也余曰敖惰凶德也以公之勤謙如此故有弟如此此必

有對之理也公又笑曰豈其然乎蓋勤固爲公盛美而其一味退遜謙挹不居又公本色然也今 上辛卯公年六十九十月丁丑卒于藥山觀德

堂長子任所也十一月歸殯于江泉亭舍公所愛也翌年正月新卜于龍仁負西之原以丙辰葬是爲慕賢村而鄭圃隱墓院在焉陶菴李先生又

嘗講道其間幾里而近所謂泉門者也公早自得師未老得閒南北專對蠻夷知名遭時險巇卒以善終

그대가 유독 허물이 없음이니 신선(神仙)이 바로 그대로다”라고 하였다. 공이 일찍이 나(洪啓能)에게 물어 말하기를 “근래에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하여 말씀드리기를 “고침(高枕)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어찌 서로 숨김이 깊은가”라고 하심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타(敖惰: 오만하고 게으름)는 흉덕(凶德)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의 근점(勤謙)이 이와 같은 까닭에 동생들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았으니

이것은 반드시 서로 응답하는 도리였다. 공은 또 웃으며 말하기를 “어찌 그러하겠는가”라고 하셨다. 대개 근고(勤固: 부지런하고 진실함)는 공의 성미(盛美: 훌륭하고 아름다움)이어서 일미(一味)에 퇴손(退遜: 겸손)하고 겸읍(謙挹:挹退)하지 않음은 또한 공의 본색(本色)이었다. 금상(今上: 영조) 신묘년(영조 47) 공의 나이 69세로 10월 정축일(丁丑日) 약산(藥山)의 관덕당(觀德堂)에서 돌아갔으니

장자(長子)의 임소(任所)였으며, 11월 강천정사(江泉亭舍)의 빈소(殯所)로 모셨으니 공이 좋아하던 곳이었다. 이듬해 정월 새로이 용인(龍仁)의 부서(負西)의 언덕에 장지(葬地)를 정하고 병진일(丙辰日)에 장례를 지내니 이곳이 모현촌(慕賢村)으로 정포은(鄭圃隱:鄭夢周) 묘원(廟院)이 여기에 있고 도암(陶菴) 이선생(李先生:李緯)

또한 일찍이 여기와 가까운 곳에서 도(道)를 강론(講論)하였으니 소위 천문(泉門)이라는 곳이다. 공은 일찍부터 스스로 스승을 구하여 나이 들지 않아 한중취(閒中趣)를 얻어 남북(南北)으로 전대(專對:독대)하였고 만리(蠻夷:오랑캐)

世推完福可但祿位
子姓之大而已哉趾

海將立石以表之俾
余記其陰余既以不
時爲大悲則庶及事
爲少效且知又不阿
宜莫如余姑存什一
竊自附於古人九原
之觀若其世次履歷

將大碑是俟此不重
出公字純甫澹窩其
號也 上曰澹泊故
云

萬曆壬辰三回甲五
月日三從弟啓能謹
述從子述海泣書

에게 지명(知名)되었다. 험희(險巖)한 때를 만나
마침내 선함으로 세상을 마쳤으니 그 복(福)을
추앙함이 마땅하여 다만 녹위(祿位)가 자성(子
姓: 자손)들에게 크게 미치리라.

지해(趾海)가 장차 비석을 세워 이를 표(表)하고
자 하여 나로 하여금 그 음기(陰記)를 짓도록
하였으나 내가 이미 뜻하지 않게 커다란 슬픔이
있었던 즉 여러 가지 일이 있어 힘씀이 적었고
또 아는 것 또한 의자할 바 없어 마땅히 나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하지만, 잠시 그 십일(什一:
십분지일)이라도 삼가 스스로 고인(古人)의 구
원(九原: 묘지)에 붙이노라. 그 세차(世次)나 이
력(履歷)은

장차 큰 비석이 세워지기를 기다리노니 이것은
먼저 것이 중출(重出)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공의 자(字)는 순보(純甫)이고 담와(澹窩)은 그
호(號)이니 왕께서 담박(澹泊)하다고 하신 까닭
이다.

만력(萬曆) 임진년(壬辰年) 3회갑(回甲: 1772년,
영조 48) 5월 일

삼종제(三從弟: 8촌동생) 계능(啓能)은 삼가 기
술하고 종자(從子: 조카) 술해(述海)는 울면서
쓴다.

황씨묘지(黃氏墓誌)

龍仁縣東寒泉之洞
參議 贈領議政李
公諱有謙衣履之藏
又東北而五里有谷
曰廉退其小室黃氏
葬焉黃系出昌原府
院君石奇之後高祖
判書衡 世宗朝名
將父悅以守闕衛將
死於丙子難

當難時獨能入家廟
負七主而行避兵獲
免參議公聞其賢卜
焉小心奉巾櫛不肯
爲子孫立產業

參議公卒吾祖考議
政公事之敬謹雖異
室日往見得一味輒
曰吾小母議政公仲
季三人俱貴顯戊辰
以後禍故稠疊每泣
曰吾老而不死不幸
見此

용인현(龍仁縣) 동편 한천지동(寒泉之洞:현재 이 동면 천리)는 참의(參議)를 지내고 영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된 이공(李公) 휘(諱) 유겸(有謙)의 의리지장(衣履之藏:墓所)이다. 또 동북 방향으로 5리쯤 떨어진 골짜기가 있었는데 염퇴(廉退)라고 하니 그 소실 황씨(黃氏)의 장지(葬地)이다. 황씨(黃氏)는 창원부원군(昌原府院君) 석기(石奇)의 후손으로 고조(高祖)는 판서(判書) 형(衡)으로 세종(世宗)때 이름난 장군(將軍)이었다. 아버지 열(悅)은 궁궐(宮闕)을 수비하던 위장(衛將)으로 병자난(丙子胡亂) 때 돌아갔다.

난(難)을 당했을 때 오직 혼자힘으로 가묘(家廟)에 들어가 신주(神主) 7주(七主)를 어깨에 매고 병난(兵難)을 피하여 면(免)함을 얻으니 참의공(李有謙)께서 이를 들으시고 그 어짐에 감탄하였다. 봉사(奉事)하는데 소심(小心)하여 건줄(巾櫛)에 불공(不肯)하였으며 자손들을 위해 산업(產業)에 뜻을 세웠다.

참의공(參議公)께서 돌아가시자 우리 조고(祖考:祖父) 의정공(議政公:李翻)께서 이를 섬기는데 경근(敬謹)하여 비록 이실(異室:小室)이라 하더라도 날마다 가서 문안하였고 맛있는 음식을 얻는 날이 있으면 번번이 말씀하기를 “우리 소모(小母:昌原黃氏) 의정공(議政公) 둘째 동생 이 세사람은 귀현(貴顯)을 모두 갖추었도다” 라고 하였다. 무진년(戊辰年:1688년, 숙종 14년) 이후 화(禍)가 조침(稠疊:계속해서 겹치는 모양)함에 매양 울며 말씀하기를 “내가 늙어서도 죽지 않으니 불행이도 이런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後十年議政公兩男
判書觀察公復相繼
登朝則又泣曰幸吾
不死而見此

余幼而及見之黃髮
皤背目光猶炯炯喜
談吾家故事歷歷可
聽常曰仁孝恭儉是
李氏家風宜爾子孫
熾而昌

蓋其通古今識事理
往往有男子不及處
見飢寒者恒然若在
己天性然也

戊寅十二月十一日
卒去其生 萬曆戊
午八十一三子翬習
翬皆先亡長季進士
女適尹撥亦進士翬
三男晚徵進士別提
晚膺司果晚增主簿
晚膺出後習尹壻子

10년후 의정공(議政公)의 두 아들 판서공(判書公)과 관찰공(觀察公)이 서로가 연이어 등조(登朝: 조정에 出仕함)하게 되니 또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기를 “다행이도 내가 죽지 않으니 이런일도 보는구나” 라고 하였다.

내가(碑文의 選者 李緯) 어렸을 때 부인을 보건대, 황발(黃髮: 누래진 노인의 머리)에 태배(皤背: 늙은이. 나이가 많아지면 등에 복어같은 주름이 잡히므로 이렇게 말함)도 눈빛은 오히려 형형(炯炯: 빛나는 모양)하였다. 우리 집안의 고사(故事)를 말하기를 좋아하였는데, 역력(歷歷)함이 가히 들을 만 하였다. 항상 말씀하시기를 “인효(仁孝)하고 공검(恭儉)함은 바로 이씨(李氏) 집안의 가풍(家風)이니 너의 자손들은 마땅히 치창(熾昌)할 지어다” 라고 하였다.

대개 고금(古今)을 통하여 사리(事理)에 밝았으며 왕왕(往往: 때때로) 남자가 있는 곳에는 그 곳에 가지 않았다. 기한(飢寒: 배고프고 추위에 떨)하는 사람을 보면달연(惘然: 놀라는 모양)하여 자신의 일과 같이 여겼으니 이는 천성(天性)이라 하겠다.

무인년(숙종 24년) 12월 11일 돌아 가셨는데, 태어나신 연도는 만력(萬曆) 무오년(광해군 10년)으로 나이 81세였다. 아들 셋을 두었으니 휘(翬)와 습(習), 그리고 학(翬)인데 모두 먼저 죽었는데 장남과 막내는 진사(進士)를 지냈다. 딸은 윤발(尹撥)에게 출가 하였는데 역시 진사(進士)를 지냈다. 휘(翬)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만징(晚徵)은 진사(進士)에 올라 별제(別提)를 지냈고 만응(晚膺)은 사과(司果)를 지냈으며 만증

健教厚教心教曾玄
不盡載

(晚增)은 주부(主簿)를 지냈다. 만응(晚膺)은 습(習)에게 출계(出系)하여 후사(後嗣)를 이었고 사위 윤발(尹撥)의 아들은 건교(健教)와 후교(厚教), 그리고 심교(心教)이다. 증손과 현손들은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參議公曾孫某官綽
誌

참의공(參議公) 증손(曾孫) 모관(某官) 재(綽)는 지명(誌銘)을 짓다.

여

백

《 비문조사 탁본 》

목 영 회 : 용인문화원 부원장
이 응 준 :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이 인 영 : 향토문화연구소장
김 태 근 :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이 상 학 : 용인문화원 이사
이 종 구 :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이 상 정 : 용인문화원 총무과장
주 인 자 : 용인문화원 간사
노 은 경 : 용인문화원 회원

《 번 역 》

이 인 영 : 향토문화연구소장
김 성 환 :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관
題 字 : 茂谷 崔 錫 和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자료총서목록

년 도 별	향 토 지 발 간 명	저 자
1983년	내고장 민요	이인영, 홍순석
1984년	내고장 용인	이인영
1984년	내고장의 얼 -인물편-	홍순석
1985년	내고장 옛이야기	이인영, 홍순석
1986년	내고장의 얼 -유물유적편-	이인영
1987년	내고장 민속	하주성
1989년	내고장 용인 의병항쟁 및 독립운동사	이인영
1991년	내고장 용인 지지총람	이인영
1994년	용인군 시사년표	이인영
1995년	내고장 용인 인물총람	공 편
1996년	내고장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 강현모, 이용준
1997년	내고장 용인 문화유산총람	이인영
1997년	내고장 용인 북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 강현모, 이용준
1998년	내고장 용인 남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 강현모, 이용준
1998년	구성면지	공 편
1999년	조선시대의 용인·양지 사료집	이인영
1999년	서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 강현모
2000년	내고장 용인 금석문총람	이인영, 김성환

이

백

향토문화자료 18

내고장 龍仁 金石文總覽

2000년 1월 20일 인쇄

2000년 1월 31일 발행

發行人 : 龍仁文化院長 李憲珪

編輯人 : 龍仁文化院
 鄉土文化研究所長 李仁寧

印刷 : 利文出版社 02) 504-1600

<비매품> 이책은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지원금 일부를
지원받아 제작하였음.

여

백

